

軍



Military History

2018.12. 제109호

史

- 러시아함정 야꾸트호의 울릉도 조사의 과정과 내용(1903)
- 러일전쟁 이전 대한제국 원수부의 군무정책 강화와 군사 운영의 성격
- 오리엔탈리즘 관점으로 본 미군의 대반란전 실패 요인
- 쿠바 미사일 위기 시 미국의 해상차단 작전 성공요인 분석
- 기울어진 제2차 '세계'대전 통사
- 북한 조국보위후원회의 설립과 활동
- 병자호란 이전 조선의 군사력 강화 시도와 그 한계
- 임진왜란 시기 경상좌수군의 위상과 활동
- 고려시대의 안시성 위치 인식과 당 태종 눈 부상설의 검토
- 로마군의 철제 무구 보급체계의 변화

[서 평]

- 모택동 시대의 북한-중국 관계에 대한 중화주의적 해석
- 김영옥이 미래의 대한민국 영웅들에게 전하는 이야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軍史

第109號
2018. 12.



國防部 軍史編纂研究所

Contents | 2018. 12. 제109호

- | | | |
|-----|--|-----------|
| 1 | ▶ 러시아함정 야꾸트호의 울릉도 조사의 과정과 내용(1903) | 김영수 |
| 33 | ▶ 러일전쟁 이전 대한제국 원수부의 군무정책 강화와 군사운영의 성격 | 문준호 |
| 81 | ▶ 오리엔탈리즘 관점으로 본 미군의 대반란전 실패 요인
- 이라크 전쟁사례를 중심으로 | 박병찬 |
| 115 | ▶ 쿠바 미사일 위기 시 미국의 해상차단 작전 성공요인 분석 | 이표규 · 견병하 |
| 163 | ▶ 기울어진 제2차 '세계' 대전 통사
- 제러드 와인버그의 『2차세계대전사』 비평논문 | 이상현 |
| 205 | ▶ 북한 조국보위후원회의 설립과 활동 | 문미라 |
| 245 | ▶ 병자호란 이전 조선의 군사력 강화 시도와 그 한계
- 인조대 초반 병력 확보와 군량 공급을 중심으로 | 허태구 |
| 281 | ▶ 임진왜란 시기 경상좌수군의 위상과 활동 | 제장명 |
| 321 | ▶ 고려시대의 안시성 위치 인식과 당 태종 눈 부상설의 검토 | 김철웅 |
| 353 | ▶ 로마군의 철제 무구 수급체계의 변화 | 배은숙 |



軍史



Contents | 2018. 12. 제109호

[서 평]

- 387 ▶ 모택동 시대의 북한-중국 관계에 대한 중화주의적 해석 이동원
 - 선즈화(沈志華) 지음, 김동길 · 김민철 · 김규범 옮김
 『최후의 천조(天朝): 모택동 김일성 시대의 중국과 북한』(선인, 2017)
- 397 ▶ 김영옥이 미래의 대한민국 영웅들에게 전하는 이야기 이무형
 - 한우성 저, 『아름다운 영웅 김영옥』(복스스토리, 2014)

부 록

1. 연구소 동정 409
2. 자료기증 및 자료이용 안내 411
3. 『軍史』誌 投稿案内 413
4. 연구윤리예규 416



본 저작물은 정부예산으로 발간하였으므로 기관(부대) 자산으로 영구보존하시기 바라며, 보관이 불가능할 경우 당 연구소로 회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18, No. 109, pp.1-32
<https://doi.org/10.29212/mh.2018..109.1>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러시아함정 야꾸트호의 울릉도 조사의 과정과 내용(1903)

김영수*

1. 머리말
2. 일본과 한국이 바라본 러시아함정의 울릉도 조사과정
3. 1903년 러시아탐사단의 울릉도 조사와 한국인과 일본인의 대립
4. 맺음말

1. 머리말

러시아 해군부는 19세기 후반 한반도 해양 탐사를 기반으로 한국의 전략적 해양 거점지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러시아 해군부는 서해에서 여순-진남포-제물포를 연결하는 거점, 남해에서 거제도-마산포, 동해에서 블라디보스톡-원산-울릉도를 연결하는 거점을 중시하였다.

* 동북아역사재단 교육연수원 교수

1910년 이전 한국을 둘러싼 바다의 정규 항로는 3개 개설되었다. 러시아 세벨로프선사(蒸氣船社), 일본우선회사(日本郵船會社), 오사카상선회사(大版商船會社)의 항로가 바로 그것이다. 첫 번째 항로는 상해-제물포-부산-원산-블라디보스톡에 이르는 월 1회의 정기운항이었다. 두 번째 항로는 15일마다 고베-나가사키-부산-제물포-지부(芝罘)-여순항(旅順港) 등을 운항하였다. 세 번째 항로는 고베-시모노세키-부산-원산-블라디보스톡을 월 2회 통과하였다.¹⁾

그만큼 19세기 말 20세기 초 동해를 둘러싸고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의 인구와 물류가 이동하였고, 러시아는 동해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동해의 섬인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조사를 실행하였다. 러시아는 한반도 해양 탐사를 기반으로 전략적 해양 거점을 구상하였는데, 동해에는 블라디보스톡-원산-울릉도를 연결하는 해양 거점을 중시하였다. 그럼에도 기존 연구는 러시아 사료에 대한 접근의 한계 때문에 19세기 말 20세기 초 러시아가 울릉도를 조사한 일련의 과정을 추적한 적이 없었다.

러시아는 청일전쟁 이후 러일전쟁 직전까지 본격적으로 울릉도를 탐사하였다. 그것은 동해의 군사적 요충지로 울릉도를 주목했기 때문이었다. 울릉도는 블라디보스톡에서 내려오는 러시아 선박, 나가사키 등에서 올라오는 일본 선박, 동해로 진입한 서양 선박 등을 한눈에 관찰할 수 있는 군사 전략적으로 중요한 장소였다.

1899년 러시아 장갑 순양함 아드미랄 꼬르닐로프호(Адмирал Корнилов)는 울릉도에 대한 조사를 실행하였다.

1900년 4월 러시아 수송선 예르마크호(Ермак)는 동부 대양에 대한 지리적 탐험 과정에서 울릉도를 지나갔다. 수로학자들은 양호한 기상을 이용해서 천문학적 관찰과 섬의 위치를 명확하게

1) 까를로 로제티, 서울학연구소 역, 『꼬레아 꼬레아니』 (서울: 숲과나무, 1996), 371쪽.

확인하였다. 울릉도는 동쪽으로부터 약 4마일 거리에 위치하고 있었다.²⁾

그 후 러시아 해군은 1901년 러시아 포함 까레예즈호(Корея II), 1903년 러시아 군사 수송선 야꾸트호(Якут) 등을 통해서 울릉도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를 실행하였다.

1903년 9월 러시아의 울릉도에 대한 조사는 ‘울릉도’(Остров Дажелет)라는 제목으로 ‘동방학소식’(Известия Восточного Института)이라는 잡지에 1904년 게재되었다. 러시아 선박의 방문 사실을 기록한 인물은 레베제프(Е. Лебедев)였다. 당시 통역을 담당한 레베제프는 블라디보스톡 동방대학교 소속 3학년이었다.³⁾ 레베제프에 따르면 1860년대 오페르트(Оперт)는 다줄레(Dajalet, Dagelet) 섬이 비옥한 토양으로 유명하다고 기록하였다. 레베제프는 1904년 오페르트의 문헌을 비롯한 서양의 울릉도 탐사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참고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⁴⁾

기존연구는 1900년 초 러시아의 울릉도 조사에 대한 러시아 문헌을 발굴한 적이 없었다.⁵⁾ 이 논문은 우선 레베제프의 ‘울릉도’ 조사에 관한 종합적인 보고서에 기초하여 한국과 일본 사료를 보강하여 러시아의 1903년 울릉도 조사에 관한 사실 관계를

2) Глушков В.В. История военной картографии в России (XVIII - начало XX в.). М., 2007. С.373 ; Глушков В.В. На островах уллындю и докдо в восточном море. М., 2018. С.61.

3) Е. Лебедев, Остров Дажелет(울릉도), Известия Восточного Института, XI, 1904. С.163.

4) Е. Лебедев, Остров Дажелет(울릉도), Известия Восточного Института, XI, 1904. С.171.

5) 다만 기존 연구는 1903년 9월 러시아함선의 울릉도조사에 대해서만 한국과 일본 자료에 기초하여 간략하게 다루었다. 김호동은 러시아와 일본의 첨예한 대립이 1903년 울릉도에서도 전개된 사실을 알려주었다고 주장하였고, 홍정원은 심홍택이 울릉도에서 일본인의 불법 벌목과 경찰서 주재 사실에 대해 러시아 측이 한국정부를 오해하지 않도록 적절히 대응했다고 평가하였다.(김호동, 「개항기 울도군수의 행적」, 『독도연구』 19호 (2015), 31-32쪽 ; 홍정원, 「조선의 울릉도 독도 인식과 관할」, 한국학중앙연구원박사논문 (2016), 204-206쪽)

복원할 것이다. 그리고 러시아 해군이 울릉도를 주목한 이유를 추적할 것이다.

2. 일본과 한국이 바라본 러시아함정의 울릉도 조사과정

가. 1899년 아드미랄 꼬르닐로프호의 울릉도 조사

1899년 11월 러시아태평양함대 소속 장갑 순양함 아드미랄 꼬르닐로프호(Адмирал Корнилов)는 울릉도에 도착하여 울릉도의 지형 등을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러시아의 울릉도 현지 조사가 매우 예외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한제국 신문들은 앞 다투어 보도하였다.

1899년 11월 14일자 독립신문에 따르면 러시아태평양함대 ‘중가로니 모후호’⁶⁾는 10월 26일 ‘포럼 샤덕항’을 떠나서 울릉도에 도착하여, 울릉도 거주 일본인을 관찰하고 11월 7일 마산포로 출발하였다.⁷⁾

1899년 11월 27일자 제국신문에 따르면 일본인은 개항장이 아닌 울릉도에서 삼림을 불법으로 벌목하였다. 울릉도 불법 거주 일본인은 11월 3일 천장절(天長節)을 경축하며 일본 국기를 내걸었다. 러시아 군함은 11월 3일 울릉도에 정박하고 해군 30명

6) 독립신문은 ‘중가로니 모후호’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당시 동청철도 소속 우편선 ‘송가리호’(Сунгари, почтовое судно)가 있었다. 독립신문은 ‘송가리호’와 ‘중가로니 모후호’를 동일한 선박으로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독립신문에 보도한 러시아선박의 이동 날짜와 행적을 추적하면 ‘중가로니 모후호’는 바로 러시아군함 ‘아드미랄 꼬르닐로프호’였다.

7) “아라샤 함④. 이④샤 동양 함④ 중가로니 모후호가 十月二十六일에 포럼 샤덕 항에서 떠나 울릉도에 귀항 하야 히도에 잇④ 일본 사④들의 동작을 관찰 하고 七일에 마산포로 향 하여 출발 하얏다더라.”(『독립신문』, 1899.11.14.) 장갑 순양함(бронепалубный крейсер).

이 상륙하였는데, 러시아해군은 일본 국기를 훼손하면서 울릉도를 러시아가 점령한 땅이라고 말하였다.⁸⁾

1899년 12월 5일자 황성신문은 러시아군함 ‘고로니호후호’(아드미랄 꼬르닐로프)의 울릉도 조사에 관한 조선신보(朝鮮新報)의 기사를 인용하여 보도하였다. 조선신보에 따르면 아드미랄 꼬르닐로프호는 임무관(林務官) ‘가디니후’⁹⁾(1899년 함장은 빼트로프 И.И.Петров)를 포함한 30여명(三十餘名)의 육군사관(陸軍士官)이 승선하였다. 아드미랄 꼬르닐로프는 원산을 거쳐 부산에서 마산공사(馬山工事)를 맡은 주한 러시아공사관 부속(附屬) 측량기사(測量技師) 막시모프, 블라디보스톡에서 온 해군기사(海軍技師) ‘안트레프스랏프짜지’를 탑승시켰다. 러시아해군은 울릉도에 상륙하여 요해(要害)와 육면(陸面)의 전부를 정밀히 답사하고 측량하였다. 조선신보는 러시아해군이 울릉도에 병영을 건축하고 수뢰기지(水雷營) 건설을 계획하면서, 장소를 물색하는 중이라고 추정하였다.¹⁰⁾

8) “우리나라 울릉도는 개항하지 아니한 섬인데 토지가 고옥함을 인연하여 일본 사람들이 그 섬에 들어가 사는데, 삼림을 임의로 작벌하며 생각되는 말은 이와 말 하였거니와, 이 섬에 들어가 사는 일본 사람들이 이달 삼일에 자기 나라 천장철을 경축 하노라고, 일본 국기를 세웠더니 아라사 군함이 그날 울릉도에 정박하고 삼십명이 상륙하여 일본 사람들이 세운 기를 부시고 또한 무삼 경계를 인연 함인지, 이 섬은 아라사국에서 점령한 땅이라고 떠들었다더라.”(『帝國新聞』, 1899.11.27.)

9) 아드미랄 꼬르닐로프호(Адмирал Корнилов) 함장은 다음과 같았다. капитан 1 ранга Е.И.Алексеев 1-й (17.11.1886 - 09.09.1891); капитан 1 ранга М.И.Ельчанинов (09.09.1891 - 10.01.1894); капитан 1 ранга П.Н.Вульф (10.01.1894 - 16.10.1895); капитан 1 ранга П.П.Молас 1-й (16.10.1895 - 09.06.1897); капитан 1 ранга С.С.Черкас (09.06.1897 - 07.06.1899); капитан 1 ранга И.И.Петров 1-й (07.06.1899 - 18.04.1900); капитан 1 ранга Н.А.Матусевич 1-й (18.04.1900 - 06.08.1900); капитан 1 ранга А.Т.Тарасов (06.08.1900 - 06.09.1900); капитан 1 ранга П.Ф.Нельсон-Гирст (06.09.1900 - 25.10.1904); капитан 1 ранга К.П.Арнаутов 1-й (25.10.1904 - 25.04.1905)(<https://forum.worldofwarships.ru>)

10) “鬱陵島の 俄國經營, 朝鮮新報에 하엿스되 鬱陵島에 對한 俄國方針에 就하야 今에 可信한 情報를 據한즉 俄國軍艦고로니호후 号口 林務官 가디니후 及三十餘

1899년 12월 8일자 제국신문에 따르면 원산주재 영사관 다카오(高雄) 서기생(書記生)은 울릉도에 파견되어 울릉도 불법 거주 일본인의 추방을 직접 지시하였다. 그 결과 일부 일본인이 행장을 수습하여 철수를 준비하였다. 그런데 제국신문에 따르면 11월 3일 러시아장교는 일본인 거류지를 시찰하였는데, 러시아 해군은 일본인이 천장절 행사에 국기를 내걸고 경축하자, 일본 국기를 모욕하고 일본인을 위협하였다. 제국신문은 러시아해군이 울릉도감을 결박하고 문초했다고 보도하였다.¹¹⁾

하지만 울릉도감의 보고에 따르면 울릉도감(鬱陵島監)을 결박했다는 사실은 없었다. 러시아 군함이 섬 안에 와서 정박하고 있으면서 출입허가(本島許給)에 관한 훈령(訓令)을 보여주자, 울릉도감 배계주는 전후 사정(前後事狀)을 러시아군함에게 알려주었고, 러시아군함이 한마디도 묻지 않고 조용히 물러갔다고 보고하였다.¹²⁾

1899년 12월 25일자 황성신문은 러시아군함의 울릉도 상륙

名의 陸軍士官을 率하고 該地에 赴할 次로 먼저 元山에 寄港하여 釜山에서 更히 馬山工事に 執掌하던 京城俄公館附屬測量技師 마키시모후(*막시모프) 及海蔘威에서 來한 海軍技師 안트레프스콧프씨를 搭乘하고 鬱陵島로 赴하여 上陸한 後에 海濱의 要害及陸面의 全部를 精密히 踏查測量하였□□ 畢竟 該嶋內에 兵營을 築設하고 別히 水雷營을 建設할 터이라□□ 目下 其場所를 選定하□□ 中이라더라.”(『皇城新聞』, 1899.12.5.)

- 11) “울릉도에 삼림보호권리를 아라사 사람이 었었는데 일인이 그 섬에 잇는자를 것 어가라고 조회 하였다니, 일본서 원산 영사관에게 기별하여 서기생 고도씨를 그 섬에 보내어 일인을 물러 가라고 효슈하대, 일인들이 행장을 수습하여 더러는 돌아갈 즈음에 80여명은 앞서 마감하노라고 두류하더니, 지난달 2일(*3일)아라사 군함이 무관과 통변하는 일본인 1명을 도박(*포박) 하였는데, 여러번 방포하여 위협을 보이고, 우리나라 도장을 결박하여 문초하며 병영(*병장)으로 하여금 일인의 거류지를 엄히 시찰 하더니, 그 이튿날은 일본 천장절이라 그곳잇는 일인들이 국기를 걸고 경축 하는 거슬 아라사 사람이 그 국기를 대하여 욕설을 무수히 하나 통병이 만류하여 다행이 무사 하였다 하고, 또 의기가 양양하여 일본 사람들을 공갈 하며 장차 선창을 싸흘 모양 갖다더라.”(『帝國新聞』, 1899.12.8.) *표시는 오류를 정정함.
- 12) “適其時에 俄國軍艦이 來泊于嶋中하고 本島許給의 訓令을 輪示하고 故로 并將前後事狀하고 知照한즉 俄國軍艦이 有若怙然하고 無一言問答而退하고□□.”(『皇城新聞』, 1900.3.10, 鬱陵島監의 公報)

관련 나가사키 영자보(長崎英子報)의 내용을 보도하였다. 나가사키 영자보(長崎英子報)는 러시아인이 울릉도에 1병영(一兵營)과 1수뢰분치소(一水雷分置所)를 설치한다고 보도하였다.¹³⁾

울도시찰위원(鬱島視察委員) 우용정도 1899년 11월 러시아의 울릉도 정박에 관한 정보를 대한제국 정부에게 보고하였다.

우용정에 따르면 1899년 10월 1일(양력11.3) 러시아군함은 남양동 포구에 정박하고, 장교(將官) 1인(員), 통역(通事) 1인(人), 해병(兵丁) 7명(7名)이 상륙하였다. 러시아장교는 울릉도의 형세를 그림으로 그리면서 울릉도를 정찰하였다. 러시아군함은 8일 동안 울릉도에 정박하면서 규목(槻木, 물푸레나무) 1 그루를 75량을 주고 일본인에게 구매하였다. 러시아군함은 1900년 3월에 다시 오겠다고 울릉도를 떠났다.¹⁴⁾

결국 러시아군함 아드미랄 꼬르닐로프호는 1899년 11월 3일부터 11월 7일까지 울릉도에 체류하면서 울릉도의 지형을 파악하고, 해군 수뢰 분소 설치를 대비한 조사를 실행하였다. 러시아군함의 명칭에 대해서 독립신문은 ‘증가로니 모후호’이고 황성신문은 ‘고로니호후호’라고 기록하였다. 당시 러시아태평양함대의 동해 훈련에서 러시아 함정의 이름은 ‘증가로니 모후호’가 아닌 ‘고로니호후호’만 기록되었다. 따라서 고로니호후호 즉 ‘아드미랄 꼬르닐로프’ 함정이었고, 독립신문의 오보였다.

나. 1903년 야꾸뜨호의 울릉도 조사

1903년 10월 7일 부산주재 영사 시대하라 키쥬로(幣原喜重

13) “鬱陵島에 俄人. 長崎英子報를 據한즉 울릉도에 아인이 一兵營과 一水雷分置所를 方設한다는 대 차인은 東京某報官通信員의 函致한 배니 其詳細論列한 것으로 觀하건대 其可信處한 것으로 관하건대 一種風說과는 有異하더라 하얏디.”(『皇城新聞』, 1899.12.25.)

14) 『各觀察道案』, 光武十年自隆熙四年至, 一三(奎章閣, 7990-1)

郎)는 경부(警部) 아리마 다카노부(有馬高孝)의 보고서에 기초하여, 9월 2일 러시아 군함 야꾸트(Якут)의 울릉도 방문에 관한 보고서를 주한 일본공사 하야시(林權助)에게 제출하였다. 앞서 울릉도 주재 경부 아리마는 1903년 9월 12일 부산주재 영사 시 데하라에게 러시아 선박의 울릉도 방문을 보고하였다.¹⁵⁾ 이미 일본은 1902년 2월 울릉도의 일본인 보호 구실을 명분으로 일본 경찰서(日本警察署)를 울릉도 도동에 신설하였고, 부산 주재 일본 경찰서 소속 경부(警部) 1명과 순사 2명이 울릉도에 파견되었다.¹⁶⁾

아리마(有馬高孝)는 1903년 9월 러시아 수병의 울릉도 상륙을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울릉도 주재 경부(警部) 아리마는 러시아 군함 야꾸트(Якут)호가 홋카이도(北海道)에서 울릉도로 내항했다고 추정하였다. 아리마에 따르면 1903년 9월 2일 오전 11시경 포 2문을 갖춘 러시아 선박 야꾸트(Якут)호의 러시아 사관(士官) 2명과 수병 19명이 울릉도 남양동(南陽洞)에 상륙하였다. 9월 2일 상륙한 러시아 사관과 수병은 남양동 해안에서 약 10정(町)의 산중턱 주변에서 야영을 하면서 울릉도의 지도를 제작하였다. 러시아 사관은 러시아가 울릉도의 삼림벌채권을 소유하고 있는데, 현재 한국인이 일본인의 삼림벌채를 금지시키지 않는 것을 심흥택에게 힐문하였다. 그러자 심흥택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이미 금년 4월에 취임할 때 삼림벌채에 대해서 울릉도 일본 경부에게 교섭하였다. 그런데 일본 경부가 직접적으로 응하지

15) “한국 鬱陵島의 南陽洞부근에서의 러시아 군함의 거동에 관해 지난달 12일자로 울릉도 주재 警部 有馬高孝로부터 소관 앞으로 보고가 있었사오니 別紙 요령을 摘錄한 뒤 보고 말씀 드립니다. 추후에 본문은 本省에도 같은 모양으로 보고했습니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20), 1903년 10월 7일, 各館來信 (7) 韓第41號 「러시아 수병의 鬱陵島 상륙에 관한 건」, 在釜山 領事 幣原喜重郎一特命全權公使 林權助)

16) 『帝國新聞』, 1902.3.1.

않았다. 대한제국 정부에게 위의 내용을 보고하였지만 아직 아무런 명령을 접하지 않았다.” 주한 일본공사관기록은 심홍택에 대한 러시아의 위압적인 행동이 부각되었는데, 러시아 사관이 문서를 요구해서 심홍택이 어쩔 수 없이 만든 것으로 기록되었다.

1903년 9월 2일 러시아 국기를 게양하고 포 2문을 갖춘 선명(船名)을 알 수 없는 기선 1척이 나타났다. 러시아 군함은 러시아 사관 및 수병의 복장을 한 자들을 태우고 울릉도 도동(道洞)의 일본 경찰관주재소에서 약 4리가 떨어진 남양동(南陽洞)에 내항하였다. 그 후 9월 11일 오후 6시경 출발하였다. 그 동안 러시아 선박은 연안을 서서히 항해하면서 울릉전도(全島)를 항해(周航)하였다.

9월 2일 오전 11시경 러시아 사관 2명과 수병 19명은 남양동(南陽洞)에 상륙한 다음, 약 10정(町)의 산중턱 주변에서 야영하였다. 러시아 해군이 5~6일 체류하면서 울릉도의 지도를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9월 11일 러시아 사관 2명은 군속(軍吏) 1명과 수병 16명을 거느리고 남양동 방면에서 육로로 도동(道洞)의 대한제국 관아에 와서 군수 심홍택(沈興澤)과 대담하였다. 러시아인은 일본인 소유의 느티나무와 그 밖의 목재를 촬영하였다. 사관 1명은 그곳에서 즉시 승선하고, 그 밖의 해군(兵員)은 육로를 이용하여 남양동으로 철수하였다.

울릉도 주재 경부(警部) 아리마는 러시아 사관과 울도군수 심홍택과의 대화를 기록하였다. 아리마는 러시아해군의 강요에 의해서 심홍택이 진술 내용을 제출했다고 보고하였다.

9월 11일 러시아 사관 2명과 16명의 수병은 남양동 방면에서 육로로 도동에 있는 군수 심홍택과 면담하였다. 그 자리에서 러시아 사관은 “울릉도의 삼림채벌권이 러시아에 있다”며 “왜 울릉도의 삼림 벌채를 금지하지 않는가”라고 질문하였다. 심홍택은

“1903년 4월 취임할 때 울릉도 주재 일본경찰에게 교섭했지만, 일본경찰이 직접 협상에 응하지 않았다”고 대답하였다. 아리마는 “러시아 수병은 회담 중에 칼을 휴대하였고 러시아 사관은 심흥택에게 진술 내용의 문서 작성(書證)을 강요하였고, 심흥택은 이에 응하는 것 같았다”고 기록하였다. 러시아 선박 야꾸트(Якут) 호는 울릉도 연안을 항해하며 울릉도 전역을 탐사하다가 9월 11일 오후 6시경 출발하였다.¹⁷⁾

1903년 11월 28일 강원도관찰사 김정근(金禎根)은 러시아(俄國)와 일본(日本)이 울릉도 삼림 벌목 관련 보고서를 외부대신 임시서리(臨時署理) 이하영(李夏榮)에게 제출하였다. 강원도관찰사 김정근은 울도군수 심흥택의 보고서에 근거하여 러시아해군의 울릉도 조사를 조선 외부에 보고하였다. 김정근은 외부(外部)가 주한 일본과 러시아 공사에게 조회하여 양국(兩國) 모두 울릉도(鬱島郡) 벌목을 금지시켜달라고 요청하였다.

심흥택(沈興澤)에 따르면 음력 1900년 7월 12일(양력9.3) 러시아병선(兵船)의 병정(兵丁) 23명은 울도군의 남양포(南陽浦)로 들어와 지형(地形)을 탐지하고 사진(寫眞)을 찍은 이후 울도군수를 방문하였다. 러시아 사관은 한국정부가 울릉도의 삼림(森林)을 러시아(俄國)에게 양도한 것인데도, 일본인(日本人)이 벌목하는 이유가 무엇이나고 질책하였다.

심흥택에 따르면 러시아병선은 남양포 동구에 와서 대관(隊官) 1인과 부관(副官) 2인이 병정 23명을 이끌고 내려와 산 위를 올랐고, 땅을 측량하거나 나무 수를 계산하고 산천의 지형과 각 포구를 돌며 사진을 찍었다.

러시아 대관(隊官)은 7월 19일(양력9.10) 오시(午時)에 병정 27명을 이끌고 울도군수 심흥택을 방문하였다. 러시아문서에 따

17) 『駐韓日本公使館記錄』(20), 1903년 10월 7일, 各館來信 (7) 韓第41號 「러시아 수병의 鬱陵島 상륙에 관한 건 別紙 1 러시아 수병의 鬱陵島 상륙 보고서 요지」, 在釜山 領事 幣原喜重郎-特命全權公使 林權助.

르면 그 대관은 까르제프(В.А. Карцев) 대위였다.

까르제프(В.А. Карцев) 대위는 질문하였다.

“이 섬의 목재는 5년 전 우리 회사에서 귀 정부와 조약으로 얻기를 청했으나 이 섬의 삼림은 러시아의 물건입니다. 타국인이 삼림을 벌목할 수 없는데, 어찌하여 일본인이 이리 심하게 베어 가는 것입니까?”

“한국정부가 일본인에게 벌목을 허가한 문서가 있습니까? 일본 정부의 문서가 있습니까?”

울도군수 심홍택은 “모두 없습니다”고 답변하였다.

그러자 까르제프가 질문하고 심홍택이 답변하였다.

“일본인의 벌목을 어떻게 금지하겠습니까? 일본 경찰서가 울릉도에 주둔하고 있으니 한국과 일본 정부의 조약이 있습니까?”

“본관은 조약의 유무를 알지 못하며, 부임한 이후 일본 경찰서가 주둔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인의 벌목을 금지하지 않은 사실, 일본 경찰서가 주둔하는 사실 등에 관한 한국과 일본의 조약이 있는지 여부를 분명히 글로 써서 주시길 바랍니다.”

심홍택은 달리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하루 이틀 글(書)로 써서 주겠다”고 답했지만 까르제프는 “윤선이 떠나려 하니 오래 머물 수가 없습니다”고 독촉하였다.

심홍택은 까르제프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글로 써서 주었다. 심홍택은 러시아해군의 항의를 근거로 일본인의 불법 울릉도 삼림 금지를 일본 경부에게 촉구할 수 있었다.

“1903년 3월 23일(음력) 부임한 이후 일본 경찰서가 본군 동포에 주둔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일본인이 한국 정부와 조약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미 본군에 주둔한 이상 만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일본 경부 아리마 다카요시(有馬高孝)를 만났습니다. 본관이 삼림을 금지시키겠다는 뜻으로 말을 하자, 아리마는 ‘피차

정부의 문서가 없으니 금지하기가 곤란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심흥택이 까르제프에게 글을 써주자, 러시아해군은 포위를 풀고 도동포로 내려가서 지형을 사진 찍은 이후 남양동으로 돌아가서 배를 타고 떠났다. 심흥택은 대한제국 내부에게 러시아의 울릉도 조사 관련 보고서를 전라도인 박양(朴陽)의 선편에 부쳐 보냈다. 하지만 심흥택은 8월 22일(음력) 선박이 바다 속으로 전복되어 보고서가 사라져 버렸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후 심흥택은 또 다시 보고서를 작성하여 내부에 보냈다.¹⁸⁾

18) “鬱島郡守沈興澤報告書內開에 本年七月十二日 俄國兵船一隻이 來泊本郡南陽浦洞口 而隊官一人副官二人이 率兵丁二十三名下陸^ㄱ야 仍爲上山 而或尺量地段^ㄴ며 或計數木根^ㄷ고 山川地形과 各浦를 巡環寫眞이더니 十九日午時에 率兵丁二十七名^ㄹ고 環圍本官職所 而隊長이 問曰 此島木料는 五年前我國會社에서 貴政府와 約條^ㄷ고 請得^ㄹ앗시니 此島森林은 我國之物也라 他國人은 不可斫伐이거늘 如何日人之伐木이 甚多也오 其伐木이 有貴政府許可文字乎아 有日本政府文字乎아 有我國會社文字乎아 本官曰皆無로라 彼曰其伐木을 何不禁止乎며 且日本警署가 駐此^ㄱ앗시니 有貴政府條約否아 本官曰其條約有無는 不知 而本職赴任後 聞知駐此也로라 彼曰然則其伐木不禁之由와 日警署駐此之貴政府條約有無^ㄴ 明書給我也^ㄷ라 本官이 尋思無路^ㄹ야 答以爲一二日後書給云 則彼曰輪船이 方發^ㄱ니 不可久留로라^ㄴ고 督使非輕故로 乃以實事書給曰 癸卯三月二十三日赴任後 聞日警署가 來駐本郡道洞浦云 而其與我政府約條有無는 未知나 然이나 既駐本郡에 不可無一次相見故로 往見日警署有馬高孝後에 以森林禁斷之意로 言之則答云 無彼我政府文字^ㄷ니 難以禁止故로 以此意報告于我國內部耳라^ㄹ고 以此書給 則彼乃撤圍率兵^ㄱ고 仍下道洞浦^ㄴ야 寫眞地形後 還去南陽洞 乘船以去^ㄷ앗스오니 此之舉措가 實爲不安이옵기 卽修報告^ㄹ와 付送于羅人朴陽船便矣러니 今八月二十二日에 船便得聞 則該船이 海中覆沒^ㄱ와 同報告가 俱爲闕失故로 茲更報告等因을 據^ㄴ와 茲에 報告^ㄷ호오니 照亮^ㄹ신헌후 移照日俄兩公使官^ㄱ야 以爲禁斷^ㄴ케^ㄷ호시을爲望.”(報告書第六號, 光武七年(1903)十一月二十八日, 『江原道來去案』 第一冊, 『各司騰錄』 28, 江原道篇 2, 江原道觀察使金禎根一議政府贊政外部大臣臨時署理議政府贊政宮內府特進官李夏榮, 59-60쪽(奎17985) 1903년 12월 1일 외부는 울릉도에서 러시아와 일본의 벌목금지에 대한 강원도관찰사의 보고서를 기록하였다. “江原觀察報告 鬱島郡守報稱 俄兵船一隻 來泊本島南陽浦 隊官一人 副官二人 率兵圍官探問日人伐木 日警署駐此裏由 尺量地段 計數木株 寫眞地形而去等情 移照日俄兩館 發訓禁斷爲望 江原觀察報告 鬱島郡守報開 該島所住日警署及日人伐木侵土之 有難禁斷等情 移照日館爲望.”(交涉局, 光武七年十二月一日, 『外部日記』 7冊, 入直 李範奭 金瑞圭(奎17841)

“鬱島郡守 沈興澤氏의 報告를 據^ㄱ 則 陰七月十二日에 俄國兵艦 一隻이 本郡南陽洞浦口에 來泊^ㄴ야 隊官 一名과 副官 二人하 率兵丁 二十三名^ㄷ고 下陸^ㄹ야

1903년 12월 5일 강원도 관찰사 김정근(金禎根)은 러시아인의 울릉도 조사 등에 관한 내용을 외부대신임시서리(臨時署理) 이하영(李夏榮)에게 제출하였다. 강원도 관찰사 김정근은 울릉도 군수 심홍택의 보고서에 근거하여 러시아삼림회사(森林會社)와 한국정부 사이 울도군(鬱島郡)에 대한 조약(約條)의 사실 확인을 외부에 질의하였다.

심홍택에 따르면 러시아병선(俄國兵船)은 9월 3일 남양포(南陽浦)에 정박하여 지형을 측량(尺量)하고 수목을 계산(計數)하였다. 9월 10일 러시아병정(兵丁) 27명은 심홍택을 둘러싸고 대화하였다. 러시아 대관(隊官)과 병정(兵丁)은 도동포(道洞浦)로 내려가 지형의 사진(寫眞)을 찍고 남양동(南陽洞)에서 승선해서 떠났다.

까르제프 대위(隊官)가 심홍택에게 물어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5년전 러시아회사(我國會社)가 한국정부와 조약(約條)을 체결(請得)하여 울릉도의 삼림(森林)이 러시아 소속인데, 일본인의 불법 벌목(伐木)과 일본경찰서(日警署) 주차(駐此)에 관한 정부 약조(政府約條)의 유무여부(有無與否)를 알려 달라.”

김정근(金禎根)은 일본인이 가옥 설치(設幕構屋)를 외부(外部)에 요청(報明)한 사실이 있었는지, 한국정부와 러시아와의 울도군(鬱島郡) 목재(森林會社)에 관한 약조(約條)가 실제 있었는

仍爲上山^ㄱ야 或量地段^ㄴ며 木株를 計數^ㄷ하며 山川地形과 各浦를 巡環模寫^ㄹ하고 同十九日에 隊官이 率兵丁 二十七名^ㄷ고 到道洞本官直所^ㄹ야 四面環圍^ㄹ고 隊長이 問^ㄱ되 此島木料^ㄴ 五年前 俄國會社가 貴政府에 約條請得^ㄹ이 有^ㄹ 則 此島森林은 俄國之物也라 俄國人外他國人은 不可斫伐^ㄹ어○ 如何히 日人之伐木이 甚多^ㄹ지 其伐木에 有貴政府許可文字乎아 有日本政府文字乎아 有俄會社文字乎아 何야○ 本官曰 皆無라 ㄱ니 彼曰 其伐木을 何不禁止乎아 且曰 日本警部가 駐此^ㄹ ㄱ니 有貴政府約條否아 本官曰 其約條有無 吾所未知나 本職이 赴任後에 聞知駐此^ㄹ라 ㄱ니 俄官이 以此도 詰迫^ㄹ다가 仍以發船以去^ㄹ라 ㄱ았더라.”(『皇城新聞』, 1903.11.17) 황성신문 기사는 심홍택의 보고서를 요약한 것이었다.

지 등에 대해서 사실여부를 외부에 요청하였다.¹⁹⁾

일본문서는 러시아 해군이 9월 2일 도착하여 상륙했다고 기록되었고, 한국문서는 9월 3일 상륙하여 지형을 탐사했다고 기록되었다. 러시아함정의 항해 날짜를 고려하면, 러시아 해군이 9월

19) 江原道觀察使 金禎根의 第六十五號 報告書 內開 頃聞通川高城兩界長箭浦에 日人等이 設館이다인바 無論本他國호고 如非租界內 則外國人之賃房購屋은 法所當禁이온 況該浦가 本非租界約定之地 而如是營役은 揆以約章에 萬萬垂當故로 發訓該兩郡호야 以該基址가 或有京部認許而然인지 自郡不禁而私自營造인지 昭詳報來호고 亦卽禁斷之意로 措辭申飭이올고 另派巡檢호야 使之詳探이오며 且江陵郡 注文津은 本非通商口岸이거오 外人輪船이 每年 幾次次 來往貿易云者 亦非約章共守法意故 發訓該郡호야 該輪船之創自何年來往과 緣何事而來往을 詳探報來事申飭이올더니 通川高城江陵等郡報를 次第接閱호즉 通川郡長箭浦에 設館云者는 乃是訛傳也오 捕鯨幕段은 不過是藏置鯨肉之所 而暫欲權設이나 日人松尾言內에 亦知章程之所禁 則過冬後撤去이다호오며 日人森萬之新構十二間板屋은 且無認許之可據 而亦知章程所禁호고 將爲毀撤云이오나 蓋幕與屋이 俱是年前認許俄人之基址外 則其所禁斷은 恐不可已이오며 江陵郡注文津段 荻浦丸輪船이 七月九日에 販載幾魚호고 出往釜山이러가 同月十三日에 回還元山 而他無所幹이올고 其外호 更無外國船來往이다이올기 以不通商口岸에 輪商船交易이 亦是條規故로 依通商約條禁飭之意로 另加題飭于該郡이오며 通川高城兩郡所報成冊을 纔已轉報于外部故로 該成冊을 謄本호와 茲에 報告호오니 查照後 移照外部호와 俾爲措處爲望等因과 連接第六十六號 報告書 內開 卽接鬱島郡守 沈興澤 報告書 則俄國兵船一隻이 七月十二日來泊本島南陽浦洞口 而隊官一人 副官二人 率兵丁二十三名 下陸 或尺量地段 或計數木根이다가 十九日率兵丁二十七名 圍環本官直所問曰 此島木料호 五年前 我國會社에서 貴政府와 約條를 請得호였스니 此島森林은 我國之物也라호오며 以日人伐木과 日警署駐此가 或緣政府約條有無與否를 明細給我호라고 問答호다가 彼乃撤圍率兵호고 仍下道洞浦 寫眞地形 而還去南陽洞 乘船以去호였스나 今此舉措가 實爲未安이오니 移照外部호와 使之知照於俄日兩館호야 以爲發訓禁斷에 合심을 爲望等因을 據查호은즉 高城通川兩郡交界에 日本人이 稱以藏置鯨肉호고 設幕構屋호 事로 該府로서 先已報明于貴部이다이온즉 貴部措飭이 必有호시러니와 鬱島郡에 俄人이 來泊호야 本島木料를 該國森林會社에 我政府約條가 有호다호오니 該島森林도 政府認許가 果有호은지 茲以仰佈호오니 照亮後 一切示明호심을 爲要. (照會 第十八號, 光武七年(1903)十二月五日, 「內部來去文」 15, 議政府贊政內部大臣臨時署理議政府參政 金奎弘一議政府贊政外部大臣臨時署理宮內府特進官 李夏榮) 1903년 12월 10일 외부는 러시아삼림회사의 울릉도 삼림이권 획득 사실에 관한 내부의 조화를 기록하였다. “內部照會 江原道觀察使金禎根報告書內開 通川高城兩界長箭浦 日人等稱以藏置鯨肉 新構板屋 統已轉報于外部等因. 連接該觀察報告內開 俄船來泊鬱島郡 隊官稱本島木料 我國會社請得於貴政府 已有條約等情 該島森林 果有政府認許 照亮示明.”(交涉局, 光武七年十二月十一日, 『外部日記』 7冊, 入直 丁大有 方大榮(奎17841)

2일 도착해서 9월 3일 상륙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본문서는 러시아 장교와 울도군수와의 대담을 9월 11일, 한국문서는 9월 10일 이라고 기록하였다. 그런데 러시아문서는 8일을 체류했다고 기록되었다. 9월 2일 도착을 기준으로 본다면 9월 10일 울도군수와 대담하였다.

일본문서는 심홍택과 면담한 러시아인은 러시아 사관 2명과 군속(軍吏) 1명과 수병 16명, 한국문서는 대관(隊官) 1인과 부관(副官) 2인과 병정(兵丁) 27명이라고 기록하였다. 러시아문서는 러시아 지휘관 까르제프(В.А. Карцев) 대위, 메르꾸셰프(В. А. Меркушев) 군의관, 레베제프(Е. Лебедев) 통역, 16명의 러시아 수병으로 기록되었다.²⁰⁾

결국 까르제프(В.А. Карцев) 대위가 지휘한 러시아 군사 수송선 야꾸트호(Якут)는 1903년 8월 31일 블라디보스톡 출발, 9월 2일 울릉도 도착, 9월 3일 울릉도 남양포(南陽浦) 상륙, 9월 10일 도동에서 심홍택 면담 직후 출항하였다. 울릉도를 조사하고 심홍택을 면담한 인물은 러시아 장교가 2인, 통역이 1인, 수병이 16명이었다.

3. 1903년 러시아탐사단의 울릉도 조사와 한국인과 일본인의 대립

가. 러시아 탐사단의 울릉도 조사

1903년 9월 2일 울릉도를 방문한 선박은 러시아 군사 수송선

20) Е. Лебедев, Остров Дажелет(울릉도), Известия Восточного Института, XI, 1904. С.163.

야꾸트(Якут)호²¹⁾였고, 지휘관은 까르제프(В.А. Карцев) 대위²²⁾였다. 이전 러시아는 1901년 울릉도의 삼림 탐사를 목적으로 까르제프(В.А. Карцев) 대위를 파견하였다. 당시 파견된 선박은 러시아 포함 까레예쯔호(Кореец)였다. 까르제프(В.А. Карцев) 대위는 1903년 또다시 울릉도를 방문하여 조사하였다.²³⁾

1903년 8월 중순 통역관 레베제프(Е. Лебедев)는 군의관 메르꾸셰프(В.А. Меркушев)를 통해서 블라디보스톡 항구 책임자(начальник Владивостокского порта) 제독 가우쁘트(Н.А. Гаупт) 제독의 초청을 받았다. 가우쁘트 제독은 러시아가 삼림채벌권을 획득한 울릉도(Дажелет)의 삼림탐사를 목적으로 조사팀을 파견하는데, 레베제프가 일본어 통역관으로 참여할 것을 권유하였다. 레베제프는 일본어를 할 수 있는 한국인으로부터 울릉도의 정보와 소식을 파악하여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었다. 레베제프는 일본인이 울릉도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한인이 일본어 회화를 할 수 있었다고 기록하였다. 레베제프는 일본어와 한문에 능통했던 것으로 보인다.

1903년 8월 18일(양력 8.31) 러시아탐사단은 군사 수송선 야꾸트(Якут)호를 타고 오전 4시 블라디보스톡에서 울릉도로 출발하였다. 레베제프는 울릉도에게 짧은 일정이었지만 지휘관 까르제프와 군의관 메르꾸셰프의 경험과 열정으로 가장 높은 산봉우

21) 야꾸트호(Якут, Военный транспорт, транспортное судно, 1887-1937)는 723톤이고 가로와 세로는 8.4 미터와 62.5 미터였다.

22) Виктор Андреевич Карцев(Карцов, 1868-1936). 1889년 흑해함대 해군 소위에 임관되었다. 1901년 포함 까레예쯔(Кореец)호의 어뢰장교로 활동하였다. 1903년부터 여순함대(Порт-Артурской эскадры) 소속 러시아 어뢰정(魚雷艇) 블라스뜨늬이(Властный)의 함장이었다. 1904년 러일전쟁에 참가하였고, 1910년부터 1913년까지 주프랑스 대사관 해군무관(Морской агент)이었다. 1916년 러시아해군 부제독(вице-адмирал)이 되었다.

(http://w.histrf.ru/articles/article/show/kartsov_viktor_andrieievich)

23) Е. Лебедев, Остров Дажелет(울릉도), Известия Восточного Института, XI, 1904. С.164. 포함(канонерская лодка)

리에 올랐고, 거대한 삼림을 헤치면서 울릉도의 전역을 탐사할 수 있었다고 기록하였다.²⁴⁾

러시아탐사단은 울릉도에 8일을 머물면서 성인봉을 등반하고 울릉도 전역을 탐사하였다. 또한 야꾸트호는 울릉도 전역을 순회했고, 매일 정오 남양포(南陽浦) 러시아탐사단의 임시 숙소에 도착하여 상호 연락할 수 있었다. 레베제프에 따르면 울릉도 거주 일본인은 자신들의 벌목작업이 불법이라는 것을 인지하였다. 일본인은 러시아탐사단이 울릉도를 방문하자 그 순간부터 울릉도의 벌목작업을 중단하였다.²⁵⁾

레베제프는 울릉도의 위치와 명칭을 기록하였다.

레베제프는 울릉도가 “블라디보스톡에서 나가사키 방면 307해리 떨어진 북위 37° 30′ 동경 130° 54′의 위치하였고, 원둘레가 25마일(약 40km)을 조금 넘었다”며 한국의 섬(Корейский остров)이라고 기록하였다.

레베제프는 울릉도의 명칭을 서양에서 ‘다즐레’(Дажелет, Dagelet), 일본에서 ‘마쓰시마’(소나무의 섬, Мацусима, остров сосен), 한국에서 ‘울릉도’(Уллындо)라고 기록하였다.

레베제프에 따르면 울릉도의 명칭은 산봉과 산등성 등의 산 전체를 뒤덮어서 건축자재로 이용할 수 있는 거대한 삼림에서 유래되었다. 1787년 프랑스 탐험대 라페루즈(La Perouse)호는 아스트로라비아(Astrolabe)호와 부술(Boussole)호 선단으로 이루어져, 한국의 북쪽 해안을 향해하던 중에 처음 울릉도를 발견하였다. 1851년 봄과 여름에 걸쳐 영국 선박 ‘악테온’(Acteon)호는 다즐레(о. Дажелет)섬을 탐사하였는데, 현지 식물을 채취

24) Е. Лебедев, Остров Дажелет(울릉도), Известия Восточного Института, XI, 1904. С.163.

25) Е. Лебедев, Остров Дажелет(울릉도), Известия Восточного Института, XI, 1904. СС.163-174. Студента III-го курса Восточного института Е. Лебедева.

하던 식물학자인 윌포드(ботаник Вильфорд, botanist Wilford)가 승선하였다.

레베제프는 19세기 후반 영국과 러시아의 울릉도 탐사와 관련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였다.

1883년(20년전) 영국인은 일본인들과 함께 울릉도에서 벌목했고 성인봉(Суимбон)에 등반하면서 산길의 암석들을 연구하였다.

1887년 세계일주 중 러시아 군함 비짜지(Корвет Витязь)호는 울릉도를 방문하고 전체 지도를 작성하면서 해안을 측량하였다.²⁶⁾ 함장은 러일해전으로 유명한 마카로프(С.О. Макаров)이었다. 비짜지호의 장교는 울릉도 방문 기간에 섬의 지형을 측량하고 촬영하였는데, 이후 빼제르부르크에서 지도가 발간되었다.²⁷⁾

미국인 미첼(Митчель, Mitchell)이 총 매출의 50%를 조선 정부에 납입하는 조건으로 울릉도의 삼림채벌권을 소유했다. 그 후 러시아인 브리네르(Бринер)가 순익에 25%를 납입하는 조건으로 울릉도의 삼림채벌권을 획득하였다. 레베제프는 울릉도 삼림채벌권이 베자브라조프(Безобразов)에게 넘어갔지만 일본인이 울릉도 삼림을 벌목하여 러시아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였다.

레베제프는 울릉도의 위치, 탄생, 산맥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울릉도는 한국의 도서 가운데 멀리 떨어져 있는 유일한 섬이지만, 1000톤 이상의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곳이 없었다. 울릉도는 육지로부터 70 마일의 거리이고, 그리니치 동경 130° 54'라고 파악했다. 도동항(Тодо)은 울릉도의 동해안에 위치하고 북

26) 레베제프에 따르면 비짜지호는 다줄레(Dajalet, Dagelet)섬 북쪽에 위치하는 압초에 좌초해서 침몰하였다. 러시아는 그 압초를 '비짜지'(Скала Витязь)로 명명하였다. 하지만 비짜지호는 1893년 5월 원산항(порт Лазарева) 근처에서 압초에 부딪쳐 침몰했다고 알려졌다.

27) Глушков В.В. На островах уллындо и докдо в восточном море. М., 2018. С.60.

풍, 서풍, 서남풍의 영향을 받지 않아 최적의 기항지였다. 또한 레베제프는 선박과 구명정이 접근할 수 있는 항구가 자신들이 체류했던 꼬르께(Корке, 남양포)라고 주장하였다.²⁸⁾

“다즐레(Dajalet, Dagelet) 섬은 지층의 수직형 구조, 굳은 용암으로 형성된 수많은 암석, 화산섬에서만 볼 수 있는 극히 험난한 지형 등이 화산작용으로 형성된 것임을 입증하였다.” 레베제프는 울릉도가 대략 1200 - 1500년 전에 형성된 화산섬이라며 그 증거로 산굴의 형성, 울릉도 삼림의 들레와 크기 등을 꼽았다.

레베제프는 나리분지(Нариколь)와 연결되는 울릉도의 산맥을 묘사하였다. 레베제프는 성인봉(Суимбон)이 안장의 머리모양이고 천두봉(Турибон)이 꼬리 모양이라고 기록하였다.

울릉도는 산림으로 덮여있으며, 좁은 계곡들이 남쪽으로 내려 갈수록 넓어지며 산과 산을 가르고 있었다. 나리분지(Нариколь) 산맥은 가장 높은 2개의 산봉인 성인봉(Суимбон, 3208 피트)과 천두봉(Турибон)을 중심으로 반경이 뻗어나가듯이 산의 등줄기가 퍼져나가면서 바다 쪽으로 내려 갈수록 낮아졌다. 모든 산은 정상에서 기슭까지 거대한 산림으로 덮여있었다. 성인봉(Суимбон) 정상에는 높지 않은 대나무와 야생포도 그리고 키가 작은 옴찌오(Омцио) 관목이 자생하고 있으며, 아래로 내려가면 마가목(馬價木)으로 바뀌다가, 나중에는 거대하고 우거진 산림으로 변모하였다. 바위들이 싸여있는 계곡 바닥으로 개울이 흐르고 산림이 없는 산등성이는 잡곡들이 재배되었다.

성인봉은 대략 원둘레 36사젠(сажень, 2.1336m)으로 작고 평평한 땅이 있었다. 성인봉은 높지 않은 대나무와 야생포도가 자생하고 있고, 주변과 바다를 관찰하기 편리하였다. 또한 성인봉

28) Е. Лебедев, Остров Дажелет(울릉도), Известия Восточного Института, XI, 1904. С.165.

은 울릉도의 북쪽과 북서쪽 그리고 서쪽을 상세히 관찰할 수 있었다.

성인봉은 천두봉(Турибон)에 가려져 있어서 남쪽을 관찰할 수 없다. 천두봉은(Турибон) 정상과 산등성이 모두 거대한 산림으로 덮혀있어서 주변을 관찰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메르꾸셰프(В.А. Меркушев) 박사는 천두봉의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 섬의 남부를 촬영하였다.²⁹⁾

레베제프는 울릉도의 기후와 수목을 기록하였다.

울릉도는 8월부터 9월까지 가장 좋은 날씨이며, 10월부터 2월까지 눈이 내렸다. 레베제프는 울릉도가 “상쾌한 좋은 공기, 담수로 인한 충분한 수자원을 활용한다면 폐결핵환자의 치료에 실효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고 주장하였다. 레베제프는 “울릉도의 삼림자원이 풍부하며 24종의 삼림이 분포한다”고 기록하였다. 그런데 레베제프는 현재 울릉도의 “성인 양팔 길이에 5배 되는 '거목'을 찾을 수 없다”며 “계곡의 움푹 파인 곳에 방치된 '거목'의 넓은 나무관자나 그루터기만 남아있다”고 기록하였다. 레베제프는 “거목의 흔적을 통해서 약탈자 일본인의 흔적을 살펴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레베제프는 “기슭에서 정상까지 거목으로 덮여있는 산들이 지금은 일본인들의 도끼에 의해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레베제프는 일본인의 불법 벌목의 현장의 상황을 파악하였다.

레베제프는 울릉도의 식물, 동물, 조류 등을 기록하였다.

울릉도민은 옥수수, 벼, 콩류, 감자, 양배추, 호박, 양파 등을 재배하여 먹고 있었다. 레베제프는 울릉도의 동물류에 대한 물가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소 한 마리가 셰스타코프(Шестаков)에서 8-10 루블하는데 비해서 울릉도에서는 60-70 루블이었

29) Е. Лебедев, Остров Дажелет(울릉도), Известия Восточного Института, XI, 1904. ССС.166-167.

고, 42파운드의 돼지 한 마리가 5 루블이었고, 중간의 염소 한 마리가 2-3 루블이었다.” 레베제프에 따르면 울릉도에 제비, 딱따구리, 참새, 비둘기, 까마귀, 갈매기 등이 서식하고 있었다.³⁰⁾

레베제프는 바다 앞에는 비교적 전복과 낙지가 풍부하지만 전체적으로 어류가 많지는 않다고 기록하였다. 울릉도 어류는 섬의 수심이 깊어서 물고기가 서식하고 번식하기에 적합하지 않았다. 레베제프는 섬의 앞바다에서 강치를 목격하였다.³¹⁾

레베제프는 울릉도 거주 한국인의 음식도 기록하였다. 한국인은 옥수수, 콩, 호박 밭을 일궜다. 한국인은 갈매기를 식용으로 사용하는데, “갈매기를 잡아 털을 제거해 걸 껍질을 벗겨내고 소금이나 다른 양념 없이 꼬챙이 구이를 하였다.”³²⁾

나. 레베제프가 바라본 한국인과 일본인의 대립

레베제프는 울릉도의 행정구역과 거주인원을 기록하였다.

울릉도는 강원도(Кан-ундо)에 소속하며 20개의 마을로 구성되었으며 군수가 울릉도를 관리하였다. 울릉도 거주 한국인은 대략 2500명이고 560개의 가옥이 있었다. 울릉도 거주 일본인은 대략 180명 정도이며 62개의 가옥이 있었다. 울릉도 거주 일본인은 도동에 상주하는 일본경찰의 보호를 받고 있었다. 레베제프는 “울릉도에 많은 일본의 배가 정박해있고 (일본인이) 활발히 벌목작업을 한다”며 일본인의 불법적인 활동을 기록하였다.³³⁾

30) Е. Лебедев, Остров Дажелет(울릉도), Известия Восточного Института, XI, 1904. С.168.

31) Е. Лебедев, Остров Дажелет(울릉도), Известия Восточного Института, XI, 1904. С.169.

32) Е. Лебедев, Остров Дажелет(울릉도), Известия Восточного Института, XI, 1904. С.171.

33) Е. Лебедев, Остров Дажелет(울릉도), Известия Восточного Института, XI, 1904. С.169.

레베제프는 울릉도에 조선정부의 이주정책과 실행과정을 기록하였다.

조선정부는 일본인이 울릉도를 점령할 것을 우려하여 6가구의 조선인을 파견하여 개척하였다. 일본인은 울릉도에 20여년 전에 불법적으로 섬에 들어왔다. 조선정부는 일본인의 불법 거주를 의식하고 울릉도 개척을 실행하였다. 1902년 한국인의 이주자만 300명이었다. 한국정부는 한인 이주민의 정착을 위해서 1902년까지 면세정책을 실행했지만 1903년부터 “조선 니켈화로 2달러 60센트”(일본 은화로 1달러 30센트)에 상당하는 연간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레베제프는 울릉도 거주 일본인의 불법적인 행위를 기록하였다.

울릉도 거주 일본인은 “일본 집보다 크기가 조금 작고 편의시설도 부족한 상황이었다.” 레베제프는 울릉도 거주 일본인들의 거주 환경을 통해 일본인의 불법 거주 이유를 지적하였다. “일본인이 돈을 벌기 위한 단 하나의 목적으로 섬으로 들어오기 때문이었다.” “울릉도 거주 일본인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한인들의 마을에 거주하여 다른 일본인들과의 이해관계의 충돌을 피하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한인들을 착취하고 있었다.” 레베제프는 울릉도 거주 일본인이 경제적 이익을 확보(確保)하기 위해서 울릉도 거주 한국인을 착취하고 있는 상황을 포착하였다.³⁴⁾

레베제프는 울릉도 거주 일본인의 경제활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울릉도 거주 일본인은 잠수복을 준비해서 3월부터 5월까지 전복을 잡았다. 일본인은 경제적 활동 중 삼나무와 잣나무의 벌목작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였다. 일본인은 삼림을 벌목한 다음 주로 계곡을 통해 원목을 보내고, 항구에 정박한 배를 통해서 일본

34) Е. Лебедев, Остров Дажелет(울릉도), Известия Восточного Института, XI, 1904. С.170.

에 수송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일본인은 목재를 일본에 수송하는 항구로 도동을 주로 이용하였다.³⁵⁾

레베제프는 목재 밀반출의 주요 항구인 도동항에서 일본의 영향력을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레베제프는 울릉도 거주 일본 경찰이 울릉도 관련 사건에 직접 관여하여 월권행위를 하고 있는 사실을 파악하였다.

“일본인은 울릉도 도동항에 자국의 경찰서를 운영하고 있어서 2중 권력체제가 존재하였다. 법률적으로 조선의 공직자가 권력을 행사하지만, 사실상 일본 경찰이 모든 일에 관여하였다.”

레베제프는 울릉도 거주 한국인과 일본인의 대립을 기록하였다. 레베제프는 울릉도에 도착하자마자 “동양의 두 민족 간의 대립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울릉도 거주 한국인과 일본인의 대립을 포착하였다.

울릉도에 도착한 러시아탐사단은 울릉도에 임시 기지를 설치하기 위해서 15명의 한국인을 고용하였다. 마침 그때 일본인이 나타나자 고용된 한국인이 돌아가기 시작하였다. 오히려 나타난 일본인은 러시아탐사단의 일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돌아가는 15명의 한국인에게 러시아탐사단에 협력할 것을 지시하였다. 일본인 중 1명은 “일본 경찰관에게 요청하면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할 것이다”라고 러시아탐사단에게 제안하였다.

울릉도 거주 한국인은 일본인을 적으로 생각하고 증오하며 두려워하였다. 레베제프는 “러시아탐사단이 울릉도에서 일본인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방향을 결정했다”고 기록하였다. 러시아탐사단은 “섬에서 거주하는 일본인들의 권위를 인정하면, 러시아인도 일본인의 도움과 관리를 받는다”고 판단하였다. 러시아탐사단은 “수많은 짐을 가지고 이동해야 하는 모든 불편함을 감수하고

35) Е. Лебедев, Остров Дажелет(울릉도), Известия Восточного Института, XI, 1904. С.171.

일본인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며 러시아의 국익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일본인의 도움을 거절하였다. 결국 러시아탐사단은 일본인의 지원 제안을 거절하였다.³⁶⁾

레베제프는 일본인의 불법 벌목의 현장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울릉도 거주 일본인은 자신들의 벌목작업이 불법이라는 것을 인지하였다. 일본인은 러시아탐사단이 울릉도를 방문하자 그 순간부터 울릉도의 벌목작업을 중단하였다. 레베제프는 “나무토막과 나무줄기에 남아있는 도끼의 흔적들만 일본인들의 약탈행위를 입증하였다”며 울릉도에서 일본인 불법 벌목의 심각성을 지적하였다. 레베제프에 따르면 “해마다 약탈자 일본인이 증가하면서 벌목된 산림 면적도 커지고 있다. 러시아는 울릉도의 사용권을 소유했지만 황폐한 불모지로 바뀐 산봉과 암벽만 보유하게 될 것이다.”³⁷⁾

러시아탐사단이 일본인의 도움을 거절한지 이틀이 지나자, 울릉도 거주 한국인이 접근하였다. 레베제프는 한국인이 “처음에는 식량과 관련된 부탁을 들어주다 나중에는 신뢰가 구축되면서 일본인들과의 삶에 관한 이야기도 털어냈다”고 기록하였다. 레베제프에 따르면 “일본인은 한국인의 인종을 업신여겼고 무장한 일본인 2-3명이 한국인의 집에 나타나서 한인들의 살림을 자신의 물건처럼 다루며 폭력을 행사하였다. 일본인은 한국인에게 일을 시키거나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면서 그에 상당한 금액을 지불하는 대신 일본산 상품으로 대체하며 착취하였다.” 레베제프는 울릉도 거주인의 현물 지급 때문에 돈이 유통되지 못한 사실을 파악하였다.³⁸⁾

36) E. Лебедев, Остров Дажелет(울릉도), Известия Восточного Института, XI, 1904. С.172.

37) E. Лебедев, Остров Дажелет(울릉도), Известия Восточного Института, XI, 1904. С.174.

38) E. Лебедев, Остров Дажелет(울릉도), Известия Восточного Института, XI, 1904. С.173.

레베제프에 따르면 “러시아탐사단은 일본인들의 도움을 거절하고 그들과 어떤 관계도 갖지 않으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레베제프는 울릉도 거주 한국인과 일본인의 극단적인 관계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일본인은 총알이 없어서 한국인과 맞서지 못했다. 일본인은 한국인의 집을 지나갈 때 한국인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면서 고개를 반대편으로 돌렸다.” 그만큼 울릉도 거주 한국인과 일본인의 갈등과 대립은 심각하였다.³⁹⁾

4. 맺음말

까르제프(В.А. Карцев) 대위가 지휘한 러시아 군사 수송선 야꾸트호(Якут)는 1903년 8월 31일 블라디보스톡 출발, 9월 2일 울릉도 도착, 9월 3일 울릉도 남양포(南陽浦) 상륙, 9월 10일 도동에서 심홍택 면담 직후 출항하였다. 울릉도를 조사하고 심홍택을 면담한 인물은 러시아 장교가 2인, 통역이 1인, 수병이 16명이었다. 통역관은 레베제프(Е. Лебедев)였고, 군의관은 메르꾸쉐프(В.А. Меркушев)였다.

러시아탐사단은 울릉도에서 일본인들의 도움을 거절하고 어떤 관계도 갖지 않으려고 노력하였다. 그 과정에서 레베제프는 울릉도 거주 한국인과 일본인의 극단적인 대립을 생생히 목격하였다. 레베제프에 따르면 일본인은 총알이 없어서 한국인과 맞서지 못했다. 일본인은 한국인의 집을 지나갈 때 한국인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면서 고개를 반대편으로 돌렸다. 그만큼 울릉도 거주 한국인과 일본인의 갈등과 대립은 심각하였다.

39) Е. Лебедев, Остров Дажелет(울릉도), Известия Восточного Института, XI, 1904. С.173.

레베제프는 러시아탐사단이 울릉도 거주 한국인에게 호감을 주었다고 주장하였다.

한국인은 “가장 좋은 식량을 공급해 주었고, 일을 철저히 도와 주었고, 편할 때 돈을 지불해도 된다”며 러시아탐사단에게 친절히 대했다. 레베제프는 한국인이 러시아탐사단을 신뢰한다는 일화를 소개하였다. 러시아탐사대의 출발 전날 한국인은 메르꾸셰프(В.А. Меркушев)를 찾아와서 자신의 아내를 치료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메르꾸셰프는 다리에 누(癭, 부스럼 fistula)가 생긴 환자를 진찰하고 환부를 소독해 주었다.

레베제프는 울릉도에 대한 러시아의 상업적 전략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레베제프는 “러시아 외교관이 극동에서 영향력강화를 위해 노력해 얻은 성과인 울릉도삼림채벌권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레베제프는 러시아 민간기업이 정부의 지원을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울릉도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레베제프는 러시아가 울릉도 삼림채벌권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왜 러시아 기업인들은 삼림 작업에 착수하지 않을까”라고 반문하였다. 레베제프는 “일본과 중국이 목재 판매시장이고, 러시아와 만주도 목재에 대한 수요가 있으며, 한국 현지에서 저렴한 인력을 고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레베제프는 현재 판매 시장 및 인력 확보가 가능하지만 러시아 자본가가 “지나친 소극적인 자세와 틀에 박힌 생활에 안주하는 자세 때문에 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비판하였다. 레베제프는 “러시아인이 전쟁에서만 강하지 않고 평화로운 삶 속에서도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전쟁터처럼 경제 현장에서도 적극적이고 열성적인 태도로 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⁴⁰⁾

40) Е. Лебедев, Остров Дажелет(울릉도), Известия Восточного Института, XI, 1904. СС.173-174.

울릉도에 관한 러시아탐사는 러시아의 경제적인 이권의 확장 뿐만 아니라 향후 일본과의 전쟁 가능성에 대한 대비차원에서 진행되었다. 러시아 해군제독 알렉세예프(Алексеев Е.И., 1843-1918)는 이미 1896년 1월 한국의 주요 항구를 조사하면서 동해안의 전략적인 거점으로 울릉도를 주목하였다.⁴¹⁾ 더구나 알렉세예프는 1903년 9월 20일 러일전쟁 관련 군사적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만약 일본이 제물포, 진남포 혹은 압록강 하구로 상륙할 경우에는 해안에서 진영을 펼치는 상륙부대에 대해 공개적인 무력시위를 개시한다.”⁴²⁾ 러시아 해군은 일본이 동해를 통한 한국 상륙에 대비한 전략을 마련하였고, 그 중 동해에서 러시아의 중요한 해상거점으로 울릉도의 가치를 인식하였다.

1896년 러시아는 울릉도의 삼림채벌권을 획득하고 울릉도에서 일본인의 불법적인 벌목에 항의하였다. 이와 동시에 러시아 해군은 울릉도의 삼림과 지형을 상세히 조사하고, 기뢰의 설치장소까지 파악하였다. 이것은 야꾸트호를 비롯한 러시아함정이 러일전쟁을 예상하고 동해에서 일본과의 해전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원고투고일 : 2018. 8. 1, 심사수정일 : 2018. 11. 15, 게재확정일 : 2018. 11. 19)

주제어 : 러시아 군 수송선, 야꾸트호, 울릉도, 까르쎬프 대위, 통역관 레베제프, 알렉세예프 제독, 심흥택

41) РГАВМФ. Ф.417. Оп.1. Д.1340. ЛЛ.375-392, 1896.1.21.

42) ГАРФ. Ф.543. Оп.1. Д.186. ЛЛ.1-146.

〈참 고 문 헌〉

- 김호동, 「개항기 울도군수의 행적」, 『독도연구』 19호 (경산: 영남대독도연구소, 2015) : 7-50
- 홍정원, 「조선의 울릉도 독도 인식과 관할」, 한국학중앙연구원박사논문 (분당: 한국학중앙연구원, 2016)
- 까를로 로제티, 서울학연구소 역, 『꼬레아 꼬레아니』 (서울: 숲과나무, 1996)
- 『독립신문』, 1899.11.14.
- 『帝國新聞』, 1899.11.27.
- 『帝國新聞』, 1902.3.1.
- 『帝國新聞』, 1899.12.8.
- 『皇城新聞』, 1899.12.5.
- 『皇城新聞』, 1900.3.10.
- 『皇城新聞』, 1899.12.25.
- 『皇城新聞』, 1903.11.17.
- 『各觀察道案』, 光武十年自隆熙四年至, 一一三(奎章閣, 7990-1)
- 報告書第六號, 光武七年(1903)十一月二十八日, 「江原道來去案」第一冊, 『各司
膽錄』 28, 江原道篇 2, 江原道觀察使金禎根一議政府贊政外部大臣臨
時署理議政府贊政宮內府特進官李夏榮(奎17985)
- 交涉局, 光武七年十二月一日, 『外部日記』 7冊, 入直 李範奭 金瑞圭(奎17841)
- 交涉局, 光武七年十二月十一日, 『外部日記』 7冊, 入直 丁大有 方大榮(奎17841)
- 照會 第十八號, 光武七年(1903)十二月五日, 「內部來去文」 15, 議政府贊政內部
大臣臨時署理議政府參政 金奎弘一議政府贊政外部大臣臨時署理宮內府
特進官 李夏榮.
- 『駐韓日本公使館記錄』(20), 1903년 10월 7일, 各館來信 (7) 韓第41號 「러시아
수병의鬱陵島 상륙에 관한 건」, 在釜山 領事 幣原喜重郎一特命全權
公使 林權助.
- РГАВМФ. Ф.417. Оп.1. Д.1340. ЛЛ.375-392.
- ГАРФ. ф.543. Оп.1. Д.186. ЛЛ.1-146.
- Глушков В.В. На островах уллыиндо и докдо в восточном м
оре. М., 2018.

Лебедев Е. Остров Дажелет. Известия Восточного Института
а. XI. Владивосток. 1904.



<Abstract>

Investigation and contents for Ulleungdo of Russian military transport ship Yakut in 1903

Kim, Young-soo

A Russian military transport ship called Yakut (Якут), led by Captain Kartsev(В.А. Карцев), departed from Vladivostok on August 31, 1903, arrived on Ulleungdo on September 2, landed on Namyangpo in Ulleungdo on September 3. And departed immediately after his interview with Shim Heung-taek in Dodong on September 10. Two Russian officers, one interpreter and 16 Marines were interviewed by Shim Heung Taek. The interpreter was Lebedev (Е. Лебедев), and the military surgeon was Mekuchev(В.А. Меркушев).

The Russian explorer refused to help the Japanese on Ulleungdo and tried not to have any relationship. In the process, Lebedev vividly witnessed the extreme confrontation between Koreans living in Ulleungdo and Japanese. According to Lebedev, the Japanese did not have a bullet and could not face the Koreans. When the Japanese passed through the house of the Koreans, they turned their heads to the other side without facing the Koreans. The conflict and confrontation between Koreans living in Ulleungdo and Japanese people were serious.

The Russian exploration of Ulleungdo was conducted not only to expand economic interests in Russia but also to prepare for possible future war with Japan. Russian Navy Admiral Alekseyev (Е.И. Алексеев) already paid attention to Ulleungdo as a strategic base on the east coast, examining major ports in Korea in January 1896. Moreover, Alekseyev presented the military strategy for the Russo-Japanese War on September 20, 1903. If Japan lands at Jemulpo or the Yalu

River, it will open an open military demonstration against the coastal fighters. The Russian Navy prepared a strategy for Japan to land in Korea through the East Sea, recognizing the value of Ulleungdo as an important maritime base in Russia from the East Sea.

Key words : Russian military transport ship, Yakut, Ulleungdo, Captain Kartsev, interpreter Lebedev, Admiral Alekseyev, Shim Heung-taek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18, No. 109, pp.33-80
<https://doi.org/10.29212/mh.2018..109.2>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러일전쟁 이전 대한제국 원수부의 군무정책 강화와 군사운영의 성격*

문준호**

1. 머리말
2.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른 원수부 개편과 군무정책의 강화
가. 러·일의 갈등 고조와 의화단 확산에 따른 위기의식 대두
3. 「원수부관제」 개정 및 군비확충을 통한 군무의 격상
4. 대내외 위기에 대응한 원수부의 군사운영과 지향 목표
가. 국경지역 병력 증강과 방어태세의 강화
5. 지방 진무 및 내부 안정을 통한 외세의 개입 차단
6. 맺음말

* 본 연구는 석사학위논문의 일부를 토대로 수정보완한 것임.

** 육군3사관학교 군사사학과 조교수

1. 머리말

1899년 6월 22일, 대한제국 정부는 「元帥府規則」을 반포하였다. 이는 당시 대두하였던 군제개편 논의 수렴과 대내외적 위기 극복을 위해 구상된 ‘強兵政策’의 일환이었다.¹⁾ 주지하다시피 외압의 고조와 내부 정세의 혼란은 조선의 사회구조 내에서 군사 분야의 중요성을 증대시켰고, 이는 대한제국 수립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따라서 정국운영의 실질적 중심으로 거듭나고자 했던 고종이 원수부를 창설할 당시, 실재했던 대내외적 위기는 군사기능이 집약된 기구 창설에 당위성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고종은 외세로부터의 대외적 자주성 확보는 물론 정권 장악 및 내부 안정에 진력할 기반을 마련하였다.

원수부는 조직의 책임자가 대원수로 설정된 특별 기구이자, 국방에 관한 명령을 관장하고 군부와 중앙 및 지방군을 지휘·감독하는 군사기관이었다. 그러므로 이전까지 군부가 관장하던 제반 군사업무는 고종의 의도가 반영된 원수부의 기획으로 실행되었다. 특히 국제정세의 급변과 내부 불안정에 따라 군무의 중요성이 격상되자, 원수부의 기능은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권력 구조의 변화가 수반되었으며, 군사운영을 총괄했던 원수부는 광무연간 대한제국의 핵심기구로 자리매김하였다. 러·일 개전 이후 일본이 군제개정을 명분으로 기능을 상실시켰던 정부조직이 원수부였다는 점 역시 위 사실을 방증한다.

지금까지 대한제국기 군사제도에 관한 연구는 근대적 군제의

1) 軍事は 근대사회의 핵심 분야로 政治·經濟·文化 등과 접합하여 國家制度를 형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富國強兵’ 그 자체는 근대국가가 지향한 목표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군사제도 및 운용에 대한 천착은 ‘근대’라는 역사적 시대상을 규명하기 위한 일 분야로 연구의 활성화가 필요한 부문이다.

수용과 변화양상을 통시적으로 살피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다.²⁾ 원수부를 단일주제로 한 연구 역시 관제를 표면적으로 분석하여 설치 및 폐지를 제도적 차원에서 주목한 소고였다.³⁾ 이들 연구는 연대기 사료 및 칙령으로 반포되거나 법령으로 명시된 사료를 활용했지만, 대내외적 요인과 군사적 대응을 연동하여 파악하지 않았으므로 제도사의 공백 속에 놓여있는 군사운영의 실질적 양상과 성격에 관한 해석을 유보하였다. 한편 군사정책의 추이와 역사적 성격을 황권 강화와 결부시켜 파악한 연구⁴⁾, 군사력 증강책의 발현을 대외정책의 범주에서 분석한 연구⁵⁾에서는 대한제국의 전반적인 군사기구를 전제군주제 지향을 위한 권력 확보 수단으로 평가하며 국방 기능을 부정하였다. 당대 추진된 군사력 증강을 강압적 권력의 축적으로 파악하며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였던 것이다.

해당시기 정치사 연구는 정권기반의 실질적 요소인 군사력을 다루는 기구라는 점에서 원수부 창설을 고종의 황권강화책의 일환으로 해석하였다.⁶⁾ 당대 추진된 제반 정책의 성격이 근대적이었느냐 혹은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논쟁이 공전하는 가운데 원

2) 車俊會, 「韓末 軍制改編에 대하여 : 軍隊解散에 이르는 過程」, 『歷史學報』 22, 1964 ; 車文燮, 「舊韓末 軍事制度의 變遷」, 『軍史』 5, 1982 ; 金世恩, 「開港 이후 軍事制度의 改編過程」, 『軍史』 22, 1991 ; 서인한, 『대한제국의 군사제도』, 혜안, 2000 ; 심현용, 『한말 군 근대화』,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2 ; 육군본부 군사연구소 編, 『한국군사사』 9, 경인문화사 2012.

3) 鄭夏明, 「韓末 元帥府 小考」, 『육사논문집』 13, 1975.

4) 조재곤 「대한제국기 군사정책과 군사기구의 운영」, 『역사와 현실』 19, 1996.

5) 현광호, 『대한제국의 대외정책』, 신서원, 2002.

6) 서영희, 『대한제국 정치사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 徐珍敎, 「대한제국기 정치지배세력과 정국운영-군비강화책의 추진과 권력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근현대사연구』 26, 2003 ; 張暎淑, 「고종의 軍統帥權 강화시도와 무산과정 연구 - 대한제국의 멸망원인과 관련하여」, 『軍史』 66, 2008 ; 도면희, 「황제권 중심 국민국가체제의 수립과 좌절(1895~1904)」, 『역사와 현실』 50, 2010.

수부의 창설은 대체로 친위기구의 운영을 통한 고종의 공권력 장악으로 이해된 것이었다.⁷⁾ 이외에도 군사예산의 운영양상과 성격을 구명하는 연구에서도 원수부는 언급되었다.⁸⁾ 이들 연구는 정부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군비의 확대 동인과 실제 지출양상 및 지급 방식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그러나 전술한 정치·재정분야의 연구들은 시기별로 변화된 외부세력의 영향력과 국내의 사회문제 확산에 대응한 원수부의 역할 및 기능을 군사적 관점에서 조명하지 못하였다.

요컨대 기존 연구들의 성과를 통해 원수부를 비롯한 대한제국의 군사기구는 군 본연의 직무인 국방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집단에 가까웠다는 평가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원수부가 추진했던 군사정책과 병력운용의 의미는 동아시아라는 확장된 범주의 국제정세와 구체적인 국내 상황을 종합적으로 조망하여 이해해야 한다.⁹⁾ 국방은 위협세력의 행위와 대응관계에 있고, 위협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까지 포괄하기 때문이다. 또한 실질적인 외압과 내부소요는 시기별로 복잡한 층위를 보였으며, 정부의 상황판단 및 위협정도의 인식에도 우선순위가 있었다. 따라서 병력의 전개양상을 토대로 군사정책의 추진과 그 지향 목표를 치밀하게 분석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군사운영의 양상이

7) '광무개혁' 연구반, 「'광무개혁' 연구의 현황과 과제」, 『역사와 현실』8, 1992 ; 이태진·김재호 외, 『고종황제 역사청문회』, 푸른역사, 2005 ; 한영우 외, 『대한제국은 근대국가인가』, 푸른역사, 2006.

8) 이윤상, 「1894~1910년 재정 제도와 운영의 변화」,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96 ; 양상현, 「대한제국의 군제 개편과 군사 예산 운영」, 『역사와 경계』61, 2006 ; 김기성, 「대한제국기 진위대 증설의 재정적 영향」, 『역사와 현실』90, 2013.

9) 최덕수는 19세기 한국근대사 연구에 있어 외압의 주체 및 영향력의 층위가 시기별로 변동되었으므로 구체적인 연구시기의 국내정황 및 국제정세를 포괄하여 총체적으로 분석해야 함을 시사하였다. 최덕수, 『개항과 조일관계』, 고려대학교출판부, 2004 ; _____, 『대한제국과 국제환경 : 상호인식의 충돌과 접합』, 선인, 2005.

뚜렷하게 드러나는 1899~1901년까지를 중심으로 대내외적 위협의 정도와 대응의 우선순위 판단에 따라 이행되었던 당시 대한제국의 군사정책의 궁극적 의도와 지향 목표는 적어도 국방에 있었음을 논증하고자 한다.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2장에서는 러·일의 군비경쟁과 의화단사건의 발발로 가중된 동아시아 국제정세의 혼란과 그 대응책으로 마련된 대한제국의 군무정책 강화를 「元帥府官制」개정과 군비확충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3장에서는 국경지역에서의 방어태세 강화와 내부 안정이 국외세력의 침략적 개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에 있었음을 논증하여, 원수부를 통한 군사운영의 지향이 국가 안전보장에 있었다는 것을 규명한다.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활용한 사료는 다음과 같다. 우선 황제의 재가를 받은 奏本의 副本을 모아놓은 『元帥府奏本副』(奎17784), 원수부와 외부의 조회와 조복을 엮은 『元帥府來去案』(奎17809), 원수부에서 의정부로 보낸 군 관계 공문을 철해 놓은 『元帥府來文』(奎17783) 등 奎章閣 소장 자료를 참고하였다. 해당 사료들은 당대 원수부를 중심으로 추진된 군사정책과 실질적인 병력운영을 살피는데 유효하였다.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 국제정세와 러·일의 정책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駐韓日本公使館記錄』, 『러시아자료 번역집』을 활용했으며, 『프랑스외무부문서』를 통해 제 3국의 당대 정황인식까지 파악하였다. 이러한 사료들은 다원적 주체의 입장에 따라 기록된 것이므로 상호참작하여 객관성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한편 언론보도의 동향을 확인하기 위해 『皇城新聞』, 『독립신문』, 『데국신문』 등 국내신문과 『東京朝日新聞』, 『東京日日新聞』, 『鎮西日報』, 『The New York Times』 등 다방면의 해외신문 기사까지 폭넓게 참고하였다. 뿐만 아니라 『梅泉野錄』, 『뫼텔주교일기』, 『Undiplomatic Memories』 등

내·외국인 기록을 통해 당대 정황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전체 사료의 날짜표기는 원문을 따르되, 음력은 양력으로 일괄 전환하여 표기하였다.

2.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른 원수부 개편과 군무정책의 강화

가. 러·일의 갈등 고조와 의화단 확산에 따른 위기의식 대두

창설배경에 담긴 복합적 동인으로 원수부는 고종 직속의 ‘특별 기관’으로 설치되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보다 군사 분야를 담당하는데 초점이 맞춰진 기구였다. 따라서 현실화된 대외적 위협에 대한 대응은 최고군사기관으로 신설된 원수부가 담당해야 할 직무였다.

1899년 7월부터 러시아와 일본이 충돌한다는 풍설이 대내외에 유포되기 시작하였다. 러시아군과 일본 순사가 부산의 일본인 거류지 京阪亭에서 마찰을 일으킨 것이 발단이었다.¹⁰⁾ 이후 일본 함대 9척이 인천에 집합하고 육전대가 남산에서 군사훈련을 하자 러시아 공사관의 스트렐비츠키(И.И.Стрельбицкий)는 블라디보

10) 부산 소재 서양요리점 경관정에서 러시아 코레예츠(Koryetz)호 승선 해군사관이 술에 취해 해당식당 기생과 고용인을 폭행하여 일본 순사 2명이 러시아 사관에게 부상을 입힌 사건으로 이는 양국의 외교 분쟁으로 확대되어 양국은 해당사건에 대한 조사단을 파견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은 일본순사에 대한 처벌과 해당 요리점에 대한 경고로 일단락되었다.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3, 1899年 7月 13日, 在釜山 領事館事務代理 領事官補 中村巍 → 外務大臣 子爵 青木周藏; 朴鐘孝 編著, 2002, 『러시아 國立文書保管所 所藏 韓國 關聯 文書 要約集』, 한국국제교류재단, 225쪽.

스토크에 있는 러시아 군함 12척을 인천에 보내 견제할 것이라 언급하는 등¹¹⁾ 양국은 첨예한 외교적 대립을 이어갔다. 이는 무력충돌의 촉발원인이자기 보다 자국의 이익 보호 및 실현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나, 갈등을 고조시킨 사건으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1899년 10월에는 부산에 상륙한 러시아 순양함 가이다막(Гайдамак) 선원 12명에게 부산에 거주중인 일본인 200명이 돌을 던져 7인이 심각한 부상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였다.¹²⁾ 이로 인해 러시아 해군성에서도 일본군의 공격 재발을 막기 위해 동일한 수의 군대를 대한제국에 주둔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람즈도르프(В.Н.Ламздорф)에게 상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외교적 마찰은 곧 양측 갈등의 근원이었던 만주에서의 러시아 우위 인정에 관한 문제로 확산되었다. 이것은 또한 양국의 한반도 인식과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었다. 러시아는 만주확보를 위해 대한제국을 일본에게 ‘양보한 것’이라 생각했지만, 일본은 이를 자신들의 능력으로 ‘달성한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¹³⁾ 이후 대한제국을 두고 러시아와 일본이 상호를 견제하던 국면이 전환되어 만주가 분쟁지역으로 거듭나자 러시아 내부에서도 분쟁의 근원지를 대한제국으로 이동시켜 다시금 한반도를 쟁점지역으로 선정하고 만주에서의 우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론화 되었다.¹⁴⁾

이후 러시아는 豆滿江·鴨綠江·旅順으로 이어진 전선의 장악

11) 『駐韓日本公使館記録』 13, 機密第71號, 1899年 7月 26日, 林 公使 → 青木 外務大臣.

12) 朴鐘孝 編著, 위의 책, 2002, 225쪽.

13) 러시아는 일본이 대한제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간 것에 대해, ‘관념적’이라고 하더라도 러시아가 일본이 대한제국에서 지배적 이해관계를 가지도록 인정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양보’였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박재만 譯, 『러시아문서 번역집』 6, 선인, 2011, 167~168쪽 참고(ГАРФ, ф.543, оп.1, д.185, лл.1-107об).

14) 『러시아문서 번역집』 6, 162쪽 참고(ГАРФ, ф.543, оп.1, д.185, лл.1-107об).

을 계획하였고,¹⁵⁾ 1899년 전쟁·해군·교통성에 정부 총 지출의 약 48.3%를 투자하였다.¹⁶⁾ 이러한 러시아의 외교적 조치에 대해 당시 주한 프랑스공사 플랑시(Plancy)는 러시아가 대한제국을 전략적 중요지역으로 선정하여 자신들의 세력권 내에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고 본국에 보고하기도 하였다.¹⁷⁾

일본 또한 1899년 세출총액의 약 44.9%를 군사비에 투자하며 군사력 증강에 매진하였다.¹⁸⁾ 특히 해군력 증강에 집중하여 1896년부터 차후 10년간 군함 94척, 기타잡선 584척을 건조시킬 계획을 지니고 있었는데, 이에 관한 총 경비는 약 213,100,000 円으로 1894년 청일전쟁 전체 전쟁비용에 필적하는 금액이었다.¹⁹⁾ 이처럼 러시아와 일본의 갈등 양상이 해군력증강으로

15) 해당지역 확보의 이점을 러시아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①한반도 북부 산악 및 해안의 자연적 장애물과 전초기지를 설치를 통해 최단 거리의 국경을 확보할 수 있다. ②전략적 전선의 위치를 후방의 연락보급로와 수직을 이루게 함으로써 원활한 상황전파 및 효율적 보급체계를 구비할 수 있다. 『러시아문서 번역집』 6, 50~51쪽 참고(ГАРФ, ф.543, оп.к.의 1, д.185, лл.1-10706).

16) 당시 러시아 정부의 총 지출은 1,464,000,000루블이었다. 그런데, 육군성·해군성·교통성은 각각 336,000,000루블(22.9%), 84,000,000루블(5.7%), 288,000,000루블(19.7%)로 3개 기관의 총 지출이 정부 총 지출 가운데 48.3%를 차지하고 있었다. *Dietrich Geyer, trans. Bruce Little, Russian Imperialism-The Interaction of Domestic and Foreign Policy 1860-1914*(New Haven : Yale University Press), 1987, p.139.

17) 국사편찬위원회 編, 2010, 『프랑스외무부문서』 9, 1899年 10月 14日, 일본 주재 프랑스공사 J. 아르망 → 외무부 장관 델카세, 31쪽.

18) 일본의 군사비는 1896년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으며, 세출총액의 40 ~ 50%를 유지하고 있었다. 특히 1899년부터 1900년까지 1년 사이 총 군사비는 114,308,000 円에서 133,174,000 円으로 확대되어 18,866,000 円이 증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山田朗, 『軍備拡張の近代史-日本軍の膨脹と崩壊』, 吉川弘文館, 1997, 10~11頁.) 이는 실질적인 군사충돌이 있었던 청일전쟁·러일전쟁 기간을 제외하였을 때, 가장 큰 폭으로 군비가 확대된 시기였다. 이를 통해 러시아와 일본의 군사적 긴장관계가 형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 일본은 1896년을 기점으로 1905년에 완공 계획이었던 전함들을 러시아와의 정

나타나자 국내외 언론 또한 양국의 군비경쟁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皇城新聞』과 『독립신문』에는 양국의 군함 확보에 관한 기사가 실렸고,²⁰⁾ 러시아가 동양함대를 압록강 일대에 취집하고 여순에 있는 군대를 한국으로 파송한다는 것과 이에 대항해 일본의 육군도 한국으로 상륙한다는 것이 보도되기도 하였다.²¹⁾ 한편 유럽에서도 러·일의 충돌을 예상할 만큼 양국의 군사적 행보는 국제사회의 관심을 받기도 했는데, 대표적으로 독일신문 *Kölnische Zeitung*²²⁾은 양국의 개전에 대해 긴박한 논조의 기사를 보도하기도 하였다.

조만간 러시아와 일본의 관계단절은 피할 수 없을 것이고, 다만 봄이 올 때까지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일본이 유럽에 주문한 다량의 선박이 배송되기를 기다리기 때문이며, 그쯤에 모두 완료될 것

세가 긴박해짐에 따라 계획보다 3년 앞당긴 1902년에 건조하였다.(藤原彰 著, 서영식 譯, 『日本軍事史』上, 제이앤씨, 2013, 145~146쪽) 특히 전투·해상 화력 지원 등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하고, 비교적 소규모이면서도 독자적 작전이 가능한 구축함을 계획보다 다수 확보한 것은 러시아와의 충돌에 즉각 대비하기 위한 성격의 조치로 판단된다.

[표 1] 일본의 군함 제작 계획과 실제 건조된 군함 수(1902)

구 분	장갑전함	수뢰포함	수뢰모함	순양함	수뢰정	구축함	총 계
계 획	4	3	1	11	63	12	94
실 제	4	1(-2)	0(-1)	12(+1)	66(+3)	23(+11)	106(+12)

20) 『皇城新聞』 1899년 11월 22일, 外報 「日俄軍備」; 11월 28일, 外報 「俄國海軍豫算」; 『독립신문』 1899년 12월 2일, 잡보 「일어군비」.

21) “俄國은 東洋艦隊本部中幾許兵艦을 鴨綠江의 海口에 聚集하기로 準備하고 且旅順口의 駐屯俄兵을 韓國으로 派送한다 하였고 又東京發電에 日本의 廣島縣鎮臺의 陸軍은 一兩日間派出할터인 其所向處 莫知하나 韓國으로 向할듯 하다 하더라.” 『皇城新聞』 1900년 2월 3일, 雜報 「日俄派兵」.

22) 독일 라인란트 지방 신문인 *Kölnische Zeitung*은 1895년부터 세계 각국의 해군력 증진에 관심을 가졌고, 특히 독일의 국가방위 강화 및 상업적 이익을 위해 대규모 간함정책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다. 김태산, 「독일 해군연맹(Deutscher Flottenverein)의 성격 변천 -1898~1908년 지도부의 변화를 중심으로-」, 『서양사연구』 35, 2006, 100쪽 참고.

이다. 현재 선박은 거의 완성된 상태이다.²³⁾

이처럼 양국의 충돌 가능성은 대내외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도되었다. 실제로 러시아 정부는 태평양 분함대 사령관 길테브란트(Гильдебрандт) 제독에게 훈령을 내렸는데, 그 내용은 블라디보스톡과 뤼순을 주요거점으로 장악하여 기동훈련 및 함포사격 등 실전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할 것, 장교들을 이용하여 첩보를 수집하고 필요시 외국 주요 신문을 번역하여 러시아 본국으로 송부할 것, 연료 보존 및 절약과 함선 결함 시정을 통해 전투물자를 축적할 것, 전자 및 수신호체계를 숙지하고 비밀서한 중 특별히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장교를 통해 보고할 것 등이었다.²⁴⁾ 전반적으로 유사시를 대비하여 전투임무 수행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데 배전의 노력을 다하라는 내용이었다. 한편 일본 역시 군함을 이용하여 평안도 연해를 측량하였으며, 주한 육군 수비병은 야외훈련을 실시하기도 하였다.²⁵⁾

이처럼 양국의 충돌설 및 긴장관계 형성으로 대한제국의 대외 위기의식은 고조되었다. 우선 고종은 평양 진위대를 수도의 규례와 같이 편제할 것을 원수부에 지시하였다.²⁶⁾ 이로 인해 1899년 1월 15일 勅令 第2號 「鎮衛隊編制를 改正하는 件」 반포 이

23) 『프랑스외무부문서』 9, 1899年 11月 11日, 베를린 주재 프랑스대사 드 노에이→외무부 장관 텔카세, 40~41쪽.

24) 국사편찬위원회 編, 『러시아국립해군성문서』2, 2009, РГАВМФ, ф.417, оп.1, д.2011, лл.15~20.

25) 1899년 10월 13일, 일본의 해군대신이었던 야마모토 곤베(山本権兵衛)는 ‘현 시점에서 러시아와의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니, 러시아 군함과의 직접적 접근은 피하되 원거리에서 거동을 신중히 감시하라.’는 훈령을 내리는 등 러시아의 움직임에 대해 조심스런 행보를 보였다. 그러나 1900년 초부터 일본은 한반도 내에서 연해측량, 야외훈련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기 시작하였다. 『皇城新聞』 1900年 2月 14日, 雜報 「日艦來港」, 「日隊野演」.

26) 『元帥府奏本副』1 光武 3年 11月 3日.

후 404명 편제로 구성되었던 평양 진위대는 기존대비 2배 이상 증원되어 대대본부 이하 5개 중대 편성으로 확대되었고 총 인원은 1,004명이 되었다.

고종은 조령을 내리며, “外侵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평양은 관서의 요충지이다.”라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군사적 조치는 러시아와 일본이 압록강일대 및 진남포 등 관서지방에서 충돌할 것이라는 보도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처럼 러·일 양국의 군비증강 및 충돌설에 대한 대한제국의 대응은 상황발생 가능지역에서 인접한 전략적 요충지에 군대를 증설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²⁷⁾

한편 義和團事件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이전인 1898년부터 淸匪의 침략은 국경지역에서 간헐적으로 나타났다. 해당지역 주민들은 정부로부터 예산 및 무기를 받아 자구책을 마련하였다.²⁸⁾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비의 침략이 지속되자 평안북도 관찰사 朴鳳彬과 함경남도 관찰사 趙民熙는 청비 출몰지역에 포군 설치를 건의하였다.²⁹⁾ 이는 원수부 군무국에 의해 받아들여졌고, 이로써 국경지방에서의 청비에 대한 방어는 해당지역의 군민과 포수를 중심으로 실현되었다. 당시까지 청비는 국가전복의 위

27) 1899년 1월 15일, 조령 제2호로 반포된 「鎮衛隊編制를 改正하는 件」의 제4조에는 ‘第4條 各鎮衛·地方大隊 原位置 外에 緊要한 區域이 有하거든 自該隊로 量宜하여 隨時 分置하고 出駐도 할 事.’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평양부에 증강한 진위대의 임무는 평양 방어라기보다는 요충지에 대한 군대증설을 통해 상황발생지역으로 신속히 병력을 투입하기 위함이었음을 알 수 있다.

28) 정부에서는 1898년 9월 27일, 三水郡淸匪作擾時防守費 명목으로 663元 2錢의 예산을 해 군에 지급하였다. 한편 경원군 주민들은 「施惠字民」 11개조에서 청비의 침략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확산되니, 조충을 지급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기도 하였다. 『皇城新聞』 1898年 12月 5日, 雜報「施惠字民」.

29) 박봉빈과 조민희는 청비의 침략에 의해 인명·재산 피해가 막심하니 1896년 6월 11일 군부령 제 2호로 내려진 「유사한 지방 각군에 포수를 설치하는 세칙」에 따라 포군을 설치할 것을 건의했고, 이는 원수부 군무국장 조동윤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元帥府來文』 1, 光武 3年 10月 10日.

협주체로는 인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규모 군대투입은 고려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1900년 초부터 의화단 교도의 팽창이 가속화되어 그 활동범위는 直隸省 전역으로까지 확대되었고, 열강은 의화단 확산을 제지하기 위해 청국정부에 외교적 압박을 가하기 시작하였다.³⁰⁾ 대한제국 역시 청국내부 동향에 관심을 가졌는데, 1900년 2월 7일 하야시(林權助) 공사 접견시 고종은 의화단이 ‘東洋禍亂의 根源’이 될 수 있다고 염려하며 관련정보를 요청하기도 하였다.³¹⁾ 이후 청국정부의 의화단에 대한 통제력을 신뢰하지 못했던 청국 주재 공사들은 1900년 3월 11일, 본국에 군대를 요청하였다.³²⁾ 이 시점부터 서구 열강의 군대투입은 기정사실화되었고, 인접국의 전쟁 상황에 대한 대한제국의 대응은 군무의 격상으로 나타났다.



3. 「원수부관제」 개정 및 군비확충을 통한 군무의 격상

앞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러·일의 군비경쟁과 의화단 사건의 확산 등 대외적 위기에 대해 원수부는 점진적으로 군사적 대응책을 마련하였다. 그런데 이후 열강의 군 투입이 현실화되었고,

30) *The New York Times*, April 15, 1900, 'North China Terrorized'.

31)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4, 機密第3號, 1900年 2月 15日, 林 公使 → 外務大臣 子爵 青木周藏

32) Conger to Hay, March 9, 1900, telegram, March 10, 1900, Foreign Relations 1900, pp. 102-108. (William Reynolds Braisted, *The United States Navy In The Pacific 1897-1909*(Annapolis, Md. : Naval Institute Press), 2008, p.80.에서 재인용); 車瓊愛, 「韓國人の義和團運動 認識 및 이를 통해서 본 世界認識」, 『東洋史學研究』 84, 2003, 59쪽.

동아시아 정세의 급변으로 인해 대외적 위협은 심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적 맥락 속에서 대한제국은 1900년 3월 20일 「원수부관제」를 개정하였고, 이는 軍務 중심의 국정운영을 의미하는 조치였다.³³⁾ 이로써 원수부 4개국 局長의 호칭은 總長으로 승격되었고, 그 권한도 확대되었다. 고종은 관제개정 이후 즉각 관련 인사를 선별하였다.³⁴⁾

[표 2] 원수부 초대 총장과 군사관련 주요 약력³⁵⁾

구분	군사관련 관직 및 약력	비고
軍務局總長 李鍾健	1885년, 우포도대장 및 친군전영 감독 1895년, 총어사 및 연무공원관리사무 1896년, 육군부장 임명 및 군부대신	법규교정소 소속으로 「대한국국제」 제정 참여.
檢査局總長 趙東潤	1897년, 참령 임용 및 친위 3대대장 1898년, 육군참장 임명 및 군부협판 1899년, 육군부장 임명 및 원수부 군무국장	초대 군무국장 역임.
會計局總長 閔泳煥	1884년, 개성유수 · 해방 총관 / 1888년, 병조판서 1896년, 육군부장, 군부대신, 러시아 황제대관식 特命全權公使 1897년, 군부대신, 영국 여왕 즉위 60주년 의식 大使	「海天秋帆」, 「使歐續草」 등 저서에서 서구의 군제 및 규모를 긍정적으로 평가.
記錄局總長 李學均	1888년, 미군사교관 다이 보좌 1895년, 참령 임용 및 수원대 대대장 1899년, 육군참장, 원수부 검사국장	1898년, 무관학교 군사교범 『步兵操典』을 번역 · 출간.

육군 부장 李鍾健 · 趙東潤 · 閔泳煥은 각각 군무국 · 검사국 · 회계국총장에, 참장 李學均은 기록국총장에 임명되었는데, 이들은 순수 무관출신 또는 군 관련 기관에 근무한 경험이 풍부한 고위 관료로 모두 육군계급을 보유하고 있었다. 한편 이들은 황제의 친위 관료군 범주에 포함되는 인물들로 고종의 의도 구현

33) 『高宗實錄』 光武 4年 3月 20日 ; 『官報』 光武 4年 3月 22日.

34) 『承政院日記』, 光武 4年 3月 21日.

35) 국사편찬위원회 編, 『大韓帝國官員履歷書』, 탐구당, 1972.

에도 적합한 인물들이었다.³⁶⁾ 이외에 추가 및 변동된 사안은 제 3관에 명시된 내용이다.

[표 3] 「元帥府官制」 개정(1900. 3. 20) 이후 주요 변동사항

관제개정 이전	
第四條	元帥府各局長은 奉勅奉令하여 府部大臣에게 知照通牒과 京外各隊에 訓令함을 得함이라.
第五條	各局長이 奉勅奉令하여 各隊에 卽訓함을 得하나 隨後라도 此를 軍部大臣에게 知照함이라.
관제개정 이후	
第四條	各局總長은 帷幄에 軍機 贊壽함이라.
第五條	各局總長은 局務를 因하여 議政府에 提議함 事項이 有하거나 議案을 具하여 請議함을 得함이라.
第六條	各局總長은 局務에 處辦과 決定을 元帥殿下에 經한後에 大元帥陛下에 入奏하여 蒙裁施行함이라.
第七條	各局總長은 奉勅奉令하여 各部大臣에게 指令함을 得함이라.
第八條	各局總長은 主任事務로 府部大臣에게 知照하고 警務使 觀察使 以下口 訓令 指令함이라.

관제개정 이후에 명시된 4조는 원수부 각국총장들이 軍國機務의 핵심주체가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帷幄은 군령사무의 핵심으로 군사작전 계획을 의미하는데, 일본의 경우 帷幄上奏權은 大本營 참모총장 고유의 임무였다.³⁷⁾ 유약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었던 것은 각국 총장이 상위차원의 군사기획 및 작전수립을 담당한다는 것을 뜻했고, 이들의 집합체인 원수부가 유사시 국정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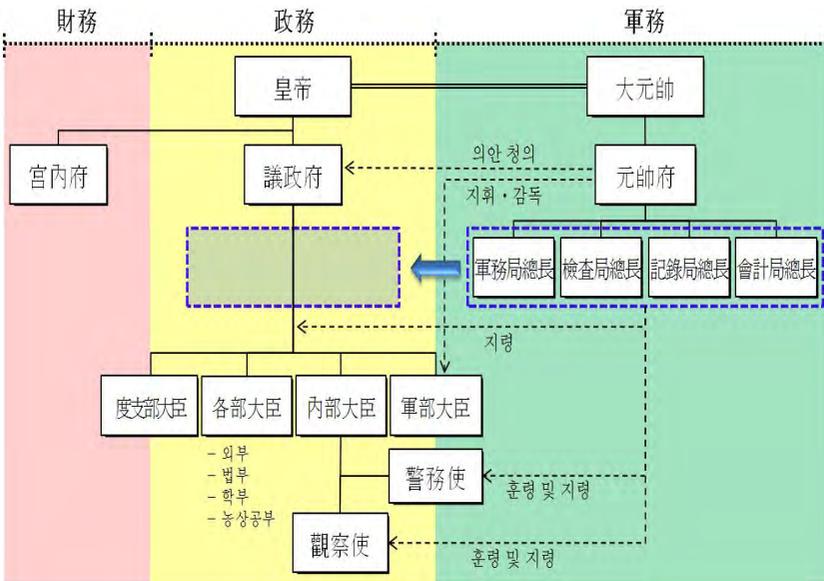
36) 서영희, 앞의 책, 2003, 80쪽.

37) 일본의 경우 유약상주권의 확보 여부를 군권의 장악 정도로 파악한다. 1893년 이래, 陸軍參謀總長만이 보유했던 유약상주권은 1903년 12월 28일 개정된 「戰時大本營條例」의 반포를 통해 海軍軍令部長도 공유하게 되었다. 이를 기점으로 일본군의 운영은 육군주도에서 양군연계로 전환되었다고 평가된다. 權九熏, 「大韓帝國期日本軍의 侵略과 民族의 抵抗(1897~1910)」, 建國大學校 史學科 博士學位論文, 2000, 49~51쪽 참고.

을 주도하는 기관으로 기능한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한편 유약상주권 정립 그 자체는 일면 전쟁을 대비하는 성격의 것이므로 대한제국의 위기의식 또한 관제개정에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원수부가 의정부에 의안을 청의할 수 있는 권한은 5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전에는 원수부 국장이 각부대신에게 知照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指令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경무사·관찰사 이하에게는 訓令할 수 있게 되었다. 지령 및 훈령은 그 자체로 원수부가 각부의 상위에 위치하는 조직임을 알리는 것이었다. 특히 치안유지를 담당하는 경무사와 지방에 관한 전권을 위임받은 관찰사에 대한 통제력 부여는 유사시 효과적 대응이 가능하게끔 지휘체계를 일괄적으로 정립한 것이었다. 점증하는 대외적 위협의 현실성에 따라 국가체제와 운영의 중심이 군사에 집중된 양상을 보였던 것이다.

[그림 1] 원수부 관제개정(1900. 3. 20) 이후 정부조직 관계도



이상의 관제개정을 통해 고종은 대원수로서 정체성을 발현하는데 집중할 수 있었다. 또한 그 세부내용을 살펴볼 때, 관제개정은 위기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방식은 최고군사기관인 원수부를 각부의 상위에 위치시키는 형태로 나타났다. 주지하다시피 전쟁 발발시에는 각 영역의 유기적 협조가 요구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정부조직에 대한 원수부 통제력을 대폭 확대한 것은 차후 발발할 위기에 관한 대처를 원수부가 총괄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유사시 군무담당 기구가 정부담당 기구에 대해 ‘指揮命令權’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다. 한편 원수부의 권한을 극대화시키는 가운데 대원수의 통제권을 재차 강조하며 황제에 귀속된 계통적 질서 또한 동시에 강화하였다. 이처럼 대외적 위기로 인해 군무정사는 격상되었고, 국방의 최고사령부인 원수부는 기존 정부조직을 상회하는 권한을 제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

한편 군사비에 대한 지출이 확대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만성적인 세입부족에도 정부는 군비를 확충하였고, 편성된 예산을 초과하는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정부의 예비비용이나 내장원의 자금까지 동원하여 군사비를 지원하였다.³⁸⁾ 특히 정부의 재정지출이 균형을 잃은 가운데서도 군인에 대한 월급은 우선 지급되었고, 전투장비 및 군수품에 대한 개발비 투자와 수입도 병행되었다.³⁹⁾ 부국강병의 실행노선으로 ‘군비축소를 통한 재정안정’과 ‘군비확대를 통한 군사력 증강’으로 양립된 이중적 시각이 존재했던 당시 상황에서 국방과 경제는 상호 보완적 성격보다 마찰적 관계로 이해되었지만,⁴⁰⁾ 대한제국 정부는 고조된 외압에

38) 이운상, 「대한제국기 황실 주도의 재정운영」, 『역사와 현실』 26, 1997, 116쪽.

39) 이운상, 위의 논문, 1997, 120쪽 ; 양상현, 위의 논문, 2006. 202~204쪽 참고.

40) 『皇城新聞』 1900年 2月 22日, 論說 「兵強不如國富」.

대한 군사적 방비 마련을 우선순위로 고려했던 것이다. 따라서 정부 총 예산이 약 4.9%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군사 예산은 오히려 약 15.1% 증가추세를 보였다.⁴¹⁾

따라서 재정적 역량이 뒷받침 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군비확충을 단순히 조세행정·재정운용 등 경제적 문제를 유발한 ‘비합리적’ 조치로 볼 수만은 없는 것이다. 시기별 타국의 군비확충 추이와 외압의 층위 및 강도에 대한 이해를 병행하여 이러한 지출구조가 정립되었던 이유를 규명해야 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당시 러시아와 일본은 총 정부예산 중 군사 관련 지출에 40%이상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들은 대한제국을 위협하는 ‘잠재적 침략 세력’이었고, 그 잠재성은 개입명분의 포착에 따라 언제든지 표출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국정운영의 중심이 군사부문에 집중되었던 것이고 재정 역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방향으로 운용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대외적 위기 상황에 따라 대한제국은 군사제도의 정비와 군비 확산을 통해 군사적 관점이 가장 우월한 국가, 즉 국정운영에 있어 군사를 제 분야의 우위에 둔 국가로 거듭나게 되었다. 다만 전술한 조치들은 팽창을 위한 침략적 속성이 배제된, 철저히 생존을 위해 추진된 것이었다. 보편적으로 군사제도의 발전과 무기의 개발, 그리고 이들이 현실에서 구현되는 전장에서의 충돌, 즉 전쟁은 사회구조의 변화를 유발하여 근대국가 형성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된다.⁴²⁾ 그러나 대한제국의 경

41) 1899년 정부 총예산 6,471,132원 중 군사예산은 1,498,337원으로 약 23.2%의 비율을 차지했으나, 1900년 정부 총예산이 이전대비 4.9% 감소한 6,161,871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예산은 15.1% 증가한 1,733,207원으로 약 28.1%를 차지하였다.(양상현, 앞의 논문, 2006, 206쪽) 이후 1901년부터 군사예산은 정부 총예산 가운데 38%를 상회하는 것으로 보아 군무의 중요성에 기인한 군사우위 정책은 지속적으로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42) Charles Tilly 著, 이향순 譯, 『국민국가의 형성과 계보 : 강압·자본과 유럽국

우 외부로부터 전이된 위협과 이에 대한 저항의 차원에서 군사가 국가체제 유지에 기능할 수 있는 내적구조가 정립된 것이었으므로 특수성을 지닌다. 이후의 군사운영 양상은 대내외적 위협이 현실로 나타난 당대 동아시아 국제정세의 맥락과 대한제국 내부의 동향을 동시에 살핌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4. 대내외 위기에 대응한 원수부의 군사운영과 지향 목표

가. 국경지역 병력 증강과 방어태세의 강화

1900년 3, 4월부터는 청국내부의 분쟁이 예상되어 막별이군 수백 명이 배를 타고 인천으로 피난 온다는 소문⁴³⁾, 산동지역 인민 만여 명이 평안도로 건너온다는 소문이 퍼지기도 하는 등⁴⁴⁾ 국경지역의 혼란은 심화되었다. 특히 1900년 6월, 의화단 교도들은 北京 외국공사관을 포위 공격하였고, 이는 전 세계에 반항을 일으켰던 사건이었다.⁴⁵⁾ 이후 청국의 보수정권은 의화단과 합세하여 1900년 6월 21일, 열국에 대해 전쟁을 선포했

가의 발전』, 學問과 思想社, 1994, 109~154쪽 참고 ; Poggi Gianfranco 著, 박상섭, 譯, 『근대국가의 발전』, 민음사, 1994 ; 박상섭, 『근대국가와 전쟁 : 근대국가의 군사적 기초, 1500~1900』, 나남출판, 1996, 13~23쪽.

43) “청 연태로부터 청국 막버리군 스백 오십명이 창용환을 타고 인천에 도착하였는데 재명일 미장환편에 오백여명이 나온다더라.” 『태국신문』 1900年 3月 22日, 잡보.

44) “청국 산동 근방에 민란이 일어나고 또 그 지방은 살기가 극란홀뿐더러 외국 조계가 된 까닭에 장래에 분란이 즈조 일어날가 예탁하고 그곳 인민 만여명이 평안도로 건너오라고 한다더라.” 『태국신문』 1900年 4月 17日, 잡보.

45) 이은자, 2015, 「로컬의 관점에서 본 清末의 義和團運動」, 『사림』 51, 129쪽.

고, 46) 이를 기점으로 연합군에 의한 의화단 토벌은 대대적으로 단행되었다.

청국에서 전개된 진압작전으로 의화단 교도는 물론 청국 정부군, 만주의 비적, 지역주민들은 연합군의 토벌을 피해야했고, 47) 이는 곧 국경을 인접한 대한제국 북부지역의 대규모 인적·물적 피해로 나타났다. 48) 심지어 이들은 황해도 및 삼남지역에까지 떠돌며 지역사회에 혼란을 야기하였다. 49) 이러한 양상에 대해 당시 궁내부 고문관이었던 샌즈(W. F. Sands)는 의화단사건의 확장이 차후 대한제국에 대한 열국의 개입을 야기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50) 한편 5월부터 내한 중이었던 주청 프랑스 무관 비달(Vidal) 소좌 역시 대한제국 정부에 대규모 병력 증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51) 따라서 비록 국경지역의 침략주체를 명확

46) 車瓊愛, 2005, 「의화단진압전쟁으로 인한 한국의 국제적 환경의 변화와 대응」, 『明清史研究』24, 289쪽.

47) James L. Hevia, “Leaving a Brand on China: Missionary Discourse in the Wake of the Boxer Movement”, *Modern China* Vol.18, 1992, pp.304-305.

48) 의화단사건으로 대한제국으로 건너 온 청국 피난민은 당대 외교사료 및 신문기사를 통해 확인된 바만 해도 14,000명 이상이었다. 또한 연합군의 본격적 토벌이 시작된 후 청국패잔병과 청비에 의해 발생한 인명살해·재화탈취·방화는 함경도 및 평안도에서 지속적으로 자행되었다. 車瓊愛, 의화단진압전쟁이 한국의 사회·경제에 미친 영향」, 『中國近現代史研究』23, 2004, 75~80쪽 참고.

49) 황헌 著, 임형택 외 譯, 『역주 매천야록』下, 문학과지성사, 64쪽(1900년 7월).

50) 샌즈는 의화단사건이 확산되자 “나는 어떤 반외세의 불통이 우리 측에 대한 갑작스런 분노를 부채질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혀 확신할 수 없었으므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예의주시하였다.”라고 당시의 상황을 기록하였다. Sands, *Undiplomatic memories : the Far East 1896-1904*(New York : Whittlesey House), 1930, p.163.

51) 러시아 육군성에서 러시아 황제에게 보고한 대한제국의 군사현황 관련 문서에는 대한제국의 병력증강에 관한 안건이 청국주재 프랑스군사무관 비달에 의해 건의된 것이라 명시되어 있다.(朴鐘淳 編著, 앞의 책, 2002, 573쪽) 한편, 『주한일본공사관기록』에는 “작년(1900년) 5~6월경 비달이 來韓한 적이 있고, 현재(1901년)는 군사고문으로 임명되고자 하는 야심으로 運動하고 있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16, 機密第3號, 1901년 1월 7日, 林 公使 → 加藤

히 구분할 수는 없었지만,⁵²⁾ 그 피해가 확산되고 나아가 외세의 개입을 불려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대한제국 정부는 국경 지역의 병력을 증강시켰고 방어태세를 강화하였다. 동아시아 국제정세의 급변과 그에 따른 대외적 위협의 고조에 따른 방책이 수립된 것이었다. [그림 2]는 당시 원수부가 시행한 병력 증원 및 전개 양상을 도식한 내용이다.



外務大臣) 위 사료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프랑스 장교 비달이 의화단진압전쟁 발 발 직전 대한제국으로 건너왔고, 대대적 병력 증강을 대한제국 정부에 건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52) Malozemoff Andrew 著, 석화정 譯, 앞의 책, 2002, 200쪽.

[그림 2] 의화단진압전쟁 발발 이후 北境지역의 병력운영 및 배치도



고종은 변경을 굳게 지키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을 언급하며 국경지역에 대한 병력 증강을 원수부에 지시하였다.⁵³⁾ 이후 평안북도 의주 및 강계, 함경남도 북청, 함경북도 종성에 진위대를 설치하는 안건은 원수부에 의해 고안되었다. 고종은 설치 목적을 ‘義和團徒의 境界流人 防止’이라 언급하였다. 각 대대별 구성원은 1,030명으로 의화단 방비를 위해 총 4,120명이 국경지역에 배치하도록 계획된 것이었다.⁵⁴⁾

증설하도록 계획된 각 진위대의 경비는 125,254元 10錢으로 총 501,016元 40錢이었다. 이 금액은 당시 군사 예산 1,636,704원의 약 30.6%에 해당했으며, 정부 총 예산 6,161,871원의 약 8.1% 수준이었다.⁵⁵⁾ 군비에 투자된 예산 비율과 특히 북방지역의 진위대 증설에 투자된 군사 예산 비중을 살펴볼 때, 군사 분야가 국정운영의 중심이 되었으며 그 가운데 국경지역 방비가 핵심과제로 인식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53) “捍邊固圉 有國之急務 而西北兩界尤爲緊重 增兵警備 不容少緩. 其令元帥府編制以入.” 『高宗實錄』 光武 4年 6月 16日.

54) 『官報』 光武 4年 7月 3日.

55) 1900년도 군부 예산 및 정부 총예산은 다음의 책을 참고하였음. 서인한, 앞의 책, 해안, 2000, 136쪽.

[표 4] 義州·江界·北靑·鍾城 진위대 장교 편제 및 실제인원(1900. 7)⁵⁶⁾

구 분		참 령 (대대장)	1·2·3등 군사 (향 관)	정 위 (중대장)	부위 및 참위 (부관 / 무기주관 / 소대장)
각 대별 편제		1	2	5	22
총 편제(기준)		4	8	20	88
실제 인원	총 계	4	8	18(-2)	72(-16)
	의 주	1	2	5	20(-2)
	강 계	1	2	5	20(-2)
	북 청	1	2	4(-1)	16(-6)
	중 성	1	2	4(-1)	16(-6)

원수부에서는 1900년 7월 18일, 의주·강계 진위대 간부를 임명하였고, 이어서 동월 23일에 북청·중성진위대 주요 간부를 편성하여 임지로 파송하였다.⁵⁷⁾ 이러한 조치와 더불어 원수부는 중앙군이었던 친위대 위관과 병정 600명을 추가로 국경전역에 파견시키기도 하였다.⁵⁸⁾ 당시 북청지방대는 대부분 삼수·갑산 군에 출주하여 청비를 수비하고 있었고, 추가로 후창군 일대로 일부 병력을 이동시켰다. 한편 의주·강계·벽동군에는 각각 해주·안주·황주의 군대를 각 100명씩 총 300명이 지원하게끔

56) 『元帥府奏本副』 1, 光武 4年 7月 18日 ; 7月 23日.

57) 여기서 특기할 것은 제1회 무관학교 최우수 졸업생 장연창과 3등 졸업생 장행원의 최초부임지는 북청, 2등 졸업생 박용준은 중성이었다는 점이다. 우수한 초임장교의 국경배치는 해당시기 국방의 중요지역을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단서이다.

58) “元帥府에서 親衛隊尉官과 兵丁六百名을 派送ᄃ야 北靑等地에 駐ᄃ고 淸匪의 不虞ᄃ 預備ᄃ기로 來月十日頃에 前往ᄃ타더라.” 『皇城新聞』 1900年 6月 30日, 雜報 「派兵鎮北」.

하였다.⁵⁹⁾ 또한 강화에 주둔중인 1연대 중 100명을 경운궁내 平成門에서 교련시킨 후 경흥으로 이동시키기도 하였다.⁶⁰⁾ 이러한 조치를 통해 국경지역에서의 방어는 소수병력이 주요 거점을 장악했던 ‘點形防禦’에서 병력의 증강에 따라 국경선에 부대가 보다 주밀하게 배치된 ‘線形防禦’의 형태로 발전하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분쟁발생지역으로의 중앙군 파송, 타 지역 병력의 국경지원 등은 이 시기 군사운용의 성격이 대외적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방증한다.

또한 원수부는 지방군을 진위대로 통칭할 것⁶¹⁾과 더불어 연대로 편제하였다.⁶²⁾ 1개 연대에 3개 대대가 편성되는 것으로 이는 병력증강을 의미하였다. 주목할 점은 기존에 독립부대로 운용되던 공병, 치중병을 보병부대로 귀속시킨 조치였다.⁶³⁾ 전투지원부대의 배속은 단위 연대의 전투력 발휘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었다. 특히 작전환경에서 제병협동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조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의화단 진압을 위해 러시아는 1900년 6월 중순, 만주의 경비대 인원을 6천명에서 1만 1천명으로 증원하였고,⁶⁴⁾ 동년 7월 9일부터는 아무르강 연안 및 시베리아 지역의 정규군을 만

59) 『皇城新聞』 1900年 7月 20日, 雜報「西北派兵」;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5, 1900年 7月 21日, 在平壤分館 主任 外務書記生 新庄順貞 → 特命全權公使 林權助.

60) “Corean Govt. are sending 100 troops from 江華 to 慶興 on 豆滿江 to guard against any possible disturbance in consequence of the existence of the state of war beyond the border. The troops are proceeding overland.”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5, 1900年 8月 30日, 特命全權公使 林權助 → 外務大臣 子爵 青木周藏; 『東京朝日新聞』 1900年 9月 5日, 朝鮮特電「韓國北境の警備」.

61) 『官報』 光武 4年 7月 23日.

62) 『官報』 光武 4年 7月 27日.

63) 鄭夏明, 앞의 논문, 1975, 55쪽.

64) 金正煥 「露日戰爭과 프랑스의 對韓政策」, 『韓佛修交100年史』, 韓國史研究協議會, 1986, 171쪽.

주로 출병시켜 남하하기 시작하였다. 이어서 청국 북동지역의 黑龍江省, 吉林省, 奉天을 차례로 장악했으며, 7월 23일에는 愛琿 일대를 점령하였다. 당시 만주지역의 질서회복과 동청철도의 안전보장이 출병의 명분으로 내세워졌으나,⁶⁵⁾ 철군성명 이후에도 군은 주둔하고 있었다.⁶⁶⁾ 이후 러시아는 대한제국에 대한 군사원조를 제안하며 한반도 진출을 계획하기도 하였다.

北淸事件이 뜻밖에도 중대하게 되어 드디어 滿洲·遼東 지방에서까지도 淸國 비적과 합세하여 마음껏 창궐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러시아는 大兵을 움직여 이를 소탕하려고 한다. 그 여파가 한국의 변경에 파급되어 필경 비적의 침입을 면치 못할 것인데, 그 경우에 한국 군인이 이들을 잘 방어할 수 있을지는 지금으로서는 의문이다. 오히려 한국을 위해 러시아의 원조를 구하고 이와 협동해서 변경의 방비에 임하여 비적의 침범을 방어하는 것이 득책일 것이다.⁶⁷⁾

위와 같은 주한 러시아공사 파블로프의 제안에 대해 고종은 그 자리에서 자구책을 마련했으니 타국 병정의 원조는 불필요하다고 의사를 표명하였다.⁶⁸⁾ 국경전역에 걸쳐 선형방어를 주밀하게 실현한 근본적 이유도 청비토벌을 명분으로 만주에 주둔 중이던 러시아 병력이 국내로 진입하는 것을 막고, 러시아의 남하에 따라 필연적으로 수반될 일본의 병력전개를 방지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이다. 요컨대 청비의 침략 저지는 국외세력의 폭력이

65) 최문형, 『러시아의 남하와 일본의 한국 침략』, 지식산업사, 2007, 299쪽.

66) 강정일, 「지정학적으로 본 러시아제국의 對한반도정책(1884-1904) -팽창원인과 실패과정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2014, 243쪽.

67) 파블로프가 고종 알현시 권고한 내용은 그 중요성에 따라 즉각적으로 주한일본 공사관에 의해 본국 외무성으로 보고되었다.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4, 機密第 75號, 1900年 8月 6日, 林 公使 → 外務大臣 子爵 青木周藏.

68) 고종은 수비병을 義州 방면에 파견하였고, 江界에 신설 부대를 모집하고 서북의 국경 일대의 땅에 1만 정도의 군사대비를 계획 중이므로 당장 타국의 원조가 불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4, 機密第 75號, 1900年 8月 6日, 林 公使 → 外務大臣 子爵 青木周藏.

개재되어 있는 개입 요인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한 활동이었던 것이다. 실제 파블로프는 본국 기밀 서한에 대한제국이 청비가 영토로 진입하기 이전에 러시아와 일본에 의지하지 않고 돌발사건을 예방하거나 제거하려고 한다는 내용을 전달하였다.⁶⁹⁾

이는 청비의 대규모 소요가 사라진 시점에도 러시아의 남하에 대비해 국경지역에 병력을 증강한 사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북경지역에는 여전히 군수물자가 지속적으로 보급되고 있었고,⁷⁰⁾ 원수부는 이후 평양에 1개 대대를 추가로 증설하였다.⁷¹⁾ 뿐만 아니라 會寧·鐘城에 100명, 穩城·茂山에 200명, 회령과 종성 사이의 行營에 400명을 추가로 배치하기도 하였다.⁷²⁾ 국외세력의 침략적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꾸준한 증명이 있었던 것이다.⁷³⁾

이후에도 청비는 지속적으로 소규모 소요를 일으켰다. 그러나 한층 강화된 국경지역에서의 방어를 통해 대한제국은 자체적 능력으로 청비의 국지적 침략을 격퇴할 수 있었다. 함경도 무산군에 출주중인 소대가 청비 37명을 죽이고, 말·총포 등 전리품을 얻기도 했고,⁷⁴⁾ 삼수군에 주둔중인 5연대 2대대 예하 병력이 청비 400명을 격파하기도 하였다.⁷⁵⁾ 뿐만 아니라 대한제국군 500

69) 국사편찬위원회 編, 『러시아국립해군성문서』2, 2009, РГАВМФ, ф. 32, оп. 1, д. 57, лл. 28~30об.

70) 『東京日日新聞』1900年 9月 7日, 「軍銃二千挺轉送」.

71) 『官報』光武 4年 9月 21日.

72) 『駐韓日本公使館記錄』15, 機密京第3號, 1901年 3月 22日, 城津分館 主任 川上立一郎 → 特命全權公使 林權助.

73) 璿春에 주둔중인 러시아 군은 청비 초토를 위해 남하하고 있었으므로, 고종은 청비를 축출하는 국경의 각 부대에 러시아군과의 마찰을 방지할 것에 대해 戒告하였다. 『駐韓日本公使館記錄』14, 1901年 1月 4日, 特命全權公使 林權助 → 外務大臣 加藤高明.

74) 『東京朝日新聞』1901年 5月 1日, 朝鮮特電 「咸鏡道の馬賊」.

75) 원수부 검사국 총장 민영철은 ‘수비하여 위력을 떨친 가상한 일’이라 평가하며 포상

명이 두만강을 도강하여 청비 40명을 살해하는 등 공세적 행동을 취하기도 하였다.⁷⁶⁾ 이처럼 침략의 명분을 대한제국이 사전에 제거했으므로 러시아의 남하는 실현될 수 없었다.

이후 원수부 검사국장 趙東潤은 관서찰변사였던 부장 李道宰와 5연대 3대대 참령 金元桂의 보고를 토대로 1901년 봄·여름 동안 변경의 비적이 출몰할 때, 노고한 위관 및 수비에 조력한 인원에 대해 포상을 건의하였다. [표 5]는 비적방어 유공으로 승서된 인원을 정리한 내용이다.

[표 5] 匪賊 방어 유공에 따른 승서 대상(1902)⁷⁷⁾

책임지역		대 상	책임지역		대 상	책임지역		대 상
平安北道	伐登鎮	부위 정민화	平安北道	泰川	군수 조정윤	咸鏡北道	會寧	정위 성창기
	滿浦鎮	참위 김홍식		溟源	참위 유인균			참위 변영두
	高山鎮	참위 이교상		厚昌	참위 문희선			참위 홍언표
	楚山	참위 이조영	咸鏡北道	寧邊	참위 남상학		鍾城	참위 송순진
		포사총 이택규		咸鏡北道	穩城		정위 김사직	정위 반돈식
	朔州	참위 전두현	참위 최제강				부위 나영훈	
	慈城	참위 홍병헌	慶源		참위 이응주		군수 김병주	
		군수 박항래	訓戎	참위 김원흥	사포영장 최병룡			

을 건의했고, 이에 고종은 위험을 무릅쓰고 비적을 소탕한 것을 치하하였다. 위관은 陞敍, 正校 김승표는 위관으로 陞差, 그 밖의 副校 이하는 자리가 나는 대로 등급을 올리라고 지시하였다. 『承政院日記』 光武 5年 5月 17日.

76) 朴鐘淳 編著, 앞의 책, 2002, 222쪽(1901년 6월 7일, 주한러시아대리공사 파블로프 → 외무성)

77) 『承政院日記』 光武 6年 5月 6日 ; 5月 13日 ; 7月 11日 ; 7月 20日.

대상자들은 전초기지인 分站의 위관급 인원이거나 각 군에 소속된 포수 및 군수였고, 군공이 인정되어 모두 승서되었다. 이외에도 다수의 군인들에 대해 加資 및 熟馬·兒馬 지급 등 대대적 포상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원수부에 의해 다수의 병력이 배치된 1900년 이후에는 청비의 침략에 대한 국경방어는 원활히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제한적이거나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목적 달성에 성공한 군사적 대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처럼 국경지역의 병력운용은 외부적 위협의 강도를 파악하고 시기를 구분하여 살펴야 한다.⁷⁸⁾

국경지역에서의 방어태세가 확립된 후, 비교적 안정된 국면이 형성되었다고 판단된 1901년 12월에는 度支部에 의해 병력운용의 축소가 건의되기도 하였다.⁷⁹⁾ 그러나 당시 원수부 군무국총장이었던 이종건은 긴급사태가 발생한다면 병력동원이 어렵고, 국내의 토비가 여전히 빈발한다는 점 등의 이유를 들며 현재는 ‘減兵’이 아닌 ‘加兵’의 시점이라고 주장하였다.⁸⁰⁾ 군의 역할은 내부소요의 진압과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도 필수적이었던 것이다.

5. 지방 진무 및 내부 안정을 통한 외세의 개입 차단

국경지역의 병력증강을 통한 방어태세 강화로 국외세력 진출

78) 기존연구에서는 1899년 이전에 발생했던 청비의 침략과 대한제국의 군사적 대응만을 토대로 이 시기 국경에서의 방어는 ‘형편없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조재근, 앞의 논문, 1996, 130~131쪽.

79) 현광호, 앞의 책, 2002, 266쪽.

80) 『元帥府來文』3 光武 6年 2月 18日.

은 차단되었지만, 병력출주와 그에 따른 주둔지역의 경비지급 문제는 민·군 갈등을 유발하기도 하였다. 군 주둔지역으로 경비지급에 대한 책임이 이관되었기 때문이었다.⁸¹⁾ 군비수취 및 지급 문제로 각지에 출주중인 군인의 비위행위가 빈번해지자 육군참장 白性基는 憲兵隊를 설치하여 군인들에 대한 순찰 및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고종은 이를 받아들여 1900년 6월 30일, 원수부에서 작성한 「陸軍憲兵條例」를 반포하였다.⁸²⁾ 헌병대는 원수부 예하기구로 군사경찰 업무를 관장했고, 초대사령관은 회계국 총장 민영환이 겸임하였다.⁸³⁾

군 기강 확립을 위해 헌병대를 설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공사 파블로프의 대한제국군에 대한 회의적 인식은 여전하였다. 그는 “대한제국군이 양민 괴롭히기를 보통으로 여기므로 비적을 막기 이전에 소요를 만들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러시아군의 남진 필요성을 제기하였다.⁸⁴⁾ 이에 대해 고종은 지방에 폐해를 끼치지 않도록 장교 임명에 신중을 가하였고, 군기 확립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중이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답하였다.

실제로 1898년 이래로 장교층원의 대부분은 무관학교를 통해 시행되었다. 제 1회 무관학도 모집 시 정원 200명에 1,700명이 지원하였다.⁸⁵⁾ 이를 통해 무관학교 입학 경쟁률이 8.5:1로 상당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선발된 200명 중 원수부의 임관 전 최종시험을 통과한 인원은 128명이었는데, 입학 인원 중 64%만

81) 탁지부는 관찰사 및 군수를 독촉하여 신속한 군부대 운영비 납부를 훈령하였지만, 전반적으로 중앙정부의 경비지급은 난항을 겪었다. 김기성, 2013, 앞의 논문, 215~217쪽.

82) 『官報』 光武 4年 7月 3日.

83) 『官報』 光武 4年 8月 6日.

84)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4, 機密第75號, 1900年 8月 6日 林 公使 → 外務大臣子爵 青木周藏.

85)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3, 報告第44號, 1898年 6月 14日 加藤 辨理公使 → 西外務大臣.

이 참위로 임관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무관학교 재개 이후 장교 선발의 기준이 향상되었고 구성원의 질적 증대가 실제로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고종은 1900년 7월 17일 「軍隊內務書」의 배포를 통해 군사적 비위행위를 막고자 했으며, 8월 1일에는 조령을 내려 북경지역에서 군대가 폐단을 일으키지 않도록 “이번에 새로 설치한 西北兩界의 鎭衛各隊의 領尉官을 元帥府로 하여금 招待하여 隊伍를 嚴束하여 추호도 地方에 胎弊함이 없도록 할 것을 布諭하고 이미 赴隊한 지는 一體 訓飭하여 違反함이 없게 할 것을 分付케 하라.”⁸⁶⁾ 라고 앞서 지시해 놓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외세력이 대한제국 내부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서 개입명분을 찾기 시작하자, 고종은 추가적으로 원수부에 지시하여 이전부터 준비해 온 「陸軍法律」을 서둘러 반포했고⁸⁷⁾, 陸軍法院을 별도로 설치하여 군인 치죄에 대한 심판을 전담시켰다.⁸⁸⁾

한편 즉각적인 조치는 중앙관료의 과견을 통해 부대 형세를 시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함경도 및 평안도로 이동하여 출주군의 정세를 살피라는 지시가 원수부 회계국장 겸 헌병대사령관 부장 민영환과 의정부찬정 부장 李允用에게 내려졌고 이들은 진

86) 『官報』 光武 4年 8月 3日.

87) 기존연구에서 「陸軍法律」의 반포가 서둘러졌던 결정적 이유는 1900년 7월에 일어난 친위대 상등병이 시위대 부위를 구타한 사건과 이에 대한 처벌 기준의 미정립으로 언급된다.(김혜영, 「갑오개혁 이후 軍司法制度의 개혁 - 「陸軍懲罰令」과 「陸軍法律」을 중심으로 -」, 『軍史』 89, 2013, 130~131쪽) 그러나 각 부대 간의 알력이나 계급간의 갈등, 군인의 민간에 대한 비행 등은 이전에도 빈번히 발생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의화단진압전쟁 발발 이후 국외세력이 다방면에서 개입명분을 찾고 있던 당대 상황적 맥락을 고려하여 반포시점을 서둘렀던 배경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88) 『承政院日記』 光武 4年 9月 14日.

위대 순찰사로 임명되어,⁸⁹⁾ 국경지역의 동향을 탐색하고 군인의 비위행위를 파악하였다. 이후 고종은 평안북도 관찰사 李道宰를찰변사로 차하하며 요새지 구축을 통한 방어 실현과 더불어 부대 지휘관 백성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말라는 것을 당부하기도 하였다.⁹⁰⁾ 국경지역 이외에도 내부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소요를 진정시킬 필요가 있었다.

1900년 초부터 東學·英學黨의 잔존세력이 각지에서 재봉기하였으며, 1900년 3월부터는 活貧黨이 조직적 활동을 펼쳐 국지적 분란을 일으키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경기·충청·경상·전라 등지에서 부민을 겁락하거나 장시를 약탈했고, 바다로 진출하여 연해지역에서는 水賊활동을 자행하였다.⁹¹⁾ 특히 정부는 이들을 일본망명자 및 유인석 세력과 연계되어 있다고 인식하였다.⁹²⁾ 당시 박영효 등의 일본 망명자들은 정계복귀를 획책하며, 국내복귀를 위해 수하들을 국내에 잠입시켜 국내 동향 파악, 자금 및 무기 마련, 나아가 우호세력들을 규합하고자 하였다. 한편 懷仁·通化縣 일대에서 항일활동을 지속하였던 유인석은 1895년 발생한 乙未事變에 대한 복수를 위해 국내에 잔존했던 추종세력과 월경민을 취집하여 국내진입을 계획하고 있었다.⁹³⁾

따라서 북경지역 지원 병력을 제외한 중앙군은 수도에서의 정변 발생에 대비하였다. 당시 총 6,500명의 병력이 수도를 방어

89) 황현 著, 임형택 외 譯, 앞의 책, 68쪽(1900年 8月).

90) 『官報』光武 4年 8月 22日.

91) 朴贊勝, 「活貧黨의 활동과 그 성격」, 『韓國學報』10, 1984, 120~124쪽.

92) 국내에 잠입한 망명자 수하세력들이 자금을 확보한 행태가 활빈당의 활동과 유사했으므로 대한제국 및 일본정부는 이들을 활빈당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한편 유인석과 활빈당의 연계는 그들의 사용 무기와 거동의 유사성을 통해 관련 집단으로 인식되었다.

93) 『駐韓日本公使館記錄』13, 往228, 1900年 9月 14日, 林 公使 → 青木 外務大臣; 『駐韓日本公使館記錄』15, 公信第14號, 1900年 9月 22日, 在平壤分關 主任 外務書記生 新主順貞 → 特命全權公使 林權助; 『皇城新聞』1901年 1月 5日, 雜報「柳發通文」.

하고 있었는데, 특기할 점은 평양진위대 1,000명이 한성에 주둔하고 있었다는 것이다.⁹⁴⁾ 이러한 병력 전용은 내부소요와 연계될 가능성이 있는 시국사건을 대처하기 위해 수도방어가 중요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질적인 주둔 병력의 배치가 파악되는 1902년에 이르러 총 병력의 절반 이상이 수도 한성과 주변에 배치되어 있었던 이유도 위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⁹⁵⁾

한편 火賊집단에 대한 진압 및 지방 진무는 각지에 주둔중인 진위대에 의해 이루어졌다. 특히 화적집단 출몰지역에 대한 정규군 파송은 상황의 신속한 진압을 가능케 할 뿐만 아니라, 군대출주 자체는 해당지역 주민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할 수 있었기에 효과적이었다.⁹⁶⁾



94) 당시 중앙에 주둔하고 있던 군대는 親衛隊 3,000名, 侍衛隊 2,000名, 平壤兵 1,000名, 砲隊兵 400名, 馬隊 100名으로 총 6,500名이었다. 『태국신문』 1900年 9月 19日, 잡보.

95) 김기성, 앞의 논문, 2013, 203쪽.

96) 주한일본 군산분관 주임이었던 아시아마 겐조(淺山顯藏)가 활빈당의 위협정도에 대해 질문하자, 당시 정읍군수였던 김정규는 “전라도와 경상도의 경계인 지리산에서 활동했던 700~800명의 활빈당으로 인해 지방 인민들은 최초로 크게 두려워했으나, 求禮郡·雲峰郡·河東郡·咸陽郡에 군대가 주둔하자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라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駐韓日本公使館館記録』 15, 京公第14號, 1900年 10月 30日, 在群山分館 主任 淺山顯藏 - 在京城 特命全權公使 林權助.

[표 6] 火賊集團에 관한 국내외 언론보도 내용(1900~1901)

구 분	주요내용	출 전	
1900	3. 24	공주지방대 병정이 옥천군에서 활빈당 비도를 공격, 남은인원은 상주로 도망침.	『데국신문』
	4. 9	문경, 괴산 등지에 활빈당 천여명이 무장하여 둔취하고 있으며, 충청남도 각 군에도 적 천 여명이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치고 있음.	『데국신문』
	4. 12	兩湖 등에 비류가 각지에서 분란을 일으키며, 혹 활빈당이라 칭하고 화재, 약탈을 자행하니 원수부에서 각지 지방대병을 파송하여 기도 초멸을 지시함.	
	8. 27	호남등지에서 소위 활빈당이 수십·백 명이 군집을 이뤄 재산을 약탈하니 관찰사 및 군수가 정부에 조치해주시기를 요청함.	『皇城新聞』
	9. 7	울산, 영천, 경주 등지에서 활빈당이 창궐하니 각지에서 분란을 일으키며, 수십 명씩 작당하여 재산을 약탈하고 전라도 용담 등 군에서도 피해가 많았음.	
	9. 9	정부는 경상도에서 발기한 활빈당을 진압하기 위해 고성주둔 진위대를 파송함.	『東京日日新聞』
	9. 19	고성지방대 소대장이 밀양활빈당 진압을 위해 원수부 전칙을 받은 후 양산으로 가서 배를 타고 도망가는 적당 11명을 잡았음.	『데국신문』
	9. 24	활빈당 창궐에 관한 경남관찰사의 보고 이후, 원수부에서 지방대 1소대를 加派함.	『皇城新聞』
	11. 10	경상도에 활빈당이 재기하여 밀양, 울산 등 각지에서 활동하며 세력을 넓힘.	『東京日日新聞』
	12. 11	원수부가 경남관찰사의 보고를 받아, 諸郡의 적도 진압을 위해 1개 소대를 순초시킴.	
12. 20	경남의 각군에 적경이 大熾하여 원수부에서 영·위관을 파송하여 울산군에 진위대병을 초모·演習하게 함.	『皇城新聞』	
1901	6. 17	창원군 등에 화적당이 둔집하여 인민의 가산을 약탈하며 내외 국왕래행인을 검탈하여 원수부에서 고성대를 파송하여 진압하게 함.	
	11. 14	경주에 폭민 400~500명이 발기하여 원수부에서 대구진위대에 토벌을 명함.	『東京朝日新聞』

[표 6]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화적집단의 활동 때문에 대한 제국은 국경지역에 다수의 병력을 배치하였음에도 지방에 진위대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⁹⁷⁾ 특기할 점은 화적집단 진압을 위한 원수부의 대응이 주요 거점에 진위대 병력을 분과하여 兵站所를 설치하고, 가용부대 병력을 상황발생지역에 파송하는 방식으로 행해졌다는 점이다. 이는 화적집단의 분포 범위는 넓으나 이를 저지해야할 군대는 제한적이라는 현실적 상황 인식 때문이었다. 국경지역에서의 청비침략과 만주일대 주둔하며 군사원조를 제안했던 러시아의 존재로 인해 효율적인 가용병력 운용이 필요했던 것이다. 한편 이는 화적집단이 지리적 이점을 토대로 사전 예측이 힘든 지역에 출몰했고, 평시 병정이나 빈상으로 가장하여 정확한 규모를 노출하지 않았으며, 일정한 주둔지를 지니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동했던 행위 상 특징에도 기인하는 것이었다.⁹⁸⁾

이외에도 원수부는 지방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민인들 간의 충돌 문제에도 개입하였다. 민란의 발생으로 인해 외국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자국민 보호’라는 명분을 지닌 국외세력의 군대파견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1900년 1월 23일 칙령 9호로 내려진 「城津郡廢止吉州郡合附件」에 의해

97) 기준연구는 이러한 단면을 통해 이 시기 군사기구 운영의 목적이 치안유지에 있었다고 평가하였다.(조재곤, 앞의 논문, 1996, 132쪽) 그러나 치안확보의 궁극적 목적은 외세의 개입차단에 있었다. 따라서 군대가 내란진압에 동원되었다는 것만으로 군대 운용을 경찰력으로 판단한 것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 더군다나 관련근거로 내세운 『國譯 韓國誌』 707쪽의 “현재의 한국 군대는 경찰력으로 간주될 수 있다.”라는 내용은 대한제국군의 병력운용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병력 수가 군대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소규모였다는 것에 관한 러시아의 평가였다.

98) 『데국신문』의 기사에서는 “활빈당은 동으로 쫓아가면 서로 달아나고 남으로 따라가면 북으로 도망치는 까닭에 급습하기가 어렵다.”라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데국신문』 1900年 3月 27日 잡보.

성진민요가 발생하였다.⁹⁹⁾ 상황이 확대되자 원수부는 북청진위대 25명을 파견하여 일본인을 보호했고,¹⁰⁰⁾ 출주병력의 성진주둔으로 인해 군민들은 해산되는 양상을 보였다. 인명피해가 없었음에도 일본은 불안한 형세를 운운하며 1개 중대 규모의 병력을 한국정부에 요청하였다.¹⁰¹⁾ 이에 원수부는 25명만을 증파하여 사관 포함 총 병력 52명으로 해당 군에서 일본인을 보호하였다. 단순히 外部로부터 조희된 일본의 요청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 아니라 상황을 고려하여 적정 병력을 투입하였던 것이다. 당시 대부분의 북청지방대는 삼수·갑산군에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란진압 및 일본거류민 보호에 필요한 인원을 판단하여 배치한 것이었다. 이러한 조치는 일정부분 원수부의 자주적 성격을 보여줌과 동시에 병력운용에서의 합리성을 보여준다.

한편 1901년에는 제주에서 천주교도와 비천주교도 사이의 갈등이 폭발하여 제주민요¹⁰²⁾가 발생하였다.¹⁰³⁾ 원수부는 강화진위대 100명을 제주로 파견하였고, 궁내부 고문관 샌즈도 사태 해결의 원만함을 위해 동행하였다.¹⁰⁴⁾ 이와 동시에 원수부는 제

99) 일본 역시 해당 민요에 관심을 기울였고 외국인을 보호할 것을 통지하며 관련 사건의 보도를 지속하였다. 『東京日日新聞』 1900年 8月 22日, 「韓國の暴徒に就て」; 8月 23日, 「韓國暴動の原因」; 8月 26日, 「朝鮮暴徒後報」; 8月 29日, 「城津暴徒の情報」.

100) 『皇城新聞』, 1900年 8月 24日.

101)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4, 機密送第五六, 1900年 10月 9日, 外務大臣 子爵 青木周藏 → 在韓 特命全權公使 林權助.

102) 교회사 연구자들은 이를 辛丑 濟州教案이라 언급하는데, 여기서 교안은 박해와 유사한 성격으로 일반 민중과의 갈등, 외교문제 등 복합적 의미를 포괄하는 용어이다. 박정환, 「초기 제주도 개신교 형성사-이기풍 선교사 이전 현지인 신앙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와역사』 39, 2013, 183쪽.

103) 뮌텔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선교사가 억류되어 있다는 소식을 접한 프랑스 군함 알투에르호(Alouette)와 서프라이스호(Surprise)가 즉각 이동하여 5월 31일에 제주에 도착하였다. 『뮌텔주교일기』 3, 58쪽(1901年 6月 4日).

104) 당시 궁내부 고문관이었던 샌즈는 제주에서의 민란을 직접 진압하여 내부 소요에

주도 인근 일본어민 보호에 대해 별도의 훈칙을 내리기도 하였다.¹⁰⁵⁾ 그럼에도 일본 군함 濟遠號도 연이어 제주에 입항하였다.¹⁰⁶⁾ 주재 일본 프랑스 공사였던 뒤바이(Dubail)는 해당 사건이 국제적 분규 상황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그의 본국에 보고하기도 하였다.¹⁰⁷⁾ 당시 일본 언론은 제주민란을 반외세운동이라 운운하며 의화단 사건에 비유하기도 하였다.¹⁰⁸⁾ 이에 원수부는 수원 진위대 200명과 순검 15명을 추가로 증파하며,¹⁰⁹⁾ 상황확대를 방지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현장에 있던 서프라이스호가 해안선에 접근할 당시 군중 무리 속에서 일장기가 발견되었고, 알루에르트호 정장 드벨루아(de Belloy) 해군대위는 일본인이 무기와 탄약을 제주도민에게 보급하여 선교사 살해를 주도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 플랑시는 일본의 의도가 대한제국을 혼란에 빠뜨려,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한반도 내에 병력을 증가시킬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그의 본국에 알렸다.¹¹⁰⁾ 따라서 1901년 6월 10일 민란이 진압되고 7월부터 주모자 및 관계자들이 수도 한성

대한 진압 능력을 대외에 보여줘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Sands, op. cit, pp.165-166.

105) 『元帥府來去案』 2, 1901년 5월 29일; 5월 31일.

106) 당시 제주도에 일본인 1명이 재류하고 있었고, 인접한 飛揚島에 150여명이 거주하고 있었다.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6, 館第11號, 1901년 6월 5일, 森川季四郎 → 在京城 特命全權公使 林權助.

107) 『프랑스외무부문서』 9, 1901년 6월 18일, 일본 주재 프랑스공사관 → 외무부장관 텔카세, 118~119쪽.

108) 『鎮西日報』 1901년 6월 4일, 「韓國濟州島の民亂」; 『東京日日新聞』 1901년 6월 12일, 「濟州島事件」; 6월 16일, 「濟州島の民擾に就て」.

109) 『皇城新聞』 1901년 6월 8일, 雜報 「更派兵巡」; 한편 1901년 6월 13일, 러시아 정부에 파블로프가 상주한 보고서에는 추가진압군이 250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朴鐘淳 編著, 2002, 앞의 책, 234쪽.

110) 『프랑스외무부문서』 9, 1901년 7월 12일, 대한제국 주재 프랑스공사 플랑시 → 외무부 장관 텔카세, 119~121쪽.

으로 압송되었음에도 불구하고,¹¹¹⁾ 제주지역의 안정화는 중대한 외교적·군사적 문제로 남겨졌다. 원수부는 민란 진압을 위해 파견한 병력을 그대로 잔류시켰고, 11월 21일에 이르러서야 민심이 안정되었다고 판단한 후, 출주병력에 철수명령을 내렸다.¹¹²⁾ 외세의 침략적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원수부의 국가 안전보장을 위한 노력은 내부에서 발생한 소요진압 및 치안유지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행되었던 것이다.

원수부는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온 국경방어 및 내란진압 이외에도 파송 군인의 기강 및 사기 진작을 위한 활동도 병행하였다. 이는 군의 출주가 장기화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군 감찰을 위해 원수부 검사국 4명을 검사관으로 선발하여 각도로 파견하였다. 여기서 軍士를 불법으로 매매한 사건, 향관이 군인 월급을 미지급한 사건, 문서 장부를 조작하여 사졸들의 出駐費를 소대장이 횡령한 사건, 軍器成冊과 실제 무기수를 비교해본 결과 현황이 불일치 한 사건, 병졸을 잡역에 종사하게 한 사건·인사 청탁·민가 약탈 등 다수의 비위행위를 적발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¹¹³⁾

뿐만 아니라 전사 군인에 대한 제사를 원수부가 담당하기도 하였다. 고종은 원수부 군무국 총장 이종건에게 제단 설치에 대한 지시를 추가적으로 하달하였고 원수부는 御營廳의 분원인 南小營에 遺址에 獎忠壇을 건립하여 복명하였다.¹¹⁴⁾ 이후 원수부는 12월 10일 정오에 제사를 지낼 예정이니, 전쟁에서 사망한

111) 박찬식, 『1901년 제주민란 연구 : 근대 외래문화와 토착문화의 갈등』, 도서출판 각, 2013, 175쪽.

112) 『皇城新聞』 1901年 11月 21日, 雜報「召還華兵」.

113) 『訓令及照會』 1, 光武 5年 9月 3日, 20日, 24日 ; 11月 5日, 10日, 27日 ; 光武 6年 2月 5日, 20日, 25日.

114) 『高宗實錄』 光武 4年 10月 27日.

사졸의 유족은 이날의 班次에 참석하라는 내용을 관보에 광고하기도 하였다.¹¹⁵⁾

한편 고종은 충성이 있는 자에 대한 표창과 절개를 지키는 자에 대한 장려를 국가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 언급하며 나라 일을 위해 죽은 자에 대한 제도적 보훈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다.¹¹⁶⁾ 이를 위해 원수부에 지시하여 「世祿表」를 만들어 등급을 분류하고 보상하도록 지시하며 「報勳政策」을 펼쳤다. 당시 원수부 검사국 예하 육군 법원장이었던 백성기가 “장충단을 세우고 전투에서 죽은 장교와 병졸의 제사를 지낸 뒤 군사들이 감격하고 고무되었다”는 것을 언급한 것으로 보아,¹¹⁷⁾ 유공자에 대한 제사 및 그 가족에 대한 보상 등 정부차원의 활동이 군인 사기 진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원수부 검사국총장 백성기는 1894년 동학도 진압시, 활약한 인물들에 대한 표창을 건의하였다.¹¹⁸⁾ 특히 옥천전투에서 영관 廉道希가 비적들을 야간에 기습하여 탈취되었던 무기를 되찾아 왔던 전과와 전주전투에서 대관 李鍾九가 포석이 빗발쳤음에도 죽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싸웠다는 사례를 통해 이들의 용맹을 장하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내부안정에 종사했던 군인들에게 충성·용기를 지닌 인물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상징적 표본’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로써 군인의 사기를 양양시킬 수 있었고, 동시에 군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사회전반에 형성할 수 있었다. 이처럼 원수부는 내부 안정

115) 『元帥府來文』2, 光武 4年 10月 27日; 『官報』光武 4年 10月 31日.

116) 『高宗實錄』光武 4年 11月 11日; 『皇城新聞』, 1900年 11月 14日, 論說 「獎忠恤孤萬世盛典」.

117) 『高宗實錄』光武 5年 2月 16日.

118) 『高宗實錄』光武 7年 10月 17日.

을 위해 출주 군인의 기강 확립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다방면의 노력을 경주하였다.

6. 맺음말

본 논문은 확장된 외부주체의 압력과 국내정치적 불안정 속에서 추진된 대한제국의 국방정책을 군사적 관점에서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대내외 정치상황의 변동에 따라 실재했던 위협의 정도와 대응의 우선순위를 파악하여 대한제국 정부가 어떠한 방식으로 군사적 대처를 시행했는지를 논증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이를 통해 군사운영의 성격이 제한적이거나 국가의 안전보장을 지향하고 있었음을 구명하였다. 장절 구성에 따라 글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반도를 둘러싼 러·일의 군비경쟁 돌입과 군사행동 감행으로 대외적 위기가 고조되자, 원수부는 관서의 요충지인 평양에 병력을 2배로 증강하는 등 상황발생지역으로 신속히 병력을 전개할 준비를 마쳤다. 한편 청국 내부에서는 의화단교도의 활동이 확산되었는데, 원수부는 그 방비책으로 평안북도 연변 9읍과 함경남도 삼수·갑산에 포수를 배치하였다. 이처럼 대한제국은 대외적 위협의 정도를 판단하여 나름의 자구책을 시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1900년 3월, 주청 외국공사들은 청국정부의 의화단진압 능력을 불신하여 본국에 군대를 요청했고, 이를 기점으로 청국 내 열강의 군대투입은 기정사실화되었다. 이에 대한 대한제국의 군사적 대처는 「원수부관제」의 전면적 개정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원수부 각국의 국장을 총장으로 승격하였고, 군사적 전문성

을 인정받은 관료 중심으로 총장급 인사가 단행되었다. 또한 총장에게는 유사시를 대비한 작전기획 및 계획수립에 관한 유약상주권이 부여되었다. 뿐만 아니라 各部에 대한 원수부의 통제권 확보는 지휘체계를 정립하여 효과적인 군사적 대응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한편 부국강병 실현에 대한 ‘이중적 시각’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대적으로 군비를 확장하여 군사재정은 국가 전체 예산운영의 중심이 되었다. 이처럼 대외적 위기에 따라 군무는 격상되었고, 정부는 군사우위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였다.

1900년 6월 의화단진압 전쟁이 시작되었고, 인접국의 전쟁 상황은 국경에서의 문제를 수반하였다. 대한제국은 난민문제 및 청비의 침략 등을 막기 위해 평안·함경도에 진위대를 증설했고 타 지역으로부터 지원 병력을 차출하여 배치하기도 하였다. 이로써 대한제국의 국경방어는 주요거점들이 주밀하게 연결된 ‘선형방어’로 전환되었으며 방어태세는 강화되었다. 이후 1900년 8월 15일 연합국의 북경점령으로 의화단진압전쟁이 사실상 종결되었음에도 러시아군은 잔존한 청비 진압을 명분으로 한반도 진출을 시도하였다. 러시아의 남방진출은 곧 일본의 북방진출과 충돌하게 될 것이었으므로 청비의 존재는 대한제국의 국방에 위협을 가하는 매개요인이었다. 따라서 대한제국은 청비의 대규모 소요가 사라진 시점에도 오히려 국경방어 병력을 추가 배치하는 등 국외세력의 침략적 개입을 막기 위한 활동을 지속하였다.

이처럼 대한제국이 국경방어태세를 강화하여 개입 명분인 청비의 침략을 원활히 방어하자, 러시아는 군대 출주지역에서 발생한 민군 갈등을 문제시 삼으며 국내정치의 불안정에서 개입 명분을 찾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국내정치의 안정 또한 외세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중요한 문제로 거듭났다. 당시 국내에서는

화적집단이 횡행하였고, 이들은 지역 사회에서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정부는 이들이 일본망명자 및 유인석 세력과 연계되어 있다고 인식하였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진압과 지방 진무 역시 원수부의 총괄아래 실행되었다. 병력배치의 우선순위가 국경에 있었으므로 해당지역에서는 선형방어가 이루어진 반면, 화적집단에 대한 진압은 주요거점을 장악하고 이들의 출몰지역에 신속히 병력을 파견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한편 원수부는 성진, 제주에서의 민란을 진압하기 위해 병력을 출주시켰는데, 근본적 목적은 외국인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국외세력이 ‘자국민 보호’를 명분으로 군대 파견을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외에도 원수부는 군 기강 확립 및 사기진작을 위해 출주부대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였고, 군인의 위상을 고양하기 위해 전몰장병에 대한 제사 및 보상과 같은 보훈정책을 실시하는 등 내부안정을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경주하였다. 이러한 제반 조치를 통해 원수부 주도의 군무정책 강화와 군사력 운용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지향하고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원고투고일 : 2018. 10. 8, 심사수정일 : 2018. 11. 15, 게재확정일 : 2018. 11. 19)

주제어 : 대한제국, 원수부, 군사제도, 군사정책, 군사운영, 군비확장, 의화단 사건, 국경방어, 내부안정

〈참 고 문 헌〉

1. 사료

『高宗實錄』

『承政院日記』

『官報』

『元帥府來文』(奎17783) 議政府(朝鮮) 編

『元帥府奏本副』(奎17784) 議政府(朝鮮) 編

『元帥府來去案』(奎17809) 外府(朝鮮) 編

『訓令及照會』(奎27357) 元帥府 檢査局(朝鮮) 編

『駐韓日本公使館記錄』

『러시아국립해군성문서』(국사편찬위원회 編, 2009, vol. 2)

『러시아 國立文書保管所所藏 韓國關聯文書要約集』(朴鐘孝 編, 2002, 한국국제 교류재단)

『러시아문서 번역집』(김중헌 · 박재만 譯, 2011, 선인, vol. 6)

『國譯韓國誌』(한국정신문화연구원 編, 1984, vol. 1)

『프랑스외무부문서』(국사편찬위원회 編, 2010, vol. 9)

『大韓帝國官員履歷書』(국사편찬위원회 編, 1972, 탐구당)

『매천야록』(임형택 외 譯, 2005, 문학과지성사, vol.1 · 2)

『뫼텔주교일기』(천주교명동교회 編, 한국교회사연구소 譯註, 1993, vol. 3)

Undiplomatic Memories : the Far East 1896-1904

『皇城新聞』, 『독립신문』, 『데국신문』

『東京日日新聞』, 『東京朝日新聞』, 『鎮西日報』

The New York Times

2. 단행본

박상섭, 『근대국가와 전쟁 : 근대국가의 군사적 기초, 1500~1900』, 나남출판, 1996.

박찬식, 『1901년 제주민란 연구 : 근대 외래문화와 토착문화의 갈등』, 도서출판 각, 2013.

- 서영희, 『대한제국 정치사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 서인한, 『대한제국의 군사제도』, 혜안, 2000.
- 심현용, 『한말 군 근대화』,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2.
- 육군본부 군사연구소 編, 『한국군사사』 9, 경인문화사, 2012.
- 이태진·김재호 외, 『고종황제 역사 청문회』, 푸른역사, 2005.
- 최덕수, 『개항과 조일관계』, 고려대학교출판부, 2004.
- _____, 『대한제국과 국제환경 : 상호인식의 충돌과 접합』, 선인, 2005.
- _____, 외, 『조약으로 본 한국 근대사』, 열린책들, 2010.
- 최문형, 『러시아의 남하와 일본의 한국 침략』, 지식산업사, 2007.
- 한영우 외, 『대한제국은 근대국가인가』, 푸른역사, 2006.
- 현광호, 『대한제국의 대외정책』, 신서원, 2002.
- 山田朗, 『軍備擴張の近代史-日本軍の 膨脹と 崩壊』, 吉川弘文館, 1997.
- 西川長夫·松宮秀治 編 『幕末·明治期の 国民国家形成と 文化変容』, 新編社, 1995.
- 藤原彰 著, 서영식 譯, 『日本軍事史』上, 제이앤씨, 2013.
- Charles Tilly 著, 이향순 譯, 『국민국가의 형성과 계보 : 강압·자본과 유럽국가의 발전』, 學問과 思想社, 1994.
- Dietrich Geyer, trans. Bruce Little, *Russian Imperialism—The Interaction of Domestic and Foreign Policy 1860–1914* (New Haven : Yale University Press), 1987.
- Malozemoff Andrew 著, 석화정 譯, 『러시아의 동아시아 정책』, 지식산업사, 2002.
- Poggi Gianfranco 著, 박상섭, 譯, 『근대국가의 발전』, 민음사, 1994.
- William Reynolds Braisted, *The United States Navy In The Pacific 1897–1909*(Annapolis : Naval Institute Press), 2008.

3. 논문

- 강정일, 「지정학적으로 본 러시아제국의 對한반도정책(1884–1904) –평창원인과 실패과정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2014.
- 광무개혁연구반, 「광무개혁 연구의 현황과 과제」, 『역사와 현실』 8, 1992.
- 權九熏, 「大韓帝國期日本軍의 侵略과 民族의 抵抗(1897~1910)」, 建國大學校 史學科 博士學位論文, 2000.

- 김기성, 「대한제국기 진위대 증설의 재정적 영향」, 『역사와 현실』 90, 2013.
- 金世恩, 「開港 이후 軍事制度의 改編過程」, 『軍史』 22, 1991.
- 김태산, 「독일 해군연맹(Deutscher Flottenverein)의 성격 변천-1898 ~ 1908년 지도부의 변화를 중심으로-」, 『서양사연구』 35, 2006.
- 김혜영, 「갑오개혁 이후 軍司法制度의 개혁 -「陸軍懲罰令」과 「陸軍法律」을 중심으로-」, 『軍史』 89, 2013.
- 도면희, 「황제권 중심 국민국가체제의 수립과 좌절(1895~1904)」, 『역사와 현실』 50, 2010.
- 박정환, 「초기 제주도 개신교 형성사-이기풍 선교사 이전 현지인 신앙공동체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와역사』 39, 2013
- 朴贊勝, 「活貧黨의 활동과 그 성격」, 『韓國學報』 10, 1984.
- 徐榮姬, 「1894~1904년의 政治體制 變動과 宮內府」, 『韓國史論』 23, 1990.
- 徐珍教, 「대한제국기 高宗의 황제권 강화책과 警衛院」, 『한국근현대사연구』 9, 1998.
- _____, 「대한제국기 정치지배세력과 정국운영-군비강화책의 추진과 권력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근현대사연구』 26, 2003.
- 양상현, 「대한제국의 군제 개편과 군사 예산 운영」, 『역사와 경계』 61, 2006.
- 이운상, 「1894~1910년 재정제도와 운영의 변화」,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1996.
- _____, 「대한제국기 황실 주도의 재정운영」, 『역사와 현실』 26, 1997.
- 이은자, 「로컬의 관점에서 본 清末의 義和團運動」, 『사림』 51, 2015.
- 張英叔, 「고종의 軍統帥權 강화시도와 무산과정 연구-대한제국의 멸망 원인과 관련하여-」, 『軍史』 66, 2008.
- 鄭夏明, 「韓末 元帥府 小考」, 『육사논문집』 13, 1975.
- 조재곤, 「대한제국기 군사정책과 군사기구의 운영」, 『역사와 현실』 19, 1996.
- 車瓊愛, 「韓國人的 義和團運動 認識 및 이를 통해서 본 世界認識」, 『東洋史學研究』 84, 2003.
- _____, 「의화단진압전쟁이 한국의 사회·경제에 미친 영향」, 『中國近現代史研究』 23, 2004.
- _____, 「의화단진압전쟁으로 인한 한국의 국제적 환경의 변화와 대응」, 『明清史

研究』24, 2005.

車文燮, 「舊韓末 軍事制度의 變遷」, 『軍史』5, 1982.

車俊會, 「韓末 軍制改編에 대하여 : 軍隊解體에 이르는 過程」, 『歷史學報』22, 1964.

James L. Hevia, “Leaving a Brand on China : Missionary Discourse in the Wake of the Boxer Movement”, *Modern China* Vol.18, 1992.



<Abstract>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Military Policy and Military Operations The Marshal Headquarters in The Great Han Empire Prior to the Russo-Japanese War

Moon, Jun-ho

Since its establishment, The Marshal Headquarters that directed the military affairs had to respond to the realized foreign threats. Because both Russia and Japan that wanted to occupy the impact on the Korean Peninsula continued arms race. Meanwhile, the turmoil in the border areas became frequent in accordance with the spread of the Boxer Rebellion(義和團事件), and as the eight countries allied forces became visualized, The Great Han Empire regularized 'the military superiority police' through the revision of 「Marshal Headquarters' system」 and the expansion of armaments. The Great Han Empire hereby became to set government centering on the military operations institutionally.

Due to the outbreak of war to suppress the boxers, the large-scale invasion of the Qing bandit(清匪) and the overall problems followed by the influx of refugees. On this, Marshal Headquarters reinforced the military guard troops extensively in the border areas and realized 'the linear defense' which was arranged circumspectly by troops. Through this, the Qing bandit, that is a mediatory factor, was able to be repelled and the intervention of foreign forces blocked.

Meanwhile, internal turmoil had to be suppressed and the power of the central government had to be shown abroad since Russia and Japan were navigating the intervention cause in various ways.

Therefore, local appeasement was made in the form of the stationed troops on the key points and putting the military troops on the area where the situation took place. In this regard, the foreign protection, which could be extended to foreign affairs, was an important issue. In addition to this, Marshal Headquarters tried to achieve stability in the region where the troop was dispatched through the military inspection and made an effort to establish fundamental principles and improve morale of the military such as the realization of institutional care for the fallen soldiers.

Key words : The Great Han Empire, The Marshal Headquarters, Military system, Military policy, Military operation, Expansion of armaments, The Boxer Rebellion, The border defence, Internal security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18, No. 109, pp.81-114
<https://doi.org/10.29212/mh.2018..109.3>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오리엔탈리즘 관점으로 본 미군의 대반란전 실패 요인

: 이라크 전쟁사례를 중심으로

박병찬*



1. 서 론
2. 이론적 검토 및 연구방법
3. 이라크 전쟁 內 전투사례 비교 분석
4. 대반란전 실패 요인 분석
5. 결 론

1. 서 론

2001년 9월 11일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에 의해 피랍된 4대의 항공기가 미국 국방부와 세계무역센터(WTC)에 충돌하여 막대한 피해가 발생

* 국방대학교 군사전략학과 석사과정

하면서 미국인들은 경악하였다. 이후 부시(George W. Bush) 대통령은 이 사건을 ‘미국에 대한 명백한 테러 공격’으로 규정하고, 다음날인 9월 12일에는 테러에 관련된 국가 및 개입자들에 대해 철저히 보복할 것을 천명하면서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였다.

미국은 2001년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전쟁¹⁾을 거쳐 2003년 3월 20일에는 이라크 공격을 감행하였다. 미군은 첨단화 되고 정보화된 군사력을 이용하여 이라크 정규군을 신속히 격멸하고 전쟁을 종결하였다. 5월 1일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에서의 주요 전투는 종료되었다”는 선언에 따라 전쟁이 성공적으로 끝난 것처럼 보였으나, 예상하지 못하였던 새로운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다.²⁾

미군의 이라크 점령 이후 제대로 된 안정화 작전을 수행하지 못하는 사이 이라크 사회는 무질서 속으로 빠졌고, 반군 세력들이 하나 둘씩 등장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연합군 임시 행정청(Coalition Provisional Authority)의 ‘이라크 바트당 해체’와 ‘이라크 군’ 해체 명령은 이들을 반군세력에 가담케 만들면서 혼란이 더욱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결국, 미군은 그들 스스로 성공적으로 전쟁을 종결하였다고 발표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끝나지 않는 전쟁과 마주하게 되었다.

미군은 베트남 전쟁에서의 대반란전 실패 경험을 겪은 이후에도 이에 대한 대비가 없었으며, 결국 이라크 전쟁에 참전한 미군들 또한 대반란전에 대비한 훈련이나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상

1)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 대통령 부시(George Bush)는 탈레반(Taliban)에게 오사마 빈라덴(Osama bin Laden)의 인도와 알카에다(Ai-Queda)의 축출을 요구하였다. 탈레반은 빈라덴이 9·11 테러에 개입한 명백한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도를 거부하였고, 다른 관련자들의 인도 요구도 묵살하였다. 결국, 미국은 2001년 10월 7일 영국과 함께 항구적 자유 작전을 개시하였다. 아프가니스탄 내전에서 탈레반과 맞서 싸웠던 북부 동맹이 두 국가의 연합에 참여하였다.

2) 손석현, “대반란전 사례연구 : 이라크 전쟁과 미국의 대반란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2016), pp.186~187.

태였다. 이로 인해 미군은 이라크에서 안정화 작전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초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군은 왜 이라크 전쟁에서의 대반란전에서 실패하였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구하기 위해 이라크 전쟁에서 있었던 전투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실패요인을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미군의 대반란전 실패의 요인으로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W. Said)의 ‘오리엔탈리즘’에서 바라보는 서양의 동양에 대한 ‘타자화(他者化)³⁾의 관점에서 살펴 볼 것이다. 미국은 이라크와 이라크인에 대한 ‘타자화’로 인해 자신들이 만들어낸 왜곡된 시각으로 이라크를 바라보았다. 이는 결국 토착주민과 유리된 양상을 보였고 주민의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없었다는 관점에서 접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타자화에 따른 토착 세력의 지지여부가 대반란전의 승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가설을 설정하고 분석을 진행 할 것이다.

2. 이론적 검토 및 연구방법

가. 이론적 검토

1) 기존연구 고찰

대반란전과 관련된 국내 연구는 서양에 비해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우선, 손석현의 “대반란전 사례연구 : 이라크 전쟁과 미국의 대반란전”에서는 말라야 비상사태와 베트남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 사례에 대한 대반란전 사례 분석을 통해

3) 특정 대상을 말 그대로 다른 존재로 보이게 만들으로써 분리된 존재로 부각시키는 말과 행동, 사상, 결정 등을 말한다.

한반도에서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성훈의 “대반란전의 성공 요인에 관한 연구 : 관련 행위자 요인을 중심으로”에서는 효과적인 대반란전 수행을 위해 아프간 전쟁 사례를 바탕으로 토착정부, 반군그룹, 외부개입 세력이라는 행위자 모델을 중심으로 대반란전을 설명하였다.

한편, 국외 연구를 살펴보면 다비드 갈룰라(David Galula)는 “Counterinsurgency : Theory and Practice”를 통해 반군의 무력활동에 대응한 대반란전 교리를 정리하였다. 갈룰라는 대반란전에 대해 “대반란전의 작전 목표는 주민이 되어야 하며, 주민들로부터 나오는 정보가 작전 승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보았다. 또한, “점령한 지역을 장악하여 치안을 확보하고 재건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⁴⁾

이라크 다국적군 치안전환사령부 사령관으로 임무수행을 하였던 퍼트레이어스(David Petraeus)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반란전 교범인 FM 3-24 ‘Counterinsurgency’를 발간하였다. 퍼트레이어스는 교범에서 “대반란전이 공격과 방어 및 안정화 작전을 혼합한 것이고, 비군사적 기구와 연합된 전투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⁵⁾

코데스만(A. Cordesman)은 미국의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대반란전 실패 원인을 국가전략 부재, 미군의 대반란전 임무수행 역량 부족, 반란군 제압을 위한 적기 상실 등을 이유로 꼽고 있다.⁶⁾

마지막으로, 킷슨(F. Kitson)은 대반란전의 성공에 대해 강력

4) A. A. Cohen, Galula, “The Life and Writings of the French Officer Who Defines the Art of Counterinsurgency”, PRAEGER(2012), p. x.

5) David Petraeus, James F. Amos, “Counterinsurgency Field Manual”, Headquarters Department of Army(2006), p. ix.

6) Cordesman, H, “The Lessons of Afghanistan”. CSIS Policy Report(2006), pp.34~35.

한 군사력을 사용한 반군 제압을 통해 해당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프랑스의 여러 대반란전에 참여했던 트링키어(R. Trinquier)도 반군그룹을 직접 무력화시키는데 필요한 외부 군사능력이 성공의 핵심요소라고 말하였다.⁷⁾

2) 이론적 고찰 : 대반란전과 오리엔탈리즘

가) 대반란전의 정의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에서의 전쟁이 종결됐다”고 선언한 5월 1일 이후부터 미군은 이라크 정규군이 아닌 반군세력들의 ‘반란전’에 대응한 ‘대반란전’에 직면하였다. ‘대반란전’과 ‘반란전’은 서로 상반되는 개념으로 ‘반란전’에 대응하기 위한 작전수행 개념이 ‘대반란전’이라고 할 수 있다.

‘반란(反亂, Insurgency)’의 사전적 의미는 “정부나 지도자 따위에 반대하여 내란을 일으키는 행위”⁸⁾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 미 교범에서는 ‘반란’을 정의함에 있어 “한 지역의 정치적 통제를 획득하거나 무력화 또는 변화시키기 위한 전복 및 폭력의 조직적 사용(The organized use of subversion and violence to seize, nullify, or challenge political control of a region)’이라고 정의하고 있다.⁹⁾

이와 상반되는 ‘대반란(對反亂, Counter Insurgency)’에 대해서는 육군 야전교범 ‘3-0-1 군사용어사전에서 “현존하는 정부를 전복시킬 목적을 가지고 자행된 전복활동 및 무력행사를 격

7) 이성훈, “대반란전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 관련 행위자 요인을 중심으로”, 국방정책연구 제31권 제3호(2015), p.100.

8)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2008), <https://ko.dict.naver.com/#/entry/koko/be1ee3a3d2e841128657c40b887cb936>(검색일 : 2018. 10. 22)

9) US Joint Chiefs of Staff, “JP 3-24 Counterinsurgency(2013)”, p. ix.

되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취하는 군사, 준군사, 정치, 경제, 심리 및 대민 활동”¹⁰⁾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대반란전’에 대한 정의는 미군 교범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미 교범에서는 ‘대반란전’을 “반란을 격멸하고 봉쇄하며 동시에 반란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취해지는 광범위한 민간 및 군사적 노력(A comprehensive civilisan and military effort designed to simultaneously defeat and contain insurgency and address its root cause)”으로 정의하고 있다.¹¹⁾

대반란전에 대한 학자들의 논의를 살펴보면, 키라스(James Kiras)는 반란전을 “전력의 측면에서 비대칭적이고, 수행하는 주체가 약한 준국가적 단체이며, 국민의 지원을 최대한으로 얻으면서 게릴라전을 사용하여 치고 빠지는(Hit & Run) 전술을 통해 정치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싸운다”고 하였다.¹²⁾ 오닐(B.E O’Neil)은 반란을 “비통치 집단과 통치당국 간의 투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비통치 집단이 정통성이 없는 정치체제에 대항하여 정치적인 선전과 무력을 동원하여 자신들의 정통성을 내세우려고 하는 활동”이라고 설명하고 있다.¹³⁾

이러한 개념적 정의를 종합해 볼 때, 반란전은 국가나 지역 내의 합법적인 통치세력에 대항해 불법적이고 비합법적인 단체나 조직에 의해 수행되는 전복 활동으로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반대로, 대반란전은 비합법적인 단체에 의해 시도되는 폭력적이고 반체제적인 활동을 일소시키고 이와 같은 단체를 제거하기 위한 군사적, 정치·사회적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10) 육군교육사령부, “야전교범 3-0-1 군사용어사전”, 육군본부(2012), p.145.

11) US Joint Chiefs of Staff, op. cit., p. ix.

12) James D. Kiras, *“Irregular Warfare : Terrorism and Insurgency”*, ‘Strategy in the Contemporary World’ (2007), p.170.

13) Bard E. O’Neil, *“Insurgency and terrorism : Inside Modern Revolutionary Warfare”*, Washington : Brassey’s(1990), p.25.

3) 오리엔탈리즘과 “타자화”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이란 용어는 최초에는 동양에 대한 이론적 탐구로서 단순히 동양학을 의미했었으나, 사이드(Edward W. Said)에 의해 “동양에 대한 서구의 왜곡과 편견”으로 그 의미가 변화하였다.¹⁴⁾ 이러한 사이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오리엔탈리즘’은 서구 제국주의가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동양 침략을 정당화 하는 수단으로써 형성된 담론으로 볼 수 있다.

서구는 자신들의 입장에서 동양을 ‘타자화’함으로써 동양을 신비화하고 지배하며 착취해 왔다는 것이다. 여기서 ‘타자화’의 사전적 의미는 “특정 대상을 말 그대로 다른 존재로 보이게 만들으로써 분리된 존재로 부각시키는 말과 행동, 사상, 결정 등의 총집합”¹⁵⁾이다. 즉, 서양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동양의 이미지를 통해 왜곡된 인식을 형성하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19세기 유럽에서 서구 열강들이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완성한 오리엔탈리즘은 20세기 새로운 강대국이 된 미국으로 옮겨갔다. 미국은 자신들의 세계 패권유지를 위한 수단으로서 ‘新 오리엔탈리즘’이라 할 수 있는 그들만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다. 여기서 사이드는 오리엔탈리즘이 미국이 세우고자 하는 ‘세계 제국’의 이념이 됐다고 지적한다.¹⁶⁾

14) 동양에 대한 서구의 가장 전형적인 왜곡사례는 동양을 비논리적이고 비민주적이며, 게으르고 부패한 지역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 그러한 편견은 과거로부터 내려온 서구인들의 인상비평 수준일 뿐, 실제 현실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 사이드의 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오리엔탈리즘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동양을 보는 서구인들의 시각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동양에 대한 서구 국가들의 정책수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문학비평용어사전, 2006. 1. 30, 국학자료원)

15) <https://ko.wikipedia.org/wiki/%ED%83%80%EC%9E%90%ED%99%94> (검색일 : 2018. 6. 7.)

16) 권형우, “오리엔탈리즘 : 동양이란 이름의 빛”, 연세춘추(2015), <http://chunchu.yonsei.ac.kr/news/articleView.html?idxno=8514>(검색일 : 2018. 6. 7.)

미국은 이라크 전쟁을 시작하면서 정의의 전쟁임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이라크 내 대량살상무기 제거, 선제적인 테러와의 전쟁 등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오리엔탈리즘에서 제시된 ‘타자화’라는 개념을 빌려 미국의 전쟁 개입을 바라보면, 후세인 정권을 민주화되지 못하고 인권침해가 극심한 독재국가로 보았다. 또한, ‘악의 축’으로서 잠재적 테러 가능 국가로 부각시켰다. 따라서, 미국은 이를 타도하고 새로운 민주국가를 건설하여 독재자로부터 이라크 국민들을 해방시키고 테러를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라크를 독재국가와 테러 가능 국가로 ‘타자화’ 함으로써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전쟁과 개입을 정당화시키는 논리로서 설명하고 있다. 전쟁 이전부터 미 행정부가 ‘타자화’ 과정을 통해 형성한 이라크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는 전쟁 이후 안정화 작전 간에도 미군의 이라크인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로 연결됨에 따라 대반란전 성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토착 세력의 지지를 이끌지 못하는 문제점에 빠졌다. 앞서 살펴 본 미국의 對 이라크 타자화 인식과 변화 양상을 정리해 보면 <표-1>와 같다.

<표-1> 미국의 對 이라크 타자화 인식과 변화 양상

구 분	對 이라크 타자화 인식	주 체	대 상
전쟁 이전	① 후세인 정권 : 심각한 인권침해, 민주주의 말살 ② 이라크 = 악의 축 : 대량살상무기 제조, 알카에다와 연계	미 행정부	이라크, 후세인 정권



전쟁 이후	① 이라크 인을 단지 ‘저항세력(Insurgents)’으로 인식	미군	이라크 인
-------	-------------------------------------	----	-------

나. 연구 방법

미군의 대반란전 실패의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W. Said)의 ‘오리엔탈리즘’에서 바라보는 서양의 동양에 대한 ‘타자화’의 관점에서 살펴 볼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비교사례연구 방법을 사용 할 것이다. 이라크 전쟁 간 발생했던 4가지의 전투사례¹⁷⁾를 대상으로 대반란전 실패 요인 4가지로 비교분석 할 것이다. ‘타자화에 따른 토착 세력의 지지 여부가 대반란전의 승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대반란전 실패요인 선정에 있어서 ‘타자화 요인’¹⁸⁾ 2가지와 ‘일반 요인’¹⁹⁾ 2가지로 구분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각 전투사례에서 실패요인으로써 ‘타자화 요인’이 ‘일반 요인’에 비해 얼마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하였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라크 전쟁 간 미군의 대반란전 실패 요인으로써 먼저, ‘타자화 요인’으로는 ① 소탕 중심의 작전수행, ② 민간인 피해를 고려하지 않은 작전수행으로 분류하였고, ‘일반 요인’으로는 ① 미군 단독 작전수행, ② 대규모 재래식 군사작전 수행으로 분류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타자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변수로서 대상에 대한 인위적 조작을 통해 ‘대상화(對象化)’ 또는 ‘물화(物化)’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 보았다. ‘타자화’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국어사전에서는 “다른 사람의 인격이 나에 의해 대상화(對象化)되고 물화(物化) 되는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²⁰⁾ 즉, 한 주체(미군)에 의해 특정 대상(이라크인)이 다르게 왜곡되

17) 실패한 전투로서 1차 팔루자 전투와 합동진격작전, 성공한 전투로 2차 팔루자 전투와 탈 아파르 전투 선정.

18) 미군의 이라크인에 대한 타자화로 인해 대반란전에 실패하게 된 요인.

19) ‘타자화’와 관련 없이 군사작전 수행상의 문제점으로써 대반란전에 실패하게 된 요인.

20) [https://ko.dict.naver.com/entry/80340813/타자화/검색일 : 2018. 8. 10.](https://ko.dict.naver.com/entry/80340813/타자화/검색일%3A2018.8.10)

거나 대상화되는 경우 ‘타자화’가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타자화 요인’으로서 미군은 ‘소탕 중심의 작전수행’간 이라크인을 단지 ‘저항세력(Insurgents)’이라는 포괄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미군을 공격하는 적대 세력을 하나의 단일한 집단으로 인식하였다.²¹⁾ 이는 결국 소탕의 대상으로 연결됨에 따라 이후의 ‘장악-건설’ 단계는 누락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민간인 피해를 고려하지 않은 작전수행’은 이라크인을 ‘야만, 열등’의 대상으로 왜곡하여 인식하다 보니 작전 간 이들의 생명과 피해를 경시하였다. 이 두 요인으로 미군은 결국 토착 세력의 지지를 획득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즉, ‘소탕 중심의 작전수행’은 이라크인을 저항세력으로서 소탕의 대상으로서 인식하는 타자화가 이루어졌으며, ‘민간인 피해 미 고려’는 “이라크인에 대한 야만적이고 열등하다”는 이미지가 만들어낸 타자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일반 요인’으로서 ‘미군 단독 작전수행’의 경우 이라크인이 미군을 점령군으로 인식함에 따라 축출해야 한다는 반란군의 군사활동에 명분을 제공하였으며, ‘대규모 재래식 군사작전’ 기존 냉전체제 하에서 지속되던 미국의 전면전에 대비한 재래식 작전수행 방식은 새로운 전쟁 양상인 ‘반란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다. 일반 요인으로 뽑은 2가지는 일반적인 군사작전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요인으로 이라크인에 대한 별도의 인위적 조작이나 대상화(對象化)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위에서 살펴본 실패 요인을 바탕으로 4장에서는 전투사례 별 실패요인 도출시 실패한 전투에서는 실패요인을 도출 할 것이고, 성공한 전투에서는 성공요인을 도출해서 분석 할 것이다. 앞서

21) 이근욱, “이라크 전쟁 : 부시의 침공에서 오바마의 철군까지”, 한울(2011), p.151.

살펴 본 미군의 이라크 전쟁 간 대반란전 실패 요인과 타자화 인식, 영향을 정리하면 <표-2>과 같다.

<표-2> 미군의 이라크 전쟁 간 대반란전 실패 요인

구 분	실패요인	타자화 인식	영 향
타자화 요인	소탕 중심의 작전수행	이라크인=Insurgents=소탕대상	토착세력 지지 획득 실패
	민간인 피해 미고려	이라크인=아만, 열등=생명 경시	
일반 요인	미군 단독 작전수행	.	반란군 군사활동 명분 제공
	대규모 재래식 군사작전	.	소규모 반란전 대응 제한

3. 이라크 전쟁 內 전투사례 비교 분석



가. 1차 팔루자 전투

1) 전투개요

1차 팔루자 전투는 미군의 이라크 전쟁 안정화 과정 초기에 있었던 전투였다. 2004년 3월 31일에 팔루자에 있는 반군세력들이 미국 민간인 경호회사 직원 4명을 살해 후 사체를 훼손하였고 이를 전시하였다. 미국은 이 사건에 분노하면서 팔루자 지역의 반군 소탕작전을 실시하였다.

작전명이 ‘단호한 결의(Operation Vigilant Resolve)’라고도 불리는 것에서 드러나듯 미국은 미국인에 대한 살해와 잔인한 행위의 철저한 응징을 위해 사전 이라크 통치위원회와 협조하지 않았고 작전지역 주민들에게도 전쟁 전 충분한 홍보활동을 하지 않았다. 또한, 미군은 이라크인에 대한 반감으로 작전수행 간 민간인들의 생명을 경시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로 말미암아 수니

과 세력의 폭동으로까지 이어졌다.

미군이 공격을 개시했을 때, 약 2,000여명의 반군들이 로켓포, 기관총 등을 이용해 거세게 저항하였다. 미군들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장갑차, 포병과 같은 중(重)화력 무기를 사용하여 작전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많은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라크 평화네트워크의 주장에 따르면 미군의 팔루자 공격 간 저격수들이 거리의 많은 민간인들을 무차별적으로 사살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백린탄을 사용함으로써 군인을 비롯해 어린 아이들까지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다.²²⁾

반군들은 이를 놓치지 않고 아랍 언론을 통해 민간인 피해를 부풀려 선전하였다. 이로 인해 이라크 내에서는 미군에 대한 반감 증대와 함께 이라크 통치위원회는 미군에게 즉각 전투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여 결국 2004년 4월 9일 미군은 공격을 중지하였다.

2) 대반란전 실패 요인

미군이 안정화작전에 들어가면서 대반란전 초반 많은 어려움과 피해를 겪었던 이유는 그들이 대반란전에 대한 기본적인 훈련이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1차 팔루자 전투는 미군이 이라크에서 실패한 대표적인 대반란전 전투사례로, 3가지 측면에서 실패요인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반란전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소탕-장악-건설’의 과정이 필요한데 1차 팔루자 전투의 경우 ‘소탕 중심의 작전수행’이 이루어졌다. 1차 팔루자 전투에서 소탕중심으로 작전이 수행된 데에는 대반란전 수행개념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것도

22) Mockiatis Thomas R, The Iraq War : A Documentary and Reference Guide, Green Wood (2012)

하나의 원인이었지만, 무엇보다도 미국인 4명을 살해하고 유프라테스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에 매단 사건에 대한 미국의 분노가 이들에 대한 무자비한 소탕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분노는 기존의 미군이 갖고 있던 이라크 인에 대한 ‘Insurgents’ 집단이라는 타자화 된 인식과 중복되면서 소탕의 대상으로만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해병대 지휘관이던 매티스(James Mattis) 소장과 콘웨이(James T. Conway) 중장의 건의와는 상반되게 부시 행정부는 팔루자 지역을 소탕하기 위한 공세를 명령하였다.²³⁾

둘째, ‘민간인 피해를 고려하지 않은 작전수행’이다. 대반란전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 주민들의 지지와 동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시 민간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작전수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1차 팔루자 전투에서 미군은 작전을 개시하기 전 민간인을 대피시키거나 우려되는 부정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또한, 당시 지휘계통상으로 내려온 지침은 무자비한 군사행동을 승인하는 것이었고, 그것 때문에 민간인 사상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중요성은 고려되지 않았다.²⁴⁾

셋째, ‘대규모 재래식 군사작전’을 들 수 있다. 미군은 1차 팔루자 전투 간 ‘반란전’에 대응한 소규모 분권화된 작전이 아닌 기존 미군이 추구하던 바그다드 점령시까지의 모습 그대로 대규모 재래식 군사작전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소총과 로켓포 정도로 무장한 반란군에 대항한 미군의 장비는 대부분 중(重)화력 무기였다. 해병대 지휘관들은 전투원들의 사상자 발생을 줄이기 위해 그들의 전통적 합동작전 교리에 따라서 포병, 공중 공격, 그리고 탱크를 사용하였다.²⁵⁾

23) 손석현, 앞의 책, p.203.

24) 위의 책, p.204.

25) 위의 책, p.204.

나. 2차 팔루자 전투

미군은 이라크에서의 안정화 작전 초기 대반란전에 대한 이해와 준비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던 와중에 새로운 접근법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였고 ‘전(全) 영역 대반란 작전’이란 용어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개념은 2004년 8월 5일 발간된 이라크 다국적군 사령부 계획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 이에 따르면 연합군은 더 이상 점령군이 아니며 대신 이라크 임시정부를 지원하고 유엔결의안을 이행하는 개념이다.²⁶⁾ 이를 통해 미군은 2차 팔루자 전투와 탈 아파르 전투에서 비교적 성공적인 작전을 수행하였다.

1) 전투개요

2차 팔루자 전투는 미군이 1차 팔루자 전투의 실패 경험과 교훈을 고려해 전투를 계획하였고, 무엇보다 반군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간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안을 두었다. 따라서 전투 시작 전 민간인들에게 대피하도록 경고방송을 하였다. 또한, 팔루자 지도자들과의 전투 시작 전·후 협조를 통해 반군과의 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도 기여하였다.

2004년 11월 7일 시작된 작전은 공중전력의 지원하에 재래식 전력으로 공격을 실시해 12월 말 약 2,000여명의 반군을 제압하면서 종결되었다. 전투 결과 미군, 영국군, 이라크 정부군 등 연합군 107명이 전사했고, 이라크 반군은 1,200~1,500명이 전사하였다. 민간인은 800명이 숨진 것으로 추정되었다. 전투 이전에 존재했던 3만 9,000여 동의 건물 가운데 1만 8,000여 동의 파손되었다.²⁷⁾

26) 위의 책, p.208.

27) 이근욱, 앞의 책, p.159.

2) 대반란전 성공 요인

전투개요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2차 팔루자 전투는 1차 팔루자 전투와는 다른 접근을 통해 성공적인 대반란전을 수행함으로써 종결됐다. 2차 팔루자 전투에서 대반란전을 성공적으로 종결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는 첫째, 소탕 중심의 작전수행이 아닌 ‘소탕-장악-건설’의 3단계 작전수행, 둘째, 민간인 피해를 고려한 작전수행, 셋째, 이라크 군과 연합한 작전수행을 들 수 있다.

첫째, ‘소탕-장악-건설’의 3단계 작전수행이다. 미군은 안정화 작전 초기 계속해서 목표지역에 대한 소탕작전을 성공적으로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단계에 대한 조치가 미흡함에 따라 작전이 최종적으로 성공 할 수 없었다. 하지만, 2차 팔루자 전투에서는 소탕작전 이후 그 지역에 대한 확실한 장악을 통해 치안과 주민 생명을 보호하였고, 피해시설에 대한 복구 및 재건 지원을 통해 주민들의 신뢰를 획득하였다. 2차 팔루자 전투에서는 전투가 종료된 후 이라크 정부가 지역 주민들에게 재건과 피해 보상을 위해 1억 8천만 불을 제공했고, 미군은 사회 인프라 재건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였다. 또한, 도시 안정화와 함께 2005년에는 선거를 실시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일정 부분 동참하도록 유도하였다. 이는 단순히 전투로 종결되는 것이 아닌 이후 안정적인 지역 확보와 재건 지원을 함으로써 토착 세력의 마음을 얻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둘째, ‘민간인 피해를 고려한 작전수행’이다. 제2차 팔루자 전투에서는 1차 전투와 달리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자유롭게 하는데 그 목적을 둬서 시작부터 다른 접근방식을 보였다. 모든 민간인들에게 전단, 라디오 방송, 구두 메세지 전달 등을 통해 도시를 떠나도록 경고하였다. 25만 명의 주민 중 최종

적으로 5,000여 명만 남았다.²⁸⁾ 사전 민간인을 대피시킴으로써 작전 수행 간 민간인 인명 피해를 상당부분 줄일 수 있었고, 작전 수행 간에도 정밀 폭격 등을 피해 민간인 피해는 최소화하면서 반군세력 제압에 초점을 두었다. 민간인을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포용함에 따라 토착 주민들도 미군에게 정보제공 등으로 협력하였다.

셋째, 토착 정부와 연대한 작전수행이 이루어졌다. 제2차 팔루자 전투에서는 제1이라크 여단과 제3이라크 여단이 미 제1해병 연대, 미 제7해병 연대, 그리고 블랙 잭 여단과 함께 참전하였다. 이라크 군과의 연합 작전은 이라크 인들로 하여금 미군의 작전에 대한 거부감을 완화시켜 주는 한편, 반란군의 반란활동 명분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었다.²⁹⁾



다. 탈 아파르 전투

1) 전투개요

탈 아파르 전투는 맥마스터(H. R McMaster) 장군이 이끄는 제3기갑수색연대와 이라크 제 3사단의 연합작전으로 3단계(소탕-장악-건설)로 구분하여 수행되었다. 먼저, ‘소탕단계’를 통해 미군은 작전 수행 이전부터 1,500회 이상의 정찰과 111회의 탐색격멸, 46회의 습격을 실시하였다. 또한, 이라크의 북서부 국경 지역에 근접한 탈 아파르는 외부 지원세력의 지원활동이 많이 이루어지다보니 이를 통제하기 위해 이라크와 시리아 사이의 국경지대에 장벽을 설치하고 검문소를 운영함으로써 외부로부터 반군에게 들어가는 물자를 차단하였다. 어느 정도 반군에 대한

28) 손석현, 앞의 책, p.211.

29) Hoffman, Bruce, *Insurgency and Counterinsurgency in Iraq*, Rand Corporation(2004), p.72.

고립과 물자 차단이 이루어지자 정밀 타격 무기의 타격과 수색 정찰로 민간인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신속하게 1단계 작전을 종결하였다.³⁰⁾

2단계 ‘장악단계’에서는 고립된 적에 대한 제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자 지역에 대한 확보를 통해 치안유지와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노력을 경주하였다. 이에 주민들도 연합군에 대한 호의를 보이며 반군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이에 화답하였다.

3단계에서는 오랜 내전과 전투로 인해 피폐해진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재건 활동을 지원하였다. 이라크 정부와 미군 민사작전부대는 6천만 달러를 투입해 수도, 건물 등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하였다. 안정적인 재건활동과 민사지원 활동은 아파르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더욱더 연합군을 신뢰하도록 만들었고, 이곳은 점차 안정화 되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맥마스터 장군이 보인 3단계의 ‘소탕-장악-건설’의 작전 수행은 이라크 전쟁에서 대반란전 수행에 있어서 하나의 핵심적인 지표가 되었고, 미군이 이라크 전쟁에서 반군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교훈을 준 사례가 되었다.

2) 대반란전 성공 요인

첫째, ‘소탕-장악-건설’의 3단계 작전수행이다. 탈 아파르 전투에서 미군 제3기갑연대 지휘관인 맥 마스터 대령은 탈 아파르의 작전을 ‘소탕-장악-건설’의 3단계로 구분하여 작전을 수행하였다. 소탕 단계에서는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운데 강력한 소탕을 실시한 후, 소탕 지역에 대한 장악을 통해 치안과 주민 안전을 확보하였다. 마지막으로 건설단계에서는 지역의 피해 복구나 인프라 재건사업을 진행하였다.

30) 손석현, 앞의 책, p.214.

둘째, ‘민간인 피해를 고려한 작전수행’이다. 맥 마스터 대령은 작전수행 간 민간인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했고, 표적에 대한 타격에 있어서도 정밀타격 위주로 수행하였다. 소탕작전을 통해 반군세력을 일정부분 제압한 이후 장악단계에 들어서는 치안확보와 주민 안전에 더욱 힘을 기울였다. 이러한 노력은 주민들로부터 미군에게 반군의 정보를 제공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더욱 원활하게 잔존하는 반군세력들을 제압 할 수 있었다. 맥마스터 대령은 “우리는 시민 대다수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었다”며 팔루자에서의 성공의 열쇠는 민중의 지지라고 하였다.³¹⁾

셋째, 토착 정부와 연대한 작전수행이 이루어졌다. 탈 아파르 작전은 미군 3기갑연대가 단독으로 작전을 수행하지 않고 이라크 제3사단과 함께 작전을 수행하였다.³²⁾ 이와 같은 연합 작전은 이라크 인들로 하여금 미군의 작전에 대한 반감을 덜 갖게 했고, 외부 침략세력에 대응한다는 반란군의 명분을 약화시켰다.

넷째, 대규모 재래식 군사작전이 아닌 정찰, 탐색격멸, 습격 위주의 작전을 실시하였다. 대반란작전의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작전지역 내 반란세력과 민간인을 구별해 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군은 1,500회 이상의 정찰, 111회의 탐색격멸, 46회의 습격을 실시하였다. 또한, 민간인과 분리된 반란세력을 고립시킨 후 정밀 수색정찰을 통해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라. 1·2차 합동진격작전

1) 전투개요

2005년 이라크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이래 수니파와 시아

31) Catherine Dale 저, 육군군사연구소 역, “이라크 자유작전 미 의회 보고서”, 육군군사연구소(2011), pp.109~112.

32) 손석현, 앞의 책, p.211.

과 간의 종파 분열은 더욱 심화되었다. 이러한 혼란 가운데 2006년 2월 22일 새벽 6시 55분 두 차례의 대규모 폭탄공격으로 사마라에 위치한 아스카리야 사원이 파괴³³⁾되었다. 아스카리야 사원은 시아파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거룩한 성지 가운데 하나였던 만큼 시아파 입장에서는 미국의 9·11 테러와 같은 큰 충격으로 다가 왔다.

이 사건을 계기로 시아파 민병대와 바드르 군단은 수니파에 대한 보복을 결심하였고, 바그다드는 이전보다 더욱 더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다. 이러한 혼란을 진압하기 위해 미군은 바그다드에 대한 2차례의 작전을 수행하였다. 합동진격 작전에는 이라크 군과 연합군을 합해 약 48개 대대가 동원됐다. 이는 총 51,000여 명의 규모로서 이라크 경찰 약 34,000명, 이라크 육군 8,500명, 연합군 7,200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³⁴⁾

1차 합동진격작전은 2006년 6월 14일부터 7월 20일까지 전개된 작전으로 작전결과 치안확보에 실패하고 오히려 종파간의 갈등과 폭력, 테러가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미군은 같은 해 8월 7일부터 10월 24일까지 2차 합동진격작전을 개시하였다.³⁵⁾ 하지만, 2차 합동진격작전도 많은 사상자만 발생하고

33) 이라크 사마라에 있는 아스카리야 사원은 시아파 이슬람교의 가장 거룩한 성지 가운데 하나. 이 사원에는 존경받는 두 이맘(Imam)의 무덤이 존재하는데 이슬람교도들은 숨은 이맘이 인류에게 정의를 회복시켜주는 구세주로 믿고 있었음. 그런데 2006년 2월 22일 새벽 6시 55분 두 차례의 대규모 폭탄공격으로 사원이 파괴되었음. 이라크 특수부대 제복을 입은 8명의 인원이 사원에 잠입해 경비원을 포박한 다음 2개의 폭탄을 설치하여 사원을 폭발시킨 후 사라짐. 수니파로 추정된 이들의 공격은 시아파 입장에서는 미국의 9·11 테러와 같은 큰 충격이었음.(John A. Nagle, *Learning to eat soup with knife : Counterinsurgency Lessons from Malaya and Vietnam*, University of Chicago Press(2002), p. 173, Daniel Marston and Carter Malkasian, *Counterinsurgency in Modern Warfare* Osprey Publishing(2008), p.133.)

34) 손석현, 앞의 책, p.227.

35) Mockiatias Thomas R, op. cit., p.94.

혼란 상황을 정리 하지 못하면서 실패한 작전으로 끝났다.

이 작전에서 미군 81명, 이라크군과 경찰 200명이 사망했으며 약 14,0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 되었다.³⁶⁾ 이러한 절망적인 결과는 미군으로 하여금 다시금 이라크 전쟁 수행 방식에 있어서 전반적인 재검토를 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이후 증파를 선택하게 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2) 대반란전 실패 요인

2차례의 합동진격작전 실패에는 소탕 중심의 작전수행, 민간인 피해를 고려하지 않은 작전수행, 대규모 재래식 군사작전, 이라크군의 역량 부족과 미군의 병력 부족 문제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원인으로 작용하였지만, 주요 원인으로 크게 세 가지로 살펴 볼 수 있다.

첫째, ‘소탕 중심의 작전수행’이다. 작전 수행에 있어서 연합군은 ‘소탕-장악-건설’ 단계의 과정을 통해 안정적으로 지역을 확보하지 못하고 소탕작전을 실시 한 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함으로써 반군 세력에게 다시금 점령지역을 빼앗기는 결과를 가져왔다. 여기에는 미군의 병력부족과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연합했던 이라크 군의 작전수행 능력 부족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

둘째, ‘민간인 피해를 고려하지 않은 작전수행’이다. 아스카리아 사원 테러 이후 격양된 종파간의 갈등 속에서 효과적인 주민 통제와 민간인 피해를 고려하지 않았다. 콜드웰(William Caldwell) 소장의 2006년 10월 발표에서 “폭동 분자들과 극단주의자들이 강력하게 저항 한 것”³⁷⁾이라는 설명에서 보듯이 민간인과 반군의 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즉, 민간인들에 대한 사

36) 손석현, 앞의 책, p.228.

37) 위의 책, p.227.

전 전투 홍보 부족으로 작전지역을 이탈할 기회가 없었고, 반군과의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투가 수행되다 보니 많은 민간인 피해와 함께 작전이 실패한 것이다.

셋째, ‘대규모 재래식 군사작전 수행’이다. 합동진격작전 또한 1, 2차 팔루자 전투와 같이 대규모 재래식 군사력에 중점을 둔 군사작전이 이루어졌다. 합동진격작전에는 총 51,000여 명의 대규모 병력과 전차, 포병, 장갑차 등 화력의 증강이 이루어졌으며, 전투수행방식에 있어서도 기존 국가 간에 이루어지던 재래식 전투수행 방식에 의존하였다. 이는 결국, 저항세력의 ‘반란전’ 양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4. 대반란전 실패 요인 분석



가. 미군의 대반란전 실패 요인

앞서 이라크 전쟁에서 나타난 4가지의 전투사례를 통해 사례별 실패 요인을 살펴봄으로써 어떤 요인에 의해 대반란전에서 실패하고 성공했는지 알 수 있었다. 위 사례에서 도출된 미군의 이라크 전쟁 간 대반란전 실패요인은 크게 4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소탕 중심의 작전수행’이다. 대반란전에서는 적에 대한 군사적 제압 이후에 그것으로 작전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다. 소탕된 지역에 대한 확실한 장악을 통해 치안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해야 하며, 그 이후로는 소탕 작전간 발생한 민간 피해에 대한 복구와 재건지원 사업 등을 통해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미군들은 상대

적으로 강력한 화력을 통해 반군세력들을 제압한 이후 그 지역을 떠나거나 안정적인 장악과정을 거치지 못함에 따라 실패하였다.

둘째, ‘민간인 피해를 고려하지 않은 작전수행’으로서 대반란전 수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전투를 시작하기 전 민간인에 대한 대피명령과 홍보는 전투 개시 이후 발생 할 수 있는 민간인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다. 전투 간에는 민간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한된 핵심 표적 위주로 정밀 타격을 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민간인에 대한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은 이라크인에 대한 ‘야만, 열등’한 대상이라는 왜곡된 인식을 벗어나 협력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해주었고, 이는 또다시 이들로부터 호의적인 협조를 이끌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³⁸⁾

셋째, ‘미군 단독 작전 수행’이다. 미군은 이라크 전쟁 초기에는 부분적으로 단독 작전을 수행하다보니 반군세력들에게 ‘외국군 철수’라는 명분을 주게 되고, 주민들에게도 상당부분 미군에 대한 거부감이 형성되어 있었다. 이후 미군은 대부분의 작전에서 이라크 정부군과 연합한 작전을 수행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 분석한 4가지 전투사례에서는 ‘토착 정부와 연대한 작전수행 미실시’ 사례는 없었다.

넷째, ‘대규모 재래식 군사작전 수행’이다. 저항세력의 반란활동은 기존의 국가대 국가사이에서 벌어지던 재래식 군사력을 활용한 전면적인 전쟁 양상이 아니다. 이들은 비국가 행위자로서 대부분 소규모 게릴라 활동이나 테러와 같은 형태로 활동하다 보니 기존의 대규모 재래식 군사작전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응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38) 페트리어스 등은 반군에 대응하기 위한 대반란전을 수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관건은 주민들의 지지를 획득하는 투쟁이라고 보았다.(박영준, “미국의 대반란전 전략 전개와 한국 국방전략에의 함의”, 『국가전략』제22권 2호(2016), p.19.)

나. 대반란전 실패 요인 분석

미군이 이라크 전쟁에서 수행한 대반란전에 영향을 미쳤던 4가지 요인을 분석한 결과, 대반란전 실패요인이 각 전투사례에서 작용하였는지를 정리하면 <표-3>과 같다.³⁹⁾

<표-3> 이라크 전쟁 전투 사례별 대반란전 실패요인 비교분석

작용 : ○, 미작용 : ×

구 분	1차 팔루자 전투	2차 팔루자 전투	탈 아파르 전투	합동진격작전
소탕 중심의 작전수행	○	×	×	○
민간인 피해 미 고려	○	×	×	○
미군 단독 작전수행	×	×	×	×
대규모 재래식 군사작전	○	○	×	○
전투 결과	실패	성공	성공	실패

<표-3>에서 보는바와 같이 4가지 전투사례를 4가지 실패요인으로 분석했을 때, 대반란전에 있어서 1차 팔루자 전투와 합동진격작전은 실패한 전쟁이었으며, 2차 팔루자 전투와 탈 아파르 전투는 성공한 전투로 구분이 된다. 1차 팔루자 전투와 합동진격작전의 실패 원인으로 ‘소탕 중심의 작전수행’으로 ‘장악-건설’ 단계의 작전이 연계되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경우와 ‘민간인 피해를 고려하지 않은 작전수행’ 모두 실패한 것을 볼 수 있다.

39) 각 전투별 성공과 실패를 분석함에 있어서 ‘성공’을 측정하는 기준은 ‘미군이 지역을 안정적으로 장악하고 통제했느냐’에 중점을 두고 분석 하였다.

한편 ‘대규모 재래식 군사작전’은 실패한 전투였던 1차 팔루자 전투와 합동진격작전의 공통된 실패요인이긴 하나 2차 팔루자 전투에서 적용됐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작전이었던 점을 고려 시 ‘대규모 재래식 군사작전’이 대반란전 실패의 필수 요인은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이라크 전쟁에서의 대반란전 실패 요인으로 공통적으로 작용했던 일반화가 가능한 요인은 ‘타자화 요인’으로서 ‘소탕 중심의 작전수행’과 ‘민간인 피해를 고려하지 않은 작전수행’이 된다. 장악단계에서 점령지역에 대한 확실한 통제를 통한 토착 주민의 안전 확보와 치안유지를 통해 다시금 이 들로부터 정보획득과 반군분리에 있어서 협조를 받을 수 있었다. 건설단계를 통해서 는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마음을 살 수 있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요인인 ‘민간인 피해를 고려한 작전수행’ 여부에 있어서 살펴보면, 민간인들은 결국 자신의 생존과 안전을 지켜주는 세력에게 의존하게 되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투 수행 간 민간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반군세력으로부터 민간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치안을 유지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지역 주민들을 우리의 편으로 만드는 것은 대반란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이 두 가지 실패요인은 결론적으로 이라크와 이라크 인에 대한 미국의 타자화 된 시각에서 벗어나 이들을 작전수행과정에서 포용함으로써 협력과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승패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5. 결 론

미군은 약 30여년 전 베트남 전쟁에서 베트남의 반란전 활동에 대응해 실패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완 발전이 미흡하였던 결과로 다시 한 번 이라크 전쟁 안정화 기간 내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라크 전쟁에서 발생했던 4가지 전투 사례 분석을 통해 드러난 미국의 대반란전 실패 요인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탕 중심의 작전수행’이다. 이라크인에 대한 타자화로 형성된 “Insurgents”라는 인식은 반란군과 민간인에 대한 구분 없이 하나의 소탕 대상으로 인식하였다. 이는 결국 토착세력의 지지 획득에 실패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소탕 중심의 작전수행은 공격지역에 대해 상당부분 반군을 제압하고 점령하였으나, 이후 ‘장악과 건설’ 단계를 누락함에 따라 미군들이 떠나간 자리에 반군들이 다시 돌아와 점령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둘째, ‘민간인 피해를 고려하지 않은 작전수행’으로 ‘이라크인=야만, 열등’이라는 타자화된 인식은 이라크 민간인들의 생명을 경시하는 경향으로 이어졌다. 대반란전에서는 반군세력들이 민간인들과 혼재되어 작전수행을 함으로써 연합군의 작전을 어렵게 하였고, 이 가운데서 민간인들의 피해를 증대시켰다. 따라서, 작전을 개시하기 이전에 주민에 대한 홍보를 통해 사전 대피를 시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셋째, ‘토착 정부와 연대한 작전수행 미실시’이다. 미군의 안정화 작전 초기 실패요인 중 하나로서 미군의 단독 작전을 들 수 있다. 미군의 단독 작전은 반군세력으로부터 자신들의 활동을 정당화 할 명분으로서 미군이라는 외세축출을 주장할 수 있게 해주었고 민간인들에게도 외국군에 의한 작전수행에 거부감을 갖

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부분은 미군의 노력으로 인해 일정 시점 이후부터는 대부분 이라크군과의 연합작전을 수행하였다.

넷째, ‘대규모 재래식 군사작전 수행’을 들 수 있다. 저항세력의 반란활동은 기존의 국가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재래식 군사력을 활용한 전쟁 양상이 아니다. 저항세력들은 대부분 소규모 게릴라 활동이나 테러와 같은 형태로 활동하다 보니 기존의 대규모 재래식 군사작전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은 기존 자신들이 수행해오던 재래식 전투방식에 입각해 포병, 공중 공격, 그리고 탱크 위주의 군사력을 사용하였다.

이 네 가지 전투사례 가운데 실패했던 1차 팔루자 전투와 합동진격작전에서 공통적으로 작용했던 실패요인은 작전수행 과정에 있어서 ‘소탕 중심의 작전수행’과 ‘민간인 피해를 고려하지 않은 작전수행’이다. 이 두 가지 요인은 앞서 분류한 “타자화 요인”으로서 이라크 인들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 형성을 통해 이들을 배제한 가운데 작전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요인들은 결국 도착세력들로 하여금 미군에게 정보 제공, 군사적 협조 등의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대반란전의 실패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대규모 재래식 군사작전’은 실패한 전투였던 1차 팔루자 전투와 합동진격작전의 실패요인이긴 하나 2차 팔루자 전투에서 적용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작전이었던 점을 고려시 ‘대규모 재래식 군사작전’이 대반란전 실패의 필수 요인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미국은 이라크에 대한 전쟁을 시작하기 전부터 미국의 부시행정부가 반테러전쟁의 표적으로서 만든 이라크에

대한 ‘악의 축’이라는 이미지와 대량살상무기 보유, 독재로 인한 인권 탄압으로 그려진 타자화 된 이라크의 왜곡된 이미지를 만들어 냈다. 실제로는 바그다드 점령 후 대량살상무기는 찾지 못함으로써 미국의 전쟁 명분이 일정부분 잘못되었다는 점을 드러냈다. 전쟁 이후 안정화작전에서는 이라크 인을 단지 ‘저항세력 (Insurgents)’으로 인식하였다. 결국, 소탕의 대상으로만 인식되어 작전을 수행했고, 이후 치안유지나 재건부분은 누락되었다. 이와 같이 이라크와 이라크인에 대한 타자화 된 이미지는 미국의 대반란전 수행 간 토착 주민들을 배제하였고 이는 실패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지금까지 이라크전에서 미군의 대반란전 실패 요인을 ‘타자화’라는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물론 미군의 대반란전 승패여부가 전적으로 필자가 분석한 ‘타자화에 따른 토착 주민 배제, 소탕대상으로의 인식 등에 의해서만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은 필자도 인정하는 바이다. 하지만,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반란군과의 끊임 없는 전투가 이루어지는 대반란전에 있어서는 전투의 승패여부를 좌우하는데 단순히 전투력이라는 유형적 요소 외에 작전지역 주민의 지지와 협조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다. 토착 세력의 지지와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해 ‘타자화’ 된 왜곡된 시각으로의 접근이 아닌 수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미국의 베트남 전쟁과 이라크 전쟁,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 대부분의 대반란전에서 드러난 사실이다.

이상에서 본 미국의 대반란전 실패요인은 장차 한반도에서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한국군의 대반란전 임무수행 가능성과 해외 파병 임무를 고려 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도 시사하는 점이 크다. 우리나라는 북한과의 대치상황으로 인해 그동안 재래식 전쟁 양상에만 국한되어 교리가 발전해왔고 훈련되어 왔지만 이제는 새

로운 시각에서 대반란전에 대한 이해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원고투고일 : 2018. 7. 6, 심사수정일 : 2018. 8. 15, 게재확정일 : 2018. 11. 19)

주제어 : 오리엔탈리즘, 타자화, 대반란전, 이라크전쟁



〈참 고 문 헌〉

- Edward W. Said 저, 박홍규 역, 『오리엔탈리즘』, 교보문고(1991)
- 오정석, “이라크 전쟁 : 전쟁의 배경과 주요 작전 및 전투를 중심으로”, 연경문화사(2014)
- 이근욱, “이라크 전쟁 : 부시의 침공에서 오바마의 철군까지”, 한울(2011)
<http://uci.or.kr/G901:A-0006358009>
- 손석현, “대반란전 사례연구 : 이라크 전쟁과 미국의 대반란전”, 국방부 군사편찬 연구소(2016)
<http://uci.or.kr/G901:A-0006611549>
- 노암 촘스키 저, 이수현 역, “미국의 이라크 전쟁 : 전쟁과 경제제재의 참상”, 북막스(2002)
<http://uci.or.kr/G901:A-0006037746>
- Catherine Dale 저, 육군군사역군소 역, “이라크 자유작전 미 의회 보고서”, 육군 군사연구소(2011)
<http://uci.or.kr/G500:1310377-02012041511683>
- 이근욱, “Counterinsurgency Warfare and the American War in Iraq”, 신아세아 제13권 제1호(2006)
<http://uci.or.kr/G300-j12260096.v13n1p90>
- 박영준, “미국의 대반란전(Counterinsurgency) 전략 전개와 한국 국방전략에의 함의”, 국가전략 제22권 2호(2016)
<http://uci.or.kr/G901:A-0003984810>
- 이성훈, “대반란전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 관련 행위자 요인을 중심으로”, 국방 정책 연구 제31권 제3호(2015)
<http://uci.or.kr/G704-001646.2015.31.3.008>
- 황인성, “텔레비전의 미·이라크 전쟁 보도와 미국식 오리엔탈리즘 : KBS 텔레비전 뉴스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8권 3호(2004)
<http://uci.or.kr/G901:A-0001906727>
- 나종남, 박일송, “이라크 전쟁 중 대반란작전(COIN Operations) 사례 연구 : 1·2차 팔루자 전투(2004)를 중심으로”, 군사연구(2014)
<http://uci.or.kr/G704-SER000002076.2014..137.003>

- 육군교육사령부, “야전교범 3-0-1 군사용어사전”, 육군본부(2012)
- 합동참모대학, 미 합동교범 3-24, “대반란작전(Counterinsurgency Operations)”, 합동참모대학 번역본(2010).
- US Joint Chiefs of Staff, JP 3-24 Counterinsurgency, US Joint Chiefs of Staff(2013)
- US Army, FM 3-24 Insurgency and Countering Insurgency, US Army(2014)
- Fitzgerald Davis, *Learning to forget : US Army counterinsurgency doctrine and practice from Vietnam to Iraq*, Stanford University Press(2013)
- Mockaitis Thomas R, *The Iraq War : A Documentary and Reference Guide*, Green Wood(2012)
- Beckett Ian F. W, Pimlott John, *Counterinsurgency Lessons from History*, Pen & Sword Military(2011)
- The Special Inspector General Iraq Reconstruction, *Hard Lessons: The Iraq Reconstruction Experience. The Iraq Reconstruction Experience*, Us Independent Agencies and Commissions(2009)
- Dale Catherine, *Operational Iraqi Freedom : Strategies, Approaches, Results, and Issue for Congres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2009)
- Hoffman, Bruce, *Insurgency and Counterinsurgency in Iraq*, Rand Corporation(2004)
- Codesman, Anthony H, *The Iraq War : Strategy, Tactics, and Military Lesson*, Praeger(2003)
- Fontenot, Gregory, E. J. Degen, David Tohn, *On point : The United States Army in Operation Iraqi Freedom*, Naval Institute Press(2005)
- James D. Kiras, *Irregular Warfare : Terrorism and Insurgency, Strategy in the Contemporary World*, KIRAS(2007)
- Bard E, O’Neil, *Insurgency and terrorism : Inside Modern Revolutionary Warfare*, Potomac Books(2001)

- A. A. Cohen, Galua, *The Life and Writings of the French Officer Who Defines the Art of Counterinsurgency*, PRAEGER(2012)
- David Petraeus, James F. Amos, *Counterinsurgency Field Manual*, Signalman Publishing (2009)
- John A. Nagle, “Learning to eat soup with knife : Counterinsurgency Lessons from Malaya and Vietnam”, University of Chicago Press(2002)
- Daniel Marston and Carter Malkasian, “Counterinsurgency in Modern Warfare” Osprey Publishing(2008)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2008), <https://ko.dict.naver.com/#/entry/koko/be1ee3a3d2e841128657c40b887cb936>(검색일 : 2018. 10. 22)
- 권형우, “오리엔탈리즘 : 동양이란 이름의 덫”, 연세춘추(2015), <http://chunchu.yonsei.ac.kr/news/articleView.html?idxno=8514>(검색일 : 2018. 10. 23.)
- <https://ko.wikipedia.org/wiki/%ED%83%80%EC%9E%90%ED%99%94>
(검색일 : 2018. 6. 7.)
- <https://ko.dict.naver.com/entry/80340813/타자화>(검색일 : 2018. 8. 10.)

<Abstract>

A Study on the Counter-Insurgency Failure Factors of the U.S. Army in the View of Orientalism : Focused on Iraq War Case

Park, Byeung-chan

The United States has not systematically organized and developed experiences and lessons of failure since the failure of the counterinsurgency in the Vietnam War more than three decades ago. Since then, the United States has been confronted with a new war that was unexpected, though on May 1, 2003, when President Bush declared that "major battles in Iraq were over", the war seemed to be a successful ending. The response of the US military responding to the insurgent's insurgency was still limited to the conventional way of conducting combat, so it was once again a failure.

Thus, this study will analyze the factors that led to the failure of the United States to revive the counterinsurgency from the perspective of 'Otherization' of Orientalism. The United States looked at Iraq with distorted views created by its 'Otherization' of Iraq and Iraq people. In the end, it was separated from indigenous inhabitants and approach from the viewpoint that it could not bring back the support of residents.

Based on the four battle cases that took place during the Iraq war for analysis, we will compare the four failure factors to see what factors have failed or succeeded in the battle. As the comparative factors, the first, 'Execution of the operation centered on the sweeping', the second, 'The operation without consideration of the civilian damage', the third, 'Execution of the US military

independent operation’, and the fourth, ‘Execution of the large conventional military operation’.

As a result of analysis of the factors of failure of the US Army's counterinsurgency, the factors that can be generalized as common cause of the counterinsurgency failure in Iraq are the ‘execution of the operation centered on the sweeping’ and ‘the operation without considering the civilian damage.’ On the other hand, considering that the ‘large-scale conventional military operation’ was a failure factor of the first Falluja battle and joint strike operation, considering that it was a successful operation even though it was applied in the second Falluja battle, ‘large-scale conventional military operation’ did not become a necessary factor for the failure of the counterinsurgency.



Key words : Orientalism, Otherization, Counter-Insurgency, Iraq War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18, No. 109, pp.115-162
<https://doi.org/10.29212/mh.2018..109.4>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쿠바 미사일 위기 시 미국의 해상차단 작전 성공요인 분석

이표규*
견병하**



1. 머리말
2. 이론적 검토
3. 쿠바 미사일 위기 시 해상차단 작전 현황
4. 분석 및 평가
5. 결 론

1. 머리말

2017년 9월 3일 북한이 6차 핵실험을 실시하자, 유엔 안보리는

* 단국대 해병대군사학과 부교수

** 평택대 피어슨 칼리지 부교수

결의안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함으로써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조치를 단행하였다. 하지만, 최종 협의단계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원유수출중단 등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조치들이 빠지게 되자,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면서도 군사적 대응을 언급하기 시작하였다. 그 방안 중의 하나로 북한에 대한 해양봉쇄가 고려되었으나, 지금까지 실행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중국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가진 중국과 러시아로 통하는 내륙 교통로를 고려할 때, 미국 주도 해양봉쇄의 실효성이 극히 제한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대북 해양봉쇄의 실현 가능성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고, 어떻게 작전을 계획하고 실행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줄 수 있는 사례가 핵을 가진 미·소 양 강대국이 힘의 대결을 벌인 쿠바 미사일 위기 시의 미국의 해상차단작전이다. 우리는 쿠바 미사일 위기 시 해상차단 작전이 어떻게 실시되었는지, 또 무엇이 그러한 성공을 가져온 요인인가 하는 것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군사 측면보다는 정치 및 의사결정 과정에 초점을 둔 하버드 대학의 앨리슨 교수와 버지니아 대학의 켈리코 교수가 저술한 「결정의 엷센스 (Essence of Decision)」를 통해 우리는 당시 상황을 개괄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정도이다.¹⁾ 이들이 저술한 책은 김태현 박사에 의해 번역되어, 당시 케네디 대통령의 고뇌와 해양봉쇄를 대안으로 선택한 이유, 흐루쇼프가 단순히 터키에 있는 미국의 핵미사일 기지 폐쇄 조치와 교환하여 물러난 것이 아니라, 핵전쟁에 대한 공포, 미국이 추가적인 대안으로 고려하였던 공습과 쿠바에 대한 직접 침공 등의 위협 때문에 소련 화물선이 본국으로 회항

1) Graham Allison · Philip Zelikow, *Essen of Decision: Explaining the Cuban Missile Crisis* (New York: An Imprint of Addison Wesley Longman, 1999).

하였으며, 기 배치된 미사일 및 핵탄두도 철수하도록 하였다는 사실 등을 알려주고 있다.

소련의 쿠바 미사일 설치에 대한 대응으로 케네디 대통령은 참모들이 제시한 묵인, 외교적 압력, 카스트로에게 비밀접근, 전면공격, 공습, 봉쇄 등 6개 대안 중 해양봉쇄를 선택하였다. 저자는 그 이유를 ① 공습에 비해 상대적 위험 최소, ② 결정권을 흐루쇼프에게 넘기는 효과, ③ 군사 대결 시 장소선택의 우월성, ④ 핵 대결 등 확전으로 이르는 과정에서 매 단계마다 우세 달성 가능 등으로 분석하고 있다.²⁾ 하지만, 세부 작전개황과 전개 전력들의 활동을 제시하지 않아 참가 전력들의 어떠한 활동들이 흐루쇼프의 결심에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해상차단을 위해 전개한 미국의 전력은 단순히 소련의 화물선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소련에게 핵전쟁공포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대규모 재래식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수단이었기 때문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³⁾

군사 측면에서 연구된 미국 측의 자료는 1975-79년까지 미 해병대 법무관으로 근무한 예비역 영(John Mark Young) 소령이 한국에도 널리 알려진 미 해병대 대령 출신 역사학자인 밀레

2) 김태현 (역), 『결정의 옛센스』 (서울: 모음북스, 2004), pp.158 ~ 169.

3) 이에 대한 근거는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 미정보기관이 제출한 보고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련은 미국의 핵전력과 카리브해에 배치된 대규모 재래식 전력에 대응하여 전쟁을 택하기보다는 베를린과 같은 쿠바 이외 지역에서 보복을 가해울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Director of Central Intelligence, "Report to the President's Foreign Intelligence Advisory Board on Intelligence Community Activities Relating to the Cuban Arms Build-up (14 April through 14 October 1962)," 50X1,E,O.13526 (declassified from Top Secret), pp.81 ~ 85, <https://www.archives.gov/files/declassification/iscap/pdf/2011-063-doc4.pdf> (검색일: 2018. 8. 13).

(Allan R. Millett) 교수⁴⁾로부터 아이디어와 자료들을 제공받아 작성한 오클라호마 주 털사 대학(the University of Tulsa)의 석사학위 논문이다.⁵⁾ 그는 쿠바 미사일 위기 시 미 해군과 해병대의 활동을 소련과의 해양봉쇄 활동측면보다 미국과 쿠바와의 역사적 관계, 위기 시 양국 간의 전투력 비율 등에 초점을 맞추어 조명하고 있다.⁶⁾ 또 다른 한편으로는 병기부사관 존스(Mel Jones)가 실제 작전에 참가한 I, II-MEF의 상황뿐만 아니라 29Palms를 포함한 미 해병대 전 부대들의 출전대기태세 동향을 전하고 있는 것처럼⁷⁾ 당시 미군의 성공적인 대비태세를 강조하고 있는 글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상기와 같은 정치 및 군사 측면에서의 연구결과들은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가 성공적으로 관리되었던 이유를 미·소간 치킨게임의 결과로 치부하기 보다는 케네디 대통령의 정치적 역량이 제대로 발휘되도록 뒷받침한 해상차단작전 등 제반군사작전의 효과 때문이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게다가 쿠바 미사일 위기 관련 비밀 해제 자료들과 당시 각종 기록 및 면담자료들이, 소련 잠수함 활동, 해상차단작전 수행과정과 그 효과들을 알려주고 있어, 해군 성분작전 측면에서도 종합적인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다.⁸⁾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분석에 바탕을 두고 쿠바 미

4) 밀레 교수는 자신의 저서 'Semper Fidelis: The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Marine Corps'에 당시 부대들의 활동과 임무를 기술하고 있다.

5) John M. Young, "When the Russians Blinked: The U.S. Maritime Response to the Cuban Missile Crisis," *Thesis for Master of Arts in the Discipline of History, the Graduate School of the University of Tulsa* (1989).

6) John M. Young, "When the Russians Blinked: The U.S. Maritime Response to the Cuban Missile Crisis," *Occasional Paper 1990, History and Museums Division Headquarters, U.S. Marine Corps.*

7) Mel Jones, "Crisis Report," *Leatherneck* (April 1963), pp.18 ~ 27.

8) 지금까지는 미국에서 불과 120km 떨어진 쿠바에 소련이 사정거리 1,700 ~ 3,500km인 핵탄두 중거리 탄도미사일 기지를 건설 중인 것이 1962년 10

사일 위기 시 미국 해상차단작전의 결정적 성공요인을 도출해 보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선정하였다.

하지만 쿠바 미사일 위기는 20세기 초에 정의된 해양봉쇄(Blockade)보다는 쿠바 외곽 500마일 해상에서 소련 함선의 쿠바 진입을 차단, 소련으로 하여금 스스로 물러나도록 하여, 위기를 관리한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사용된 해상차단작전은 단순히 전구작전의 승리나 적에게 경제적 압박을 가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소련 최고정치지도자인 흐루쇼프에게 직접 심리적 압박을 주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작전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접근방법은 응용연구 형태 중의 하나인 평가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사료들을 분석, 해석 평가하는 질적 연구방법과 미국 및 소련 정부 발행 문서(비문 해제 자료 포함), 당시 참가자들의 회고록, 관련 논문 및 보도 자료들에 기초를 둔 문헌연구기법을 활용한다.

2. 이론적 검토

역사적으로 보면, 병력이나 군비 혹은 일반적인 상품을 적재한 함정들의 해상이동을 방지하고자 하는 각 국가들의 능력은 군사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비약적으로 증강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능력의 중요성을 한반도에서는 임진왜란 당시 조선수

월 16일 정찰기에 의해 발견되어 위기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케네디 행정부는 7월 초에 이미 통신감청을 통해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소련의 행위를 증지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한다. Robert M. Beer, "The U.S. Navy and the Cuban Missile Crisis," *A Trident Scholar Project Report*, (US Naval Academy, May 22 1990), p.1.

군이 일본의 수로를 통한 한양으로의 왜군과 물자 이동 차단한 사례, 세계적으로는 제1, 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의 전쟁지속 능력을 약화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한 독일 유보트들의 활약 등의 전사를 통해 익히 알고 있다. 특히 기원전 5세기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상대방에게 해양지배권을 넘겨준다면, 그리스 반도에서 패권국의 지위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아테네의 두려움에서 비롯되었듯이, 각 국가들은 해양을 사이에 둔 적대 세력 간 전쟁 시 우수한 해양통제 능력을 갖춘 측이 승리할 가능성이 절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영국의 해양 전략가 콜벳(Julian S. Corbett)은 해전으로만 전쟁의 승패가 결정될 수 없으므로, 해군력이 지상전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해양통제보다는 해상통항권 즉 교통로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역으로 그가 강조한 해상교통로 차단 혹은 봉쇄의 의미는 상대방의 통항권을 제어함으로써, 지상에서의 적 전투능력을 약화시키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19세기 후반, 그리고 20세기 초, 해양봉쇄를 위한 법과 전략들이 발전됨에 따라, 각국 함정들은 기뢰, 어뢰, 장거리 포, 심지어는 항공기까지 적 재하는 등, 적의 해상수송능력을 저하시키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양봉쇄에 대한 정의는 1856년 4월 16일 프랑스, 영국, 오스트리아, 프러시아, 러시아, 사르디니아, 터키가 합의하여 발표한 파리선언문에 처음 등장하고 있다. 이 선언에서 “해양봉쇄는 적 해안으로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군사력을 유지하는 것이 효과적이다.”⁹⁾라고 명시, 개념적

9) Wolff Heintschel von Heinegg, "Naval Blockade," *International law Across the Spectrum of Conflict* (the US Naval College, 2000), p.207.

으로 정의하였다. 이후 이는 1909년 런던회의에서 모든 국가의 함정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전함을 대상으로 하되 전쟁과 무관한 상선들의 진출입 허용, 봉쇄 유효시간 및 지역 설정, 중립국 상선 이탈기간, 봉쇄 책임기관 및 조직 등을 명시토록 하는 등 총 21개의 세부 조항으로 정의되어¹⁰⁾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파리선언문에 이어 런던 선언에서도 ‘차단(Quarantine)’의 개념은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다. 1963년 미 해군 법무관실 국제법 분과에 근무한 로버트슨(John W. Robertson) 해군중령은 해양봉쇄의 초기 개념이 전시 군사작전에서 연안지역을 포함한 지역의 일부분을 포위 공격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보고, 목표측면에서 구분하여, 포위는 지역 확보, 봉쇄는 상선 등 물자를 운반하는 선박들을 차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¹¹⁾ 해양법 측면에서 보면, 차단의 개념과 유사한 것은 프랑스 국제해양법 학자인 오프페이어(Laurent-Basile Hautefeuille)가 정의한 ‘평화적 봉쇄(Pacific Blockade)’로 강대국이 전쟁보다는 약소국에게 압력을 가하려는 목적에서 행사되는 봉쇄라고 정의하고 있다.¹²⁾

10) Wolff Heintschel von Heinegg (2000), p.208 ~ 209.

11) John W. Robertson(US Navy), "Blockade to Quarantine in International Law," *Jag Journal* (June 1963), p.87.

12) 현 시대 영어사전에서는 국제법을 준용하여, ‘Pacific Blockade’를 ‘평시 봉쇄’로 번역하고 있으나, 오프페이어는 ‘unaccompanied by hostilities (적대감이 없는)’ 봉쇄로, 1856년 파리 선언문에서는 “효과적으로 제한하기 위하여 적 해안으로 진입을 방지하기에 충분한 전력에 의해 유지되는 봉쇄”로 정의하고 있다. Hugh는 이를 다시 강대국에 의해 약소국을 봉쇄하는 것으로 효과는 충분히 달성되지만 피봉쇄국은 강대국에 대응자체를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부연설명하며, 하나의 예로 1827년 당시 유럽의 강대국들인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터키에 대해 실시한 해양봉쇄를 들고 있다. 터키는 삼국의 조치에 군사적 대응이 어려워 해안이 봉쇄된 반면에, 타 중립국 선박들은 자유롭게 봉쇄지역을 항해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평시 봉쇄’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 ‘비적대적 봉쇄’란 용어를 심각하게 고려하였다. 하지만, 영단어 ‘Pacific’의 한글의

윌슨(George Grafton. Wilson)과 터커(George Fox. Tucker)는 자신들이 저술한 「국제법(International Law)」 저서에서 ‘평화적 봉쇄’를 타국에 대한 전쟁 선포 없이 일국 혹은 그 이상의 국가에 의해 시행되는 보복이나 강압의 한 형태로 정의하고 있다.¹³⁾

로버트슨은 이 평화적 봉쇄와 차단을 동일한 개념으로 보고, 전시 봉쇄와는 다르게 대상으로 명시된 국가들의 선박이 봉쇄된 연안의 특정지역으로 출입항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평시 해군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¹⁴⁾ 또한 그가 쿠바 미사일 위기 후, 미국이 시행한 ‘해상차단(Maritime Quarantine)’을 평화적 봉쇄와 비교하여 설명한 것을 보면, 현 시대에 이르러 일부 학자들이 ‘해상차단’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위기 이전의 사건들을 재조명하고 있긴 하지만,¹⁵⁾ 1962년 이전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쿠바 미사일 위기 시 처음 적용된 ‘해상차단’의 개념은 기존 해양봉쇄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케네디 대통령의 확전을 피하려는 의지와 제한된 작전수행 목적 때문에 사용한 것이다.¹⁶⁾

미와 당시 저자가 적대적 봉쇄보다 상대적으로 평화로운 상태에서 해안을 봉쇄한다는 의미를 부여하였다고 판단하여 ‘평화적 봉쇄’로 번역하였음. Hugh Chisholm (ed.), "Pacific Blockade," *Encyclopedia Britannica* 20 (1911), pp.433 ~ 434, <https://archive.org/details/encyclopdiaabri20chis> (검색일: 2018. 8. 13).

13) George Grafton. Wilson & George Fox. Tucker, *International Law* (New York, NY: Silver Burdant and Company, 1910), p.228.

14) John W. Robertson(1963), p.90.

15) 예를 들어, John Booker, *Maritime Quarantine: The British Experience C. 1650-1900* (New York, NY: Routedge, 2007); John McVickar Haight, "Franklin D. Roosevelt and a Naval Quarantine of Japan," *John Pacific Historical Review* (Jan 1, 1971) 등 다수의 저서 및 논문이 검색되고 있음.

16) Herald-Sun, "1962: A naval quarantine of Cuba ordered by President John F. Kennedy," *News Article* (October 24, 2013), ProQuest document ID: 1444900803.

쿠바 미사일 위기 시 선언된 해상차단선은 케네디 대통령이 미 의회의 승인 없이 선언한 것이다. 따라서 당시 국제법상 관례 차원에서 보면, 유엔이나 소련(쿠바)측은 유엔 헌장 제51조에서 규정한 자위권(Self-defense)차원에서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다.¹⁷⁾ 게다가 해상차단선이 선포된 이후, 미 의회는 전쟁을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까지 논의되지 않았던 위기 시 해양봉쇄라는 새로운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사용자들이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 나가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퀴라(Quora)에 “쿠바에 대한 미국의 봉쇄는 차단(quarantine)이라고 하는데,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봉쇄와 어떻게 다른가?”하는 질문이 제기되었다. 답변으로 채택된 비어든(B. R. Bearden)의 설명은 “국제법 차원에서 보면, 차단은 전쟁 행위가 아니며, 케네디 대통령은 흐루쇼프를 물러날 수 없는 지점까지 압박하여 전쟁이란 정면충돌 상황에 처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봉쇄는 쿠바의 기근을 해결하는 물자들까지 반입을 금지하는 것으로 이는 소련뿐만 아니라 타 국가들의 지원을 받기 어려워 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많았다. 반면 차단은 공격용 무기만 제한함으로써, 소련을 제외한 타 국가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¹⁸⁾는 것이다. 비어든의 설명은 전시 군사작전 목적의 해양봉쇄와 쿠바 미사일 위기 시 미국이 사용한 차단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위의 이론적 검토에서 살펴본 로버트슨의 설명과도 일맥상통하고 있다.

17) Katzenbach & Meeker, “Legal and Practical Consequences of a Blockade of Cuba,” the daybooks of the Office of Legal Counsel, <https://fas.org/irp/agency/doj/olc/cuba.pdf> (검색일: 2018. 6. 10).

18) B. R. Bearden, “Why was the Cuban Blockade, by the US, called a quarantine,” <https://www.quora.com/Why-was-the-Cuban-Blockade-by-the-US-called-a-quarantine-and-how-does-the-Cuban-Blockade-differ-from-the-Israeli-Blockade-of-Gaza> (검색일: 2018. 6. 9).

미 해군교범은 런던선언에 기초를 두고, 봉쇄를 “중립국뿐만 아니라 적국, 모든 국가들의 함정이나 항공기가 적국의 통제 혹은 점령 혹은 귀속되어 있는 항구, 공항, 혹은 해안지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대행위”¹⁹⁾로 규정하고 있다. 봉쇄 실시 목적으로는 “적 영토로부터 혹은 영토로 병력이나 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적 및 중립국 함정·항공기들의 이용을 거부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²⁰⁾ 이러한 봉쇄는 아래 평가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첫째, 설치(Establishment), 봉쇄는 반드시 적대국가 정부에 의해 설치되어야 하며, 이는 적대 국가나 권한을 위임받은 봉쇄부대 지휘관에 의해 공개적으로 선언되어야 한다. 선언문에는 봉쇄시작일자, 지리적 포함지역, 중립국 함정이나 항공기들이 봉쇄되는 지역을 이탈해야하는 시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둘째, 고지(Notification), 봉쇄의 영향을 받는 모든 국가들에게 알려주고, 동시에 봉쇄된 지역의 봉쇄 통제기구에도 고지하여야 한다.

셋째, 효과성(Effectiveness), 봉쇄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봉쇄된 지역의 진출입을 통제하기에 충분한 수상, 항공, 수중세력 혹은 다른 법적 수단과 전투수단들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효과 발휘를 위해 모든 가능한 접근로에 대한 통제가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넷째, 공정성(Impartiality), 봉쇄는 모든 국가들의 함정과 항공기들을 대상으로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다섯째, 제한성(Limitations), 봉쇄는 중립국 항구와 해안에 대한 진입이나 진출이 차단되어서는 안 된다. 중립국들은 봉쇄된 지역을 목적지로 하지 않고, 해당국가와의 무역 또는 교역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²¹⁾

19) The US Department of Navy, *NWP 1-14M: The Commander's Handbook on the Law of Naval Operations* (July 2007), p.7-9.

20) The US Department of Navy (2007), p.7-9.

21) The US Department of Navy (2007), p.7-9 ~ 7-10.

이러한 판단기준은 19세기 전형적인 해양력 운용의 한 형태로, 효과적인 해양통제능력을 지닌 실행 국가의 권리와 실행국가로부터 최소한의 간섭을 받으면서 교통로를 항해할 수 있는 중립 국가들의 권리 간에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다.²²⁾ 이 해양봉쇄는 1939년 영국, 1949년 대만에 대한 중국, 1950년 한국 전쟁 시 북한에 대한 유엔군, 제3, 4차 중동전쟁 시 이집트에 대한 이스라엘, 1971년 방글라데시에 대한 인도, 1980년 걸프전 시 이라크에 대한 이란의 조치 등의 사례들에서 보듯이 고전적 개념, 즉 적 항구나 연안에 대한 병력 및 물자 유입 차단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과리 및 런던선언에서 채택된 것들은 전시 해양봉쇄와 관련된 사항이고, 해상차단은 쿠바 미사일 위기 이전에는 전혀 사용되지 않았으나 오프피이어가 주장한 평화적 봉쇄와 목적과 방법, 사용 시기 측면에서 맥을 같이하고 있어, 로버트슨이 1963년에 평시 해양봉쇄의 한 형태로 정의하였다고 보여진다. 현 시대들어 평시 해상봉쇄는 싸우지 않고 이기기 위한 강압의 한 수단으로 주로 경제적 압박을 가할 때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는 다시 최근 미국이 대북제재를 위한 강압적 수단으로 고려하였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즉 핵무기와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무기와 제조용 물질을 실은 선박 등을 물리적으로 차단하자는 국가 간 약속의 형태로 발전되고 있다. 이처럼 평시 해양봉쇄는 전쟁보다 억제와 강압전략이 유효하다는 핵시대에도 그 가치를 잃지 않고 있다.

22) The US Department of Navy (2007), p.7-11.

3. 쿠바 미사일 위기 시 해상차단 작전 현황

가. 당시 세계 안보정세

제2차 세계대전 종료와 더불어 형성된 미·소 중심의 진영 간 대결구도는 1949년 소련이 핵개발에 성공하면서 더욱 심화되었다. 이러한 와중에 발생한 제1차 베를린 위기(1948-49), 한국의 6.25전쟁(1950-53), 제2차 베를린 위기(1961) 등은 소련의 평창정책에 맞선 서방측의 보이지 않는 승리로 귀결되었다. 소련 공산당 서기장 흐루쇼프는 스탈린식 공포정치를 버리고, 서방측과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면서도 자국의 과학자들이 1957년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하고, 우주궤도로 스푸트닉(the Sputnik) 진입을 성공시키자, 미사일 기술에서 만큼은 미국에 앞선다고 확신하였다. 이에 그는 2년 뒤인 1959년 전략 로켓군(Strategic Rocket Forces)을 창설하는 등 군사적 역량강화를 통해 소련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려고 시도하였다.

흐루쇼프는 1954년 중국을 시작으로, 1955년 유고슬라비아, 인도, 버마, 아프간 등을, 1956년에는 영국을, 1959년에는 미국을 방문하였다. 그는 미국 방문 시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하였을 뿐만 아니라 뉴욕을 방문, 유엔에서 연설도 하였다. 이러한 흐루쇼프의 행위는 소련과 서방측의 화해와 협력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핵과 관련 운반수단 발전을 기초로 세계 초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굳건히 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는 구시대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세상이 도래할 것이라는 믿음 하에 아시아, 아프리카 등 미국의 이해관계가 상대적으로 약한 지역에 관심이 많았다고 한다.²³⁾ 군사적 성공으

23) P.M.H Bell, *The World Since 1945* (London: Oxford University

로 인한 그의 자신감은 급기야 1958년 11월 10일 서방측에 베를린 반환을 요구하고, 11월 27일에는 주둔 중인 미국, 영국, 프랑스 군을 6개월 이내 철수하라고 강요하였다. 이에 미국과 영국은 소련과 상호 합의하에 자유도시로 만들 의향을 가지고 있었으나, 프랑스 드골 대통령은 독일 아데나워 수상과 연합하여 소련의 의도에 강력하게 대응하기를 원했다. 이에 관련국들의 외무장관 회담이 개최되었으나, 아무런 성과 없이 6개월 이상 지속되었다. 이 와중에 흐루쇼프의 미국 방문과 아이젠하워의 소련 답방으로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는 듯하였으나, 소련 상공을 정찰하던 미국의 U-2기가 5월 1일 피격당하면서 정세는 다시 급속도로 냉각되었다.

이 와중에 국제경험이 전무한 43세의 젊은 케네디가 닉슨을 이기고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흐루쇼프는 1961년 1월 6일 핵이나 재래식 전력을 이용한 전쟁수행이 아닌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이데올로기적 해방을 통해 공산주의가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를 공표하였다. 미 대통령 케네디는 취임연설에서 소련의 이러한 행위를 미국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자유세계가 최대 위기의 시기(hour of maximum danger)에 직면했다고 선포하며 자유진영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싸울 것”²⁴⁾을 천명하였다. 이 측면에서 보면, 쿠바 위기는 양국 간 첨예한 감정대립 속에 소련의 공산주의 팽창 야망에 대응하는 미국이 핵과 재래식 군사력으로 직접 대결한 사건이다.

Press, 2001), pp.131.

24) Thomas C. Reeves, *A Question of Character: A Life of John F. Kennedy* (New York: Prima Publishing, 1991), p.253, quoted in P.M.H Bell (2001), pp.136 ~ 137.

나. 해상차단 작전 개황

미 국방성이 쿠바 미사일 위기가 해소된 이후인 1963년 미 의회에 보고한 연례보고서에 의거, 당시 해상차단 작전 개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쿠바 미사일 위기의 촉발 원인

미국은 8월 29일 촬영된 정찰사진을 통해 쿠바 기지에 설치된 대공미사일을 식별하였으며, 연이어 9월 28일에는 쿠바로 향하는 소련선박에 밀봉된 나무상자들이 적재되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를 추적한 결과 그 상자 안에 있는 물건들이 IL-28 중거리 폭격기라는 것을 10월 9일에 확인하였다. 이에 추가하여, 미국은 소련이 쿠바에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고고도미사일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을 10월 14일과 15일에 걸쳐 식별하였다.²⁵⁾

2) 미 백악관의 대응

상기와 같은 소련의 행위는 서방의 평화와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명백한 공격적 조치였으므로, 10월 15일 케네디 대통령은 참모 및 군사전문가들과 토의를 시작하여 10월 22일 최종적으로 쿠바로 향하는 소련 선박에 대한 차단작전을 결정하였다. 그는 먼저 “우리의 확고한 목표는 미국이나 타 국가에 대하여 (소련의) 미사일들이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서반구로부터 그들을 철수 혹은 제거가 명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²⁶⁾는 명확한

25) The US Department of Defense, *Annual Report for Fiscal Year 1963*, http://102msos.8m.net/naval_quarantine_of_cuba.html (검색일: 2017. 3. 15).

26) W. T. Mallison, "Limited Naval Blockade or Quarantine Interdiction: National and Collective Defense Claims Valid Under International

작전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해 그는 대통령 명령 3504호를 통해 10월 24일부터 차단작전 유효를 선언하고 국무성 및 국방성 장관에게 적절한 수단을 강구하도록 지시하였다. 이 선언문에 나타난 주요 조치는 아래와 같이 요약된다.

- 첫째, 공세적 군사력 축적을 중지시키기 위해 쿠바로 향하는 모든 국적의 선박에 적재된 공격용 군사장비 및 물자에 대한 엄격한 차단 작전 시행.
- 둘째, 1962년 10월 6일 아메리카 대륙 내 미주기구(the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OAS) 외교장관 회의에서 결정한 비밀 행동 중지결의의 의거, 추가적인 군사행동 준비(근접 정찰 및 감시강화 조치).
- 셋째, 서방측 어느 국가든지 일국에 대한 쿠바로부터의 미사일 공격은 미국에 대한 소련의 공격으로 간주, 소련에 대한 대량보복조치 시행 천명.
- 넷째, 쿠바 관타나모에 거주하는 비전투원 후송 작전 및 추가적인 병력 증원 조치.
- 다섯째, 아메리카 대륙 내 상호원조조약(Inter-American Treaty of Reciprocal Assistance, the Rio Treaty)을 체결한 친미국기들에게 조약의 6항과 8항(어느 한 국가에 대한 침공에 대해서도 회원국 전체가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발효 촉구 및 전 세계 서방진영 국가들에게 소련 조치의 위험 경고.
- 여섯째, 유엔 안보리 소집, 유엔 감시자들의 감독 하에 쿠바에 설치된 모든 공격 무기의 즉각적인 해체 및 철수 요구.
- 일곱 번째, 흐루쇼프에게 세계 평화와 양국 간의 안정적 관계를 해치는 이 무모한 도발적인 행위 중지와 세계 지배에 대한 야욕 철회, 그리고 쿠바 등 소련 외부에 설치된/설치 진행 중인 미사일들의 철수 촉구.²⁷⁾

이러한 조치들에 추가하여, 백악관은 선언문의 말미에 양국 간 평화를 증진시킬 수 있는 핵무기 확산 제한, 군비 및 해외군사기지 축소 등 양국 간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조치들

Law," *The George Washington Law Review*, 31 (1962), p.338.

27) "President John F. Kennedy's Speech Announcing the Quarantine Against Cuba, October 22, 1962,"

<https://www.mtholyoke.edu/acad/intrel/kencuba.htm> (검색일: 2018. 6. 10).

을 취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협상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케네디 대통령의 명령이 시달되자, 당시 미 국무성 장관 러스크(Dean Rusk)는 즉각 쿠바로의 반입 금지된 공격용 무기의 범주를 지대지 미사일, 폭격기, 폭탄, 공대지 로켓 및 정밀유도미사일, 미사일이나 폭격기에 탑재 가능한 탄두, 이들을 지원하거나 운용하는데 소요되는 기계 혹은 전자장비 등의 품목을 발표하였다. 이에 추가하여 국방성 장관이 선언의 효과 증진을 위한 추가적인 물자 지정 및 세부 차단작전 시행지침을 발표하였다.²⁸⁾

3) 미 국방성의 조치

미 국방성은 해상차단 선언이 발표되기 일주일 전부터 자체적으로 비밀리에 카리브 해와 대서양일대에서 정기적인 상륙훈련과 해군연습, 그리고 연 초부터 시작된 미국 남동부 지역에 대한 대공방어망 증강 등을 통해 증가된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미국의 차단조치에 대한 소련의 대응을 예측하기 어려워 미 국방성은 모든 가능한 우발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 군에 경계태세를 발령하였다.

28) Dean Rusk (Secretary of State), "A Proclamation," <https://www.mtholyoke.edu/acad/intrel/kencuba.htm>(검색일: 2018. 6. 10).

〈표 1〉 미 국방성 예하 부대의 위기대응 현황

부 대 명	조 치 내 용	비 고
전략공군사령부 (SA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 20: 전략폭격기 15분 이내 비상출격대기 • 10. 22: B-52 중(heavy) 폭격기 24시간 비행대기 • ICBM 관련 요원 비상대기 • POLARIS 핵잠수함 등 핵전력 전개 	무장 장착 즉각 무장 가능
방공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부 방공사령부 예하로 작전통제 전환 • 전투기 요격기 작전 전개 • HAWK/NIKE-HERCULES 미사일 부대 남부 전환 	5-15분 정찰임무
합동군 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서양사령관(Commander-in-chief, Atlantic) 예하에 육·해·공군 합동부대 작전통제 권한 부여 • 육군 제18공정군단을 합동 타격군으로 지정 	군별 지휘체계 육군전략군단포함 유사시 대비
기지사령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 10만 명으로 구성되어, 군수지원 임무 담당 	
동원부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 22: 육군 주방위군 및 예비 사단 동원령 선포 • 10. 27: 24항모전단 및 지원부대 동원령 선포(14,000명) 	미 U-2기 피격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작전 미 투입 지상군 및 공군 전원 작전 배비 	
정찰/감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 22: 쿠바 상공에 대한 저고도정찰 비행 시작 	

출처: The US Department of Defense, *Annual Report for Fiscal Year 1963*,
http://102msos.8m.net/naval_quarantine_of_cuba.html (검색일: 2017. 3. 15).

10월 22일 월요일 저녁 미 대통령 케네디가 명령을 하달하자 함정, 항공기, 그리고 지상군들의 대규모 이동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다. 미 해군과 해병대의 작전

1) 미 해군 차단작전 개황

대통령이 소련의 공세적 군사력 축적을 중지시키기 위해 쿠바로 향하는 모든 국적의 선박에 적재된 공세적 군사장비에 대한 엄격한 차단 작전 시행을 지시하고, 국방성이 대서양함대사령관에게 차단작전에 참가하는 합동군에 대한 통제권한을 부여하자, 미 대서양함대사령관은 즉각 제2함대사령관을 CTF-136 지휘관으로 임명함과 동시에 전체 차단작전부대 작전지휘 임무를 부여하였다. 제2함대 사령관은 초강대국인 소련을 대상으로 하는 차단 작전의 성공을 위해 최단 시간 내에 할당된 부대들이 시행해야 할 조치들을 <표 2>와 같이 부여하였다.

<표 2> 미 해군과 해병대 임무 및 전력 배치

부 대 명	조 치 내 용	비 고
TF-136	• 해상차단임무수행을 위해 전개	
TF-135	• 상륙훈련 미 참가 해병으로 편성 관타나모 방어 지원 • 10. 22: 관타나모 군인 가족 철수	함정/항공기 탑승대기
CV Enterprise	• 유사 시 관타나모 방어 지원 임무 (대공 방어 포함)	TF-135 예하 편성
CV Independence	• 긴급 출동대기 및 관타나모 기지 대공방어 임무(6항모전단 지원함 포함)	
대잠수함전 부대	• 차단작전 임무 수행을 위해 전개	
공중감시부대	• 2,000여 대의 상업용 선박 감시 임무 수행	

출처: The US Department of Defense, *Annual Report for Fiscal Year 1963*, http://102msos.8m.net/naval_quarantine_of_cuba.html (검색일: 2017. 3. 15).

차단 작전간 발생한 주요 사건 및 진행경과는 <표 3>과 같다. 미 해군 차단작전 부대인 TF-136은 작전기간 4주 동안 쿠바로

향하는 55척의 함선을 검색하였으나, 금지된 물품을 탑재하지 않아 통과 조치하였다. 미국의 대 소련 선박 차단작전을 수행한 TF-136에는 제2함대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인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도미니카 공화국의 해군들까지 편성되었으며, 이들 국가들은 소련의 행위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사 표시에 동참하였다.

〈표 3〉 해상차단 작전 간 주요 사건 및 진행경과

일 자	사건 및 진행경과	비 고
10.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조선 Bucharest: 금지된 물품 미 적재로 통과 조치 쿠바 향 소련 국적 선박: 항로 변경 본국으로 귀항 	미사일 탑재의심
10.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물선 Marucla 레바논 국적이지만 소련 소유, 검색/통과 조치 	
10.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찰 중이던 미 U-2기 1대 피격 	위기 고조
10.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련은 유엔의 검증 하에 쿠바에 배치된 공격용 무기 철수 선언 	차단 지속
10. 30-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엔 사무총장과 쿠바 정부 양자 간 무기 철수 검증 협정 실패 	
11.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쿠바 기지 내 배치된 공격용 무기 해체 확인 	
11. 3 -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사일 42기, 장비 항구로 이동 및 8척의 소련함정에 탑재 확인 	
11. 5 -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8척의 소련 함정들이 차단선 통과하여 소련으로 귀항 	
11.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IL-28 중거리 폭격기 42대 해체 선언/소련함정 3척 차단선 통과 	통과(12. 5 - 6)
11.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6:45 P.M. 차단선 해제 선언 	

출처: The US Department of Defense, *Annual Report for Fiscal Year 1963*,
http://102msos.8m.net/naval_quarantine_of_cuba.html (검색일: 2017. 3. 15).

2) 미 해군의 차단작전

제2함대 사령관은 대서양함대 대잠전사령관에게 CTF-81과 83을 지휘하여, 공중 및 수중 감시 임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하였다. 작전 준비 초기단계에서는 해양봉쇄(blockade)작전으로 명명하였으나, 대통령 선언과 국방성 작전지침이 하달된 이후에는 차단(Quarantine)작전으로 변경되었다.²⁹⁾ 이 이유는 앞에서 언급

29) Talking Proud Archive-military, "Soviet Transport ships on the move and the US Naval Blockade," *Soviet Foxtrot Submarines: The Cuban Missile Crisis*, <http://www.talkingproud.us/Military/SovietFoxtrots/SovShipHiSea>

한 것처럼, 케네디 대통령이 소련과의 전쟁을 원치 않아, 런던선언에 의거 상대방과의 전쟁행위를 의미하는 봉쇄 대신에 차단이라는 용어로 변경토록 지시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기존 봉쇄와 상당히 유사하면서도 그 시행 측면에서는 핵시대에 부합되는 독특한 형태라고 보아야 한다. 이의 목적은 쿠바 함대들의 항구 진출입을 견제하거나, 소련해군의 쿠바 진입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것도 아닌, 핵무기의 쿠바 내 진입을 차단하고 기 배치된 것들을 완전히 철수시키는 것이었다.³⁰⁾ 이러한 목적측면에서 차단은 기존 런던선언에서 명시된 전시 해양봉쇄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표 4〉 해상차단작전 참가세력 현황

구 분	명 칭	비 고
CTF-136	COMSECONDFLT(제2함대)	11.13일부 COMCRUSDESFLOT에 인계
CTG-136.1	COMCRUSDESFLOT (순양/구축함 전단)	Cruiser(2), DDG(1), DD(9), DDR(2), DDG(1)/EDD(1) 추가 할당
CTG-136.2	제18 카리브해 분함대	CVs(1), DD(4)
CTG-136.3	USS Elokomin(AO-55) 유조함	AO(2), AE(1), DD(2)

출처: John M. Young, "When the Russians Blinked: The U.S. Maritime Response to the Cuban Missile Crisis," *Occasional Paper* (Washington, D.C.: History and Museums Division of Headquarters of the USMC, 1990), p. 79.

초기 미 해군은 암호명 “Walnut(호두)” 아래 <그림 1>에서 보는 것처럼 쿠바로부터 800마일 외곽에 호두 모양의 원형 차단선을 점령하였다. CTG-136.1은 쿠바 남동쪽 위도 27-30°N, 경도 70°W에서 위도 20°N, 경도 65°W (그림 속 Bahamas로 표

s.html (검색일: 2018. 6. 10).

30) John M. Young, "When the Russians Blinked: The U.S. Maritime Response to the Cuban Missile Crisis," *Occasional Paper* (Washington, D.C.: History and Museums Division of Headquarters of the USMC, 1990), pp.75 ~ 79.

기된 위치를 기준으로 상하)에 구축함을 중심으로 총 12개의 해상기지를 구축하였으며, 각 기지 간의 간격은 47마일이었다. CTG-136.2는 <그림 1>에서 보는 원의 서쪽 지역을 점령하였으며, CTG-136.3은 기지 내 함정들에 대한 군수지원 임무를 담당하도록 배치되었다. 이 원형의 차단선은 쿠바 공군의 작전반경을 고려하여 최초에는 800마일 지점으로 설정하였으나, 10월 23일 밤 주미 영국대사 고어(David Ormsby-Gore)가 새벽에 소련선박을 검색하는 것보다 주간에 검색을 실시함으로써 소련에게 조금 더 심사숙고할 시간을 주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케네디는 암호명을 “Chestnut(밤나무)”로 변경하고, 차단선을 쿠바 외곽 500마일 지점을 잇는 원으로 최종결정하였다. 이 원은 소련 공군기 IL-28기들의 작전반경이내였지만, 미그-21기들의 작전운용거리는 벗어나 있었다.³¹⁾

<그림 1> 미 해군이 점령한 차단선



출처: Talking Proud Archive-military, "Soviet Foxtrot Submarines: The Cuban Missile Crisis," <http://www.talkingproud.us/Military/SovietFoxtrots/FoxtrotsCuba.html> (검색일: 2018. 6. 10).

31) Graham Allison · Phipip Zelikow (1999), p.233.

미 해군의 차단선 점령과 병행하여, 넓은 바다를 감시하기 위해 46척의 함정, 항공기 240대, 병력 30,000여명이 감시 작전을 수행하였다. 미 공군정찰기인 RB-50 편대는 매일 대서양 중부 아조레스 제도(Azores, 대서양 중부, 포르투갈 령)까지, 미 해군 항공기들은 루즈벨트 로드(Roosevelt Roads), 관타나모 만, 버뮤다(Bermuda), 플로리다 주 잭슨빌, 키웨스트, 노퍽, 파투센트(Patuxent) 강 등 다양한 지점들을 중심으로 약 4백 5십만 평방 마일 해상에 대한 감시임무를 수행하였다.³²⁾ 해군이 차단선을 변경한 후인 10월 24일, 쿠바로부터 500마일 떨어진 미국의 해상차단선으로 소련의 핵미사일을 신고 접근하던 가가린과 코밀레스 화물선들이 선수를 반대방향으로 돌림으로서, 위기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진정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미 해군은 차단선을 즉각 해제하지 않고 쿠바에 설치된 미사일과 소련 전력들이 완전히 철수할 때까지 차단작전을 아래와 같이 3단계로 나누어 지속적으로 시행하였다.

- 1단계: 10. 24 ~ 11. 4 (유엔 사무총장 U Thant의 쿠바방문기간인 10. 30 ~ 11. 1 제외), 쿠바로 향하는 모든 선박에 대한 검색 실시(의심스러운 선박 회항 조치),
 - 2단계: 11. 5 ~ 11, 소련이 유엔 내 미국 대표부에 통보한 쿠바로부터 미사일 철수를 위한 운반 선박 9척 검색, 소련은 단순히 함정 명만 알려주어, 운행항로, 속도, 경로 정보 등을 파악하기 위해 최고도의 감시태세 유지,
 - 3단계: 11. 11 ~ 21, TFG-136 임무 해제, 쿠바로부터 미사일, 장비 등을 철수시키는 소련 선박 6척 검색,³³⁾
- 미 해군은 쿠바에 배치된 소련 미사일과 장비들이 완전히 철

32) John M. Young (1990), pp.80 ~ 81.

33) John M. Young (1990), pp.81 ~ 84.

수하는 것을 확인하고도 추가적인 상황에 대비 차단작전을 지속하다가 11월 26일 차단선을 해제하였다. 하지만 일부 전력은 여전히 비상상황에 대비 현장 부근에 잔류한 것으로 보인다.

3) 미 해군의 대잠작전

최근 양국 관계자들의 인터뷰 자료에 따르면, 15kiloton의 핵탄두를 장착한 어뢰로 무장한 소련의 폭스트롯 급 잠수함 4척이 유사시 미 항모들을 타격하기 위해 해당 해역에서 활동하고 있었다고 한다.³⁴⁾ 또한 이들을 후속하여 SS-N-4 SARK 핵미사일을 탑재한 골프(Golf)급 잠수함 7척은 미국이 쿠바를 침공할 시 미국 중서부를 타격하고, 터키에 배치된 미국의 핵미사일들이 소련을 타격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미국 CIA는 이들 잠수함들이 쿠바로 올 것이라는 것을 10월 22일 경 이미 케네디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이에 백악관은 미 해군에 이들 잠수함들과 직접 교전하기 보다는 소량의 폭약 3~4발 정도를 투하하여, 잠수함들을 부상시켜 회유토록 지시하고, 이 작전수행 방안을 모스크바에 통보하였다.

그러나 모스크바는 이 사실을 잠수함에 통보하지 않았고, 각 잠수함 함장들은 통신 감청을 통해 해상차단 작전실시와 지역 내 투입된 항공 전력을 포함한 미 해군과 해병대 전력을 간파하고, 핵전쟁의 위험성을 인지하였다고 한다.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점은 4척의 폭스트롯 잠수함들이 소련으로부터 쿠바 북서쪽 미 해군의 차단선 외곽인 Sargaso Sea<그림 1 참고> 25마일 반경 정찰임무를 지시받은 이유이다. 소련이 이와

34) Talking Proud Archives, "And so much more about this crisis / for one did not know," *Soviet Foxtrot Submarines: The Cuban Missile Crisis*, <http://www.talkingproud.us/Military/SovietFoxtrots/FoxtrotsCuba.html> (검색일: 2018. 5. 13).

같은 명령을 내린 이유가 미국의 차단작전에 대응하여 자국의 미사일 수송 화물선들을 방어하기 위한 것인지 혹은 미 해군의 차단선을 교란하기 위한 것인지 불분명하다.³⁵⁾ 하지만 결과적으로 미 해군 수상함들과 이들 소련 잠수함들 간 직접적인 교전상황이 발생하기 전인 10월 24일 핵미사일을 신고 접근하던 소련의 가가린과 코밀레스 화물선이 선수를 돌렸다. 이로써 위기는 핵전쟁으로 치닫기 일보직전에 진정되기 시작하였다.

4) 해병대 작전

미 해병대는 케네디 대통령이 차단작전을 명령하기 이전인 10월 15일 푸에르토리코 비에쿠에스 섬(도미니크 공화국, 하이타이 섬 동쪽)에 대한 상륙작전(훈련명 PHIBRIGLEX-62) 수행을 위해 10월 11일 노퍽(Norfolk) 기지로 부터 전개하였다. 이 훈련에는 항모 인디펜던스(Independence) 호가 주축이 되어 50여 척 이상의 함정이 CTG-135로 편성되었으며, 해군 2만여 명과 제1, 2해병사단 병력 5천여 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이들 부대는 유사 시 차단작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20일 훈련을 종료하고 해상 출동대기 태세를 유지하였다. 상륙훈련에 참가하지 않은 잔여 해병부대들은 관타나모 기지에 대한 쿠바의 기습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작전지역으로 전개하였으며, 10월 22일 군 가족 소개 작전을 실시하였다. 인디펜던스 항모는 10월 27일 엔터프라이즈(Enterprise) 항모와 임무를 교대하려고 하였으나, 관타나모 기지에 필요한 지원소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헤이워드(Hayward)

35) 당시 상황을 보면, 흐루쇼프 등 소련지도부는 미국의 차단작전에 대한 명확한 대응책을 수립하지 못해 두 가지 대안을 다 취할 수 있도록 정찰 임무를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John Drent, "Confrontation in the Sargasso Sea: Soviet Submarines During the Cuban Missile Crisis," *The Northern Mariner*, Vol. 13, No. 3 (July 2003), p.8.

제독이 지휘하는 TF-135에 재편성되었다. 결국 항모 두 척은 쿠바와 자메이카 사이 지역으로 이동하여 유사시를 대비하였다.³⁶⁾

이들 상륙훈련 부대와 추가 파병된 캘리포니아 II-MEF 예하 8,000 여명의 해병들은 위기가 해소된 후인 10월 30일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고, 그 후 태평양 제3해병상륙단과 연결, 11월 16일 총 2개 사단 약 40,000여 명이 참가하여 북 캐롤라이나 지역에 대한 대규모 상륙작전을 실시하였다.³⁷⁾ 이들이 상륙작전을 실시한 시기는 소련 화물선이 미국의 해상차단선 도달이전에 귀항하고, 또 쿠바에서 소련 미사일들이 철수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항공정찰로 확인된 11월 1일로부터도 보름이 지난 시점이었다.³⁸⁾ 이처럼 미 해병대 상륙단은 지속적으로 전투준비태세를 보여줌으로써, 유사시 소련 및 소련 위성국가인 쿠바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응징 결의를 보여주는데 기여하였다.



4. 분석 및 평가

미국은 쿠바 미사일 위기에 적절히 대처함으로써, 자국군 위기대응태세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과시하였다. 이 작전을 통해 미국은 핵무장에 집착해서는 안 되며, 재래식 전력인 육해공군 및 해병대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건설해야 위기에 직면할 시 자국을 구할 수 있다는 교훈을 체감하였다.³⁹⁾ 소련도 미국과

36) Robert M. Beer (1990), pp.137 ~ 138.

37) Jan Drent, "Confrontation in the Sargasso Sea: Soviet Submarines During the Cuban Missile Crisis," *The Northern mariner*, Vol. XIII, No. 3 (July 2003), p.6.

38) 김태현(2004), p.444.

39) The US Department of Defense, *Annual Report for Fiscal Year*

동일한 교훈을 얻어, 흐루쇼프에 이어 등장한 브레즈네프 서기장은 열핵무기 중심에서 재래식 군사력도 일정수준 건설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이외에도 쿠바 미사일 위기 시 미 해군의 해상 차단작전 성공요인은 아래와 같이 도출할 수 있다.

가. 강력한 핵·재래식 보복전력 확보 및 배비를 통한 전쟁 공포 유발

1950년대 후반, 미국의 핵 독점 시대가 막을 내리고 소련과 핵무기 경쟁시대로 접어들면서 미국은 자국이 보유한 B-52 폭격기와 해외에 위치한 공군기지들을 활용하여 대량보복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존 포스터 덜레스 국무장관이 54년 연설에 언급한 대량보복 전략을 택하게 된다. 대량보복(Massive Retaliation)은 적의 어떠한 군사적 도발이나 침공에 대해서도 적이 대응할 수 없는 파괴력과 물량으로 반격하되, 이를 위한 최우선 응징 대응수단은 전략핵무기로 보복하겠다는 것이다.⁴⁰⁾ 이에 상응하는 소련의 흐루쇼프 서기장도 1960년 1월 14일 최고회의에서 “공군과 해군의 중요성은 사라지고 핵무기분야에서 미국에 우위를 달성해야 한다.”⁴¹⁾고 강조하고 있다. 이후 소련 국방장관 말리노프스키(Rodion Malinovsky)는 1961년 10월 제22차 공산당대회에서 “앞으로 세계전쟁이 발발한다면, 핵전쟁이 될 것이며, 앞으로의 전력 건설 우선순위는 핵무기와 이를 운반할 수 있는 수단이다.”⁴²⁾라고 연설하고 있다. 이처럼 양국은 전쟁이 발발한다면, 핵

1963, http://102msos.8m.net/naval_quarantine_of_cuba.html (검색일: 2017. 3. 15).

40) Arthur F. Lykke (ed.), *Military Strategy* (US Army War College, 1982), p.A-4.

41) N. S. Khrushchev, "Disarmament for Durable Peace and Friendship," *Report to the Supreme Soviet of the USSR* (January 14, 1960).

42) Harriet Fast Scott, "Soviet Military Doctrine in the Nuclear Age,

무기의 우선 사용 혹은 상대방 사용 시 그에 대한 대량보복 원칙을 천명하고 있었다.

미국의 외교관이자 1952년과 1956년 민주당 내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섰던 해리먼(W. Averell Harriman)이 1959년 흐루쇼프를 만났을 때, 그는 베를린 위기 시 “(미국이) 전차를 파병하면, 그들은 불탈 것이니 그러한 실수를 하지 마시오. 그리고 만일 (미국이) 전쟁을 원하면, (미국은) 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그것은 미국의 전쟁이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소련의) 전략로켓은 자동적(automatically)으로 대응할 것이다.”⁴³⁾ 라는 점을 강조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양국의 핵전략은 쿠바 미사일 위기와 같은 국지적 혹은 지역적 침략에 직면한 경우, 선언한 대로 대량보복조치를 취하든가 아니면 아무런 조치도 하지 못하는 전략상의 취약점을 안고 있었다. 이러한 핵전략상의 맹점이 양국 지도자로 하여금 쿠바 미사일 위기 시 차단선에서 충돌한다면, 예상되는 타국의 대량보복조치를 두려워하게 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타협이 이루어 질 수 있었던 것이다.⁴⁴⁾

1945-1985,” in Willard C. Frank & Philip S. Gillette (eds.), *Soviet Military Doctrine from Lenin to Gorbachev, 1915-1991* (Westport, Connecticut: Greenwood Press, 1992), pp.179 ~ 180.

43) Thomas C. Schelling, *Arms and Influenc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66), p.39.

44) 최근 공개된 소련 문서들에 의하면 이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흐루쇼프도 외교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많은 정보를 수집하였으며, 이들을 통해 미국이 쿠바를 침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게 된 것도 적절히 타협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기여하였다고 사료된다. 특히 쿠바의 카스트로가 유사시 자국에 대한 미국의 공격 시 소련에게 핵을 사용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소련은 핵전쟁 수행의지가 전무하였다고 문서는 밝히고 있다. Mark Kramer, “Lessons of the Cuban Missile Crisis for Warsaw Pact Nuclear Operations,” and James G. Hershberg, “New Evidence on the Cuban Missile Crisis: More Documents from the Russian Archives,”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Bulletin*, pp.270 ~ 348, <https://www.wilsoncenter.org/sites/default/files/ACF199.pdf> (검색일:

당시 양국의 핵전략을 분석한 미 공군의 최근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핵능력은 소련에 비해 월등하였다고 한다. 미국은 ICBM 숫자에서 소련보다 4~5배 우위를 달성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제2격 능력 확보를 위해 개발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도 1960년 시험발사에 성공함으로써 이들을 장착한 폴라리스 핵잠수함들을 실전 배치하고 있었다.⁴⁵⁾ 하지만 소련은 그 당시까지 SLBM을 개발하지 못하고, 위에서 본 것처럼 폭스트룻 급 잠수함에 핵 어뢰 한발씩을 겨우 장착하고 있었다. 이러한 실정에서 소련 본토에서는 ICBM을 활용해야 하지만, 서반구에서 처음 얻은 소련의 동맹국 쿠바에 자신이 보유한 핵미사일들을 배치한다면, SS-4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전략공군사령부(SAC)가 위치한 오마하(Omaha)에, SS-5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은 미국 전역에 대한 타격이 가능하였다고 한다.⁴⁶⁾

이처럼 흐루쇼프는 핵전쟁에 대한 주도면밀한 검토 없이, 케네디가 강경하게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만 염두에 두고, 쿠바에 미사일 기지 건설을 추진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케네디 행정부가 해상차단을 위해 대규모 군사력을 동원하여 강압하자, 터키 기지에 설치된 미국의 중장거리 주피터 미사일 기지를 철수하는 조건으로 모든 것을 원상회복시켰다는 것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양국 핵전략 측면에서 재해석하면, 양국 핵전략 즉 대량보복전략의 실행불가능성이었을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시 일본을 상대로 핵무기가 사용된 이후, 그 위력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핵무기 사용제한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었지만, 양국은 핵 지상주의에 빠져 재래식 전력 구축을 등한 시 하였었다. 하지만 위기가 닥치자 양국 지도자 모두는 상호확증파괴의 두려움

2018, 8, 14).

45) John T. Correll, "High Noon," *Air Force Magazine* (October 2012), p.33.

46) John T. Correll (2012), pp.34 ~ 38.

때문에 핵을 사용할 수 없는 전략적 모순 상황에 처하게 됨으로써, 대결 자체를 회피하는 것이 양측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 되었다.

나. 작전목적 달성에 부합되는 차단선 설정 및 상대방에 대한 명확한 고지

미 대통령의 해상차단 명령은 10월 24일 1400시(그리니치 시간)에 유효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무장관 러스크는 반입금지 물품을 명확하게 공표하였으며, 실제 차단선 유효조치이후에도 공격용 무기나 장비 등을 탑재하지 않은 화물선은 검색 후 그대로 통과되었다. 이러한 미국의 조치는 소련에게 차단의 목적을 명확하게 고지하여,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사인을 보냄으로써 확전을 방지할 수 있었다. 이는 이론적 검토에서 본 고지의 원칙이 세부적이면서도 확대 적용된 것이다. 작전목적이 핵미사일을 실은 소련의 화물선의 쿠바진입을 완전히 차단한다는 것인 만큼, 미국은 해상차단작전 시 국무성과 국방성 주관으로 쿠바로의 반입금지 및 반출 품목들을 세세하게 공표하였다. 이 측면에서 보면 평시 위기관리상황이지만, 전통적 봉쇄의 원칙인 고지의 원칙이 훨씬 실질적으로 적용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브레이니가 언급한 전쟁 원인중의 하나인 ‘사고에 의한 전쟁(war as an accident)’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이다. 그는 쿠바 미사일 위기가 확전되지 않은 이유로 미국과 소련 양국이 핵시대를 맞이하여 국력 중 외교력이 군사력보다 보다 실용적이며, 핵무기는 전쟁의 수단이 될 수 없고, 양국간 핵전쟁은 승리의 이점을 훨씬 능가하는 손실을 가져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관리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⁴⁷⁾

47) Geoffrey Blainey, *The Causes of War* (London: the MacMillan

역사적인 해양봉쇄 사례들은 적의 함대를 모항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서부터 지상전이나 지상 전역작전 수행에 영향을 주기 위해 해상교통로에 대한 적대적인 접근을 거부하는 것까지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었다. 그에 반해 케네디 대통령에 의해 설정된 해상차단작전은 기존의 해양봉쇄와 시기, 지역선포, 선박 검색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사하면서도, 상대방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보다는 상대방 스스로 자제를 유도하고자 노력했다는 측면이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쿠바 미사일 위기 시 미국의 해상차단작전은 방법 및 운용 측면에서 핵시대 강대국간 대결에 나타날 수 있는 독특한 수행방식이라 할 수 있다. 실제 영국의 전략가 그레이(Colin S. Gray) 교수는 핵무기의 사용을 최후수단으로 남겨두려는 정책(No First Use of Nuclear Weapons)과 최후의 대결로 치달릴 수 있는 무의식적인 대결의 위험성 등으로 인해 전쟁의 속성과 목적이 변화되었고, 해양 전략 수행개념 자체도 기존과 달라졌다고 설명하고 있다.⁴⁸⁾ 따라서 쿠바 미사일 위기 시 해상차단작전은 미·소간 해양 핵 대결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독특하면서도 기존에 시행되지 않은 새로운 개념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 절대적 우세 전력 배비를 통한 차단설 설치 및 작전 효과성 입증

봉쇄의 원칙 중 설치와 효과성의 원칙을 적용, 쿠바 미사일 위기 시 소련 지도부를 강압한 핵심적인 전력은 미 본토 지상군과 공군, 동원예비군, 해외 전진기지 배치 전력, OAS 국가들의 군사력 등의 지원을 받으면서 카리브 해에서 일련의 작전을 수

Press Ltd, 1988), p.271.

48) Colin S. Gray, *The Leverage of Sea Power* (New York, NY: The Free Press, 1992), p.265.

행한 미 해군 및 해병대 전력이다. 이에 대응하는 소련의 전투력은 본국으로부터 이격되어 있고, 수상과 수중, 공중에서 행해지는 미국과 연합국 해·공군들의 지속적인 감시와 정찰로 인해 상호 간 통신이나 의사교환이 어려운 소련 잠수함 군단과 아래와 같은 쿠바 및 쿠바에 배치된 소련의 군사력이다.⁴⁹⁾

먼저, 쿠바 해군은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은 기존 함정들을 제외하고도, 62년 1월 15일부터 3월 26일까지 소련으로부터 지원받은 Komar급 고속 공격함정 12척과 Kronstadt급 정찰정 6척을 활용, 3개 함대사령부 체제로 편성되어 있었다. 이들 고속 공격함정들은 21인치 어뢰관과 25밀리미터 대공포 장착, 속도 22노트, 작전반경1,400마일로, 미 해상차단선 지역까지 작전은 가능하였다.

둘째, 공군은 미그-21 42대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해상차단선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관타나모 해병기지에 대한 공격은 가능하였다. 이보다 더 중요한 위협요소는 쿠바 미사일 기지 건설과정에서 소련이 지원한 약 740 해상마일의 작전반경을 가진 IL-28 "Beagle" 폭격기 42대였다. 이들은 관타나모 기지뿐만 아니라 미 본토 및 해상차단선까지 작전 가능하였다.

셋째, 쿠바 지상군은 T-54 탱크 35에서 40여대와 PT-76 상륙장갑차를 보유한 48개 사단 약 300여개 대대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들은 해상차단선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지만, 미국으로 하여금 관타나모에 위치하고 있던 군 가족 등 비전투원 후송 작전 시행 및 항모전투단과 지상군 증원 파병을 강요하였다. 또 다른 요소는 쿠바 내 아르테미사(Artemisa), 산티아고(Santiago), 레미디오스(Remedios), 그리고 홀구인(Holguin) 등 4개 기지에 배치된 소련의 정예 4개 경비연대로 이들은 핵 발사가 가능한 포병대대를 편성하고 있었다.⁵⁰⁾

49) 미 정보기관들은 해상차단작전 실시 이전에 이미 이들 전력을 파악하였으며, 소련이 미국의 보복을 아주 심각한 위협으로 인지하고 있다는 보고서들을 생산하고 있었다. Director of Central Intelligence, *50X1,E.O.13526* (declassified from Top Secret),

<https://www.archives.gov/files/declassification/iscap/pdf/2011-063-doc4.pdf> (검색일: 2018. 8. 13), pp.15 ~ 55.

50) John M. Young (1990), pp.97-110.

쿠바는 10월 22일 혹은 23일 상기 전력들에 전투 대기태세를 발령하였지만, 미국의 해상차단작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판타나모 해병기지에 대한 공격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기록은 없다. 이들 쿠바 전력들은 자체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의지나 능력이 없었으며, 소련으로부터의 작전지시가 없어서인지 실제 미국의 해상차단작전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미소 양국 간의 핵 대결 상황에서 쿠바 카스트로가 가진 재래식 전력은 전혀 영향력이 없었으며, 유사시를 대비해 전개한 항모 등 미국의 막대한 전력에 의해 스스로 강압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쿠바 군이 미국의 해상차단작전을 방해하거나 개입하지 않았지만, 투입된 미 해군 및 해병세력과 핵 어뢰를 장착한 소련 잠수함들 간에 충돌이 발생하였다면, 그것은 양국 간 핵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위험성이 농후하였다. 하지만 적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양국 지휘관들의 신중한 행동은 잠재적 재앙을 불러 올 수 있는 오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다. 미 해군과 공군은 뛰어난 감시 및 정찰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이들 소련 잠수함들이 작전해역으로 들어서기 이전에 이미 그들의 움직임을 간파하고, 직접 충돌하기 보다는 세척을 수상으로 유도함으로써 자신들의 역량과 기술적인 우위를 유감없이 발휘하였다.⁵¹⁾ 소련 잠수함함장들도 위기에서 무조건 핵탄두가 장착된 어뢰를 쏘기보다는 그 행위가 가져올 결과를 예측하고, 관망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핵전쟁을 피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원인은 소련 잠수함들이 열대지방에서의 수중 작전지속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오랜 기간 수중 작전이 불가능하였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그림 2>참고).⁵²⁾

51) John Drent (2003), p.19.

52) Talking Proud Archives (검색일: 2018. 5. 13).

이처럼 해군 및 해병대 주축 해상차단작전이 성공한 요인은 무엇보다도 3개 항모전단을 포함한 대규모 군사력을 투입하여 카리브 해에 대한 해양통제에 성공하였기 때문이다. 케네디 대통령 및 참모들이 대안들을 고려하면서 여섯 번째 봉쇄를 선택한 세 번째 이유 즉 “카리브 해에서의 해군교전보다 더 유리한 군사적 대결은 없었으며, 미국의 연안과 다름없는 해안에서의 봉쇄는 소련에 대한 승리를 확신할 수 있었다(At our doorstep, a naval blockade was invincible)”⁵³⁾는 설명은 해양통제의 개념과 연결되어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본토 내에서 동원 등을 통한 대규모 전력배비 능력과 병행, 미국 동남부 해안의 키 웨스트(Key West), 푸에르토리코(Puerto Rico), 쿠바 관타나모기지 등의 지원을 받으면서 카리브 해에 투입된 3개 항모를 포함, 기동화 된 대규모 해상전력들은 차단작전 결정시 기대한 것보다 훨씬 우세한 해양통제를 달성할 수 있었다.

53) Graham Allison · Phipip Zelikow (1999), p.120.

〈그림 2〉 쿠바 미사일 위기 시 해군작전 개황



출처: John Drent, "Confrontation in the Sargasso Sea: Soviet Submarines During the Cuban Missile Crisis," *The Northern Mariner*, Vol. 13, No. 3 (July 2003), p. 6.

제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해양통제 즉 제해권의 개념도 많은 변화를 거듭하였다. 이 개념은 마한에 의해 주창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대적, 지역적 의미로 국한되고 있다. 예를 들면 버나드 브로디(Bernard Brodie)는 1944년에 펴낸 저서에서 ‘제해’의 개념을 “상대적이며 상호간의 경쟁에서

현저한 우위를 점한다.”⁵⁴⁾는 것으로 정의하며, 제해 혹은 해양통제권 획득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다. 1960년 대 해양전략 이론 측면에서 이러한 제해권의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한 전략가는 콜벳이다. 그는 “적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고, 아군이 전쟁목표 달성을 추구할 때, 적이 아군의 임무수행을 심각하게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⁵⁵⁾고 정의하고 있다. 이렇게 어려운 해양통제작전 수행을 고려 시, 미국 남동부 해안과 중앙아메리카 지역에 적지 않은 미 해군 및 해병대 기지를 보유한 미국의 해양통제 능력은 제한된 잠수함 부대만을 파견한 소련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심각한 위협이었다. 따라서 쿠바에 배치된 IL-28폭격기의 지원은 가능하였지만, 소련 잠수함 부대들과 쿠바가 보유한 고속공격함정 정도로는 대응할 엄두조차 내기 어려웠을 것이다.

미 해병들의 전개는 유사시 미국이 쿠바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도 실시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미국 케네디 행정부의 의지와 정책의 신뢰성을 높여 주었다.⁵⁶⁾ 10월 15일부터 30일까지 푸에르토리코 비에쿠에스 섬(도미니크 공화국, 하이타이섬 동쪽)에 대한 상륙작전 훈련(PHIBRIGLEX-62) 수행을 위해 전개하였던 50여 척 이상의 미 함정과 이들에 탑승한 2만여 명의 해군과 5천여 명의 해병들의 전개는 유사시 미국이 쿠바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도 실시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미국 케네디 행정부의 의지와 정책의 신뢰성을 높여 주었다.⁵⁷⁾ 게다가 차단선이 해제된 후 보름이 지난 시점에도 출전준비태세를

54) Bernard Brodie, *A Guide to Naval Strateg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44), pp.90 ~ 92.

55) Julian S. Corbett, *Some Principles of Maritime Strategy* (Annapolis: Naval Institute Press, 1988), pp.338 ~ 339.

56) Talking Proud Archives (검색일: 2018. 5. 13).

57) Talking Proud Archives (검색일: 2018. 5. 13).

유지한 가운데 북 캐럴라이나 지역에 대한 대규모 상륙작전을 실시함으로써 지속적인 강압 행동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미 해병 상륙단은 지속적인 전투준비태세를 보여줌으로써, 미국의 강력한 결의를 소련에게 인식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는 것이 관련 학자들의 평가이다. 이 공로로 미 해군과 해병대는 미군 작전, 유엔군 및 우방국 지원 작전 공로부대에 수여하기 위해 제정된 해군 및 지상군 원정군 훈장(Navy and Armed Forces Expeditionary Medal)을 수여받았다.⁵⁸⁾ 이는 해군과 해병대의 기여도를 높이 평가한 케네디 행정부의 보상이다. 미 해군과 해병대가 소련의 미사일 및 관련 장비 등 모든 물품이 쿠바로부터 철수될 때까지 강력한 차단작전수행태세를 유지하면서도 지속적인 상륙작전 수행능력을 현시한 것은 소련에 대한 강압역량으로 작용하였다.

미 해군과 해병대가 상기와 같은 능력 발휘를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 요소는 미국의 정보수집 체계 및 전파 능력이다. 군비 통제나 감축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검증이듯이 철저한 정보수집 및 전파체계를 갖추고 있었던 미국은 쿠바에 배치된 미사일과 관련 장비 전부가 철수할 때 모든 함정에 대한 검색을 통해 검증하고, 그들이 소련본토에 귀향할 때까지 상호 연결된 정보공유체계를 유지하였다. 만일 초기 강압에 성공한 후 소련을 믿고 대응태세를 풀었다면 어떤 추가적인 사태 혹은 소련이 재배치할 수 있는 빌미를 남겼을 수도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은 유엔 대표부에서 장비 및 물자를 실은 소련의 함정명만 통보받았지만 기 배치된 감시 및 차단전력들을 활용, 소련 함정들을 끝까지 추적, 검색하였다.

58) The US Department of Navy, "U.S. Navy Ships and Units Which Received the Armed Forces Expeditionary Medal for Participating in the Cuban Missile Crisis, 1962," http://102msos.8m.net/naval_quarantine_of_cuba.html (검색일: 2017. 3. 15).

5. 결 론

쿠바 미사일 위기 직전, 미 대통령 케네디는 육사 졸업식에서 미래 군 장교들은 대외정책과 군사력의 상관관계를 이해하고,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대외정책 목표들을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⁵⁹⁾ 당시 국제정치에서 군사력은 전투를 통한 전쟁승리만이 아닌 국력의 한 요소로서 국가이익 수호의 배후 지원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었다.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쿠바 미사일 위기 후인 1966년 하버드 대학의 쉘링(Thomas Schelling) 교수는 『군사력과 영향력(Arms and Influence)』이란 저서에서 군사력을 실제 사용하기 보다는 사용하겠다는 위협을 통해 상대방의 양보를 받아내는 거래(Bargaining)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⁶⁰⁾ 최근 2008년에는 런던 킹스칼리지 프리드만(Lawrence Freedman) 교수는 '전략연구와 힘의 문제(Strategic Studies and the problem of power)'란 주제논문을 통해, 군사력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상대가 내가 가진 힘의 권위를 인정하고 스스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도록 강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을 논증하고 있다.⁶¹⁾

이러한 국가지도자들의 인식과 관련 학자들의 이론들을 기초로 쿠바미사일 사태 시 해상차단작전을 평가해 보면, 케네디 행정부의 대응이 단연 돋보인다. 소련의 흐루쇼프 서기장을 핵 및

59) Jack L. Miles, "The Fusion of Military and Political Considerations: Threat or Challenge to the Military," *Marine Corps Gazette* (Aug 1968), p.22.

60) Thomas Schelling, *Arms and Influenc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66).

61) Lawrence Freedman, "Strategic Studies and the problem of power," Thomas G. Mahnken · Joseph A. Maiolo (eds.), *Strategic Studies: A Reader* (New York: Routledge, 2008).

재래식 전력으로 지속적으로 압박하면서도 보상책을 제시한 능동적 외교술과, 쿠바 군사력과 기 배치된 소련의 제한된 미사일 및 지상 전력의 지원을 받는 소련 잠수함 군단과 교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억제한 세부적인 작전지도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핵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지지 않게 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판단된다.⁶²⁾ 어쩌면 핵 등 대량살상무기가 발달, 전쟁의 양상이 참혹해지면 참혹해질수록 사고나 오판에 의한 전쟁발발을 최대한 억제해야하기 때문에 유사시 정치지도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단순히 전역상황만 알고 전쟁이나 위기를 지휘하여서는 안 되고, 상대국가의 역량(군사, 외교, 국제정치적 위상 등) 분석을 통해 전쟁 발발을 억제하고, 상대방이 불리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강압하는 것이 더 중요해 지고 있기 때문이다.

쿠바 미사일 위기를 단적으로 표현하면, 봉쇄의 기본원칙을 준수한 가운데, 미국이 본토의 지상군, 공군, 친미국가들의 지원을 받은 미 해군과 해병대를 활용하여, 국무성 및 국방성 장관이 발표한 명확한 검색기준에 의거 소련 등 타국가의 화물 및 상업용 선박들의 쿠바 진출입 통제 및 검색을 실시함으로써, 소련 스스로 핵전쟁의 무서움을 인지하고 미사일 등 군사용 장비와 물자를 실은 선박들을 스스로 회항시키도록 함으로써 위기관리에 성공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핵전쟁의 위기가 상호공멸의 핵전쟁으로 확대되지 않고 관리된 것은 핵시대 군사력 사용

62) 쿠바 미사일 위기 시 케네디 행정부의 제반조치는 유사시 최고 정치지도자에 의한 작전지도의 중요성을 고취시키는데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어쩌면 대서양사령관과 제2함대사령관 등 현장지휘관들의 융통성이나 독단적 작전수행을 적절히 통제된 것이 핵전쟁의 발발을 방지한 핵심원인이 될 수도 있다. 전시 정치지도자와 군사지도자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Michael I. Handel, *Masters of War: Classical Strategic Thought* (London: Frank Cass, 2001), pp.255 ~ 272를 참고할 것.

의 유용성 특히 해양봉쇄의 의미를 잘 활용하고 해상차단이라는 새로운 전략을 개발하고 활용한 케네디 행정부의 노력 때문이다.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와 현재의 해상봉쇄 혹은 차단작전 여건을 비교해 보면, 국제법과 국제기구의 발달, 침략국에 대한 집단안보 개념 등장, 유엔의 역할 강화 등 많은 점들에서 변화가 있다. 전시 해상봉쇄는 미 해군교범에 근거하여 피아상황, 주변 지정학적 요인, 동맹국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실시하면 되지만, 평시 해상봉쇄는 유엔안보리 결의안에 의거 제재위원회에서 결정한 품목의 진출입을 통제하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 최근 북한산 석탄의 한국 반입에서 보는 것처럼, 제재 대상 국가는 원산지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선박의 국적을 변경하여 위장하지, 수출입 금지품목을 적재한 선박을 자국 함정이나 잠수함의 호위 속에 운행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어졌다. 따라서 현 시대 평시 해상봉쇄 혹은 차단을 위해 쿠바 미사일 위기 때처럼 많은 재래식 전력을 투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일각에서는 대북해상봉쇄를 물리적 타격을 가하지 않으면서도 북한으로 하여금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도록 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북한과 연결된 중국·러시아와 연결된 육상교통로의 차단 없이는 그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시행하기가 쉽지 않다.⁶³⁾ 또한 국제법에 공해상 통항의 자유가 보장된 현시대에는 잘못된 정보에 의거한, 피 제재국가 선박에 대한 나포 등의 조치는 해당국의 반발로 자칫 무력분쟁으로 확대될 소지가 다분하다. 이러한 위협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결된 것이 앞의 이론적 검토 말미에 언급한 PSI이다. 비록 중국이 공해상 자유통항의 원칙을 들어 가입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 한국은

63) 김덕기, “미국의 선택 가능 대북군사옵션과 해상봉쇄,” 『KIMS Periscope』 제103호 (2017. 11. 11).

2009년 5월 26일 95번째 국가로 PSI 전면참여를 선언하고,⁶⁴⁾ 미국 일본 등과 PSI 구현을 위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⁶⁵⁾ 하지만, 한반도 주변에서의 군사적 충돌 개연성 때문에 유사시 이행은 쉽지 않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미간의 북한 비핵화 협상이 결실을 맺지 못하였을 경우, 대북해상제재를 실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몇 가지 교훈을 제시해 주고 있다.

첫째, 북한에게 해상확산방지구상 제재대상 품목인 장비 및 물자들을 반입 및 반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1962년 국무성과 국방성과 해당 물품을 명시하여 소련에게 주지시켰듯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과 제재위원회, 관련국 및 한국의 독자적 제재 품목을 공고문 등을 통해 명확하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는 또한 북한 및 관련 선박에 대한 PSI 작전실시의 정당성 확보와도 직결된다.

둘째, 신뢰성 있는 정보 수집 및 전파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쿠바 미사일 위기 시 미국은 유엔주재 대사를 비롯한 외교 및 정보기관 등 모든 채널을 가동하여, 쿠바로부터 전략자산 반출을 마지막까지 점검·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군사적 차단태세도 유지하였다. 최근 북한산 석탄 밀반입 사건에서 보듯이 관련국가 및 유관기관 등의 공조체계가 정밀하게 작동하지 못하면, 해상제재 체계자체가 무용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셋째, 해상 작전실시 간 참여국 및 군간 연합 및 합동작전 체계를 확립함과 동시에 예상치 못한 우발사건에 대비하여야 한다. 미국은 해상차단을 실시하면서 자국 및 미주기구 참여국들의 전력을 적절히 통합 운용하며, 관타나모 기지에 주둔하고 있는 병사들과 가족들에 대한 소개를 실시함으로써 우발상황까지도 대비한 작전을 수행하였다. 북한군에 대한 해상감색 및

64) 장성호, “정부, 대량살상무기 PSI 전면 참여 발표…北핵실험 대응(3보),” 『한국경제』 (2009. 5. 26),

<http://news.hankyung.com/article/200905269236g?nv=o> (검색일: 2018. 8. 14).

65) 정다슬, “한미일,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위한 해상훈련 실시,” 『이데일리』 (2018. 7. 25),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4418166619278128&mediaCodeNo=257&OutLnkChk=Y (검색일: 2018. 8. 14).

나포 상황이 발생한다면 북한은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주권침해를 내세워 서해5도나 비무장지대 인근주민들을 대상으로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 단순히 해당 지역 및 사건만 보지 말고, 한반도 전체 상황을 고려한 작전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상기와 같은 몇 가지 교훈을 도출할 수 있지만, 어제의 전쟁에서 얻은 정치 및 군사적 교훈은 내일의 전쟁을 위한 지침이 될 수 없다. 내일의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과거 전쟁의 교훈과 오늘의 다양한 정치·전략적 환경요인의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전략 개발이 필수적이다. 이것이 쿠바 미사일 위기 시 미국의 해상차단작전 분석 및 평가결과가 오늘날의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교훈일 것이다.

(원고투고일 : 2018. 6. 29, 심사수정일 : 2018. 8. 16, 게재확정일 : 2018. 11. 19)

주제어 : 쿠바 미사일 위기, 해양봉쇄, 해상차단, 미 해군과 해병대, 군사력의 역할 변화

〈참 고 문 헌〉

- 김덕기. “미국의 선택 가능 대북군사옵션과 해상봉쇄,” 『KIMS Periscope』 제 103호 (2017. 11. 11).
- 김태현 (역). 『결정의 엷센스』 서울: 모음북스, 2004.
- 장성호. “정부, 대량살상무기 PSI 전면 참여 발표…北핵실험 대응(3보),” 『한국경제』 (2009. 5. 26),
<http://news.hankyung.com/article/200905269236g?nv=o>
(검색일: 2018. 8. 14).
- 정다슬. “한미일,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위한 해상훈련 실시,” 『이데일리』 (2018. 7. 25),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4418166619278128&mediaCodeNo=257&OutLnkChk=Y
(검색일: 2018. 8. 14).
- Allison, Graham · Zelikow, Philip. *Essen of Decision: Explaining the Cuban Missile Crisis*. New York: An Imprint of Addison Wesley Longman, 1999.
- Bearden, B. R. "Why was the Cuban Blockade, by the US, called a quarantine."
<https://www.quora.com/Why-was-the-Cuban-Blockade-by-the-US-called-a-quarantine-and-how-does-the-Cuban-Blockade-differ-from-the-Israeli-Blockade-of-Gaza>
(검색일: 2018. 6. 9).
- Beer, Robert M. "The U.S. Navy and the Cuban Missile Crisis," *A Trident Scholar Project Report*. US Naval Academy, May 22 1990.
- Bell, P.M.H. *The World Since 1945*.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 Blainey, Geoffrey. *The Causes of War*. London: the MacMillan Press Ltd, 1988.
- Booker, John. *Maritime Quarantine: The British Experience C.*

- 1650-1900*. New York, NY: Routledge, 2007.
- Brodie, Bernard. *A Guide to Naval Strateg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44.
- Chisholm Hugh (ed.), "Pacific Blockade," *Encyclopedia Britannica* 20. 1911. <https://archive.org/details/encyclopdiaabri20chis>
(검색일: 2018. 8. 13).
- Corbett, Julian S. *Some Principles of Maritime Strategy*. Annapolis: Naval Institute Press, 1988.
- Correll, John T. "High Noon," *Air Force Magazine* (October 2012).
- Dean Rusk (Secretary of State). "A Proclamation,"
<https://www.mtholyoke.edu/acad/intrel/kencuba.htm>
(검색일: 2018. 6. 10).
- Director of Central Intelligence, "Report to the President's Foreign Intelligence Advisory Board on Intelligence Community Activities Relating to the Cuban Arms Build-up (14 April through 14 October 1962)," *50X1, E.O. 13526* (declassified Top Secret), <https://www.archives.gov/files/declassification/iscap/pdf/2011-063-doc4.pdf>
(검색일: 2018. 8. 13).
- Drent, John. "Confrontation in the Sargasso Sea: Soviet Submarines During the Cuban Missile Crisis," *The Northern Mariner*, Vol. 13, No. 3 (July 2003).
https://www.cnrs-scm.org/northern_mariner/vol13/tmn_13_3_1-19.pdf
(검색일: 2018. 8. 13).
- Frank, Willard C. & Gillette, Philip S (eds.), *Soviet Military Doctrine from Lenin to Gorbachev, 1915-1991*. Westport, Connecticut: Greenwood Press, 1992.
- Freedman, Lawrence. "Strategic Studies and the problem of power," Thomas G. Mahnken · Joseph A. Maiolo (eds.), *Strategic Studies: A Reader*. New York: Routledge, 2008.

Gray, Colin S. *The Leverage of Sea Power*. New York, NY: The Free Press, 1992.

Haight, John McVickar. "Franklin D. Roosevelt and a Naval Quarantine of Japan," *John Pacific Historical Review* (Jan 1, 1971). URL: <https://www.jstor.org/stable/3638297>.

Handel, Michael I. *Masters of War: Classical Strategic Thought*. London: Frank Cass, 2001.

Heinegg, Wolff Heintschel. "Naval Blockade," *International law Across the Spectrum of Conflict*, the US Naval College, 2000. <http://digital-commons.usnwc.edu/cgi/viewcontent.cgi?article=1429&context=ils> (검색일: 2018. 8. 13).

Herald-Sun, "1962: A naval quarantine of Cuba ordered by President John F. Kennedy," *News Article* (October 24, 2013), ProQuest document ID: 1444900803.

Katzenbach & Meeker. "Legal and Practical Consequences of a Blockade of Cuba," *the daybooks of the Office of Legal Counsel*, <https://fas.org/irp/agency/doj/olc/cuba.pdf> (검색일: 2018. 6. 10).

Khrushchev, N. S. "Disarmament for Durable Peace and Friendship," *Report to the Supreme Soviet of the USSR* (January 14, 1960).

Kramer, Mark. "Lessons of the Cuban Missile Crisis for Warsaw Pact Nuclear Operations," and Hershberg, James G. "New Evidence on the Cuban Missile Crisis: More Documents from the Russian Archives,"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Bulletin*, pp. 270 ~ 348,

<https://www.wilsoncenter.org/sites/default/files/ACF199.pdf> (검색일: 2018. 8. 14).

Lykke, Arthur F (ed.). *Military Strategy*. US Army War College, 1982.

Mallison, W. T. "Limited Naval Blockade or Quarantine Interdiction: National and Collective Defense Claims Valid Under

International Law," *The George Washington Law Review*, 31 (1962).

Miles, Jack L. "The Fusion of Military and Political Considerations: Threat or Challenge to the Military," *Marine Corps Gazette* (Aug 1968).

President John F. *Kennedy's Speech Announcing the Quarantine Against Cuba*, October 22, 1962.

<https://www.mtholyoke.edu/acad/intrel/kencuba.htm>

(검색일: 2018. 6. 10).

Reeves, Thomas C. *A Question of Character: A Life of John F. Kennedy*. New York: Prima Publishing, 1991.

Robertson, John W(US Navy). "Blockade to Quarantine in International Law," *Jag Journal* (June 1963).

Schelling, Thomas C. *Arms and Influenc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66.

Talking Proud Archive—military. "Soviet Transport ships on the move and the US Naval Blockade," *Soviet Foxtrot Submarines: The Cuban Missile Crisis*.

<http://www.talkingproud.us/Military/SovietFoxtrots/SovShipHiSeas.html>

(검색일: 2018. 6. 10).

Talking Proud Archive—military. "And so much more about this crisis / for one did not know," *Soviet Foxtrot Submarines: The Cuban Missile Crisis*.

<http://www.talkingproud.us/Military/SovietFoxtrots/FoxtrotsCuba.html> (검색일: 2018. 5. 13).

The US Department of Defense. *Annual Report for Fiscal Year 1963*,

http://102msos.8m.net/naval_quarantine_of_cuba.html

(검색일: 2017. 3. 15).

The US Department of Navy. "U.S. Navy Ships and Units Which

Received the Armed Forces Expeditionary Medal for Participating in the Cuban Missile Crisis, 1962."

http://102msos.8m.net/naval_quarantine_of_cuba.html

(검색일: 2017. 3. 15).

The US Department of Navy. *NWP 1-14M: The Commander's Handbook on the Law of Naval Operations* (July 2007).

Wilson, George Grafton. & Tucker, George Fox. *International Law*. New York, NY: Silver Burdant and Company, 1910.

Young, John M. "When the Russians Blinked: The U.S. Maritime Response to the Cuban Missile Crisis," *Thesis for Master of Arts in the Discipline of History, the Graduate School of the University of Tulsa* (1989).

Young, John M. "When the Russians Blinked: The U.S. Maritime Response to the Cuban Missile Crisis." *Occasional Paper*. Washington, D.C.: History and Museums Division of Headquarters of the USMC, 1990.

<Abstract>

An Analysis on the Critical Success Factors of the US Maritime Quarantine in the Cuban Missile Crisis

Lee, Pyo-kyu
Kyun, Byung-ha

On the contemporary era, the unclassified secret sources, the documents and materials of interviews with those who participated or worked in association with the Cuban Missile Crisis let us know the activities of the Soviet Submarines, and the processes and effects of the US maritime quarantine operation. Thus, now it is possible to synthetically analyze it from the viewpoints of naval component operations. Consequently,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on the basis of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o draw the critical success factors of the US maritime quarantine operation in the Cuban Missile Crisis. For this, I employ the literature review approach on the bases of the governmental unclassified secret sources, the memoirs, the related thesis/articles and multimedia data.

According to results of the research, the critical success factors were not only the active diplomacy technic for the coercive approach on Mikita Khrushchew, the Soviet Leader, by providing carrot and stick at the same time using nuclear and conventional powers, but also the detailed operational directives deterring a real conflict with the Soviet Foxtrot submarines backed by the Cuban troops, deployed limited missile strength and land based the Soviet army in Cuba in advance. They were the critical factors of

de-escalating the nuclear crisis and of saving the world as well as the US from the danger of breaking out a nuclear war.

The additional factors were the infeasibility of employing the nuclear strategies of the mutual massive retaliations, the US setting regarding the purpose and performing procedures of the maritime quarantine and the Soviet understanding on them, unremitting coercive activities and capability revelation, and lastly keeping the posture for perfect verification against the Soviet nuclear/conventional materials(sources) deployed in Cuba. All of these were proved by the logical bases.

The practical lesson of the US maritime quarantine in the Cuban Missile Crisis is that the military lessons of the past operation will not be the directives for a future war. In order to succeed in a future war, it is essential to develop a new strategy reflecting not only the lessons of the past military operations, but also diverse contemporary political and strategic environmental factors.

Key words : Cuban Missile Crisis, Maritime Blockade, Maritime Quarantine, US Navy and Marines, The transitions of the functions of military forces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18, No. 109, pp.163-204
<https://doi.org/10.29212/mh.2018..109.5>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기울어진 제2차 '세계'대전 통사

: 제러드 와인버그의 『2차세계대전사』 비평논문

제러드 L. 와인버그, 홍희범 역, 『2차세계대전사』, 과천: 길찾기, 2016

이상현*



1. 들어가는 말
2. 위로부터의 2차대전사
3. 제2차 '세계'대전사
4. 홀로코스트의 위치 찾기
5. 불균형한 '세계'대전
6. 나가는 말

1. 들어가는 말

제2차 세계대전 연구자들에게 필독서로 꼽히는 제러드 와인버그의 *A World at Arms: Global History of World War II*(2005년

* 공군사관학교 조교수

신장판)이 2016년 9월 『2차세계대전사』라는 제목을 달고 3권으로 나뉘어 번역되었다.¹⁾ 하지만 저자가 서문에서 밝히다시피 1978년부터 구상에 들어간 초판은 1994년에 발간되었고, 초판 출판 이후에 발간된 주요 연구 성과를 요약한 ‘신장판 서문’을 제외하면 신장판의 내용에 거의 변동이 없으므로 1990년대 영미권에 등장한 2차대전 통사가 늦게나마 국문으로 소개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²⁾ 원제의 ‘Global History’를 과감하게 생략하고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일반적인 제목을 택한 역자와 출판사의 고민은 이해할 수 있다.³⁾ 이런 제목의 선택은 거대한 전지구적 쟁투의 모든 지역을 (대체로 그러하지만) 공평하게 다루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또한 2000년대 이후에 번역되어 출판된 2차대전 통사들이 모두 900페이지가 넘어가는 단권으로 출판되는 바람에, 두 겹기로 악명 높은 와인버그의 책은 3권으로 분철되어 적어도 대중 독자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부담 없이 읽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⁴⁾

그러나 여전히 통독하기 쉬운 서적은 아니다. “무솔리니는 무능한 각료와 당 간부들을 더욱 무능한 인물들로 수시로 교체”했다거나(2권 188쪽) 1944년 동부전선 독일의 “새로운 두 지휘관들은 곧 예전보다 더 많은 독일 병사들을 군법재판에 회부해 총

1) 제러드 L. 와인버그, 홍희범 역, 『2차세계대전사 1: 뒤집어진 세상』; 『2차세계대전사 2: 전세 역전』; 『2차세계대전사 3: 베를린에서 미주리 함상까지』, 과천: 길찾기, 2016. 이하 본문에 괄호안의 권수와 쪽수(혹은 장)로 표기.

2) Donald Detwiler, “A Flawed Masterpiece”, *H-Net Reviews* (Apr, 2006), <https://networks.h-net.org/node/35008/reviews/44594/detwiler-weinberg-world-arms-global-history-world-war-ii> (검색일: 2018.9.8.)

3) 존 키건, 류한수 역, 『2차 세계대전사』, 서울: 청어람미디어, 2007; 제프리 주크스 등 8인, 강민수 역, 『제2차 세계대전: 탐욕의 끝, 사상 최악의 전쟁』, 서울: 플래닛미디어, 2008; 앤터니 비버, 김규태·박리라 역, 『제2차 세계대전: 모든 것을 뺏아들인 블랙홀의 역사』, 과주: 글항아리, 2017.

4) 위의 책들은 각각 912쪽, 952쪽, 1288쪽 단권으로 번역되었다.

살했지만, 전임자들보다 소련군을 잘 막을 수는 없었다”(3권 15 쪽)는 등 촌철살인의 표현들이 간간히 등장하여 읽는 재미를 주는 것만으로는 독자들을 유인하기에 부족하다.⁵⁾ 제러미 블랙(Jeremy Black)의 지적처럼 “요즘 학부생들이 읽기에 너무 두꺼운” 것도 사실이거니와, 와인버그는 전선의 격양된 병사들이나 역동적인 전투 장면 묘사를 통해 독자의 감정적 몰입을 일으키는 데 크게 관심이 없다.⁶⁾ 이러한 문체는 이른바 전쟁의 ‘큰 그림’에 집중하고자 하는 저자의 의도가 강하게 반영된 결과이다. 이 저서의 가장 주된 목적은 저자의 전공인 독일뿐만 아니라 미국과 영국의 1차 사료까지 다수 참조하여, 폴란드에서 시작된 전쟁이 전세계로 확대되어 최종적으로 진화될 때까지 실타래처럼 정신없이 꼬여있는 역사적 사실들을 하나의 내러티브로 엮어내는 것이다. 이러한 의도 덕분에 한 전투가 다음 전투나 다른 전장에, 심지어는 여론에 어떻게 영향을 끼쳐서 결국 상대방의 전략에 변화를 야기하는지는 자주 드러나는 반면에, 그 전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가령 단위부대가 전술적으로 어떻게 전투를 수행했는지는 거의 알 수가 없다. 심지어 각 권의 뒤편에 수록된 지도들도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해서, 전반적인 전쟁의 흐름을 알지 못하는 일반 독자의 입장에서는 전선과 참전국들 및 대륙을 넘나드는 서술을 따라가기 쉽지 않은 불친절한 책이라는 느낌을 받을 것이다. 물론 저자가 전쟁 전체의 그림을 보여준다

5) 데이비드 레이놀즈의 ‘유머라고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virtually no humor)’는 단호한 평가는 동의하기 어렵다. David Reynolds, “Over There, and There, and There”, *The New York Times* (Feb 20, 1994), p.7007013

6) 블랙은 와인버그의 책이 충분히 값어치를 하나 요즘 학부생들이 읽기에는 지나치게 두껍다는 농담으로 본인의 서평을 마무리했다.(*The Historical Review*, Vol.121, No.494(2006), p.1559); 키건은 전쟁의 경험에 대한 서술로 명성을 얻은 학자답게 그의 통사에 국가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주요 장군들, 심지어 전투 목격자들의 일기를 종종 발췌하여 현장감을 높이려고 시도했다.

는 사실을 감안하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평자는 이러한 의도가 'Global History'라는 부제에 잘 드러난다고 생각하기에, 국문판 제목에 약간의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국제적 관점을 유지하려는 저자의 서술이 히틀러의 외교정책과 홀로코스트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점을 보여줄 것이다. 이를 통해 저서의 사학사적 위치를 짚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자의 접근 방식이 불가피하게 야기하는 불균형을 밝혀내어 잠재 독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와인버그는 1928년 하노버에서 태어나 히틀러의 집권과 반유대주의의 발흥을 직접 목도하며 1938년에 독일을 떠나 영국을 거쳐 미국으로 이민하는 데 성공한 독일계 유대인이다.⁷⁾ 그의 아버지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에서 드물게 장교까지 진급한 이력을 바탕으로 1930년대 초반까지도 재무부에서의 경력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1934년 힌덴부르크 대통령의 사망 이후에는 결국 직장을 떠나야했다. 와인버그와 형제도 이 무렵 학교에서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쫓겨나기에 독일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1938년 11월 수정의 밤(Kristallnacht)에 본인이 등학교를 위해 매일같이 지나치던 길에 있던 유대교회당의 불탄 잔해를 목격한 것은 어린 나이의 와인버그에게 충격적인 경험이었다. 아버지의 경험과 1차대전의 인명피해에 대해 알고 있는 그에게도 신에게 “미친” 짓을 하는 행위는 납득이

7) 와인버그의 개인사와 관련한 내용은 미국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박물관에서 2012년에 진행한 와인버그 본인과 인터뷰를 참조하라.

<https://collections.ushmm.org/search/catalog/irn74729> (검색일: 2018,9,8); 같은 페이지에서 스크립트를 확보할 수 있다. 이하 '인터뷰 스크립트'로 표기); 또한 가장 최근의 와인버그의 인터뷰도 참조하라. Daniel A. Gross, "A Historian who fled the Nazis and still wants us to read Hitler", *The New Yorker* (Dec 30, 2015)

<https://www.newyorker.com/books/page-turner/a-historian-who-fled-the-nazis-and-still-wants-us-to-read-hitler> (검색일: 2018,9,29.)

불가능했기 때문이다.⁸⁾

이러한 어린 시절을 고려하면 그가 2차대전과 히틀러에 대해 연구하는 것은 일견 자연스러워 보인다. 하지만 역사가가 된 그는 과거를 회고하면서도 결코 하노버가 반유대주의가 극성이었던 지역이라고 과장하거나 자신을 괴롭히던 독일 학생들에 대해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는 등 학자로서의 냉정함을 유지한다. 다만 저서에서는 그러한 인종주의 정책에 대한 무언의 동조나 무시를 통해 결과적으로는 학살 프로그램이 작동하는 데 기여한 다수에게 냉소를 보내는 등 히틀러를 제외한 다른 당대인에게도 도덕적 단죄를 포기하지는 않는다.(2권 176, 183쪽)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인버그의 어릴적 경험에 대한 트라우마가 곧장 히틀러와 그의 외교정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다. 와인버그가 대학교에서 역사를 전공하면서 처음 선택한 주제는 19세기 유럽의 외교사였다. 그의 첫 세미나 에세이가 지도 교수의 해석과 정면충돌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나서야 시기를 뒤로 미루어 20세기로 전공을 바꾸었고, 이것이 그의 인생 전체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⁹⁾

2. 위로부터의 2차대전사

시카고 대학에서 박사 과정의 와인버그를 지도한 한스 로트펠스(Hans Rothfels)는 19세기 유럽 외교사 전공자였으며, 1934년에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나치에 의해서 쾰니히스베르크 대학

8) '인터뷰 스크립트', p.22.

9) '인터뷰 스크립트', pp.38-40.

교수 자리에서 밀려난 후 미국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독일의 통일을 설명하며 민족주의보다는 유럽 질서의 안정에 모든 신경을 곤두세운 ‘한 명의 유럽 정치인’의 통제력이 진정한 변인이었다고 보는 전형적인 독일 역사주의자였다.¹⁰⁾ 제자 와인버그는 『2차세계대전사』의 개정판이 나온 2005년 이후에 사회사, 문화사, 일상사와 같은 ‘아래로부터의 역사’가 기세를 올리는 동안 전쟁에서 자원이 분배되고 결정이 내려지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정책 결정자의 머릿속을 들여다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전통적인 관점을 고수했다.¹¹⁾ 이런 입장을 따를 경우, 그가 연구하는 시기 독일의 외교사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히틀러를 중심에 두어야 했다. 와인버그가 1958년에 사료 더미 속에서 우연히 발견한 이른바 히틀러의 『두 번째 책』은 『나의 투쟁』마저 ‘대중에게 너무 위험하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출판 금지를 당

10) 로트펠스에 대해서는 다음의 자료를 참조하라. Jan Eckel, “Hans Rothfels: An Intellectual Biography in the Age of Extremes”, *Journal of Contemporary History*, Vol.42 No.3(Jul 2007), pp.421-446; Klemens Von Klemperer, “Hans Rothfels, 1891-1976”, *Central European History*, Vol.9 No.4(1976), pp.381-383; 로스펠스는 2차대전 중 출판되어 세계적 명성을 얻은 *Makers of Modern Strategy* 초판의 Clausewitz 장을 쓰기도 했다. Hans Rothfels, “Clausewitz” in Edward Earle, Gordon Craig and Felix Gilbert(eds.), *Makers of Modern Strategy: Military Thought from Machiavelli to Hitler*,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43, pp.93-116; 에켈에 따르면 로트펠스는 전쟁 중 독일의 반나치운동에 대해 연구하여 전통적인 독일 역사주의적 접근에서 잠시 이탈한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저항운동에 대한 조명을 통해 비스마르크부터 이어지는 독일사의 연속성에서 나치 시대를 유리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 제자인 와인버그 또한 박사학위 취득 후 저항운동에 대해 연구하는 기회를 얻었지만 학문적 여정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큰 맥락에서 로트펠스와 유사하게 본인이 취한 입장을 반복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11) “Conversation with Gerhard Weinberg: What We Still Have to Learn about the War”, *World War II Magazine* (Aug 2018), <http://www.historynet.com/conversation-gerhard-weinberg-still-learn-war.htm> (검색일: 2018.8.25.); 기사는 동 잡지 2007년 7/8월 판에 처음 나왔으나, 이는 온라인으로 접근이 불가능하다.

한 시대적 상황에 따라 영미권에서 당장 빛을 보지는 못했다.¹²⁾ 하지만 『두 번째 책』이 특히 총통의 영국과 미국에 대한 외교 정책에 대한 명료한 관점을 포함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료를 활용한 그의 외교사 연구는 탄력을 받아 1970년과 80년에 나누어 출간되었다. 전간기 독일의 외교정책을 다루는 『히틀러 독일의 외교 정책』이 그것이다. 이 글은 와인버그의 대표적인 성공작이 되었다.¹³⁾

70년대 후반에 구상에 들어간 『2차대전사』는 따라서 다음 단계로 히틀러의 외교 정책을 중심으로 2차대전 전쟁사 전체를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와인버그의 외교사가로서의 강점은 전시에 각국 지도자들이 모였던 각종 회담이나 주요 직위자들의 만남을 서술하는 데서 잘 드러난다. 물론 독일과 일본이라는 추축세력의 양대 강국 간에는 정상회담이 없었고, 주요 직위자들 간의 지속적인 회담도 거의 부재했기에 그러한 서술은 대체로 연합군, 특히 미국과 영국의 협조에 한정되기는 한다. 하지만 독일과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한 유럽 동맹국들 및 중립국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알력 다툼과 헝가리와 루마니아 간의 마찰 등 공동 전선 뒤편에서의 대립은 치밀하게 그려진다.(1권 220쪽) 그리고 그러한 만남에서 외교적으로 합의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

12) 『두 번째 책』에 대한 간략한 소개 및 내용은 황성모, “히틀러 생애와 저작들”, 아돌프 히틀러, 황성모 역, 『나의 투쟁』, 서울: 동서문화사, 2014, pp.77-124; 영역본은 2003년에야 출판되었다; Krista Smith(trans.), Gerhard Weinberg(edi.), *Hitler's Second Book: The Unpublished Sequel to Mein Kampf*, New York: Enigma Books, 2003.

13) Gerhard Weinberg, *The Foreign Policy of Hitler's Germany: Diplomatic Revolution in Europe, 1933-36*,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0; *The Foreign Policy of Hitler's Germany: Starting World War II, 1937-1939*,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0; 와인버그는 종전 50주년을 맞이하여 전쟁의 주요 쟁점에 대한 자신의 글을 모아서 출판했다. *Hitler and World War II: Essays in Modern German and World Hist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한 사항들이 실제 전장이라는 현실에서 어떻게 변형되고 영향을 받는지, 즉 군사전략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일으키는지를 치밀하게 추적한다.

전략은 궁극적으로는 군지휘관을 통해 현실화되기에, 와인버그는 연합군은 많은 경우 그러한 회담에서 합의되고 독일의 경우 대체로 히틀러의 마음대로 결정되었던 고위 지휘관 선임문제를 중요하게 언급한다. 1942년 북아프리카 전선에서의 버나드 몽고메리(Bernard Montgomery) 영국 육군 장군이 “휘하 병력을 유능하고 자신감 넘치는 군대로 변모시킨” 유능한 지휘관이었지만(2권 60쪽), 1944년 이후 몽고메리의 이어지는 실수와 지나친 소심함, 미군 지휘관들과의 지속적인 마찰로 인해 결국 영미 양국 최고지도자들은 유럽 대륙 전체의 육군을 그에게 맡기지 않았다.(3권 14장) 반면에 1943년 8월 퀘벡 회담에서 처칠과 루스벨트의 합의로 인도-버마 전선의 사령관으로 임명된 루이스 마운트배튼(Louis Mountbatten) 해군 제독과, 같은 시기 부임한 윌리엄 슬림(William Slim) 영국 육군 장군은 동맹국 지휘관 및 참모들과 업무 능력을 습득하여 열악한 환경에서도 전선을 지켜내고 최종적으로는 승리에 기여한 유능한 지휘관으로 와인버그는 평가한다.(2권 11장, 3권 17장) 저자는 이를 통해 “고도로 기계화된 전쟁에서도 개인의 자질과 개성이 여전히 중요”함을 결론에서 강조하여, 극도로 복잡한 세계대전이었기에 “최고위급 인사들의 대인관계”와 “최소한 몇 명의 최고지도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했던 “동맹국과 함께 일하고 국제관계를 이해하는” 능력의 차이가 연합군과 동맹국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지적한다.(3권 17장)

구조나 상황보다는 최고위 지도자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접근법에도 불구하고 와인버그는 한 영웅적 개인이나 특정한 전투

만이 세계대전의 결과에 결정적이었다는 과장된 주장을 경계한다. 그는 독일군의 1941년 동부전선 공세의 날카로운 예봉이 꺾이기 시작하는 10월부터 이미 전세가 기울기 시작했다고 판단하며 일본이 한창 팽창해나가던 1942년 상반기를 지나면 당대인이 인지하기는 어려웠지만 사후적 관점에서 볼 때 전세는 기울었다고 평가한다.¹⁴⁾ 와인버그는 파죽지세로 진격하던 독일과 일본을 연합군이 유럽과 아시아에서 각각 저지하여 분리시켜놓음으로써 전쟁의 판도를 바꾼 기점이 1942년이라고 보는 입장이다.¹⁵⁾

이때 와인버그는 그 해에 벌어진 유명한 스탈린그라드·미드웨이·엘 알라메인 전투 각각이 결정적이었다고 설명하기보다는, 동부전선·태평양·북아프리카에서 그들 전투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상세히 알려주고, 각각의 전선에서 벌어진 일들이 다른 전선과 국가에 어떻게 '지구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준다. 예를 들면 동아시아에서 일본이 광폭행보를 보이고 미국 해안에 독일 잠수함이 출몰하던 시점에도 영미는 '유럽 우선' 전략에 따라 미국제 전차 200대와 인도에 배치될 예정이었던 항공부대를 북아

14) 이는 번역판이 3권으로 나뉘면서 제6장 '일본과 독일을 막아라 : 전세역전(1941.12~1942.11)'를 '전세역전'이라는 부제의 2권에 첫 번째 장으로 두어서 한국어판에서 더 잘 드러나게 되었다. 저자의 의도가 드러나는 부분에서 원서에서 구분되어있지 않은 책(Book) 단위로 나누고 부제를 붙인 것은 괜찮은 시도이나, 원서 6장의 제목이 'Halting the Japanese, Halting the German Advance; Keeping them apart and Shifting the Balance: December 1941 to November 1942'인 점을 고려하면 두 추축국의 분리가 연합군 전략의 요점이었다는 점이 누락된 번역으로 보인다.

15) 당연히 학자마다 주장하는 전쟁의 전환점은 다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아담 투즈(Adam Tooze)는 독일의 집단 학살적 제국주의, 동부전선의 주력이었던 중부 집단군의 패배, 미국의 원자폭탄 개발 시작이 동시에 구체화되었던 1941년 후반이 '역사의 전환점'이었다고 평가한다. Adam Tooze, *The Wages of Destruction: The Making & Breaking of The Nazi Economy*, London: Penguin, 2007[1st edi. Allen Lane, 2006], pp.416-512.

프리카 전선의 영국군에 파견하여 엘 알라메인의 승리를 일궈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이 선택으로 인해 항공부대를 지원받을 예정이었던 중국의 장제스(蔣中正) 정권이 느낀 서운함은 전쟁 후반까지 가시지 않아 미중관계에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끼쳤던 점을 설명해주는 식이다.(2권 6장)

무엇보다 그의 강점은 전투를 포함하는 전후 과정을 그려내는데 있다. 동쪽과 남쪽으로 팽창하기로 결심한 일본은 독일군과 합류가능한 유일한 지점이었던 중동과 인도양 지역에 제대로 된 군사력을 투사하지 못했다. 그에 따라 독일은 북아프리카를 내줘 중동 곳곳에서 일어나는 친추축국 쿠데타에 전혀 도움을 줄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수에즈 운하와 이란을 통해 수많은 미국의 보급 물자가 지중해와 소련으로 흘러들어가서 전쟁 유지의 주요 동력이 되었다. 이처럼 단일 전투가 아닌 전쟁 전체의 큰 그림을 보았을 때, 1942년이 결정적이었다.(2권 6장, 9장) 또한 와인버그는 이 시점의 주요 전투들에서 연합군 승리의 가장 결정적 원인으로 흔히 손꼽히는 '엄청난 양적 우세'가 결코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드러내어, 연합군의 물량 공세가 전쟁 내내 지속되었다는 '신화'는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다.¹⁶⁾ 결국 역사에서 중요한 것은 산업능력이나 동맹과 같은 구조보다는 행위자라는 저자의 전통적인 주장이 재강조되는 셈이다. 그런 맥락에서 저자는 일본의 야마모토 이소로쿠(山本 五十六) 제독이 미해군과 엇

16) Gerhard L. Weinberg, "Some Myths of World War II", *The Journal of Military History* Vol.75 (July 2011), pp.701-718. 그는 이 논문에서 『2차대전사』에서 본인이 통사에 반영한 몇 가지 주장을 정리하는데, 연합군의 양적 우세가 승리에 결정적이었다는 오해를 그 첫 번째로 손꼽았다. 물론 와인버그도 전쟁 후반기에는 양적 차이가 주효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 외에 히틀러가 영국과의 화의에 관심이 있었다는 주장, 유대인 문제를 전쟁 전개와 분리해서 다루는 학자들의 잘못된 습성, 독일군 지휘관들이 모든 면에서 뛰어난다는 환상 등을 잘못된 신화로 제시한다.

비슷한 전력을 잘못된 방식으로 운용하기도 했거니와 그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사령관직을 내던진다는 비타협적인 태도를 가지고 눈앞의 전술적 이익에만 집착하여 진주만에서 미드웨이까지 일본 해군을 점차 재앙으로 몰아넣었다고 지속적으로 혹평한다.

3. 제2차 '세계'대전사

와인버그에게 2차대전에서 누구보다도 중요한 행위자는 히틀러였다. 그는 중일전쟁이 2차대전의 시발점이라거나 1914년부터 1945년을 하나의 30년 전쟁으로 파악하려는 일각의 입장과 명확하게 대립한다.¹⁷⁾ 1차대전이라는 전대미문의 대전쟁을 겪은 강대국들은 전간기에 요동치는 국제정세에 대해 국가별로 상이한 입장을 보였다. 그 중심에 독일이 있었다. 독일의 상대적 잠재력은 주변국에 비해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선전 활동으로 베르사유 조약과 배상 조치 등으로 인해 한없이 약해졌다고 홍보되었다. 와인버그에 따르면 “전쟁에 대한 개념이 다른 사람들과 완전히 상이한” 히틀러는 인종 집단들이 땅을 놓고 무한 경쟁을 펼친다는 투박한 사회적 다윈주의에 따라 “무능하고 유약한 유대인-불세비키들이 통치하는 슬라브인”이 살고 있는 러

17) 아시아 전역을 전쟁의 시작으로 보거나 최소한 유럽과 동등한 비중을 가지고 봐야한다는 최근의 주장은 다음을 참조하라. Rana Mitter, *Forgotten Ally: China's World War II, 1937-1945*, Boston: Houghton Mifflin Harcourt, 2013; Haipeng Zhang, 'The two starting points of World War II: a reexamination from a global perspective', *Journal of Modern Chinese History*, Vol.10 No.1 (2016), pp.52-66; 30년 전쟁 테제의 대표격은 에른스트 놀테, 유은상 역, 『유럽의 시민전쟁 1917-1945: 민족사회주의와 불세비즘』, 서울: 대학출판, 1996.

시아 땅에서 독일의 미래를 찾고자 했다. 동쪽으로 향하기 전에 배후를 안정화하기 위해 체코슬로바키아와 프랑스를 정리해야 했고, 영국과의 전쟁은 미루고자 했으나 집권 초기 생각을 바꾸게 된다. 히틀러는 1차대전이 발칸 반도에서 “뜻하지 않게 벌어진 사건에 의해 잘못된 시기에 시작”되어 문제가 되었다고 보고, “직접 선택한 시기에, 직접 기획한 사건을 계기로 전쟁을 시작하려 했다.”(1권 1장) 그에 따라 와인버그는 나치 독일이 국가 이성에 따른 외교 정책과 외부 위협에 반응하는 과정에서 전쟁을 선택했다는 A.J.P. 테일러(Taylor)의 수정주의와 정면으로 대치한다.¹⁸⁾ 테일러 논쟁 이전에 이미 독소전쟁이 소련에 대한 예방전쟁이었다는 주장을 사료를 통해 반박하는 데 성공한 와인버그는 2차대전 발발 원인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반응과 무관하게 중요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히틀러에게 책임을 묻는 명백한 ‘의도주의자(intentionalist)’라고 할 수 있다.¹⁹⁾

목표의 측면에서 와인버그는 히틀러가 유럽 대륙이 아니라 전 세계를 염두에 두었다고 주장하는 국제주의자(Globalist)이다.²⁰⁾

18) A.J.P. 테일러, 유영수 역, 『제2차 세계대전의 기원』, 서울: 지식의 풍경, 2003.

19) Roderick Stackelberg, *The Routledge Companion to Nazi Germany*, New York: Routledge, 2007, pp.74, 93. 안드레아스 힐그루버(Andreas Hillgruber)는 와인버그의 반박으로 냉전시기에 환영받았던 예방전쟁 테제를 1954년에 철회한 이후 히틀러의 광신적인 인종주의와 생활권(Lebensraum)에 대한 욕심을 전쟁의 원인으로 제시하는데, 지나치게 히틀러를 해석에 중심에 놓아서 나치 지도부나 다른 행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독일 제국은 1871년 이후부터 중부 유럽을 슬라브민족과 볼셰비즘으로부터 방어해주는 최전선이었으며 소련의 팽창과 잔혹 행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나치즘을 제시하는 주장을 펼쳐 독일 사가논쟁의 중심에서 진보사가 진영으로부터 맹비난을 받았다. 구승희, “나치역사 평가를 둘러싼 독일학계의 논쟁”, 『역사비평』, No.20 (1993), pp.245-271 참조. 흥미롭게도 와인버그의 수백 권에 달하는 추천 도서 목록 중 유일하게 3번에 걸쳐 등장하는 저자가 바로 힐그루버인데, 반면에 반대측인 진보 사가는 라울 힐베르크(Raul Hillberg) 정도만 언급되어 와인버그의 불균형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다.

20) 이언 커쇼(Ian Kershaw)는 유럽 대륙의 점령이나 지배권 확보가 히틀러의 목표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진주만 공격 직후에 독일이 미국을 상대로 선전포고하는 과정이 후대인들의 생각과는 달리 비합리적인 선택이 아니었다고 설명한다.(1권 290쪽) 여러 민족이 뒤섞인 데다 취약한 민주정부가 통치하는 미국은 히틀러가 보기에 강력한 군사력을 구축할 수 없는 나라였고, 이러한 편견은 놀랍게도 전쟁 후반기까지도 지속되어 히틀러가 내리는 수많은 판단의 기저에는 뿌리깊은 인종주의적 편견이 있었다.(3권 14장) 오랫동안 미국과의 대결을 염두에 둔 히틀러는 대규모 해군이 완성되고 잠수함 전력이 영국을 완전히 봉쇄할 수 있을 때까지는 어설픈 싸움을 피한다는 현실적인 판단을 내렸다.(1권 2장) 그는 강력한 육군만으로는 바다를 건널 수 없다는 현실을 만회하고 세계로의 팽창을 이루기 위해서 대양해군과 대륙간 폭격기를 만들고자 예산과 자원을 배정했으나, 소련과의 전쟁이 생각처럼 잘 풀리지 않아 자원을 육군으로 재배정하고 건함계획을 미루었다. 마찬가지로 일본 역시 4년차에 접어든 중일전쟁이 고착상태에 접어들자 그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소련과 휴전을 통해 북쪽을 안정화하고 남방으로 진출하고자 하였고, 이를 방해할 수 있는 미해군의 태평양 함대를 기습하기로 결심했다. 히틀러는 수년에 걸친 건함 과정보다 손쉽고 빠른 길이 이미 대양해군을 상당한 규모로 갖추고 있던 일본을 전쟁에 본격적으로 끌어들이 미

었다고 주장하는 대륙주의자(Continentalist)인데, 여러 지점에서 와인버그와 대척점에 있다. 전쟁 발발 전 작성된 독일의 대규모 함대 건설 계획은 미국이 아닌 영국의 해군을 목표로 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동시에 히틀러가 영국과의 화의에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동부전선 개전 이후 첫 겨울(1941~1942년)의 위기 이후에도 인도를 영국이 차지하고 있는 한 독일이 유럽을 장악하는 것을 용인할 것이라는 기대를 품었다고 서술하여 진주만 공습이 진행된 이후에도 유럽 대륙에 한정된 현실적인 목표를 추구했음을 보여준다. 이언 커쇼, 이희재 역, 『히틀러III: 몰락 1936~1945』, 서울: 교양인, 2010, pp.257, 340, 355, 562를 참조하라. 반면에 독일의 안락사 계획 등의 잔혹행위가 전쟁 맥락에서 중요한 요소였음을 강조하는 점은 와인버그와 궤를 같이 한다. 같은 책, p.335.

국과 맞서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기에 것처럼 신속하게 선전 포고했던 것이다. 1940년 초·중반에 이루어진 이러한 독일과 일본의 결심이 향후 5년간의 전쟁의 방향을 결정했는데, 이로써 인종주의적 의도를 가지고 있던 유럽 전쟁의 불길은 대서양을 건너 태평양을 연결하며 국제화되었다.(1권 222쪽)

전쟁을 국제적인 규모로 만든 것은 동맹국이었지만,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것처럼 거대한 전쟁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협력 능력은 연합국이 더욱 잘 갖추고 있었다. 1940년에 유럽대륙에서의 전쟁은 지중해로 확대되었는데, 여기서는 무솔리니의 허영심으로 발칸 반도와 북아프리카에 투입된 “지능과 계급이 반비례하는” 무능한 이탈리아군이 겪은 재앙을 독일군이 수습하면서 참전국들이 엷히게 되었다.(1권 248쪽) 이 과정에서 저자는 이러한 발칸 반도에 대한 독일의 개입과 히틀러가 흘려보낸 시간이 정작 중요한 독소전쟁의 개시 시점을 늦추어 결과적으로 러시아의 이른 추위에 독일군이 발목을 잡혔다는 전후 독일 장군들의 회고록을 통해 널리 퍼진 또다른 ‘신화’를 꼬집는다.²¹⁾ 와인버그는 독소전쟁의 개시는 날씨와 보급 문제에 영향을 받은 것이고, 오히려 발칸 반도에 투입되었던 부대는 북아프리카의 에르빈 롬멜(Erwin Rommel) 장군에게 지원되지 못해서 지중해 전선을 전반적으로 약화시켰다고 주장한다. 와인버그는 그 결과 이집트를 사수한 영국이 수에즈 운하를 통해 인도양으로 향하는 항로를 유지하여 미국과 접촉을 지속했다는 국제적 시각을 보여 줌과 동시에 히틀러에게 전쟁 중 일어난 수많은 군사적 오판까지도 뒤집어 씌우려는 독일 장군들의 위선을 비판한다.(2권 152쪽)

21) 에리히 폰 만슈타인, 정주용 역, 『잃어버린 승리: 만슈타인 회고록』, 교양: 좋은 땅, 2018. 만슈타인은 회고록의 제목에서 드러나듯 히틀러의 과도한 개입과 잘못된 선택에 패배의 책임을 돌리고 있다. 그의 히틀러에 대한 입장은 11장 ‘국방군 최고사령관 히틀러’에서 잘 드러난다.

이 시점까지의 전쟁 전개에서 와인버그는 유럽 대륙을 모조리 내어준 상태에서 소련이 참전하기 전까지 홀로 독일과 맞선 영국의 폭격과 무역봉쇄, 그리고 이를 통한 독일 점령지에서의 반란 유도라는 세 가지 기동으로 이루어진 전략을 중요하게 여겼다.²²⁾(1권 176쪽) 이후에 참전했던 미국에게도 전쟁 수행에 대한 대체로 통일된 접근법을 제공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미국은 독일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지 못하는 지중해에 전력을 투입하는 데 종종 반대하여 영국과 많은 마찰을 일으키기도 했다. 하지만 늦게 참전하고 전투 경험이 미진한 미국이 일정 부분 양보하며 지중해를 중시하는 영국의 입장을 어느 정도 수용했기에 북아프리카에 먼저 상륙했고, 이후 이탈리아로 진군할 때까지 바다에서의 전쟁을 마무리하고 폭격 작전을 지속하는 데 동의해서 저 유명한 D-Day는 1944년까지 미루어졌던 것이다.²³⁾(2권 11장) 물론 소련과 영미 연합군 사이에는 현대적인 형태의 연합군 사령부와 합동참모본부가 구축된 영미처럼 원활한 협조가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세 거두(巨頭)는 두 번이나 한자리에 모여 전쟁 진행 상황과 전후 세계 질서를 논의한 것과 대조적으로 독일과 일본은 정상적인 통신 채널 유지도 버거웠다.

전쟁 초기 독일이 유럽의 강국들을 뒤흔들어놓는 사이 일본이 구대륙 식민지인 동남아시아에 침투할 때만해도, 지구 반대편에 있던 두 동맹국은 각자의 전역에서 전투를 잘 치르는 것만으로도 전지구적 전쟁에서 상호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았다. 하지만

22) 처칠은 본인의 자서전에서 유럽에 대한 결정적인 대규모 공격이 승리를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항상” 생각했다고 썼는데, 이는 자기변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윈스턴 처칠, 차병직 역, 『제2차 세계대전: 下』, 서울: 까치, 2016, p.748.

23) 그런 의미에서 유럽전역 영미연합군의 전략폭격 전역이 스탈린의 제2전선 개전 요구에 대한 정치적 반응으로서 가치가 있었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 리처드 오버리, “유럽 항공전, 1939~1945년”, 존 안드레아스 올슨 편, 강창부 역, 『항공전의 역사』, 파주: 한올아카데미, 2017, pp.64-93.

그런 분위기는 오래가지 않았다. 독일이 1942년 소련을 향한 두 번째 공세를 준비하면서 일본에게 만주 방향 및 인도양 공세를 요청했을 때 일본은 거절했다. 일본은 이미 산호해와 미드웨이에서의 대패를 만회하기 위해 미국을 향한 대공세를 준비하고 있었으므로 애써 중립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소련과의 전쟁을 거부한 것이다.(2권 44쪽) 일본은 소련을 적대국으로 만들 경우 소련 기지에서 이륙하게 될 미국의 폭격기를 우려하여 전쟁 내내 독일의 소련 공격 요청을 거절했는데, 미국의 대소 지원물자 중 절반이 일본의 눈앞에서 소련 깃발을 단 선박에 의해 태평양을 건너갔기에 동부전선에서 사력을 다해서 싸우던 독일이 동맹국을 불편하게 생각했음은 쉽게 유추할 수 있다.(1권 329쪽) 하지만 독일이 1943년에 10여척의 잠수함 전단을 파견하여 말라야의 일본 해군기지를 기점으로 인도양에서 펼쳤던 ‘몬순’ 작전을 보면, 동맹국들도 연합작전이 가능했으며 결국 전지구적 협력은 의지의 문제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2권 86쪽)

이처럼 바다는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장의 연결지이자 주요 물자 및 병력 수송의 통로였기에 최종적으로 이 전장에서 승리한 연합군은 전쟁 전체에서 엄청난 이득을 얻었다. “당시에도 이후에도 종종 무시되고” 심지어 “스탈린도 이해하지 못하던” 길고 힘겨운 해전이 양측의 전략에 미친 거대한 영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와인버그는 1942년부터 1944년까지의 해전을 별도의 장으로 할당했다.(2권 64쪽) 독일의 잠수함과 이를 막는 연합군의 호송함대 간의 싸움은 전쟁 내내 계속되었으나 1942년 11월에 정점을 찍은 뒤 점차 연합군의 선박 손실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고, 이는 1943년 5월 이후에 독일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남부 대서양으로 잠수함을 피신시키며 연합군의 판정승이 확실히 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942년이 중요한 분기점이었다는

것이 드러난다.²⁴⁾(2권 83쪽)

세부 사항을 큰 그림 속에 위치시키는 와인버그의 장점은 바다에서의 전쟁에서도 드러난다. 연합군은 희망봉을 경유하는 항로보다 훨씬 짧은 지중해 해상 보급로를 완성하기 위해 북아프리카에 상륙했으나, 태평양 전선에 수송선을 내주는 바람에 상륙군이 부족하여 작전 초기에 장악하고자 했던 튀니지를 장악하는데 실패했다. 튀니지는 장기적으로 독일군이 1943년 중반까지 북아프리카에서 버틸 수 있는 교두보가 되었고 그에 따라 북서유럽을 향한 연합군의 직접적인 대규모 상륙작전은 1944년 중반으로 연기될 수밖에 없었다.(2권 81쪽) 또한 와인버그는 “역사가들이 종종 망각할 정도로 작은” 소련 해군 함대가 1942년 동부전선에 가해진 독일군의 대공세를 막아내는 과정에서 보여준 활약을 묘사하여 해군과 육군의 합동성이 어떻게 간접적으로도 교차되는지를 보여준다.(2권 108쪽)

이렇게 전쟁의 큰 그림과 전략 전체를 보는 와인버그의 넓은 시야는 전쟁 후반기를 서술할 때까지 유지된다. 연합군의 전략폭격은 직접적인 효과로 기대되었던 엄청난 규모의 재산과 민간인 피해, 경제적 타격보다는 간접적인 영향이었던 독일의 잠수함 생산량 감소 및 방공 분야에 대한 자원 투자 강요가 효과적이었다고 여겨진다.²⁵⁾(3권 119쪽) 또한 와인버그는 전쟁 후반 필요하

24) 와인버그는 이 때 연합군의 선박손실량이 감소하는 기점을 중요하게 부각하고 있으나, 해당 기간이 겨울이라 날씨의 영향으로 바다를 오가는 선단 자체가 감소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다른 학자들이 선박 건조량이 폭증하고 상선과 유보트 사이의 피해량이 엇비슷해지는 1943년 5월을 결정적인 분기점으로 드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폴 케네디, 김규태·박리라 역, 『제국을 설계한 사람들: 제2차 세계대전의 흐름을 바꾼 영웅들의 이야기』, 파주: 21세기북스, 2015, pp.29-113. 케네디는 또한 암호해독에 지나치게 많은 비중을 두는 것을 경계하는데, 80년대에 공개되기 시작한 암호해독과 관련된 사료를 적극 참조해서 그 중요성을 강조했던 와인버그도 그 비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25) 오버리는 전략폭격에 대응하기 위해 독일의 생산 물자가 전투기 및 방공 지원에

다면 대규모 병력의 후퇴도 용인하던 히틀러가 쿠를란트라는 작은 땅에 기어코 병력을 남겨놓은 이유는 발트해를 손에 쥐고 있어야만 신형 유보트라는 최후의 수단을 운용할 승조원을 훈련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3권 65쪽) 저자는 히틀러가 동부전선 북쪽 끝의 바다에서 양성한 잠수함을 대서양으로 보내 보급로를 차단하고 아르덴에서 최후의 공세를 취해 서부전선의 서방 연합군을 격파한다는 나름의 전략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하며 전후 독일 장군의 회고록에서처럼 한 뼘의 땅도 양보하지 않으려는 군사적 감각이 부재한 고집불통의 독재자로만 묘사되기에는 재평가될만한 시간이 충분히 지났다고 주장한다.²⁶⁾ 이처럼 전쟁 말엽까지 히틀러의 전략 구상에 한자리를 차지했던 발트해는 거슬러 올라가면 1941년 독일의 최초 공세에서 획득하고자했던 목표 중 하나였고, 레닌그라드에서 붉은 군대의 끈질긴 저항은 전쟁 전체에서 자기 위치를 찾게 된다.²⁷⁾(2권 108쪽)

전쟁 종료로 다가갈수록 와인버그의 눈은 전후의 세계질서를 수립하는 데 영향을 미쳤던 주요 행위자와 선택을 향한다. 연합군을 가장 힘들게 만든 독일에 대한 처분과 폴란드 문제가 결과적으로는 소련군의 주둔이라는 현실적인 상황에 의해 좌우되는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저자는 아무리 훌륭한 명분과 이상도 물리력이라는 현실과 독립적으로 관철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3권

투입됨으로써 폭격기와 지상 전력이 투자되지 못하고, 그에 따라 가장 중요한 전선인 동부 전선에서의 지상전에 큰 지장을 받은 전략의 왜곡효과를 더 중요하게 평가한다. 오버리, “유럽 항공전”, pp.64-93.

26) Weinberg, “Some Myths of World War II”, p.705; 만슈타인, 『잃어버린 승리』, p.306.

27) Martin Gilbert, *The Second World War: A Complete History*, London: Phoenix, 2009[1st edi. Widenfeld & Nicolson, 1989]. 길버트는 레닌그라드는 포위로 인해 심각한 기아와 희생이 발생했다는 점을 지속해서 언급했지만 1944년 소련의 공세와 레닌그라드 봉쇄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깊게 분석하지는 못했다.

150쪽)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예견할 정도로 통찰력이 있고 신중한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은 책의 전반에 걸쳐 그러하듯 높은 평가를 받는다. 영국의 처칠 총리는 그의 “19세기적” 식민지 정책에도 불구하고 쇠락해가는 제국의 입장에서 미래의 적국이 될 소련이라는 초강대국의 팽창 범위를 제한하려는 장기적이고 전지구적인 관점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여 긍정적으로 평가된다.(3권 177-9쪽) 그리고 이러한 유럽 전쟁의 마지막 단계에서도 아시아의 전쟁은 수송선 문제부터 외교 교섭까지 많은 부분을 좌우했다는 것을 강조하며 전쟁에 대한 국제적 관점을 놓치지 않는다.(3권 185쪽)

4. 홀로코스트의 위치 찾기



와인버그가 세계대전의 전체 틀 안에서 독일의 외교와 전쟁 수행을 중심으로 분석한다면 독일과 그 점령지 내부에서는 단연 홀로코스트에 집중한다. 전쟁이 발발하기 전부터 히틀러는 독일 민족을 위한 영토의 획득을 중요시했지만, 그 기저에는 인구 분포를 혁명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인종주의가 근거하고 있었기에, 와인버그는 히틀러와 독일의 의도가 전쟁의 발발뿐만 아니라 홀로코스트의 원인이라고 판단한다.(1권 227쪽) 따라서 저자는 나치당 집권 직후 유대인에 대한 박해 정책이 큰 인기를 끌었다는 점과 전쟁이 채 시작되기도 전부터 실시된 독일인을 “순수하게” 만들기 위해 환자와 노인들을 끔찍하게 살해했던 “체계적 살인”의 과정을 중요하게 묘사한다. 그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국내적 비난과 저항에 직면하여 계획이 대부분 중단되기는 했으

나 그 과정에서 이미 10만 명 이상이 살해당하고 “관료적인 대량학살 전문가”들이 양산되어 “훗날 다른 분야에 활용”되었다. (1권 128-9쪽)

독일이 새로 점령한 지역에서 정신질환자와 노인, 무엇보다도 유대인을 “역사상 최초로 체계적으로 대량학살”하기 위한 계획은 동쪽을 향한 침공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수립되었고, 국방군에게는 특정 분류의 포로와 저항하는 민간인을, 히틀러의 지시로 창설된 특별살인부대(Einsatzgruppen)에게는 그 외에 말살해야 할 민간인을 제거하는 임무를 배분했다.(1권 229쪽) 이렇게 제거된 사람들이 살고 있던 토지로 독일계 주민을 이주시키려던 계획은 독소전쟁 초기에 입안되었고, 계획 수립과 거의 동시에 모든 유럽 국가에서 유대인을 추방해야 한다는 독일 지도층 내부의 합의가 이루어졌다.(1권 310쪽) 그럼에도 책임자들은 예상보다 학살을 원하는 만큼 빠르고 능률적이게 실행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살인자들이 희생자들을 찾아가는 대신 희생자를 살인자에게 데려오는” 획기적인 변화를 시도했고, 홀로코스트는 지역별 수용소에서 단체로 학살하는 방향으로 본궤도에 올랐다.(1권 344쪽)

홀로코스트를 통한 유대인 학살은 이런 의미에서 놀랍게도 독일인에게 “실용적인” 문제였으며, 이는 곧 나치의 장기인 “선전”에도 좋은 수단이 되었음을 의미했다.(2권 177쪽) 독일이 유럽의 동맹국들, 즉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과 외교 관계를 맺을 때 각 국가들이 유대인 문제 해결에 얼마나 협조하느냐는 히틀러에게 중요했다. 총통의 기대 수준에 못 미치게 협조했던 국가는 독일군이 전쟁 후반기에 직접 개입하여 엄청난 숫자의 유대인을 수용소로 보내어 절멸시킴으로써 한 줌의 병력과 자원도 아쉬운 상황에서도 유대인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사항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했다.(2권 9장) 홀로코스트의 동인에 대한 설명에서 와인버그는 히틀러의 독일이 심각한 행정적 혼돈을 겪으며 모든 기관이 지분을 얻기 위해 무한 경쟁을 펼치면서 히틀러의 총애만을 기대하는 상황을 “권위주의적 무정부주의”라 소개하여, 책이 저술된 1980년대 전반적으로 받아들여진 나치즘 내부의 혼란스러운 속성에 공감한다.²⁸⁾ 하지만 그는 근본적으로 전쟁 전체와 홀로코스트에 대해 독일, 특히 히틀러의 의도와 비중이 중요하다고 믿는 ‘의도주의자’였기에, 마르틴 브로샤트(Martin Broszat)나 한스 몸젠(Hans Mommsen)이 그러한 나치즘의 “난장판”이 히틀러의 국가 장악력을 약화시켰다고 기능주의적 입장에 반대하며, “결정권은 히틀러에게 집중되었고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것은 가장 무자비하고 단호한 인물들”이었다고 단언한다.²⁹⁾(2권 180쪽)

이처럼 1980년대 학계의 흐름 속에 있었던 와인버그는 1980년 중반에 진흙탕과 같은 사가논쟁(Historikerstreit)으로 번지는 독일사 해석을 놓고 벌이는 다툼에서는 한 발짝 떨어져 있었다. 하지만 나치와 2차대전사, 그리고 홀로코스트를 둘러싼 주요한 쟁점에서 그의 입장은 명확했고 이러한 논쟁을 당연히 지속적인

28) ‘권위주의적 무정부주의’라는 경구는 오스트리아의 친나치 언론인이었던 Walter Petwaidic이 전후에 출판한 회고록 제목이었으며 와인버그도 542번 각주를 통해 소개하였다.

29) 1970년대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받아들여진 ‘권위주의적 무정부주의’나 ‘다중지배(Polycratic)’와 같은 개념을 둘러싼 양 학파의 해석 차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Jeremy Noakes, "Hitler and the Third Reich" in Dan Stone, *The Historiography of the Holocaust*,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4, pp.24-51: 이 글에서 Dieter Rebenitsch에 따르면 ‘다중지배’ 개념은 우파 정치학자인 Gerhard Schultz에 의해 최초로 사용되었고 이후 기능주의 학파에서 받아들여졌으므로 김학이가 자신의 역서인 『히틀러국가』에서 브로샤트가 그 개념을 처음 사용했다고 소개한 것은 오류이다; 김학이, 「옌긴이 해설: 지도자국가의 내부 구조와 나치 운동의 파괴적 역동성」, 마르틴 브로샤트, 김학이 역, 『히틀러국가: 나치 정치혁명의 이념과 현실』, 서울: 문학과지성사, 2011, p.498.

로 추적하고 있었는데 이는 홀로코스트 역사학 계보에 한 획을 그은 크리스토퍼 브라우닝(Christopher Browning)의 『아주 평범한 사람들: 101예비경찰대와 유대인 학살』에 대한 그의 서평에서 잘 드러난다.³⁰⁾ 브라우닝은 이안 커쇼처럼 ‘의도주의자’와 ‘기능주의자’ 사이에서 중도의 입장을 취하는 일종의 ‘종합주의자’(Synthesis)로, 와인버그의 뒤를 이어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에서 교수직을 맡았다. 와인버그는 그의 저작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나 그가 발견한 새로운 사료와 채택한 다각적 접근법이 홀로코스트 연구에 주는 가치를 높게 평가하며 같은 사료로 단순한 해석을 내린 다니엘 골드하겐(Daniel Goldhagen)과 비교한다.³¹⁾ 와인버그에 따르면, 몇몇 학자들이 홀로코스트를 ‘전쟁과 분리해서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과 반대로, 브라우닝은 이전까지의 홀로코스트 연구 성과와 동부전선의 전쟁 전개 과정의 맥락 속에 자신의 연구결과를 위치시키는데 성공했기에 학술적으로 중요한 저작을 저술했으나, 여전히 폴란드에서 근무하던 일반적인 독일인들의 사무적인 학살 행위를 2차대전의 ‘더 광범위한 속성과 목적’ 아래에서 해석하지는 못했다. 그리고 와인버그는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2차세계대전사』에서 모든 사건, 전투, 등장인물, 그리고 그들이 내린 결정과 만들어낸 정책을 서술했다. 와인버그는 15년이 넘는 시간을 들여 역사상 가

30) 크리스토퍼 브라우닝, 이진모 역, 『아주 평범한 사람들: 101예비경찰대와 유대인 학살』, 서울: 책과함께, 2010; 와인버그의 서평은 Gerhard Weinberg, “Browning and the Big Picture” in Jeffrey M. Diefendorf(ed.), *Lessons and Legacies VI: New Currents in Holocaust Research*, Evanston: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2004, pp.252-8.

31) 골드하겐은 일부 부대의 기록을 근거로 계층과 무관하게 전 독일인이 반유대주의적 이상을 강하게 공유하고 있었다고 의도주의자들의 해석을 과도하게 확대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골드하겐이 불러일으킨 논쟁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이진모, “나치의 유대인 학살과 ‘평범한’ 독일인들의 역할: 골드하겐 테제를 둘러싼 논쟁”, 『역사비평』 No.42 (1998), pp.249-267.

장 거대했던 전쟁을 히틀러의 인종주의를 바탕으로 한 외교정책과 전쟁의 수행을 중심에 놓고 하나의 화합물로 녹여내어 서술했다. 히틀러나 나치 독일, 혹은 홀로코스트를 전공한 수도 없이 많은 서구의 학자들이 각자의 주제를 둘러싼 논쟁에는 감정이 상할 정도로 치열하게 달려들었으나 자신이 직간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전쟁의 총체를 자신만의 관점으로 아우르는 대담한 시도는 쉽사리 찾아보기 힘들기에, 와인버그의 저작이 출간 직후부터 지금까지 그토록 많은 호평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³²⁾

5. 불균형한 '세계'대전

와인버그의 홀로코스트 또한 2차 대전의 '더 광범위한 속성과 목적'에 들어맞게 서술되었는지에 대해 검증하는 것은 가치 있을 것이다. 분명 인종주의적 목적을 가진 히틀러와 전쟁 초기의 독일의 유대인 절멸 정책과 실질적인 수행 방식에 대한 기술은 거대한 퍼즐에 알맞은 조각이었다. 하지만 와인버그가 다른 글에서 지적했듯 홀로코스트는 단지 2차대전과 시간적으로 동시에 일어난 일이 아니므로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되며 특히 전쟁의 군사적 진행상황이 홀로코스트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해야 함에도, 전쟁 중반기 이후 홀로코스트에 대한 서술은 전쟁 전체의 흐름에 부드럽게 녹아들지 않는다.³³⁾ 1942년 중순 영국군의 이집트-중동에서 철수 계획에서 "현지의 유대인들이 독일군에게 학살당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문제

32) 홀로코스트의 연구사는 이미 많은 글에서 다루어졌다. Stackelberg, *The Routledge Companion to Nazi Germany*의 4장을 참조하라.

33) Weinberg, "Some Myths of World War II", p.703.

가 있다는 점은 글의 흐름에도 어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쟁 전체에서 수많은 지역과 경우에 연합군들이 대체로 군사적인 관점에서 철수를 선택했음을 고려하면 유대인 학살을 ‘막지 못한’ 연합군에게 지나치게 큰 도덕적 책임감을 씌우는 듯하다.(2권 51쪽) 또한 빠른 속도로 진격하던 소련군을 믿고(혹은 그들에게 속아서) 용감하게 바르샤바에서 봉기를 일으켰던 폴란드 저항조직(Armia Krajowa)에 대해서는, 독일에 의해 처참하게 제압당했던 “1년 전에 벌어진 바르샤바 게토의 봉기”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시도였다고 힐난하는데, 이 단순한 비교로 인해 유대인의 영웅적이지만 비극적인 저항은 재차 주목 받는 것과 반대로 폴란드인들의 저항은 전례에서 제대로 교훈도 얻지 못한 안타까운 시도로 전락하고 말았다.(2권 233쪽)

사실 와인버그가 선택한 전형적인 위로부터의 역사에서는 학살당한 수백만의 유대인의 모습보다는 공개적으로 저항한 극소수만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 무관심 속에 “눈과 귀를 막고” 재앙을 방관했던 대다수의 독일인과 동맹국 주민들에 대한 와인버그의 비판은 잇을 만하면 등장하지만, 이는 대다수의 방관자와 피해자 집단으로서의 유대인과, 그에 영웅적으로 저항했던 소수의 영웅이라는 이분법을 강화한다.(2권 183쪽) 거액의 뇌물과 별다른 탈출구가 없다는 점 때문에 끝까지 히틀러를 지지했던 독일의 장군들과 동맹국의 기회주의적 친독파들은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나치의 눈을 피해 유대인을 숨겨주고 유럽 밖으로 도망갈 수 있게 도와준 무명의 천사들과 대비된다.(2권 177쪽) 동시대를 살았던 수많은 인간 군상을 이렇게 흑과 백으로 나누는 접근 방식은 복합적인 과거에 대한 차별화되고 세분화된 재구성을 어렵게 만들어 결국 과거를 통해 도덕적 규범을 제시하는 “추상적이고 알맹이 없는 역사교육”이 될

뿐이다. 와인버그는 일정 부분 이러한 도덕 교육을 의도한 것으로 보이거나 논쟁적인 접근 방식임에는 틀림없다.³⁴⁾

독일 내부에서는 이러한 이분법이 나치에 적극적으로 저항한, 특히 1944년에 히틀러의 암살까지 시도한 극소수의 용기있는 영웅들과 생활의 터전을 폭격으로 상실하자 정권을 뒤흔들기보다는 거기에 의존하기로 선택한 대다수로 나타난다.(3권 99, 131쪽) 동시에 독일 외부에서는 1942년에 20만 이상의 규모로 불어난 파르티잔이 이례적으로 주목받으나 그 외에 나치 치하에서의 삶을 견뎌야했던 수백만의 대중은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2권 130쪽) 와인버그 본인이 박사 학위 취득 후 50년대 후반부터 일정 기간 관련 연구를 수행했기에 동부 전선의 독일 측 후방에서 활약했던 파르티잔이 짧게라도 언급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럼에도 동유럽 전반에 대한 분석과 언급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노먼 데이비스(Norman Davies)의 비판은 적절해 보인다.³⁵⁾

사실 데이비스의 비판은 와인버그의 동부 전선 서술 전반에 걸쳐있다. 이는 와인버그가 다른 영미권 학자들보다 동부 전선에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고 자평할 뿐만 아니라 다른 학자들에게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34) 안병직, “과거청산과 역사서술 - 독일과 한국의 비교”, 『역사학보』 제177권 (2003), pp.225-246. 그에 따르면 이러한 흑백논리는 90년대 이후 급부상하는 일상사가 제시하는 새로운 관점과 접근방식으로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 일부는 독일에 점령당하고 일부는 괴뢰 정권에 의해 통치되었던 프랑스의 경우는 다음을 참조하라. 티머시 파슨스, 장문석 역, 『제국의 지배: 제국은 왜 항상 몰락하는가』, 서울: 까치, 2012, pp.433-519.

35) 와인버그는 박사학위 취득 후 미국 공군의 요청으로 2차 대전에서 소련이 실시한 파르티잔 활동을 연구하기 위해 하버드 대학교의 필 모즐리(Phil Moseley)가 이끄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데, 여기서 라울 힐베르크(Raul Hillberg), 얼 짐케(Earl Ziemke) 등의 학자들과 연을 맺게 된다. ‘인터뷰 스크립트’ pp.45-8; 데이비스의 비판은 다음을 참조하라. Norman Davies, “The Misunderstood War”, *The New York Review of Books* (June 9, 1994), pp.20-23.

주목할 필요가 있다.³⁶⁾(1권 32-33쪽) 데이비스는 소련군과 독일군의 충돌만이 책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그 군대들이 오고가면서 황폐화시킨 드넓은 동유럽 지역이 거의 주목받지 못한다고 강조하며 와인버그가 전반적으로 동유럽에 대한 이해가 떨어진다고 날카롭게 지적한다. 이는 동유럽 지역에만 한정되지 않아서, 전쟁 초반의 핀란드-소련 전쟁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던 소련군이 어느 순간 승기를 잡아서 유리한 외교전을 펼치는 장면에서는 어떤 이유로, 어떻게 전세가 역전되었는지도 전혀 설명하지 않은 채 저자는 장기인 협상 테이블 분석을 전개한다.(1권 137쪽) 이어서 폴란드에서 소련군이 자행한 악명 높은 카틴 숲 학살에 대해서는 아주 짧게 언급하고 넘어가는데 이러한 서술은 앞서 얘기했던 비극적이지만 영웅적인 바르샤바 유대인들의 저항에 대한 서술과 대조된다. 홀로코스트 못지않게 심각했던 일본의 잔학행위도 상대적으로 충분히 주목받지 못하며, 중국에서의 잔학 행위는 “(중일)전쟁 초반에 집중되었기에 저서의 연구 범위를 벗어나” 다루어지지도 않으며 전쟁 후반 필리핀에서 자행된 일본군의 대학살극은 병사들을 통제할 능력과 의지가 없었던 지휘관 탓으로 간단하게 돌려진다.(2권 204쪽, 3권 215쪽) 유행이 조금 지난 지구사의 용어를 빌리자면 와인버그의 2차 대전은 중심부(core)와 주변부(periphery)가 분명하게 구분되는데, 전투가 벌어지는 전선과 그 위에 있는 부대의 배비, 그것을 결정하는 정치가와 외교관들이 중심부에 놓여있고, 그 외 모든 사항은 주변부로 밀려난다. 여기서 중심부와 주변부 간의 연결은 자세히 설명되지 않는데, 그 연결부 속에 부자연스럽게 유대인 문제들이 제 위치를 찾으려하는

36) James M. Diehl의 서평, *The Journal of Military History* Vol.58 No.4(1994), pp.755-6 및 각주6번 Black의 서평을 참조하라.

바람에, 독일 외의 참전국들의 다양한 문제점들은 생략되며 최종적으로 유대인의 종말을 막아낸 연합군은 도덕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자연스럽게 인정받는다.³⁷⁾

이 책의 '주변부'에서 가장 심각한 부분은 후방 전선에 대한 언급이다. 와인버그는 후방 전선을 별도의 장으로 분리해서 서술하여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했고 일부 서평가들이 그 점을 높이 평가하기도 한다. 하지만 수많은 참전국들의 후방 전선을 병렬적이나 불균형하게 서술하고 무엇보다도 후방 전선이라는 복잡한 혼합체를 국민의 '사기'와 대체로 동일시하는 것은 일선 사령관들의 개인적인 관계까지 언급해주는 '전방 전선' 서술과 비교했을 때 큰 문제점으로 보인다.(2권 9장) 국가별로 나치의 범죄 행위를 대하는 다양한 국민들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점과 지휘관과 병사 집단을 동일시하는 오류에 빠지지 않았다는 점을 보면 와인버그도 1980년대에 폭증하던 사회사의 목소리를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일상사가 대두하는 1990년대 중후반을 지나고 출간한 개정판에 큰 변화가 없고 오히려 와인버그 본인의 해석에 큰 변화를 줄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단언하는 서문은, 그가 사회사나 일상사적인 접근을 통해 대중이라는 무기명 집단의 해체를 시도하는 유행에도 불구하고 주요 행위자에 집중하는 전통적인 통사에 충분히 어울린다.(1권 서문) 대다수 대중이 홀로코스트 희생자들을 향해 보여준 집단적 무관심이 그나마 그의 가장 진지한 사회사적 관심이며 반대 급부로 희생을 막거나 지연시켜준 일부 영웅들이 부각되면서 자연

37) 예를 들어 1939년부터 1941년까지 독일과 소련의 점령을 번갈아가며 받았던 폴란드 주민들의 참혹한 경험을 참고할 수 있다. Dieter Pohl, "War, Occupation and the Holocaust in Poland" in Stone, *The Historiography of the Holocaust*, pp.88-119; 연합국, 특히 미국에게 도덕적 우월성을 제공하는 주류 해석에 반기를 드는 입장은 다음을 참조하라. 자크 파월, 윤태준 역, 『좋은 전쟁이라는 신화: 미국의 제2차 세계대전, 전쟁의 추악한 진실』, 퍼주: 오월의봄, 2017.

스럽게 총통과 그 수족들은 절대악이 되고 희생자들은 절대선이 된다. 그리고 와인버그가 유대인들을 ‘해방’시켜준 연합군들이 선한 행위자라고 결론에서 재차 힘주어 강조했다기에, 그 천사들의 후방 전선에서도 굴락과 같은 끔찍한 공간이 전쟁 내내, 심지어 전쟁 이후에도 존재했다는 점은 나치스와 그 협조자 및 방조자라는 흑백 전선의 검은 편에 서있는 자들에게 도덕적 단죄를 내리고자 하는 와인버그의 접근을 민망하게 만든다.³⁸⁾

중심부와 주변부가 불균등하게 대접받는다라는 것이 중심부에 대한 서술이 균질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어떤 전투나 조직이 전쟁 전체에 얼마나 어떻게 기여했는가에 대한 논쟁은 인류가 수행했던 모든 전쟁과 마찬가지로 2차대전을 놓고도 전쟁 직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³⁹⁾ 그리고 한 전투나 장군에 과도하게 스포트라이트를 주지 않기에 오히려 전쟁을 총체적으로 보고자 하는 와인버그의 노력이 높이 평가 받는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그 과정에서 중요성이 있음에도 그 무게감을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는 에피소드들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대표적으로 영국전투는 단 한 페이지의 분량을 차지하며 이어지는 독일

38) 최근의 실증적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련은 특정 부류의 포로를 무조건 살해하는 정책이 없었으며 전쟁 중 흔히 발생하는 포로 살해를 막으려는 상부 명령을 지속적으로 하달하는 등 최소한의 균형 감각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기는 했다. Mark Edele, "Take (No) Prisoners! The Red Army and German POWs, 1941-1943", *The Journal of Modern History* No.88 (June 2016), pp.342-379; 미국이 국내에서 유색인종을 차별하는 근거였던 인종법은 나치에게도 시사점을 줄 정도로 정교하고 ‘현대적’이었다는 점을 지적한 최근의 저작을 참고하라. 제임스 Q. 윌트먼, 노시내 역, 『히틀러의 모델, 미국: 미국의 인종법은 어떻게 나치에 영향을 미쳤는가』, 서울: 마티, 2018; 또한 미국도 전쟁 중에는 인종주의적 사고가 지배했다는 것을 상기해야한다. Nancy Brack and John R. Pavia, "Racism in Japanese and U.S. Wartime Propaganda", *The Historian* Vol.56 No.4(1994), pp.671-684 와 John Dower, *War without Mercy: Race and the Power in the Pacific War*,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1986

39) Jeremy Black, *Rethinking World War Two: The Conflict and its Legacy*, London: Bloomsbury, 2015, p.103.

의 전략 폭격 시도도 거의 생략된다.(1권 183쪽) 이는 전반적으로 항공력이 전쟁 수행과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나 서술이 해양력의 그것과 비교했을 때 심각하게 불균형하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분명 와인버그는 그 가치에 걸맞은 주목을 받지 못했던 소련 해군의 활약상 등을 조명하여 균형감을 가지려 노력했다. 하지만 2000년대 초반의 많은 연구가 전쟁 당시의 항공력과 그 기여에 대해 전략 폭격에 한정된 단편적인 접근 방식을 넘어 종합적으로 이해하고자 했음에도 와인버그가 이를 반영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⁴⁰⁾

상술한 모든 불균형은 결국 태평양 전선에 대한 서술에서 더욱 잘 드러난다. 와인버그 본인이 박해를 피해 달아난 미국의 대학에서 일본사를 수강했으며 전후 징집되어 일본에서 수년간 복무하여 일본 사회를 간접 체험한 경험은 분명 2차 대전을 바라보는 다른 유럽인들보다는 균형적인 시각을 갖추는 데 도움을

40) 와인버그의 참고도서 목록에 영국 공군 공간사를 지나치게 많이 참고한 Max Hastings의 *Bomber Command*(London: Pan Books, 1981)가 포함되어 있는 반면 비슷한 시기에 출간되어 처음으로 2차대전의 항공력을 종합적으로 조망하려는 시도였던 Richard Overy의 *The Air War 1939-1945* (London: Potomac Books, 1980)가 빠진 것은 치명적인 대목이다. 마찬가지로 Williamson Murray의 중요한 저작인 *Luftwaffe* (Baltimore: Nautical & Aviation Publishing Co. of America, 1985)는 포함되어 있으나, 신장판이 나오는 2005년까지 새롭게 추가된 항공력과 관련된 주요 저서들은 전혀 소개되고 있지 않다. 와인버그가 많이 의존하는 공간사의 내제적인 문제점과 2차 대전 항공력 관련 주요 저서들은 다음을 참조하라. 특히 냉전은 전략폭격에 집중하는 해석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Peter Gray, *Air Warfare: History, Theory and Practice*, London: Bloomsbury, 2016, pp.17-36; 가장 최근의 저작으로는 다음의 두 저서를 반드시 참고해야한다. Richard Overy, *The Bombing War: Europe 1939-1945*, London: Allen Lane, 2013; Phillips Payson O'Brien, *How the War Was Won: Air-Sea Power and Allied Victory in World War II*,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5. Overy의 책은 와인버그가 충분히 조명하지 못한 동유럽 전역에 대한 항공력의 영향을 서술하고 있으며, O'Brien은 지상에서의 전쟁이 결정적이었다는 현재의 주류 해석을 다시금 뒤집으려고 시도하고 있다.

주었다.⁴¹⁾ 하지만 그의 관심이 원서 기준 100쪽이 넘어가는 참고도서 목록에 일본 도서를 추가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것은 명확하다. 와인버그는 전쟁 발발 과정에서 세계대전에 대한 개입을 중일전쟁의 연장선으로 생각했던 일본 수뇌부의 입장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얼마나 히틀러의 독일이 맞춰나가고 있던 거대한 퍼즐의 한 조각으로서 기능했는지에 주목하는데, 중국과 일본 사이에 벌어졌던 노구교 사건을 독일의 입장에서만 서술하는 부분에서 저자의 불균형이 가장 강하게 드러난다.⁴²⁾(1장 111쪽) 소련을 기점으로 미국 폭격기가 발진할 가능성에 노이로제와 같은 반응을 보였던 일본과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독일 간의 마찰은 몇 번이고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반면에, 유럽 대륙만큼 넓은 전장에서 지속적인 전투에 휘말리고 결과적으로 참전국 중 두 번째로 많은 인명피해를 견뎌야 했던 중국이 일본군을 맞아 어떻게 싸웠는지는 알기 어렵다. B-17에 대한 과도한 기대가 미국의 필리핀 방어 계획을 허술하게 만들었다는 점은 알려주었으나 전반적으로 부족한 전략폭격의 대한 서술은 그나마도 유럽 전역에서 영미 연합 항공력이 수행한 작전에 치우쳐있다. 일본 본토에 유일하게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미국의 대규모 장거리 타격 능력은 상대적으로 와인버그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데, 이는 결국 실시되지 않았던 대규모 상륙 계획인 올림픽과 코로나 작전에 대한 서술과 비교할 때 잘 드러난다.(1권 286쪽)

41) '인터뷰 스크립트', pp.36-8.

42) 이러한 와인버그의 독일중심 해석은 일본 저서를 통해 보완이 가능한데, 최근 국역된 저작으로 다음을 참조하라. 일본역사학회, 오일환·이연식·방일권 역, 『태평양전쟁사: 만주사변과 중일전쟁』(서울: 채문, 2017) 다양한 층위에서 일본의 전쟁 참여를 분석하며 특히 분석 범위를 메이지 유신 이후까지 확장하여 구조적 요인에 대해 집중한다. 1950년대에 일본 좌파 사학자들에 의해 쓰인 책이라는 점에 유의한다면(그에 따라 구조적 요인이 강조된다) 일본을 중심으로 둔 국제적 접근법은 와인버그의 독일 중심적 접근방식을 보완할 수 있는 좋은 시작점이다.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와인버그에 따르면 일본에 대규모 상륙 전을 펼치지 않고도 승리를 거두는 데 기여한 원자폭탄은 개발 과정이 2권에서, 사용과정이 3권에서 소개된다. 그는 이 신무기의 개발과 사용을 둘러싸고 펼쳐진 첩보전을 흥미롭게 다루지만, 그토록 짧은 시간에 사실상 새로운 산업을 새로 일으키는 정도의 대규모 투자에 성공한 미국의 거대한 산업 능력과 그게 불가능했던 일본의 차이는 아주 소략하게 소개한다.⁴³⁾(3권 239쪽) 이처럼 와인버그는 후방 전선을 대체로 사기의 측면에서 접근하기에 그와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산업에 대한 서술은 부족하다. 자연히 일본의 전쟁 경제에 대한 설명은 취약한데, 특히 해양 수송로를 통해야만 침탈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석유를 포함한 주요 전략적 자원들을 본토로 가져올 수 있었던 근본적인 지정학적 문제점과 그에 대한 당대인들의 인식을 정확하게 짚으면서도 그 약점을 철저하게 공략해서 태평양 전쟁 승리에 가장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평가받는 미국의 잠수함전 수행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하지 않는다. 이는 저자가 대서양 해전에 별도의 장을 할당한 점과 극명하게 대조된다.⁴⁴⁾(2권 94쪽) 초반에 언급한 버마 전선에서 활약한 마운트배튼과 슬림은 결과적으로 전선에서 연합군을 승리로 이끈 식견이 있는 지휘관으로 묘사되지

43) 오버리는 원자폭탄을 단순히 새롭게 등장한 강력한 군사무기라기보다는 전쟁 중에 과학과 기술을 대하는 양측의 상반된 태도 및 실현 가능한 신무기 연구에 투자를 집중할 수 있게 만드는 결정과정의 차이에 따른 결과물로 본다. Overy, *The Air War*, pp.185-202. 원자폭탄을 만들기 위한 맨해튼 프로젝트가 B-29 개발 프로젝트보다 비용이 덜 들었다는 것이 종종 지적되지만, 프로젝트 자체가 “역사상 가장 거대한 군사적·과학적·공학적인 과제였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리처드 R. 물러, “태평양 항공전, 1941~1945년”, 올슨 편, 『항공전의 역사』, pp.94-131.

44) 도조 히데키 당시 일본 총리는 맥아더의 섬 건너뛰기 전역, 빠른 함모 기동부대의 작전, 일본 상선에 대한 잠수함 전역을 전쟁 패배의 주요한 요인으로 꼽았다. 물러, “태평양 항공전”, p.126에서 재인용.

만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부하들을 이끌었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으며, 결론에서 이러한 국제적 시각을 지닌 지휘관이 “단일 전선”에서 전쟁을 수행한 소련에게는 없었다고 명시하여 결국 와인버그의 주변부인 동부 전선과 아시아 전선에 대한 분석의 취약점이 드러난다.(3권 17장) 어쩌면 대작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단점들은 어떤 저자가 2차대전 통사를 서술하려고 시도 한들 드러날 수밖에 없는, 연구 대상의 넓이와 깊이가 한 명의 연구자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넘어서기에 발생하는 내재적인 문제점일지도 모른다. 케임브리지 대학교 출판부가 최근에 출판한 2차 대전사에 무려 81명의 학자를 동원한 것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보편적인 접근 방식으로 보인다.⁴⁵⁾



6. 나가는 말

추천사에서도 강조하듯 이 책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엄청난 양의 참고도서 목록과 말미에 소개된 독서 가이드이다. 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70년대와 80년대를 관통하는 2차 대전과 관련한 주류 해석과 그 시기에 새롭게 공개되기 시작했던 자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와인버그의 『2차대전사』는 이미 많이 누적된 관련 연구들을 광범위하게 참조하여 본인의 관점을 중심으로 2차대전을 서술한 통사이다. 2차대전을 다루는 수많은 연구자들 중 극히 일부만 도전하는 이 과감한 시도

45) *The Cambridge History of the Second World Wa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5. 1권(*Fighting the War*)은 Richard Bosworth와 Joseph Maiolo, 2권(*Politics and Ideology*)은 John Ferris와 Evan Mowdsley, 3권(*Total War: Economy, Society and Culture*)은 Michael Geyer와 Adam Tooze가 각각 편저를 담당하였다.

에서 그는 독일과 히틀러, 특히 그의 외교정책과 홀로코스트로 대표되는 인종정책이 어떻게 전쟁을 일으키고 국제적인 규모로 확장시키는지 하나의 내러티브로 엮어낸다. 이를 통해 그는 히틀러에게 전쟁과 학살의 의도가 있었으며 그 목표는 국제적이었다는 명확한 입장을 취하면서 그 주제를 2차대전사 전체에 녹여내어 전쟁과 전쟁 중에 벌어진 일을 분리해서 접근하는 당대의 학자들을 비판한다.

다만 복잡하고 거대한 전쟁에서 저자의 중심이 명확한 탓에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지점이 드러난다는 것은 저서의 제목에서 잘 드러나는 국제적 시각에 비추어보면 아쉽다. 와인버그는 일본보다 독일을, 소련군보다 영미연합군을, 국민보다 소수의 지도자를, 대중보다 영웅에 집중하는데, 외교사가로서 불가피한 부분을 인정하더라도 신장판에서조차 수정을 시도하지 않는 부분은 치명적이다. 결과적으로 이 책의 초판이 나온 이래 20년이 지나서야 국문으로 번역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80년대에 그 모체를 두고 있는 저서가 가진 한계는 다른 역서나 최신 연구 성과로 독자가 별도로 보완해야 한다.

이러한 불균형이 결코 앞서 강조한 저서의 가치를 상쇄할 정도는 아니다. 무엇보다도 일반 독자와 학계의 관심도와 비교했을 때 국내에 소개된 2차 대전 통사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점에서, 늦게나마 국내에 소개해준 역자에게 감사할 따름이며 특히 비교적 최근에 출판된 역서들 중에서 가장 전통적인 접근법을 취하고 있는 외교사가의 저서라는 점에서 유관 전공자나 관심 있는 국내 독자라면 숙독해야 할 독서 목록에 포함시켜야 한다. 와인버그의 『2차대전사』는 역서 말미에 병렬적으로 안내한 2차 대전 관련 도서들이 다루고 있는 주제들이 위치한 맥락을 알려주는 좋은 지도가 될 것이다.

(원고투고일 : 2018. 10. 2, 심사수정일 : 2018. 11. 11, 게재확정일 : 2018. 11. 19)

주제어 : 제2차 세계대전, 제러드 와인버그, 외교사, 지구사, 히틀러, 홀로코스트,
의도주의자, 국제주의자



〈참 고 문 헌〉

1. 단행본

1-1. 국내도서

- 놀테, 에른스트, 유은상 역, 『유럽의 시민전쟁 1917-1945: 민족사회주의와 불세비즘』, 서울: 대학춘, 1996
- 만슈타인, 에리히 폰, 정주용 역, 『잃어버린 승리: 만슈타인 회고록』, 고양: 좋은땅, 2018
- 브라우닝, 크리스토퍼, 이진모 역, 『아주 평범한 사람들: 101예비경찰대대와 유대인 학살』, 서울: 책과함께, 2010
- 브로샤트, 마르틴, 김학이 역, 『히틀러국가: 나치 정치혁명의 이념과 현실』, 서울: 문학과지성사, 2011
- 비버, 앤터니, 김규태 · 박리라 역, 『제2차 세계대전: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의 역사』, 파주: 글항아리, 2017
- 올슨, 존 안드레아스 편, 강창부 역, 『항공전의 역사』, 파주: 한올아카데미, 2017
- 일본역사학연구회, 오일환 · 이연식 · 방일권 역, 『태평양전쟁사: 만주사변과 중일전쟁』, 서울: 채륜, 2017
- 와인버그, 제러드 L., 홍희범 역, 『2차세계대전사 1: 뒤집어진 세상』, 과천: 길찾기, 2016
- 와인버그, 제러드 L., 홍희범 역, 『2차세계대전사 2: 전세 역전』, 과천: 길찾기, 2016
- 와인버그, 제러드 L., 홍희범 역, 『2차세계대전사 3: 베를린에서 미주리 합상까지』, 과천: 길찾기, 2016
- 위트먼, 제임스 Q., 노시내 역, 『히틀러의 모델, 미국: 미국의 인종법은 어떻게 나치에 영향을 미쳤는가』, 서울: 마티, 2018
- 주크스, 제프리 등 8인, 강민수 역, 『제2차 세계대전: 탐욕의 끝, 사상 최악의 전쟁』, 서울: 플래닛미디어, 2008
- 처칠, 윈스턴, 차병직 역, 『제2차 세계대전: 下』, 서울: 까치, 2016
- 커쇼, 이언, 이희재 역, 『히틀러II: 몰락 1936~1945』, 서울: 교양인, 2010
- 키건, 존, 류한수 역, 『2차 세계대전사』, 서울: 청어람미디어, 2007
- 케네디, 폴, 김규태 · 박리라 역, 『제국을 설계한 사람들: 제2차 세계대전의

- 흐름을 바꾼 영웅들의 이야기』, 파주: 21세기북스, 2015
- 테일러, A.J.P., 유영수 역, 『제2차 세계대전의 기원』, 서울: 지식의 풍경, 2003
- 파슨스, 티머시, 장문석 역, 『제국의 지배: 제국은 왜 항상 몰락하는가』, 서울: 까치, 2012
- 파월, 자크, 윤태준 역, 『좋은 전쟁이라는 신화: 미국의 제2차 세계대전, 전쟁의 추악한 진실』, 파주: 오월의봄, 2017
- 히틀러, 아돌프, 황성모 역, 『나의 투쟁』, 서울: 동서문화사, 2014

1-2. 외국도서

- Black, Jeremy, *Rethinking World War Two: The Conflict and its Legacy*, London: Bloomsbury, 2015
- Bosworth, Richard and Joseph Maiolo(eds.), *The Cambridge History of the Second World War Vol.I: Fighting the Wa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5
- Diefendorf, Jeffrey M.(edi.), *Lessons and Legacies VI: New Currents in Holocaust Research*, Evanston: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2004
- Dower, John, *War without Mercy: Race and the Power in the Pacific War*,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1986
- Earle, Edward, Gordon Craig and Felix Gilbert(eds.), *Makers of Modern Strategy: Military Thought from Machiavelli to Hitler*,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43
- Ferris, John, and Evan Mowdsley(eds.), *The Cambridge History of the Second World War Vol.II: Politics and Ide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5
- Geyer, Michael and Adam Tooze(eds.), *The Cambridge History of the Second World War Vol.III: Total War: Economy, Society and Cultur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5
- Gilbert, Martin, *The Second World War: A Complete History*, London:

- Phoenix, 2009[1st edi. Widenfeld & Nicolson, 1989]
- Gray, Peter, *Air Warfare: History, Theory and Practice*, London: Bloomsbury, 2016
- Hastings, Max, *Bomber Command*, London: Pan Books, 1981
- Mitter, Rana, *Forgotten Ally: China's World War II, 1937-1945*, Boston: Houghton Mifflin Harcourt, 2013
- Murray, Williamson, *Luftwaffe*, Baltimore: Nautical & Aviation Publishing Co. of America, 1985
- O'Brien, Phillips Payson, *How the War Was Won: Air-Sea Power and Allied Victory in World War II*,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5
- Overy, Richard, *The Air War 1939-1945*, London: Potomac Books, 1980
- Overy, Richard, *The Bombing War: Europe 1939-1945*, London: Allen Lane, 2013
- Stackelberg, Roderick, *The Routledge Companion to Nazi Germany*, New York: Routledge, 2007
- Stone, Dan, *The Historiography of the Holocaust*,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4
- Tooze, Adam, *The Wages of Destruction: The Making & Breaking of The Nazi Economy*, London: Penguin, 2007[1st edi. Allen Lane, 2006]
- Weinberg, Gerhard(edi.), Krista Smith(trans.), *Hitler's Second Book: The Unpublished Sequel to Mein Kampf*, New York: Enigma Books, 2003
- Weinberg, Gerhard, *The Foreign Policy of Hitler's Germany: Diplomatic Revolution in Europe, 1933-36*,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0
- Weinberg, Gerhard, *The Foreign Policy of Hitler's Germany: Starting World War II, 1937-1939*,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0
- Weinberg, Gerhard, *Hitler and World War II: Essays in Modern German*

and World Hist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Weinberg, Gerhard, *A World at Arms: A Global History of World War II*,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2. 논문

안병직, “과거청산과 역사서술 - 독일과 한국의 비교”, 『역사학보』 제177권
(2003): 225-246

UCI : <http://uci.or.kr/G704-000356,2003,177..007>

이진모, “나치의 유태인 학살과 ‘평범한’ 독일인들의 역할: 골드하겐 테제를 둘러싼
논쟁”, 『역사비평』 No.42 (1998): 249-267

Brack, Nancy and John R. Pavia, “Racism in Japanese and U.S. Wartime
Propaganda”, *The Historian* Vol.56 No.4 (1994): 671-684

Eckel, Jan, “Hans Rothfels: An Intellectual Biography in the Age of
Extremes”, *Journal of Contemporary History*, Vol.42 No.3 (Jul
2007): 421-446

DOI : <http://doi.org/10.1177/0022009407078335>

Edele, Mark, “Take (No) Prisoners! The Red Army and German POWs,
1941-1943”, *The Journal of Modern History* No.88 (June 2016): 342-379

DOI : <https://doi.org/10.1086/686155>

Klemperer, Klemens Von, “Hans Rothfels, 1891-1976”, *Central European
History*, Vol.9 No.4(1976): 381-383

DOI : <https://doi.org/10.1017/S0008938900018318>

Weinberg, Gerhard, "Some Myths of World War II", *The Journal of
Military History* Vol.75 (July 2011): 701-718

Zhang, Haipeng, "The two starting points of World War II: a
reexamination from a global perspective", *Journal of Modern
Chinese History*, Vol.10 No.1 (2016): 52-66

DOI : <https://doi.org/10.1080/17535654.2016.1168164>

3. 서평, 신문기사 및 온라인

Black, Jeremy, "A World at Arms: A Global History of World War II, by Gerhard Weinberg", *The Historical Review*, Vol.121, No.494(2006): 1559
DOI : <https://doi.org/10.1093/ehr/cel361>

Davies, Norman, "The Misunderstood War", *The New York Review of Books* (June 9, 1994): 20-23

Diehl, James, "A World at Arms: A Global History of World War II, by Gerhard Weinberg", *The Journal of Military History* Vol.58 No.4(1994): 755-6
DOI: <http://doi.org/10.2307/2944292>

Reynolds, David, "Over There, and There, and There", *The New York Times* (Feb 20, 1994): 7007013

Detwiler, Donald, "A Flawed Masterpiece", *H-Net Reviews* (Apr, 2006),
<https://networks.h-net.org/node/35008/reviews/44594/detwiler-weinberg-world-arms-global-history-world-war-ii>
(검색일: 2018.9.8.)

Gross, Daniel A., "A Historian who fled the Nazis and still wants us to read Hitler", *The New Yorker* (Dec 30, 2015)
<https://www.newyorker.com/books/page-turner/a-historian-who-fled-the-nazis-and-still-wants-us-to-read-hitler>
(검색일: 2018.9.29.)

"Conversation with Gerhard Weinberg: What We Still Have to Learn about the War", *World War II Magazine* (Aug 2018),
<http://www.historynet.com/conversation-gerhard-weinberg-still-learn-war.htm>
(검색일: 2018.8.25.)

"Interview with Gerhard Weinberg"(인터뷰 스크립트), United States Holocaust Memorial Museum,
<https://collections.ushmm.org/search/catalog/irn74729>
(검색일: 2018.9.8.)

<Abstract>

An Unbalanced account of the Second 'World' War: A Critic on A World at Arms: A Global History of World War II

Lee, Sang-hyun

Gerhard Weinberg's *A World at Arms: A Global History of World War II* was translated into Korean in 2016. The book was a brave attempt to make a wholistic narrative of the Second World War focused on Hitler's racial foreign policy and the Holocaust. Weinberg wrote it throughout the 1980s and published the first edition in 1994. However, the author did not change his approach and analysis even until 2005 when the new edition was published; thus continues his theme of 1980's historical approaches and diplomatic history. This book is now finally introduced in Korea with almost 20 years old perspective.

The biggest strength of this work is that it illustrated a 'big picture' of the war with a focus on the contingency of battles, theatres, strategies and diplomacies, especially in terms of the global intention of Hitler. It distinguishes Weinberg from many other historians who have failed to provide the overall flow of the Second World War by over-emphasizing stories of 'Great Men' and famous battles. His classical perspective as a diplomatic historian allows his readers the great benefit to look at the war 'from the above'.

Despite his clear centre of gravity, however, Weinberg still has some drawbacks. The Hitler-centric approach inevitably makes the narrative to be Europe centric, especially Germany. Weinberg's

Holocaust is not well located in the general context of the world conflict, and the opposite scholars, who vigorously criticise the classic approach on the German history, are simply neglected. The new edition was published on 2005, yet cultural and social histories were almost not considered, while air power was not dealt with as seriously as naval power, and the Home Front was simplified as peoples' will. Therefore, although this book is one of the most recent publications on the general history of the Second World War, it needs to be supported by other more recent studies.

Key words : the Second World War, Gerhard Weinberg, Diplomatic history, Global history, Hitler, the Holocaust, intentionalist, globalist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18, No. 109, pp.205-244
<https://doi.org/10.29212/mh.2018..109.6>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북한 조국보위후원회의 설립과 활동

문미라*

1. 머리말
2. 조국보위후원회의 설립과 한국전쟁 이전의 역할
 - 가. 조국보위후원회의 설립 배경과 조직 과정
 - 나. 군대원호사업과 군사지식의 보급
3. 한국전쟁 시기 조국보위후원회의 활동 변화와 역할
 - 가. 전시체제의 확립과 조국보위후원회의 기능 변화
 - 나. 조국보위복권의 발행과 군비 확충
4. 맺음말

1. 머리말

한국전쟁 관련 연구의 주제와 소재는 점차 다양화되어

*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 박사과정 수료

왔다.¹⁾ 이 가운데 최근 들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 분야는 한국전쟁을 직접 겪은 보통 사람들에 대한 연구다. 한국전쟁의 미시사 혹은 사회사라고 명명할 수 있는 이러한 연구들은 국가의 전시동원체제 속에서 삶을 영위한 다양한 역사 주체들을 발굴함으로써, 국가와 민족 중심의 거대서사에서 소외되어 왔던 개인의 전쟁 경험을 복원하고자 하였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진행된 연구들이 주목한 주제는 주로 민간인 학살과 점령정책, 후방지역에서의 전쟁 동원, 여성과 월남민의 삶 등이다.

이를 통해 아래로부터의 한국전쟁 서술이 일정 정도 학문적 시민권을 획득했지만 몇 가지 한계도 있다. 먼저 연구 대상이 남한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주한유엔민간원조사령부(UNCACK)의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전쟁 당시 사람들의 일상을 조명한 연구,²⁾ 서울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후방지역의 치안 문제를 분석한 연구,³⁾ 남북한과 유엔의 점령정책을 다룬 연구⁴⁾ 등이 대표적이다. 구술사 연구방법론이 필수적인 민간인 학살 연구 또한 남한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북한 주민들이 경험한 한국전쟁 연구는 여성이라는 특정 주체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⁵⁾ 물론 북

1) 국내의 학계의 한국전쟁 연구 동향을 포괄적으로 정리하고 그 사학사적 의미를 짚고 있는 연구로는 김태우, 「한국전쟁 연구 동향의 변화와 과제, 1950~2015」, 『한국사학사학보』 32, 한국사학사학회, 2015 참조.

2) 서중석 외, 『전장과 사람들 : 주한유엔민간원조사령부 자료로 본 한국전쟁의 일상』, 선인, 2010.

3) 강혜경, 「한국전쟁기 후방 치안유지와 경찰」, 『인문과학연구』 30, 성신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2; 강혜경, 「한국전쟁기 서울 경찰과 후방치안」, 『인문과학연구논총』 35, 명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3.

4) 기광서 외, 『한국전쟁기 남·북한의 점령정책과 전쟁의 유산』, 선인, 2014. 이 책은 남북한 모두를 아우르고 있으나 주제의 상당 부분이 북한 지도부가 남한지역에서 펼친 점령정책에 집중되어 있고, 한국정부와 유엔의 북한지역 점령을 다룬 글은 민간인의 일상이 부각되기보다는 정책에 대한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5) 박영자, 「6·25전쟁과 북한여성의 노동세계 : '파괴와 재생산'의 전쟁에서 '창조와 생산의 주체'였던 여성 연구」, 『아시아여성연구』 45-2,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2006; 조영주, 「북한 여성의 전쟁 경험과 인민되기」, 김귀옥 외,

한사의 범주에서도 북한의 전시동원체제 작동 과정에서 후방지역 주민들의 노동력 제공 및 물자 동원 실태를 분석한 연구,⁶⁾ 미군의 폭격으로 인해 밤낮을 바꾸어 가며 지하생활을 해야 했던 북한 주민의 일상을 그려낸 연구,⁷⁾ 중국인민지원군의 후방지원 활동과 북한 주민과의 상호작용을 분석한 연구⁸⁾ 등 관련 주제가 점차 확장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남한 민간인이 경험한 한국전쟁 연구가 상당히 축적되어 있는 것에 비해 북한사 영역에서의 그것은 이제 막 걸음마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북한의 조국보위후원회는 이 두 가지 결락 지점을 모두 보완할 수 있는 연구 주제다. 조국보위후원회는 조선인민군 원호사업을 목적으로 한 단체로, 한국전쟁 발발 약 1년 전인 1949년 7월 15일 설립되었다. 이후 이 단체는 비행기·탱크·함선기금 헌납운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군사지식 보급과 민간 군사훈련 등을 담당하였고, 전쟁 발발 이후에도 비슷한 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조국보위후원회의 활동은 후방지역에서 북한 주민 일반이 대부분 공통적으로 체험한 한국전쟁의 일면을 드러내주는 창(窓)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조국보위후원회의 존재 자체는 매우 일찍부터 알려져 있었고,⁹⁾ 이후에도 여러 편의 논저에서 조국보위후원회를 부분적으로 거론해 왔다.¹⁰⁾ 이 연구들은 조국보위후원회의 결성 배경과 그

『여성(들이 기억하는 전쟁과 분단』, 아르케, 2013; 안태운, 「북한여성들이 겪은 한국전쟁 -전쟁동원활동과 체제하의 생존전략-」, 『여성과 역사』 20, 한국여성사학회, 2014; 안태운, 「전후 북한여성의 삶과 탈북의 전략적 선택」, 『여성과 역사』 24, 한국여성사학회, 2016.

6) 한성훈, 『전쟁과 인민 :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성립과 인민의 탄생』, 돌베개, 2012.

7) 김태우, 『폭격 : 미공군의 공중폭격 기록으로 읽는 한국전쟁』, 창비, 2013.

8) 문미라, 「한국전쟁 시기 중국인민지원군·연변(延邊) 조선인 사회의 ‘후방지원’ 활동과 북중 ‘혈맹’ 관계의 강화」, 『동북아역사논총』 57, 동북아역사재단, 2017.

9) 김남식, 『남로당 연구 I』, 돌베개, 1984, 411~412쪽.

10)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II : 기원과 원인』, 나남출판, 1996, 777~785

성격, 설립 목적과 가입자 수, 한국전쟁 전 조국보위후원회가 주도했던 비행기·탱크·함선기금 헌납운동의 성과 등을 짚막하게 소개하고 있다. 조국보위후원회 사업을 강제성을 띤 회사운동과 할당식 기금 조성 사례로 지적한 연구도 있다.¹¹⁾ 조국보위복권 발행사업으로 대표되는 전쟁 기간 중 조국보위후원회의 활동을 분석한 박영자의 논문은 그간 전쟁 이전 시기에 국한해 언급되었던 조국보위후원회 관련 논의의 시간적 범위를 확장하고, 후방지역 북한 주민의 전쟁 동원 실태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¹²⁾

이상의 연구들로 조국보위후원회의 존재와 역할이 부분적으로 밝혀졌지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첫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연구가 북한의 공식 간행물에 크게 의존하여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조국보위후원회가 결성 한 달 정도 만에 269만여 명의 회원을 거느린 초대형 대중조직으로 발전하였다는 북한의 서술이 무비판적으로 수용되었고, 결성 배경·과정이 매우 간단하게 처리되었다. 둘째, 박영자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조국보위후원회의 전쟁 이전 모습에만 주목하였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전쟁 수

쪽; 김광운, 『북한 정치사 연구 I : 건당·건국·건군의 역사』, 선인, 2003, 590쪽;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 1945~1961』, 선인, 2005, 273~274쪽; 김용현, 「로동신문 분석을 통한 북한정치 변화 연구 : 1945~1950」, 『북한연구학회보』 7-1, 북한연구학회, 2003, 122~123쪽; 황성철, 『北韓軍의 韓國戰爭遂行 戰略에 關한 研究 : 클라우제비츠의 摩擦理論을 中心으로』,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박사학위논문, 2008, 163~165쪽; 김광수, 「북한정권 성립 이후 '통일' 전략 논의와 전쟁 준비 -1948년 9월부터 1950년 1월까지를 중심으로-」, 『군사』 7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1, 21~22쪽.

11) 김재웅a, 「북한의 민간자원 동원정책과 일상적 동원체제의 형성(1945~1953)」, 『한국사연구』 175, 한국사연구회, 2016, 251~254쪽.

12) 박영자, 「6·25전쟁기 북한의 '후방' 정책 -후방 전시동원에 대한 『로동신문』 분석을 중심으로-」, 『군사』 5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5. 하지만 조국보위후원회 자체를 시야의 중심에 둔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전쟁 이전의 설립 과정과 역할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조국보위복권 발행사업도 매우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행을 위해 만들어진 이 단체가 정작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는 어떤 활동을 펼쳤는지 거의 드러난 바 없고, 전쟁 이후의 해체도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전쟁 이전의 활동 역시 비행기·탱크·함선기금 헌납운동을 중심으로 설명되고 있어, 이외에는 이 단체가 무슨 역할을 담당했는지 베일에 쌓여있다.

요컨대 기존의 모든 논저에서 조국보위후원회는 하나의 사례나 부차적인 소재로 다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단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조국보위후원회 결성부터 해체까지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북한관계사료집』에 수록된 인제군 문서, 미군 노획문서 중 조국보위후원회 초급단체 회의록 및 조국보위후원회 중앙본부 기관지 『조국보위를 위하여』, 『로동신문』 등을 활용하여, 조국보위후원회의 결성 배경과 과정을 세밀하게 추적하고 전쟁 발발 전후 조국보위후원회가 어떠한 활동을 전개했는지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전쟁 이전 북한의 전시동원체제 확립 양상과 그 성격, 전쟁 이후 보통 사람들이 경험한 ‘일상으로서의 한국전쟁’의 단면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2. 조국보위후원회의 설립과 한국전쟁 이전의 역할

가. 조국보위후원회의 설립 배경과 조직 과정

조국보위후원회가 만들어진 것은 1949년부터 시작된 군사적 성격의 38선 충돌 및 북한의 전쟁 준비 전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1949년 초부터 시작된 남한의 공세적 38선 압박과 이승만의 호전적인 ‘실지(失地)회복론’은 북한 지도부에게 무장 강화의 필요성을 환기하는 동시에, 평화공세를 벌일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했다.¹³⁾ 이후 북한은 평화적 통일과 안정을 바라는 반면 남한은 무력에 의한 도발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북한 당국의 선전이 대대적으로 행해졌다.

5월이 되자 38선 부근에서는 연대급 규모의 전투가 발발하기 시작했다. 연대급 전투가 처음으로 발화한 것은 5월 4일 개성 송악산전투였다.¹⁴⁾ 뒤이어 6월 28일 시작된 호림부대(虎林部隊)의 집요한 북한 침투와 8월 6~20일간 이어진 강원도 인제군 남면전투(南面戰鬪)는 남북이 1949년에 이미 전시상태에 돌입하였음을 보여주는 징후였다.¹⁵⁾ 특히 호림부대의 침투와 북한지역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학살·방화·약탈은 북한 주민들에게 전쟁이 눈앞에 다가왔음을 실감하게 하였다. 1949년 11월 3일 열린 조국보위후원회 조선중앙통신사 종업원 쫓기대회에서, 조국보위후원회의 필요성 중 하나로 “호림부대의 죄악과 38선 무장충돌”을 거론한 것은 이 같은 사회 분위기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¹⁶⁾

이렇게 전쟁 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진짜’ 전쟁에 대비한 동원체제 확립이 절실했다. 민간인을 동원하고 군대와 사회의 접점을 형성함으로써 ‘전 사회의 군사화’를 달성하고, 철저하고도 광범위한 동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했던 것이다. 이는 기존에 조직되어 있던 북조선민주청년동맹(이하 민청), 북조선민주녀성

13) 정병준, 『한국전쟁 : 38선 충돌과 전쟁의 형성』, 돌베개, 2006, 258~269·290~291쪽.

14) 위의 책, 273~276쪽.

15) 김재웅b, 「북한의 38선 접경지역 정책과 접경사회의 형성 -1948~1949년 강원도 인제군을 중심으로-」, 『한국사학보』 28, 고려사학회, 2007, 174쪽. 이 논문의 138~140쪽에는 남면전투의 내용과 이로 인한 인제군 주민들의 동원 실태가 상세히 논의되고 있다. 호림부대의 설립 취지와 창설 경위, 주요 활동 등은 정병준, 앞의 책, 370~375쪽; 김재웅c, 「38선 분쟁과 접경지역 위기에 대처한 북한의 민간인 동원정책」, 『한국학논총』 45,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6, 264~266쪽 참조.

16) 「조국보위를 위한 조선중앙통신사 종업원 쫓기대회 보고서」(1949.11.3),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소장 마이크로필름 자료.

동맹(이하 녀맹) 등의 사회단체와는 달리, 전쟁 준비에 ‘특화’된 또 다른 기구가 필요해짐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바로 이런 맥락 속에서 등장한 것이 전 사회적 대중동원단체인 조국보위후원회였다. 조국보위후원회의 탄생은 전쟁으로 가는 북한 사회의 단면을 상징하는 사건이었다.

이 같은 배경 아래에서 1949년 7월 15일 민청, 녀맹, 북조선 농민동맹(이하 농맹), 북조선직업총동맹(이하 직맹) 등 사회단체들의 공동 발기로 조국보위후원회 결성준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조국보위후원회 결성준비위원회는 조직의 강령규약 초안을 채택하고 하급단체의 조직 준비에 따르는 제반 사업에 착수하였다.¹⁷⁾ 이어서 각 지역별 준비위원회가 잇달아 결성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강원도에서는 7월 17일, 평안남도·황해도·함경남북도에서는 19일, 자강도에서는 21일에 각각 결성준비위원회가 조직을 완료하고 시·군·리의 하부조직 설치에 관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였다.¹⁸⁾ 평양시에서도 23일 각 사회단체 대표 11명을 구성원으로 하는 조국보위후원회 평양시준비위원회가 만들어졌다.¹⁹⁾

이리하여 각 지역·단위별로 조국보위후원회가 조직되기 시작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북한에서 출판된 논저들은 공통적으로 조국보위후원회 결성준비위원회 발족 한 달여 만인 1949년 8월 말에 농촌의 마을 단위까지 지부 조직을 완료하여, 2만 5천여 개의 초급단체와 269만 1천여 명의 회원을 망라하였다고 서술

17) “조국보위후원회 결성준비위원회 조직”, 『로동신문』, 1949년 7월 17일, 1면.

18) “조국보위후원회 각도 결성준비위원회 조직”, 『로동신문』, 1949년 7월 24일, 1면.

19) “조국보위후원회 평양시준비위원회”, 『로동신문』, 1949년 7월 23일, 1면. 평양시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평양시 민청위원장 리석한, 부위원장으로는 직맹 평안남도 평의회 서기장 김해식이 각각 선출되었다. 준비위원회 구성원 및 지도부의 면면으로 보아, 조국보위후원회의 발족에는 북한에서 이미 조직된 사회단체들이 매우 큰 역할을 하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

하고 있고,²⁰⁾ 선행연구는 이를 그대로 수용하였다.²¹⁾ 1949년 공민등록에 의해 집계된 당시 북한의 인구는 962만여 명이었으므로,²²⁾ 269만 1천여 명은 전체 인구의 28%에 해당하는 수치다. 조국보위후원회는 16세 이상부터 회원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²³⁾ 16세 미만 인구를 제외하면 그 비율은 더 높아진다. 이는 과연 사실일까? 특히 면·리 단위에서의 조직 상황은 어땠을까? 기존 연구는 이에 전혀 주목하지 않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북한의 선전과 달리 지방 단위에서의 조국보위후원회 조직은 순조롭게 추진되지 않았다. 강원도 인제군의 경우 1949년 9월 13일 현재 농촌 29개 리 중 27개 리, 학교 6곳 중 2곳, 사무직장 25개소 중 8개소 등 모두 51% 밖에 결성되지 못했으며, 회원 역시 전 대상자의 50%만이 가입을 완료한 상태였다.²⁴⁾ 인제군 남면당에서는 조국보위후원회가 설립된 지 3개월 가까이가 지난 10월에도 이 사업의 의미를 “전체 인민들에게 옹게 인식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이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고 반성하거나, 당 간부들이 조국보위후원회에 “이제껏 관심이 없었다”고 자백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²⁵⁾ 리 단위에서는 더욱 심각하여, 10월 말 현재 인제군 남면 두무리의 조국보위후원회 가입률은 31%, 신월리는 21%에 불과

20)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편, 『조선전사』 24, 평양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280~286쪽; 최옥향,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새 조국건설 시기 조국보위후원회의 결성과 그 활동」, 『력사과학』 216, 평양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0, 5쪽.

21) 대표적으로 서동만, 앞의 책, 274쪽; 김용현, 앞의 논문, 122쪽.

22) 김두섭 외, 『북한의 인구와 인구 센서스』, 통계청, 2011, 18쪽.

23) 최옥향, 앞의 논문, 5쪽.

24) 「북조선로동당 강원도 인제군당 상무위원회 회의록 제61호」(1949.9.13), 『북한관계사료집』 3, 국사편찬위원회, 1985, 593~594쪽. 이하에서 『북한관계사료집』을 인용할 때는 『사료집』으로 약칭하고, 발행처와 발행연도를 생략하였다.

25) 「북조선로동당 강원도 인제군당 남면당 열성자대회 회의록」(1949.10.10), 『사료집』 4, 570~571쪽.

했다.²⁶⁾

해를 넘긴 1950년 3월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조국보위후원회 인제군본부는 그 시점까지 가입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차 장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결성이 완료되었지만 전혀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예컨대 인제군 북면 원통리와 북리 초급단체는 당시까지 단 한 번의 총회도 개최하지 못했고, 서화면 이포리와 서희리에서는 비행기·탱크·함선기금 헌납운동에 한 명도 참가하지 않고 있었다.²⁷⁾ 심지어 전쟁 발발 이후에도 회원 확대사업이 계속되었으나 여전히 잘 진행되지 않는 지역이 적지 않았다. 북한 지도부는 조국보위후원회 당조 및 초급단체 검열을 통해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지만 역부족이었다.²⁸⁾

갑작스럽게 거의 대부분의 민간인을 포괄하는 단체를 조직해야 했던 지방 간부들은 실제 회원 가입을 독려하기보다는 명부에 이름만 등록해놓는 등 면피용 대책을 마련하는 데 급급했다.²⁹⁾ 그렇지 않아도 지방 간부가 충분치 않아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던 이들에게 이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북한 지도부는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개선에 나선 것이 아니라, 사업 부실의 책임을 간부 개인의 결함 탓으로 돌렸다. 지역 민청위원장인 조국보위후원회 간부로 선발되어, 민청사업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상황을 “간부들이 조국의 정치정세를 옳게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치부해버린 것이 대표적이었다.³⁰⁾ 이 과정에서 조국보위후원회 사업 태만을 이유로 징계를

26) 「북조선로동당 강원도 인제군당 상무위원회 회의록 제68호」(1949.10.29), 『사료집』 3, 764쪽.

27) 「북조선로동당 강원도 인제군당 결정서 상제85호」(1950.3.16), 『사료집』 15, 208~209쪽.

28) 「인제군당 7·8월분 사업계획서」(1950), 『사료집』 15, 356·360쪽.

29) 「북조선로동당 강원도 인제군당 상무위원회 회의록 제61호」(1949.9.13), 『사료집』 3, 594~595쪽.

30) 「북조선로동당 강원도 인제군당 민청당조 제50차 회의록」(1949.12.20), 『사료집』 4, 166쪽.

받는 지방 간부들이 속출했다.³¹⁾

북한 주민들이 조국보위후원회 가입에 소극적이었던 가장 큰 이유는 북한에 이미 너무 많은 사회단체가 설립되어 있었고, 여기에서 오는 경제적 부담이 막대했기 때문이다. 북한의 모든 주민들은 연령·성별·직업에 따라 민청·녀맹·직맹·농맹 등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했고, 복수의 사회단체에 가입한 성인 1인이 매달 네다섯 번의 맹비를 납부하는 현상이 일반적이었다. 농업에 종사한 당원과 사회단체 맹원들이 매달 부담해야 했던 당비와 맹비는 각각 10원에 달했다.³²⁾ 조국보위후원회 회비는 20세 이하 2원, 21~25세 5원, 25세 이상 10원, 학생이나 가정주부 1원이었고, 입회비만 5원에 달했기 때문에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었다.³³⁾ 이 때문에 인제군에서는 1949년 10월 31일 현재 입회비 51%, 3·4분기 회비 33%, 4·4분기 회비의 28% 밖에 납부되지 않았고, 전체 회원들에게 입회비 및 회비에 대한 의의를 널리 선전하여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12월 15일 이전에 납부를 완료할 것을 독려했다.³⁴⁾

경제적 부담 뿐 아니라 사회단체를 매개로 한 각종 노동력 동원도 조국보위후원회 가입을 망설이게 하는 이유가 되었을 것이다. 여러 사회단체가 주관하는 다종다기한 사업에 동원되느라 적지 않은 시간을 빼앗겼을 북한 주민들에게 또 다른 사회단체에 가입하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생업에 종사할 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과중한 동원은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31) 「북조선로동당 강원도 인제군당 결정서 상제85호」(1950.3.16), 『사료집』 15, 211~212쪽.

32) 김재웅a, 앞의 논문, 252쪽.

33) 「조국보위후원회 조선중앙통신사 초급단체 회의록」(1949.10.5), 통일부 북한자료 센터 소장 마이크로필름 자료, 12쪽. 1950년경 북한의 물가는 담배 한 갑 20원, 옥수수 하나 10원, 계란 하나 20원, 한 끼 밥값 50~80원이었다(김재웅d, 「한 공산주의자의 기록을 통해 본 한국전쟁 발발 전후의 북한」, 『한국사연구』 141, 한국사연구회, 2008, 285쪽).

34) 「북조선로동당 강원도 인제군당 상무위원회 회의록 제70호」(1949.11.27), 『사료집』 3, 849~850쪽.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했다.³⁵⁾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었을 북한 지도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보위후원회 결성을 강행했다. 이는 조국보위후원회를 통해 기존 사회단체에서는 하지 않았던 사업을 진행하고자 했음을 뜻할 것이다. 조국보위후원회가 어떤 활동을 전개했는지에 대해서는 절을 달리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나. 군대원호사업과 군사지식의 보급

조국보위후원회는 조선인민군 강화와 조선인민군에 대한 대중적·조직적 원호사업을 제1의 목적으로 하는 사회단체였다.³⁶⁾ 이를 위해 조국보위후원회에서는 비행기·탱크·함선기금 헌납운동, 군무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원호사업을 전 사회적으로 추진해 나갔다.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군사훈련과 군사지식의 보급 또한 조국보위후원회의 주요 임무 중 하나였다. 이 절에서는 이 가운데 조국보위후원회가 가장 주력했던 비행기·탱크·함선기금 헌납운동과 군사지식의 보급을 중심으로 이 단체의 역할을 알아보자.

35) 김재웅c, 앞의 논문, 277쪽.

36) 조국보위후원회의 구체적인 과업은 강령(초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길지만 그 대로 옮겨보면 아래와 같다.

- ① 조국과 인민의 이익을 보위하는 조선인민군대의 강화사업에 물심양면으로 후원하며 국토보위사업에 적극 협조 참가한다.
- ② 조국보위를 위하여 군사지식을 습득하며 인민군대에 복무함을 고상한 영예로 한다.
- ③ 조선인민군대의 강화를 위하여 과학지식과 발명으로 공헌하며 항공과학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 ④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부강발전을 저해하려는 온갖 반동분자들의 파괴음모로부터 직장 및 농촌과 국가재산을 방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조국보위후원회 강령(초안)」, 『조국보위를 위하여』 창간호(1949.10), NARA, RG242, SA 2009 I, Box 1, Item 85. 『조국보위를 위하여』는 조국보위후원회 중앙본부 기관지다. 월간으로 발행되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확인되는 것은 1949년 10월에 발행된 창간호, 1950년 신년호, 1950년 5월호, 1951년 4월호 등 총 네 호분으로 미군 노획문서 중 하나다. 이하에서 『조국보위를 위하여』를 인용할 때는 노획문서 번호를 생략하였다.

조국보위후원회가 창설 초기부터 전쟁 발발 이후까지 가장 심혈을 기울인 사업인 비행기·탱크·함선기금 헌납운동은 1949년 10월 12일 시작되었다.³⁷⁾ 조국보위후원회 중앙본부가 이전까지 ‘조국보위후원회 사업 기금 회사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모아진 금액을 더욱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해, 비행기와 탱크를 구입하여 조선인민군에 헌납하기로 결정한 것이 계기였다. 한 달여 후인 11월 19일에는 함흥시 상인·기업가들이 “조국의 3면에 바다를 가지고 있는 지리적 조건”에 비추어, 해상경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1천 50만 원의 거액을 회사하였다.³⁸⁾ 이에 조국보위후원회 중앙본부는 비행기·탱크와 함께 함선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기금도 조선인민군에 헌납하기로 결정하였다.

『로동신문』은 연일 대대적으로 비행기·탱크·함선기금 헌납운동을 보도하였고, 조국보위후원회도 자신의 기관지에 기금 회사자들의 사진과 회사액을 싣는 등 운동 참여를 독려했다.³⁹⁾ 노동자들은 일요일을 이용해 ‘애국노동’을 하거나 시간 외 노동을 하여 생긴 수입을 헌납했고, 농민들은 ‘여유미’를 내어놓는 것으로 이 운동에 참가했다. 1950년 1월 현재 비행기·탱크·함선기금 헌납운동으로 모금된 금액은 3억여만 원이었고, 이와 별개로 5만여 가마니의 애국미도 모아졌다.⁴⁰⁾ 북한 주민들뿐만 아니라

37) “조국보위후원회 중앙본부에서 조국보위 위한 인민들의 애국열성 : 인민군대에 비행기와 탱크를 헌납”, 『로동신문』, 1949년 10월 13일, 3면.

38) “함선도 헌납기로 결정 : 조국보위후원회 중앙본부에서”, 『로동신문』, 1949년 11월 23일, 1면.

39) 「비행기 땅끄 함선 헌납기금 회사자들」, 『조국보위를 위하여』, 1950년 신년호(1950.1), 91쪽.

40) 김일수, 「조국보위후원사업과 군무자 가족 원호사업의 강화는 조선인민군의 무장력을 부단히 장성, 강화시킨다」, 『인민』, 1950년 2월호(『사료집』 39, 740쪽). 하지만 이 모금액이 과연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또 다른 글에서는 1949년 말까지 모금된 금액이 1억 2,000여만 원이라고 서술하고 있기 때문이다(김강, 「조선인민군은 조선인민의 절대한 지지와 원호 속에서 장성 강화되고 있다」, 『근로자』 제2호(1950.1.31)(『사료집』 53, 323쪽)). 한 달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그간 모인 금액의 두 배에 가까이가 모금될 리 없었

북한에 거주하는 화교들도 기금을 희사하였고, 사할린에 거주하는 동포들도 조국보위후원회 함경북도본부에 적지 않은 금액을 보내왔다.⁴¹⁾

1950년 1월 25일에는 그간 모금한 비행기·탱크·합선기금을 조선인민군에 전달하는 ‘헌납식’이 거행되었다. 부수상 박헌영·홍명희, 최고인민회의 의장 허헌,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허가이 등 정부·당의 주요 인물들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진 이 행사에서는, 조국보위후원회 부위원장 문종목이 조선인민군을 대표한 민족보위상 최용건에게 1억 원의 비행기·탱크·합선기금을 전달하였다.⁴²⁾ 최용건은 기금 헌납에 대한 감사 인사에서 이 운동을 통해 조선인민군이 현대적 무기와 선진 군사기술로 더욱 튼튼히 무장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운동의 의의를 높이 평가하였다.⁴³⁾

비행기·탱크·합선기금 헌납운동은 전쟁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12일 조국보위후원회 중앙본부는 지난 해 모금해둔 기금 중 일부인 1억 7천만 원과 양곡 746톤을 정부에 헌납하면서, 비행기·탱크·합선기금 헌납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을 천명하였다.⁴⁴⁾ 실제로 같은 달 평양제14인민학교 소년단원들은 ‘소년호’를 전선에 보내기 위한 기금 모금운동에 나설 것을 결의하였고, 8월에는 김일성대학 교직원들이 ‘대학호’ 기금 마련을 호소하며 켈기대회를 여는 등 전쟁 이전과 다

을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둘 중 하나는 과장된 숫자라고 볼 수밖에 없다. 다만 현재까지 확보한 자료로는 모금액이 실제 얼마나 되었는지, 북한에서 제시한 수치가 믿을 만한 것인지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추가적인 자료발굴을 통해 재검토하고자 한다.

- 41) 립해, 「조국보위를 위한 투쟁에 있어서 인민군대를 위한 원호사업의 의의」, 『근로자』 제2호(1950.1.31)(『사료집』 53, 351쪽).
- 42) “인민군대에 바치는 비행기 탱크 합선기금 1억 원 헌납 : 25일 저녁 헌납식 성대히 거행”, 『로동신문』, 1950년 1월 27일, 1면.
- 43) “비행기 탱크 합선기금 헌납에 대한 최용건 민족보위상의 답사”, 『로동신문』, 1950년 1월 27일, 1면.
- 44) “조국보위후원회 중앙본부 비행기 탱크 합선 기금 제2차 헌납”, 『로동신문』, 1950년 7월 12일, 1면.

름없는 모습이 지속되었다.⁴⁵⁾

북한은 이 운동이 북한 주민들의 자발성에 기초하고 있다고 선전했지만 실제로 그러했는지는 따져보아야 할 문제다. 이미 한 연구에서 지적했듯이 자발적 ‘회사’를 강조한 조국보위후원회 사업은 할당식으로 대중들에게 부담을 전가하거나, 노동자·사무원들의 봉급에서 후원금을 공제하는 식으로 추진되었다.⁴⁶⁾ 당국에서는 할당식과 공제방식의 헌납운동을 철저히 시정하고 자의에 의한 헌납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요구했지만,⁴⁷⁾ 적지 않은 주민들은 비행기·탱크·함전기금 헌납운동을 ‘착취’로 인식하였다.⁴⁸⁾ 이것이 식민지시기 ‘국방헌금’과 그 성질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강조하는 한 조국보위후원회 초급단체 간부의 목소리⁴⁹⁾ 역시 역으로 읽을 필요가 있다. 즉, 비행기·탱크·함전기금 헌납운동을 식민지시기 ‘국방헌금’과 마찬가지로 비자발적이고 강제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인식이 만연했기 때문에 이러한 언술이 등장한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기존 연구에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았지만 조국보위후원회는 군사지식의 보급에도 앞장섰다. 기관지 『조국보위를 위하여』는 매호마다 적지 않은 분량의 ‘군사과학지식’, ‘군사과학기술’이라는 고정 꼭지를 두고 있었다. 여기에서 다루는 군사지식은 제식훈련법에서부터 각종 무기나 비행기·탱크·함선의 구조, 항공 및 항해술, 실제 전투에서의 방위 판정법, 로켓의 이해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광범위한 것이었다. 해당 기사들은 매우 쉽고

45) “『소년호』 비행기 땅크 전선에 보내자! : 평양제14인민학교 소년단원들의 호소”, 『로동신문』, 1950년 7월 16일, 2면 ; “『대학호』 군기헌납을 호소 : 김일성대학교 교직원들 쫓기”, 『로동신문』, 1950년 8월 6일, 1면.

46) 김재웅a, 앞의 논문, 253쪽.

47) 「북조선로동당 강원도 인제군당 상무위원회 회의록 제70호」(1949.11.27), 『사료집』 3, 851쪽.

48) 「평남안단 정산보 제73호」(1950.9.1), 『사료집』 18, 478쪽.

49) 「조국보위를 위한 조선중앙통신사 종업원 쫓기대회 회의록」(날짜 미상),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소장 마이크로필름 자료.

자세한 설명에 덧붙여 그림과 사진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독자들이 관련 내용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⁵⁰⁾

군사지식의 대중화를 위한 조국보위후원회의 노력은 지역·직장 단위에 군사지식 연구반을 설치하는 것으로도 표현되었다. 조국보위후원회에 가입한 청년 회원들은 항공, 포, 탱크, 해양, 자동차 등 각종 군사지식 연구반에서 자신의 관심과 소질, 능력에 따라 군사지식을 습득하였다.⁵¹⁾ 일례로 조선중앙통신사 초급단체에는 기술연구반, 글라이더 연구반, 모형기 연구반이 만들어졌고, 자신의 지식과 재능을 활용하여 발명과 창의고안에 힘쓰으로써 군사과학 제고에 노력하는 것이 회원들의 의무로 규정되었다.⁵²⁾ 인제군에서도 “38선의 환경을 고려”한 군사과학기술 연구반 조직을 서둘렀다.⁵³⁾ 조국보위후원회는 이 연구반들을 지도하는 기술연구지도원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강의를 개설하여 연구반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자 하였다.⁵⁴⁾

북한 주민들이 잡지와 연구반 학습으로 배운 군사지식을 활용하고 실전에 필요한 군사기술을 몸소 체득할 수 있도록 하는 임무도 조국보위후원회에 맡겨졌다.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군사훈련이 그것이다. 연구반 조직과 마찬가지로 각 지역·직장별로 조국보위후원회 산하에 훈련대가 꾸려졌다. 훈련대는 16세 이상 30세 이하의 청년들을 기본 대오로 하여 편성되었고,⁵⁵⁾ 이미 만

50) 『조국보위를 위하여』 각 호의 해당 기사 참고.

51) 「[사설] 군사기술연구사업을 더욱 강화하자, 『조국보위를 위하여』 제2권 제5호(1950.5), 1쪽.

52) 「조국보위후원회 조선중앙통신사 초급단체 제2차 총회 회의록」(1949.10.5),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소장 마이크로필름 자료.

53) 「북조선로동당 강원도 인제군당 상무위원회 회의록 제61호」(1949.9.13), 『사료집』 3, 595쪽.

54) 「[사설] 군사기술연구사업을 더욱 강화하자, 『조국보위를 위하여』 제2권 제5호(1950.5), 2쪽.

55) 「북조선로동당 강원도 인제군당 상무위원회 회의록 제61호」(1949.9.13), 『사료집』 3, 595쪽.

들어져 있던 민청 훈련반은 조국보위후원회 훈련대로 흡수되었다.⁵⁶⁾ 조국보위후원회가 실시하는 민간훈련에는 여성 자위대 대원들도 모두 참가해야 했다.⁵⁷⁾ 직장에서도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사격연습 등의 군사훈련이 실시되었다.⁵⁸⁾

조국보위후원회의 군사훈련은 철저한 하향식으로 이루어졌다. 군사훈련 책임자들은 ‘군사훈련 간부회’에 참가하여 참모장 및 군사훈련지도원 강습을 받은 후, 각 면리에 직접 내려가 청년훈련대 조직에 착수하였다. 군 단위 간부들에 대한 훈련은 중앙본부에서 하달한 과정표에 의거하여 진행되었으며, 이 과정이 끝나면 이들이 강사가 되어 면 단위 군사훈련 책임자들에게 또 다시 강습을 하는 방식이었다.⁵⁹⁾ 각 면과 부락에 이르기까지 소대장 이하의 간부들은 모두 세포의 핵심 당원으로 배치시킬 것이 규정되었다.⁶⁰⁾

이처럼 나름대로 짜임새 있는 훈련계획을 통해 전 민간인의 군사화를 꾀했던 조국보위후원회의 의도와 달리, 민간에서는 군사훈련이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했던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또한 하나의 노동력 동원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생업에 종사해야 하는 주민들로서는 각종 훈련

56) 「북조선로동당 강원도 인제군당 상무위원회 회의록 제58호」(1949.8.25), 『사료집』 3, 527쪽. 이 자료에서 38선 접경지역에 존재했던 38자위대 훈련사업도 조국보위후원회 관할이 되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57) 「북조선로동당 강원도 인제군 여성동맹 당조 제28차 회의록」(1949.9.22), 『사료집』 4, 258쪽.

58) 리석청, 「조국보위후원사업을 위하여」(1950.1.18), NARA, RG242, SA 2012, Box 1143. 이 글은 평양화학공장 문학서클에 소속된 저자가 쓴 소설로 보인다. 소설이기는 하지만 직장 내 조국보위후원회 사업에 대한 묘사가 구체적이고, 당대에 쓰인 것이기 때문에 사료로서 활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글에 따르면 직장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 실시한 군사훈련의 시간은 40분 정도였고, 작업복 차림 그대로에 목총을 메고 사격연습을 실시하였다.

59) 「북조선로동당 강원도 인제군당 상무위원회 회의록 제70호」(1949.11.27), 『사료집』 3, 845~846쪽.

60) 「북조선로동당 강원도 인제군당 상무위원회 회의록 제61호」(1949.9.13), 『사료집』 3, 595쪽.

은 시간을 빼앗기는 귀찮은 일일 수밖에 없었고, 이들은 이미 너무 많은 사업에 동원되고 있었다.⁶¹⁾ 게다가 당국은 조국보위후원회가 주관하는 훈련에 소요되는 기금마저 민간에 전가하였다.⁶²⁾ 전쟁 분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이 이와 같은 동원을 직접 겨냥하여 불만을 입에 담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들은, ‘남녀칠세부동석’을 말하면서 남녀가 밤낮으로 같이 훈련을 받아야 하는 조국보위후원회의 군사훈련을 비판하는 등 소극적인 저항에 나서기도 하였다.⁶³⁾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국보위후원회가 전개한 사업들은 기본적으로 민간의 인적·물적 동원을 기반으로 하였다. 다소 과장하자면, 조국보위후원회의 존재 자체가 북한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을 야기하는 씨앗과도 같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정치교양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전쟁을 ‘획책’하고 있는 남한정부를 이 모든 시련과 어려움의 주범으로 지목하였다.⁶⁴⁾ 그리고 이러한 정치적 레토릭과 그에 의해 구축된 동원체제는 실제 전쟁이 발발했을 때 더욱 폭발력을 가지게 되었다.

61) 38선 접경지역인 인제군에서 군사훈련 참가율이 저조한 이유 중 하나로 “38연선 사업에 해당 인원들이 동원된” 것을 꼽은 것은 이러한 맥락이었다. 「북조선로동당 강원도 인제군당 상무위원회 회의록 제70호」(1949.11.27), 『사료집』 3, 846쪽.

62) 「북조선로동당 강원도 인제군당 상무위원회 회의록 제58호」(1949.8.25), 『사료집』 3, 527쪽 ; 「북조선로동당 강원도 인제군 여성동맹 당조 제28차 회의록」(1949.9.22), 『사료집』 4, 258쪽.

63) 「북조선로동당 강원도 인제군당 상무위원회 회의록 제73호」(1949.12.27), 『사료집』 3, 926~927쪽.

64) 김재웅b, 앞의 논문, 151쪽.

3. 한국전쟁 시기 조국보위후원회의 활동 변화와 역할

가. 전시체제의 확립과 조국보위후원회의 기능 변화

전쟁 발발 이튿날인 1950년 6월 2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정령 「군사위원회 조직에 관하여」를 발표하고, 국내의 모든 주권을 군사위원회에 집중한다고 선포하였다.⁶⁵⁾ 이어 북한은 6월 27일자로 「전시상태에 관하여」를 선포하고, 7월 1일에는 군사위원회 명의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 지역에 동원을 선포함에 관하여」를 발표함으로써 공식적인 전시총동원체제로 전환하였다.⁶⁶⁾ 전쟁 이전부터 작동하고 있었던 동원체제 덕분에 북한은 단기간 안에 비교적 완벽한 동원시스템을 갖출 수 있었다.

이후에는 전시동원체제를 뒷받침할 각종 결정과 지시가 연달아 발표되었다. 노동력 동원과 관련하여 두 가지만 예를 들면, 우선 7월 6일 공포된 군사위원회 결정 제6호 「전시로동에 관하여」는 직장 노동자와 사무원의 자의적 이탈, 무단 전근 등을 범죄행위로 규정하여 엄격한 노동규율 준수를 보장하였다.⁶⁷⁾

6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 정령 : 군사위원회 조직에 관하여」, 『조선중앙년감 1951~1952』, 평양 : 조선중앙통신사, 1952, 82쪽. 군사위원회는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하고, 박헌영, 홍명희, 김책, 최용건, 박일우, 정준택 등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6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 정령 : 전시상태에 관하여」, 『조선중앙년감 1951~1952』, 82~83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 정령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 지역에 동원을 선포함에 관하여」, 『조선중앙년감 1951~1952』, 83쪽. 한국전쟁 당시 북한의 전시체제 및 전시상태 선포의 의미와 국가기관 개편에 대한 자세한 분석으로는 윤경섭, 「한국전쟁기 북한의 전시체제와 계엄」, 『인문과학』 62, 성균관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6; 윤경섭, 「북한·소련의 전시체제 형성 과정 비교 연구 -초기 '전시상태'와 국가기관 개편을 중심으로-」, 『사람』 61, 수선사학회, 2017 참조.

67) 한성훈, 앞의 책, 80쪽.

후방 노동력을 동원할 목적으로 7월 26일 발표된 군사위원회 결정 제23호 「전시의무노력 동원에 관하여」는 파괴된 도시와 농촌을 급속히 복구하고 전선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18세 이상 55세 이하 남자들의 거주·이동의 자유를 금지하고, 군수물자의 생산 및 복구사업을 위한 의무 노동력 동원을 형사규범으로 강제하였다.⁶⁸⁾

주민들의 노동력과 물자를 동원하는 것에 관계된 세부적인 사항들은 면인민위원회 단위에서 결정·추진하였다. 인민위원회는 비행기와 탱크 헌납기금으로 현금과 벼·조·옥수수를 비롯해 발동기 등 사소한 물품까지 헌납받았다.⁶⁹⁾ 전쟁 이전 조국보위후원회가 담당했던 역할의 일부가 인민위원회라는 정권기관으로 옮겨간 것이다. 당단체도 후방의 공고화와 이를 위한 주민 동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하였다.⁷⁰⁾

뿐만 아니라 조국보위후원회 활동 중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던 군무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원호사업의 주체도 인민위원회, 당단체, 민청, 녀맹 등으로 다양해졌다.⁷¹⁾ 심지어 조선인민군과 그 가족 원호사업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 『로동신문』의 사설에 조국보위후원회라는 명칭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일도 있었다.⁷²⁾ 전쟁 이후 군무자와 후방가족 원호사업은 지방 인민위원회 또는 당열성자들이 핵심이 되어 농맹, 민청, 녀맹 등의 사회단체를 동원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는 모습으로 변화하였다.⁷³⁾ 전시상태가 정식으로 선포되자, 조국보위후원회 뿐 아니

68) 정일영, 『북한의 사회통제체제 형성, 1945~1961 : 규범·동의·재사회화』,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2014, 102쪽.

69) 한성훈, 앞의 책, 84쪽.

70) “후방의 공고화를 위한 제반 대책을 토의 : 평양시당 열성자회의”, 『로동신문』, 1950년 7월 27일, 2면.

71) “군무자 가족들을 성심으로 원호”, 『로동신문』, 1950년 7월 25일, 2면.

72) “[사설] 인민군대와 그들의 가족 원호사업을 더욱 강화하자”, 『로동신문』, 1950년 8월 4일, 1면.

73) “사회단체를 발동시켜 후방가족의 영농 협조”, 『로동신문』, 1950년 8월 12일,

라 모든 사회단체들과 당·정권기관이 동원체제에 적극적으로 결합했던 것이다.

조국보위후원회는 달라진 상황에 맞추어 자신의 역할을 재조정해 나갔다. 특히 국군과 유엔군이 압록강 부근까지 진격했던 시기에 분산·파괴되었던 훈련대를 재정비하는 사업, 다시 말해 민간인을 재조직해 군사훈련을 강화하는 사업에 역점을 두었다.⁷⁴⁾ 조국보위후원회는 훈련대를 대상으로 보총과 수류탄 등 각종 보병무기 사용법과 투탄(投彈)훈련을 진행하였고, 조선인민군의 전투 경험을 기본으로 하여 정찰·공격·방어전에 요구되는 각종 전술지식을 가르치는 광범위한 전투훈련을 실시하였다.⁷⁵⁾ 더불어 수십 개의 야영훈련소를 설치하고 이곳에 많은 청년들을 망라하여 군사훈련을 전개하였다.⁷⁶⁾ 군사훈련을 받은 주민들은 후방의 군사적 역량을 공고화하는 역할과 함께, 조선인민군 후비대로서의 임무도 부여받았다.

조국보위후원회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군사훈련을 더욱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군사간부들의 세미나를 조직하는 등 훈련지도원 및 그 초급지도자들의 배치·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전쟁에서 전투 경험을 쌓은 ‘영예군인’⁷⁷⁾의 활용을 강조하였다. 또한 수천 명의 조국보위후원회 간부들을 조선인민군 신설부대에 파견하여 군대의 전투력 증강에 공헌하였다.⁷⁸⁾ 이것은 전쟁 이전

2면; “정성과 로력을 바쳐 군무자 가족을 원호 : 고원군 군내면 하석연리 농민들”, 『로동신문』, 1950년 8월 22일, 2면; “근로단체를 발동시켜 전선원호사업을 강화”, 『로동신문』, 1951년 2월 19일, 2면.

74) 최동욱(조국보위후원회 중앙본부 군사훈련부 부장), 「제1계단 훈련장령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훈련지도원들의 역할」, 『조국보위를 위하여』(1951.4), 4쪽.

75) 정렬(조국보위후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인민대중 속에서의 군사훈련사업”, 『로동신문』, 1952년 11월 30일, 2면.

76) 정렬(조국보위후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조국보위는 조선인민의 신성한 최대 의무이다”, 『로동신문』, 1952년 7월 15일, 2면.

77) 북한에서 ‘영예군인’이란 전쟁에서 부상당해 제대한 군인들을 의미한다.

78) 안영, “조국보위후원사업을 더욱 강화하자”, 『로동신문』, 1953년 7월 15일, 2면.

부터 조국보위후원회의 군·면·리 단위 간부들을 대상으로 ‘군사 훈련 간부회’라는 이름의 체계적인 훈련이 실시되었고, 전쟁 발발 이후에도 훈련대사업 강화를 명목으로 한 각종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전쟁기에 들어서 강화된 조국보위후원회의 군사적 기능은 자위대 개편·지도사업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⁷⁹⁾ 북한은 전쟁 이전부터 민간방위조직인 자위대를 양성·확대하여 군사적 위기를 극복하고 방위력을 유지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었다.⁸⁰⁾ 다만 전쟁 이전 자위대사업이 38선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전쟁 발발과 동시에 북한의 모든 후방에서 자위대가 창설되고 그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자위대원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을 지키면서 조선인민군이나 중국인민지원군의 작전에 협조하여 함께 전투에 투입되었고,⁸¹⁾ 마을에 침투한 유엔군이나 국군 ‘간첩’을 체포하기도 하였다.⁸²⁾

조국보위후원회는 자위대 책임자들의 활동 경험을 총화하여 경험교환회 혹은 보다 넓은 범위의 활동경험자대회를 개최하는 등 자위대 책임자들의 수준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고, 자위대의 훈련과 실제 전투를 직접 지도하였다. 자위대원을 대상으로 한 조국보위후원회 훈련에서 강조된 것은 경찰훈련과 ‘간첩’과의 투쟁이었다. 수류탄과 총기 사격, 야간 및 공중사격의

79) “조국보위후원회 제2차 중앙위원회”, 『로동신문』, 1951년 11월 22일, 1면.

80) 김재웅c, 앞의 논문, 269~275쪽.

81) “보총 집중사격으로 비26 1기를 격추 : 정평면 무장자위대원들”, 『로동신문』, 1951년 8월 6일, 3면; “영광스러운 용사 : 무장자위대원 김기문 동무”, 『로동신문』, 1951년 10월 5일, 3면; “항토를 지키는 사람들 : 인민무장자위대 리일호 동무” 『로동신문』, 1953년 2월 11일, 3면 등.

82) “고도의 경각성으로 간첩들을 일망타진 : 강원도 내 각지 자위대원들”, 『로동신문』, 1951년 11월 4일, 3면; “함북도 인민자위대원들 잠입한 간첩을 속속 체포”, 『로동신문』, 1952년 12월 12일, 7면; “전 인민적 반간첩 투쟁 : 교묘하게 가장하고 잠입한 간첩을 체포한 자위대원들”, 『로동신문』, 1953년 2월 22일, 3면 등.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훈련들도 덧붙여졌다.⁸³⁾ 북한지역에서는 무엇보다 미군의 공중폭격에 의한 피해가 막심했기 때문에,⁸⁴⁾ 조국보위후원회는 ‘비행기 사냥꾼조’ 조직과 이들에 대한 훈련을 강조하였다.⁸⁵⁾

이밖에도 조국보위후원회는 위생훈련사업으로 그 활동 영역을 확대하였다. 주지하듯이 전쟁에서는 수많은 부상자가 발생하므로 의료인력을 가능한 한 빨리 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지고, 이에 따라 학제가 단축되고 단기양성소가 설치되는 등 평시에는 볼 수 없는 양상이 나타나게 된다. 북한에서도 보건성과 조선적십자회의 주도 아래 보건간부 양성사업을 대규모로 전개하고,⁸⁶⁾ 각지에 단기 간호원양성소를 설치하여 간호원·조선원을 대량으로 배출하는 데 주력하였다.⁸⁷⁾ 이 과정에서 조국보위후원회는 조선적십자회와 연계하여 4만 3천여 명의 여성들을 위생초소원 양성을 위한 종합단기강습에 망라하는 작업을 추진하였다.⁸⁸⁾ 강습을 마친 여성들은 각 지역 위생초소에 배치되어 감염병 환자들의 조기 적발 및 격리, 소독과 청소 등의 임무를 맡았다.⁸⁹⁾

83) 정립(조국보위후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인민대중 속에서의 군사훈련사업”, 『로동신문』, 1952년 11월 30일, 2면.

84) 한국전쟁 당시 미군의 폭격에 관해서는 김태우, 앞의 책 참조.

85) ‘비행기 사냥꾼조’는 김일성이 직접 설치를 지시한 조직이다. 김일성은 1950년 12월 29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 제238호’를 통하여, 각 보병연대당 2~3개조의 ‘비행기 사냥꾼조’를 조직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들에게는 화력진지구 축법, 신호설정법, 적 및 아군 비행기 식별법, 조준연습법, 각종 비행기에 대한 사격방법 등 전문훈련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었으며, 봉급의 50%가 가산되고 식사의 질을 높여주는 등 특혜가 부여되었다. 김일성은 각 사단장들이 ‘비행기 사냥꾼조’의 사업결과를 매달 자신에게 직접 보고할 것을 지시할 정도로 이 문제에 관심을 보였다. 김일성, 「비행기사냥꾼조를 조직할 데 대하여」(1950.12.29), 『김일성 저작집』 6,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233~234쪽.

86) “보건간부 양성사업 대규모로 전개”, 『로동신문』, 1951년 3월 12일, 1면.

87)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1951~1952』, 평양 : 조선중앙통신사, 1952, 456쪽.

88) 정립(조국보위후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조국보위는 조선인민의 신성한 최대의 무이다”, 『로동신문』, 1952년 7월 15일, 2면.

89) “방역에 헌신 분투 : 연호면 내 위생초소들”, 『로동신문』, 1951년 8월 30일, 3면.

이와 같이 개전으로 인해 달라진 동원시스템 속에서, 조국보위후원회는 자신의 역할 일부를 정권기관·당이나 다른 사회단체에 넘기는 한편 새로운 영역으로 진출하였다. 정전을 눈앞에 둔 1953년 7월 시점에도 조국보위후원회는 또 다른 사업을 구상하고 있었다. ‘군사스포츠사업’의 보급과 확대가 그것이었다. 군사스포츠란 사격, 항공, 자동차, 모터사이클, 행군, 장애물 극복, 수영, 스키 등을 의미했다. 조국보위후원회는 대중 속에 군사스포츠를 확산한다면, 청년들을 육체적으로 단련하면서 그들에게 조직성·규율성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⁹⁰⁾ 전쟁에 대비하여 만들어진 조국보위후원회는 실제 전쟁이 발발하자 이처럼 정세 변화에 발맞춰 끊임없이 자신들의 역할을 고민하면서, 전쟁 수요에 맞는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 나갔다. 다음 절에서 살펴볼 조국보위복권의 발행도 이 가운데 하나였다.

나. 조국보위복권의 발행과 군비 확충

조국보위후원회가 한국전쟁 발발 이후 무엇보다 주력했던 사업은 조국보위복권 발행·판매였다. 북한은 1951년 6월 14일 내각 수상 김일성과 재정상 최창익의 명의로 내각결정 제297호 「조국보위복권 발행에 관하여」를 발표하였다. 조국보위복권 발행은 조국보위후원회 중앙위원회가 비행기·탱크·함선 헌납기금을 조성할 목적으로 복권을 발행할 것을 내각에 제의하여 성사되었다. 복권은 제1회는 7월 중에, 제2회는 10월 중에 각 5억 원씩 조국보위후원회 중앙위원회 명의로 발행하기로 하였다. 사업의 주체는 조국보위후원회였으며, 재정상이 복권 전체의 판매와 당첨금 지불 등 조국보위후원회의 사업을 지도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국가계획위원장은 복권 선전사업과 기타 이 사업에 필요한

90) 안영, “조국보위후원사업을 더욱 강화하자”, 『로동신문』, 1953년 7월 15일, 2면.

지출을 제때 보장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었다.⁹¹⁾

「조국보위복권 발행에 관한 조례」 및 「조국보위복권 매급 및 추첨에 관한 규정」을 통해 관련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⁹²⁾ 우선 제1회 조국보위복권은 100원 권으로 7월 중에 총액 5억 원을 발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당첨금은 5만 원, 2만 원, 1만 원, 5천 원, 2천 원, 3백 원, 150원 등 7등급으로 구분되었고 총 77만 매가 당첨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판매 대금 중 30%가 당첨금과 기타 경비로 지출되고, 나머지 70%는 비행기·탱크·함선 헌납기금으로 국고에 귀속될 예정이었다. 복권의 판매처는 조선중앙은행을 비롯한 농업은행, 야전은행, 저금관리국 등 금융기관과 국영상점, 소비조합 상점 등에 비치되는 임시 복권매급소, 기타 가두로 정해졌다. 북한은 조국보위복권 판매에 있어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어디까지나 자원적 원칙에 의하여 공화국 내의 전체 주민들에게 매급”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미 비행기·탱크·함선기금 헌납운동이 계속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보위복권을 발행한 이유는 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군비 확충이 절실했기 때문이다. 북한의 경제력과 조선인민군은 애초에 약 한 달 이상의 전쟁을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했지만,⁹³⁾ 전쟁은 1년이 넘게 이어져오고 있었다. 게다가 미군의 폭격으로 생산기반은 파괴되었고 완벽한 복구에는 어느 정도의 시일이 걸릴지 알 수 없었다. 북한은 소련과 중국에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으로, 전쟁 이전과 마찬가지로 민간사회에 기대 군사비를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조국보위복권의 발행을 추진한 것이다.

9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결정 제297호 : 조국보위복권 발행에 관하여”, 『로동신문』, 1951년 6월 19일, 1면.

92) “조국보위복권 발행에 관한 조례와 매급 및 추첨에 관한 규정 개요”, 『로동신문』, 1951년 6월 19일, 1면.

93) 조수룡, 「한국전쟁 시기 북한의 전시생산과 중·소의 지원」, 『군사』 8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3, 93쪽.

조국보위복권 발행이 공식화된 이후부터 전 사회에서 복권 구매자금 마련 ‘열풍’이 불었다. 『로동신문』은 ‘조국보위복권을 구매하기 위한 인민들의 애국열의 고조’라는 쪽지를 만들고, 거의 매일 어떤 인물이 어떻게 자금을 마련하고 있는지 소개하였다. 북한 주민들은 증산경쟁, 저축, 시간 외 노동, 폐품 수거, 절약, 부업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금을 비축하며 복권 발매를 기다리고 있었다.⁹⁴⁾ 예를 들어 농민들은 농작물 단위당 수확량을 높이기 위해 비료관리에 노력을 다하는 한편 가축을 증식하여 복권 구매자금을 마련했다.⁹⁵⁾ 한 달 월급 모두를 복권 구입에 사용하기 위해 저축해 두었다는 간호장교의 이야기는 미담으로 소개되었고,⁹⁶⁾ 각 지역과 직장에서는 복권 구매를 결의하는 쉼기대회와 좌담회가 열렸다.⁹⁷⁾

그런데 7월부터 발행되어 8월 중에 추첨을 실시하겠다고던 제1회 조국보위복권 5억 원어치는 발매되지 않았다.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사료로는 그 이유를 파악하기 어렵다. 조국보위후원회 중앙위원회는 10월 4일자로 복권 판매 개시를 알리는 결정서를 발표하고 다음날인 5일부터 복권을 구매할 수 있다고 알렸다.⁹⁸⁾

94) “조국보위복권을 구매하기 위한 인민들의 애국열의 고조”, 『로동신문』, 1951년 7월 17일, 1면; “조국보위복권을 구매하기 위한 인민들의 애국열의 고조”, 『로동신문』, 1951년 8월 4일, 1면; “조국보위복권을 구매하기 위한 인민들의 애국열의 고조”, 『로동신문』, 1951년 8월 9일, 1면; “조국보위복권을 구매하기 위한 인민들의 애국열의 고조”, 『로동신문』, 1951년 9월 7일, 3면; “조국보위복권을 구매하기 위한 인민들의 애국열의 고조”, 『로동신문』, 1951년 9월 24일, 3면.

95) “조국보위복권을 구매하기 위한 인민들의 애국열의 고조”, 『로동신문』, 1951년 8월 17일, 1면.

96) “조국보위복권을 구매하기 위한 인민들의 애국열의 고조”, 『로동신문』, 1951년 8월 5일, 1면.

97) “조국보위복권을 구매하기 위한 인민들의 애국열의 고조”, 『로동신문』, 1951년 7월 18일, 1면; “조국보위복권을 구매하기 위한 인민들의 애국열의 고조”, 『로동신문』, 1951년 7월 17일, 1면; “조국보위복권을 구매하기 위한 인민들의 애국열의 고조”, 『로동신문』, 1951년 8월 6일, 1면.

98) 10월 4일 저녁 8시 30분이 정령이 방송 연설을 통해 조국보위복권 판매를 알린 것이 시작이었다. “조국보위복권 매급을 인민들 열렬히 지지 환영”, 『로동

원래 계획대로라면 제2회 복권이 발매되었어야 했지만 그제야 첫 번째 복권의 판매가 시작된 것이다. 10월 5일부터 발행될 복권은 총액 5억 원이었고 이 복권의 추첨은 11월 25일에 실시하기로 하였다. 최초에 예정되어 있던 판매처에서 각 금융기관과 임시복권매점소는 빠지고 조선인민군 및 경비대 각 부대가 추가되었다.⁹⁹⁾

복권 발매에 맞추어 조국보위후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정령은 「조국보위복권 매급에 제하여」라는 글을 발표하였다.¹⁰⁰⁾ 이 글은 조국보위복권 발행의 당위성을 설파하며 전 주민이 복권 구매에 참여할 것을 호소하는 내용이었다. 정령은 조국보위복권이 “제국주의 국가들에서 재정 수탈을 위해 남발하는 복권”이나 침략전쟁을 수행할 목적으로 거둬들인 식민지기 ‘국방헌금’과 달리, “정의로운 목적에 사용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당시 남한에서 발행하고 있던 ‘국채’, ‘채권’도 거론하면서, 이는 “미 제국주의 주구인 리승만 괴뢰도당”이 자신들의 생명을 조금이나마 연장하고자 “남발”하는 “테러적 약탈”이자 “강제적 수탈”이라고 평가절하 하였다.

정령은 또 조국보위복권이 구매자들의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5만 원 50매, 2만 원 100매, 1만 원 250매, 5천 원 1,000매, 2천 원 25,000매, 3백 원 49,950매, 150원 540,000매로 총 당첨금이 99,485,000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조국보위복권 보급사업의 승리는 조국의 통일과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조선인민군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며, 북한 주민들의 정치적·군사적·조직적 단결력을 또 한 번 세계에 보여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신문, 1951년 10월 5일, 3면.

99) “조국보위후원회 중앙위원회 결정서 : 조국보위복권 매급에 관하여”, 『로동신문』, 1951년 10월 5일, 1면.

100) “조국보위복권 매급에 제하여”, 『로동신문』, 1951년 10월 1일, 1면.

이후 북한 사회는 초기 비행기·탱크·함선기금 헌납운동과 복권 구매자금 마련운동 때보다 한층 더한 복권 구매 열기 속으로 빠져들었다. 한 공장에서는 모든 노동자들이 공장 민주선전실에 모여, 10월 4일 저녁 8시 30분 조국보위복권 판매를 알리는 방송을 함께 청취한 후 복권 구매를 결의하는 궐기대회를 열었다.¹⁰¹⁾ 북한 전역에서 개최된 조국보위복권 구매 궐기대회에서는 복권 발행을 지지하는 연설과 토론이 이어진 후, 곧바로 참석자들에게 복권을 판매하였다.¹⁰²⁾ 복권 구매를 홍보하기 위해 매일 인민반별 좌담회가 열렸으며, 녀맹 소속 선동원들은 직접 가가호호를 방문하여 조국보위복권의 의의를 해설·선전하였다.¹⁰³⁾ 『로동신문』이 상당한 지면을 할애하여 조국보위복권을 대량·거액으로 구매한 사례를 매일 중계하다시피 했음은 물론이다.

그림 1 조국보위복권 실물(NARA, RG 242, 09/1953-01/1958, Item 29)



조국보위복권은 발행 10일 만인 1951년 10월 15일 목표액 5억 원을 1억 원이나 초과하여 6억 원어치가 판매되었다. 평안

101) “안기옥 지배인 지도 하의 공장 로동자대회에서”, 『로동신문』, 1951년 10월 5일, 3면.

102) “원수 격멸을 위하여 : 제6인민시장 상인들”, 『로동신문』, 1951년 10월 8일, 3면.

103) “미제 침략자에 대한 치솟는 적개심으로 : 기림리 인민들 복권 구매에 열성”, 『로동신문』, 1951년 10월 8일, 3면.

북도에서는 10월 5일 오전 8시부터 도내 각지에서 복권이 일제히 판매되기 시작한 지 불과 10시간 만에 도에 배정된 1억 3천 4백만 원의 복권 전부가 팔려나갔고, 함경북도와 함경남도에서도 판매 다음날인 6일에 모든 복권이 판매되었다. 북한은 “공화국의 운명과 자기의 운명을 불가분리의 것으로 확신”하는 주민들의 애국심이 목표 초과 달성의 이유라고 선전했지만,¹⁰⁴⁾ 집중적인 홍보와 각종 쉼기대회 등의 동원이 없었다면 상상하기 어려운 수치임이 분명하다. 조국보위후원회는 10월 15일부로 조국보위복권 판매의 성공적인 완료를 선언하였다.¹⁰⁵⁾

그림 2 직장에서 복권을 구매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로동신문』, 1951년 10월 8일, 3면)



복권 판매가 끝난 후 조국보위후원회는 ‘조국보위복권 추첨위원회’(이하 추첨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첨 준비작업에 돌입하였

104) “조국보위복권 구매사업에서 나타난 우리 인민의 애국열성”, 『로동신문』, 1951년 10월 19일, 1면.

105) “인민들의 고상한 조국애로써 복권 매급 승리적으로 완료 : 조국보위후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정립 동지 담화”, 『로동신문』, 1951년 10월 19일, 2면.

다. 추첨위원회는 위원장 김영수(녀맹 부위원장), 부위원장 허인흡(조국보위후원회 부위원장)·현칠중(농맹 부위원장), 서기장 신호성(재정성 공채부장)과 위원 7명으로 구성되었다.¹⁰⁶⁾ 추첨은 판매 개시 당시 발표했던 대로 11월 25일 평양에서 공개추첨으로 진행하고, 당첨번호는 신문과 라디오 등 각종 보도기관에 발표될 예정이었다. 당첨금은 추첨 결과 발표 직후부터 조선중앙은행과 조선농민은행 각 지점 및 각 야전은행에서 지불하기로 하였는데, 1등과 2등의 당첨금은 조선중앙은행 중앙지점과 야전은행에서만 받을 수 있었다.¹⁰⁷⁾

11월 25일 공개된 추첨장에는 세 대의 추첨기와 당첨번호 게시판이 준비되었다. 추첨위원회는 각급 정권기관 대표들을 비롯하여 각 정당·사회단체 대표들과 군무자, 상인, 기업가, 시민들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추첨을 실시하였다. 추첨에 앞서 추첨위원회 위원장 김영수가 조국보위복권 사업의 경과와 의의를 설명하였다. 번호를 뽑은 것은 6명의 어린이들이었다. 당첨번호는 즉석에서 발표되어 게시판에 기록되었다. 이날 78차례에 걸친 추첨이 완료되었고, 당첨된 것은 5만 원 1매, 2만 원 2매, 1만 원 5매, 5천원 20매, 2천 원 50매였다.¹⁰⁸⁾

106) “제1회 조국보위복권 추첨위원회 구성”, 『로동신문』, 1951년 11월 25일, 1면. 위원은 평양시인민위원회 부위원장, 북조선중앙은행 부이사장, 노동자, 농민, 기업가, 상인 대표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107) “11월 25일에 제1회 조국보위복권 추첨”, 『로동신문』, 1951년 11월 23일, 1면.

108) “제1회 조국보위복권 추첨 진행”, 『로동신문』, 1951년 11월 26일, 3면.

그림 3 제1회 조국보위복권 추첨 장면(『로동신문』, 1951년 11월 26일, 3면)



추첨은 12월 16일에도 계속될 예정이고 총괄적인 당첨금액과 번호는 추첨이 끝나는 날 발표될 것이라고 하였지만, 『로동신문』에서는 이 이후의 추첨 경과에 대한 기사를 찾아볼 수 없다. 다만 60명의 1등 당첨자 중 첫 번째로 조선중앙은행 중앙지점에 당첨금을 찾으러 온 농민 립관오의 인터뷰 기사가 실렸다.¹⁰⁹⁾ 평안남도 룡강군 지운면에 거주하는 립관오는 구매한 12매의 복권 중 한 장이 1등에 당첨되어 당첨금 5만 원을 수령하였다. 당첨 소감을 묻는 질문에 그는 당첨금으로 축우를 사서 “전방에 있는 우리 인민군대에 더 많은 식량을 보내겠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

이렇게 하여 조국보위복권 사업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109) “조국보위복권 복금으로 축우를 사겠다 : 1등 당첨자 룡강군 립관오 농민”, 『로동신문』, 1951년 12월 26일, 3면.

조국보위후원회는 이 사업을 성공시킴으로써, 모든 사회단체가 동원체제에 결합하여 전쟁 전 자신의 고유 임무를 나눠야 했던 한국전쟁기에도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었다. 그리고 후방의 북한 주민들은 조국보위후원회에서 주도한 조국보위복권 사업으로 전쟁 승리를 염원하는 자신의 애국심을 복권 구메라는 '자본주의적' 방식으로 증명하는 새로운 일상을 맞이하게 되었다.

4. 맺음말

조국보위후원회는 조선인민군 원호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1949년 7월 15일 설립되었다. 조국보위후원회가 만들어진 것은 1949년부터 시작된 군사적 성격의 38선 충돌 및 북한의 전쟁 준비 전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북한이 한국전쟁에 대비하면서 추구했던 것은 전 사회의 군사화였고, 이를 위해 광범위한 대중을 포괄하는 전 사회적 대중동원단체를 필요로 했던 것이다. 북한의 선전과 달리 지방 단위에서의 조국보위후원회 조직은 순조롭지 않았지만, 조국보위후원회는 비행기·탱크·함선기금 헌납운동과 군사지식의 보급에 앞장서는 등 전쟁에 대비하였다. 조국보위후원회가 최일선에 서서 구축해놓은 동원체제 덕분에 북한은 한국전쟁 발발과 동시에 전시동원체제로 급속히 전환할 수 있었다.

개전 이후에도 조국보위후원회는 전쟁 수요에 따라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하면서 북한의 전쟁 수행을 뒷받침하였다. 전쟁이 발발하자 조국보위후원회는 군대에 대한 원조를 주요 활동으로 했던 전쟁 이전의 모습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직접 군사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그 기능을 확장하고 위생사업이라는 새로운 영역으로도 진출하였다. 뿐만 아니라 전쟁 이전 비행기·탱크·함

선기금 헌납운동을 주관했던 경험을 십분 발휘하여 군비 확충을 위한 조국보위복권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은 조국보위복권을 구매하여 자신의 애국심을 증명하는 새로운 일상을 살게 되었다.

조국보위후원회는 정전 이후에도 조선인민군 후방가족과 한국전쟁에서 희생당한 ‘애국열사’ 가족 및 ‘영예군인’·제대군인에 대한 원호사업을 전개하였다.¹¹⁰⁾ 원호의 대상만 전후 상황에 맞게 달라졌을 뿐, 활동 내용은 이전에 조국보위후원회가 맡았던 그것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조국보위후원회는 정전 후 약 6년 가까이 존속하다가 1959년 1월 ‘로농적위대’가 창건되면서 해체되었다.¹¹¹⁾ ‘로농적위대’는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료된 이후 북한 지도부가 추진한 4대 군사노선 중 ‘전 인민의 무장화’를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¹¹²⁾ 조국보위후원회의 탄생이 군사주의 확산을 알리는 계기였다면, ‘로동적위대’ 창설은 군대의 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또 한 번 강해졌음을 상징하는 사건이었다. 이렇게 전체하고 보면, 조국보위후원회라는 단체의 결성과 해체는 북한 사회의 변화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단편적으로 알려져 있었던 조국보위후원회의 결성 배경과 과정, 구체적인 활동 내용과 한국전쟁 발발 이후 확대된 역할 등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조국보위후원회의 실체가 어느 정도 해명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조국보위후원회의 조직체계를 밝히지 못했고, 단체의 자발성과 사회적 수용과정도 충분히 드러났다고 보기 어렵다. 비행기·탱크·함선기금 헌납운동으로 모금된 금액이 실제에 부합하는지

110) “애국열사 가족, 인민군 후방가족 및 영예군인들에 대한 전 인민적 원호를 강화할 대책 토의 : 조국보위후원회 개성시위원회 전원회의”, 『로동신문』, 1958년 1월 3일, 3면.

111) 『조선대백과사전』.

112) 서동만, 앞의 책, 825쪽.

아니면 과장된 것인지도 더 논구되어야 할 문제다. 이상의 내용을 밝히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자료발굴이 필수적이다. 이는 향후 연구과제로 남긴다.

(원고투고일 : 2018. 10. 9, 심사수정일 : 2018. 11. 17, 게재확정일 : 2018. 11. 19)

주제어 : 조국보위후원회, 군대원호, 군사지식, 한국전쟁, 조국보위복권, 전시 체제, 동원



〈참 고 문 헌〉

1차 사료·자료집 및 북한 문헌

국사편찬위원회, 『북한관계사료집』 3·4·15·18·39·53권

김일성, 「비행기사양군조를 조직할 데 대하여」(1950.12.29), 『김일성 저작집』 6,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로동신문』

리석청, 「조국보위후원사업을 위하여」(1950.1.18), NARA, RG242, SA 2012,

Box 1143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편, 『조선전사』 24, 평양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조국보위복권(백원)」, NARA, RG 242, 09/1953-01/1958, Item 299

「조국보위를 위한 조선중앙통신사 종업원 쫓기대회 보고서」(1949.11.3), 통일부 북

한자료센터 소장 마이크로필름 자료

「조국보위를 위한 조선중앙통신사 종업원 쫓기대회 회의록」(날짜 미상), 통일부 북

한자료센터 소장 마이크로필름 자료

「조국보위후원회 조선중앙통신사 초급단체 회의록」(1949.10.5), 통일부 북한자료

센터 소장 마이크로필름 자료

조국보위후원회 중앙본부, 『조국보위를 위하여』 창간호(1949.10)·1950년 신년호

(1950.1)·제2권 5호(1950.5)·1951년 4월호

『조선대백과사전』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1951~1952』, 평양 : 조선중앙통신사, 1952

최옥향,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새 조국건설시기 조국보위후

원회의 결성과 그 활동」, 『력사과학』 216, 평양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0

단행본 및 박사학위논문

기광서 외, 『한국전쟁기 남·북한의 점령정책과 전쟁의 유산』, 선인, 2014

김광운, 『북한 정치사 연구 I : 건당·건국·건군의 역사』, 선인, 2003

김남식, 『남로당 연구 I』, 돌베개, 1984

- 김두섭 외, 『북한의 인구와 인구 센서스』, 통계청, 2011
- 김태우, 『폭격 : 미공군의 공중폭격 기록으로 읽는 한국전쟁』, 창비, 2013
-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II : 기원과 원인』, 나남출판, 1996
-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 1945~1961』, 선인, 2005
- 서중석 외, 『전장과 사람들 : 주한유엔민간원조사령부 자료로 본 한국전쟁의 일상』, 선인, 2010
- 정병준, 『한국전쟁 : 38선 충돌과 전쟁의 형성』, 돌베개, 2006
- 정일영, 『북한의 사회통제체제 형성, 1945~1961 : 규범·동의·재사회화』,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2014
- 한성훈, 『전쟁과 인민 :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성립과 인민의 탄생』, 돌베개, 2012
- 황성철, 『北韓軍의 韓國戰爭遂行 戰略에 關한 研究 : 클라우제비츠의 摩擦理論을 中心으로』,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박사학위논문, 2008

연구논문

- 강혜경, 「한국전쟁기 후방 치안유지와 경찰」, 『인문과학연구』 30, 성신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2,
<http://uci.or.kr/G704-SER000014263.2012.30..012>
- 강혜경, 「한국전쟁기 서울 경찰과 후방치안」, 『인문과학연구논총』 35, 명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3,
<http://uci.or.kr/G704-SER000013482.2013.34.1.014>
- 김광수, 「북한정권 성립 이후 ‘통일’ 전략 논의와 전쟁 준비 -1948년 9월부터 1950년 1월까지를 중심으로-」, 『군사』 7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1,
<https://doi.org/10.29212/mh.2011..79.1>
- 김용현, 「로동신문 분석을 통한 북한정치 변화 연구 : 1945~1950」, 『북한연구학회보』 7-1, 북한연구학회보, 2003,
<http://uci.or.kr/G704-001326.2003.7.1.011>
- 김재웅, 「북한의 38선 접경지역 정책과 접경사회의 형성 -1948~1949년 강원도 인제군을 중심으로-」, 『한국사학보』 28, 고려사학회, 2007,
<http://uci.or.kr/G704-000690.2007..28.008>

- 김재웅, 「한 공산주의자의 기록을 통해 본 한국전쟁 발발 전후의 북한」, 『한국사연구』 141, 한국사연구회, 2008,
<http://uci.or.kr/G704-000361.2008..141.005>
- 김재웅, 「38선 분쟁과 접경지역 위기에 대처한 북한의 민간인 동원정책」, 『한국학논총』 45,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6,
<http://uci.or.kr/G704-SER000013600.2016.45..003>
- 김재웅, 「북한의 민간자원 동원정책과 일상적 동원체제의 형성(1945~1953)」, 『한국사연구』 175, 한국사연구회, 2016,
<http://uci.or.kr/G704-000361.2016..175.007>
- 김태우, 「한국전쟁 연구 동향의 변화와 과제, 1950~2015」, 『한국사학사학보』 32, 한국사학사학회, 2015, <http://uci.or.kr/G704-001549.2015..32.007>
- 문미라, 「한국전쟁 시기 중국인민지원군·연변(延邊) 조선인 사회의 ‘후방지원’ 활동과 북중 ‘혈맹’ 관계의 강화」, 『동북아역사논총』 57, 동북아역사재단, 2017
- 박영자, 「6·25전쟁기 북한의 ‘후방’정책 -후방 전시동원에 대한 『로동신문』 분석을 중심으로-」, 『군사』 5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5,
<http://uci.or.kr/G704-001528.2005..57호.010>
- 박영자, 「6·25전쟁과 북한여성의 노동세계 : ‘파괴와 재생산’의 전쟁에서 ‘창조와 생산’의 주체’였던 여성 연구」, 『아시아여성연구』 45-2,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2006,
<http://uci.or.kr/G704-001071.2006.45.2.005>
- 안태윤, 「북한여성들이 겪은 한국전쟁 -전쟁동원활동과 체제하의 생존전략-」, 『여성과 역사』 20, 한국여성사학회, 2014,
<http://doi.org/10.22511/women..20.201406.178>
- 안태윤, 「전후 북한여성의 삶과 탈북의 전략적 선택」, 『여성과 역사』 24, 한국여성사학회, 2016, <http://doi.org/10.22511/women..24.201606.187>
- 윤경섭, 「한국전쟁기 북한의 전시체제와 계엄」, 『인문과학』 62, 성균관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6, <http://uci.or.kr/G704-001847.2016..62.004>
- 윤경섭, 「북한·소련의 전시체제 형성 과정 비교 연구 -초기 ‘전시상태’와 국가기관

개편을 중심으로-」, 『사립』 61, 수선사학회, 2017

조수룡, 「한국전쟁 시기 북한의 전시생산과 중·소의 지원」, 『군사』 8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3, <http://doi.org/10.29212/mh.2013..88.61>

조영주, 「북한 여성의 전쟁 경험과 인민되기」, 김귀옥 외, 『여성(들)이 기억하는
전쟁과 분단』, 아르케, 2013



〈Abstract〉

The Establishment and Activities of Patriotic Supporter Association in North Korea

Moon, Mi-ra

Patriotic Supporter Association (PSA) was established on July 15, 1949, with the aim of supporting the North Korean People's Army. The establishment of PSA is closely related to the 38-line military conflict that began in 1949 and to the war preparation strategy of North Korea. What North Korea sought in preparation for the Korean War was the militarization of the whole society, and consequently, the government needed a full-scale social mobilization group that encompasses a wide range of masses. Unlike the propaganda of North Korea, organizing PSA at a local level did not proceed very well. However, PSA prepared for war by taking the lead in raising funds for airplanes, tanks and ships and spreading military knowledge, including military training. Due to the mobilization system established at the forefront by PSA, North Korea was able to rapidly switch to the wartime mobilization system as soon as the war broke out.

Since the beginning of the war, PSA supported various wartime activities of North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demands for the war. In a meantime, PSA further advanced its pre-war tasks of the military supporting role toward direct military functions, and also entered into a new area of sanitation business. Moreover, PSA successfully completed the patriotic supporter lottery ticket project in order to raise funds to perform war, using its experiences in the pre-war fundraising campaigns for airplanes, tanks and ships. In

the process, the North Korean citizens settled into the new routine of lives to demonstrate their own patriotism to their country by buying lottery tickets.

Key words : Patriotic Supporter Association, military support, military knowledge, the Korean War, Patriotic Supporter lottery ticket, wartime system, mobilization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18, No. 109, pp.245-280
<https://doi.org/10.29212/mh.2018..109.7>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병자호란 이전 조선의 군사력 강화 시도와 그 한계

-인조대 초반 병력 확보와 군량 공급을 중심으로-

허태구*



1. 머리말
2. 병력의 확보
3. 軍糧의 공급
4. 맺음말

1. 머리말

병자호란의 일방적 전황과 참패는 군비 확충에 노력한 광해군과 국방을 방기한 인조라는 이분법적 통념을 낳았다. 그러나 이러한 주류적 해석은 그것과 또 다른 사실을 전해주는 당대의

* 가톨릭대학교 인문학부 국사학전공 조교수

기록들을 주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신중히 재고할 필요가 있다. 정치사와 군제사를 결합시킨 李泰鎭의 軍營制 성립에 관한 연구가 병자호란 군사사의 기초를 다진 이래,¹⁾ 인조대 군사력 강화 시도와 노력을 다양한 부면에서 실증적으로 다룬 연구가 이미 학계에 많이 축적된 상태이다.²⁾

‘인조대 국방력 강화의 수준과 성과를 어느 정도로 평가할 것인가’라는 사안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의 각 논자마다 조금씩 견해를 달리 하지만, 적어도 이 시기에 인조대 집권 세력 또는 조선 조정이 절박한 위기의식 아래 군사력 강화를 추진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는 의견의 일치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한다. 위에서 언급한 병자호란 관련 군사사 분야의 선행 연구는 주로 전술 및 전략, 병기 제조와 축성, 군사조직과 방어체제의 변화 등에 역량을 집중하였다. 반면, 군사력의 기본 요소라 할 수 있는 ① 병력의 확보와 조련, ② 군량의 확보와 운송이라는 중요한 주제를 전론으로 다룬 연구는 희소하다.³⁾ 특히,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하여 조선 조정이 지대한 관심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는가’라는 의문에 대한 설명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동서고금을 통하여 한 국가의 군사력을 검토할 때, 체계적으

1) 李泰鎭, 제2장 「中央 五軍營制의 成立過程」, 『韓國軍制史-近世朝鮮後期篇-』, 陸軍本部, 1977; 제1장2절 「丁卯·丙子胡亂과 軍營體制의 발전」, 『朝鮮後期の 政治와 軍營制 變遷』, 韓國研究院, 1985.

2) 崔孝軾, 「仁祖代의 國防施策」, 『東國史學』 19·20, 東國史學會, 1986; 권내현, 「17세기 전반 對淸 긴장 고조와 平安道 방비」, 『韓國史學報』 13, 고려사학회, 2002b; 盧永九, 「인조초~丙子胡亂 시기 조선의 전술 전개」, 『韓國史學報』 41, 고려사학회, 2010; 허태구, 「仁祖代 對後金(淸) 방어책의 추진과 한계-守城 전술을 중심으로-」, 『朝鮮稱代史學報』 61, 조선시대사학회, 2012; 장정수, 「병자호란 이전 조선의 對後金(淸) 방어 전략의 수립 과정과 그 실상」, 『朝鮮稱代史學報』 81, 조선시대사학회, 2017 등.

3) 金鎔坤, 「朝鮮後期 軍糧米의 確保와 運送-宣祖~顯宗 年間을 中心으로-」, 『韓國史論』 9, 국사편찬위원회, 1981; 權乃鉉, 「17세기 전반 平安道의 軍糧 운영」, 『朝鮮稱代史學報』 20, 조선시대사학회, 2002a.

로 훈련되고 조직된 정예 병력의 존재 유무는 가장 기초적인 측량 지표 가운데 하나이다. 그리고, 이러한 병력의 활동을 보장하는 필수적 요건은 병기와 군량의 원활한 공급이라 할 수 있다. “군대는 胃로 행군한다.”는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警句는 특히 군량 보급(혹은 병참)의 중요성을 강조한 유명한 말이다.⁴⁾ 병력과 군량의 부족은 임진왜란의 발발 이래 꾸준히 지적된 조선군의 약점이었지만, 종전 이후 40여 년이 지난 병자호란의 발발 시점까지도 이 문제는 끝내 해결되지 못했다.

이러한 점은 養兵과 軍糧 공급의 문제가 정책 담당자의 수행 의지나 시간 부족의 문제라기보다 당시 조선 사회가 구조적으로 안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과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에서 제시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본 논문은 병자호란 이전 조선의 군사력 정비 과정을 병력의 확보와 군량의 공급이라는 사안에 집중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문에서는 이 두 가지 사안에 관련된 인조대 초반 조정의 논의와 대책을 정리하고, 아울러 그 한계와 문제점에 대하여 분석해보고자 한다.

2. 병력의 확보

1623년 광해군의 ‘廢母殺弟’와 후금에 대한 和親 정책을 비판하며 仁祖反正을 일으킨 西人들은 향후의 대외정책을 ‘崇明排金’의 기조 아래 운영할 것이라고 천명하였다.⁵⁾ 그러나 이러한 선

4) 마르틴 반 크레펠트, 『보급전의 역사』, 플래넷미디어, 2010, 4쪽.

5) 『仁祖實錄』 권1, 인조 1년 3월 甲辰(14일)條 일곱 번째 기사와 여덟 번째 기사에 실린 反正敎書 참조. 전자는 인목대비, 후자는 인조의 이름으로 반포되었지만 모두 반정 1등 공신에 錄勳된 張維가 지은 것이다.

언과 달리, 인조정권은 후금에 공세적 태도를 유보하고, 광해군 대 후반의 유연한 외교노선-和議論에 근거를 둔 羈縻策-을 답습하였다고 한다.⁶⁾ 이에 대해서는 신생 인조정권이 내부 안정을 우선시켰기 때문이라는 선행 연구의 해석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조선이 ‘승명배금’의 의지를 후금에 관철시킬 군사적 역량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더 주목해야만 한다. 당시 불안한 국제 정세로 인하여 軍備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동감하는 사안이었지만, 그 실현은 무엇보다도 군사적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체제 전반의 역량이 뒷바침되어야만 가능한 일이었다.

광해군 11년(1619) 3월 深河 전투는 당시 조선과 후금의 질적 군사력 격차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었다.⁷⁾ 派兵 자체를 반대한 광해군은 물론이고, 李爾瞻, 柳希奮, 朴弘耆를 비롯한 대부분의 조정 신료들도 애초에 조선군의 우세를 예견하여 파병을 찬성한 것은 아니었다.⁸⁾ 그들은 전력의 劣勢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對明義理를 지키는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파병을 주장하였

6) 한명기, 『임진왜란과 한중관계』, 역사비평사, 1999, 353~373쪽 참조.

7) 심하전투를 포함하여 이 때 벌어진 명군과 후금군의 전투 전체를 중국 학계에서는 대개 ‘薩爾滸戰’, 일본 학계에서는 ‘サルフ戰’으로 부른다. 이때 1만여 명의 후금군은 자신들의 본거지인 허투알라[赫圖阿拉]로 進攻하는 10만여 명의 명(8만 8천)·조선(1만 3천)·예허(2천) 연합군을 완파하였다. ‘심하전투’의 상세한 전황은 대한민국 육군대학譯, 『機動戰-사르호전』, 『軍事評論』 337호 부록, 1998, 191~203쪽 참조(原書는 陸戰史研究普及會 編, 『明と清の決戰』, 原書房, 1972).

8) 『光海君日記』 권127, 광해군 10년 윤4월 壬午(24일) “臣 弘耆 希奮 尙毅 爾瞻 馨男 時言 挺 公亮 慶全 沖 惇 蓋國 晚 瓘 瑾 致績 盼等議…我國兵農不分 素無預養之卒 重以蕩殘之餘 瘡痍甫起 今若策疲乏軍 助戰天兵 則無益於征勦 有害於自守 而其他種種憂虞之端 臣等亦豈不知 然而以大體言之 則有父子之義 以私情言之 有必報之義 以此以彼 斷不可不爲應援 若徒思我勢之弱 以示不肯之色 而天朝責以大義 迫不得已 然後方爲赴援 則後至之責 似不得免 而他日脫有緩急 則將何面目 求救於天朝乎”; 『光海君日記』 권161, 광해군 13년 2월 癸丑(11일) 등. 이하 본 논문에서 인용한 『光海君日記』는 조선후기 太白山史庫에 소장되었던 中草本이다.

던 것이다.

인조반정 초기에도 후금을 배격하는 논의는 비등하였지만, 이를 군사적 조치로 실행하기에는 다음 실록 기사에서 보이는 것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다.

(인용자: 이)元翼이 아뢰기를…“앞으로 奴賊을 방지하고 明軍[天兵]을 지원하는 일이 극히 난처합니다. 현재 민생이 도탄에 빠지고 나라의 재정이 고갈되었습니다. 반드시 수입을 헤아려 지출하여 용도를 절약하고 民을 아끼며, 무릇 徭役과 관계된 일들도 民에게 짐 지우지 않음으로써 民力을 조금이라도 펴게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百姓은 매우 신통한 존재라 그들로 하여금 明軍에게 보급하게 하더라도 원망이 없을 것이며, 奴賊을 정벌하게 하더라도 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비록 (인용자: 백성들이) 君臣의 大義는 모른다 하더라도 壬辰年의 再造한 은혜에는 모두 감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⁹⁾

영의정 이원익은 인조를 面對한 자리에서 ‘적을 방어하는 데에는 民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類의 유교적 원칙¹⁰⁾에 입각한 발언을 하였지만, 이것만으로 후금에 대한 실질적 방어가 어렵다는 것은 그 자신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더욱이 민심의 안정을 위해 요역과 세금을 경감하는 등의 조치는 군비 확충책과 兩立할 수 없었다.¹¹⁾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조반정 초기 후금과의 무력 충돌을 대비한 방어책이 여러 차례 논의되었지만, 조선군의 우세를 예견한 신료들은 거의 없었다. 특히 都元帥 張晩을 비롯한 李适, 鄭忠信

9) 『仁祖實錄』 권1, 인조 1년 3월 壬子(22일).

10) 『論語』, 「顏淵」 “子貢問政 子曰 足食 足兵 民信之矣 子貢曰 必不得已而去 於斯三者 何先 曰去兵 子貢曰 必不得已而去 於斯二者 何先 曰去食 自古皆有死 民無信不立”.

11) 『宣祖實錄』 권193, 선조 38년 11월 癸酉(3일) “柳永慶曰 專爲防備 則民力傷矣 恐傷民力 則防備疎矣 臣百爾一思 兩全之策 而一未得焉”; 『仁祖實錄』 권2, 인조 1년 7월 乙未(7일) “上曰 軍務與安民 有如水火之不相濟 糧餉器械之措備 率皆貽害於民 況今懸磬之患方極 將何以爲措也”.

등의 경험 많은 武將들은 野戰에서의 정면대결보다 守城과 방어에 치중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였다.¹²⁾ 인조 자신도 후금군이 월등한 기동력을 갖추고 있으며 조선군의 방어가 매우 허술함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가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하여 답답함을 토로하곤 하였다.¹³⁾ 이와 같은 인조대 초반 조정의 분위기는 “(적이) 온다면 비록 韓信이 다시 살아나고 諸葛孔明이 다시 일어나다 해도 우리나라의 人心과 兵力으로는 절대로 막아낼 수 없는 형편”이라고 말하며,¹⁴⁾ 후금과의 무력 충돌을 강력하게 만류하고 회피한 광해군의 판단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당시 ‘鐵騎’로 지칭되었던 후금의 강력한 기마 전력에 비해, 조선군은 軍政의 문란 및 훈련 부족으로 인하여 완비된 방어 전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광해군은 명에게 지원군을 보내야 한다는 신료들에게 兵農이 분리되지 않아 조련된 정예 병력이 거의 없는 조선군은 오히려 明軍에게 짐이 될 뿐이라고 반박하였다.¹⁵⁾ 명목상 주력군인 正軍은 평소에 훈련이 없는 상태였으며, 赴防時에도 代役을 쓰고 있는 실정이었다.¹⁶⁾ 임진왜란 이후 육성에 주력하였던 훈련도감의 軍兵도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한

12) 『仁祖實錄』 권1, 인조 1년 4월 辛酉(2일) “上御明光殿 引見都元帥張晚 晚曰…且賊之長技 在於馳突 我國兵勢 似難抵當 以我所長 攻其所短 則可以制勝 莫如據險而禦之”; 『仁祖實錄』 권2, 인조 1년 7월 辛卯(3일); 『仁祖實錄』 권5, 인조 2년 3월 戊辰(14일) 등.

13) 『仁祖實錄』 권1, 인조 1년 윤10월 辛亥(25일) “上書講大學於文政殿…上曰 伊賊行兵 非如我國 有事便發 其行甚疾 而在我邊備 如彼虛疎 近來多有設弊者 而未聞救弊之策 未知將何爲也”.

14) 『光海君日記』 권176, 광해군 14년 4월 辛巳(16일).

15) 『光海君日記』 권128, 광해군 10년 5월 壬辰(5일) “傳曰…我國兵力 果有分寸 可助天兵之勢 則雖掃境內, 荷戈執戈 爲王師前驅 不旋踵而死 少無所憾矣 第我軍兵無形之狀 聞於天下 予常心寒 而備局大提學 有若讞奴酋 而犁其庭者 予實未曉 以我疲兵 入討虎穴 不教之民 必先潰裂 到此尤得罪於天朝 將何兵而可禦長驅之鐵騎乎”.

16) 『光海君日記』 권39, 광해군 3년 3월 丁卯(27일).

채 賤한 使役에 동원되면서, 건장한 장졸들이 軍籍에서 빠지기도 모하여 헐벗고 굶주린 노약자들로 충원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¹⁷⁾ 훈련도감 소속의 將官, 別武士, 禁軍別隊의 경우, 명색은 馬兵이었으나 소유한 말이 없어 騎射 훈련조차 하지 못하는 형편이었다.¹⁸⁾ 게다가 위와 같이 각개 전투력이 떨어지는 병력을 통솔하여 전투에 임해야 하는 武將들의 지휘 능력도 높지 않았다.¹⁹⁾

이러한 상황은 인조대에도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은 부득이 후금과의 군사적 대결을 가급적 회피하는 방향으로 대외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정묘호란이 수습된 지 얼마 안 된 인조 5년(1627) 7월, 李貴는 軍務 개혁의 筭子를 올리면서 조선군과 후금군의 장단점을 비교하였다.²⁰⁾ 이에 따르면 전투 의지, 전문성, 攻守城戰 능력, 갑옷과 軍馬의 구비 여부, 포상 규정, 근접전 능력, 軍량의 보급 방식, 軍馬의 내구성, 정보 수집 능력 등이 조선군의 상대적 약점으로 지적되었다. 심하 전투에서 포로로 잡혔다가 귀환한 李民奐 역시 후금에 대한 방어책으로 산성 수축, 군마 육성, 군사적 정예화, 변방 군사 육성, 무기의 정예화, 무예 장려를 건의하였다.²¹⁾ 양자의 지적을 살펴보면, 당시 조선군이 군사력의 질적 측면에서 후금군에 비해 현저한 열세에 처해 있었다는 점을 여러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17) 『光海君日記』 권73, 광해군 5년 12월 丙申(13일).

18) 『光海君日記』 권106, 광해군 8년 8월 己未(21일).

19) 『宣祖實錄』 권142, 선조 34년 10월 壬辰(28일) “上曰 我國之人 兵書專不知 雖千人萬人 不過馳馬彎弓而已 將才則全無矣”; 『仁祖實錄』 권1, 인조 1년 4월 辛酉(2일) “上御明光殿 引見都元帥 申長 晚曰 必得將才 可以禦敵 而武將無一人知兵者 只知以賂做官而已 此輩將焉用之” 등.

20) 李貴, 『李忠定公章疏』 권8, 『陳軍務書一劄』 丁卯七月初八日.

21) 李民奐, 『紫巖集』 권6, 雜著 『建州聞見錄』.

그러나 더욱 큰 문제는 국방력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라 할 수 있는 병역 자원의 확보 역시 여의치 못한 상황 속에서 조선이 후금과의 전쟁을 대비해야 했다는 점이다. 즉, 조선은 군사력의 양적 측면에서도 후금군에 비해 확실한 우위를 점하지 못했다.²²⁾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결과를 돌이켜 볼 때, 패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훈련된 병력이 변경과 내륙의 군사 거점에 배치되어 견실한 상비 전력을 유지해야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대안은 17세기를 전후로 한 조선의 정치·사회·경제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실현되기 쉽지 않았다.

비록 축소 보고의 가능성은 있지만, 광해군 1년(1609) 1월 명나라 사신에게 알리려 한 京外諸邑 軍士의 총 수는 7만 6천 명에 불과하였다.²³⁾ 이 가운데 건주여진의 방어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평안도, 황해도, 개성부 군사의 합계는 1만 9천 명에 불과하였다. 그나마 이들 중 국경지역에 배치된 병력은 여러 거점에 분산·배치된 상태였으므로,²⁴⁾ 여러 부족을 통합하여 軍勢를 불린 건주여진의 대규모 침입에 전과 같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다.

22) 물론 병력의 총 수는 당연히 원정군인 후금(청)군보다 조선군이 많았지만, 이들을 대적하는 주요 戰場인 서북·경기 지역 방어거점의 병력 수만 놓고 보면 적에 비해 월등한 우위를 점했다고 보기 어렵다. 조선은 이와 같은 약점을 下三道의 병력 동원 등을 통해 보완하려 하였으나, 이동과 보급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는 약점이 있었다.

23) 『光海君日記』 권15, 광해군 1년 4월 15일 丙寅 “兵曹京外諸邑軍士總數 京中五百名 開城府四百名 京畿四千八百名 忠清道一萬名 江原道三千名 黃海道八千名 全羅道一萬八千名 濟州三邑一千七百名 慶尙道七千名 平安道一萬六千名 咸鏡道七千名 合七萬六千四百名 天使接見時 如或有問 以此數對之”; 이 기사는 병조 군적에 기록된 正軍의 수를 파악한 내용으로 보인다. 여기에 선조 36년(1630)경 이미 2,000여 명이 옷돌았던 훈련도감군의 병력이나 인조 11년(1633)경 9만 70여 명에 달했던 東伍軍은 포함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경·의 제읍 군사의 총 수도 실제 합하여 보면 7만 1천명에 불과하다. 이 때문인지 몰라도, 이 내용은 正草本 『光海君日記』(정축산본)에 실리지 않았다.

24) 『光海君日記』 권14, 광해군 1년 3월 辛卯(10일).

正軍의 실태와 관련해서는 광해군 10년(1618) ‘(병조) 軍籍에 등록된 騎兵과 步兵의 元數는 18만 명에 달했지만, 현재는 6만 명에 불과한데 그나마 상당수가 流亡으로 避役한 상태’라는 기록도 보인다.²⁵⁾ 서북 변경의 방어에 4~5만의 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지만, 심하전투 이전 실제 방어에 투입된 병력은 下三道의 赴防軍까지 포함하여 3만 정도였다.²⁶⁾ 이러한 병력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北道 公私賤 노비들의 군대 편입을 장려하거나,²⁷⁾ 정원 외로 등록된 校生의 軍籍 편입을 시도하였으나 민심의 반발로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였다.²⁸⁾ 대규모 인원을 선발하는 ‘廣取武科’(일명 萬科)를 시행하여 군사를 모집하기도 하였다. 이들 중 상당수를 出身軍官이라 하여 서북 변경의 방어에 의무적으로 1년 동안 복무하게 하였으나 큰 실효를 거두지는 못하였다.²⁹⁾

인조반정 직후 都元帥 張晩은 인조를 접견한 자리에서 명과 연합하여 후금을 토벌하기 위해서는 최소 5만에서 최대 10만의 병력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인조에게 보고하였다.³⁰⁾ 安州牧使 鄭忠信은 후금군의 총 병력을 9만여 명 정도로 추산하면서 10여만의 조련된 精兵이 있어야 요동 수복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³¹⁾ 이 자리에 동석한 延安府使 南以興도 정충신과 함께 훈련

25) 『光海君日記』 권125, 광해군 10년 3월 庚申(1일) “右副承旨朴鼎吉啓曰…兵曹軍數 概聞平時則騎步兵元數十八萬 而通計奉足 幾至五十萬 今則兵厯六萬 其中多有絕戶流亡者 除各色軍 訓練都監哨 軍戶奉足竝萬餘名外 視平時 不及九分之一 良民逃役之弊 據此可知”.

26) 『光海君日記』 권135, 광해군 10년 12월 甲子(9일); 『光海君日記』 권144, 광해군 11년 9월 丙午(27일).

27) 『光海君日記』 권36, 광해군 2년 12월 甲午(23일).

28) 『光海君日記』 권147, 광해군 11년 12월 己未(10일).

29) 17세기 민과의 운영 실태와 폐단에 대해서는 심승구, 「조선 후기 무과의 운영실태와 기능-萬科를 중심으로-」, 『朝鮮時代史學報』23, 조선시대사학회, 2002, 163~187쪽 참조.

30) 『仁祖實錄』 권1, 인조 1년 4월 辛未(12일).

된 정예 병력이 크게 부족하다는 점을 인조에게 강조하였다. 정묘호란 전후 조선이 파악한 동원 가능한 병력은 서북 지역을 포함하여 대략 10만 정도를 헤아렸으나,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군량 및 훈련 부족으로 인하여 제대로 된 전투력을 발휘하기 힘든 상태였다.³²⁾ 이처럼 인조대에도 잘 조련된 정예 병력의 부족을 인식하면서, 특히 서북 변경과 강화도·남한산성 등지의 군사 거점을 방어하는 병력의 증강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軍役 기피로 인한 병역 자원의 부족과 이로 인한 전투력의 질적 저하라는 조선군의 고질적 문제는 인조대에도 쉽게 개선되지 않았다.

인조 1년(1623) 8월 인조는 李适을 副元帥로 임명하여 평안북도 寧邊에 주둔하게 함으로써 후금 방어의重任을 담당하게 하였다.³³⁾ 그러나 이괄은 인조 2년(1624) 1월 22일에 起兵했다가 진압당함으로써 오히려 후금 방어의 주력을 소모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로 인한 서북 지역의 戰力 손실은 결과적으로 정묘호란의 방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³⁴⁾ 1만 2천 명 남짓한 이괄군은 불과 20여 일만인 2월 10일 都城을 점령하였지만, 이 때는 이미 官軍의 귀순 권유로 인하여 반란군의 상당수

31) 『仁祖實錄』 권5, 인조 2년 3월 戊辰(14일) “忠信曰 兵馬精強 實難當之賊 其兵之多寡 雖未詳知 聞有八部大人之說 又有四百爲一哨之語 大約可至九萬餘矣…忠信對曰 我國本是無兵之國 雖良將 誰與爲戰 今若抄發十餘萬衆 教訓一二年 則遼東亦可以進取矣 何必區區於守禦乎”.

32) 『仁祖實錄』 권2, 인조 1년 5월 乙未(6일) “浚謙曰 我國西路戍兵 不滿三萬”; 『仁祖實錄』 권16, 인조 5년 4월 丙辰(20일) “上曰 軍兵元數 必得十餘萬然後 乃可分老弱而用之 江原道則一邑軍兵之數 或不過十餘 豈有此理乎…廷龜曰…聞虜兵在窟穴者 其數不滿十萬云 我國則兩西軍兵 合數萬餘名 三南合五六萬 則幾至十萬 但兵雖多 無糧則爲無用之軍 宜量軍糧 而定軍數也”.

33) 『仁祖實錄』 권2, 인조 1년 8월 乙亥(17일).

34) 이괄란의 전개 상황과 영향에 대해서는 다음 논저를 참조하였다. 노영구, 제2절 1편 「대후금 방어전략과 이괄의 난」, 『한국군사사⑦-조선 후기 I』, 육군본부, 2012; 한명기, 「李适의 亂이 仁祖代 초반 대내외 정책에 미친 여파」, 『全北史學』 48, 전북사학회, 2016.

가 이탈한 상태였다.³⁵⁾ 도성 입성 후 다음날 鞍峴 전투에서 도원수 장만이 이끄는 官軍이 대승함으로써 이괄의 난은 가까스로 진압되었다. 이상의 경과를 당시 조선군인의 수도 방어 능력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후 조정은 수도권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扈衛廳과 御營廳의 병력을 각각 1천 명 수준으로 증원하고, 경기 일대의 병력을 재편하여 총 병력 2만 명 규모의 摠戎廳을 신설하였다.³⁶⁾ 이에 따라 인조 1년(1623) 6,500명 정도였던 수도권 일대의 방어 병력이 정묘호란 직전에는 4배 정도로 증원되어 2만 5천 명에 달하였다. 그러나 이괄란 이전 3만여 명에 달했던 헤아리던 서북 지역의 방어 병력은, 정묘호란 직전까지도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1만 6천 명 수준을 유지하는 데 그쳤다. 더구나 반란 이후 강화된 武將에 대한 감시, 즉 譏察은 서북 일대에 주둔한 병력의 조련에 커다란 장애가 되었다.³⁷⁾ 기찰로 위촉된 무장들이 괜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하여 군사 훈련을 자제하였기 때문이다.³⁸⁾ 그리고 이괄의 부하였던 韓明璉의 아들 韓濶이 후금으로 도주함으로써³⁹⁾ 조선군 전력의 虛實과 방어책이 고스란히 후금에게 누설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 한윤은 정묘호란시 姜弘立과 함께 후금군을 이끌고 들어왔다.⁴⁰⁾

방어 병력의 부족은 군사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은 탓도 있었

35) 『仁祖實錄』 권4, 인조 2년 1월 癸未(28일) “賊將柳舜懋 李胤緒 李愼 李珽等 自賊中逃還帥府 其所領軍兵四千餘人 皆潰散”.

36) 이하 서술한 이괄란 이후 조선의 군사력 증강 과정은 柳在城, 『丙子胡亂史』,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1986, 29~33쪽 참조.

37) 『仁祖實錄』 권5, 인조 5년 3월 癸巳(26일) “李植曰…譏察之事 未知其果有 而南以興亦以譏察 不得一番合操云 豈不惜哉”.

38) 한명기, 2016, 앞의 논문, 115~118쪽 참조.

39) 『清太祖實錄』 권9, 天命 10년 1월 癸亥(14일).

40) 『仁祖實錄』 권15, 인조 5년 1월 乙酉(17일).

지만, 30~40%에 육박한 노비 인구가 초래한 良人 인구의 부족, 士族들의 軍役 회피가 근본적 원인이었다.⁴¹⁾ 이 때문에 正軍과 奉足으로 대표되는 軍役의 구체적 임무가 軍籍에 남아 있는 농민들에게 집중되었다. 그리고 이것이 농민들의 避役과 代立, 아울러 破産과 유랑을 초래하는 악순환이 발생하였던 것이다. 公私賤 인구의 과다와 이로 인한 병역 자원의 부족은 명군의 눈에도 쉽게 인지될 정도였으며,⁴²⁾ 조정의 君臣들도 이 문제를 명확히 알고 있었다.⁴³⁾ 이러한 軍政의 모순은 궁극적으로 전투력 약화의 주 요인이 되었다.⁴⁴⁾

조선은 이미 입진왜란을 수행하면서 병력의 부족을 절감하였다. 軍役 자원을 확보하고 賦稅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戶口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公평한 軍役의 부과를 위하여 號牌法 실시와 함께 軍籍을 정리하자는 방안이 선조대부터 해결책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⁴⁵⁾ 그러나 행정력의 미비와 민간의

41) 이영훈, 「한국사연구에서 노비제가 던지는 몇 가지 문제」, 『한국사시민강좌』 40, 일조각, 2007, 144쪽; 오중록, 「서애 류성룡의 군사정책과 사상」, 『류성룡의 학술과 경륜』, 태학사, 2008, 199~204쪽.

42) 『宣祖實錄』 권33, 선조 25년 12월 己亥(13일) “(인용자: 崔滉曰…中原見我國執供億之役者皆丁壯 而編行伍者皆老弱 謂曰丁壯者何不赴戰 而請兵於上國云 此言甚可愜也”

43) 『宣祖實錄』 권39, 선조 26년 6월 丁酉(14일) “上敎政院曰 我國自來 武略不競 兵力單弱 蓋公私賤人 其數必過於軍丁 而名不登簽兵之籍 然公賤則猶能役於公家 至於私賤 則有司不敢問 爲國內一種人 此古今天下之所無也…備邊司回啓曰 我國士族之家 臧獲以千百數 而官兵則日就削弱 此雖國俗流傳之舊 難可卒變 然簽名操鍊 不可少緩”

44) 『宣祖實錄』 권33, 선조 25년 12월 己亥(13일) “(인용자: 崔滉曰…爲今計 無過於括軍也 中原見我國執供億之役者皆丁壯 而編行伍者皆老弱 謂曰 丁壯者何不赴戰 而請兵於上國云”; 『宣祖實錄』 권39, 선조 26년 6월 丁酉(14일) “上敎政院曰 我國自來 武略不競 兵力單弱 蓋公私賤人 其數必過於軍丁 而名不登簽兵之籍 然公賤則猶能役於公家 至於私賤 則有司不敢問 爲國內一種人 此古今天下之所無也”; 『光海君日記』 권152, 광해군 12년 5월 戊子(11일) “備邊司啓曰…況公賤也 私賤也 此外士族之子枝 難於編伍者 其麗不億 而既不隸兵籍 又不服公田 其於國家兵農之政 了不相干者也 一切驅入於兵農之中 其勢未由 除此而必欲分兵農 則其不足之患 猶夫前也”.

45) 『宣祖實錄』 권96, 선조 31년 1월 庚子(14일).

반발을 우려하여 본격적으로 추진되지도 못한 채 흐지부지되고 말았다.⁴⁶⁾

광해군대 초반에도 李廷龜의 건의 이후⁴⁷⁾ 비변사 주도로 號牌法 실시가 추진되었다. 오랜 논란 끝에 광해군 4년(1612) 1월에야 호패 착용이 시행되었다.⁴⁸⁾ 호패법 실시로 軍籍에 누락되어 있는 자들을 색출하여 병역 자원의 확보 및 재정 수입의 증대라는 효과를 기대한 조치였다. 그러나 軍役 부담의 증가에 불만을 품은 각 계층의 반발로 인하여 결국 광해군 4년(1612) 7월에는 그 시행이 완전히 중지되기에 이른다.⁴⁹⁾ 호패법에 가장 강력히 반발하였던 세력은 法制와 달리 사실상 군역의 부담을 지지 않고자 하였던 士族層이었다.⁵⁰⁾ 후일 광해군의 대외 정책에 반발하면서 심하 전투의 파병을 강력히 주장하였던 이이첨이 시행 과정에서의 民弊를 명분으로 호패법 실시에 반대하였던 모순적 행보 역시 흥미롭다.⁵¹⁾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인조대 초반 호패법 추진 논의가 다시 부활하여 崔鳴吉, 李貴 등 대표적 主和論者들의 주도로 추진되었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⁵²⁾ 반면 정계의 원로였던 이원익과 재야의 대표적 산림 金長生은 이이첨과 마찬가지로 ‘민심을 거스른다.’는 이유로 끝까지 호패법 실시에 반대하였다. 정묘호란 직후 김장생은 주화론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척화

46) 『宣祖實錄』 권103, 선조 31년 8월 乙丑(12일).

47) 『光海君日記』 권15, 광해군 1년 4월 乙卯(4일).

48) 『光海君日記』 권49, 광해군 4년 1월 己亥(4일).

49) 『光海君日記』 권55, 광해군 4년 7월 甲辰(12일).

50) 임진왜란 이후 士族層에 대한 充軍 정책과 이에 대한 반발은 김성우, 『조선중기 국가와 사족』, 역사비평사, 2001, 442~459쪽 참조.

51) 『光海君日記』 권36, 광해군 2년 12월 戊戌(27일).

52) 인조대 호패법 추진 과정에 대해서는 金容欽, 『朝鮮後期 政治史 研究 I-仁祖代 政治論의 分化와 變遷論』, 혜안, 2006, 191~195, 312~319쪽 참조.

론의 정당성을 강력히 주장한 인물이었다.⁵³⁾ 특히 이때는 호패 법뿐만 아니라 軍籍의 정비, 量田 등의 문제도 같이 거론되면서 ‘어느 것을 먼저 시행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기도 하였다.⁵⁴⁾

인조 4년(1626) 한양은 3월 1일까지 지방은 4월 1일까지 호패 착용을 마감한 결과,⁵⁵⁾ 男丁의 총수가 기존 103만여 명에서 226만여 명으로 대폭 증가하였다.⁵⁶⁾ 그동안 별다른 國役을 부담하지 않았던 閑丁 123만여 명이 호패를 착용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때 避役을 목적으로 校案에 등록한 것으로 파악된 校生은 4만여 명에 달했는데, 이들 중 2/3에 해당하는 2만 7천여 명이 정원을 초과하는 額外 교생이었다.⁵⁷⁾ 조정은 이들에게 『小學』과 『大學』의 구절을 암기하는 考講을 시행한 뒤 낙방한 자들에게 軍役을 부과하려고 했으나, 이러한 조치는 사족층의 강한 반발을 야기하였다. 張維가 작성한 劄子は 당시 이들의 불만과 명분을 잘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이른바 士族이라고 하는 자들은 원래 천하에 아직 있지 않았던 부류라고 할 것입니다. 농사를 짓지 않아 농업에 종사하게 할 자도 드물고 군대에 가지 않아 전투에 참여시킬 자도 드물기만 합니다. 나라가 貧弱하게 되는 원인이 꼭 이 자들 때문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그렇지만 名分을 유지하면서 國脈을 일으켜 세우는 것 또한 이들의 힘에 의지하고 있다는 점 역시 속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士族에 대해서 백성은 마치 그림자나 메아리 역할을 하는 데에 불과하다고도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臣이 일찍이 백성의 마음을 차라리

53) 金長生, 『沙溪先生遺稿』 권9, 「筵席問對」 丁卯三月初八日 “某曰 今番和事 雖出於爲宗社生靈之計 而其問斥和之議 不可無也 其言雖或過激 不可不優容矣”.

54) 『仁祖實錄』 권9, 인조 3년 7월 壬子(6일).

55) 『仁祖實錄』 권10, 인조 3년 12월 庚寅(16일).

56) 『仁祖實錄』 권13, 인조 4년 6월 丙子(5일) “號牌廳進追錄成冊 男丁總數一百二十三萬餘 其前所籍 乃一百三萬餘 合二百二十六萬餘云”.

57) 김성우, 2001, 앞의 책, 458쪽.

잃을지언정 사족의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한 번 군역에 편입되지만 하면 鄕吏에서도 대우를 받지 못하고 좋은 결혼 상대자도 나서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군역을 피하는 것이 마치 죽음을 피하는 것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58)

위 사료에는 당시 사족들에게 기피된 군역의 위상이 잘 드러나 있다. 장유가 ‘名分을 유지하면서 國脈을 일으켜 세우는 것 [其維持名分, 扶植國脈]’이라고 말한 부분은 임진왜란 때 사족의 義兵 활동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다. 59) 관군이 붕괴되는 임진왜란 초기 士族의 지역적 명망을 기반으로 鄕民의 호응을 받으며 일어난 의병이 신속한 진격으로 보급선이 급속히 확장된 일본군의 배후를 공격함으로써 임진왜란의 극복에 많은 기여를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60) 그러나, 사족들이 의병 봉기를 명분으로 마땅히 부담하여야 할 군역의 의무를 회피하였다는 비난 역시 심심치 않게 제기되었다. 61)

이태진은, 후일 良役變通論의 전개 과정에서 사족들이 임란 때의 의병 활동을 근거로 군역 부과 대상에서 빠지고자 한 논리

58) 張維, 『谿谷集』 권17, 「論軍籍擬上劄」.

59) 『仁祖實錄』 권14, 인조 4년 11월 辛卯(22일) “大司憲張維 執義姜碩期 持平金淸啓 曰…且我國士族奴婢 誠天下之所無 然而上下有統 尊卑有定 國家之所以維持者 寔賴於此 雖當兵亂之際 士族皆以名節自勵 絕無叛國投賊者 壬辰之亂 三南義旅 皆出於簪纓之緒 而咸鏡北路 素無世胄 故倡亂附賊 如鞠慶仁者 乃出於其中 由此觀之 士族之當扶植 亦已明矣”.

60) 李泰鎮, 「壬辰倭亂 극복의 사회적 動力」, 『朝鮮儒敎社會史論』, 지식산업사, 1989, 245~247쪽 참조.

61) 『宣祖實錄』 권30, 선조 25년 9월 戊寅(21일) “備邊司啓曰 昇平日久 紀律解弛 卒有戍事 無以收拾 爲武將守宰者 率皆遇賊輒北 有志者投袂奮義 糾合義旅 自爲一隊 揭名以義 爲諸道倡 故朝廷嘉之 凡所論賞 比他軍特優 至於名存軍簿 避亂逃散者 各自成群 厭避官家羈縻 見利則戰 遇強輒散 勝受上賞 敗不爲罪 不可使隊隊星散 無所統屬 朝廷方議可否”; 『宣祖實錄』 권35, 선조 26년 2월 甲辰(19일) “上曰 予意 提督之事 不爲非矣 避役者多投義兵云 然耶 德馨曰 江華一府 避亂避役 偷安之地 所謂義兵 各自號令 無所統令 故或強奸士女 或恣掠民財 無所不至 若此不已 則不無相聚爲盜之患也” 등.

에 대해 ‘노블레스 오블리제’의 실천이라 할 수 있는 의병 활동과는 상반된 선택이자 오점이며, 이것이 조선후기 정규군 강화 노력이 실패한 근본 원인이었다고 평가하였다.⁶²⁾ 우리는 흔히 임진왜란 전후 軍政의 문란과 義兵의 활약을 대조적으로 그리고 모순 없이 이해한다. 하지만 軍籍에서 누락된 사족·농민·노비는 지역 사회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었을 것이고, 의병은 사실 이러한 자원 가운데 일부로 구성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⁶³⁾

이처럼 군정 문란의 여파로 사족과 노비가 빠진 상태에서 군역과 봉족의 의무는 고스란히 군적에 남아 있는 농민의 몫이 되었다.⁶⁴⁾ 후금 방어를 위해 인조대 강력하게 추진된 호패법 역시 정묘호란 발발 직후에 사족층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철폐되고 말았다.⁶⁵⁾ 정묘·병자호란의 참패에 대하여 조정의 무능과 무책임을 지적하고 비난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정묘호란 직전 추진된 호패법이 결국 사족층의 광범위한 반발로 폐지된 점과 효종대 시작되어 영조대에야 종결된 良役變通 논의의 험난한 전개 과정을 보면,⁶⁶⁾ 후금(청)에 대항할 수 있는 정예 병력의 확보와 유지가 집권 세력의 의지만으로는 단 기간에 달성하기 어려운 복합적 과제였음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62) 李成茂 편, 제2차 집담회 「임진왜란을 이겨낸 리더십」, 『류성룡과 임진왜란』, 태학사, 2008, 459쪽.

63) 李成茂 편, 제2차 집담회 「임진왜란을 이겨낸 리더십」 중 오종록의 발언, 『류성룡과 임진왜란』, 태학사, 2008, 312~313쪽; 허태구, 「金誠一 招諭 활동의 배경과 경상우도 義兵 봉기의 함의」, 『南冥學研究』 40,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남명학연구소, 2014, 31~40쪽 참조.

64) 허남린, 「모순과 갈등의 인정-선조조를 통해 본 유교정치의 재정구조-」, 『조선시대 예교담론과 예제질서』, 소명출판, 2016, 342~343쪽.

65) 『仁祖實錄』 권15, 인조 5년 1월 丁亥(19일).

66) 鄭萬祚, 「양역변통론의 추이」, 『한국사32-조선후기의 정치』, 국사편찬위원회, 2006 참조.

3. 軍糧의 공급

古수를 막론하고 군량을 포함한 군수물자의 원활한 조달과 보급은 전투 이전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조건 가운데 하나였다.⁶⁷⁾ 임진왜란의 제반 軍務를 총 지휘했던 柳成龍은 전쟁 수행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糧餉, 軍兵, 城池, 器機의 順으로 정리하였으며,⁶⁸⁾ 따라서 군사비도 군량의 조달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지출되고 있었다.⁶⁹⁾ 더욱이 실제 전투에서는 확보된 군량이 행군 중이거나 전투 중인 병력에게 適期에 운송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전투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건이었다. 그러나 도로 발달과 수레 이용이 부진하였던 조선의 경우 군량의 조달과 운반은 백성들에게 크나 큰 고통을 안겨 주는 苦役이었다.⁷⁰⁾ 明·日과 달리 당시 조선에는 군수 물자의 조달에 상인들을 적극 활용하는 시스템이 不在하였다.⁷¹⁾

광해군대 명의 지원 요청에 선뜻 응하지 않았던 명분 가운데 하나도 다름 아닌 군량 공급의 문제였다.⁷²⁾ 국경 밖 장거리 원정이라는 조건은 군량의 조달과 운송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

67) 孫武, 『孫子兵法』 「作戰篇」 “善用兵者 役不再籍 糧不三載…取用於國 因糧於敵 故軍食可足也…國之貧於師者遠輸 遠輸則百姓貧…故智將務食於敵”.

68) 柳成龍, 『懲毖錄』 권16, 軍門籌錄 丙申(1596)六月二十日 「移京畿巡察使文」 “然其戰守大總 不過四條 一曰糧餉 二曰軍兵 三曰城池 四曰器機”.

69) 柳成龍, 『懲毖錄』 권16, 軍門籌錄 丙申(1596)六月十四日 「移戶曹文」 “乙未十月二十日道啓稱內 今日戰守之計 不過糧餉軍兵城池器械數事而已 然必須先備糧餉 然後他事次第可舉”.

70) 『宣祖實錄』 권37, 선조 26년 4월 丙戌(2일); 『宣祖實錄』 권51, 선조 27년 5월 甲辰(27일); 『宣祖實錄』 권75, 선조 29년 5월 己巳(3일) 등.

71) 寺田隆信, 『山西商人の研究』, 同朋舍, 1972, 123~124쪽; 구태훈, 「임진왜란 전의 일본사회-전국시대 연구 서설-」, 『사립』 29, 수선사학회, 2008, 247~249쪽 참조.

72) 『光海君日記』 권128, 광해군 10년 5월 壬辰(5일).

다.⁷³⁾ 불행히도 이러한 우려는 적중하여 심하 전투에 참전한 조선군은 군량과 말모이인 乾草를 적절히 보급 받지 못한 상태에서 후급의 막강한 기병을 맞이하여 싸울 수밖에 없었다.⁷⁴⁾

『光海君日記』의 撰者는 이 모든 책임을 군량 운송을 철저히 감독하지 않은 평안 감사 박엽과 管餉使 尹守謙에게 돌리고 있지만,⁷⁵⁾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군량 운송 시스템의 未備에 있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임진왜란 당시 조정은 부족한 군량의 확보와 운반을 위해 의병을 독려하는 한편⁷⁶⁾, 納粟 정책을 수차례 실시했지만 중간 관리의 횡령과 운송 능력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큰 실효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오히려 그 대가로 補官·免役·免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신분 질서의 혼란과 國役 자원의 감소만 초래하였다는 비난만 초래하였다.⁷⁷⁾ 요컨대 납속은 군량의 부족과 운송 체계의 未備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대안이 아니었다. 屯田 역시 부족한 군량을 조달하는 데 일정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私占 등 운영상의 폐단 또한 적지 않았다.⁷⁸⁾ 결국 군량의 공급 역시 養兵과 마찬가지로 사회 체제 전반의 생산력 및 행정력과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좀 더 범위를 좁혀보면 국가 재

73) 『光海君日記』 권130, 광해군 10년 7월 丙申(10일) “調度使尹守謙狀啓…大概軍兵在我境內 則雖左枝右梧 抽東補西 庶有繼餉之路 如渡遼陽 則千里險路運轉極難 百爾思之未得善策”.

74) 『光海君日記』 권137, 광해군 11년 2월 辛巳(27일); 『光海君日記』 권138, 광해군 11년 3월 乙酉(2일).

75) 『光海君日記』 권137, 광해군 11년 2월 癸未(29일) “元帥兵以糧運不到 留牛毛寨 劉提督亦屯兵不進 先遣喬一琦前進【其時 管餉使尹守謙追遙江上 無意督運 軍法若行 宜正乏興之律 而適全師容沒 竟無言其罪者】”; 『光海君日記』 권138, 광해군 11년 3월 辛卯(8일).

76) 『宣祖實錄』 권34, 선조 26년 1월 戊寅(23일) “上曰 各處義兵 無遺括出 使之輪轉糧餉 以供天兵 違令者 其將依軍令施行”.

77) 『宣祖實錄』 권50, 선조 27년 4월 乙卯(7일); 田炳喆, 「壬辰倭亂期 納粟政策」, 『龍巖車文變教授 華甲紀念論叢 朝鮮新代史研究』, 신서원, 1989, 535~531쪽 참조.

78) 李章熙, 「屯田經營의 實態」, 『壬辰倭亂史研究』, 아세아문화사, 1999, 277~283쪽 참조.

정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사안이었다.

후금과의 긴장이 고조되던 광해군대(재위: 1608~1623)와 인조대(재위: 1608~1649)는 임진왜란의 충격에서 경제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군량의 원활한 조달을 더욱 기대하기 어려웠다.⁷⁹⁾ 임진왜란 이전 150~170만여 결 사이를 오고 가던 전국의 田結은 종전후 30만결로 급감했으며, 숙종대에 이르러서야 130만결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16세기 말 1,000만여 명을 상회하였던 전체 인구는 종전 이후 700만 명선까지 내려갔다. 이러한 위기를 더욱 가속화시킨 것은 동아시아 세계를 휩쓴 小氷期(약 1500~1750년)의 영향이었다. 소빙기로 인하여 촉발된 자연재해는 旱災·水災·蟲災·기근·전염병 등의 형태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다시 收稅地 회복과 인구 증가에 적지 않은 타격을 주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兵農一致의 軍制를 基幹으로 운영하였던 조선은 정예 병력의 확보와 군량의 원활한 공급에 큰 곤란을 겪지 않을 수 없었다.

조선시대 국가 재정의 세 軸은 田稅, 徭役, 貢物이었다. 이 가운데 군량 조달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稅目은 田稅였다.⁸⁰⁾ 전쟁 이전 30만여 石 규모의 田稅 수입은 임진왜란 이후 급감하였다.⁸¹⁾ 이후 광해군~인조대에는 ‘국가의 1년 세입이 비용을 감

79) 임진왜란의 피해와 소빙기의 영향에 대해서는 李泰鎮, IV 「자연재해·전란의 피해와 농업의 복구」, 『한국사 30-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국사편찬위원회, 2002, 302~338쪽; 『새韓國史-선사시대에서 조선 후기까지』, 까치, 2012, 387~391쪽 참조.

80) 金鎔坤, 「朝鮮前期 軍糧米의 確保와 運送」, 『韓國史論』 7, 국사편찬위원회, 1980, 283~285쪽 참조.

81) 『宣祖實錄』 권41, 선조 26년 8월 辛卯(10일) “備邊司啓曰…我國全盛之時 一年稅入 兩界外 六道米豆粟并 歲僅二十三萬石 除豆粟外 不滿十四萬石”; 柳馨遠, 『礪溪隨錄』 권6, 田制攷錄 下 「國朝田制附」 “平時賦稅米黃豆并三十餘萬石【以十斗斛計之 則爲四十五萬餘斛】除西北兩界留本道外六道稅 二十六萬餘石”; 『宣祖實錄』 권200, 선조 39년 6월 壬戌(25일) “國家經費 專倚於稅入 有國之務 莫急於此 近年一歲稅入 僅至四萬餘石 而一歲經費 不下七萬餘石 不足之數 殆居其半 不得已每年有收米之舉 艱難支保 所謂收米者 乃是規外之賦”; 김옥근은 임진왜란 이전

당하지 못한다.’는 類의 기록이 實錄에 빈번하게 나타난다.⁸²⁾ 광해군 1년(1609)에 국가 경비는 7만여 석 정도였으나 세입은 4만여 석에 불과한 실정이었다.⁸³⁾ 인조반정 초기의 국가 재정 역시 經費는 11만 석이지만 稅收는 10만 석으로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⁸⁴⁾

여기에 광해군대 궁궐 영건에 소모된 비용, 明 使臣의 접대에 소모된 銀은 국가 재정을 더욱 악화시켰다. 오항녕은 당시 궁궐 공사에는 국가 재정의 15~25%가 소모되었다고 주장한다.⁸⁵⁾ 한명기는 광해군대 명 사신이 거두어 간 은의 수량을 최소 14만 兩 이상으로 추산하였다.⁸⁶⁾ 조정은 田結에 임시적 부가세인 結

전세 수입이 30만여 석이라고 본 유형원의 기록을 과소평가된 것이라 주장하며, 米 43만 5천 석으로 補正하였다(金玉根, 『朝鮮王朝財政史研究』, 一潮閣, 1984, 7쪽).

- 82) 『光海君日記』 권78, 광해군 6년 5월 甲子(13일) “戶曹啓曰…一年稅入, 既不能供一年之用, 則如非加賦於民, 萬無繼用之路”; 『光海君日記』 권109, 광해군 8년 11월 甲午(27일) “傳曰 一年稅入 不能周一年經費 此未必不由於田野不闢 不善耕墾 而然也”; 『仁祖實錄』 권19, 인조 6년 9월 丙子(19일) “戶曹回啓曰…大抵一年稅入 未能支一年之用 不足之數 至於二萬餘石”; 『仁祖實錄』 권22, 인조 8년 4월 丙子(27일) “戶曹啓曰 一年稅入 不足以應一年之用 而今此興師之舉 又出於意外 繼餉之策 不可不預講”.
- 83) 『光海君日記』 권16, 광해군 1년 5월 己酉(29일) “司諫院啓曰…今者國家經費七萬餘石 而稅入則不過四萬餘石 以此該曹拮据湊合 猶不補所缺之數”; 여기서 제시된 국가 경비는 액수로 보아 호조 재정의 지출 총액을 가리키는 것 같다.
- 84) 『仁祖實錄』 권1, 인조 1년 4월 甲申(25일) “上又曰 今之大事有二 而皆無實矣 以恤民言之 則實思未孚 以討賊言之 則軍政無形 極可寒心 且措置糧餉 尤爲急務 戶曹計一年經費 所餘幾許 戶曹判書李曙曰 一年經費十一萬石 所奉十萬石 經費猶且不足 有何餘儲 以補軍需 上曰 辦糧之難 甚於抄軍 軍可以臨急抄發 糧餉則決難猝備 而時無見糧 極可慮也”.
- 85) 오항녕, 『광해군-그 위험한 겨울』, 너머북스, 2012, 294쪽.
- 86) 한명기, 1999, 앞의 책, 222쪽; 당시 銀1兩=米1石의 교환 비율을 대입하면 米 14만 석 이상의 가치로 환산된다(『承政院日記』 6책, 인조 3년 6월 13일 己丑 “翼曰 今番所費 銀子十萬餘兩 其他贈遺合計 則幾至二十餘萬兩 折作軍糧 可買二十餘萬石矣”; 『孝宗實錄』 권15, 효종 6년 12월 癸亥(13일) “至是領敦寧府事金瑄請更定科條·錢無定價 隨時低昂 以銀折定其價 銀一兩直錢六百文 米布視銀直高下 米一升直錢四文 銀一兩 直米一石 且申嚴毀錢之禁”).

布를 수시로 부가하거나 調度御史를 전국에 보내 각종 물자를 징발하였으나,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않았을 뿐더러 민심의 악화 또한 피할 수 없었다.⁸⁷⁾ 이러한 상황은 모두 조선군의 養兵 및 軍糧 공급에 상당한 제약 요인이 되었다.

아울러 毛文龍의 陣營과 遼東 難民에 대한 식량 지원도 국가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주었다.⁸⁸⁾ 조선이 毛營에 공급한 식량은 인조 4년(1626)에만 15만 석에 달했는데, 山東으로부터 군량 공급이 중단되자 모영의 軍民은 대부분의 식량을 조선에 의지하고자 하는 실정이었다.⁸⁹⁾ 인조 5년(1627)에 이르면 毛營에 보내는 양곡이 1년 국가 경비(=호조 재정만을 의미)의 3분의 1에 해당한다는 보고가 나올 정도였다.⁹⁰⁾ 인조 7년(1629) 10월 管餉使 成俊壽의 보고에 의하면 毛營에 공급한 미곡의 총량은 26만 8천 7백여 석에 달했다.⁹¹⁾

게다가 毛營의 군민은 조선의 거점에 비축된 군량을 약탈하는 일도 서슴지 않아서 서북 지방의 民生과 軍政에 큰 피해를 끼치고 있었다.⁹²⁾ 조선은 모영에 공급하는 식량을 충당하기 위하여

87) 17세기 초·중엽 결포제 시행에 대해서는 윤용출, 『조선후기의 요역제와 고용노동』, 서울대학교출판부, 1998, 173~181쪽 참조; 조도어사의 作弊은 한명기, 1999, 앞의 책, 320~322쪽 참조.

88) 『仁祖實錄』 권14, 인조 4년 8월 乙巳(6일) “備邊司啓曰…且近緣山東糧餉不來 毛營數十萬石 專恃仰哺於本國 今年支給之數 已過十五萬石 決無可支之勢 須另議繼餉之策 以紓本國物力之意 竝及於回揭中似當”.

89) 『仁祖實錄』 권14, 인조 4년 8월 乙巳(6일) “備邊司啓曰…且近緣山東糧餉不來 毛營數十萬石 專恃仰哺於本國 今年支給之數 已過十五萬石 決無可支之勢 須另議繼餉之策 以紓本國物力之意 竝及於回揭中似當”.

90) 『仁祖實錄』 권16, 인조 5년 4월 乙卯(19일) “上曰 頒祿散料之外 無他浮費 而公私之竭 至於此極 未知其故也 毛兵糧 一結二斗 豈非大段徭役 而毛兵未撤之前 亦難罷之矣 金蓋國曰 毛營所送之米 卽國用三分之一也”.

91) 『仁祖實錄』 권21, 인조 7년 10월 甲戌(23일)

92) 한명기, 1999, 앞의 책, 378~384쪽; 鄭炳喆, 「明末 遼東 沿海 일대의 ‘海上勢力’」, 『明清史研究』 23, 명청사연구회, 2005, 153~163쪽 참조.

광해군대부터는 임시적 성격의 부가세인 西糧을 수취해야만 하였다. 서량은 毛糧·唐糧이라고도 하였는데, 평안도와 황해도에서는 결당 7斗를 兩湖를 포함한 三南 지역에서는 결당 1斗 5升의 서량을 수취하였다.⁹³⁾ 모문룡은 조선에 터무니없는 가격의 物貨를 強賣함으로써 폭리를 취하기도 하였다.⁹⁴⁾ 明使가 징색하는 銀을 다름 아닌 모영에서 변통하는 상황은 당시 인조대 초반 조선이 처한 재정적 위기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 할 만하다.⁹⁵⁾ ‘我國의 禍는 奴[=後金]가 아니라, 毛(文龍)에게 있다.’는 요지의 仁祖의 발언은 당시의 상황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⁹⁶⁾

이처럼 軍備의 측면에서 본다면 국가 재정의 불안이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부분은 軍糧의 확보였다.⁹⁷⁾ 앞서 언급한 정예 병력의 증강과 확보는 軍糧의 원활한 조달이 선행되어야만 시행될 수 있는 사안이었다. 인조반정 후에도 養兵과 관련하여 軍糧을 공급하기 어렵다는 실록 기사를 심심치 않게 찾을 수 있다.⁹⁸⁾ 정묘호란 당시 조선군이 軍糧의 부족으로 인해 정상적 작전 수행에 차질을 빚은 점도 주목된다. 후금군에 비해 확실한 우

93) 權內鉉, 2002a, 앞의 논문, 180~182쪽 참조.

94) 『仁祖實錄』 권10, 인조 3년 9월 癸丑(8일) “戶曹啓曰 毛營貸銀未償之數 尙有五千餘兩 長爲負債之人 誠有所未安 都督前後發賣雜貨之價 未准還償者甚多 此則彼所勒定出給之物也 縱未赴卽充納 猶有可諉 而今此貸銀 則自我取來 若不速償 彼不無執言恐嚇之弊”.

95) 위의 각주.

96) 『承政院日記』 16冊, 仁祖 4年 10月 20日 己未 “我國之憂, 在於毛而不在於奴也, 奴之憂緩, 毛之憂急矣.”

97) 유성룡의 「時務劄子」에 의하면 조선시대 1만 병사의 1년 배급량은 4만 4천 石 정도였다(柳成龍, 『芹曝集』, 甲午(1594)四月 「陳時務劄」 “蓋一萬名一年之糧 內四萬四千石”). 이 비율로 환산하면, 5만 병사를 常備 전력으로 유지할 경우 소모되는 軍糧만 22만 석에 달했다. 병사의 家率들에게 생활비로 지급되어야 할 부가 비용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98) 『仁祖實錄』 권2, 인조 1년 6월 辛未(12일); 『仁祖實錄』 권7, 인조 2년 12월 壬寅(22일) 등; 병자호란 이전 인조대 軍糧 조달에 대해서는 金鎔坤, 1981, 앞의 논문, 156~164쪽 참조.

위를 점하지 못했던 각 방어처의 부족한 병력도 문제였지만, 그나마 이에 대한 군량의 보급이 원활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기록이 『인조실록』의 곳곳에서 확인된다. 한강과 임진강 방어에 동원되었던 병력은 군량의 부족으로 전투 이전에 이미 붕괴의 조짐을 보이고 있었다.⁹⁹⁾ 강화도의 경우 군량의 부족으로 이미 집결하였던 1만의 병력 중 御營軍과 下三道의 사냥 포수를 제외한 나머지 병력은 다시 돌려보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¹⁰⁰⁾ 오히려 원정 온 후금군의 주력은 군량과 풀이 다 떨어졌다고 스스로 말하였지만,¹⁰¹⁾ 크게 굶주리는 기색없이 한달 이상 더 주둔하다가, 丁卯和約이 성립된 3월 3일 이후에야 철군하였다. 후금군의 장기 주둔이 가능했던 데에는 城의 점령으로 조선에서 획득한 군량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원정 경험이 풍부한 후금군의 병참보급 능력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이다.

다음 사례는 軍備 증강과 民生 안정이란 과제가 상호 모순적으로 충돌하고 있었던 인조대의 실상을 더욱 생생하게 보여준다. 인조는 丁卯胡亂 발발 이후 戰勢가 급격히 기울자 강화도로의 피난을 결심한다. 인조반정 이후 都城을 비우는 쉽지 않은 조치가 이괄의 난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되면서, 동요하는 민심을 달래기 위한 哀痛의 敎書가 전국에 반포되었다. 張維의 손을 빌어 작성한 이 교서는 국왕의 失政을 자책하며 향후의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하며 민심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므로, 이 교서를 통해 집권세력의 정국 인식뿐만 아니라 당시 士族과 백성의 불만이 무엇인지 거꾸로 추적해 볼 수 있다.

99) 『仁祖實錄』 권15, 인조 5년 2월 己未(22일).

100) 『仁祖實錄』 권15, 인조 5년 3월 乙未(28일).

101) 『仁祖實錄』 권15, 인조 5년 2월 癸卯(6일) “大金國二王府 傳諭張尙書 爾稱講和可差官速來 若不願講和 將我二次發去金人 速發回來 我在野外下營 一百里內糧芻撤盡 且無房屋 如此艱難辛苦, 備可想了”.

인조는 이 교서에서 자신이 민심을 잃어버린 이유로 크게 네 가지를 거론하였다. 첫 번째, 즉위 직후 시행한 개혁 조치의 과실이 백성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지 못하였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두 번째, 연이은 告變과 옥사로 무고하게 연루된 자가 많은 점을 지적하였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모두 군사 문제와 연관된 失政에 대한 자신의 所懷를 진술하였다. 다음은 이때 인조가 반포한 교서의 일부이다.

서쪽 변경에 오랜 동안 군사를 주둔시키고 모문룡의 진영에서 군량을 독촉하는 바람에, 길 떠나는 사람은 짐을 싸고 집에 있는 사람은 보낼 준비를 하였다. 사람들의 머리수에 따라 조세를 거두어들이니, 백성들은 곤궁에 빠지고 국고는 탕진되어 안과 밖이 소동을 겪었다. 비록 부득이한 일이었지만 백성들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겠는가? 이것이 내가 민심을 잃어버린 세 번째 일이다. 호패법은 본래 도망갔거나 죽은 자들의 缺員을 보충하고 隣族의 폐해를 제거하고자 한 것이었으며, 백성들을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1백 년 동안이나 폐지되었던 법을 갑자기 거행하여 술한 놀고먹는 사람을 강제로 단속하였으며 일을 추진하는 데 급급하여 점진적으로 하지 못하였다. 구속하기를 지나치게 엄정하게 하고 독촉하기를 너무 치밀하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그 불편한 점을 많이 말하였으나, 나의 독단으로 [호패법을: 인용자] 중지시키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못사람들의 분노를 샀으니 누가 나의 본심을 헤아리겠는가? 儒生의 考講은 실제 처음 시행한 것이 아니라 古典에 의거한 일이었으나, 역시 時宜에 맞지 않았다. 뜻은 비록 장려에 있었으나 사람들은 도리어 그 가혹하고 각박함을 의심하였다. 이것이 내가 민심을 잃어버린 네 번째 일이다. ...이미 명령을 내려 謫道의 御使를 소환하고 호패법을 일체 폐지토록 하였으며 작성한 장부들을 불태우게 하였다. 그리고 전후에 걸쳐서 호패에 대한 일로 연좌되어 갇히거나 徒配된 자들 모두를 사면시켰다. 이 한 장의 종이에 나의 정성을 담아 각처에 널리 알리노니 각기 나의 이 마음을 살피서 忠義心을 분발하여 몸을 떨쳐 일어나라! 그리하여 의로운 군대[義旅]를 소집하여 行在所로 달려오기도 하고, 양식을 끌어 모아 軍前으로 수송해 오기도 하는 등 각자 형편과 힘이 닿는 대로 分義상 당연히 해야 할 일을 극진히 하도록 하라!¹⁰²⁾

102) 張維, 『谿谷集』 권2, 教書「八道宣諭教書」; 『仁祖實錄』 권15, 仁祖 5년 1월 丁亥(19일).

위의 사료에서 볼 수 있듯이, 정묘호란 당시 인조정권이 인심을 잃어버린 가장 큰 이유는 ‘후금에 대한 방어 소홀’이 아니었다. 오히려, 당시의 집권세력은 후금과의 군사적 긴장의 고조됨에 따라 군량 확보를 위한 增稅를 시행하고, 불법으로 누락된 軍役 자원을 색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려다가 민심의 역풍을 맞이하였던 것이다.¹⁰³⁾ 군역이 이미 苦役化·賤役化되어버린 사회·문화적 여건 속에서, 후자의 조치는 특히 사족층의 강력한 반발을 받았다.¹⁰⁴⁾

이 교서의 말미에서, 인조는 호패의 파기와 새로이 작성된 호적대장[成籍]의 소각을 명하였다. 이것은 군비 증강과 민간의 이해가 충돌하는 딜레마적 상황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¹⁰⁵⁾ 적군의 침입으로 도성까지 버리고 피난가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지만, 군비 증강을 위한 호패법 시행은 민심의 불만을 달래고 사족층의 의병 봉기를 유도하기 위해 유명무실화되고 말았다. 이상에서 검토한 여러 사실과 정황은 당시 조선의 정치·사회·경제적 상황이 무리한 養兵과 군량 조달을 감당할 만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시사한다.¹⁰⁶⁾

103) 『承政院日記』 24책, 인조 7년 2월 27일 癸丑 “伯曾曰 光海時 田結之役甚重 民不聊生 近日則號牌軍籍 民心騷屑矣”; 『昭顯分朝日記』 4책, 天啓 七年 三月 十七日 甲申 晴 “溫陽幼學趙相禹上疏…今日之禍 不作於今日 而其階也 有自失我民心 一京大同也 二戶牌也 三軍籍也 四刑戮也 五賦役也” ‘금일지화’는 정묘호란의 패전과 이로 인한 후금과의 화친을 가리킨다.

104) 『昭顯分朝日記』 1책, 天啓 七年 正月 二十六日 甲午 晴 “水原府內 人民數十 呼訴於道左 請焚戶牌成冊 世子駐馬下令曰 已盡焚燒 勿爲疑慮”; 『昭顯分朝日記』 2책, 天啓 七年 二月 十一日 戊申 晴; 『昭顯分朝日記』 4책, 天啓 七年 三月 十七日 甲申 晴 등.

105) 군비 증강과 관련하여 일반 백성의 불만도 작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인조 7년(1629) 李忠景, 韓成吉 등은 서북 일대에서 明火賊을 이끌고 반란을 일으켰다가 처형당하였다(『仁祖實錄』 권20, 인조 7년 2월 癸丑(27일)). 이들이 선포한 개혁안인 「개국대전」에는 良人의 군역을 가볍게 하고 士族에게 군역을 부담하게 하며, 兵使와 수군 및 훈련도감의 혁파를 주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金鍾洙, 「17세기 軍役制의 推移와 改革論」, 『韓國史論』 22,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90, 168~171쪽 참조).

106) 필자와 비슷한 관점에서, 栗谷 李珣가 제기했다고 알려진 「十萬養兵說」의 비현

군량의 조달을 포함한 국방력 확대가 국가 재정의 확대 없이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는 사실은 이미 임진왜란을 겪은 선조대부터 확실한 공감대를 이루고 있었는데,¹⁰⁷⁾ 선조도 군사 문제가 국가 재정과 직결되는 사안임을 지적하였다.¹⁰⁸⁾ 선조의 발언은 군사력의 강화라는 목적이 조선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기존의 관행과 이해관계가 반드시 재조정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하였다. 다시 말해, 이 시기 軍政의 개혁은 이미 군사적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관계의 재조정을 의미하는 사안이었던 것이다. 이상의 맥락에서 볼 때, 조선후기의 군사 재정이 전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1/4)이 다른 서구 국가들은 물론이요 중국과 비교해 볼 때도 낮은 수준이었다는 한 경제사학자의 해석은 매우 시사적이다.¹⁰⁹⁾ 이 해석의 論者는 이러한 방식의 재정 운영은 조공 책봉 체제 아래 중국과의 군사 동맹이 존재하여 가능한 것이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반면, 비슷한 시기의 서구 국가는 무역 활성화, 상공업 증진, 민간 금융(=國債 발행)의 제도적 보장, 식민지 확보 등에 따른 稅源과 재정의 확대라는 정책을 통하여 막대한 軍備 지출을 감당해 낼 수 있었다.

실성을 비판한 선행 연구로는 李載浩, 『韓國史의 批正-李載浩史評集-』, 도서출판 宇石, 1985, 220~225쪽을 참조하기 바란다.

- 107) 『宣祖實錄』 권97, 선조 31년 2월 庚午(15일) “史臣曰 我國土地磽薄 一畝所產不及中原十分之二 桑田絕無 一國養蠶 不滿中原萬分之一 以不敷之穀粟 貨至鮮之布帛 而又無中原銀山銅穴之流泉 國計安得而不匱 生民安得而不乏 雖在平時 尚然 況此兵興之時乎”.
- 108) 『宣祖實錄』 권191, 선조 38년 9월 己亥(28일) “上曰…且倭賊則雖以漢唐之盛亦難當也 至於北賊 一良將足矣 而如是難之 誠可痛也 蓋蓄積多而後 可以有爲 古人云 富國強兵 雖不可主於富強 必有蓄積然後 事可成矣 天下安有如此貧國 恰似閭閻窮乏之家 營一鎮堡 亦甚不易”.
- 109) 金載昊, 「조선후기 군사재정의 수량적 기초: 규모, 구성, 원천-『賦役實摠』의 분석을 중심으로-」 『朝鮮時代史學報』 66, 조선시대사학회, 2013, 235~236쪽 참조.

4. 맺음말

이상의 논의를 기반으로 볼 때, 국방 태세의 해이나 金自點, 金慶徵 등 일부 지휘관의 무능과 비겁만을 병자호란의 주요 敗因으로 간주하는 것은 다소 결과론적인 해석이 아닐 수 없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조대 초반을 중심으로 조선의 군사력 정비 과정-병력의 확보와 군량의 공급-을 살펴본 필자는 광해군대와의 질·양적 차이를 크게 느낄 수 없었다.¹¹⁰⁾ 오히려, 후금(청)의 침입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군사력을 단 기간에 증강하는 것은 집권 세력의 의지와는 별도로 당대의 여러 조건을 고려해 볼 때 至難한 과제였다는 점만 확인할 수 있었다. 軍役 자원의 확보, 정예병의 확보와 육성, 공략이 어려운 견고한 요새의 구축, 軍糧과 火砲의 충분한 비축, 軍馬의 육성 등은 군사력 강화를 위해 어느 누구도 쉽게 제기할 수 있는 방안이었지만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조치를 당대의 정치·사회·경제·문화적 여건 속에서 마련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였다.

강경론을 주장한 척화론자조차도 戰力의 열세를 부정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 역시 軍備의 증강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富裕하고 勢道있는 사람부터 군사로 선발한다면 십수만 명의 精兵을 쉽게 양성할 수 있다는 尹煌의 주장이나¹¹¹⁾ 국왕이 開城에 進駐하면 군사의 士氣가 올라 쉽게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鄭蘊의 주장¹¹²⁾ 등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空理空談에 불과한 것이었다.¹¹³⁾ 앞서 살펴보았듯이 윤희의 양병론은 당시의 정

110) 축성 및 화약병기 조달과 관련하여, 17세기 조선의 군사력 강화 시도와 그 한계에 대해서는 허태구, 2012, 앞의 논문 참조.

111) 『仁祖實錄』 권33, 인조 14년 8월 辛卯(20일) “四方選兵, 亦用此道, 先發豪門盛族而後, 及小民則舉國元元, 風動於下, 孰敢有怨咨之心, 孰敢生規避之意哉 如是則十數萬精兵, 可不勞而得也”.

112) 『仁祖實錄』 권32, 인조 14년 3월 庚申(15일).

113) 일찍이 김용흠은 保民과 養兵, 安民과 禦敵이 상호 모순된 성격의 것임을 지적하면서 척화파 변통론자(=국방강화론자)의 문제점과 허구성을 지적한 바 있다

치·사회·경제·문화적 조건을 고려해 본다면 시행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이었다. 이른바 부유하고 세도있는 사람부터 군역에 充定한다는 제안의 전제 자체가 시행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는 ‘자신의 양병론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라는 핵심적 문제를 국왕에게 미룬 채 자신의 소임을 다하였다고 주장한 인물이라 평가할 수 있다. 당시 국방 개혁을 위한 중요한 현안들은 조선 사회의 전체적 구조와 직결되는 근본적 문제였다. 사실 양반을 군대에 편입시키기보다, 時王의 나라인 명에서도 시행하고 있지 않으며 경전적인 근거도 부족한 세습 노비제를 폐지하는 것이 국방 강화를 위한 가장 빠른 길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국방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조선사회를 구성하는 신분제 개혁과 연관된 복잡하고 구조적인 사안이었다.

다음에 제시된 윤희의 筥子에 대한 비변사의 回啓는 養兵과 民心이 충돌하는 당시의 상황을 잘 보여준다.

城也, 兵器, 足食, 足兵의 허다한 직무는 戰守를 위한 큰일이니 어찌 잠시인들 마음속에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서둘러 하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民力이 감당하지 못하여 혹시 內亂에 이르지 않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지금까지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인심입니다. 지금 만약 宗室 이하 諛班의 각종 사람들을 모두 모으고 시민과 公私賤에 이르기까지 병사를 만든다면, 군대의 수는 많이 얻을지라도 반드시 나라의 근본이 흔들릴 것입니다. 이 무리들로 하여금 도적을 막게 한다면 양떼를 몰아서 호랑이를 공격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러나 병조로 하여금 의논하여 처리하게 하는 것이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¹¹⁴⁾

서구 절대주의 왕정의 성립과 근대 국가의 형성·발전에 수많은 전쟁이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金容欽, 2006, 앞의 책, 126~127쪽).

114) 『仁祖實錄』 권33, 인조 14년 8월 辛卯(20일).

軍事革命(Military Revolution)은 16~17세기 무렵 유럽에서 있었던 군사 기술 및 전략의 획기적인 변혁을 일컫는 말로서,¹¹⁵⁾ 이 시기 전술과 병기의 발전, 그리고 이에 수반된 전쟁 수행 방식의 전환이 서구 근대각국의 근본적이고 혁명적 변화를 초래했다는 이론이다. 중국의 春秋戰國時代와 일본의 戰國時代의 혁명적 체제 변화 역시 전쟁과 내란의 지속적인 압력 아래 달성된 것이었다.¹¹⁶⁾ 이 과정에 수반된 수많은 개혁과 발전은 구체제하 여러 집단의 격렬한 반발과 희생 속에 달성된 고통스런 결과물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둔다면, 당대 조선의 군비 확충이라는 사안은 집권 세력의 의지에 좌우되는 단기적 과제가 아니라, 사회 체제의 근본적 전환과 직결되는 구조적이고 장기적 과제였다는 결론에 조심스럽게 도달할 수 있다. 비교사적 견지에서 좀 더 과감하게 말해 보자면, 임진왜란(7년, 실제 전투 기간은 2년 남짓), 사르후 전투(1개월), 정묘·병자호란(도합 5개월 정도)이란 전쟁이 조선 사회의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기에 너무나 짧았던 것은 아니었을까?¹¹⁷⁾

일찍이 이와 유사한 인식을 토대로, 필자는 胡亂期の 斥和論이 명나라에 대한 맹목적 종속 의식이나 국제 정세에 대한 오관에서 제기된 것이 아니라, 明이란 記標(signifiant)로 상징되는 中華 문명의 가치를 당대 조선의 君·臣 모두가 공유한 데서 비

115) 박상섭, 『근대국가와 전쟁-근대국가의 군사적 기초 1500~1900』, 나남출판, 1996, 73~76쪽 참조.

116) 일본 전국시대의 통일 과정과 이에 수반된 사회 체제의 획기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구태훈, 2008, 앞의 논문 참조.

117) 최근 국내에 번역된 두 책은 근대 이후 동·서양 군사력 격차의 발생 원인을 집권 세력의 賢否나 대응보다 역사적 경로의 相異, 정치·경제·지리·사회적 환경의 차이 등 구조적 요인에 더 주목하여 설명한다(필립 T. 호프먼, 『정복의 조건-유럽은 어떻게 세계 패권을 손에 넣었는가』, 책과함께, 2016; 아자 가트, 『문명과 전쟁』, 교유서가, 2017).

롯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¹¹⁸⁾ 당시 조선의 척화론자들이 진정으로 걱정하였던 것은 명나라의 問罪 또는 보복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對明義理의 포기가 상징하는 윤리와 문명의 붕괴였으며, 이것이 초래하게 될 天下 사람들과 後世의 비난이었다.¹¹⁹⁾ 따라서, 이들에게 주화·척화의 대립은 외교적 진로의 선택이 아닌 인류와 짐승, 문명과 야만을 택하는 실존적 결단의 문제였다고 규정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보아야만, 우리는 ‘對明義理의 固守를 위해서는 나라가 망해도 청과 和親할 수 없다.’ 類의 주장을 제기한 척화론자에 대한 진정한 이해의 실마리를 잡게 될 것이다.

(원고투고일 : 2018. 10. 8, 심사수정일 : 2018. 11. 11, 게재확정일 : 2018. 11. 20)

주제어 : 병자호란, 군사력, 병력, 군량

118) 조선이 자국 戰力의 열세를 인지하고 명군의 구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朝野에서 광범위하게 斥和論이 제기되고 지지받았던 현상을 ‘두 개의 對明 인식’이라는 차원에서 試論적으로 설명한 선행 연구가 있다. 이 가운데 하나는 특정 국가로서 明에 대한 인식이고 다른 하나는 中華라는 보편 문명을 상징하는 明에 대한 인식이다. 선행 연구의 필자는 척화론이 전자가 아닌 후자의 차원에서 제기된 것이라고 보았다(許泰玖, 『丙子胡亂의 정치·군사사적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9, 166~171쪽).

119) 『仁祖實錄』 권32, 인조 14년 2월 辛卯(16일) “掌令洪翼漢上疏曰…我國素以禮義聞天下 稱之以小中華 而列聖相承 事大一心 恪且勤矣 今乃服事胡虜 偷安僅存 縱延晷刻 其於祖宗何 其於天下何 其於後世何…苟欲稱天子位大位 唯當自帝其國 號令其俗 誰復禁之 而必欲稟問於我而後 行帝事哉 其所以渝盟開讐嚇我藉我者明矣 而亦見其要我立信 將以稱於天下曰 朝鮮尊我爲天子 殿下何面目 立天下乎” 등.

〈참 고 문 헌〉

1. 사료

- 孔子(B.C. 551~B.C. 479), 『論語』(成百曉 譯註, 傳統文化研究會, 1990)
 孫武(B.C.535?~?), 『孫子兵法』(유동환譯, 흥익출판사, 2005)
 金長生(1548~1631), 『沙溪先生遺稿』(한국고전번역원, <http://db.itkc.or.kr/>)
 柳成龍(1542~1607), 『西厓全書』(西厓先生紀念事業會, 1991)
 李貴(1557~1633), 『李忠定公章疎』(李秉九 編, 서울: 寶蓮閣, 1987 cf. 題名은 『延平遺事』)
 李民奭(1573~1649), 『紫巖集』(한국고전번역원, <http://db.itkc.or.kr/>)
 張維(1587~1638), 『谿谷集』(한국고전번역원, <http://db.itkc.or.kr/>)
 柳馨遠(1622~1673), 『磻窩叢錄』(明文堂, 1991)
 『昭顯分朝日記』(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동국일기역주팀 국역본, 민속원, 2008)
 『承政院日記』(국사편찬위원회, <http://sjw.history.go.kr/main.do>)
 『朝鮮王朝實錄』(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淸實錄』(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mc/main.do>)

2. 단행본

- 김성우, 『조선중기 국가와 사족』, 역사비평사, 2001.
 金玉根, 『朝鮮王朝財政史研究』, 一潮閣, 1984.
 金容欽, 『朝鮮後期 政治史 研究 I - 仁祖代 政治論의 分化와 變通論-』, 혜안, 2006.
 柳在城, 『丙子胡亂史』,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1986.
 박상섭, 『근대국가와 전쟁-근대국가의 군사적 기초 1500~1900』, 남남출판, 1996.
 오향녕, 『광해군-그 위험한 거울-』, 너머북스, 2012.
 윤용출, 『조선후기의 요역제와 고용노동』, 서울대학교출판부, 1998.
 李成茂 편, 『류성룡과 임진왜란』, 태학사, 2008.
 李章熙, 『壬辰倭亂史研究』, 아세아문화사, 1999.
 李載浩, 『韓國史의 批正-李載浩史評集-』, 도서출판 宇石, 1985.

李泰鎮, 『朝鮮後期の 政治와 軍營制變遷』, 韓國研究院, 1985.
_____, 『朝鮮儒敎社會史論』, 지식산업사, 1989.
_____, 『새韓國史-선사시대에서 조선 후기까지』, 까치, 2012.
한명기, 『임진왜란과 한중관계』, 역사비평사, 1999.
許泰玖, 『丙子胡亂의 정치·군사사적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9.

마르틴 반 크레펠트著·유보형譯, 『보급전의 역사』, 플래닛미디어, 2010.
필립 T. 호프먼著·이재만譯, 『정복의 조건-유럽은 어떻게 세계 패권을 손
에 넣었는가』, 책과함께, 2016.
아자 가트著·오숙은·이재만譯, 『문명과 전쟁』, 교유서가, 2017.

陸戰史研究普及會 編, 『明と淸の決戰』, 原書房, 1972(대한민국 육군대학譯,
「機動戰-사르흐전」, 『軍事評論』 337호 부록, 1998).
寺田隆信, 『山西商人の研究』, 同朋舍, 1972.

3. 연구논문

구태훈, “임진왜란 전의 일본사회-전국시대 연구 서설-”, 『사림』 29, 수선사
학회(2008). <http://uci.or.kr/G704-001587.2008..29.006>
權乃鉉, “17세기 전반 平安道の 軍糧 운영”, 『朝鮮時代史學報』 20, 조선시대
사학회(2002a). <http://uci.or.kr/G704-000303.2002..20.006>
_____, “17세기 전반 對淸 긴장 고조와 平安道 방비”, 『韓國史學報』 13, 고려
사학회, (2002b). <http://uci.or.kr/G704-000690.2002.13..011>
金鎔申, “朝鮮前期 軍糧米의 確保와 運送”, 『韓國史論』 7, 국사편찬위원회(1980).
_____, “朝鮮後期 軍糧米의 確保와 運送-宣祖~顯宗 年間을 中心으로-”,
『韓國史論』 9, 국사편찬위원회(1981).
金載昊, “조선후기 군사재정의 수량적 기초: 규모, 구성, 원천-『賦役實摺』의
분석을 中心으로-”, 『朝鮮時代史學報』 66, 조선시대사학회(2013).
<http://uci.or.kr/G704-000303.2013..66.001>
金鍾洙, “17세기 軍役制의 推移와 改革論”, 『韓國史論』 22, 서울대학교 국사
학과(1990).

- 盧永九, “인조초~丙子胡亂 시기 조선의 전술 전개”, 『韓國史學報』 41, 고려사학회(2010). <http://uci.or.kr/G704-000690.2010..41.006>
- _____, 제2절 1편 “대후금 방어전략과 이괄의 난”, 『한국군사사⑦-조선 후기 I』, 육군본부(2012).
- 심승구, “조선 후기 무과의 운영실태와 기능-萬科를 중심으로-”, 『朝鮮時代史學報』 23, 조선시대사학회(2002).
<http://uci.or.kr/G704-000303.2002..23.001>
- 오종록, “서애 류성룡의 군사정책과 사상”, 『류성룡의 학술과 경륜』, 태학사(2008).
- 이영훈, “한국사연구에서 노비제가 던지는 몇 가지 문제”, 『한국사시민강좌』 40, 일조각(2007).
- 李泰鎮, 제2장 “中央 五軍營制의 成立過程”, 『韓國軍制史-近世朝鮮後期篇-』, 陸軍本部(1977).
- _____, IV “자연재해·전란의 피해와 농업의 복구”, 『한국사 30-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국사편찬위원회(2002).
- 장정수, “병자호란 이전 조선의 對後金(淸) 방어전략의 수립 과정과 그 실상”, 『朝鮮時代史學報』 81, 조선시대사학회(2017).
<https://doi.org/10.21568/cdha.2017.06.81.49>
- 田炳喆, “壬辰倭亂期 納粟政策”, 『龍巖車文燮教授 華甲紀念論叢 朝鮮時代史研究』, 신서원(1989).
- 鄭萬祚, “양역변통론의 추이”, 『한국사32-조선 후기의 정치』, 국사편찬위원회(2006).
- 鄭炳喆, “明末 遼東 沿海 일대의 ‘海上勢力’”, 『明清史研究』 23, 명청사연구회(2005).
- 崔孝弼, “仁祖代의 國防施策”, 『東國史學』 19·20, 동국사학회(1986).
- 한명기, “李适의 亂이 仁祖代 초반 대내외 정책에 미친 여파”, 『全北史學』 48, 전북사학회(2016). <http://uci.or.kr/G704-002047.2016..48.002>
- 허남린, “모순과 갈등의 인정-선조조를 통해 본 유교정치의 재구성조-”, 『조선시대 예교담론과 예제질서』, 소명출판(2016).
- 허태구, “仁祖代 對後金(淸) 방어책의 추진과 한계-守城 전술을 중심으로-”,

『朝鮮時代史學報』 61, 조선시대사학회(2012).

<http://uci.or.kr/G704-000303,2012,.61.002>

_____, “金誠一 招諭 活動의 배경과 경상우도 義兵 봉기의 함의”, 『南冥學研究』
40,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남명학연구소(2014).

<http://uci.or.kr/G704-001230,2014,.41.004>



<Abstract>

Attempts to strengthen the military power of Joseon before Byeongja Horan(丙子胡亂) and its limitations: Centered on securing troops and supplying military provisions during the early days of King Injo's reign.

Huh, Tae-koo

This paper examines the attempt to strengthen military power of Joseon and its limitations before Byeongja Horan. In particular, I focused on the securing of troops and the supply of military provisions during the early days of King Injo's reign. Through this, this paper sought to find out why the people of that age could not achieve successful armaments expansion despite the fact that they were fully aware of the weakness of the war effort.

Insufficient number of trained soldiers, lack of provisions to support the troops were all issues that had been constantly reminded as weak spots of the Joseon army since the days of the Japanese invasion. Yet addressing such problems was not an easy job, due to financial problems and shortage of manpower. Only a series of full-scale reforms conducted on a society-wide basis would have brought difference to the situation, yet the Household Recognition Tag law(號牌擧去) and other reforms were being obstructed, as they were facing a strong political objection. Reinforcing the military and stabilizing the public lives were in nature contradictory causes, and such inner conflicts were being worsened by the so-called Mini Ice-age(小氷期) that hit the East Asian countries in the 17th century. In this situation, the enormous

silver that was consumed to purchase favorable Ming envoys and the supply of provisions to Mao Wen-lung(毛文龍)'s troops stationed in Gado Island(椴島) put a considerable burden on Joseon's national finances. Fundamentally, the rapid strengthening of national defense forces at that time was difficult to coexist with the stability of the people and the long accumulation of financial resources.

Key words : Byeongja Horan(丙子胡亂), the military power, troops, provisions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18, No. 109, pp.281-320
<https://doi.org/10.29212/mh.2018..109.8>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임진왜란 시기 경상좌수군의 위상과 활동

제장명*

1. 머리말
2. 임진왜란 이전 경상좌수영의 설치와 변천
3. 임진왜란 발발과 경상좌수군의 초기대응
4. 임진왜란 시기 경상좌수군의 활동
5. 맺음말

1. 머리말

임진왜란 시기 국난 극복의 주역은 일반적으로 조선 수군이었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특히 전쟁 초기에는 이순신이 이끈 전라좌수군을 중심축으로 하여 전라우도와 경상우도 수군이 좌우에서 협조하는 형태로 해전을 수행하였다. 이후 1593년 8월부터는

*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장

충청, 전라, 경상도의 삼도수군을 아우르는 삼도수군통제사체제가 성립되어 이른바 하삼도의 수군이 연합한 가운데 응집된 힘으로 일본수군의 서진을 막았다. 이러한 수군활동의 영향으로 일본군은 초기의 성세를 이어가지 못한 채 남하하여 강화교섭에 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경상도의 수군 중 경상좌도 수군은 다른 곳의 수군과 달리 존재 자체가 유명무실한 가운데 주목을 받지 못했다. 부산을 중심으로 경상도 동부 지역에 설치, 운영되어 온 경상좌수군은 임진왜란 개전 때부터 일본군의 점령지에 속함으로써 제대로 된 활동을 전개할 수 없었다. 특히 임진왜란이 발발했을 때 경상좌수사 朴泓은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한 채 도주함으로써 경상좌수군은 일찍부터 와해된 가운데 본연의 수군활동을 할 수 없었다. 그러다보니 경상좌수군에 대한 관심은 멀어지게 되었으며, 이와 관련한 연구도 소략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 일부이지만 경상좌수군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현상이 보인다. 특히 그동안 경상좌수군은 개전 초기부터 패배한 가운데 아무런 활동을 하지 못했다는 기존의 인식을 뒤집고 나름의 활동을 했다는 연구 성과가 있다.¹⁾ 아울러 임진왜란 초기 경상도지역에서의 전투 양상을 기술하면서 일정 부분 경상좌수군의 활동상을 밝힌 논문도 있다.²⁾ 그리고 정유재란 시기 경상좌수군의 활동에 대해서 소개한 연구 성과도 있다.³⁾ 그렇지만 이러한 연구 성과들은 경상좌수군의 활동에 대한 단편적인 소개에 머물고 있다.

1) 이민웅, 「임진왜란 초기 해전 연구 I」 『海洋研究論叢』(제39집) 해군사관학교 해군해양연구소(2007, 5), 127~131쪽.

2) 李昊俊, 「임진왜란 초기 경상도 지역 전투와 군사체제」 『軍史』 제77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0. 12

3) 제장명, 「정유재란 시기 해전과 조선수군 운용」 부산대 박사논문, 2014. 61~62쪽, 151~152쪽.

한편으로 조선후기 경상좌수영에 대한 연구 성과도 몇 편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성과들은 조선후기에 초점을 맞춰서 경상좌수영의 현황과 변천 과정에 대해 소개하고 있을 뿐이다.⁴⁾ 따라서 조선전기나 임진왜란 시기 경상좌수군에 대한 연구 성과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것은 그만큼 경상좌수군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것과 임진왜란 시기 초기에 와해되어 유명무실해진 경상좌수군에 대한 관심이 부족해진 탓이라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임진왜란 시기 경상좌수군의 활동 상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동안 임진왜란 시기 경상좌수군의 역할이 미미했던 것과 관련 사료의 부족으로 이에 대한 연구 관심이 부족했지만, 그렇다고 경상좌수군의 역할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경상좌수군도 임진왜란 시기 존재하여 분명히 나름의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경상좌수군의 활동 내용을 파악하여 정리하는 것은 임진왜란 수군사를 정리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고 할 것이다.

2. 임진왜란 이전 경상좌수영의 설치와 변천

조선이 건국될 당시 수군지휘부의 편제는 각 도별로 수군도절제사체제에 의해 지휘되었는데 각 도별로 차이가 있었다. 아울러 고려시대 말에 사용되던 수군의 최고 지휘관인 수군도만호 제도도 병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경상도의 경우 1408년(태종 8)에

4) 김성래, 「朝鮮後期 慶尙左水營에 대하여」,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1; 박정주, 「18세기 경상좌수영의 水操 및 전함에 관한 연구」, 부경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 논문, 2018; 이장우, 「조선후기 경상좌수영 營下坊里 연구」, 부경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 논문, 2015년; 한시진, 「문서행정을 통해 본 조선후기 慶尙左水營의 수군행정 운영」, 부경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 논문, 2014년.

경상수군도절제사를 좌우도로 분치하였다.⁵⁾ 1420년(세종 2)에는 경상·전라·충청도의 수군도절제사를 수군도안무처치사 또는 수군처치사로 명칭을 변경하였다.⁶⁾ 이와 같이 조선초기에는 고려말의 수군제도를 수용한 가운데 육군과 수군의 통어권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통합과 분리를 반복하다가 수군이 분리되었다. 고려 말에 비로소 시작된 수군의 제도화는 조선 태종 대에 그 기반을 확고히 다지고 이후 몇 차례의 변화를 겪으면서 세종 대에 이르러 그 정비의 일단을 보았다.⁷⁾

수군의 조직이 체계화된 것은 세조대에 이르러서 육군의 진관편성 체제에 따라 수군 역시 진관조직을 갖추면서부터였다. 1466년(세조 12) 군제 개편 시 수군의 최고사령관을 수군도안무처치사에서 수군절도사로 개칭했으며⁸⁾ 통칭 수사라 불렀다. 이때 대대적인 관제 개편이 이뤄졌는데 병마 도절제사 도진무를 병마 우후로 하고, 수군 도안무 처치사 도진무를 수군 우후로 하고, 도만호를 수군 첨절제사로 하였다.⁹⁾ 수군은 육군과는 달리 제주·교동 등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수령의 겸임이 없었으며, 수사 밑에는 육군과 마찬가지로 僉節制使·虞侯·萬戶 등의 직함을 두어 수군을 통솔 지휘하게 하였다.¹⁰⁾

당시 조선의 전국 8도에 병사와 수사직이 모두 설치되었지만, 경상·전라·충청·경기 4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도는 모두 동일인이 두 직책을 겸하고 있었다. 『經國大典』에 의하면 황해·강원도는

5) 『太宗實錄』 권16, 8년 8월 20일(乙未) 조에 보면 “鷄林安東道都節制使 曹瑗으로 慶尙左道水軍都節制使를 겸하게 하고, 尙州晉州道都節制使 尹子當으로 경상우도 수군 도절제사를 겸하게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6) 『世宗實錄』 권10, 2년 10월 27일(壬戌)

7) 해군사관학교 해양연구소, 『임진왜란 흥양해전사 연구』 고흥군, 2016, 22쪽(수군 제도의 구체적인 변화 양상에 대해서는 이 연구서의 21~22쪽 참조).

8) 『世祖實錄』 권38, 12년 1월 15일(戊午)

9) 위의 책, 같은 조.

10) 차문섭, 「중앙집권적 정치구조」 『한국사 10』 국사편찬위원회, 1984, 74~112쪽.

병사·수사 각 1원이되 모두 관찰사 겸임, 영안도는 병·수사 각 3원이되 1원은 관찰사 겸임, 2원은 남·북도병마절도사가 각각 수사를 겸임하고, 평안도는 병·수사 각 2원이되 관찰사와 병사가 수사를 겸하고 있었다.¹¹⁾ 따라서 이상 4개 도에는 수사가 따로 차견될 수 없었다.

그러나 경상도는 병사·수사 각 3원으로서 좌도·우도의 병사와 수사가 있고, 겸직으로서 관찰사가 병사·수사를 겸하였다. 전라도는 병사 2원으로 병사 1인에 관찰사 겸임 1원, 수사는 좌·우도 수사 2원과 관찰사 겸임 1원, 충청도는 병·수사 각 2원이되 각 1원은 관찰사 겸임, 경기도는 관찰사 겸임의 병사 1원, 수사 2원은 관찰사 겸임 1원에 수사 1원이었다.¹²⁾ 이 가운데 경기 수군절도사는 1485년(성종 16)에 혁파되었으므로 전문 수군절도사가 보직된 곳은 경상·전라·충청의 하삼도 뿐이었다. 다시 말하면 병사권과 수사권 분리의 원칙이 운위될 수 있는 것은 병사와 수사가 동일인이 아니었던 이 3개도뿐이었던 것이다. 특히 경상·전라 두 도는 왜구와의 접촉이 많아 수군의 비중이 매우 컸으며, 병사와 수사 통솔권의 한계는 매우 중요시되고 있었다. 그러다가 1555년 을묘왜변이 일어난 후 해상을 통한 수도 침입을 대비하고자 1556년(명종 11) 1월에 경기수영을 재설치하였다.¹³⁾ 따라서 경기·충청·전라·경상도에 수사가 전임 보직된 형태의 지휘체계가 임진왜란 시기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이제 임진왜란 시기 까지 경상좌수군의 최고 지휘관이 근무하는 주진인 경상좌수영의 설치 및 移營에 대해 살펴보자. 경상좌수영이 최초로 설치된 연도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조선 초기 경상좌도의 최고 지휘관은 좌도 도만호였는데, 기록에 의하면

11) 『經國大典』 「兵典」 「外官職」 條

12) 위의 책, 같은 조.

13) 『明宗實錄』 권20, 11년 1월 4일(甲子)

1407년(태종 7)에 부산포에는 좌도 도만호가 있었으며 내이포에는 우도 도만호가 있었다고 한다.¹⁴⁾ 그리고 1413년(태종 13)에 경상수군절제사를 좌우도로 분치했다는 것과¹⁵⁾ 경상좌도 수군도안무처치사 본영을 부산포에 설치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세종실록』 ‘지리지’(동래, 거제도)에 의하면 부산포에 경상좌수사의 전신인 좌도수군도안무처치사가 있었으며, 거제 오아포에 경상우수사의 전신인 우도수군도안무처치사가 있었다.¹⁶⁾ 따라서 경상좌수영은 최초 부산포에 설치되어 있었던 것이다.

한편 임진왜란 시기 경상좌수군의 주진이었던 해운포는¹⁷⁾ 1457년 일시 혁파되어 해운포의 해운대 북쪽 부근 산기슭에 목책을 설치하여 군사 50명으로 수비하도록 하는 등 축소 운영되었다.¹⁸⁾ 그러다가 이듬해(1458)에 해운포는 다시 설치되었다.¹⁹⁾ 1459년(세조 5) 1월 부산포에 있던 경상좌도수군처치사의 본영이 왜선의 초항처로서 主將이倭人과 혼재하고 있어서 주장의 거처로는 마땅하지 않다는 이유로 울산 개운포로 옮겨 설치하자는 논의가 있었고 이후 개운포로 수영을 옮겼다.²⁰⁾ 그

14) 『太宗實錄』 권14, 7년 7월 27일(戊寅)

15) 『太宗實錄』 권25, 13년 4월 7일(乙卯)

16) 이러한 근거로 1426년(세종 8년) 11월 경상좌도의 병마 도절제사·수군 도안무처치사를 혁파하였다가(『世宗實錄』 권34, 8년 11월 6일(乙未)), 언제 복설되었는지 명확히는 않지만, 1438년(세종 20) 李格을 경상좌도 수군 도안무 처치사로 임명한 것을 보면(『世宗實錄』 권80, 20년 3월 6일(庚寅)) 이후에도 존치된 것으로 보인다.

17) 『國譯 莢營誌』에 의하면 임진왜란 이전 동래부에서 남쪽으로 10리 지점인 남촌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 남촌이 오늘날 해운포이며, 같은 책에 “임진왜란 직후 잠시 부산진성으로 이설된 적이 있었지만 곧 해운포로 환원되었으며...”라는 표현을 통해 볼 때 임진왜란 시기 경상좌수영의 주진은 동래 해운포임을 알 수 있다(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國譯 莢營誌』 4~5쪽).

18) 『世祖實錄』 권6, 3년 1월 16일(辛巳)

19) 『世祖實錄』 권14, 4년 11월 14일(戊戌)

20) 『世祖實錄』 권15, 5년 1월 20일(癸卯) ; 『成宗實錄』 권77, 8년 윤2월 11일(己酉); 『中宗實錄』 권13, 6년 2월 22일(癸卯); 『新增東國輿地勝覽』 울산군 관방조 등

후 1477년(성종 8)부터 다시 개운포에서 부산포로 이전하자는 논의가 계속 되었다. 그러다가 1521년 수영을 동래 해운포로 옮기자고 高荊山이 건의하였다.²¹⁾ 이후 1544년 순변체찰사 李苞가 건의하기까지 수차례의 이설 논의를 거친 후 수영을 해운포로 옮기는 것이 가시화되었다.²²⁾ 이때 해운포로 옮긴 연도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사료에 1547년 개운포만호가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서 1544~1546년 중에 수영은 개운포에서 동래 해운포로 이영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²³⁾

아울러 수군진보의 축성도 이루어졌다. 조선초기에는 각 포에 진을 설치했지만 城堡를 쌓지 않은 것은 왜구가 창궐하므로 장졸들로 하여금 병기와 양향을 모두 가지고 수상에서 막으라고 한 취지였다. 그러나 병기와 군량을 모두 船中에 실을 수 없고 적병이 갑자기 육지로 올라와 먼저 창고와 병량을 불사르거나 船上에서 패하여 물자들을 단번에 잃게 되면 장졸들이 갈 곳이 없으므로 성보를 설치하여 원병을 기다리는 것이 낫다는 것이 축성의 가장 큰 이유가 되었다. 따라서 왜구의 침입에 대비한 가장 효과적인 방어 전략으로서 남해안의 진보가 적극적으로 축조되었다.

그리하여 1485년(성종 16)~1491년(성종 22) 사이 수군의 영·진에 관한 성보를 쌓는 1차적인 조치가 있었다, 성종대의 1차적인 수군 영·진에의 성보 축조에 이어 중종 대에는 삼포왜란을 계기로 수륙군의 합방조치와 함께 수군 영·진에의 성보 축조가 계속 추진되었으며 1522년(중종 17)까지는 남해안뿐만 아니라 서해안과 동해안 수군 영·진도 성보를 가지게 되었다.²⁴⁾ 이 기

21) 『中宗實錄』 권53, 20년 2월 12일(辛丑)

22) 『中宗實錄』 권104, 39년 9월 18일(甲寅)

23) 1544년 9월에 이영했다는 기록도 있지만 이는 이영논의를 한 것을 가지고 확정된 것이라고 판단한 듯하다.

24) 나동욱, 「조선시대 부산지역의 수군 영·진성」 『부산성곽』 부산박물관, 2016, 300쪽.

간 중 경상좌수영 관하 수군진들에 대한 축성이 이루어진 것은 물론이다.

다음으로 임진왜란 당시 경상좌수영의 수군 지휘체계를 이해하기 위해 수군 조직의 지휘계통에 대해 살펴보자. 가장 상위의 직책인 수군절도사는 주진의 統領은 물론 거진·제진을 지휘 통솔하는 수군의 최고 지휘관이었다. 첨절제사는 거진의 장으로서 만호와 마찬가지로 각 포에서 실제로 오래 종사한 사람이 서용되는 것이 원칙이었다.²⁵⁾ 수군 지휘체계상 중견적인 역할을 자임하는 위치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²⁶⁾ 우후는 수군 주진의 부지휘관으로 수사의 지휘 아래 諸浦를 統禦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였다.²⁷⁾ 수군만호는 각처 浦鎮의 수군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실질적인 장이며, 지휘체계상 수군절도사와 첨절제사의 지휘 감독을 받고 있었다. 따라서 만호는 항상 해상방어에 임하고 병선·화통·화약 등을 정비하며, 포진의 회계 물품 출납의 책임을 지며 해상의 기상변화를 기록하였다.²⁸⁾

조선의 수군 편제는 세조대의 진관체제가 완료되면서 그 골격을 드러내었다. 각 도 단위의 수영과 속진은 이후 對倭 관계의 부침과 밀접한 연관을 맺어 다소간의 변화를 보였지만, 전체적인 윤곽은 대체로 임진왜란 때까지 유지되고 있었다.²⁹⁾

마지막으로 경상좌수영을 중심으로 수군진과 세력(함선 규모)

25) 『太宗實錄』 권32, 16년 8월 8일(丁卯)

26) 方相鉉, 『朝鮮初期 水軍制度』 민족문화사, 1991, 74쪽.

27) 위의 책, 75쪽.

28) 위의 책, 75~77쪽.

29) 선초의 수군 편제와 수사제 확립을 다룬 논고는 다음과 같다. 이재룡, 「조선 전기의 수군」 『한국사연구』 5집, 1970; 민현구, 「조선초기의 군사제도와 정치」 한국연구원, 1983; 오종록, 「조선 초기 병마절도사제의 성립과 운용」(상·하) 『진단학보』 59, 60호, 1985; 장학근, 「조선시대 해양방위사」 창지사, 1988; 방상현, 『朝鮮初期 水軍制度』 민족문화사, 1991; 오봉근, 「14세기말~16세기의 수군」 『조선수군사』 사회과학출판사, 1991.

의 변화에 대해 진관체제 시기와 임진왜란 시기로 나누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자. 임진왜란 시기에 해전은 경상도와 전라도 연안해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다른 도의 수군력 현황은 제외하고자 한다. 다만 충청수군도 부원하였기 때문에 충청수군도 포함하여 『經國大典』에 보이는 경상좌우도와 전라좌우도, 충청도의 수군 진포와 세력을 살펴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經國大典』에 보이는 하삼도 수군 진포와 세력

도별 주진	주진 휘하 진포	군선수
경상좌수영	12개 진포 개운포(주진), 부산포, 두모포, 감포, 해운포, 칠포, 포이포, 도포, 서생포, 대대포, 염포, 축산포	총 89척 (대맹선 8, 중맹선 22, 소맹선 59) ³⁰⁾
경상우수영	11개 진포 오아포(주진), 제포, 옥포, 평산포, 지세포, 영등포, 사랑, 당포, 조라포, 적량, 안골포	총 102척 (대맹선 12, 중맹선 44, 소맹선 46)
전라좌수영	9개 진포 내례포(주진), 사도진, 회령포, 달량, 여도, 마도, 녹도, 발포, 돌산포	총 49척 (대맹선 10, 중맹선 23, 소맹선 16)
전라우수영	10개 진포 황원곶 주량(주진), 임치, 검모포, 법성포, 다경포, 목포, 어란포, 군산포, 남도포, 금갑도	총 49척 (대맹선 12, 중맹선 20, 소맹선 17)
충청수영	6개 진포 회이포(주진), 소근포, 당진포, 파지도, 마량, 서천포	총 69척 (대맹선 11, 중맹선 34, 소맹선 24)

※출처 : 『經國大典』에서 관련 내용만 정리하였음

위 <표 1>은 충청·전라·경상도의 수군진과 보유 군선을 정리한

30) 여기서 실제 군사가 승선하지 않은 무군소맹선은 제외하였다.

것이다. 임진왜란 발발 100여 년 전의 현황이기 때문에 임진왜란 시기와 상당 부분 다르다. 군선 수와 진포 수를 기준으로 볼 때 경상우수영의 규모가 가장 크고, 다음으로 규모가 큰 곳이 경상좌수영이다. 경상좌수영의 규모가 큰 이유는 아무래도 왜구들의 침입 빈도에 따라 수군진을 경상도 쪽에 다수 설치한 조정의 정책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으로 임진왜란 시기와 다르게 충청수영도 상당한 규모의 수군전력을 보유한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전라좌·우수영의 군선수가 똑 같다는 점도 특이하다. 당시는 맹선체제였고 진관체제에 속한 수군의 조직이었으므로 이 시기 연해 제읍은 수사 관할이 아니었다.

그러다가 1550년대 제승방략제의 도입에 따라 수군 역시 제승방략의 분군법을 적용하여 연해지역의 포진뿐만 아니라 연해 제읍까지 수사 관할 하에 놓이게 되었다. 진관체제 아래에서의 수군은 행정구획과 관련시키지 않고 연해지역 요해처에 설치된 수군진만을 묶어 진관조직으로 편성하였다. 다시 말해 진관체제 아래에서는 수군이 연해안의 각 진포에 소속되어 있었지만, 이제 연해지역 각 읍에까지 수군 기지를 설치하여 수사 관할 아래에 둬으로써 종전의 해방체제를 크게 변화시킨 것이었다.³¹⁾

따라서 연해지역 각 읍의 수장들인 부사·목사·군수·현령(현감) 등은 수사의 지휘통제를 받게 되었다. 이 제도는 임진왜란 시기까지 계속되었던 것이다. 동시에 전선도 맹선체제에서 관옥선체제로 전환되었다.

31) 李恒福, 『白沙集』 권6, 「以都體察使在湖南事宜劃一劄」; 조원래, 『임진왜란과 湖南地方의 義兵抗爭』, 아세아문화사, 2001, 269쪽.

〈표 2〉 임진왜란 시기 하삼도의 진포

도별 주진	주진 및 휘하 진포
경상좌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개 관포(2관 12포) - 2관: 울산, 기장 - 해운포(주진) 및 11포: 부산포, 다대포, 서생포, 포이포, 두모포, 개운포, 서평포, 염포, 감포, 칠포, 축산포
경상우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8개 관포(8관 20포) - 8관: 웅천, 진해, 고성, 거제, 사천, 남해, 곤양, 하동 - 오아포(주진) 및 19포: 가배량, 제포, 영등포, 적량, 옥포, 평산포, 지세포, 사랑, 당포, 조라포, 안골포, 미조항, 상주포, 곡포, 소비포, 가덕, 삼천포, 천성보, 울포
전라좌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개 관포(5관 6포) - 5관: 순천, 보성, 낙안, 흥양, 광양 - 내례포(주진) 및 5포: 사도, 방담, 여도, 녹도, 발포
전라우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7개 관포(14관 13포) - 14관: 장흥, 나주, 흥덕, 강진, 무안, 고부, 해남, 함평, 부안, 영암, 영광, 옥구, 진도, 무창 - 황원곶 주량(주진) 및 12포: 임치, 검모포, 다경포, 군산포, 목포, 법성포, 남도포, 가리포, 어란포, 회령포, 금갑도, 이진
충청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개 관포(13관 6포) - 13관: 홍주, 태안, 서산, 한산, 임천, 해미, 결성, 면천, 보령, 남포, 비인, 당진, 서천 - 회이포(주진) 및 5포 ; 안흥, 소근포, 마량, 평신, 서천포

※ 출처 : 『李忠武公全書』 권2~4(狀啓); 李舜臣, 『亂中日記』; 『續大典』 등에서 종합

위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상좌수영의 규모는 경국대전에서의 규모보다 축소된 면이 있다. 다시 말해 제승방략체제의 시행에 따라 연해 제읍이 수사 관할로 편입되면서 상대적으로

적은 읍 수군이 편입된 경상좌수영은 다른 수영에 비해 규모가 작다. 즉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울산군과 기장현의 2개 고을이 읍 수군으로, 주진인 해운포를 비롯하여 부산포, 다대포, 서생포, 포이포, 두모포, 개운포, 서평포, 감포, 칠포, 축산포 등 11개 진포수군이 편성되어 임진왜란을 맞이하게 되었다. 여기서 주진인 해운포에는 수군절도사가, 부산포와 다대포에는 첨절제사가 주둔하였으며, 기타 진포에는 수군만호가 주둔하였다. 그런데 당시의 전선과 병력 규모에 대해서는 자료가 부족하여 알 수 없다.³²⁾

3. 임진왜란의 발발과 경상좌수군의 초기대응

임진왜란이 발발했을 때 경상좌도 부산포 부근에서 벌어진 최초의 상황은 이순신의 기록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즉 “이달 13일 왜선 400여 척이 부산포 건너편에 와서 닿았는데, 적의 세력이 벌써 이렇게 되었으니 극히 염려스럽다”고³³⁾ 한 경상도 관찰사 金暉의 통보가 4월 13일 개전일의 상황을 알려주고 있다. 이어서 경상좌수사 박홍이³⁴⁾ 경상우수사 元均에게 보낸 서장에는 다음과 같이 개전 이틀째인 4월 14일의 전투 상황에 대해 기록되어 있다.

32) 경상좌수영 휘하 수군진의 위치와 규모에 대해서는 1530년대에 편찬된 『新增東國輿地勝覽』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렇지만 임진왜란 시기의 수군진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여기서는 이에 대한 분석을 생략하였다. 다만 제 4장에서 임진왜란 후 경상좌수군 진포의 위치 변동을 언급하는 부분에 이에 대한 보완을 하였다.

33) 『李忠武公全書』卷之二, 「狀啓一」, 「因倭警待變狀(二)」

34) 박홍(1534~1593)의 본관은蔚山. 자는淸源. 조부는朴棼이고, 父는別提朴英斌이다. 母는直長鄭仁傑의 딸이다. 충청도大興縣에서 출생하였다. 1556년(명종 11)에 23세로 무과에 급제, 선전관에 임명된 이후 江界府判官·定平府使·鍾城府使 등 외직을 지냈다. 1592년(선조 25) 1월 경상좌도수군절도사에 부임하였다(『한국민족대백과사전』).

이달 4월 14일 새벽 6시경에 황령산 봉수군 배돌이가 와서 ‘왜적들이 부산포의 우암에서 3패로 결진해 있다가 해 뜰 무렵에 부산포 성을 포위하고 접전하는데, 포를 쏘는 소리가 천지를 뒤흔드는 듯하였습니다.’고 보고하는데 부산포가 그러하거니와 서평포와 다대포는 벌써 길이 막혀 구원병마저 아직 달려가지 못하니 참으로 안타깝고 민망합니다.³⁵⁾

이와 같이 개전 초기 부산지역의 상황에 대해서는 경상좌수사 박홍의 서장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러나 수군을 지휘하여 적을 맞아 싸워야 했던 박홍은 장계를 올려 개전 사실을 가장 먼저 조정에 보고하고 주변 제장에게 통보하는 역할만 하였다. 휘하 수군을 소집하여 적과 싸우지 않고 본영방어도 포기한 채 후퇴를 거듭해 서울까지 물러났다.³⁶⁾

경상좌수사 박홍의 초기 행태에 대해서 당시 조정은 매우 비판적이었다. 경상우도 초유사 김성일은 “좌수사 박홍은 화살 한 개도 쏘지 않고 먼저 성을 버렸다.”고 표현하였다.³⁷⁾ 사헌부에서는 前 수사 박홍의 전의 죄를 소급하여 律에 의하여 처단할 것을 건의하기도 하였다.³⁸⁾

그의 행적을 살펴보면 남해안의 최전방 수군절도사로서 임무를 다하지 못한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박홍이 휘하 세력을 집결하지 못한 채 일본군에 맞서지 못했던 것은 사전에 방어태세를 갖추지 못한 이유도 있지만 일본의 침략이 기습적으로 이루어졌던 것도 하나의 이유였다. 또한 기존의 왜구 침략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대규모 세력이 침입해 왔기 때문에 그는 적극적으로 전투를 벌여 시간을 버는 등 방어대책을 펴지 못한 채 도주

35) 『李忠武公全書』 卷之二, 「狀啓一」, 「因倭警待變狀(三)」

36) 『宣祖實錄』 권26, 25년 4월 17일(丙午); 류성룡, 『징비록』 권1.

37) 『宣祖實錄』 권27, 25년 6월 28일(丙辰)

38) 『宣祖實錄』 권32, 25년 11월 15일(辛未)

부터 하고 맡았다.³⁹⁾

그런데 경상좌수군이 설사 제대로 대비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적의 대규모 침공을 저지하기에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전근대 시기 돛과 노를 이용하는 수군력으로는 대규모로 침입해 오는 적을 역조류와 역풍의 조건 하에서 맞아 싸우기란 어려운 현실이었다. 실제 일본군은 대마도에 도착한 후 동풍 또는 동남풍이 불기를 기다리는 등 항해를 할 수 있는 최적의 기상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출항한 사실을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임진왜란 전 시기를 통해 볼 때 일본군은 동풍을 타고 나오는데 부산 쪽에서 적을 향하려면 서풍을 타야 하므로 逆順이 달라 서로 맞서기 어려운 형세임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⁴⁰⁾

어쨌든 바다에서 적을 물리치지 못한 경상좌수군은 수사 박홍의 지시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함선 수의 절대적 열세라는 조건 하에서 수전은 할 수 없었다. 따라서 각 진별로 보유 함선을 자침시킨 후 자체 진성 방어 형태의 육전을 수행하면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그 첫 번째 전투가 바로 부산진성 전투였다. 경상좌수영 휘하 진포 중 가장 먼저 전투가 벌어진 부산진성 전투의 경과에 대해 살펴보자.

1592년 4월 13일 오후에 일본군 제 1번대는 전선 700척에 18,700명의 병력을 싣고 부산포 앞 절영도 해상에 도착하였다. 당시 부산진 침사 정발은⁴¹⁾ 전선 3척을 이끌고 절영도에 나가 있다가 일본군의 대규모 침략을 확인하고는 급히 성 안으로 들

39) 이민웅, 앞의 논문 128쪽.

40) 『宣祖實錄』 권84, 30년 1월 28일(己未)

41) 부산진 침사 정발(1553~1592)은 본관이 경주이며 자는 子固이고, 군수 明善의 아들로 1553년(명종 8)에 출생하였다. 1577년(선조 10) 25세에 별시무과에 급제하여 선전관, 해남현감, 거제현령, 籌司郎, 위원군수를 지낸 다음 훈련부정(종3품), 사복시정(정3품)을 거쳐 절충장군이 되어 1592년 초에 부산진 수군첨절제사가 되었다(李炯錫, 『壬辰戰亂史』上卷, 壬辰戰亂史刊行委員會, 1974, 239쪽).

어왔다. 그는 성을 지키도록 휘하에 명령을 내리고는 전선을 모조리 자침시켜 적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당시 부산진성에는 약 1,000명의 軍民이 있었다.

한편 일본군은 13일 저녁 무렵 부산진성의 방비태세가 견고한 점을 확인하고는 14일 아침부터 공격하기로 결정하였다. 4월 14일 아침 일본군은 우암동 쪽에서 상륙하여 성내 수비상황을 관망하면서 성을 공격할 준비를 하였다. 정발은 동문루 위에 올라 병사와 백성들에게 성을 지키도록 명령하고 樂官을 불러 통소를 불게 하여 군민이 모두 진정하게 하였다. 그리고 결사의 의지로 守城할 것을 결심하였다.

일본군은 서신을 보내 길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정발은 대응하지 않았다. 일본군은 부산진성을 겹겹이 둘러싼 가운데 3방향으로 공격을 해 왔다. 그들의 조총수들은 서문 밖 높은 곳에 올라 성안을 향해 일제히 쏘면서 성벽을 올라오려고 하였다. 정발은 흑색 갑옷을 입고 서문을 지키면서 쉬지 않고 성안을 돌아다니면서 직접 전투를 지시하였으며, 군민들의 사기는 높았다.

그러다가 성의 북쪽이 방비태세가 약한 점을 간파한 일본군은 북쪽 성벽을 타고 넘어와 치열한 백병전이 벌어지게 되었다. 와중에 정발은 일본군의 조총이 투구를 관통하여 전사하고 말았다. 군민들은 최후의 일인까지 싸웠으나 중과부적으로 당하지 못하고 성은 함락되고 말았다.⁴²⁾

다음으로 다대포전투를 살펴보자. 부산진성을 함락시킨 일본군은 두 갈래로 나뉘어 한쪽으로 동래부를 공격하고 다른 쪽으로는 서평포와 다대포를 공략하였다. 서평포는 당시 다대포에 통합되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전투 현황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 다만 다대포전투의 경우 후대 자료지만 일부 자료를 통해

42) 李炯錫, 『壬辰戰亂史』上卷, 壬辰戰亂史刊行委員會, 1974, 234~237쪽.

확인할 수 있다.

다대포첨사진은 낙동강 하구에서 부산 방향으로 꺾이는 모퉁이를 지나 첫 번째 해안 포구에 위치했는데, 조선 초기에는 근처의 장림포에 있었다가 다대포로 이동했다고 한다.⁴³⁾

다대포전투 역시 해전이 아닌 육전으로 치러졌다. 당시 다대포첨사는 尹興信이었다.⁴⁴⁾ 그런데 다대포전투에서는 전투가 크게 2번 있었는데, 첫날 전투에서 공격해 온 일본군을 다대포진의 자체 세력만으로 물리쳤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를테면 다대포진을 공격해 온 일본군에 대항하여 격전을 벌인 끝에 첫날은 승리하였다. 이후 부하들이 적이 반드시 다시 올 것을 알고 피하자고 청했으나 첨사는 결사 항전을 다짐했다고 한다. 이것은 부산진성 전투에서의 정발이 처했던 상황과 유사하다. 윤흥신은 이튿날 세력을 강화해서 다시 공격해 온 일본군에 대항해 아우 興梯와 함께 분투하다가 전사하였다. 윤흥신의 전사와 함께 다대포진성도 함락되고 말았다.⁴⁵⁾

이러한 윤흥신의 순절 기록은 여러 곳에서 확인된다. 『선조실록』에는 “윤흥신은 왜적에 항거하여 싸우다가 죽었다”, 류성룡의 『징비록』에는 “다대진 첨사 윤흥신은 힘써 싸우다가 죽임을 당

43) 다대포라는 지명의 유래는 큰 포구가 많은 바다라는 데서 비롯되며, 『일본서기』에는 다다라(多多羅)로 기록되어 있다. 이곳은 일찍부터 왜구의 출몰이 잦아서 국방상 중요한 요새지였다. 1407년(태종 7) 7월에 다대포천호를 두었다가 1417년(태종 17)에 만호영을 설치하였다. 조선 세종 때는 이곳에 수군만호영을 설치하여 수군 123인과 병선 9척을 배치하였다. 1490년(성종 21) 11월에 다대포성을 축성하였는데, 높이 4m, 둘레 560m의 규모였다. 이후 1544년(중종 39) 9월에는 다대포에 첨사를 배치하였다(제장명, 『충무공 이순신의 흔적을 찾아서』 해사 해양연구소, 2018, 239쪽).

44) 『宣祖修正實錄』 권26, 25년 4월 14일(癸卯), 尹興信(?~1592)의 본관은 坡平. 아버지는 인종 때 외척으로 권세를 누렸던 尹任이다. 윤흥신은 1582년(선조 15)는 진천현감에 부임하였으나 문자를 해독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쫓겨났다. 1592년(선조 25)에 다대진 첨절제사로 임명되었다(한국학중앙연구원 - 부산항도문화전사대전 윤흥신조).

45) 김석희, 「입진왜란과 부산항전」 『항도부산』 제9호, 부산시사편찬위원회, 1992, 60~62쪽.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선조 때 좌찬성을 지낸 具思孟이 지은 『縲亡錄』의 내용은 좀 더 구체적이다. “왜적이 성을 포위하자 힘껏 싸운 끝에 이를 물리쳤다. 이튿날 많은 수의 왜적이 쳐들어 오자 군졸은 모두 도망쳤고, 윤흥신은 홀로 남아 온종일 활을 쏘다가 성이 함락되자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인조 때의 학자 신경이 지은 『再造藩邦志』에는 “도적이 병사를 나누어서 서평포·다대포를 함락시켰다. 다대진 첨사 윤흥신은 힘껏 싸웠으나 피살되었다”라고 적혀 있다.⁴⁶⁾

한편 당시 경상좌수영의 2관 중 하나인 기장현감은 임진왜란 발발 시 李用浚이 근무하였다.⁴⁷⁾ 그러나 당시 일본군과 싸웠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으며, 초전에 일본군에게 점령당했다는 것만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기장현도 다른 군사진과 마찬가지로 초기에 함락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2관 중 다른 하나인 울산군의 경우를 살펴보자. 일본군이 침입하여 부산과 동래를 함락시킨 후, 세 길로 나누어 울산으로 닥쳐왔다. 당시 군수 李彦誠은 조방장의 임무로 동래성에 집결하여 동래성 전투에 참가하였다. 제승방략제가 시행된 지 수십 년이 지난 시점이었지만, 수사 관할 하에 있었던 지방 수령 중 여전히 육군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경우가 많았다.⁴⁸⁾ 울산군 수도 경상도 관찰사의 지시에 따라 임지를 떠나 동래성 전투에 참가하였는데, 동래성이 함락되었을 때 이언성은 일본군에게 생포되어 고니시의 서신 전달을 요구받는 치욕도 당했다.⁴⁹⁾ 이와

46) 한국학중앙연구원 - 부산향토문화전자대전 윤흥신조

47) 『機張郡誌』 上卷, 「선생안」 2001.

48) 예컨대 전라좌수군의 경우 임진왜란 발발 시 첫 전투였던 옥포해전에 순천부사 권준은 원래 수군의 중위장으로 편성되었지만 관찰사의 지시에 동원되는 바람에 참가하지 못한 사례가 있다.

49) 『宣祖修正實錄』 권26, 25년 4월 14일(癸卯)

같이 임진왜란이 발발했을 때 경상좌수군 관할 2관 역시 제대로 싸우지 못한 채 함락되고 말았다. 기타 수군진에서의 활동에 대해서는 자료의 부족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초전에 도주 또는 패퇴한 것으로 보인다.

4. 임진왜란 시기 경상좌수군의 활동

가. 임진왜란 시기(1592~1596)의 활동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임진왜란 발발 시 경상좌수군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채 패퇴하고 말았다. 특히 경상좌수사 박홍은 본진을 소각하고 죽령으로 후퇴하여 적을 방어하려 하였다. 그러나 조령이 함락되었다는 말을 듣고 서울로 후퇴하였다.

그는 행재소로 찾아가던 중, 도원수 金命元을 만나 左衛大將에 임명되어 임진강 방어에 참여하였다. 이어 신할·유극량 등과 함께 병사를 나누어 과주에서 싸웠으나 모두 패해 평양으로 탈출하였다. 평양에 도착한 뒤, 사헌부를 위시한 조신들로부터 영토를 지켜야 할 신하로서 책임을 회피하고 군율을 위반했다는 죄목으로 탄핵을 받았다. 그러나 때가 전시이고 또 후퇴하던 과정에 종군한 것이 감안되어 처벌을 면하였다.

그 뒤 같은 해 6월에 평양이 함락되자 순변사 이일과 함께 평산으로 들어가 병사를 모으고 있던 중, 당시 이천에 있던 세자의 명을 받고 세자를 호위 시종하면서 성천으로 들어갔으며 우위대장·의용도대장에 임명되었다. 평양 방면으로 나아가 여러 차례 일본군과 접전했으나 크게 공을 세우지는 못하였다. 1593년 1월에 평양이 수복되자, 김명원을 따라 과주까지 종군하였다. 그러

나 지병이 재발해 치료를 위해 귀향하던 중 사망하였다.⁵⁰⁾

이와 같이 경상좌수사는 개전 후부터 별다른 활약을 하지 못한 채 수사 역시 직함을 바꿔서 육전에서 활동하였다. 다만 좌수사 직책만 부여하여 그 직을 계승하고 있을 뿐이었다.

이를테면 경상좌수사 박홍의 후임으로 1592년 11월에 李由義가⁵¹⁾ 임명되었다.⁵²⁾ 그는 검사복으로 무과에 급제한 뒤⁵³⁾ 1587년에는 충청도 조방장으로 근무한 바 있으며,⁵⁴⁾ 1591년 1월에는 전라좌수사 직을 수행한 바 있다.⁵⁵⁾ 그러다가 임진왜란이 발발했을 때 전라도 조방장의 임무를 띠고 팔랑치에 주둔하면서 적을 방어하는 임무를 수행한 바 있다.⁵⁶⁾ 이유의는 경상좌수사로 제수되었지만 본영 수군이 이미 흩어진데다가 부산지역으로 부임할 수 없어서 안동의성의흥 등지에 머물면서 육전에 종사하고 있었다.⁵⁷⁾

그러다가 경상좌수군이 나름의 활동을 이어가게 된 것은 강화교섭기에 접어들어가면서 부터였다. 1593년 4월에 장기현감과 밀양부사를 거친 李守一이⁵⁸⁾ 경상좌수사로 부임하였

50) 한국학중앙연구원-부산향토문화전자대전 박홍조

51) 이유의의 신상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

52) 『宣祖修正實錄』 권26, 25년 9월 1일(丁巳)에 이유의를 경상좌수사로 임명한다는 기록이 있다.

53) 『明宗實錄』 권25, 14년 9월 20일(戊子)

54) 『宣祖實錄』 권21, 20년 7월 24일(辛亥)

55) 『宣祖實錄』 권25, 24년 1월 5일(壬寅)

56) 『宣祖修正實錄』 권26, 25년 6월 1일(己丑)

57) 申佖, 『亂蹟彙撰』 上 임진년 11월조

58) 이수일(1554~1632)은 본관은 경주. 자는 季純, 호는 隱庵. 主簿 李塢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생원 李自琛이다. 아버지는 증 영의정 李鸞이며, 어머니는 참봉 禹聘齡의 딸이다. 아들은 우의정 李滄이다. 1554년(명종 9) 충주에서 태어났으며, 1583년(선조 16) 별시 무과에 병과로 급제하고 북방 지역 근무를 마친 후 1584년 권지훈련원봉사, 1586년 삼수소농보권관, 1590년(선조 23) 선전관을 지냈다. 장기현감으로 부임하여 재직 중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장기현을 공격하는

다.⁵⁹⁾ 그는 장기의 包伊浦에 진을 치고 전선을 다수 건조하면서 나름대로 수군력 확보 노력을 기울였다.⁶⁰⁾

아울러 비슷한 시기에 경주 판관 朴毅長과 울산 군수 金太虛 등이 울산에 있는 적과 며칠 동안 싸워 적 50여 명의 수급을 베는 전과를 거두기도 하였다.⁶¹⁾ 이것은 아마도 일본군이 제2차 진주성전투에 참전하기 위해 많은 병력이 주둔지를 비운 사이에 전투를 벌인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제2차 진주성전투가 그해 6월 하순에 벌어짐으로써 일본군 9만여 병력이 진주성을 치기 위해 서진하였다. 이러한 시기를 틈타 경상좌도 지역에서는 몇 차례 교전을 통해 전과를 거두었다. 경상좌도 관찰사 韓孝純의 치계에 의하면, ‘태화에 머물러 있는 적들이 퇴각하려고 막사를 불태웠으며, 황산 등지에는 적이 날로 稀疏해지고 있으며, 기장에 머물고 있는 적들도 아군에게 섬멸당하여 縣治가 수복되었다.’⁶²⁾ 하였다.

이러한 보고를 접한 조선 조정에서는 이 시기를 틈타 주둔 병력이 빠져나간 경상좌도에 있던 일본군의 진영을 공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다만 조선군의 병력이 부족하므로 선조 명의로 명 경략병부에 다음과 같이 지원을 요청하였다.

부산 등지의 沿海에 있는 적들의 소굴에는 잔류해 있는 왜적이 적을 것이며 哨戍 또한 허술할 것입니다. 게다가 蓋房에 곡식을 쌓아 놓고 시장을 열어

왜군과 격전 끝에 후퇴하였으나 왜군을 죽인 공을 인정받아 통정대부에 올랐다. 이후 함창(현 상주시 함창읍) 唐橋에서 왜군과 전투를 벌였으나 승리하지 못했다. 1593년 밀양도호부사로 경상좌도수군첨절제사가 되어 울산에서 왜군을 격퇴한 공으로 경상좌도수군절도사로 승진하였다(디지털충주문화대전-이수일조).

59) 『宣祖實錄』 권40, 26년 7월 24일(丙子)

60) 申佺, 『亂蹟彙撰』 下, 癸巳, “長鬐縣監李守一 陞拜爲密陽府使 未幾陞拜左水使 率各浦邊將 結陣於長鬐地包伊浦 召集漁船 且求船匠多造戰船 以待變”

61) 『宣祖實錄』 권38, 26년 5월 23일(丙子)

62) 『宣祖實錄』 권40, 26년 7월 12일(甲子)

物貨를 매매하고 있으니 저들의 허술한 틈을 타서 火攻하기에는 지금이 바로 적기입니다. 지금 東邊에 있는 여러 왜적이 섬멸을 당하여 이 일대의 군현이 점차 수복되고 있으니, 만약 精銳軍을 선발하여 저 잔류해 있는 왜적이 많지 않은 틈을 타서 앞서 말한 지방을 무찔러 저들의 營寨와 군수품을 불태우고, 또 웅천 등지의 적을 격파하여 要害處를 점거하여 우리 수군의 길을 개통한다면 저들은 장차 앞뒤에서 공격을 받아 진퇴 간에 의거할 곳이 없게 될 것이니, 이것이 바로 孫臏이 곧바로 魏都로 달려가고 韓信이 먼저 趙壁으로 들어갔던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매우 외롭고 약한 병력으로 이미 西路를 방어하고 있으므로 다시 동쪽을 공격한다는 것은 형세가 아무리 유리하다 하더라도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부디 협조하시어 全勝의 공을 거두게 하여 주십시오.⁶³⁾

이러한 조정의 방침에 부응이라도 하듯이 경상좌수사 이수일이 일본군선 4척을 나포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특히 이 전과는 다음 기록과 같이 조선 조정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서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경상좌수군이 거둔 대단한 전과로 인식되었다.

"경상 좌수사 이수일이 적선 4척을 나포하였구나. 좌수영에서 이런 勝捷의 소식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하였다. 매우 가상하니 수일은 加賞하고 啓本에 付記한 군공이 있는 사람은 즉시 서둘러 논상하되, 그 중 한 사람을 특별히 堂上으로 삼아 모든 군사들을 聳動시키라. 그리고 관교(교지)를 이번엔 온 사람에게 주어 군중에 가서 頒給하게 할 것이며 승첩의 소식을 가지고 온 사람도 논상하라. 軍人의 공을 啓聞하지 않았으니 수일로 하여금 즉시 등급을 정하여 계문케 하여 때를 넘기지 말고 상을 주도록 하라. 그리고 수일이 왜적의 화약을 노획하여 쓰는 것을 익히다가 失火하여 수일 등 10여 인이 부상하였다 하니, 알맞은 약을 아울러 내려 보내라."⁶⁴⁾

일부 자료에서는 구체적으로 좌수사 이수일이 이끈 경상좌수군이 도포와 감포 등지에 주둔하면서 왜선 몇 척을 사로잡았다

63) 위의 책 같은 조

64) 『宣祖實錄』 권40, 26년 7월 24일(丙子)

고도 하였다.⁶⁵⁾ 이수일은 이에 앞서 6월 8일에도 경상좌병사 권응수와 함께 울산 서문 밖 4~5리 거리에 포진하고 있던 적들과 다섯 차례의 접전을 하여 적의 軍幕을 태우고, 적병 50여 명을 죽였으며, 수많은 왜인들에게 부상을 입히는 전공을 거두기도 하였다.⁶⁶⁾

이와 같이 임진왜란 초기에는 와해되다시피 했던 경상좌수군이 어느 정도 전과를 거두기 시작하자 조정에서는 경상좌수군의 전력 증강을 위한 노력도 기울였다. 예컨대 1593년 겨울에 舟師督戰宣傳官 都元亮이 충청우후와 충청도 船匠人 30여 명을 이끌고 강원도 월송포의 소나무를 벌목하여 전선 9척을 만들었다.⁶⁷⁾ 이 신조 전선들을 경상좌수영으로 옮겨 이수일의 통제 하에 두고 이러한 전력 증강을 바탕으로 동해안 남부지역의 낙오한 일본군들을 사로잡는 전공을 거두기도 하였다.⁶⁸⁾

한편 당시 읍 수군을 지휘하던 기장현감은 이용준에 이어서 1592년 10월에 울산에 거주하던 朴弘春이 임시로 임명되었다. 그러다가 1593년 9월에 승진하여 임명되어 활동하다가 1596년 10월에 체직되었다. 그 후 역시 울산에 거주하던 李謙秀가 1596년 12월에 임명되었다가 이전 현감 박홍춘과 異姓사촌 간으로 파악되어 상피원칙에 따라 바로 교체되었다. 이어서 영천에 거주하던 李庭堅이 1596년 12월에 임명되어 정유재란 시기 내내 활동하였다.⁶⁹⁾

65) 申佺, 『亂蹟彙撰』, 下 계사년조

66) 『宣祖實錄』 권40, 26년 7월 6일(戊午)

67) 申佺, 앞의 책, 갑오년조. 한편 『宣祖實錄』 권52, 27년 6월 16일(癸亥)에는 “강원도에서 戰船을 제조하면서 많은 양의 船材를 벌채하고도 제조한 배는 겨우 다섯 척에 불과하고”라 하여 기록의 차이가 있다

68) 申佺, 위의 책, 갑오년조에는 수사 이수일이 배에 필요한 물건을 갖추고서 도원랑 등과 합세하여 동해의 바닷가에 낙오한 조무래기 왜적들을 많이 사로잡아 죽였다(水使李守一 具備什物 與元亮等合勢 而東邊零賊 多捕斬之)고 기록되어 있다.

69) 기장군, 앞의 책, 선생안

다음으로 울산군수로 활약한 대표적인 인물은 金太虛였다.⁷⁰⁾ 임진왜란 개전기의 김태허의 활약에 대해서는 울산 지역에서 의병으로 활동했던 인물들의 여러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9월 순찰사 김수와 병사朴晉이 김태허를 울산군 假守로 삼아 흠어져 달아났던 병사를 불러 모으고 의병 봉기를 독려하자, 이석중이 가장 먼저 그 부름에 응하였다. 10월 적선 6척이 기장에서 곧장 울산군으로 향해 오자, 그는 가수를 따라 힘껏 싸워 적선 2척을 빼앗고 많은 적의 목을 베었다. 이에 순찰사와 병사가 함께 馳啓하여 가수를 실제 군수로 삼았다.”⁷¹⁾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실제로 1592년 10월에 일본군이 전선 6척으로 기장으로부터 쳐들어오고, 일본의 육군 300명이 何尔浦⁷²⁾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쳐들어왔다. 이에 김태허가 지휘하는 관군이 주사장 서인충 등과 더불어 중일 싸워서 육지에서는 일본군 50여 급을 베었으며, 바다에서는 40여 급을 베고, 적선 2척을 나포하였다.⁷³⁾ 이 공로로 그는 奉正大夫 軍器寺 正에 승진되고, 정식 울산군수로 임명되었다.⁷⁴⁾

70) 김태허(1555~1620)의 본관은 廣州. 자는 汝寶, 호는 博淵亭. 아버지는 좌찬성 金希曾이다. 1580년(선조 13) 26세 나이로 武科에 급제한 무신으로 玉浦萬戶로 첫 관직에 나갔다. 그는 1590년에 임지가 바뀌면서 일정한 직무가 없는 散官으로 있었다고 한다. 김태허는 초기에 밀양 지역을 중심으로 의병 활동을 하다가 공적을 인정받아 울산 가군수로 발탁되었다고 보아진다. 임진왜란 개전기에 경주, 울산, 연양 일대에서는 관군과 의병 항쟁이 활발하였다고 한다. 특히 1592년 4월에 전쟁이 발발한 이후부터 1593년 4월까지 1년 동안 울산 지역에서는 전투가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울산에서 활약한 밀양 출신의 대표적인 인물은 襄武公 金太虛였다(김강식, 「임진왜란기 襄武公 金太虛의 활동과 의미」 『한국민족문화』 67, 부산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2018. 5)

71) 『香山集』 권15, 墓碣銘, 宣武功臣守門將李公墓碣銘 并序.

72) 현재 기장군의 아이포를 말한다.

73) 『宣祖實錄』 권38, 선조 26년 5월 23일(丙子); 『울산부 여지도 신편읍지』 1786년, 古蹟, 壬辰倭變事蹟.

74) 『울산부 여지도 신편읍지』 1786년, 古蹟, 壬辰倭變事蹟; 『慕夏堂文集』 권3, 附錄, 龍峴事實摭錄,

이렇게 경상좌수군 소속 지휘관들이 해전과 육전에서 나뉘는 활약을 함에 따라 조정에서는 이들에게 자급을 올려주고 포상을 시행하였다. 예컨대 1594년 9월에는 이수일을 수사(병사)급 이상 장수 11인에 포함하고 울산군수 김태허는 조방장급 5명의 장수 중에 포함하여 각각 격려 물품인 耳掩 3령씩을 지급하도록 하였다.⁷⁵⁾ 이와 같이 경상좌수군은 강화기간 중 일본군의 활동이 위축되는 시점을 틈타서 일본군에 상당한 타격을 가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한편 강화 기간 중에도 울산 군수 김태허는 울산지역 일본군의 동향에 대해서 신속하게 보고하였다. 예컨대 ‘서생포 적의 소굴은 전보다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고 금년부터는 온 들판에 개간하고 있으며 양식을 운반하는 배들도 전보다 배나 많이 출입할 뿐 아니라, 성도 날마다 더 올려 쌓고 전에 排設한 垓子도 다시 파고 그 안쪽에는 소나무를 柵木처럼 심고 있다’고⁷⁶⁾ 보고하였다. 능력에 맞는 抗倭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었던 것이다.

나. 정유재란 시기(1597~1598)의 활동

강화기간이 절정에 달한 1596년에 이르러 경상좌수사가 교체되었다. 좌수사 이수일은 체찰사 李元翼 휘하의 별장으로 전보되고 후임 좌수사직은 웅천현감과 동래부사를 거친 李雲龍이⁷⁷⁾ 맡

75) 『宣祖實錄』 권55, 27년 9월 21일(丙申)

76) 『宣祖實錄』 권61, 28년 3월 29일(壬寅)

77) 이운룡(1563~1610)의 본관은 載寧이며 자는 景見, 호는 東溪이고 주거주지는 淸道였다. 증조부는 제용감 정을 지냈으며, 조부는 副寧府使였고, 부친 夢祥은 中直大夫로서 남해현령을 지냈다. 이운룡은 청년시절 정로위에 소속되었다가 그의 나이 22세이던 1584년(선조17) 무과 별시에 응시하여 병과 85위(102/202)에 올랐다(『萬曆十二年甲申秋別試文武榜目』). 이후 1587년 선전관에 임명되고, 1589년 정월에 옥포만호로 임명되었다. 옥포만호로 3년째 근무하던 1592년 4월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자신의 근무지인 옥포해전에 참가하였다. 이 싸움에서 그는 선봉장으로 임전하여 다른 경상우수군과 함께 적선 5척을 분멸시키는 데 기여하

게 되었다.⁷⁸⁾ 당시 명·일간의 강화교섭으로 일본 수군이 명 사신들을 따라 일본으로 철수하자 경상좌수군은 울산의 염포로 나아가 주둔하였다.⁷⁹⁾ 그러다가 1597년 1월 15일에 加藤清正이 도해하여 서생포를 점거하자 경상좌수군은 퇴각하여 포이포에 둔진하게 되었다.⁸⁰⁾

1597년 1월 정유재란이 발발하자 경상좌수군은 전투를 하지는 못한 채 적의 동향에 대한 파악을 한 후 신속하게 보고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예컨대 다음의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겸경상 등 사도 도체찰사 의정부 우의정 이원익의 서장은 다음과 같다.
"기장 현감 李汝璽의 馳報에, 청정이 이달 13일에 다대포에 도착하여 정박하였는데 먼저 온 배가 2백여 척이라 하였고, 15일에 이경전이 또 치포하기를 '왜의 큰 배 1척과 왜노 70여 명 및 왜장 희팔이 즉시 부산에 도착하여 牌文을 보냈다.' 하였습니다."⁸¹⁾

경상 등 4도 도체찰사 이원익의 서장에,
"울산 군수 金大虛의 馳報에 '왜적들이 전에 정박했던 곳에 가득히 선박을 屯聚시켰는데, 선박은 그 포구 2마장 남짓 되는 곳까지 빈틈없이 정박했다. 그 수를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대개 5백여 척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비변사에 계하하였다.⁸²⁾

였다. 그 뒤 한산도대첩 등 여러 해전에 참가, 진두에서 용감히 싸워 적군의 內洋 진출을 막아 우리 수군이 남해의 제해권을 장악하는 데에 공을 크게 세웠다. 웅천현감과 동래부사직을 거친 후 1595년에는 정3품 통정대부에 올랐으며, 1596년 이순신의 천거로 경상좌수사에 승진된 후 전쟁이 끝날 때까지 경상좌도의 수군을 주도하였다(제장명, 「이순신을 도운 경상우수영·충청우수영사람들」 『이순신연구논총』 제23호, 순천향대 이순신연구소, 2015).

78)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國譯 莢營誌』 「先生案」 274쪽; 『亂中日記』 병신년 3월 4일에는 그동안 웅천현감이던 이운룡이 경상좌수사로 발령받아서 왔다는 기사가 보이고, 3월 9일과 10일에는 이순신이 좌수사와 작별 술잔을 나누는 기사가 보인다.

79) 申佐, 앞의 책, 병신년조.

80) 위의 책, 정유년조

81) 『宣祖實錄』 권84, 30년 1월 21일(壬子)

82) 『宣祖實錄』 권84, 30년 1월 26일(丁巳)

이와 같이 정유재란이 발발했을 때 기장현감 이정견과 울산군수 김태허는 각각 적의 침입 사실을 즉시 보고한 바 있다. 이것은 직접 전투에 참가하지는 못했지만 적정에 대한 보고를 통해서 맡은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정유재란이 벌어져서 일본군이 경상좌도 지역을 쳐들어 왔을 때 임진왜란 초기와 마찬가지로 경상좌수군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물러나야만 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조정에서는 강원도 지역에서 전선을 건조하고 격군을 구하여 동해안 남부로 보내 경상좌수군의 전력을 증강시키는 조치를 취한 것이다. 그렇지만 몇 척에 불과한 전선만으로 대규모의 적선과 바다에서 교전을 하는 것은 무리였다. 특히 부산 쪽으로 침입하는 대규모의 적을 맞아 교전을 한다는 것은 조선 수군 전체가 와서 막아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경상좌수군은 일본군이 근접하기 어려운 장소에 주둔하면서 적정에 대한 동향 파악과 소규모의 해전을 수행할 뿐이었다.

한편 정유년 7월에 있었던 칠천량해전에서 일본군이 승리한 후 일본군은 좌군과 우군으로 나누어 남원성과 황석산성을 함락시키면서 전라도와 충청도 방면으로 진출하였다. 그러다가 그해 9월 7일의 직산전투와 9월 16일의 명량해전에서 패한 일본군은 다시 남하하였다. 그들은 순천을 최서단으로 하여 남해안을 따라 동쪽으로 왜성을 축조한 가운데 주둔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597년 12월에 접어들어서 일본군은 왜성 축조를 완료하고 방어 태세로 전환하였다.

이에 명군의 수뇌들은 한성에서 그 대응책을 논의한 결과 11월에 경리 楊鎬는 울산의 加藤清正 군을 먼저 공격하여 적의 오른팔을 끊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경략 邢玠와 함께 울산성에 대한 공격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였다.

① 경리 양호와 제독 마귀는 좌협 부총병 李如梅 군 12,600명과 우협 부총병 李芳春 군 11,600명을 거느리고 충주-안동-경주를 거쳐 울산의 加藤清正 군을 공격하며, 중협 부총병 高策 군 11,700명은 천안-전주-남원으로 이동하여 순천의 小西行長 군을 견제하여 小西行長 군이 加藤清正 군을 구원하지 못하게 한다.

② 충청병사 이시언 군 2천명은 좌협군을 지원하며, 경상우병사 정기룡과 방어사 고언백 군 1,300명은 우협군을 지원한다. 경상좌병사 성운문과 방어사 권응수 군 2,200명은 중협군을 지원한다.

③ 도원수 권율은 경상 우조방장 박재우, 전라 감사 황신, 전라 병사 이광악 등이 모병한 군사를 지휘하며, 기타의 조선군을 감독한다. 그리고 권율은 조명연합군의 주둔지 및 숙영지를 사전에 정찰하여 동정군 제독에게 보고한다.

④ 동정군의 전투 장비는 遼陽分守 張登雲이 수송책임을 지며, 군량은 1개월 분량을 명과 조선의 전임관이 수송 책임을 진다. 단 한성 이복은 郎中 董漢儒가 조선 측과 협의하여 명에서 보낸 군량을 일단 한성에 집적한 뒤 각 영으로 수송한다.⁸³⁾

정유년 말에 있었던 이 도산성전투는 당시의 전황에 분수령이 되었다. 이 전투는 당시 명군이 전력을 다해 일본군을 공격한 전투로서 그 의미와 파장은 매우 컸다. 이 전투의 상황을 살펴봄으로써 이후 전개되는 조명 연합작전에 대한 이해와 함께 당시 경상좌수군의 상황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

여기서 경상좌수군이 한 역할은 2가지이다. 한 가지는 군량의 공급이었다. 위의 제④항에 있는 군량 공급 중 일정부분을 경상좌수군이 맡게 되었다. 당시 제1차 울산성전투에 대한 경상좌도

83) 『宣祖實錄』 권94, 30년 11월 7일(甲午); 丁酉; 戊戌; 己亥; 壬寅; 辛亥條; 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 『壬辰倭亂史』 1987, 246~247쪽.

관민들의 기대가 컸다. 그래서 명군의 군량 지공을 위해 영남 사람들이 꼭 이길 것이라는 기대에서 있는 힘을 다해 주선함으로써 어느 정도 수송이 가능하였다. 당시 좌도지역으로 곡식을 이송하는 것은 좌수사 이운룡이 담당하여 수송하였다. 군량 수송은 아마도 강원도와 함경도에서 거둔 곡식을 동해안을 따라 수송한 것으로 추정된다.⁸⁴⁾

다른 한 가지는 전투에 간접적으로 참여하여 성원을 하라는 것이었다. 공격 계획이 확정되자 경리 楊鎬와 제독 麻貴는 11월 27일에 3협군을 한강의 동작진 일대에 집결시켜 출동태세를 갖추었다. 이와 동시에 경상좌수군의 동원을 협조 요청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마귀의 접반사 형조판서 張雲翼이 치계한 내용에 나타나고 있다.



제독이 문경에 도착하던 날 신과 도원수 권을을 불러 비밀히 말하기를 ‘거사할 적에 좌도 수사 李雲龍을 시켜 전함을 정제하여 많은 포수를 싣고 서생포 근처에서 북을 치고 고함을 지르며 횡행하여 성세를 부추길 수 있게 하려한다. 임시하여 남병 수백 명과 당신네 나라 군병으로서 나를 따를 조총수 2백 명을 발송하여야 될 것이다. 원수는 수사에게 미리 지시하여 배를 많이 모집하여 놓도록 하라.’고 하였습니다.⁸⁵⁾

위에서 볼 때 당시 경상좌수군에게 기대한 것은 직접 전투에 참전하여 성을 공격하거나 적의 구원군을 차단하는 등의 활약이 아니라 단순히 성세를 돋우는 수준이었다. 이를 통해 볼 때 경상좌수군이 존재는 하고 있었지만 그 세력이 약해서 직접 전투에서 큰 활약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형편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상좌수군의 역할에 대해서는 중국 측 자료에도 보인

84) 『宣祖實錄』 권99, 31년 4월 29일(癸未)

85) 『宣祖實錄』 권95, 30년 12월 23일(己卯)

다. 당시 경상좌수군은 장기에 4척의 전선이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또한 ‘울산에서 100여 리쯤 떨어진 기장의 한 섬에는 조선의 수병관원 이운룡이 수병 500여 명을 거느리고 섬 안에 숨어 있었으나, 감히 남쪽으로 왜적들을 엿보지 못하였다. 加藤清正 또한 이들을 깔보아 전혀 방비하지 않았는데, 이는 그들이 병력이 약한 척 속였기 때문이다.’라고⁸⁶⁾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볼 때 도산성 공격전에 구체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경상좌수군도 어느 정도 기여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지만 전체 전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열세한 전력으로 전황에 큰 기여를 할 수 없었던 당시의 수군력 운용 사실에서 유추할 수 있다.

한편 임진왜란이 시작된 이후 일본군의 경상좌도 침입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경상좌도 각 진포의 위치를 조정하였다. 일본군의 주침입지역인 경상좌도 지역을 효율적으로 방어하기 위하여 진포의 위치를 조정하게 되었다. 그런데 읍수군의 위치는 행정조직과 동일하기 때문에 위치 변동이 없었지만 진포 수군의 위치는 16세기 초기에 비해 많은 이동이 있었다.

86) 諸葛元聲, 『兩朝平壤錄』, 『壬辰之役史料匯輯』3권, 國學資料院 影印本, 1995, 150쪽.

〈표 3〉 임진왜란 시기 경상좌수군 진포의 위치변화

구분	신증동국여지승람(1530년대)	임진왜란 중 위치
경상좌수영	울산군 개운포	동래부 해운포
염포	울산군 동쪽 23리/수군만호	울산군 동쪽 23리/후기에 혁폐
서생포	울산군 남쪽 53리/수군만호	울산군 남쪽 53리
개운포	울산군(좌수영)	울산군→동래부 남쪽 30리
부산포	동래현 남쪽 21리/수군첨사	동래부 남쪽 21리
해운포	동래현 동쪽 9리/수군만호	혁폐(좌수영)
다대포	동래현 남쪽 54리/수군만호	동래부 남쪽 54리
서평포	동래부 서남쪽 49리/수군만호	다대포에 통합, 남쪽 2리
감포	경주부 동쪽72리/수군만호	경주부→동래부 남쪽 11리
축산포	영해부 동쪽14리/수군만호	영해부→동래부 남쪽 12리(1581년 선조14년 이진)
칠포	흥해군 북쪽 15리/수군만호	흥해군→동래부 남쪽 12리
두모포	기장현 동쪽 5리/수군만호	기장현→동래부 남쪽 25리
포이포	장기현 북쪽 17리/수군만호	장기현→동래부 동남쪽 13리

※출처 : 『신증동국여지승람』·『대동지지』·『증보문헌비고』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상도 동부지역에 위치했던 수군진들이 대거 동래부 관할지역으로 이동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당대의 관련 기록은 찾아볼 수 없으나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록과 『대동지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중 축산포의 경우 1581년(선조 14)에 이미 동래부 쪽으로 이진한 것이 확인되며 기타 이진한 진포는 선조 25년에 주로 이동했다고 되어있

다.⁸⁷⁾ 그렇지만 1592년(선조 25)에 이진했다는 기록을 당대의 사료 중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다시 말해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경상좌수영 산하 함선들이 부산 부근에 집결되어 있었다고 볼 근거는 별도로 없으므로 이러한 위치 변동과 수군력의 집결은 대부분 임진왜란 중에 구상했다가 1598년 전쟁이 끝난 후에 단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⁸⁸⁾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향후 침입해 올 일본군에 대비하여 대대적인 수군기지의 위치 조정에 의해 경상좌도의 수군진포는 대부분 좌수영, 부산포, 다대포 일대로 배치되었다.⁸⁹⁾ 이는 경상좌도의 신장된 해안과 동래 일대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좌수영의 예하 수군을 신속하게 동원하고 수군함대를 편성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⁹⁰⁾



5. 맺음말

앞에서 임진왜란 시기 활동한 조선 수군 중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한 경상좌수군의 활동에 대해 살펴보았다. 경상좌수군은 지리적 위치 때문에 임진왜란 개전 때부터 일본군의 점령지에 속

87) 『대동지지』 등에 의하면 경상좌도 수군진포의 위치 변화가 선조 25년에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일자는 나오지 않고 있으며, 李昊俊은 앞의 논문(122~123쪽)에서 경상좌수군의 위치 조정이 1592년 4월 이전에 있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88) 오봉근, 『조선수군사』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1(한국문화사 영인본, 1998), 333~334쪽.

89) 李昊俊은 임진왜란 이전에 위치 조정이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본문에서 전술한 일부 자료에서 염포를 활용하고 포이포의 위치를 원래의 위치로 언급하는 자료들을 볼 때 일괄적으로 임진왜란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은 착오이다.

90) 李昊俊, 앞의 논문 121쪽.

함으로써 제대로 된 활동을 전개할 수 없었다. 경상좌수군은 일찍부터 와해되었기에 그 위상은 격하되어 관심 또한 멀어지게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경상좌수군의 역할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경상좌수군도 임진왜란 시기 존재하여 분명히 나름의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경상좌수군의 활동 내용을 파악하여 정리하는 것은 임진왜란 수군사를 정리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작업일 것이다.

임진왜란 이전 경상좌수영의 설치와 변천과정을 살펴보았을 때 조선 초기 경상좌수영은 부산포에 위치하였다. 그러다가 울산의 개운포로 이영하였다가 16세기 중반에 동래 해운포에 정착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가 생긴 이유는 당시 일본과의 정세 변화에 따른 것이었다. 다시 말해 침략하는 일본군을 효율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었다. 경상좌수군은 16세기 중반에 제승방략제가 시행되면서 수군진뿐만 아니라 읍수군도 수사 관할에 놓이게 되었다. 그리하여 임진왜란 직전 2관 12포로 총 14개 수군부대가 운용되고 있었다. 그렇지만 경상도 동부해안으로부터 낙동강 동쪽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을 담당하는 수군진들이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었기에 임진왜란이라는 일본군의 대규모 침입 시 바다에서 대응할 수 없었다. 따라서 수전은 불가능하였으므로 육전 위주로 전투를 할 수밖에 없었다. 경상좌수사 역시 적에 대응할 엄두도 내지 못한 채 육전에 참여하였으며, 정발의 분전으로 대변되는 부산진성전투, 윤홍신의 순절로 알려진 다대포진전투 등이 경상좌수군이 담당한 육전의 대표적 사례이다.

그러다가 강화교섭기에 접어들면서 일본군이 제2차진주성전투 참전으로 많은 병력이 경상우도 쪽으로 이동하였을 때 경상좌도

지역에 남아있던 일본군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였다. 이때 울산군수 김태허 등은 육전과 수전을 막론하고 의병들과 합세하여 나름의 전과를 거두었다. 와중에 경상좌수사 이수일은 적선 4척을 나포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강화교섭기간 중 조정에서도 경상좌수군의 전력 강화를 위하여 판옥선을 건조하여 지원하는 등 나름의 개선책을 강구하였다. 그러나 경상좌수군의 전투는 게릴라식 전투 환경에서나 가능하였으며, 대규모 적과 맞서서는 수적 열세를 극복할 수 없었다.

이러한 현상은 정유재란 시기에도 마찬가지였다. 1597년 1월 정유재란이 벌어졌을 때 기장현감과 울산군수는 적을 막을 능력은 없었으며 적의 침입 사실을 보고하는 임무만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명군 중심의 울산성 조명연합전투 시 경상좌수군도 어느 정도 기여를 할 수 있었다. 좌수사 이운룡이 주관하여 명군이 먹을 군량을 동해안을 통해 수송 공급하였으며, 적은 병력이었지만 실제 전투에서 위세를 떨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경상좌수군도 나름의 위상을 회복한 시기로 볼 수 있다.

한편으로 임진왜란을 겪는 동안 조선 조정에서는 일본군의 침입을 조기에 막기 위해 흩어져 있던 경상좌도의 수군진을 동래부와 부산포 쪽으로 집중 배치하는 위치 조정을 실시하였다. 기록에는 선조 25년에 단행했다고 하지만 실제 위치 조정은 전쟁이 끝난 직후 시행한 것으로 생각된다.

요컨대 경상좌수군은 임진왜란 초기에 와해되다시피 한 가운데서도 나름의 활동을 수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른 지역 수군에 비해 기여도가 미미했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여건에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자료의 한계로 경상좌수사 휘하 鎭浦의 활동상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음이

아쉬운 부문이다. 이는 향후의 연구 과제로 남겨둘까 한다.

(원고투고일 : 2018. 6. 27, 심사수정일 : 2018. 8. 16, 게재확정일 : 2018. 11. 19)

주제어 : 조선 수군, 경상좌수영, 경상좌수군, 박홍, 정발, 윤흥신, 이수일,
이운룡, 김태허, 울산성전투



〈참 고 문 헌〉

자료

- 『太宗實錄』·『世宗實錄』·『世祖實錄』·『中宗實錄』·『明宗實錄』·『宣祖實錄』·『宣祖修正實錄』
 『經國大典』·『新曾東國輿地勝覽』·『機張郡誌』上卷, 「先生案」· 柳成龍, 『懲愆錄』· 李舜臣, 『亂中日記』· 李恒福, 『白沙集』· 申佺, 『亂蹟巽異』· 『李忠武公全書』· 『大東地志』· 『增補文獻備考』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國譯 萊營誌』
 諸葛元聲, 「兩朝平壤錄」壬辰之役史料匯輯, 3권, 國學資料院 景和印, 1995

단행본

- 國防省戰史編纂委員會, 『壬辰倭亂史』, 1987
 方相鉉, 『朝鮮初期 水軍制度』, 민족문화사, 1991
 오봉근, 『조선수군사』 사회과학출판사, 1991(한국문화사영인본)
 李炳錫, 『壬辰戰亂史』上卷, 壬辰戰亂史刊行委員會, 1974
 장학근, 『조선시대 해양방위사』 창미사, 1988
 제정명, 『충무공 이순신의 흔적을 찾아서』 해사 해양연구소, 2018
 조원래, 『임진왜란과 湖南地方의 義兵抗爭』, 아세아문화사, 2001
 해군사관학교 해양연구소, 『임진왜란 흥양해전사 연구』 고흥군, 2016

논문

- 김강식, 「임진왜란기 襄武公 金太虛의 활동과 의미」 『한국민족문화』67, 부산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8, 5
 김석희, 「임진왜란과 부산항진」 『항도부산』 제9호, 부산시사편찬위원회, 1992
 김성래, 「朝鮮後期 慶尙左水營에 대하여」, 영남대학교 석사논문, 1991
 나동욱, 「조선시대 부산지역의 수군 영·진성」 『부산성곽』 부산박물관, 2016
 박정주, 「18세기 경상좌수영의 水操 및 전함에 관한 연구」, 부경대학교 석사논문, 2018
 이만웅, 「임진왜란 초기 해전 연구 I」 『海洋研究論叢』(제39집) 해군사관학교 해군 해양연구소, 2007

이재룡, 「조선 전기의 수군」 『한국사연구』 5집, 1970

이창우, 「조선후기 경상좌수영 嶺下坊里 연구」, 부경대학교 석사 논문, 2015년

李晷俊, 「임진왜란 초기 경상도 지역 전투와 군사체제」 『軍史』 제77호, 국방부 군사
편찬연구소, 2010. 12

제장명, 『정유재란 시기 해전과 조선수군 운용』 부산대학교 박사논문, 2014

제장명, 「이순신을 도운 경상우수영 · 충청수영사람들」 『이순신연구논총』 제23호, 순
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 2015

한시진, 「문서행정을 통해 본 조선후기 慶尙左水營의 수군행정 운영」, 부경대학교
석사 논문, 2014년



<Abstract>

The Status and Activities of Gyeongsang Left Navy during the Imjin War

Je, Jang-myong

The perception that the Joseon Navy played a crucial part in overcoming the national crisis during the Imjin War is dominant. The naval forces in three provinces (Gyeongsando, Jeollado, and Chungcheongdo) forbade the Japanese army to advance from the sea, which greatly contributed to leading the war in favor of Joseon. However, the Gyeongsang Left Navy which was established and operated in the eastern part of Gyeongsang province with Busan at the center, was not able to function properly as it occupied by the Japanese forces from the beginning of the war.

This study investigates the military activities of the Gyeongsang Left Navy during the Imjin War. It is verified that the Gyeongsang Left Navy existed and carried out its duty clearl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plore and examine the activities of the Gyeongsang Left Navy in order to review the naval history during the Imjin War.

A total of fourteen naval troops were in operation, including two Gwans (administrative land districts), and twelve Poes (naval forces administrative districts) in the Gyeongsang Left Navy right before the Imjin War. However, it was impossible to prevent the large-scale Japanese troops from invading Busan in the sea because the naval camps were dispersed widely around Busan. In the early phase of the war, therefore, the battles were mainly fought on the land. The commander of Gyeongsang Left Navy also participated in

land battles, including Siege of Busan in which the general Jeong Bal fought hard, and Siege of Dadaepo in which Yun Heung-sin died in the last ditch for Joseon.

Then, the Gyeongsang Left Navy strengthened its offensive against the Japanese forces which remained in that area by the time the peace negotiation began. At this time, Kim Taeheo, the governor of Ulsan won a victory both in land battles and sea battles. In the meantime, Lee Suil, the commander of Gyeongsang Left Navy seized four enemy ships. During the period of the peace negotiation, the Joseon court sought for the measures such as the construction of panokseon (board roofed ship) to improve the combat power of the Gyeongsang Left Navy. However, the combat of the Gyeongsang Left Navy was only effective in a guerrilla warfare, and it was not able to overcome its numerical deficit against a large enemy.

This situation was the same even during Jeongyoojaeran, the second invasion. When Jeongyoojaeran broke out in January 1597, Gijang Hyeongam and the governor of Ulsan were not able to keep off the enemy and did nothing but reported the invasion of the enemy. However, during the first Siege of Ulsan, the Gyeongsang Left Navy was able to contribute some extent. Lee Unryong, the commander of Gyeongsang Left Navy, supervised the transportation of the provisions for Ming forces through the East Sea and actually exerted great influence in the battle with a small force. The Joseon court commanded the naval camps in the Gyeongsang Left Navy to move toward Busan. So the troops were intensively disposed in Busan.

In short, the Gyeongsang Left Navy carried out military activities in its own way although it was almost in the state of collapse in the early phase of the Imjin War. It could be considered that the

Gyeongsang Left Navy did its utmost under the circumstances of that time even if the contribution was small compared to other regional navy.

Key Words : Joseon Navy, Gyeongsang Left Navy Force, Gyeongsang Left Navy, Jeong Bal, Yun Heung-sin, Lee Suil, Lee Unryong, Kim Taeheo, Siege of Ulsan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18, No. 109, pp.321-352
<https://doi.org/10.29212/mh.2018..109.9>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고려시대의 안시성 위치 인식과 당 태종 눈 부상설의 검토

김철웅*

1. 머리말
2. 안시성 위치에 대한 인식
3. 태종의 눈 부상설에 대한 검토
4. 맺음말

1. 머리말

645년, 당 태종은 연개소문의 정변을 빌미로 고구려 침공을 단행하였다. 이 1차 고구려 침략에서 당은 몇 차례 승리를 거두었으나 결국은 안시성에서 막혀 여러 달을 지체하다가 퇴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태종은 성공하지 못한 것을 깊이 후회하고

* 단국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탄식하였다.¹⁾ 그리하여 안시성 전투는 후대에 회자되며 중요한 사건으로 기억되었다. 예를 들면 김부식은 안시성 전투를 이끈 장수의 이름이 역사에 남지 않았음을 안타깝게 여겼다.²⁾

안시성에 대한 관심은 조선시대에 들어 고조되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안시성의 위치와 그 성주로 알려진 양만춘에 대해 큰 관심을 나타내었다. 특히 안시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들이 있었다. 이에 지금까지 안시성의 위치 문제와 양만춘에 대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³⁾ 그런데 이들 연구는 조선시대에 집중되어 있어 그 이전 시기의 인식을 규명하는 데는 소홀했던 것이 아닌지 되돌아보게 된다. 이에 안시성에 관한 고려시대의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안시성 문제에 대한 고려시대의 인식을 규명해보는 것은 뒤이어 전개된 조선시대의 인식을 이해하는데

1) 『資治通鑑』 卷198 唐紀14 太宗 貞觀 19년 10월, “凡征高麗…新城建安縣三大戰…上以不能成功 深悔之” 같은 내용이 『三國史記』 卷21 高句麗本紀9 寶藏王 4년 10월조에 실려 있다.

2) 『三國史記』 卷21 高句麗本紀9 寶藏王 4년 10월, “論曰 唐太宗聖明 不世出之君 除亂校比於湯武 致理幾於成康 至於用兵之際 出奇無窮 所向無敵 而東征之功 敗於安市 則其城主可謂豪傑 非常者矣 而史失其姓名 與揚子所云 齊魯大臣 史失其名 無異 甚可惜也”

3) 안시성의 위치와 성주 양만춘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일경, 「安市城은 어디에 있는가?」, 『건축역사연구』 38, 한국건축역사학회, 2004; 최남희, 「고구려 지명 安市城의 재고찰」, 『국어교육연구』 36, 2004; 이승수, 「燕行路上的 공간 탐색, 鳳凰山城: 安市城說과 관련하여」, 『정신문화연구』 103, 2006; 김낙기, 「17~19세기 고구려 안시성 인식과 상상배」, 『역사민속학』 42, 2013; 김세호, 「연행을 통해 되살아난 안시성(安市城)과 梁萬春/楊萬春」, 『한문학보』 31, 우리한문학회, 2014; 남재철, 「安市城主의 姓名 '양만춘' 考證 1」, 『東아시아古代學』 35, 2014. 중국의 연구 성과로는 閻万章, 「汉代安市县城与高句丽安市城非一地考」, 『辽宁省博物馆学术论文集』 1, 1984; 王咏梅·阎海·崔德文·郭德林, 「关于安市城址的考察与研究」, 『北方文物』 2000-2, 营口市博物馆, 2002; 李嵩岩, 「英城子考古纪实——兼谈安市城大战的形成与经过」, 『鞍山社会科学』 2004-1, 2004; 刘炬, 「试论“安市城主”」, 『东北史地』 2011-5, 2011; 张士尊·苏卫国, 「高句丽“安市城”地点再探」, 『鞍山师范学院学报』 2013-3 등이 있다. 그리고 안시성 전투에 대한 연구는 서영교, 「고구려의 대당전쟁(對唐戰爭)과 내륙아시아 제민족: 安市城전투와 薛延陀」, 『軍史』 49, 2003; 서영교, 「연개소문의 최철연타 공작과 당태종의 안시성 撤軍」, 『동북아역사논총』 44, 2014; 서영교, 「駙馬山 전투와 安市城」, 『東國史學』 58, 2015 등이 있다.

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안시성에 대한 연구는 안시성 전투, 안시성의 위치, 성주 양만춘 등에 집중되었다. 그리고 전투 중 당 태종의 눈 부상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까지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관심 중 본고는 안시성에 관한 두 가지 문제에 집중해 보고자 한다. 첫째는 안시성 위치에 대한 문제이다. 조선시대에는 안시성 위치에 대해 평안도 용강현, 봉황산성, 개주 동북 70리 등의 견해가 제기되었으며⁴⁾ 현재는 대체로 해성 영성자산성으로 비정되고 있다.⁵⁾ 안시성 위치에 대해 조선시대 사람들은 초기에는 대체로 압록강 이남인 평안도 용강현 오석산으로, 나중에는 요동 지역(개주, 봉황산성)으로 비정하였다. 그러면 고려시대에는 안시성의 위치를 어느 지역으로 인식하고 있었을까. 고려시대의 안시성 위치 인식을 통해 안시성 위치 비정이 고려와 조선시대에 걸쳐 어떻게 변화한 것인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두 번째로는 이색(1328~1396)의 시 「정관음」에 언급되어 있는 “현화낙백우(玄化落白羽)”, 즉 안시성 전투에서 발생한 당 태종의 눈 부상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색의 ‘현화낙백우’설은 조선시대 이래 지금까지 안시성 전투에 대한 대표적인 기억으로 전승되고 있다. 그런데 이색의 이러한 서술은 문학(시)이라는 측면에서 자료로서 한계가 있다. 즉 내용의 신빙성에 대한 고증이 필요한 것이

4) 예를 들면 조선초기의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안시성이 평안도 용강현 오석산에 있다고 하였고, 안시성이 개주 부근이라는 『대명일통지』의 설도 소개하고 있다. 『新增東國輿地勝覽』 권52 平安道 龍岡縣 城郭, “安市城<在烏石山 距縣治五里 險固無比…世以此城爲唐太宗所親征不下者…今按大明一統志 安市廢縣 在蓋州衛東北七十里 漢置 唐太宗 攻之不下 薛仁貴 白衣登城即此…或別安市城 未可知也” 그리고 안정복(1712~1791)은 奉天府 海城縣, 蓋州 동북 70리, 용강현, 鳳凰城 등을 거론하고 있다. 『東史綱目』 附 卷下 地理考 「安市城考」 참조.

5) 島田好, 「高句麗の安市城の位置に就いて」, 『歴史地理』 49-1, 1927; 金鑰鐵, 『東北通史』, 1941; 동북아역사재단 옮김, 『東北通史』 하, 2007, 491~493쪽; 서영교, 「駐蹕山 전투와 安市城」, 『東國史學』 58, 2015, 58쪽.

다. 이에 그의 주장이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안시성 전투를 대표하는 이 기억을 검토해 봄으로써 안시성 전투에 대한 후대의 평가가 어떠한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 안시성 위치에 대한 인식

고구려 멸망과 신라 중심의 통일로 인해 고구려사에 대한 자료는 많이 남아 있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고구려 말에 벌어진 고구려와 당의 전쟁은 고구려 멸망으로 인해 고구려 측의 사료가 남아 있지 않았을 것이다. 신라 통일 이후 김대문, 최치원 등이 역사서를 편찬하였지만 남아 있는 자료가 없어 안시성 전투에 대한 기록은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최치원이 당 태종의 고구려 정벌을 언급한 것이 있어⁶⁾ 신라인들도 안시성 전투의 승리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고려 사람들은 안시성 전투를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김부식은 『삼국사기』에서 『구당서』, 『신당서』 및 『자치통감』 등 주로 중국 자료를 이용하여 당 태종의 고구려 정벌과 안시성 전투를 기록하였다.⁷⁾ 아마도 고려

6) 『三國史記』卷46 列傳6 崔致遠, “其文集 有上太師侍中狀云…貞觀中 我唐太宗皇帝 親統六軍 渡海蒸行天罰 高麗畏威請和 文皇受降迴蹕…有文集三十卷 行於世”; 『東文選』 권47 崔致遠, 「新羅王與唐江西高大夫湘狀, “昔貞觀中 太宗文皇帝手詔示天下曰 今欲巡幸幽薊 問罪遼碣 盖爲勾麗獠俗 干紀亂常 遂振天誅 肅清海徼…惟彼勾麗 今爲渤海”; 「與禮部表尚書摺狀, “昔者勾麗衛國 負險驕盈 殺主虐民 違天逆命 太宗文皇帝 震赫斯之盛怒 除蠶介之群兇 親率六軍 遠巡萬里 龔行天罰 靜掃海隅 勾麗既息狂飈 劣收遺燼 別謀邑聚 遽竊國名 則知昔之勾麗 則是今之渤海”

7) 『三國史記』卷22 高句麗本紀10 寶藏王 8년 4월, “論曰…柳公權小說曰 駢蹕之役 高句麗與蘇鞞合軍 方四十里 太宗望之 有懼色…新舊書及司馬公通鑑 不言者 豈非爲國 諱之者乎”

사람들은 신라에서 전승된 자료와 중국 자료 등을 통해 안시성 전투를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안시성 전투에 대한 이해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정관정요』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정관정요』는 현재 남아 있는 자료 중에서 안시성 전투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이자 널리 유포되어 있었던 책이었기 때문이다. 『정관정요』에는 고구려 관련 기사로 모두 14건이 실려 있는데⁸⁾, 그 중 안시성에 대한 것은 「충의」편에 실려 있다.⁹⁾

『정관정요』는 당 현종(712~756) 때에 오궁(670~749)이 당 태종(626~649) 때의 역사적 사실을 정리하여 편찬한 것이다.¹⁰⁾ 당 황제들은 『정관정요』를 정치 지침서로 삼아 즐겨 읽었는데, 신라에는 8세기 경에 유입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¹¹⁾ 『정관정요』는 고려에서도 널리 통독되었다. 즉 고려 광종 원년(950)에 『정관정요』가 확인되며,¹²⁾ 최승로는 성종 원년(982)에 올린 시무 28조에서 『정관정요』를 언급하고 있다.¹³⁾ 덕종 2년(1033) 12월의 판에서는 『정관정요』를 인용하였다.¹⁴⁾ 더구나 고려에 정요업(政要業)이 있었음이 확인된다.¹⁵⁾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정관정요』는 고려초부터 유포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8) 김영문 역, 『정관정요』, 글항아리, 2017, 19쪽.

9) 『貞觀政要』 제5 論忠義, “貞觀十九年 太宗攻遼東安市城 高麗人眾皆死戰 詔令溥薩延壽 惠真等降·詔江夏王道宗 築土山 以攻其城 竟不能剋 太宗將旋師 嘉安市城主 堅守臣節 賜絹三百匹 以勸勵事君者”

10) 『貞觀政要』 序, “綴集所聞 參詳舊史 撮其指要 舉其宏綱…名曰貞觀政要”

11) 오영섭, 「최승로 상서문의 사상적 기반과 역사적 의의」, 『태동고전연구』 10, 1993, 237~238쪽.

12) 『高麗史』 卷2 광종 원년 정월, “大風拔木 王問禳災之術 司天奏曰 莫如修德 自是常讀 貞觀政要”

13) 『高麗史』 卷93 열전6 최승로, “承老上書曰·竊見 開元史臣吳兢 撰進貞觀政要 欲勸玄宗勤修太宗之政”

14) 『高麗史』 卷84 지38 형법1 공식 피마식, “德宗二年十二月 判 政要曰 三品以上六尚 書九卿 遇親王 不合下馬 親王班 皆次三公下”

15) 『高麗史』 卷73 지27 選舉1 과목1, “文宗三十三年六月 判 三禮·何論·政要業監試 於諸業畢試後 國子監與本業員 試取”

그리고 특히 주목되는 것은 예종 11년(1116)에 고려에서 『정관정요』를 주해하였다는 사실이다.¹⁶⁾ 따라서 『정관정요』를 통해 고려의 지식인들은 안시성 전투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안시성의 위치에 대해 『정관정요』 「충의」편에서 ‘요동안시성’이라고 하였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요동은 넓게는 요하의 동·서 지역을, 좁게는 요하의 동쪽 지역을 가리킨다.¹⁷⁾ 그런데 당시 고구려는 당과 요하를 경계로 하였으므로¹⁸⁾ 『정관정요』를 읽은 고려 사람들은 안시성이 요하 동쪽 지역에 있었다고 이해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정관정요』의 유행은 고려말까지 이어졌고 조선 시대에도 지속되었으므로¹⁹⁾ 고려시대 내내 안시성이 요하 동쪽 지역에 있었다고 인식하였을 것이다.

『정관정요』에는 안시성 전투에 대해 기술하면서 단지 ‘요동안시성’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안시성 위치를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아니었다. 『정관정요』의 기록보다 자세한 것은 두우(735~812)의 『통전』(801)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통전』에는 안시성의 위치를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대요수는 말갈국 서남산에서 근원하여 남쪽으로 흘러 안시에 이른다. … 정관 … 19년에 태종이 친정하여 요수를 건넜다. 4월에 이적이 개모성을 공격하여 빼앗았다. … 또 요동성을 공격하여 빼앗고 … 6월에 백암성을 함락하였다. …

16) 『高麗史』 卷14 예종 11년 12월 갑신

17) 『遼東志』 卷1 郡名, “遼東<秦名 韻書 遼遠也 以其遠在九州之東 故名 又兼遼西而言 其分遼東遼西者 以其界乎 遼河之東西也”

18) 『舊唐書』 卷199上 列傳149上 東夷 高麗, “西北渡遼水 至于營州”; 『三國史記』 권21 고구려본기9 보장왕 3년 정일, “帝命司農丞相里玄奘 賫璽書賜王…玄奘曰…今遼東諸城 本皆中國郡縣 中國尚且不言 高句麗豈得必求故地”

19) 『高麗史』 卷109 열전22 諸臣 박충좌, “忠穆時 拜贊成事 入侍書筵 講貞觀政要”; 『高麗史』 卷133 열전46 우왕 3년 10월, “政堂文學權仲和侍書筵 講貞觀政要”; 『高麗史節要』 卷34 공양왕 2년 1월, “王欲覽貞觀政要…講讀官尹紹宗進曰…唐太宗 不足取也 請讀大學衍義 以闡帝王之理”; 『太祖實錄』 권15 태조 7년 10월 丁未, “上坐經筵 令侍講官裴仲倫 講貞觀政要”

드디어 군사를 이끌고 안시성으로 나아갔다. … 고구려가 … 15만을 동원하여 안시성을 구원하였는데 … 대파하였다. … 이에 행차한 산을 주필산이라 하였다. … 오래도록 이기지 못하자 9월에 마침내 군대를 이끌고 돌아왔다.²⁰⁾

『통전』에서 안시는 대요수, 즉 요하에 있으며 당 태종이 고구려를 친정(親征)한 사실을 전하고 있다. 요수를 건너 당군은 개모성, 요동성, 백암성, 안시성 등을 공격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보면 안시성의 위치는 요하의 동쪽 지역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삼국사기』, 『삼국유사』는 『통전』을 참고 자료로 이용하고 있다.²¹⁾ 그리고 고려후기의 민지는 『통전』에 있는 당 태종의 고구려 정벌 부분을 보고 일본 정벌의 어려움을 피력하고 있다.²²⁾ 따라서 『통전』을 통해 고려의 지식인들은 안시성이 요하의 동쪽에 있었다고 인식하였을 것이다.

요컨대 『정관정요』에는 ‘요동안시성’이라 하여 안시성이 요동에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통전』에 대요수가 남쪽으로 흘러 안시에 이른다고 하였고, 당 태종은 요수를 건너 안시성을 공격하

20) 『通典』 卷186 邊防2 東夷下 高句麗, “其大遼水 源出靺鞨國西南山 南流 至安市…馬訾水 一名鴨綠水…西與一水合 則靺鞨水也 二水合流 西南至安平城 入海…貞觀…十九年 太宗親征遼 四月 李勣攻拔蓋牟城…又攻遼東城拔之…六月 攻拔白巖城…遂引軍次安市城…高麗…十五萬來援 於安市城東南八里 依山爲陣…大破之…延壽惠眞…來降…因命所幸山爲掛單山…遂移軍於安市城南 久不剋 九月 遂班師…歷於城下而旋 城主昇城拜辭 太宗嘉其堅守 賜緡百疋 以勵事君者”

21) 『三國史記』 卷34 雜志3 地理1 新羅, “新羅疆界 古傳記不同 杜佑通典云 其先本辰韓種 其國在百濟高麗二國東南 東濱大海”; 『삼국사기』 卷37 雜志6 地理4 高句麗, “按通典云 朱蒙以漢建昭二年 自北扶餘東南行 渡溡述水 至紇升骨城居焉 號曰句麗 以高爲氏”; 『三國遺事』 卷1 紀異1 古朝鮮, “唐喪矩傳云 高麗本孤竹國 今海州 周以封箕子爲朝鮮 漢分置三郡謂玄菟樂浪帶方 北帶方 通典亦同此說”; 『三國遺事』 卷1 紀異1 靺鞨, “通典云 渤海李粟末靺鞨至其酋祚榮立國自號震旦”

22) 『高麗史』 卷107 列傳20 諸臣 閔貞, “元宗朝 擢魏遜科…忠宣以世子如元 濱與阿臣從之…後元欲復征日本 令本國造戰艦…濱偶閱杜氏通典 及唐太宗征高麗 魏徵諫曰 高麗如石田 得之無益 乃示僉院共君祥因語曰 倭之於大元 豈啻若唐之於高麗乎 況往歲之役 本國民力竭矣 今若不寢 乃吾民何 惟公圖之”

였다. 이 두 책은 고려시대에 널리 유포되어 있었음으로 이를 통해 고려 사람들은 안시성이 요하의 동쪽 지역에, 구체적으로는 요하 하류 동쪽 지역에 있었다고 이해하였을 것이다.

한편 『삼국사기』를 통해서도 고려시대 사람들은 안시성이 요동에 있었던 것을 인지할 수 있었다. 설계두에 대한 『삼국사기』의 기록을 보면 그는 요동에 이르러 주필산에서 싸우다 죽었다.²³⁾ 주필산이 요동에 있었다고 하였으니 당연히 안시성도 요동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주필산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안시성 함락이 여의치 않자 고연수를 비롯한 여러 신하들이 태종에게 안시성 공격을 포기하고 오골성을 치고 압록수를 건너 평양으로 가자고 건의하였다. 이 주장에 따르면 당군의 진군로는 안시성→오골성→압록수→평양의 경로가 된다.²⁴⁾ 결국 오골성은 압록강과 가깝고 안시성은 요하와 가까운 지역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삼국사기』의 내용을 본 고려 사람들은 안시성이 요하와 가까운 동쪽 지역에 있었다고 이해하였을 것이다.

그러면 고려후기에 고려 사람들은 안시성의 위치를 어디로 인식하고 있었을까. 먼저 목은 이색을 보면 그는 『구당서』, 『신당서』를 통해 안시성 전투를 잘 알고 있었다. 이색은 「독당사」라는 시에서, “궐 아래 넘어뜨린 비를 다시 세우고 요동에서는 화살 비껴 잡고 돌아갔네”라고 하여 당 태종의 고구려 원정 실패를 언급하였다.²⁵⁾ 그리고 「만숙유림관」라는 시에서는 설인귀를, 바로 이어지는 시 「정관음 유림관작」에서는 안시성주에 의해 당

23) 『三國史記』 권47 列傳7 薛蘭頭, “新羅衣冠子孫也…武德四年辛巳 潛隨海舶入唐 會太宗文皇帝親征高句麗 自薦爲左武衛果毅 至遼東 與麗人戰焉 躡山下 深入疾鬪而死 功一等”

24) 『三國史記』 卷21 高句麗本紀9 寶藏王 4년 5월, “高延壽高惠真 請於帝曰…安市人 顧惜其家 人自爲戰 未易猝拔…烏骨城 柵 老老不能堅守 移兵臨之 朝至夕克 其餘當道小城 必望風奔潰 然後取其資糧 鼓行而前 平壤必不守矣 羣臣亦言…併力拔烏骨城 度鴨渌水 直取平壤 在此舉矣”

25) 『牧隱詩集』 卷2 「讀唐史」, “闕下仆碑立 遼東撻箭歸 朝來讀唐史 忠諫至今稀”

태종이 눈을 잃은 내용을 말하고 있다.²⁶⁾ 이처럼 이색은 유림관에서 두 편의 시를 지어 당 태종과 안시성 전투를 회고하고 있다. 즉 이색은 안시성 전투가 유림관과 관련되어 있다고 인식하였던 것이다.

이색은 「만숙유림관」이라는 시에서, “주민들은 아직도 설 장군을 말하는구나”²⁷⁾라고 하였다. 설 장군은 설인귀(614~683)로 안시성 전투에서 공을 세워 유격장군이 되었다. 당 태종은 그를 높이 평가하여 “짐은 요동을 얻어 기쁜 것이 아니라 경을 얻어서 기쁘다.”라고 하였다.²⁸⁾ 이 시에 따르면 고구려의 고토였던 요동 지역에 고구려와 당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 다음은 「정관음 유림관작」이다. 유림관은 ‘번·한(蕃漢)’, ‘한·요(漢遼)’의 경계로 여겨졌다.²⁹⁾ 유림관은

26) 『牧隱詩彙』卷2 「晚宿榆林關, “居人猶說薛將軍”; 「貞觀吟 榆林關作, “那知玄花落白羽 鄭公已死言路澁 可笑豐碑復立” 이 시는 충정왕 2년(1350)에 이색이 연경에서 고려로 돌아오는 길에 지은 것이다. 이때의 여정을 『牧隱詩彙』 권2의 시편들을 통해 보면, 연경(「出鳳城」)→通州(「通州早發」)→三河縣(「早行」)→漁陽縣(「漁陽縣」)→玉田(「玉田途中」)→平州(「馬上逢鄉人王桂進士」)→盧龍縣(「望道者山」)→榆林關(「晚宿榆林關」, 「貞觀吟 榆林關作」)→南新店(「南新店」)→瑞州(「瑞州」)→板橋驛(「板橋」)→海州(「海州」)→압록강(「渡鴨綠」) 등으로 확인된다. 「出鳳城」에, “皇帝龍飛十八春”라 하였으니, 황제는 원의 順帝(1333~1370)이며 즉위 18년은 1350년이다. 이색은 1348년 3월에 대도로 가 국자감에 입학하여 3년 가량 지내다가 1350년 봄에 귀국하였다가 몇 개월 뒤에 다시 원으로 돌아갔다. 이에 대해서는 이익주, 『이색의 삶과 생각』, 일조각, 2013, 57~58쪽.

27) 『牧隱詩彙』卷2 「晚宿榆林關, “居人猶說薛將軍”

28) 『舊唐書』卷83 列傳33 薛仁貴, “太宗親征遼東…大軍攻安地城 高麗莫離支 遣將高延壽高惠真 率兵二十五萬來拒戰…仁貴自恃驍勇 欲立奇功 乃異其服色 著白衣 握戟腰鞬 張弓 大呼先入…大軍乘之 賊乃大潰…擢授游擊將軍雲泉府果毅…太宗謂曰…朕不喜得遼東 喜得卿也”

29) 『新唐書』卷40 志20 地理3, “平州北平郡 有臨渝關…有碣石山”; 『資治通鑑』卷198 唐紀14 太宗 正觀 19년 10월 丙辰, “上…入臨渝關…漢遼西郡有臨渝縣 唐志 營州有渝關守捉城 杜佑曰 臨渝關 在平州盧龍縣城東百八十里…師古曰渝 音喻”; 『許亢宗行程錄』, “營州 古柳城…離州 東行六十里 至榆關…出榆關以東 山川風物與中原殊異”; 『文獻通考』卷315 輿地考1, “平州之東 乃榆關 榆關之東 乃金人之來路 凡此數矣 蓋天所以限蕃漢也”; 『文獻通考』卷316 輿地考2 平州, “殷時孤竹國…領縣三 治盧龍

평주에 속해 있었는데, 중원에서 보면 유림관부터 이른바 새외로 이곳에서 요서, 또는 광의의 요동 지역으로 들어간다.³⁰⁾ 이색은 유림관에 머물며 새외, 즉 요동 지역으로 나가기 전에 안시성 전투를 상기하고 있다. 이색이 유림관에서 당 태종과 안시성 전투를 회고한 것은 안시성에서 막혀 철수하게 된 당 태종이 바로 임유관(유림관)을 통해 유주로 들어왔기³¹⁾ 때문이다. 이색은 안시성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안시성이 새외 지역, 즉 광의의 요동 지역에 있었다고 인식하였다. 그런데 이색에 비해 포은 정몽주는 안시성 위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정몽주는 공민왕 21년(1372), 우왕 10년(1384), 우왕 12년(1386) 등 모두 3차례 명에 사신으로 다녀왔다. 당시 포은의 사행로는 요동을 경유하여 발해를 건너 산둥반도를 거쳐 남경까지 왕복하는 노선이었다. 정몽주의 시를 보면 요동, 요하, 개주, 웅악, 금주, 복주 등의 지명을 확인할 수 있다.³²⁾ 그리고 1384년에 정몽주와 함께 갔던 정도전의 시에는 요동, 금주, 여순, 발해, 등주 등의 지명을 나와 있다.³³⁾ 따라서 정몽주의 사행은 압록강, 요양, 여순, 발해를 지나 등주에 이르고 남경에 이르는 경로를 왕복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정몽주는 사행 중에 역사적 의미가

盧龍<朔巴如縣 有碣石山…漢遼爲界 臨榆關 在縣城東一百八十里…>

30) 『史記』卷115 朝鮮列傳, “元封二年 漢使涉何 論右渠 終不肯奉詔 何去至上 臨貝水 使御車殺送何者 朝鮮裨王長 卽渡馳入塞到馳入塞入平州榆林關也”; 『新五代史』卷17 晉家人傳5 高祖皇后李氏, “自幽州行十餘日 過平州 出榆關…又行七八日 至錦州…又行五六日 過河北州…又行十餘日 渡遼水 至渤海國鐵州”

31) 『舊唐書』卷3 太宗下, “貞觀十九年…至九月不克 乃班師 冬十月丙辰 入臨榆關…十一月辛未 幸幽州”

32) 『圃隱集』卷1 「題遼東麗鎮無憂」, 「金州韋指揮宅畫鷹走筆」, 「復州館中井」, 「復州驛夜雨」, 「復州 食櫻桃」, 「熊嶽古城」, 「宿蓋州」, 「蓋州雨中 留待落後人」, 「蓋州館柳」, 「遼河曹運」, 「渤海古城」, 「渤海懷古」

33) 『三峯集』卷2, 「金州館」, 「旅順口驛中秋」, 「蓬萊閣<按閣在登州海上 秦始皇候神僊處>」, 「贈山東都司」, 「登州待風」, 「渤海舟中次鄭評理<夢周>韻」

있는 지역을 지날 때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 시를 지었다. 정몽주는 「안시성회고」, 「이적전처(李勣戰處)」, 「숙개주(宿蓋州)」 등에서 당의 고구려 침략을 언급하였다.

먼저 정몽주는 「안시성회고」라는 제목의 시에서 당 태종의 고구려 정벌과 안시성을 회고하였다.

황금 궁전 위에 앉아 수의(垂衣)하였어도
백전 영웅은 마음을 어찌하지 못하였네
당 태종이 친히 정벌하던 날을 생각해보니
풍부가 수레에서 내린 때와 같았으리.³⁴⁾

정몽주는 이 시에서 당 태종을 풍부에 비유하였는데, 이는 당 태종에 대한 조롱의 시선이 담겨져 있다.³⁵⁾ 풍부는 『맹자』 「진심」장에 나오는 인물이다. 풍부는 호랑이를 잘 잡았는데 나중에 선량한 선비가 되었다. 어느 날 풍부가 들에 나갔는데, 여러 사람들이 호랑이를 잡지 못하자 풍부에게 호랑이를 잡아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풍부가 팔을 휘두르며 수레에서 내리자 사람들은 기뻐하였지만 선비들은 그를 비웃었다.³⁶⁾ 이처럼 풍부는 힘을 절제하지 못하고 사려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비유한다. 정몽주는 이 시에서, 많은 전투에서 승리하였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고구려 정벌을 단행하였다가 결국 실패하고 후회하였던 당 태종이 풍부와 같음을 조롱하였다.

그러면 「안시성회고」 시는 어디에서 지은 것일까. 이색은 「서강남기행시고후」에서 정몽주의 사행시를 시사(詩史)라고 표현하

34) 『圃隱集』 卷1 「安市城懷古」, “黃金殿上坐垂衣 百戰雄心不自持 想見太宗親駕日 宛如馮婦下車時”

35) 이승수, 「고려말 對明 使行的 遼東半島 경로 고찰」, 『漢文學報』 20, 2009, 27쪽.

36) 『孟子』 盡心, “晉人有馮婦者善搏虎 卒爲善士 則之野 有聚逐虎 虎負嵎 莫之敢撓 望見馮婦 趨而迎之 馮婦攘臂下車 衆皆悅之 其爲士者 笑之”

였다.³⁷⁾ 그리고 정도전은 정몽주가 사행 중에 지은 시들이 ‘그 일을 되새기고 그 땅을 생각하매 시로써 가히 관찰할 수 있다.’고 하였다.³⁸⁾ 즉 사행로 곳곳에는 유적지가 많았는데, 정몽주는 그 감회를 담아 시를 지었다는 것이다. 그의 「안시성회고」 시는 안시성을 상기할만한 지역, 즉 요동을 지나면서 짓게 되었을 것이다. 아마도 정몽주가 안시성을 회고한 곳은 개주(蓋州)였을 것이다.³⁹⁾

정몽주는 「안시성회고」 시 외에도 「이적전처」, 「숙개주」 등의 시에서 당의 고구려 침략을 언급하고 있다. 「이적전처」에서 이적이 세 차례나 요하를 건너 고구려를 침공하는데 참여하였으며, 결국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많은 사람을 포로로 잡아 갔다고 하였다. 이는 사실과 잘 부합하는 내용이다.⁴⁰⁾ 다음은 개주(蓋州)에서 머물며 지은 시의 내용이다.



- 37) 『圃隱集』卷4 「書江南紀行詩彙後」, “今讀鄭五宰江南行藁 田橫韓信李績等詩 感吾之心多矣 陳教諭熊鷹詩 豪放不似和韻 至於歌詠大朝閒暇之氣像 陳述小邦傾嚮之精誠 所謂詩史也”
- 38) 『三峰集』卷3 「圃隱奉使藁序<丙寅>」, “皇明有天下 四海同文 先生三奉使至京師·渡渤海 登蓬萊閣 望遼野之廣遠 視海壽之洶湧 興懷敘言 不能自已·夫城郭宮室之巨麗 人物之繁華 無不備載 採詩者以此陳於太史氏 其爲皇明之雅無疑矣·今誦其詩 卽其事 想其地 宛然在目 詩可以觀 不其信歟”
- 39) 이승수, 「燕行路上的 공간 탐색, 鳳凰山城 : 安市城說과 관련하여」, 『정신문화연구』 103, 2006, p.371~372.
- 40) 『圃隱集』卷1 「李勣戰處」, “三渡遼河廠始摧 當時戰骨亦哀哉 君王竟受窮兵責 好把渠家富貴來” 이적은 모두 645년의 1차 고구려 침공 이래 모두 세 차례 요하를 건너 고구려에 쳐들어왔다. 668년에 결국은 신라군과 함께 평양성을 함락하고 보장왕을 비롯한 고구려의 지배층을 포로로 데리고 돌아갔다. 『舊唐書』卷67 列傳17 李勣, “貞觀·十八年 太宗將親征高麗 授勣辽東道行軍大總管 攻破盖牟 辽东白崖等数城·总章元年 命勣为辽东道行軍總管 率兵二万·至于平壤城·克其城 虜其王高藏及男建男产 裂其诸城 并为州县 振旅而旋” ; 『資治通鑑』卷198 唐紀14 貞觀 21년, “二月·上将复伐高麗·以太子詹事李世勣为辽东道行軍大總管·五月·李世勣军既渡遼 历南苏等数城 高丽多背城拒战 世勣击破其兵 焚其罗郭而还”

당 태종이 몸소 싸움하던 곳
 개모성이었다고 전해 오는데
 흥망이 몇 번인지 알 수 있으랴
 올라와 보니 시름을 금치 못하겠네
 백성은 예전에 흩어져버렸고
 성은 지금 수축하였네
 성조에서 천하를 통일했으니
 옛 풍속을 근심할 것 없으리рода.⁴¹⁾

정몽주는 개주가 당 태종이 친히 전투하던 곳이라고 하면서 이곳이 개모성이라고 전해온다고 하였다. 당은 개모성을 함락하고 개주라 하였다. 그런데 개모성을 함락한 것은 당 태종이 아니라 이적이었다. 개모성 전투가 있을 때 태종은 요하도 건너지 못한 상태였다.⁴²⁾ 그러면 정몽주는 왜 개주가 태종이 직접 싸운 곳이라고 했을까. 정몽주가 개주에서 태종이 직접 싸운 곳이라고 한 이유는 안시성 때문일 것이다. 개주 동북쪽에 안시성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한 정몽주는 개주에 머물며 여기가 태종이 직접 싸운 곳이라고 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사행로가 개주를 지나고 있고, 개주는 안시성이 있었던 곳으로 비정되었기 때문이다.

① 진주는 … 본래 고구려의 개모성이다. … 발해가 고쳐 개주로 삼았고 또 진주로 고쳤다. … 통현은 건안현이다. … 철주는 … 본래 한의 안시현인데 고구려가 안시성으로 삼았다. … 발해가 주를 두었다. … 관할 현은 탕지현이다.⁴³⁾

41) 『圃隱集』 卷1 「宿盖州」, “唐帝親臨戰 相傳說盖牟 廢興知幾遍 登覽不禁愁 民自往時散 城從今日修 盛朝家四海 遺俗可無憂”

42) 『舊唐書』 卷3 本紀3 太宗下 정관 19년, “三月壬辰 上發定州…夏四月癸卯 誓師于幽州城南…癸亥 遼東道行軍大總管英國公李勣 攻盖牟城 破之 五月丁丑 車駕渡遼” ; 『舊唐書』 東夷列傳 高句麗, “貞觀十九年…夏四月 李勣軍渡遼 進攻盖牟城 拔之…以其城置盖州 五月…李勣進軍於遼東城 帝次遼澤”

43) 『遼史』 卷38 志8 地理志2 東京道 東京遼陽府, “辰州 奉國軍節度 本高麗盖牟城 唐太宗會李世勣 攻破盖牟城 即此 渤海改為盖州 又改辰州…統縣一 建安縣…鐵州 建武軍刺史 本漢安市縣 高麗為安市城 唐太宗攻之不下 薛仁貴白衣登

② 개주는 … 본래 고구려의 개갈모성이고, 요의 진주이다. … 현이 넷이다. … 탕지현<요의 철주 탕지현이다.> … 건안현 … 수암현, 웅악현. 44)

③ 개주는 … 처음에 개주라 하였다가 지원 6년에 합쳐 동경지군으로 삼았고 웅악현과 탕지현을 합하여 건안현에 편입하였다. 8년에 또 건안현을 합쳐 본주로 편입하였다. 45)

④ 안시폐현<개주위 동북 70리에 있다. 한 때에 설치하였고 당 태종이 공격하였으나 함락시키지 못하자 설인귀가 백의로 성에 올랐다는 곳이다. 발해가 철주를 설치하였고, 금은 탕지현이라고 고쳐 개주에 소속시켰으며, 원 때에 없었다.>46)

①의 『요사』(1344)에 의하면 요의 진주는 고구려의 개모성이며 발해 때에 개주라 하였으며, 통현은 건안현이었다. 그리고 요의 철주는 고구려의 안시성으로 관할 현은 탕지현이었다. ②의 『금사』(1344)에서는 건안현과 탕지현 등 모두 4개 현이 개주에 속해 있었다고 하였다. 원 시기에는 이들 현을 합쳐서 개주로 삼았다(③). 이처럼 안시성은 원래 한의 안시현으로 요 때는 철주였다가 금과 원 시기에는 개주에 포함되었다. 『대명일통지』(④)에서는 안시폐현, 즉 안시성이 개주위 동북 70리에 있다고 하였다. 이를 종합해 보면 원·명 시기에는 안시성을 개주 일대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정몽주는 「안시성회고」와 「숙개주」 시에서 안시성 전투를 회고하고 있다. 이 두 시는 개주에서 지은 것이라 생각된다. 그 이유는 원·명 시기에 개주는 안시성이 있었던 곳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몽주도 안시성이 개주에 있었

城 卽此 渤海置州…統縣一 湯池縣”

44) 『金史』 卷24 志5 地理上 東京路, “蓋州…本高麗蓋葛牟城 遼辰州 明昌四年罷曷蘇館 建辰州遼海軍節度使 六年 以與陳同音 更取蓋葛牟為名…縣四…湯池 <遼鐵州建武軍湯池縣>…建安…秀巖…熊岳”

45) 『元史』 卷59 志11 地理2 遼陽等處行中書省, “蓋州…初爲蓋州路 至元六年 并爲東京支那 并熊岳湯池二縣 入建安縣 八年 又并建安縣 入本州”

46) 『大明一統志』 卷25 遼東都指揮使司 古蹟, “安市廢縣在蓋州衛東北七十里 漢置 唐太宗攻之不下 薛仁貴白衣登城卽此 渤海置鐵州 金改爲湯池縣屬蓋州 元省”

다고 이해하였을 것이다. 즉, 정몽주가 안시성을 개주 일대로 이해한 것은 원대에 형성된 인식에 의한 것이며, 이러한 ‘안시성=개주’설은 『대명일통지』에 반영되었다. 『대명일통지』에서는 원때의 자료보다 더 구체적으로 안시성이 개주위 동북 70리에 있다고 하였다.

한편 이송인도 사행을 위해 개주를 지나면서 당과 고구려 전쟁을 회고하였다. 이송인은 「개주」라는 시에서 당 태종을 회고하고 있다.

긴 하천 방초에는 개었다 비 내리고
기름진 들판의 곡식은 풍년을 예고하네
그야말로 주민들이 성덕을 그리워하는데
文皇은 무슨 일로 황량한 곳까지 이르렀나.⁴⁷⁾

이송인은 개주에 머물며 이 시를 지었다. 이송인은 우왕 12년(1386) 12월에 명에 사신으로 갔다. 그는 이듬해 남경을 떠나 등주, 사문도, 개주, 정요위 등을 거쳐 귀국하였다.⁴⁸⁾ 여정 중에 이송인은 개주에서 당 태종의 고구려 정벌을 회상하였다. 주민들은 성덕을 그리워하는데, 당 태종은 황량한 개주까지 행차하였다는 것이다. 이송인이 ‘성덕(盛德)’과 ‘황추(荒陬)’를 대비한 것은 안시성을 공격하였다가 결국은 실패하고 철수하였던 당 태종을 비판한 것이다. 즉 성덕에 걸맞지 않게 당 태종이 고구려 정벌에 나서 결국은 실패하였다는 것이다. 이처럼 이송인이 개주에서 당 태종을 회고한 것은 정몽주와 마찬가지로 안시성을 개주를 인식

47) 『陶隱集』卷2 「蓋州」, “書生驅馬儘悠悠 好向郵亭一日留…正是居民懷盛德 文皇何事到荒陬” 文皇은 당 태종이다. 당 태종의 시호가 文武大聖皇帝이다.

48) 『陶隱集』卷2 「丙寅十二月十六日赴京師<此下八首出奉使錄>」, 「元日奉天殿早朝」, 「登州蓬萊閣感懷」, 「留沙門島奉呈同行評理相君」, 「蓋州」, 「定遼衛」, 「謁箕子祠」, 「浮碧樓次韻錄呈巡問令公」

하였기 때문이다.

요컨대 원 때의 문헌들은 안시성을 개주에 비정하였다. 이러한 원 시기의 인식에 따라 고려후기의 문인 관료들은 안시성이 개주 지역에 있었다고 이해하였을 것이다. 그리하여 요동 지역을 거쳐 갔던 고려 사람들은 당과 고구려의 전쟁, 그리고 안시성 전투를 상기하였다. 이색은 유림관을 지나 요동 지역에 들어가면서, 정몽주와 이숭인은 요하 동쪽의 개주에서 당 태종과 안시성 전투를 회고하였다. 안시성 위치에 대해 이색이 새외의 요동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에 비해 정몽주와 이숭인은 구체적으로 개주 지역으로 인식하였다.

한편 안시성은 조선시대에 들어 평안도 용강현으로 비정되었다. 용강현의 성곽은 고려 태조 2년에 처음으로 수축되었으며 용강성으로 불렸다.⁴⁹⁾ 조선 초에는 용강산성이라 하였는데⁵⁰⁾,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비로소 안시성이라고 하였다.⁵¹⁾ 『동국여지승람』 서문에, 고구려의 영역은 남쪽으로는 한강, 서북으로는 요하를 넘었다고 하였다.⁵²⁾ 그러면서도 안시성을 압록강 이남인 평안도 용강현에 비정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안시성을 용강현에 비정한 것은 세전(世傳)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김종직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대해 속언(俗諺)과 견문이 포함되

49) 『高麗史』 卷82 지36 병2 城堡, “太祖二年 城龍岡縣 一千八百七間 門六 水口一”; 『高麗史節要』 卷16 고종 22년 8월, “陷龍岡咸從三登等城 執其守令”

50) 『世宗實錄』 지리지 용강현, “山城 在縣北<… 城內泉十川一…有軍倉>”; 『文宗實錄』 권8 문종 1년 7월 20일 丙辰, “議政府據兵曹呈啓…龍岡山城 則并置本邑國庫”; 『端宗實錄』 권2 단종 즉위년 8월 10일 庚午, “議政府據戶曹呈啓…甌山倉移于龍岡山城”

51) 『新增東國輿地勝覽』 卷52 平安道 龍岡縣 城郭, “安市城<在烏石山 距縣治五里 險固無比 石築 周一萬二千五百八十尺 內有十泉合流 有軍倉 世以此城爲唐太宗所親征不下者…>”

52) 『新增東國輿地勝覽』 東國輿地勝覽序, “高句麗 東至海 南至漢 西北踰遼河…成化紀元之十七年蒼龍辛丑四月下浣…徐<居正>…謹序”

어 있다고 비판하였다.⁵³⁾ 용강현을 안시성에 비정한 것은 바로 속언에 따른 것이다. 즉,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안시성 비정이 ‘세전’, ‘국인(國人)의 말’⁵⁴⁾에 의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른바 ‘국인’이 안시성을 평안도에 비정한 것은 고구려의 영역을 압록강 이남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고구려의 영역이 압록강 이남이라는 인식은 고려후기에 등장하여 조선 초까지도 이어졌다.⁵⁵⁾ 그리하여 조선초기에 안시성이 평안도에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아 갔다.⁵⁶⁾ 이를 반영한 것이 『신증동국여지승람』이었다. 그렇지만 점차 안시성이 요동에 있다는 견해가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명·청 시기에 조선의 사신들이 요동을 지나면서 안시성을 주목하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안시성이 요동 지역에 있었는지, 아니면 평안도에 있었는지에 대한 위치 논쟁은 조선시대 내내 계속되었다.⁵⁷⁾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안시성의 위치에 대해 『정관정요』에 처음으로 요동에 있다고 서술하였는데, 『통전』에서는 안시성의 위치를 조금 구체적으로 요수(요하) 하류로 보았다. 그리고 『삼국사기』를 통해서도 고려 사람들은 안시성이 요하 동쪽 부근

53) 『新增東國輿地勝覽』跋, “今是編之成 出於俗諺見聞採摭之餘 而去取芟定 又未得其當…金宗直…謹跋”

54) 『新增東國輿地勝覽』卷52 平安道 龍岡縣 城郭, “安市城<在烏石山…世以此城爲唐太宗所親征不下者 陳嘉猷詩 城樓百尺拂晴雲 此地會聞駐六軍 翠輦不辭經險道 白袍屢見立奇勳…陳嘉猷 亦因國人之言而爲詩耳…>”

55) 『東文選』卷2 崔滋 「三都賦, “西都之創先也 帝號東明”; 『三國遺事』卷1 紀異 1 고구려, “高句麗即卒牟扶餘也 或云 今和州又成州等 皆誤矣 卒牟州在遼東界”; 『帝王韻紀』卷下 高句麗紀, “麗祖姓高…諡東明…開國馬韓王儉城<今西京也>”; 『高麗史』卷56 志10 地理1, “惟我海東…自唐以來 以鴨綠爲限”

56) 예를 들면 金時習(1435~1493)은 안시성이 관서에 있다고 보았다. 『梅月堂集』卷9 「宕遊關西錄後志, “入安市之城 隋唐攻戰之跡 依稀然慘烈…時天順戊寅秋” 그는 세조 4년(1458)에 관서 지방을 유람하며 「遊關西錄」을 지었다.

57) 예를 들면 정약용은 안시성으로 비정되는 곳이 네 군데라고 하였다. 『茶山詩文集』卷8 「對策, “安市有三者…臣又按輿地書 謂龍岡縣亦有安市故城 以此言之 安市有四 不特三也”

에 있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 고려후기에 들어 원과의 관계 속에서 요동 지역에 대한 왕래가 빈번해졌다. 이에 이색은 요동 지역을 지나면서 안시성 전투를 회고하였다. 그리고 정몽주와 이승인도 요동을 지나면서 당 태종과 안시성을 회고하였는데, 이들은 안시성을 개주에 있었다고 이해하였다. 그리고 원대에 편찬된 『요사』와 『금사』, 그리고 명이 편찬한 『원사』에서 안시성을 개주로 비정하였다. 이러한 인식을 이어받은 『대명일통지』는 안시성이 개주 동북 70리에 있다고 서술하였다. 결국 고려후기에 요동의 개주에 있었다고 인식되던 안시성은 관찬인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해 공식적으로 평안도 용강현으로 비정되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한 안시성 비정 오류는 조선시대 내내 혼란을 가져오게 되었다.



3. 태종의 눈 부상설에 대한 검토

안시성 전투를 기록한 『정관정요』, 『통전』, 『구당서』, 『책부원구』, 『자치통감』 등의 서적들은 고려시대에 유포되어 있었다. 특히 『자치통감』은 고려 명종 22년(1192)에 수교가 이루어졌으며, 널리 읽혀지고 있었다.⁵⁸⁾ 따라서 고려의 지식인들은 안시성 전투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목은 이색은 「정관음유림관작」(이하, 「정관음」으로 약칭함)이라는 시에서, “주머니

58) 『高麗史』 卷20 명종 22년(1192) 4월 壬子, “命吏部尙書鄭國儉 判秘書省事崔誥 集書筵諸儒於寶文閣 鑿校增續資治通鑑 分送州縣 雕印以進 分賜侍從儒臣” 『高麗史』 권30 忠烈王 12년(1286) 12월 庚子, “召國子司業崔雍 講通鑑”; 『高麗史節要』 권21 충렬왕 18년(1292) 10월, “帝召世子入寢殿 問曰 讀何書 奏云 讀通鑑 帝曰 歷代帝王 誰爲賢明 對曰 漢之高祖 唐之太宗 帝又問曰 漢祖唐宗 孰與寡人 對曰 臣年少 何足以知之”

속의 물건으로 여겼으나 눈이 백우전에 빠질 줄을 어찌 알았으랴”⁵⁹⁾라고 하였다. 당 태종이 안시성에서 눈에 화살을 맞고 돌아갔다는 것이다. 이른바 ‘현화낙백우(玄花落白羽)’의 주장은 이색 외에는 언급한 이가 확인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 내용은 조선시대에 들어 당·고구려 전쟁과 안시성 전투를 회고하는 가장 중요한 기억으로 전승되었다. 김종직(1431~1492)의 『청구풍아』(1473), 서거정(1420~1488)의 『동인시화』(1474)와 『필원잡기』(1487)에 「정관음」이 소개되어 있다. 내용이 자세한 『필원잡기』를 보면 다음과 같다.

문정공 이색의 「정관음」에, “주머니 속의 물건으로 여겼으나 현화가 백우에 떨어질 줄을 어찌 알았으랴”라고 하였는데, 현화는 눈을 말하고 백우는 화살을 말한 것이다. 세상에 전하기를, “당 태종이 고구려를 정벌할 적에 안시성에 이르러 눈에 화살을 맞고 돌아갔다.”고 하는데, 『당서』와 『통감』을 살펴보니 모두 실려 있지 않다. 다만 유공권의 소설에, “태종이 처음에 고연수와 고혜진이 발해의 군사를 인솔하고 40리를 포진하니 두려워하는 빛이 있었다.”고 하였으나, 역시 화살을 맞아 부상했다는 말은 없다. 나는 생각하기를, 당시에 비록 이러한 일이 있었더라도 사관이 반드시 중국을 위하여 숨겼을 것이니 기록하지 않은 것은 괴이할 것이 없다. 다만 김부식의 『삼국사기』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는데, 목은 노인이 어떻게 이것을 얻었는지 알 수 없다.⁶⁰⁾

서거정은 이색의 「정관음」을 소개하고 ‘현화낙백우’설, 즉 당 태종이 안시성에서 눈에 화살을 맞고 돌아갔다는 것은 세전이라

59) 『牧隱詩藁』卷2 「貞觀吟 榆林關作」, “謂是囊中一物耳 那知玄花落白羽”

60) 『筆苑雜記』卷2, “李文靖公稽貞觀吟曰 謂是囊中一物耳 那知玄花落白羽 玄花言其目 白羽言其箭 世傳 唐太宗伐高麗至安市城 箭中其目而還 考唐書通鑑 皆不載此事 但柳公權小說 太宗初見延壽惠真 率渤海軍 布陣四十里 有懼色 亦未有言其中傷者 居正意以謂 當時雖有此事 史官必爲中國諱 毋怪乎其不書也 但金富軾三國史 亦不載 未知牧老何從得此” 내용 중에 柳公權小說 부분과 ‘必爲中國諱’는 『三國史記』를 인용한 것이다. 『三國史記』卷22 高句麗本紀10 寶藏王 8년 6월, “論曰…柳公權小說曰 駐蹕之役 高句麗與靺鞨合軍 方四十里 太宗望之 有懼色…新舊書及司馬公通鑑不言者 豈非爲國諱之者乎”

고 하였다. 이색이 「정관음」에서 언급한 ‘현화낙백우’설은 서거정이 ‘세전’이라 할 정도로 조선초기에도 널리 알려져 있었던 듯하다. 그리고 후대에 심광세(1577~1624)⁶¹⁾, 이익(1681~1763)⁶²⁾, 이덕무(1741~1793)⁶³⁾ 등 많은 이들이 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다. 그런데 서거정은 ‘현화낙백우’설이 『당서』, 『통감』, 『삼국사기』 등 역사서에 실려 있지 않은데, 그 이유는 사관이 숨겼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서거정은 이를 사실로 인정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색이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알게 되었는지 알 수 없다고 하였다. 한편 『청구풍아』에는 이색이 유학 중에 얻은 소문이라고 추정하였다.⁶⁴⁾ 그러면 역사서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이색의 ‘현화낙백우’는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두 가지 문제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먼저 역사서를 살펴보겠다.

⑤ 태종이 … 요동 정벌에서 돌아왔다. 태종이 병이 들자 유계가 크게 슬퍼하고 울며 말하기를 “질병이 이와 같으니 오직 성체가 염려스러울 뿐입니다.”고 하였다. 황문시랑 저수량이 유계가 다른 뜻이 있다고 모함하였다. … 태종은 병이 낫자 … 유계에게 사형을 내렸다.⁶⁵⁾

⑥ 태종이 요동에서 돌아왔다. 정주를 떠났는데 도중에 건강이 좋지 못하였다. 유계가 울며 말하길, “옥체가 웅(臃)으로 아프시니 매우 걱정이 됩니다.”라고 하였다. 저수량이 무고하여 아뢰기를, “유계가 국가의 일은 염려할 것이 없고 사부가 주인을 보좌하고 이·곽 고사의 고사대로 하면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61) 『休翁集』 卷3 海東樂部 城上拜, “牧隱貞觀吟 玄花新逢白羽箭 諺傳太宗攻安市 流矢中目云 而中國史諱不直書固宜 三國史 亦不載 未知牧老何從得此言也”

62) 『星湖僊說』 卷5 萬物門 木弩千步, “唐太宗東征 為流矢所中目盲 史官諱之 故牧隱詩有誰知白羽落玄花之句 麗未必有其文字可考故云爾”

63) 『靑莊館全書』 卷32 清脾錄1 “唐太宗眇目”

64) 『靑丘風雅』 卷2 七言古詩, “謂是囊中一物耳 那知玄花落白羽<太宗傷目之事 不出史傳 然公遊學中原 豈有所聞耶>”

65) 『大唐新語』 卷12 酷忍, “太宗征遼東 留侍中劉洎與高士廉馬周 輔太子於定州監國…征遼還 太宗有疾 洎從外至 因大悲泣曰 疾如此 獨可憂聖躬耳 黃門侍郎褚遂良 誣奏洎云…大臣有異志 誅之自然定矣 太宗疾愈 詔問其故 洎以實對 遂良執證之…遂賜洎死”

이는 대신의 몸으로서 다른 뜻을 품은 것이니 죽어 마땅합니다.”고 하였다. 태종이 병이 나은 뒤에 유계를 불러 그 까닭을 묻자 사실대로 대답하였다. … 태종은 마침내 유계에게 자진하도록 하였다.⁶⁶⁾

⑦ 11월 … 임진일에 거가가 정주를 출발하였다. 12월 신축일에 상이 옹(癰)이 나서 보련을 타고 갔다. 무신일에 병주에 도착하였다. 태자가 상을 위해 옹을 입으로 빨았으며 가마를 붙들고 걸어서 따라가기를 며칠 동안 하였다. 신해일에 상의 병이 나아 백관이 모두 경하하였다.⁶⁷⁾

태종이 1차 고구려 전쟁을 끝내고 요동에서 돌아오다가 병이 든 사실은 유숙의 『대당신어』(807)⁶⁸⁾에 처음 등장한다(⑤). 『대당신어』는 고구려 정벌이 있었던 당 때의 기록임으로 신빙성이 높다고 하겠다. 그리고 태종의 질병은 유계 죽음의 원인을 제공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을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구당서』(945)와 『자치통감』(1084)에 기록되어 있다. 『구당서』 「유계」전(⑥)에 따르면 태종은 요동에서 돌아오는 도중에 정주를 출발한 후 종기(臃)로 매우 아팠다고 한다. 『자치통감』에도 당 태종이 돌아오는 도중에 병이 든 사실을 기록하였다(⑦). 태종은 요수를 건너 임유관을 지나 11월 병술일에 정주에 도착하였고 임진일에 정주를 출발하였다. 12월 신축일에 종기가 났으며 태자가 상을 위해 옹을 입으로 빨았으며 신해일에

66) 『舊唐書』卷74 列傳24 劉洎, “(貞觀)十九年 太宗遼東還 發定州 在道不康…洎泣曰 聖體患臃 極可憂懼 遂良誣奏之曰 洎云 國家之事不足慮 正當傳少主行伊霍故事 大臣有異志者誅之 自然定矣 太宗疾愈 詔問其故 洎以實對…乃賜洎自盡”

67) 『資治通鑑』卷198 唐紀14 “貞觀…十九年…九月…癸未 敕班師…乙酉 至遼東 丙戌 渡遼水…冬十月…丙辰…入臨渝關 道逢太子…十一月辛未 車駕至幽州…丙戌 車駕至定州…壬辰 車駕發定州 十二月辛丑 上病臃 御步輦而行 戊申 至并州 太子爲上吮臃 扶輦步從者數日 辛亥 上疾瘳 百官皆賀…初 上留侍中劉洎輔皇太子于定州…及上不豫 洎從內出 色甚悲懼 謂同列曰 疾勢如此 聖躬可憂 或譖於上曰 洎言國家事不足憂 但當輔幼主 行伊霍故事 大臣有異志者 誅之自定矣 上以爲然 庚申 下詔 稱洎與人竊議 窺竊萬一 謀執朝衡 自處伊霍 猜忌大臣 皆欲夷戮 宜賜自盡”

68) 『大唐新語』自序, “元和丁亥”; 『新唐書』권58 藝文志, “劉肅 大唐新語 十三卷 元和中江都主簿”

병이 나왔다. 그런데 태종의 병문안 때의 일로 모함을 받아 유계는 죽음을 당하였다. 이상의 기록에서 보듯이 당 태종은 안시성 전투 중에 눈 부상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귀환 도중에 종기(癰·腫)를 앓았다. 『동의보감』에 의하면 종기는 혈기가 막히고 찬 기운과 열기가 흩어지지 못할 때 음에 의해 양이 막히면 웅이 생기고, 양이 음에 의해 막히면 저가 생긴다고 한다. 그리고 웅·저는 기가 몰려서 된 것으로 분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여 마음이 상하거나 뜻을 이루지 못하면 흔히 생긴다고 하였다.⁶⁹⁾ 웅저는 이미 끓었으면 고름을 빼내고 독기를 없애야 한다.⁷⁰⁾ 이에 태자는 태종의 고름을 입으로 제거하고 있다(⑦). 그런데 당 태종의 귀환 과정은 웅저가 생길만한 상황이었다.

9월 계미일에 화군을 명하였다. … 병술일에 요수를 건넜다. 10월 초하루 병신일에 포구에 이르렀고 … 발착수를 건넜다. 폭풍이 불고 눈이 내리니 병사들의 몸이 젖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 고구려를 정벌함에 … 상이 성공하지 못하자 깊이 후회하고 탄식하며 말하기를, “위징이 만약 있었다라면 나로 하여금 이번 행동을 하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 병오일에 영주에 도착하였다. … 병진일에 임유관으로 들어갔다. 길에서 태자를 만났다. 태종이 정주를 출발할 때 입고 있는 갈포를 가리키며 태자에게 말하기를, “너를 볼 때까지 기다려 이 갈포를 바꾸어 입겠다.”고 하였다. 요동에 있으면서 비록 한창 무더위 땀을 흘려도 갈포를 바꾸어 입지 않았다. 가을이 되어 구멍이 뚫리고 헤어져 신하들이 갈아입기를 청하였다. … 이때에 태자가 새 옷을 올리니 마침내 갈아입었다.⁷¹⁾

69) 『東醫寶鑑』雜病篇7 癰疽, “癰者壅也 疽者沮也 血氣壅沮 寒熱不散 陰滯於陽 則發癰 陽滯於陰 則發疽 所發無定處也…凡鬱抑傷心 及久患消渴 必發癰疽丁瘡 宜慎之…憤鬱不遂志欲之人 多有此疾”

70) 『東醫寶鑑』雜病篇7 癰疽, “已潰則排膿斂毒 膿盡則去腐內塞惡 肉盡則生肌付痂 此定則也”

71) 『資治通鑑』卷198 唐紀14 太宗, “貞觀十九年…九月…癸未 敕班師…丙戌 渡遼水…冬十月丙申朔 上至蒲溝…渡渤澥水 暴風雪 士卒沾濕 多死者…凡征高麗…上以不能成功 深悔之歎曰 魏徵若在 不使我有是行也…丙午 至營州…丙辰…入臨渝關 道逢太子 上之發定州也 指所御褐袍謂太子曰 俟見汝 乃易此袍耳 在遼左 雖盛暑流汗 弗之易 及秋 穿敗 左右請易之 上曰 軍士衣多弊 吾獨御新衣 可乎 至

당 태종은 안시성 함락에 실패하자 요동의 추위를 걱정하여 철수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철수 중에 폭풍과 눈을 만났으며, 태종은 무더위 속에서도 전쟁을 독려하려는 의도에서 옷을 갈아 있지 않은 상태여서 위생도 좋지 못하였다. 그리고 태종은 정벌을 깊이 후회하였다. 이처럼 열악한 날씨, 불결한 위생 상태, 깊은 후회와 상심 등은 『동의보감』에서 지적한 응저의 원인들이다.

요컨대 당 태종이 안시성에 막혀 1차 고구려 전쟁을 끝내고 요동에서 돌아오다가 종기를 앓았던 사실은 『대당신어』, 『구당서』, 『자치통감』 등에 기록되어 있다. 태종의 질병은 유계가 죽게 된 원인을 제공한 사건이어서 태종이 종기를 앓았던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었을 것이다. 즉 『구당서』, 『자치통감』을 통독한 고려 사람들은 태종이 종기를 앓았음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서의 기록에도 불구하고 이색은 왜 ‘현화낙백우’라고 표현하였을까. 먼저 「정관음」 시를 짓게 된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관음」 시는 원에 유학하던 이색이 잠시 고려로 귀국하는 길에 지은 것이다. 따라서 ‘현화낙백우’설은 원 유학 시절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 당시에 이색은 중국의 역사와 유적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약관 시절 연경의 대학에 유학할 때 글을 읽는 틈틈이 사방에서 온 동학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 고향의 옛 성현 유적이거나 의관 풍속 및 산수 경치에 대해 묻곤 했는데 대답이 각각 같지 않았다. 혼자 생각하기를 다행히 과거에 급제하면 외직을 요청하거나 승차를 맡아 천하를 두루 다니면서 직접 밟아보고 눈으로 확인하여 평소의 뜻을 시원하게 풀 뒤에 고향으로 돌아가 늙으리라 마음먹었다.⁷²⁾

是 太子進新衣 乃易之”

72) 『圃隱集』卷4 「書江南紀行詩藁後」, “予旣冠 游燕京璧水 絃誦之隙 與四方同舍 問其鄉里古聖賢之遺迹及其衣冠風俗山水景致 各各不同 默自計僥幸試中 當乞外

이색은 원에서 유학하면서 중국의 유적과 풍속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다. 따라서 원 유학 중에 고려로 돌아오는 길에 지은 「정관음」 시는 유학 시기 그가 가진 관심의 결과물인 것이다. 즉 요동을 통해 연경에 갔던 이색은 원의 여러 지방, 특히 요동 지역의 역사와 유적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고구려의 옛 영토인 요동에서 전승되고 있던 당 태종의 ‘현화낙백우’설을 듣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색의 「정관음」 시는 문학과 여행 기록이라는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즉 그 지역에서 회자되던 전설과 전언을 기록한 것은 내용의 신빙성에 의문을 가지게 된다. 전설과 사실은 구분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후대의 연행사에게도 해당되었다. 박세당(1629~1703)은 “도중에 경유하는 산천의 도로와 지명에 대해 왕래하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꺾뜨린 것에 오류가 많아, 공이 중화의 옛 기록과 『대명일통지』를 고찰하고 모든 의심스러운 것들을 주민들에게 물어 많이 바로잡으니, 일행인 나이 든 역관들이 모두 놀라워하며 탄복하였다.”고 한다.⁷³⁾ 그리고 박지원(1737~1805)도, “내가 이제 지나온 산하는 다만 그 지방 사람들의 구전하는 말과, 또 길 가는 사람들의 가르침에 의하였을 뿐더러 자주 다니는 우리 하인들에게 물어본 것이었는데, 대체로는 생각나는 대로 대답한 것이어서 도무지 상세하지 않다. 화표주는 요동의 고적인데, 그나마 어떤 이는 성 안에 있다 하고 혹은 성 밖 10리에 있다 하니, 다른 것도 이를 미루어 가히 짐작할 수 있겠다.”⁷⁴⁾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에서 보듯 역사적 사실이 사실과 다르게 세전(世傳)되는 경우가 많았다. ‘현화낙백우’설 또한 당 태종의 증기병에 대한 사실이 와전되어 요동 지역에서 회

補 或承差走四方 必足履目觀 然後快吾志 然後歸老于家”

73) 『西溪集』卷21 附錄 「謚狀」

74) 『熱河日記』盛京雜識 山川記略

자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그리하여 이색은 역사서에 기록된 태종의 증기병 대신에 당시에 설화로 세전되던 ‘현화낙백우’설을 시의 소재로 삼았다. ‘현화낙백우’설은 태종의 고구려 정벌 실패, 즉 안시성 승리에 대한 아주 극적인 스토리텔링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색이 ‘현화낙백우’설을 채택하고, 정몽주와 이숭인 등이 요동을 지나면서 안시성 전투와 당 태종의 고구려 정벌을 회고한 것은 당시에 안시성 전투가 재조명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고려·몽골 전쟁을 겪으면서 안시성 전투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으로 조명되고 있었다. 황제에 오르기 전에 세조 쿠빌라이는 당 태종의 친정 실패를 언급하며 세자 원종의 알현을 기뻐하였다.⁷⁵⁾ 또한 충렬왕 17년(1291)에 고려가 합단에게 북계의 여러 성을 함락당하자 원의 세조는, “고려는 당 태종의 친정으로도 이기지 못하고 원도 쉽게 이기지 못하였는데 지금 그들을 왜 그렇게도 무서워하는가?”라고 하였다.⁷⁶⁾ 그리고 지원 23년(1286)에 일본을 다시 정벌하는 문제에 대해 예부상서 유선은 당 태종이 고구려 친정을 후회하였다고 언급하며 정벌 불가를 주장하였다.⁷⁷⁾ 또한 전 통사사인 왕관과 이곡은 고려와 원의 현안을 두고 당 태종과 안시성의 일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⑧ 유청신·오잠이 원에 글을 올려 고려에 성(省)을 설립하여 원의 내지와 같게 할 것을 청하였다. 원의 전 통사사인 왕관이 승상에게 글을 올리기를, “... 옛날

75) 『高麗史』 卷25 원종 원년 3월, “皇弟忽必烈 觀兵江南 王遂南轅間關 至梁楚之郊 皇弟適在襄陽 班師北上 王...奉幣迎謁道左...皇弟驚喜曰 高麗萬里之國 自唐太宗親征而不能服 今其世子 自來歸我 此天意也”

76) 『高麗史』 卷30 충렬왕 17년 2월 정해, “世子 令將軍吳仁永奏帝曰 哈丹陷北界諸城 帝曰 爾國 唐太宗親征 尙不克 又於我朝初 未歸附 我朝征之 亦未易捷 今此小寇 何畏之甚耶”

77) 『元史』 卷168 列傳55 劉宣, “至元...二十三年 入爲禮部尚書 遂遷吏部...及再征日本 宣又上言 其略曰...唐太宗 以英武自負 親征高麗 雖取數城而還 徒增追悔”

당 태종이 고구려를 쳐서 안시성까지 공격하였으나 함락시키지 못하고 군사가 돌아올 때에 비단을 그 성주에게 내려 주어 왕을 충성으로 섬긴 것을 권면하였습다. 태종과 고구려는 적국이었습니다. 온 천하의 힘으로도 한 개의 조그만 성을 공격하여 함락시키지 못하였건만, 군사를 상실하고 싸움에 진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충의로써 권면한 사실이 역사에 기록되어서 미담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물며 성조와 고려는 의로는 왕과 신하이며 친척으로는 사위와 장인입니다. 편안함도 위태로움도 슬픔도 같이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 ”고 하였다.⁷⁸⁾

⑨ 원에서 우리나라에 대하여 동녀를 자주 요구하였으므로 이곡이 여사대에 제의하여 이것을 폐지할 것을 요청하고 원에 제출할 상소를 대신 작성하였다. 그 상소에 이르기를, “ … 고려는 본래 해외에 떨어져 한 나라를 이루고 있어서 중국에 성현 천자가 있지 않는 한 서로 통하지 않았습니다. 당 태종의 위엄과 덕망으로도 두 번이나 침공하였으나 소득이 없이 돌아갔습니다. 국조(원)가 처음 일어났을 적에 고려는 맨 먼저 신복하여 공훈을 세웠습니다. 이에 세조황제께서 … 고려의 의관과 전례는 그들 조상의 풍속을 떨어뜨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풍속이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전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⁷⁹⁾

충숙왕 10년(1323) 정월에 이른바 입성 책동이 일어났을 때, 원의 왕관은 당 태종과 안시성의 일을 언급하며 이 일이 역사의 미담이라고 하였다. 왕관은 당 태종이 군사를 잃고 싸움에 진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안시성주에게 충의를 권면하였듯이 원과 고려도 편안함과 위태로움도 같이해야 한다고 하였다. 왕관은 당과 고구려의 관계를 고려와 원의 관계로 치환하여 입성 불가를 주장하였다. 이는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하였다는 역사인식에서

78) 『高麗史節要』 卷24 충숙왕 10년 정월, “柳淸臣吳潛 上書于元 請立省比內地 元前通事舍人王觀 上書丞相曰…昔唐太宗 伐高麗 至安市城 攻之不下 師還 以束帛賜其城主 以勉事君 夫太宗之與高麗敵國也 以天下之力 攻一小城 不能拔 不以喪敗爲恥 仍以忠義相勉 書之史策 以爲美談 況聖朝之於本國 義則君臣 親則甥舅 安危休戚 靡不同之”

79) 『高麗史節要』 卷25 忠肅王 복위4년 윤12월, “典儀副令李穀在元 言於御史臺請罷求童女 爲代作疏曰…高麗本在海外 別作一國 苟非中國有聖人 邈然不與相通 以唐太宗之威德 再舉伐之 無功而還 國朝肇興 首先臣服 著勳王室 世祖皇帝釐降公主 仍賜詔書獎諭曰 衣冠典禮 無墜祖風 故其俗至于今不變” ; 『稼亭集』 권8 「代言官請罷取童女書<至元三年事得施行>」

나온 것이다.⁸⁰⁾ 그리고 이곡(1298~1351)은 당 태종이 침공하였으나 소득이 없이 돌아갔다고 하여 안시성 전투를 사례로 들며 고구려의 강성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곡 역시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하였음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면서 고려는 해외의 독자적인 한 나라이며 원 세조의 뜻에 따라 고려의 고유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안시성 전투는 고려후기에 몽골·원의 관계 속에서 고려의 강성함과 독자성을 강조하는 역사적 사례로 재조명되고 있었다.

4. 맺음말

안시성 전투는 고구려사, 나아가 한국사를 대표하는 사건으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다. 이에 안시성의 위치와 그 성주로 알려진 양만춘에 대해 현재까지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런데 연구가 조선시대에 집중되어 있어 그 이전 시기의 인식을 규명하는 데는 소홀하였다. 안시성 위치에 대해서는 조선시대 이래 많은 이견이 있었고, 당 태종의 눈 부상은 지금까지

80) 고려와 마찬가지로 고려의 주변국 역시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하였다고 인식하였다. 『高麗史』 卷2 태조 16년 3월 辛巳, “唐 遣王瓊楊昭業來冊王 詔曰…權知高麗國王事建…踵朱蒙啓土之禎 爲彼君長 履箕子作蕃之跡 宜乃惠和”; 『高麗史』 卷8 문종 11년 3월 乙酉, “契丹遣蕭繼從王守拙 來冊王…冊曰…粵自襲爵朱蒙之國 宣風玄菟之鄉”; 『高麗圖經』 卷1 建國 始封, “高麗之先 蓋周武王 封箕子胥餘於朝鮮…夫餘王得河神之女 爲日所照 感孕而卵生 既長善射 俗稱善射爲朱蒙 因以名之…至紇升骨城而居 自號曰高句驪 因以高爲氏 而以高麗爲國…仲象子祚榮立…中宗時 乃置忽汗州 以祚榮爲都督渤海郡王 其後遂號渤海…高氏既絕 久而稍復 至唐末 遂王其國 後唐同光元年 遣使來朝…長興二年 王建權知國事 遣使入貢 遂受爵以有國云”; 『高麗圖經』 卷2 世次 王氏, “王氏之先 蓋高麗大族也 當高氏政衰 國人以建賢 遂共立爲君長”; 『東人之文四六』 卷3 金富弼, 「入金起居表」, “平壤封疆 恪守朱蒙之故國”

안시성 전투에 대한 대표적인 기억으로 전승되고 있다. 이에 본고는 안시성에 관한 두 가지 문제, 즉 안시성 위치에 대한 고려시대의 인식과 이색의 당 태종 눈 부상설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정관정요』, 『통전』, 『구당서』, 『신당서』 및 『자치통감』 등의 중국 자료에 안시성 전투가 기록되어 있다. 이 서적들은 『삼국사기』에서 주요 자료로 활용되었다. 아마도 고려 사람들은 신라에서 전승된 자료와 중국 자료 등을 통해 안시성 전투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정관정요』에는 ‘요동안시성’이라 하여 안시성이 요동에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통전』에 대요수가 남쪽으로 흘러 안시에 이른다고 하였다. 이 두 책은 고려시대에 널리 유포되어 있었으므로 이를 통해 고려 사람들은 안시성이 요하의 동쪽 지역에 있었다고 인식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삼국사기』를 통해서도 고려시대 사람들은 안시성이 요하 동쪽 부근에 있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

안시성은 압록강 너머 요동에 있었다. 그러나 그곳은 고구려 멸망 이후 신라인과 고려인들은 갈 수 없는 땅이었다. 그런데 고려후기에 들어 원과의 관계 속에서 요동 지역에 대한 왕래가 빈번해졌다. 이에 이색은 요동 지역을 지나면서 안시성 전투를 회고하였다. 그리고 정몽주와 이숭인도 개주를 지나면서 당 태종과 안시성을 회고하였는데, 이들은 안시성이 개주에 있었다고 이해하였다. 원대에 편찬된 『요사』와 『금사』, 그리고 명이 편찬한 『원사』에서 안시성을 개주로 비정하였다. 이러한 인식이 정몽주와 이숭인 등에게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고려시대까지 요동 또는 개주에 있다고 인식되었던 안시성은 관찬서인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해 공식적으로 평안도 용강현으로 비정되면서 이후 혼란을 가져오게 되었다.

한편 이색(1328~1396)이 「정관음」 시에 언급한 “현화낙백우

(玄化落白羽)”, 즉 안시성 전투에서 발생한 당 태종의 눈 부상설은 지금까지 안시성 전투에 대한 대표적인 기억으로 전승되고 있다. 그런데 ‘현화낙백우’설은 문학(시)이라는 측면에서 자료로서 한계가 있다. 여러 사서에서는 태종이 요동에서 철수하던 도중 정주에 도착한 후에 증기를 앓게 되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아마도 ‘현화낙백우’설은 당 태종의 증기병에 대한 사실이 와전되어 고구려의 옛 영토인 요동에 유포되어 있었던 전설이었을 것이다. 이색이 역사 기록 대신에 전설을 수용하여 ‘현화낙백우’설을 시의 소재로 삼았던 것은 태종의 고구려 정벌 실패, 즉 안시성 승리에 대한 아주 극적인 스토리텔링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려후기의 이곡, 정몽주, 이숭인 등은 안시성 전투를 역사적인 사건으로 주목하였다. 이처럼 고려와 원의 관계 속에서 안시성 전투는 고려의 강성함과 독자성을 강조하는 역사적 사례로 재조명되고 있었다.



(원고투고일 : 2018. 10. 8, 심사수정일 : 2018. 11. 14, 게재확정일 : 2018. 11. 20)

주제어 : 고려, 고구려, 안시성, 당 태종, 이색, 정몽주, 요동(遼東), 개주(蓋州)

〈참 고 문 헌〉

- 『稼亭集』, 『高麗史』, 『高麗史節要』, 『陶隱集』, 『東醫寶鑑』, 『牧隱集』, 『三國史記』,
『新曾東國輿地勝覽』, 『筆苑雜記』, 『圃隱集』
- 『舊唐書』, 『金史』, 『大唐新語』, 『大明一統志』, 『文獻通考』, 『新唐書』, 『遼史』,
『元史』, 『資治通鑑』, 『貞觀政要』, 『冊府元龜』, 『通典』
- 오영섭, 「최승로 상서문의 사상적 기반과 역사적 의의」, 『태동고전연구』 10, 1993
- 김일경, 「安市城은 어디에 있는가?」, 『건축역사연구』 38, 2004 ;
<http://uci.or.kr/G901:A-0001917505>
- 이승수, 「연행로상의 공간 탐색, 봉황산성 : 안시성설과 관련하여」, 『정신문화연구』 103, 2006 ; <http://uci.or.kr/G901:A-0002236531>
- 金毓載, 동북아역사재단 옮김, 『東北通史』 하, 2007 ;
http://uci.or.kr/G706+HISN31-N.legacyInfo.NAHF.yn_002_0537
- 김낙기, 「17~19세기 고구려 안시성 인식과 상상배」, 『역사민속학』 42, 2013
- 이익주, 『이색의 삶과 생각』, 일조각, 2013 ;
<http://uci.or.kr/G901:A-0006437684>
- 김세호, 「연행을 통해 되살아난 안시성(安市城)과 梁萬春/楊萬春」, 『한문학보』 31, 2014 ;
<http://uci.or.kr/I410-ECN-0102-2015-800-002171878>
- 남재철, 「安市城主의 姓名 '양만춘' 考證 1」, 『東아시아古代學』 35, 2014 ;
<http://uci.or.kr/G901:A-0003622131>
- 서영교, 「馬蹄山 전투와 安市城」, 『東國史學』 58, 2015
- 김영문 역, 『정관정요』, 글항아리, 2017 ; <http://uci.or.kr/G901:A-0007958104>

<Abstract>

The Location recognition of Anshi Castle and Review of the rumor of Tang Taizong eye injury in the Goryeo Dynasty

Kim, Cheol-wong

The Battle of Anshi Castle has been talked about by many as an event that represents Korean history. Therefore, This paper reviewed two problems about Anshi Castle, the perception of the Goryeo period about the position of Anshi Castle and the rumor of the eye injury of Tang Taizong.

The Battle of Anshi Castle is recorded in Chinese documents such as *ZhenGuanzhengyao*(『貞觀政要』), *Tongdian*(『通典』) and *ZizhiTongjian*(『資治通鑑』). In the *ZhenGuanzhengyao*, the Anshi Castle was said to be in the Liaodong. In the *Tongdian*, there is Anshi on the south side of Daliaoshui(大遼水). By doing so, the people of Goryeo would have recognized that Anshi Castle was in the eastern part of Liaohe(遼河).

In the late Goryeo period Lee saek, Jeong mongju, and Lee sungin traveled through the Liaodong region to reminisce about the Battle of Anshi Castle. They understood that Anshi Castle was in Gaizhou(蓋州) of Liaodong region. *Liaoshi* and *Jinshi* compiled from the Yuan Dynasty, *Yuanshi* compiled from the Ming Dynasty recorded that Anshi Castle was in Gaizhou. However Anshi Castle, which was recognized as in the Liaodong until the Goryeo Dynasty, was officially recorded as Yonggang-Hyun by the *ShinjungDonggukRyujiSeunglam*. As a result this later led to confusion in Anshi Castle's

location.

On the other hand, the rumor of the eye injury of Tang Taizong is handed down as a representative memory of the battle of Anshi Castle. However, many librarians have recorded that Taizong leaved Liaodong and suffered from a boil after arriving in Dingzhou. Therefore, the rumor of the eye injury of Taizong is a misinterpretation of the fact that Taizong's diseas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Goryeo and Mongol·Yuan, the battle of Anshi Castle was reinterpreted as a historical case of emphasizing the strength and independence of Goryeo. In response Lee saek, Jeong mongju, and Lee sungin pay attention the Battle of Anshi Castle as a historical event. This came from a historical recognition that Goryeo succeeded Goguryeo.



Key Words : Goyeo, Goguryeo, Anshi Castle, Tang Taizong, Lee saek, Jeong mongju, Liaodong, Gaizhou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18, No. 109, pp.353-386
<https://doi.org/10.29212/mh.2018..109.10>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로마군의 철제 무구 수급체계의 변화*

배은숙**

1. 머리말
2. 공화정기의 철제 무구 수급체계
3. 제정기의 철제 무구 수급체계
4. 맺음말

1. 머리말

고대 사회에서 철은 경제력과 군사력을 상징하기 때문에 중요하게 취급되었다. 철의 중요성은 “적에게 숫돌을 파는 것은 철, 곡식, 소금을 파는 것처럼 큰 처벌을 받을 위험 없이는 허용되지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5S1A5A8011526)

** 계명대학교 타볼라라사 칼리지 조교수

않는다.”는 말에서 알 수 있다.¹⁾ 물리서 농기구로 사용하기 부적합한 청동에 비해 철제 농기구는 비약적인 농업 생산성 향상을 가져왔다. 또 단단한 철제 무구를 사용하면 청동에 비해 군대의 전투력은 향상될 수밖에 없었다. 철제 무구는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는 도구이자 적군을 격파할 수 있는 도구였다. 따라서 철제 무구는 영토를 확보,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이었고, 국가의 관심사였다. 그래서 고대 국가들은 타인을 공격할 수 있는 검이나 창 같은 공격용 무기와 갑옷, 투구와 같은 방어용 무구까지 상호 모방과 개발을 통해 발달을 거듭하였다.

철제 무구는 군인들에게 생명과도 같기 때문에 반드시 휴대해야 했다. 군인들은 전투 중에 자신의 무구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하고, 적의 무구는 전리품으로 빼앗아 적의 전력을 줄여야 했다. 그래서 두려움으로 자신의 위치에서 벗어나거나 무기를 버린 군인, 방패, 검, 창과 같이 전투에 꼭 필요한 전투 장비를 잃어버린 군인들은 처벌을 받았다. 무구를 잃어버린 사람은 적군 한 가운데 뛰어들어 무구를 되찾거나 죽는 방법 밖에 없었다. 대열을 이탈하는 군인들에게 처벌이 가해지지만 무구와 관련하여 대열을 이탈하는 군인들은 예외였다. 로마의 군인들은 적을 공격하거나 동료들을 구하기 위해, 또 무기를 잡거나 찾을 때를 제외하고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sacramentum*)’, 즉 군인 선서를 하였다. 이는 그만큼 무구가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대열 이탈도 허용한다는 뜻이다.²⁾

철 생산을 위해서는 철광석, 목탄, 각종 채련과 단조 도구들이

1) Paul, *Digesta* 39.4.11; J. B. Bury, *The Cambridge Ancient Hist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0, 370; D. Sim & I. Kaminski, *Roman imperial armour: the production of early imperial military armour*, Oxford: Oxbow Books, 2012, 5-7.

2) Polybius, 6.36-37; Frontinus, *Strategemata* 4.1.26; Valerius Maximus, 2.7.9; Suetonius, *Augustus* 24; Tacitus, *Annales* 13.36.

필요하다. 군단 내에 이런 재료들과 기술들이 있는가 하는 문제가 학자들의 관심의 대상이었다. 로마의 무구 생산 체제에 대한 오래된 견해는 군대에 무구를 공급하기 위해 특정 지역에 거대한 작업장들이 있어서 대량 생산하여 군단 주둔지역으로 수송해 준다는 것이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장식이 있는 투구나 예리한 검들은 다른 무구와 같이 특별한 지역에 세워진 군용 작업장에서 만들어졌다. 가령 브리타니아 동남부 지역의 서섹스(Sussex) 지역에서 출토된 화려한 장식의 투구나 노르폴크(Norfolk)에서 출토된 다양한 무구들은 특정 지역 한 곳에서 제조된 것이었다. 그 근거는 이들 무구들이 그리스-로마 형 모티브에 자신의 고유의 기술을 투입하는 형태로 동일하다는데 있다.³⁾

특정 지역에서의 집중 생산을 반박하는 견해는 개별 생산, 즉 각 군단에서 자체적으로 제조했다는 주장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대부분의 무구들은 군단 내에 철을 다룰 줄 아는 제조병들이 제조하였다. 이것으로 부족할 경우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대장장이, 상인들, 주둔지 주변의 행상들에게 구입하거나 민간의 제조 기술자들에게 주문 제작을 의뢰했다. 변경 지역이 로마화되면서 군단마다 자체 제작하는 방향으로 나갔다는 것이다. 가령 학자들은 라이티아(Raetia) 변경을 따라 주둔하는 군단들은 자신들의 장비를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⁴⁾

3) J. M. C. Toynbee & R. R. Clarke, "A Roman Decorated Helmet and Other Objects from Norfolk," *The Journal of Roman Studies* 38, 1948, 20-27; F. Condon, "Iron Production in Leicestershire, Rutland and Northamptonshire in Antiquity," *Transactions Leicestershire Archaeological and Historical Society* 71, 1997, 1-20.

4) H. M. D. Parker, *The Roman Legions*, Oxford: Barnes & Noble, 1928, 218; R. MacMullen, "Inscriptions on armor and the supply of arms in the Roman Empire," *American Journal of Archaeology* 64, 1960, 23-40; M. C. Bishop, *Roman Military Equipment: From The Punic Wars To The Fall of Rome*, Oxford: Oxbow Books, 2006, 233-244.

선행연구에서 아쉬운 점은 특정 지역에서의 집중 생산이나 개별 군단의 자체 생산을 해명하기에 앞서 무구가 필요한 상황, 무구의 수요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전쟁을 앞두고 대규모 병사를 징집, 혹은 모집하여 일시에 많은 무구가 필요한 상황과 분실이나 고장으로 인해 개별적으로 무구를 다시 구하거나 수리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차이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즉 군대 규모의 변화에 따른 무구 수요의 변화와 제조 방식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로마의 철제 무구 공급체계와 그러한 체계의 성립 배경을 파악하고자 한다.

2. 공화정기의 철제 무구 공급체계

로마의 무구 조달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기원전 6세기에 실시한 세르비우스(Servius Tullius)의 군제개혁에서 찾을 수 있다. 세르비우스는 시민들의 재산을 조사하고, 이에 따라 소속 부대를 편성하였다. 10만 아스(as) 이상의 재산을 가진 사람은 갑옷, 투구, 정강이받이, 방패, 검, 창을 구비해야 하지만 25,000-50,000 아스 정도의 재산을 가진 사람은 창으로만 무장하면 되었다.⁵⁾ 재산 정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무구의 종류가 다르다는 것은 개인의 재산으로 무구를 조달했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재산을 조사를 실시한 것이나 “기병들도 국고에서 1만 아스를 지원받았지만 기본적으로는 자비로 말을 구입해야 했다.”⁶⁾는 기록도 개인의 자체 조달을 의미한다.

5) Livius, 1.43; Polybius, 18.30; Gellius, *Noctes Atticae* 6.13.

6) Dionysius of Halicarnassus, 4.16-18.

자비로 무구를 조달했다면 어디에서 조달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발생한다. 로마시내에서 조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군인들은 개선식 때를 제외하고 로마시 경계선(*pomerium*) 안에서 무기를 휴대하고 다닐 수 없었기 때문이다. 무구 조달 장소에 대해서는 폴리비우스(Polybius)의 글이 해명의 단서를 제공한다. 그에 따르면, 입대 절차는 로마시에서 모여 군인 선서를 한 후 해산하고, 정해진 날짜와 장소에 모이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기 없이 모인다”는 것이다.⁷⁾ 이는 입대 일에 로마시 경계선 바깥에 있는 마르스 평지(*Campus Martius*)에 모여 무구를 갖추고 전장으로 갔음을 시사한다.

군인들이 자체 조달한 무구를 마르스 평지에서부터 착용한다는 말은 군인들이 마르스 평지에 와서 누군가로부터 무구를 받고, 그 비용을 자신의 돈으로 지불한다는 뜻이다. 그 누군가로 예상할 수 있는 부류는 현지의 금속 제조공과 상인들이다. 철광석에서 철을 추출, 단조하는 작업은 그러한 기술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었고, 기술자들이 제조한 것을 유통시키는 사람은 상인들이었기 때문이다.⁸⁾ 문제는 금속 제조공과 상인들이 군인들이 마르스 평지에 집결하여 무구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 즉 무구의 수요가 발생한다는 것은 알지만 그 수요의 수량과 소비 시점을 어떻게 알았을까 하는 것이다.

수요의 수량과 시점을 예측하는 것이 가능한 근거는 군대의 규모이다. 로마시를 건설한 로물루스(*Romulus*) 왕은 세 개 부족(*Ramnenses*, *Titienses*, *Luceres*)에서 각각 1,000명씩, 3,000명의 보병(*pedites*)으로 한 개 군단(*legio*)을 형성했다. 군단이라는 말

7) Polybius, 6.21; P. W. Jacobs & D. A. Conlin, *Campus Martiu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5, 20-28.

8) D. Sim & J. Kaminski, *Roman imperial armour*, p.40.

은 ‘모으다, 징집하다’는 뜻의 동사 ‘레게레(*legere*)’에서 파생되었다.⁹⁾ 로물루스는 보병들을 100명 단위의 백인조(*centuria*)로 나누었다.¹⁰⁾ 기병은 세 개 부족에서 각각 100명씩 모아 3개의 백인조를 만들었다.¹¹⁾ 보병 3,000명이 필요로 하는 무구의 종류와 수는 재산 자격에 따라 정해져 있으므로 필요한 무구의 수량을 예측할 수 있다.

제조과정에서는 병사 한 사람의 무구를 위해 많은 부품들이 들어가므로 필요로 하는 수량은 병사의 수보다 몇 배가 더 많다. 병사들이 각각 한 개의 창만 들었다고 해도 3,000개이고, 갑옷과 검, 방패, 투구 등을 합치면 그 수는 수천 개에 달한다. 특히 투구는 하나의 형태로 된 것이 아니라 조각조각 제조하여 합친 것이기 때문에 제작에 많은 시간과 공정이 들어간다. 군단병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한 투구는 목 보호대가 없었고, 이마 부분에 눈썹 형태의 돌을 새기지 않았고, 볼 보호대만 있는 단순한 형태였다. 이 투구는 ‘몬테포르티노 형(*Montefortino-type*)’라고 불렀다. 이탈리아 움브리아 지역의 몬테포르티노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투구 꼭대기에 홈이 있어 말꼬리로 만든 벚으로 장식할 수 있었다. 이러한 기본 형태는 볼 보호대와 두상 보호대, 벚 등이 따로 제조되었다. 기원전 1세기 후반에 나타난 철제 투구는 ‘제정기-갈리아 형(*Imperial-Gallic type*)’으로서 이마 부분에 눈썹형태로 돌을 새겼다. 기술적으로 더 복잡해졌다. 이처럼 기본적인 단순한 형태의 투구라고 하더라도 투구를 두상에 맞게 곡선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제조가 가능했다.¹²⁾ 분리 제조하여 만들어야 할 품목이 늘고, 철을 자유롭

9) Varro, *De Lingua Latina* 5.87.

10) Plutarchos, *Romulus* 8.6.

11) Livius, 1.13.8; Plutarchos, *Romulus* 13.1; Varro, *De Lingua Latina* 5.89.

12) Vegetius, *Epitoma Rei Militaris* 2.13; A. Goldsworthy, *The Complete*

게 다룰 줄 아는 기술자를 제때 찾을 수 있어야 하므로 미리 수요를 예측하지 않고서는 무구를 조달하기 쉽지 않다. 병력의 규모가 정해져 있고, 무구의 부속품의 종류를 알고 있다고 해도 필요로 하는 부속품의 수와 완성품의 수량이 많아 며칠 만에 급조할 수 없었다. 따라서 사전 제작이 필요했고, 정해진 수량과 종류에 맞게 제작해야 했다.

수요 예측 가능성에 대한 또 다른 근거는 전쟁 계절이다. 당시의 전쟁을 할 때 겨울은 가급적 피했다. 겨울은 습하고 폭풍우가 잦고 추위 전쟁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폭풍우 속에서 군대를 이동시키기도, 전장에서 서로 싸우기도 어려운 까닭에 겨울에는 가능한 한 전쟁을 시도하지 않았다. 기원전 57년 갈리아 지역의 벨가이(Belgae)인이 식량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본국으로 돌아가자고 한 것이나 기원전 55년 여름이 끝나가는 시점에 브리타니아를 침공한 로마군이 갈리아 지역으로 돌아가 겨울을 나기로 했을 때 갈리아에 겨울 식량을 준비해 놓지 않은 점을 걱정한 것은 겨울 전쟁의 어려움과 식량 확보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증거이다.¹³⁾

겨울 전쟁을 피하는 이유는 추위와 식량 조달의 어려움 때문이었다. 개별 군장의 무게가 30kg이 넘었으므로 식량은 보통 3일분 정도만 들고 이동했다. 식량이 떨어지면 현지에서 조달해야 했으므로 현지에 곡식이 있는 계절에 전쟁을 했다.¹⁴⁾ 그래서 겨울이 지나고 들판에 식량을 조달할 수 있는 시기, 즉 3월에서 10월까지를 전쟁 계절이라고 하였다. 전쟁 계절은 3월 1일 마르스

Roman Army, London: Thames & Hudson Ltd, 2003, 124.

13) Caesar, *De Bello Gallico* 2.10, 4.20, 4.29.

14) Cicero, *Tusculan Disputations* 2.37; Josephus, *Bellum Judaicum* 3.5.5; *Scriptores Historiae Augustae, A. Severus* 47.1; Ammianus Marcellinus, 17.9.

신 사제들(*Salii*)의 의식, 3월 19일 마르스 신의 신성한 방패를 정화하는 의식, 3월 23일 트럼펫 정화 의식 등으로 시작되었다. 군인들이 위협에서 정화되어 마르스 신의 명예를 기리는 축제가 열리는 10월 19일이 전쟁 계절이 종료되는 시점이었다. 이는 3월에서 10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전쟁을 했다는 의미이다.¹⁵⁾ 따라서 무구가 필요 없는 겨울이 가고 전쟁 계절이 다가오면 금속 제조공들은 무구가 필요한 시점과 수요를 예측, 제작에 돌입할 수 있었다. 상인들도 미리 주문 제작한 무구를 입대 일에 마르스 평지로 갖고 가서 판매할 수 있었다.

문제는 전쟁이 항상 전쟁 계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예기치 못한 기습 공격을 당하거나 대규모 반격을 준비할 때는 한꺼번에 대량의 무구가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 해당하는 사례들이 있다. 기원전 399년 시라쿠사이의 디오니시우스 1세(Dionysius I)가 카르타고와 전쟁을 준비할 때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그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지역의 숙련 노동자들을 징발하고, 카르타고 지역뿐 아니라 이탈리아와 그리스 지역에서도 높은 임금을 주고 숙련 노동자들을 데려왔다. 그는 갑옷에 관한 한 그들에게 각각의 특정 모델을 나누어주었다. 왜냐하면 그가 많은 종족들에게서 용병을 모았기 때문이다. 과거 그는 자신의 군인들이 자신과 같은 무기로 동일하게 무장하기를 원했다. 하지만 이것이 실패의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하여 이번 전투에서 모든 군인들에게 각자의 관습에 따른 갑옷을 입고 최상의 효과를 내어 싸우도록 하였다. 시라쿠사이인들이 디오니시우스의 정책을 열성적으로 지지하였으므로 무기를 제조하려는 경쟁이 치열해지는 일이 생겼다. 루랑현관, 신전의 뒷방, 경기장, 시장의 열주에도 노동자들이 몰려들었을 뿐 아니라 그런 공적인 장소 외에 가장 저명한 집에서도 많은 양의 무기를

15) H. H. Scullard, *Festivals and Ceremonies of the Roman Republic*, Itach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1, 194-195; S. Dando-Collins, *Blood of the Caesars: How the Murder of Germanicus Led to the Fall of Rome*, New Jersey: Wiley, 2008, 246.

만들었다... 140,000개의 방패와 그와 같은 수의 단도와 투구를 제작하였다. 게다가 몸통용 갑옷 14,000개 이상이 모든 디자인으로 아주 예술적으로 이미 준비되었다. 디오니시우스는 이들 갑옷을 그의 기병대와 보병 사령관들, 또 근위대를 형성하고 있는 용병들에게 분배할 예정이다. 그는 또한 모든 양식의 투척기와 수많은 다른 발사물들을 만들었다.¹⁶⁾

디오니시우스 1세는 수많은 노동자들을 일시에 모아 대량으로 무구를 제조했다. 이전에는 동일한 모델의 무구를 제조했으나 용병들이 자신의 종족의 무기에 익숙하였기 때문에 각자 고유한 형태의 무구를 소유했다. 노동자들에게 각 종족의 모델을 주고 그와 같이 만들도록 했다. 그렇게 만든 것이 14만 개의 방패와 1만 4천 개 이상의 갑옷, 투척기, 발사물들이었다.

기원전 2세기 3차 포에니 전쟁 기간 동안 카르타고인들이 항복의 표시로 로마에 무구를 내 주었다가 재무장한 것도 일시에 무구를 제조한 사례이다.



그들은 모든 성스러운 장소, 신전, 비어 있는 모든 공간을 작업장으로 바꾸었고, 그곳에서 남자와 여자들이 밤낮으로 쉬지 않고 일했다. 식사도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교대로 하였다. 그들은 매일 100개의 방패, 300개의 검, 1,000개의 투석기용 발사물, 500개의 작은 발사물과 투창,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많은 투석기를 만들었다.¹⁷⁾

디오니시우스 1세와 카르타고의 사례를 볼 때 무구 수요가 일시에 대량으로 발생할 때는 국가가 노동자들을 모아 제작, 조달 해주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개별적으로 자비로 조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국가가 운영하는 체제가 가동된 것이다.

전쟁의 위협으로 인해 일시에 무구 제작이 필요하여 국가가

16) Diodorus Siculus, *Bibliotheca Historica* 14.41-43.

17) Appianus, 8.93.

조달하는 체제가 가동되었다는 것은 또 다시 수요가 증가한다면 동일한 체제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수요 급증은 군인의 수가 현격히 증가하여 자체 조달하기 어려운 때를 말하는데, 이때는 국가가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 기준에서 본다면 국가가 항구적으로 무구를 제공해주었을 시점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기원전 4세기이다. 군단의 수는 기존의 1개에서 기원전 362년 2개로, 기원전 311년 4개로 증가하였다. 이 수치는 기원전 311년 시민들이 천부장(*tribunus militum*)을 선출하여 4개 군단에 분산 배치했다는 기록을 근거로 한 것이다.¹⁸⁾ 군단의 수가 급증하면서 무구의 수요가 급증하여 개별 제조공이나 상인들에게서 자비로 구입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기원전 4세기를 국가가 무구를 조달해 주었을 시점으로 보는 또 하나의 근거는 봉급이다. 원래 로마에서 군복무는 시민의 의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국가가 금전적인 보상을 해 줄 필요는 없었다. 그러나 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군인들의 의식주 비용과 무구 조달 비용의 증가, 주요한 노동력인 남성의 부재로 인한 가내 경제의 쇠퇴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에 원로원이 국고로 군인들에게 일정 금액을 분할로 지불해준 것이 스티펜디움(*stipendium*), 즉 봉급이었다. 처음 봉급을 지불하기 시작한 것은 기원전 406년 베이이(Veii) 포위 공략 때였을 것이다. 이때 겨울에도 전쟁하면서 군인과 군인 가족의 생계가 심각한 지장을 받았기 때문이다.¹⁹⁾ 이후 기원전 394년, 기원전 391년, 기원전 324년 등 전쟁에 참가한 군인들에게 봉급을 주는 사례가 빈번해졌다.²⁰⁾ 이로써 기원전 4세기 이후 군인들에게 봉급을 지불하는 관행이 정립되었다.

18) Livius, 9.30; Polybius, 6.19, 6.26-27.

19) Plutarchos, *Camillus* 2.5.

20) Livius, 5.27, 5.32, 8.36, 9.43, 10.5, 21.1, 21.20.

물론 봉급 지불만으로는 국가가 항구적으로 무구를 조달했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개별적으로 자비로 조달하고, 그 돈을 국가가 보전해 주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가들의 기록은 그럴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사가들에 따르면, “동맹군의 경우 식량은 주지만 봉급을 따로 지급하지는 않는 반면 로마 군단병에게는 식량, 군복, 무구 구입비를 먼저 주고 이를 봉급에서 공제했다.”²¹⁾ 타키투스(Publius Cornelius Tacitus) 또한 봉급에서 공제하는 품목으로 군복, 무구, 침구 등을 포함시켰다.²²⁾ 특히 가이우스(Gaius Gracchus)가 기원전 122년 제정한 군법(*lex militaris*)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조항은 “국고에서 군복을 군인들에게 제공하고, 그 비용을 충족시키기 위해 군인들의 봉급에서 공제하지 않아야 한다.”²³⁾는 것이다. 여기에서 군복 외에 무기도 공짜로 주었는지는 확실치 않다. 하지만 폴리비우스나 타키투스의 기록을 볼 때 무구를 자체 조달한 후 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현물로 제공되고, 그 비용을 봉급에서 공제하는 방식이라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다.

기원전 4세기 이후 국가가 무구를 조달해 준 기록이 있다. 기원전 210년 스키피오(Publius Cornelius Scipio Africanus)는 카르타게나를 장악한 후 무구 제조공들을 모았다.

(모인) 기술자들은 약 2,000명에 달했다. 스키피오는 이들에게 선언하기를, 그대들은 로마 시민의 노예가 될 것이고, 만일 전쟁 장비를 제공하는데 적극적으로 활동하면 머지않아 해방의 희망이 있을 것이다.²⁴⁾

21) Polybius, 6.39.13-15.

22) Tacitus, *Annales* 1.17.

23) Plutarchos, *Gaius Gracchus* 5.1; P. Erdkamp, ed., *A Companion to the Roman Army*, Oxford: Blackwell, 2010, 124.

24) Livius, 26.47.

피소(Calpurnius Piso)의 집안에 대한 키케로(M. Tullius Cicero)의 글은 국가의 무구 제조에 관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당신은 무구 작업장(*officina armorum*)에 대해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
당신이 아주 귀여운 청소년이었을 때 이탈리아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때 당신의 아버지는 무구 제조를 감독하여 엄청난 이익을 얻었다.²⁵⁾

스키피오나 피소의 경우를 볼 때 특정 작업장에서 제조공들이 일괄적으로 필요한 무구를 생산했던 것 같다. 무구를 일괄, 대규모로 생산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개개 무구들을 표준화할 수 있었다. 이는 기술자들의 기술에 따라 철의 강도가 달라 무구의 활용성에 차이가 나는 상황이 줄어들었다는 의미이다. 당시 무구의 종류는 소유 재산의 규모에 따라 달랐지만 무구의 형태나 재질의 표준화는 전장에서의 변수를 줄여준다. 장창 부대(*hastati*), 주력 부대(*principes*), 제3열 부대(*triarii*) 순으로 순차 공격을 할 때 군사령관의 능력은 언제 장창 부대를 철수시키고, 주력 부대를 투입하는가에 달려있었다. 앞의 부대를 너무 빨리 소환하면 뒤에 투입되는 부대가 더 오래 전투해야 하므로 많은 부담을 가지게 된다. 이들이 승부를 내지 못할 경우 새롭게 투입할 병력이 줄어들게 된다. 반면 앞의 부대를 너무 늦게 소환하면 이미 적과의 전투에서 힘을 소진하여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게 된다. 이때는 새로운 부대를 투입해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었다.²⁶⁾ 이때 무구의 표준화는 무구의 활용성이나 강도가 동일하므로 철수 부대와 투입 부대의 시점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게 해 준다. 표준화된 무구를 사용하는 동일 중대라면 백병전에서 밀리는 시점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25) Cicero, *In Pisonem* 87.

26) Plutarchos, *Aemilius Paulus* 19,3; Appianus, *Bellum Civile* 4,128.

무구 제조를 위해서는 단순 노동자보다 기술자들이 꼭 필요하였다. 왜냐하면 무구 제조는 단순 노동이 아니라 철을 다룰 줄 아는 기술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로마군의 대표적인 공격용 무기는 창이다. 밀집 대형 전술에서 로마의 중장보병은 2.45m의 장창을 가지고 주로 적을 찌르는 용도로 사용했다. 찌르는 창은 그리스와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널리 사용되었다. 그러나 찌르는 창은 길이와 무게로 인해 기동성을 떨어뜨리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중대 중심의 군단에서 경보병은 장창과 작은 투창으로 무장했다.²⁷⁾ 작은 투창은 갈리아인들의 투창을 모방한 것으로서 약 90-120cm의 길이였다. 경보병들은 각각 5-7개의 작은 투창을 가지고 다녔다. 전초전을 담당하는 이들은 작은 투창을 던져 전쟁을 시작했다.²⁸⁾

투창에서 기술의 핵심은 창과 손잡이를 연결하는 부분이었다. 리비우스(Titus Livius)가 투창에 대해 처음 언급한 때는 3차 삼니움 전쟁기인 기원전 295년이지만,²⁹⁾ 그 전에 이미 사용되었던 듯하다. 가장 초기의 예는 기원전 5세기 에트루리아인의 무덤에서 나온 것이다. 기원전 4세기에는 나무와 철이 만나는 지점에 철이나 대못을 박는데 적합한 형태로 발전했다. 기원전 3세기 로마군은 무거운 투창과 가벼운 투창을 동시에 가지고 다녔다. 찌르는 창보다 투창은 사정거리와 위력이 월등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시킬 수 있었다. 피루스 전쟁 때 피루스에게 부상을 입힌 무기 또한 투창이었다.³⁰⁾

마리우스 시대부터 동일한 무구로 무장함에 따라 제3열 부대도 장창 부대나 주력 부대와 같이 투창을 가지고 다녔다. 마리우

27) Livius, 8.8.5.

28) *Servius ad Aeneid*, 7.664; Livius, 26.4.4, 38.21.13; Lucilius, 7.22.

29) Livius, 10.39.12.

30) Plutarchos, *Pyrrhus* 21.9.

스는 투창의 약점을 개선했다. 폴리비우스 시기 투창의 주요한 약점은 날이 자루에 확고하게 부착되어 있어서 적이 자신의 방패에 꽂힌 로마군의 투창을 뽑아 다시 던질 수 있었다. 이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마리우스는 손잡이 부분과 창날 부분을 연결하는 두 개의 쇠못 중 한 개를 나무로 바꾸었다. 그러면 투창이 적의 방패에 꽂혔을 때 그 충격으로 손잡이와 연결되는 나무못이 부러지거나 쇠못이 구부러진다. 손잡이 부분과 창날 부분이 직선이 아니라 부러진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적은 투창을 방패에서 뽑기 어렵고, 로마군에게 다시 던지기는 더욱 어렵다. 투창이 박힌 적의 방패 또한 땅에 질질 끌려 소용이 없게 된다.³¹⁾ 카이사르 군대가 갈리아인과 전쟁할 때 투창을 던지자 투창은 갈리아의 방패를 뚫으면서 창끝이 구부러져 빼낼 수 없었다. 투창이 달린 방패를 잡고 있던 갈리아인들의 왼손은 부자유스러웠다. 땅에 질질 끌리는 투창으로 인해 마음대로 싸울 수도 없었다. 한 동안 오른손으로만 싸우다가 마침내 방패를 던져버렸다. 갑옷을 입지 않는 갈리아 병사들은 자신의 몸을 보호해 줄 중요한 장비인 방패가 없자 치명적인 부상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³²⁾ 따라서 투창 제조는 철을 다루는 기술자들의 기술력이 필요한 부분이었다.

투창보다 더 기술적으로 까다로운 무구가 갑옷이었다. 폴리비우스에 따르면, 가장 비싸고 좋은 갑옷은 사슬갑옷(*lorica hamata*)이었다. 10,000드라크마(*drachma* = 100,000 *as*) 이상의 재산을 가진 사람만 사슬갑옷을 입었다.³³⁾ 사슬갑옷은 차츰 보편화되면서 마리우스 개혁 후 모든 군단병들이 착용했다. 이것은 한 쪽이 열려진 철로 된 링을 교차하여 만든 것이다. 어깨 부

31) Plutarchos, *Marius* 25.1-2.

32) Caesar, *De Bello Gallico* 1.25.3.

33) Polybius, 6.23.14; Varro, *De Lingua Latina*, 5.116.

분은 적의 칼로 베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중으로 덧댔다. 이 갑옷은 형태가 없기 때문에 입는 사람의 몸에 맞고, 움직이기도 편하다. 단점은 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적의 칼이나 화살이 침투할 가능성이 많았고, 만드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었다는 점이다. 또 철이나 구리 합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너무 무거웠다. 15년 게르마니쿠스가 게르마니아 지역에서 힘겨운 전투를 했는데, 그 이유는 로마군의 갑옷이 무겁고, 진흙탕이라 창을 제대로 던질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그는 병사들에게 전의를 돋우기 위하여 게르만족은 갑옷이나 투구를 사용하지 않고, 그들의 방패는 철이나 가죽을 대지 않았으니 다루기 쉽다고 연설했다.³⁴⁾

철은 900-950도로 되었을 때 탄소를 흡수하는데, 고대에 단조과정을 거쳐 침탄하여 강철로 만드는 방법은 알려져 있었던 것 같다. 플리니우스의 기록에서 동부지역에서 양질의 철과 강철이 생산되어 여러 지역에 공급되었다고 하기 때문이다.³⁵⁾ 단조 후 담금질을 하여 천천히 열을 식히기 위해 모래에 묻어 다시 단조하는 과정에서 무구로 사용할 수 있는 철이 만들어진다. 단조와 침탄과정에서 지나치게 오래 가열하거나 열을 식히는 시간이 적당하지 않으면 철이 갈라진다.³⁶⁾ 따라서 무구 제조에는 기술자가 필요하였고, 이들 기술자들을 구하여 필요한 수의 무구를 공급해주는 것이 중요하였다. 스키피오가 해방이라는 대가를 제공하고, 피소가 기술자들을 모아 대규모 무구를 공급해줌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대량 생산의 필요성, 기술자의 필요성에 근거한다.

건국 초기의 1개 군단만 존재하던 시기에 군인들은 현지의 금

34) Tacitus, *Annales* 1.64.2, 2.14.4.

35) Plinius, *Naturalis Historia* 45.145.

36) D. Sim & I. Kaminski, *Roman imperial armour*, 49-79.

속 제조공과 상인들로부터 무구를 자비로, 자체적으로 조달하였다. 병력의 규모가 정해져 있고, 무구의 부속품 종류, 또 3월에서 10월까지의 전쟁 계절에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사전 제작이 가능하였다. 개별 조달 방식은 기원전 4세기 국가 조달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유는 군단의 수가 4배로 증가하는 상황, 즉 무구 수요의 급증이라는 상황, 봉급 지불 체제의 도입과 맞물려 있었다. 기존에 각지에 흩어져 있던 기술자들을 모아 특정 작업장에서 일괄 제조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각 병사들이 필요로 하는 무구의 종류는 다르지만 제조 기술을 표준화하여 대량생산하는데 용이하였다. 이처럼 무구 조달 방식은 군대 편제의 변화, 즉 무구의 수요와 관련하여 변화였다.



3. 제정기의 철제 무구 수급체계

제정기 로마의 무구는 1세기 유대전쟁기에 활동했던 요세푸스(Flavius Josephus)의 기록에서 알 수 있다. 그는 로마군이 갖추고 있는 무구에 대해 다음과 기록했다.

로마의 보병들은 갑옷과 투구로 무장했고, 양쪽에 검을 찼다. 왼쪽의 검은 더 긴 것을, 오른쪽의 검은 한 뼘 정도의 길이였다. 군사령관의 경호를 담당하는 최정예 보병들은 짧은 투창과 둥근 방패를, 나머지 보병들은 투창, 직사각형의 방패...를 가지고 다녔다. 기병은 한 쪽에 긴 검을, 손에는 투창을 들고 다녔다. 긴 방패는 말의 측면에 비스듬하게 두었고, 다른 쪽 편에는 찌르는 창만큼 길고, 창두가 넓은 투창 3개 이상을 통 속에 넣어 다녔다. 그들의 투구와 갑옷은 보병들이 사용하는 것과 같았다. 군사령관의 개인 경호를 담당하는 최정예 기병들도 다른 기병과 동일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³⁷⁾

37) Josephus, *Bellum Judaicum* 3,93-97.

요세푸스는 갑옷과 투구를 갖추고, 창과 방패로 무장하여 행군하는 모습에서 로마군의 강인함과 위용을 보았던 것이다.

제정기에도 공화정 후기처럼 군인들의 무구를 국가가 조달해주는 체제였는지는 당연한 의문이다. 제정기의 무구 조달 방식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하나는 군단 내에 철제 무구 작업장의 존재에 대한 고고학적 증거와 문헌 증거이다. 이는 와일더스풀(Wilderspool)에 있는 제20군단 작업장에서 증명되었다. 여기에는 용광로, 단조 도구, 철광석, 철재, 못, 도구, 2개의 창두가 발굴되었다. 이곳은 클라우디우스(Claudius) 황제 때부터 5세기 초까지 로마가 브리타니아를 지배할 동안 사용한 작업장이었다. 콜브리지(Corbridge)에서도 철 슬래그, 투창의 창두 23개, 화살촉 17개, 검, 대못, 일부 미완성의 철제 무구들이 발견되었다. 칼리언(Caerleon)도 32km 이내에 있는 딘 숲(The Forest of Dean)에서 철광석과 목탄을 구할 수 있어서 제2군단의 무구 작업장으로 이용되었다.³⁸⁾

2-3세기의 것인 이집트 파피루스는 군단의 작업장(*fabricam legionis*)에서의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하루는 “스파타 10개 (*spathar[u]m fabricatae X*), 어떤 것 6개(*[?] fabricatae VI*), 어떤 것 125개(*[?] lperactae CXXV*)를 제조했다.” 스파타는 기병들이 주로 사용했던 검으로서 군단병의 검보다 더 길었다. 양날의 전형적인 길이는 60-90cm, 넓이는 3-4.5cm였다. 3, 4세기 동안 군단의 보병들은 기병이 강한 게르만족과 사산조 페르시아에 대항하기 위하여 기존의 검보다 더 긴 스파타를 많이 사용했다.³⁹⁾ 파피루스에서 다른 날에는 평편한 방패(*[s]cuta planat[a -?]*),

38) R. MacMullen, “Inscriptions on armor and the supply of arms in the Roman Empire”, 28-29.

39) J. Penrose, ed., *Rome and her Enemies*, Oxford: Osprey, 2005, 139.

화살, 노포(*ballista*)의 부속품도 만들었다.⁴⁰⁾ 베게티우스(Flavius Vegetius Renatus) 또한 군단 내 이들 무기 작업장의 존재를 명확히 하고 있다. 그의 기록에 따르면, 작업장에서 방패, 사슬갑옷, 투구, 활과 화살, 투창 등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공격형과 방어형 무기들을 제조하였다.⁴¹⁾ 고고학적인 증거와 함께 이들 문헌 증거들은 군단 내의 작업장에서 무기 제조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군단 내의 기술자들의 존재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기술자들의 존재는 “대장장이, 편자공, 마차 제조업자, 푸주한, 사냥꾼 등은 군복무에 적합하다”는 베게티우스의 말을⁴²⁾ 근거로 삼을 수 있다.⁴³⁾ 6세기의 기록에는 더 다양한 직종들이 노역 면제병(*immunes*)으로 활동했다. 노역 면제병은 각종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병사로서 힘든 노역을 면제받는 대신 자신의 기술을 발휘하는 일을 했다. 예를 들어 의사, 수의사, 석공, 건축가가 포함되었다. 무기와 관련된 노역 면제병은 노포 제조병(*ballistrarii*), 투구의 볼 보호대 제조병(*buccularum structores*), 검 제조병(*gladiatores*), 화살 제조병(*sagittarii*), 활 제조병(*arcuarii*) 등이 있다.⁴⁴⁾ 투구의 두상을 만드는 제조병과 벗이나 볼 보호대 제조병이 따로 존재했다는 것은 기술자들을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전문성을 갖추도록 한 것으로 추정된다.

군단 내에 기술자들의 필요성은 상시적이었다. 병사들은 무기

40) P. 6765 in A. Bruckner & R. Marichal, *Chartae Latinae antiquiores* 10 409, Berlin, Staatliche Museen, 1979, 재인용.

41) Vegetius, *Epitoma Rei Militaris* 2.11.

42) *Codex Theodosianus* 7.13.3-8 in G. R. Watson, *The Roman Soldier*,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69, 168 n.86 재인용; Vegetius, *Epitoma Rei Militaris* 1.7.

43) Vegetius, *Epitoma Rei Militaris* 2.7.

44) *Digests*, 50.6.7; Arrianus, 14.4.

구입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작은 흠집이나 고장은 가능한 한 수리해서 쓰려고 했다. 검은 부리졌을 경우 재사용하기 쉽지 않지만 투구나 갑옷은 전투 중에 일부 부러져도 수리하여 사용할 수 있었다. 세르비우스의 군제개혁에서 거론되는 투구와 갑옷은 대개 청동이었으나 기원전 1세기를 전후하여 철제로 바뀌었다.⁴⁵⁾

갑옷의 형태에 관한 한 사슬갑옷보다 더 철판을 얇게 펴는 기술이 필요한 것은 제정기에 널리 사용된 판금 갑옷(*lorica segmentata*)이었다. 이것은 얇은 철판 여러 개를 가죽 끈으로 엮어 만든 것으로서 철판의 두께에 따라 다양하지만 사슬갑옷보다 가벼웠다. 사슬갑옷이 10kg에서 많게는 15kg까지 나간 반면, 판금 갑옷은 대개 9kg정도였다.⁴⁶⁾ 판금 갑옷은 단조과정에서 일정한 두께로 철판을 펴는 기술이 중요하였다. 판금의 두께는 최소 0.64mm, 최대 1.42mm이고, 평균 1.02mm이다. 피철 덩어리나 철정 형태를 판으로 만드는 도구나 방법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 하지만 덩어리를 얇은 판이나 긴 조각으로 만드는 것이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사슬 갑옷이나 판금 갑옷은 전체가 연결되어 있어서 제작 시간이나 비용이 가장 많이 들었다. 하지만 사슬 링, 판금 조각, 미늘로 되어 있는 만큼 부러지거나 고장 난 특정 부분만 수리한다면 사용할 수 있었다. 철의 강도가 약하거나 불순물이 많은 철을 사용했을 경우 갑옷의 부품이 떨어지거나 부러질 수 있었다. 또 철제 무구는 잘못 관리하면 녹이 슨다는 단점이 있어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었다. 그래서 베게티우스가 “장비를 소홀히 다루어

45) Livius, 1.43; Dionysius of Halicarnassus, 4.16; G. Webster, *The Roman Imperial Army of the First and Second Centuries A.D.*, Norman: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1998, 12, 125-126; N. V. Sekunda, *Caesar's Roman Soldier 753 BC to 117 AD*, Oxford: Osprey, 2000, 110-128.

46) A. Goldsworthy, *The Complete Roman Army*, 126-129.

녹으로 손상되면 군인의 호전적인 자질을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경고한 것이다. 따라서 철제 무구는 지속적인 관리와 수리가 요구되는 군수품이어서 기술자들이 필요했다.⁴⁷⁾

이처럼 개별 군단 내의 무구 작업장의 존재, 군단 내 기술자의 존재, 군단 내 제작과 수리의 상시 수요자의 존재는 개별 군단의 무구 제조 가능성을 높여준다. 기존의 대규모 국가 조달 방식에서 군단 조달 방식으로 변화했을 가능성이 많다는 뜻이다. 그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무구 수요의 변화를 추적해야 할 것이다. 무구 수요와 관련해서 제정기에 도입된 상비군 체제가 해석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공화정 후기 야심 있는 정치가가 전쟁을 구실로 대규모 군단을 모집하여 내전을 치렀다. 내전에서 승리한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개인적인 군 징집을 막고자 복무 기간이 확고히 정해진 상비군을 유지하였다. 6년 이후 군단병의 복무 기간은 20년, 예비군으로 5년을 더 복무해야 했으므로 총 25년이었다.⁴⁸⁾

상비군 체제가 되는 과정을 보면 무구가 일시에 대량으로 필요했던 시점은 없었던 것 같다. 그 근거는 첫째, 군단의 규모가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내전의 재발 가능성을 막고 군대 유지비를 줄이기 위해 군대를 축소시켰다. 그래서 내전기 60개 이상이었던 군단의 수는 28개로 줄어들었다. 9년 게르마니아지역에서 제17, 18, 19 군단이 전멸하여 25개 군단으로 감소되는 일이 있었지만 3세기까지 군단의 총수는 28-33개 정도로 크게 변하지 않았다.⁴⁹⁾ 이러한 군단 수의 감소는 무구

47) Vegetius, *Epitoma Rei Militaris* 2.14; N. V. Sekunda, *Caesar's Roman Soldier 753 BC to 117 AD*, 112.

48) Dio, 55.25.1; Augustus, *Res Gestae Divi Augusti* 17; Tacitus, *Annales* 1.36, 1.39.

49) Suetonius, *Augustus* 23; Dio, 55.24.5.

수요의 감소를 뜻한다.

둘째, 군단병들이 이미 무구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라는 점이 다. 기존에 있었던 60개 이상의 군단 중 남은 28개 군단병들은 개인 무구를 가지고 있었다. 나머지 군단병들은 무구를 놓고 제대했다. 제대 시 개인 무구를 가져가지 않는다는 것은 69년 내전 때 근위병들이 전쟁이 끝난 줄 알고 군사령관들에게 자신의 무구를 넘겨주었다는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⁵⁰⁾ 물론 일시에 무구를 제조하는 상황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69년 베스파시아누스(Flavius Vespasianus)는 비텔리우스(Aulus Vitellius)와의 전쟁을 위해 제일 먼저 병사들을 모집하고, 제대군인들을 재소집했다. 그리고 강력한 도시들을 지정하여 무구를 제조하도록 했다.⁵¹⁾ 또 하드리아누스 황제 때 유대전쟁 직전에 유대인들이 무기를 제조하도록 차출되었다. 이때 유대인들은 고의로 품질이 떨어지는 무기를 만들었다. 이유는 로마인들이 나쁜 품질을 이유로 이 무기들을 사용하는 것을 꺼리고 대신 자신들이 그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였다.⁵²⁾ 이들 사례들은 모인 신병들이나 제대군인들이 자신의 무구가 없는 상태에서 입대했기 때문에 무구가 필요한 상황이거나 전쟁으로 동원한 병력이 증가하여 대량으로 무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특수한 경우에는 특정 지역에서 한꺼번에 무구를 제조하는 공화정기와 같은 상황이 재현되었다.

대량 입대와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무구를 한꺼번에 구입할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것은 대규모 무기 작업장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고 무구에 대한 수요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잃어버리거나 부러진 소수의 품목은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이는 봉급명세서를 보면 알 수 있다. 무

50) Tacitus, *Historiae* 2.67.

51) Tacitus, *Historiae* 2.82.

52) Dio, 69.12.

구를 봉급으로 조달한 사실은 실제 군인들의 봉급 명세서를 보면 확인할 수 있다. 81년 알렉산드리아에 주둔하는 군단병의 봉급 명세서를 보면 침구, 식량, 군화와 가죽 끈, 군복 구입비용, 축제비용 등이 공제 품목이었다. 무구 구입비용이 빠져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구입해야 할 필요성이 인지된다. 다른 기록에 무구 구입비용으로 103 데나리우스를 공제했다고 되어 있는데, 당시 연봉은 225 데나리우스였다.⁵³⁾ 또 소플리니우스(Gaius Plinius)에 따르면, 크리스푸스(Metilius Crispus)라는 백부장이 무구 구입비용으로 40,000 세스테르티우스(=10,000 데나리우스)를 주었다.⁵⁴⁾ 117년 경 구리로 만든 가슴갑옷은 360 드라크마, 이탈리아 검은 80 드라크마라는 가격을 기록한 파피루스가 있다. 153년 갈리아 기병 소대(*Gallicae turma*) 소속의 헤로니아누스(Antonius Heronianus)가 무기 비용으로(*in pretium armorum*) 50 데나리우스를 벌렸다는 기록도 있다. 당시 연봉은 300 데나리우스였다.⁵⁵⁾ 이처럼 군인들은 한꺼번에 모든 무구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필요로 하는 품목만 구입했다. 이는 당연히 대규모 작업장의 필요성이 사라지고, 필요로 하는 소수의 품목을 제작하는 군단 자체 조달 방식이 유익했음을 시사한다.

군단 자체 조달 방식에서 또 한 번의 변화를 보인 것은 3세기 디오클레티아누스(Diocletianus) 황제 때였다. 이때 사가들의 기록은 국영 무구 작업장이라는 새로운 체제의 존재를 시사하고 있다. 락탄티우스(Lucius Lactantius)는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53) R. O. Fink, *Roman Military Records on Papyrus*, no.68. A. K. Bowman, "Papyri and Roman Imperial History, 1960-1975," *Journal of Roman Studies* 66, 1976, 153-173; G. Webster, *The Roman Imperial Army of the First and Second Centuries A.D.*, 267.

54) Plinius, *Epistulae* 6.25.3-4.

55) Papyrus Fouad 45 in <http://papyri.info/ddbdp/p.fouad;45>; *Scriptores Historiae Augustae, Severus*, 12.2; Herodianus, 3.8.

때의 건물 용도를 설명했다. 신전, 경마장, 주화제작소, 무구 작업장, 황제의 아내와 딸을 위한 궁전에 대한 설명은⁵⁶⁾ 무구 작업장이 특정 건축물로 존재했음을 암시한다. 말라라스(John Malalas) 또한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안티오크에서 “군대의 무구를 만들기 위해 3개의 작업장(*fabricae*)을 세웠다.”⁵⁷⁾고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국가가 관리하는 무구 작업장이 5세기에는 총 31개 지역에 있었다. 이 수치는 동서로마의 수천 개의 사무소, 속주 정부, 군대 체제를 기록한 노티티아 디그니타툼(*Notitia Dignitatum*)에 따른 것이다. 작업장은 군단과의 연결성이나 수송 용이성, 주변의 원료 공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정해진 것 같다. 노티티아 디그니타툼에 따르면, 동부 지역에서 다마스쿠스는 방패와 무기를, 안티오크는 방패, 무기, 기병 무기를, 에데사는 방패와 무기를, 이레노폴리스는 창을, 카이사레아는 기병 무기를, 니코메디아는 방패, 무기, 기병 무기를, 사르디스, 하드리아노폴리스, 마르키아노폴리스는 방패와 무기를, 호레움 마르기는 방패를 생산하였다. 테살로니카, 나이수스, 라티아리아에서 생산하는 품목은 노티티아 디그니타툼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아 알 수 없다. 서부 지역에서 시르미움은 방패, 무기, 군사용 안장을, 아퀸쿰, 카르논툼, 라우리아쿰, 크레모나, 암비아눔 등은 방패를, 살로나와 아르젠토마구스는 무기를, 콘코르디아와 마티스코니아는 화살을, 베로나는 방패와 무기를, 만투아는 갑옷을, 티키눔은 활을, 루카와 레멘시아는 검을, 아우구스토두눔은 무기, 갑옷, 기병 무기, 투석기를, 트레베리는 방패, 투석기를 생산하였다. 수에시오네스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 생산품을 알 수 없다.⁵⁸⁾

56) Lactantius, *De Mortibus Persecutorum* 7.

57) Malalas, *Chronographia* 13.

58) *Notitia Dignitatum Oriens* 9,18-39; *Occidens* 11,16-39; M. C.

각 작업장에는 채워야 할 할당량도 있었던 것 같다. 예를 들어 안티오크와 콘스탄티노플의 금속 제조공들은 30일 동안 청동으로 덮은 투구 6개를, 안티오크에서는 30일 동안, 콘스탄티노플에서는 단지 3일 동안 은으로 덮고, 반짝이는 볼 보호대를 만들어야 했다.⁵⁹⁾ 또 적은 무게의 가슴 판을 만든 작업장의 장이 사형을 명령받은 사례를 보아 작업장의 장이 무구를 제대로 만들지 못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추정된다.⁶⁰⁾

기존의 개별 군단 생산 체제에서 제한된 수의 국영 작업장이 존재하게 된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역시 군대의 조직이나 무구의 수요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는 적과의 평화 조약으로 할당받은 이민족이든, 평화적으로 정착한 이민족이든, 포로로 잡힌 이민족이든 모두 로마군에 편입시켰다. 이렇게 해서 군인의 수는 60만 명 이상으로 증가했다.⁶¹⁾ 즉 군대의 규모가 급증하면서 무구의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이 나타났던 것이다.

군대의 규모는 늘어난 반면 각 군단에 있는 군인의 수는 줄어들었다. 로마는 게르만족의 뛰어난 기동성에 대응하고, 로마의 수적인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군단을 두 부류로 나누었다. 하나는 야전군(*comitatenses*)으로서 직접 전장을 찾아가는 유동적인 예비군이었고, 다른 하나는 변경군(*limitanei*)으로서 변경 지역을 지키는 정적인 군대였다. 적이 침입했을 때 변경군이 일차적으로 적을 막고, 그 사이 야전군이 전투 지역으로 빠르게 이동하여 적과 싸웠다. 변경군이나 야전군의 각 부대는 보병 800명과 기병

Bishop, *Roman Military Equipment*, 239; A. D. Lee, *War in Late Antiquity*, New Jersey: Wiley-Blackwell, 2007, 92 재인용.

59) *Codex Theodosianus* 10.22.1.

60) Ammianus Marcellinus, 29-34.

61) Ammianus Marcellinus, 17.13.3, 20.4.4, 21.4.8, 28.5.4, 30.6.1, 31.10.17.

400명으로 구성되었다. 기존에 평균 5,000명이었던 한 군단의 군인의 수는 1,000명 남짓으로 줄어들었던 것이다.

군대의 규모가 급증하여 무구를 일시에 필요로 하는 군인의 수는 증가하였으나 군단 내의 병사의 수는 줄어들어 무구를 군단에서 자체 제작하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었다. 군단의 규모가 작아지면서 전투병도 모자랐기 때문에 군단마다 철제 무구 제조 병들을 따로 두기 쉽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특정 지역에 국영 무구 작업장을 도입한 것은 무구 수요의 급증과 군단 자체 제작의 어려움이 맞물려 나타난 체제라고 볼 수 있다.

3세기 이후의 기동성을 강조하는 전술적 변화도 무기 제조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기동성이 뛰어난 사산조 페르시아와 게르만족에 대항해 기병의 수가 증가하고, 이민족 출신들이 군단병으로 편입되었다. 로마군과 이민족 출신의 보병들은 기병에 대항하기 위해 무구를 간편하게 하는 경향이 있었다. 4세기 초의 투구는 헝가리의 인테르키사(Intercisa)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인테르키사 형’으로 불린다. 군대의 규모는 아주 증가했으나 국가의 재정 상태가 열악했기 때문에 이전의 투구보다 값이 싸다. 이것은 사산조 페르시아의 영향을 받아 제작된 투구이다. 그만큼 섬세한 기술을 필요로 하지는 않았다. 다만 볼이나 두상, 눈썹 장식을 개별적으로 제조하는 것이 공화정기와 동일했다. 투창의 경우 1세기 공화정기 경보병이 사용했던 것과 같이 손잡이 부분에 가죽 끈이 달린 창(*lancea*)도 사용했다. 이는 기존의 투창보다 더 가볍고 가죽 끈이 있었기 때문에 더 멀리 던질 수 있는 무기였다. 여러 개의 가벼운 창을 들고 있는 단창병들(*lanciarum*)은 주요 전투 대열이 싸우기 전의 전초전을 담당했다. 공화정기 경보병의 역할과 동일했다.⁶²⁾ 3세기 후반에는 근위대

62) Tacitus, *Historiae* 1.79; Herodianus, 4.15.1-3.

에도 말을 타는 단창병들이 있었다. 그 근거로 3세기 후반에서 4세기 초반 제10군위대에서 복무했던 테르티우스(Valerius Tertius)의 비문을 보면, 그는 모에시아에 주둔하는 군단에서 5년, 군위대에서 11년 동안 단창병으로 복무했다고 한다.⁶³⁾ 납을 입힌 화살(*plumbata*)은 손으로 던졌다. 베게티우스에 따르면, 모든 군단병들은 방패 안쪽의 움푹 파인 곳에 납 화살을 5개씩 가지고 다녔다. 이 무기는 상당히 위력적이었다. 이유는 적의 기병이 일반적인 투창의 사정 범위 안에 들기도 전에 화살을 쏘아 적의 기병과 말에게 부상을 입힐 수 있었기 때문이다.⁶⁴⁾ 이처럼 기동성을 강조한다는 것을 필요한 무구의 빠른 조달이 있어야 가능하고, 이는 특정 무구 작업장에서의 일괄 생산 체제로 바뀌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제정기에는 개별 군단 내의 무구 작업장의 존재, 군단 내 기술자의 존재, 군단 내 제작과 수리의 상시 수요자의 존재는 개별 군단의 무구 제조 가능성을 시사한다. 군단별 제작의 배경은 군단 규모의 축소, 상비군 체제로의 개편 등을 통해 군단병들이 일시에 대량의 무구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는 것에 있다. 군단 내 병사들이 필요로 하는 소수의 품목을 제작, 수리하는 군단 자체 조달 방식으로 바뀌었다. 3세기 군단의 편제가 소규모로 축소되어 군단 내에 제조 기술자를 두기 어렵게 되고, 군단의 규모가 커져 무구의 수요가 급증하자 국영 무구 작업장에서 일괄 제조하는 체제로 바뀌었다. 따라서 제정기의 철제 무구 공급체계는

63) H. Dessau, *Inscriptiones Latinae Selectae*, 2045 in R. Cowan, *Imperial Roman Legionary AD 161-284*, Oxford: Osprey, 2003, 26 재인용.

64) Vegetius, *Epitoma Rei Militaris* 1.17; D. Dersin, ed., *What Life Was Like: When Rome Ruled the World*, Virginia, 1997, 103; J. Warry, *Warfare in the Classical World*, Norman: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1995, 133-137.

개별 조달에서 국가 조달로, 군단 자체 공급에서 국가 일괄 공급 체제로 변화였고, 그 변화의 배경에는 무구 수요의 변화가 있었다.

4. 맺음말

로마의 철제 무구 공급체계는 군대의 규모에 따라 달라졌다. 건국 초기의 1개 군단만 존재할 때 현지 상인에게 구입하거나 주변 제조 기술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주문 제작하는 방식이었다. 로마의 영토가 팽창하면서 인구가 유입, 증가하였고, 영토 획득과 방어를 위해 전쟁이 빈번해지면서 징집하는 인원이 늘었다. 이에 기원전 4세기 무구 조달은 국가가 조달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는 군단의 수가 4배로 증가하는 상황, 즉 무구 수요의 급증이라는 상황과 맞물려 있었다. 물론 적의 침입에 대항하거나 공격 전쟁을 감행하기 위해 갑자기 대량의 무기가 필요할 때는 국가에서 노동자들을 모아 놓고 무구를 일괄 제작, 공급해주기도 하였다.

제정기 군단의 수가 공화정 말기 60여개에서 28개로 축소하고, 국경선을 상시 지키는 상비군 체제가 도입되면서 상황은 바뀌었다. 군대의 수가 줄어 무구 수요가 줄어들고, 상비군 체제로 인해 한 번 무구를 갖추면 일시에 대량의 무구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줄어들면서 무구의 공급체계는 개별 군단별 제조 방식으로 바뀌었다. 군단 내의 기술자들이 무구의 제조와 수리를 담당하였다. 3세기 국영 무구 작업장의 출현은 군대 규모의 급증과 군단 병력의 세분화로 인한 자체 기술자의 부재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로마의 철제 무구 수급체계는 개별 조달에서 국가 조달로, 다시 군단별 조달에서 국가 조달로 바뀌었다. 그러한 변화는 군단의 수요 변화에 따른 것이었다.

[원고투고일 : 2018. 3. 31, 심사수정일 : 2018. 8. 6, 게재확정일 : 2018. 11. 19.]

주제어 : 철제 무구, 수급체계, 자체 조달, 일괄 생산, 제조병, 국영 무구 작업장



〈참 고 문 헌〉

[1차 사료]

Ammianus Marcellinus, *Res Gestae*.

Caesar, *De Bello Gallico*.

Frontinus, *Strategemata*.

Gellius, *Noctes Atticae*.

Josephus, *Bellum Judaicum*.

Livius, *Ab Urbe Condita*.

Polybius, *Historiae*.

Tacitus, *Historiae*.

Vegetius, *Epitoma Rei Militaris*.



[2차 사료]

Bishop, M. C., *Roman Military Equipment: From The Punic Wars To The Fall of Rome*, Oxford: Oxbow Books, 2006.

Bowman, A. K., "Papyri and Roman Imperial History, 1960–1975," *Journal of Roman Studies* 66, 1976, 153–173.

Condron, F., "Iron Production in Leicestershire, Rutland and Northamptonshire in Antiquity," *Transactions Leicestershire Archaeological and Historical Society* 71, 1997, 1–20.

Cowan, R., *Imperial Roman Legionary AD 161–284*, Oxford: Osprey, 2003.

Craddock, P. T., "Mining and Metallurgy," in J. P. Oleson, ed., *The Oxford handbook of engineering and technology in*

- the classical worl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93–120.
- Dando–Collins, S., *Blood of the Caesars: How the Murder of Germanicus Led to the Fall of Rome*, New Jersey: Wiley, 2008.
- Erdkamp, P., ed., *A Companion to the Roman Army*, Oxford: Blackwell, 2010.
- Goldsworthy, A., *The Complete Roman Army*, London: Thames & Hudson Ltd, 2003.
- Jacobs, P. W. & Conlin, D. A., *Campus Martiu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5.
- Lee, A. D., *War in Late Antiquity: A Social History*, New Jersey: Wiley–Blackwell, 2007.
- MacMullen, R., “Inscriptions on armor and the supply of arms in the Roman Empire,” *American Journal of Archaeology* 64, 1960, 23–40.
- Penrose, J., ed., *Rome and her Enemies*, Oxford: Osprey Publishing, 2008.
- Phang, S. E., *Roman Military Service: Ideologies of Discipline in the Late Republic and Early Principat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 Schrüfer–Kolb, I., “Roman Iron Production in Britain Technological and socio–economic landscape development along the Jurassic Ridge,” *British Archaeological Report* 380, 2004, 1–32.
- Scullard, H. H., *Festivals and Ceremonies of the Roman Republic*,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1.

- Sekunda, N. V., *Caesar's Roman Soldier 753 BC to 117 AD*, Oxford: Osprey Publishing, 2000.
- Sim, D., "The manufacture of disposable weapons," *Journal of Roman Military Equipment Studies* 3, 1992, 105–119.
- Sim, D. & Kaminski, J., *Roman imperial armour: the production of early imperial military armour*, Oxford: Oxbow Books, 2012.
- Toynbee, J. M. C. & Clarke, R. R., "A Roman Decorated Helmet and Other Objects from Norfolk," *Journal of Roman Studies* 38, 1948, 20–27.
- Warry, J., *Warfare in the Classical World*, Norman: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1995.
- Watson, G. R., *The Roman Soldier*,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69.
- Webster, G., *The Roman Imperial Army of the First and Second Centuries A.D.*, Norman: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1998.

<Abstract>

Supply and Demand System of iron equipment in Roman arm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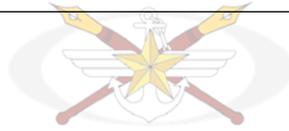
Bae, Eun-su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race the change and the cause of the Roman unrestrained method. As a result of the study, during the period when only one army was established in the early days of the founding of Rome, the soldiers procured themselves the equipment from the local metalworkers and merchants at their own expense. It was possible to pre-produce it because it was able to know the kind of equipment required and the time needed, that is, the war season from March to October. The individual procurement method of the equipment was changed to the national procurement method in the 4th century BC. The reason is that the number of corpses has increased fourfold, that is, the situation of a sudden increase in demand.

The existence of permanent workers in individual corps, the existence of technicians in corps, the existence of permanent users in fabrication and repair in corps suggest the possibility of individual corps to manufacture in the Roman Empire. The background of production by the legions is that the legionary soldiers did not need a large number of guns at once by reducing the size of the corps and reorganizing it into a standing army system. It was changed to the self-procurement system of the legions which manufactures and repairs the small items needed by the soldiers. In the

third century, the legion of the corps was reduced to a small size. Since it became difficult to place a manufacturing engineer in the corps, it was changed to a system of collective manufacturing from a state-owned workplace. Thus, in the Roman Empire, the way of procuring iron artifacts changed from individual procurement to national procurement, from the corps' own supply to a nationwide supply system. In the background of the change, there was a change in the total demand.

Key Words : Iron equipment, Supply and demand system, Individual Procurement, State-owned factory, Manufacturing soldier, Army scale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18, No. 109, pp.387-396
<https://doi.org/10.29212/mh.2018..109.11>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서 평]

모택동 시대의 북한-중국 관계에 대한 중화주의적 해석

Celestial Empire's view about the Sino-North Korean
relations of Mao era

- 선즈화(沈志華) 지음, 김동길·김민철·김규범 옮김,
『최후의 천조(天朝): 모택동 김일성 시대의 중국과 북한』(선인, 2017) -



이동원*

1. ‘중조관계’는 “혈맹”이라는 신화에 대한 비판

선즈화(沈志華)는 그의 최신작, 『최후의 천조(天朝): 모택동·김일성 시대의 중국과 북한』(선인, 2017)를 통해 모택동과 김일성을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연구원

이 서평은 Book Notes, *Seoul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ume 31, Number 1, The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June 2018, pp.129~135에 게재된 필자의 영문 서평을 일부 수정하고 번역하여 게재한 것입니다.

중심으로 1945년부터 1976년까지 ‘중조관계’의 역사를 정리하고 그 성격과 특수성을 밝히고자 했다. 그는 특히 중국과 한국에서 공유해 온 중조관계에 대한 오래된 신화, 즉 모택동-김일성 시대의 중조관계를 “혈맹”이나 “순망치한(唇亡齒寒)”, “동고동락(同苦同樂)”과 같이 아름답고 영원불변한 “우의(友誼)”로 인식하는 신화를 비판하고 역사적 사실을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선즈화는 1919년부터 1945년까지 “중조 공산당의 역사적 연원”을 밝히는 서장을 전사(前史)로 쓰고, 1945년부터 1976년까지의 시기를 6개 장으로 나누어 정리했다. 서장에서는 항일운동 과정에서 형성된 양국 공산당의 관계가 “반파시스트동맹 국가들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협력도 있었지만 갈등도 있었다.”고 설명한다. 조선인 공산주의자들 중에서도 “연안파”는 국제 통일전선의 동반자로서 중공과의 관계가 밀접했지만, 동북지역에서 활동했던 “유격대파”는 소련의 통제를 받으면서 중공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것이다.

제1장 “약즉약리(若即若離)”(1945~1949)에서는 두 공산당 정권이 수립되던 시기를 정리하면서 ‘중조’는 서로 지원을 주고 받으면서도 소련의 영향력 하에서 “가까운 듯 가깝지 않은” 상태였다고 설명한다. 스탈린은 모택동이 아시아혁명을 영도하는 것에 동의했지만 소련 극동 안전의 관문인 조선만은 예외적으로 자신의 통제 하에 두고자 했기 때문이었다. 이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중조관계의 역사는 큰 틀에서 중소조 삼국관계의 역사라고 할 만큼 소련 요소가 크게 작용하였다.

제2장 “조선전쟁”(1949~1953)에서는 중국이 ‘항미원조 전쟁’ 출병으로 객관적으로 조선반도에 관한 발언권과 주도권을 장악했으나, 전쟁 수행 과정에서 양국 지도부가 자주 충돌하고 갈등했음을 보여준다. 중조 간의 분쟁은 결국 모스크바의 최종 결정

에 따라 해결되었고, 스탈린은 양 지도자 가운데 예외없이 모택동을 지지했기 때문에 강렬한 민족독립 의식을 갖고 있던 김일성에게 이는 깊은 마음의 상처가 되었고, 중조관계의 진정한 우의는 결코 다져지지 않았다.

제3장 “주체의 제창”(1953~1956)에서는 정전 이후 김일성이 전후 복구와 반대파 제거에 성공했고, 주체사상을 내세웠지만, 1956년 ‘8월 종파사건’으로 중국과 소련이 조선의 내정에 간섭하면서 위기에 빠지는 과정을 설명한다. 모택동은 조선의 전후복구 과정에서 ‘천조(天朝)’ 의식을 바탕으로 조선에 대해 자신의 능력을 뛰어넘는 원조를 했지만, 중소 내정간섭 이후 김일성은 중국보다는 소련에 더 가까워졌다.

제4장 “회유정책”(1956~1960)에서는 1956년 10월 발생한 폴란드, 헝가리 사건 이후 모택동이 김일성을 회유하기 위해 1957년 말 내정간섭에 대한 과오를 인정하고 조선에 주둔하고 있던 중국 인민지원군 철군을 주동적으로 결정했음을 설명한다. 모택동은 연안파로 김일성을 대체할 생각이 없었지만 수십만의 중국 군대의 주둔은 김일성을 불안하게 했고, 중국인민지원군이 철수한 이후야 김일성은 비로소 조선 권력의 정점에 오를 수 있었다.

제5장 “중소분열”(1960~1966)에서는 1959년 10월 이후 중소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면서 김일성은 사회주의 국가관계 속의 외교 공간을 확대했고, 중소 등거리 외교를 통해 중국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어냈다. 김일성은 국경조약 체결을 통해 백두산의 주봉(主峰)과 천지(天池) 일부를 획득했고, 모택동은 조선을 “자기 가족처럼 생각하며” 국경지역 조선족의 대규모 북한 이동을 용인하면서 동북지역을 “조선의 대후방(大後方)”으로 규정하고 김일성에게 이 지역의 처리를 맡겼다. 그러나 김일성은 실용

주의 외교방침을 고수하면서 소련과 가능한 정상적 관계를 유지하고자 했고, 1964년 10월 브레즈네프의 등장 이후 조소 관계는 점차 회복되었다. 중소 두 대국이 팽팽하게 맞서던 상황에서 조선은 여유가 있었고, 오히려 중국은 수동적 상황에 처했던 것이다.

제6장 “모택동(毛澤東)”(1966~1976)에서는 중국의 ‘문화대혁명’ 발발로 중조관계가 다시 악화되었으나 1969년 10월 최용건의 방중 이후 양국 관계가 급속도로 완화되었고 우호관계를 유지했음을 밝혔다. 그러나 중미 화해 및 관계 정상화로 김일성은 모택동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었고, 모택동의 반제투쟁을 스스로 이어가고자 했다. ‘김일성주의’가 ‘모택동사상’을 대체했고, 세계혁명을 위해 주체사상이 제3세계에 수출되었다. 이때의 중조관계는 겉으로는 가까운 것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서로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상태였다. 그리고 모택동의 사망으로 중조관계의 한 시대는 끝이 났다.

선즈화는 모택동 시대 ‘중조관계 30년’에 대한 위와 같은 방대한 저술을 통해 모택동,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세대 동안 이어져 온 중조관계가 일종의 특수한 “형제” 관계였지만, 본질적으로는 대립적, 모순적이었다고 규정한다. 모택동은 무의식 속에 “천조(天朝)”의식을 가지고 중국이 아시아혁명, 나아가 세계혁명의 중심이 되도록 한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조선에 막대한 대가를 치렀다. 이와 반대로 김일성은 조선의 독립과 통일을 추구하며 중조관계에서 ‘주의(主義)’가 아니라 ‘이익’을 추구했다. 선즈화는 이 때문에 이 기간 중조관계는 본질적으로 대립적, 모순적이었으며, 이 점이 중조관계 불안정의 근본적 원인이었다고 결론 내렸다.

2. 이 책의 미덕과 논쟁점들

이 책의 미덕은 1945년부터 1976년까지, 30년이 넘는 모택동, 김일성 시대의 중조 관계를 9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으로 매우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이다. 긴 시기를 다루면서도 시기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서장에만 100페이지 가까운 분량을 할애하여 1919년부터 1945년까지 중조 공산당의 역사적 연원을 전사(前史)로서 친절하게 정리한 것도 독자들이 그 이후 역사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된다. 이종석의 선구적 연구인 『북한-중국관계 1945~2000』(중심, 2000)과 비교해도 특히 한국인 연구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중국과 소련 당안을 광범위하게 섭렵했다는 점에서 북한현대사나 중국현대사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한국현대사 연구자들에게도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연구가 그러하듯 이 책도 논쟁적이거나 모호한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일제강점기 및 해방 이후에 대한 서술의 문제이다. 선즈화는 1941년 후보중의 추천이 항일연군 내 김일성의 지위 상승을 가능하게 하였고, (124쪽) “88여단 출신이라는 김일성의 경력은 이후 모스크바가 그를 북조선의 통치자로 낙점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134쪽)라고 서술하여 김일성이 부상하는 과정에서 일제강점기 중국과 소련의 외부적 영향력을 강조했다. 그러나 북한은 물론이고 한국의 북한현대사 연구자들도 김일성이 좀 더 이른 시기부터 조선 사회 내부에서 두각을 나타냈다고 설명한다. 한홍구는 그의 박사학위논문에서 민생단 사건 해결 과정에서 김일성이 일정한 역할을 함으로써 조선인 공산주의자들 사이에서 명망을 얻었다고 주장했고,¹⁾ 이밖

1) Hongkoo Han, *Wounded nationalism : the Minsaengdan incident*

에도 1937년 6월 보천보 전투와 이에 대한 동아일보의 호외는 조선인들에게 김일성을 항일 무장투쟁의 상징적 인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선즈화는 430명의 조선인 독립운동가들을 죽음으로 몰고간 ‘반(反)민생단 사건’으로 조선인들이 “모두 새로운 인물들로 교체”되었다고 서술했을 뿐,(88쪽) 그 사건이 살아남은 조선인들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 보천보 전투와 같은 ‘작지만 시기적으로 의미있는’ 항일 무장투쟁이 조선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또한 국공내전 시기 동북내전에 대한 북한의 지원을 서술하면서도 북한이 2008년 출간하고, 2016년 재발간한 『중국 동북해방전쟁을 도와』를 인용하거나 평가하지 않았다. 이는 북한의 최근 인식이 중국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상세히 비교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아쉬운 대목이다.²⁾ 사소한 사실 관계의 오류들도 주로 이 시기 서술에서 나타난다.³⁾

둘째, 한국전쟁 관련 서술 문제이다. 선즈화는 선행 연구인 『마오쩌둥 스탈린과 조선전쟁』(선인, 2010)을 바탕으로 이 책

and Kim Il Sung in Eastern Manchuria, (University of Washington, 1999)

- 2) 국립중앙도서관 5층에 위치한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에서는 이에 관한 다음의 책들을 열람할 수 있다. 『중국 동북해방전쟁을 도와』(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8); 『중국 동북해방전쟁을 도와』(외국문출판사, 2016); 『중국동북해방전쟁 참가자들의 회상기 1,2』(조선로동당출판사 2011~2012)
- 3) 사소하지만 눈에 띄는 오류들은 다음과 같다. 100쪽 각주 158번, 광복군 부사령관을 맡았던 김약산의 본명은 김두봉이 아니라 김원봉이다. 158~159쪽에서 남로당과 공산당원의 대표적 인물에 홍명희를 포함시키는 것은 오류이다. 홍명희는 신간회 운동을 주도한 중간과 지식인이자 역사 소설 임격정(林巨正)을 쓴 문인으로, 1947년 10월 서울에서 창당된 민주독립당 당수였다. 1948년 4월, 김구, 김규식 등과 남측 대표로 남북협상에 참석한 뒤 북에 남았다. 169쪽, 북조선노동당 창당은 1948년 8월이 아니라 1946년 8월에 이루어졌다.

의 제2장에서 한국전쟁 시기를 서술했다. 그는 한국전쟁이 ‘공산주의 3각 동맹’에 의해 발발했다는 일반적 인식과 달리 스탈린과 김일성이 주도했고, 모택동은 ‘반대했으나 어쩔 수 없이 끌려들어간’ 상황이었다고 설명한다. 스탈린은 극동에서 중소우호조약으로 인한 ‘손해’를 만회하고 전쟁의 승패와 상관없이 부동항을 확보하기 위해 1950년 1월 ‘한국전쟁 승인’으로 조선에 대한 정책을 변경했고, 4월 김일성과의 회담에서 이를 최종 확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스탈린의 극동정책 전환 이유를 설명하는 선행연구에서 그는 “이 시기 스탈린의 조선 문제에 대한 생각은 완전히 추측에 의한 것”임을 자인했다.⁴⁾

또한 한국전쟁 개입에 대한 모택동과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태도에 대한 서술도 논쟁적인 성격이 강하다. 주지안룽(朱建榮)의 주장대로 모택동이 “미국이 한반도와 베트남, 타이완 등 3개 경로로 중국 본토를 침투하려 한다(三路向心迂回)”고 보았다면, ‘천조(天朝)의식을 바탕으로 한 국제주의적 공산주의자’인 모택동이 대만 문제와 조선 문제를 별개의 사안으로 보고 후자에 반대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⁵⁾ 1950년 10월의 출병 전에 두 차례나 출병에 유리한 기회가 있었으나 스탈린이 이를 허락하지 않아 “군사적으로 유리한 기회”를 놓쳤다는 설명도, (311쪽) 1950년 10월의 출병조차 중국공산당 내 다수의 반대에 부딪혀 모택동과 팽덕회의 적극적 설득으로 가능했던 것을 상기한다면

4) 셴즈화, 『마오쩌둥 스탈린과 조선전쟁』 선인, 2010, 217쪽. 셴즈화는 같은 책의 239쪽, 각주 77에서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스탈린의 극동정책의 전환 동기에 대한 판단은 역사적 자료들을 기초로 추론한 것이며, 현재 이러한 판단을 증명해줄 수 있는 직접적인 문헌 자료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5) 셴즈화는 중국의 한국전쟁 개입 과정에서 모택동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한 주지안룽, 『모택동은 왜 한국전쟁에 개입했을까?』, 역사넷, 2005. (원제: 毛澤東의 朝鮮戰爭: 中國가 鴨綠江을 渡る まで)는 인용하거나 평가하지 않았다.

스탈린의 승인과 무관하게 중국인민지원군의 조기 출병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⁶⁾ 이러한 모순들은 한국전쟁과 관련하여 스탈린의 책임을 강조하고 중국의 참전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선택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는 저자의 의도가 초래한 문제로 보인다.

1945년부터 1966년까지 시기를 1~5장까지 촘촘하게 서술했던 것에 비하면 1966년부터 1976년까지 시기에 대한 6장의 서술은 상대적으로 밀도가 떨어지며, 특히 데탕트 시기, 중미화해에 대한 설명은 지나치게 소략하다. 이는 이 시기가 저자의 주요 관심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1968년이 갖는 공산권 내부의 의미, 모택동 장기 집권에 대한 피로감, 중국 내부의 변화 등 다양한 가능성을 외면하고, 외부 위협에 의한 국가 안보의 “사면초가” 상태만으로 중미화해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필자의 서술 전략 때문이기도 하다. 흐루시초프의 수정주의와 모택동의 중미화해 사이에는 어떤 질적 차이가 있는 것인지도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책 전반에 흐르는 ‘자국 중심적’ 해석에 대해서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중국인 연구자로서 셴즈화가 중국 중심적 시각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어떤 연구자도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동북해방전쟁’에 대한 김일성의 지원은 ‘위성국’ 북한이 아니라 “사실상 소련의 중공에 대한 원조였다.”고 평가절하하면서(197쪽) 한국전쟁에 대한 모택동의 지원은 “마치 자기 집안의 일처럼” 여겨 진심을 다 했다고 설명한다면,(386쪽) 이는 균형감 있는 해석이라고 보기 어렵다. 셴즈화는 이 책에서 “중국공산당이 정권을 탈취하고 북조선과

6) 셴즈화도 선행 연구에서 1950년 8월 27일에도 “파병 문제가 아직 의사일정에 오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고 서술했다. (셴즈화, 『마오쩌둥 스탈린과 조선전쟁』 선인, 2010, 254~255쪽)

더불어 소련의 위성국으로 전락하는 일이 똑같이 벌어진 것”(180~181쪽)이라면서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도 소련의 위성국이었다고 서술했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한국전쟁기 모택동의 북한 지원도 사실상 소련의 지원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논리적 모순이 발생한다.⁷⁾

3. 새로운 연구 지평의 확대 가능성

냉전 시기 공산권 내의 전체적인 역학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의 문제는 중조 관계라는 양국관계를 넘어서는 문제이다. 특히 중국의 존재는 소련을 중심으로 구성된 유럽 공산권에 대한 이해보다 아시아 공산권에 대한 이해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즈화는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 등 각국 지도자의 심성(心性)과 무의식을 통해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고자 시도했다. 천조(天朝)의식, 반(反)사대주의, 주체사상 등 다양한 ‘주의(主義)’를 30년이 넘는 방대한 시기의 역사적 사건들과 연결시켜 서술한 그의 노력은 이 시기 공산주의 국제관계에 대한 새로운 연구의 지평을 제시하며, 또한 냉전 시기 자본주의 국가

7) 북한은 물론이고 한국의 북한현대사 연구자들도 북한이 소련의 위성국이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견을 제시할 것이다. 김성보는 역사문제연구소가 기획한 ‘청소년과 시민을 위한 20세기 한국사’ 시리즈 중 『북한의 역사 1』에서 “북한은 소련의 위성국가였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다음과 같이 답했다. “북한 정부는 소련의 직간접적인 영향력 아래에서 수립되었으나, 그렇다고 초기 북한을 단순한 위성국가로 볼 수 없다. (중략) 요컨대 1945년부터 1950년대 말까지 북한의 대외관계는 상대적 자율성에서 절대적 자율성으로 자율성을 확장하는 과정이었다.” (김성보, 2011 『북한의 역사 1 - 건국과 인민민주주의의 경험 1945~1960』 역사비평사, 243~246쪽)

들의 국제관계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도 새로운 통찰의 가능성을 제기한다.

이 연구를 통해 선즈화는 중조관계의 변화를 “전통적인 종번(宗藩)관계가 현대라는 조건 하에서 실질적으로 독립적이고 평등한 국가관계로 변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고, 이 때문에 중조관계가 ‘혈맹’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대립적, 모순적인 성격이었다고 결론 지었다. 위에서 지적한 몇 가지 논쟁적 지점에도 불구하고 선즈화의 이러한 통찰은 오늘날 중국이 왜 북한을 통제할 수 없는지, 그 역학관계와 신뢰관계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이 연구를 통해 중조관계와 이 시기 남북관계 및 한중관계에 대한 연구가 더욱 자극받고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18, No. 109, pp.397-408
<https://doi.org/10.29212/mh.2018..109.12>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서 평]

김영옥이 미래의 대한민국 영웅들에게 전하는 이야기

Colonel Young Oak Kim's Message to Korea's Future Heros

한우성 저, 『아름다운 영웅 김영옥』(북스토리, 2014)



이무형*

본고는 북스토리에서 2014년에 발간한 『아름다운 영웅 김영옥』에 대한 서평이다. 필자는 전쟁영웅, 리더, 인도주의자라는 3가지 관점에서 책의 주인공인 김영옥을 평가하면서 이 책이 가지는 장점을 설명하였고, 과거의 인물인 김영옥이 현 시대를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던지는 질문을 통해 이 책의 의미와 교훈을 되짚어 보았다.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에서 뛰어난 전투지휘로 미군에서 각종 훈장을 받으며, 미국에서는 역사상 가

* 육군사관학교 영어과 조교수

장 많은 훈장을 받은 아시아계 미군으로,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는 한국인 김영옥은 우리나라에서 오히려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아름다운 영웅 김영옥』에 묘사되어 있는 그의 일화들은 경이로움을 넘어 실로 기적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다. 전쟁 중 김영옥의 전투지휘는 그와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상관, 동료, 부하들이 “김영옥과 함께 하면 살 수 있다”라고 믿을 정도로 뛰어났다. 전쟁 이후 김영옥은 전장에서 보여주었던 사명감과 열정 이상을 보여주었다. 전쟁이 끝난 사회에도 누군가의 도움과 보호가 절실히 필요한 약자들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믿었던 김영옥은, 전쟁이 끝난 후에도 그들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이러한 김영옥의 업적은 한국 전쟁 당시 그의 도움으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전쟁고아들이 전후 대한민국을 재건하는 기반이 되게 했다. 그리고 김영옥의 이름을 딴 미국의 해외동포연구소와 중학교에서는 아직도 불세출의 전쟁영웅이자 위대한 인도주의자인 김영옥의 삶이 가르쳐지고 있으며, 한국군 장병들도 불패신화의 주인공인 김영옥의 리더십을 배우고 있다. 이 책은 김영옥의 출생부터 제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그리고 전쟁 이후의 그의 삶까지 풍부한 사진 자료들과 생생한 장면묘사들을 곁들여 편집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의 행동을 옆에서 보고 있는 듯한 시각적인 이해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준다. 김영옥의 업적과 그의 리더십에 대해 단편적으로 알고 있는 독자라면, 이 책을 통해 그의 성격 그리고 가치관까지 심도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1. 미래의 영웅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미국이라는 나라는 영웅 만들기를 참 좋아한다. 교환학생으로 美 육군사관학교에서 위탁생도로 유학생생활을 하게 된 나에게 미국은 어디를 가든 영웅들의 동상, 기념비, 상징물들로 꽉 찬 커다란 박물관 같았다. 특히 4년간의 웨스트포인트 생도생활은 조지 워싱턴, 맥아더, 아이젠하워 등 쟁쟁한 전쟁영웅들과 마치 동기생처럼 함께 살고 있다는 느낌마저 들게 만들었다. 내가 처음 김영옥이라는 이름을 접한 것 역시 한국이 아닌 미국이라는 사실은 어쩌면 우연이 아니었을지도 모르겠다. 그 당시 나는 김영옥을 그저 이민자의 아들로서 한국계 미군 중 한명으로 전투에서 훌륭한 업적을 남겼나보다 하는 정도로 치부해 버렸다. 그가 어떠한 환경에서, 어떻게 그러한 업적을 남겼는지는 궁금하지도 않았다.

그 이후 육사를 졸업하고, 두 번째로 내가 김영옥이라는 이름을 접한 것은 양평의 한 기계화보병사단에서 중대장으로 근무 중, 지평리 일대로 훈련을 나갔을 때였다. 때마침 프랑스에서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의 지평리 전적지 답사 행사와 일정이 겹쳤다. 덕분에 백발이 성성한 프랑스의 노장들과 이야기 나눌 기회가 있었다. UN군의 일부로 한국전쟁에 파견을 왔던 경험과 함께 반세기만에 놀랍도록 발전한 한국의 모습이 자랑스럽다고 했었다. 그런 그가 나에게 김영옥을 알고 있는지 물어왔다. 하지만 나의 얕은 전쟁사 지식으로 인해 그냥 그런 사람이 있는 줄은 안다고 얼버무렸다. 그러자 그 노장은 김영옥이 제2차 세계대전에 프랑스 동북부의 비퐁텐 마을에서 독일군과 싸웠다는 사실과 아직까지도 프랑스인들은 그의 업적에 감사하는 마음과 존경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중대장으로 활약하던 김영

옥의 나이는 불과 20대 중후반. 나 역시 비슷한 나이에 중대장으로 하고 있었으므로 자연히 그가 어떤 업적을 남겼기에 이렇게 먼 타지에서 온 프랑스인들에게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을까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다.

나는 궁금해졌다. 도대체 김영옥은 어떤 사람이기에 한국계 미국인이면서 한국에서 보다 미국, 프랑스, 독일에서 영웅으로 더욱 추앙받고 있으며, 특히 미군에서는 자유의 메달(Medal of Freedom)이라는 훈장과 함께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훈장을 받은 아시아계 미군으로 남게 되었을까. 그가 가진 남다른 능력, 인성, 그리고 인생의 목표가 궁금하던 시기에 나는 『아름다운 영웅 김영옥』이라는 책을 손에 들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책을 읽고 나니, 김영옥이라는 인물을 크게 3가지 측면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김영옥, 그는 군인으로서 전쟁영웅이자,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리더, 그리고 사회와 공동체를 사랑하는 인도주의자였다. 내가 『아름다운 영웅 김영옥』이라는 책을 읽고 느낀 점을 내가 지도하고 있는 미래의 리더인 육사 생도들에게 소개하고, 현역으로 복무 중인 수많은 한국군 장병들에게 알려서 언젠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영웅이 우리나라에서 다시 한 번 나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써 보았다.

2. 위국헌신의 진정한 전쟁영웅(War Hero)

책을 통해 본 김영옥이 남긴 군인으로서의 영웅적인 업적은 너무나도 많았다. 대표적으로 이탈리아에서는 로마 해방의 주역이자 피사 해방의 장본인으로 연합군 최초로 피사의 사탑 꼭대

기까지 올라갔었다. 프랑스의 브뤼에르 전투에서는 자신의 생명을 내놓을 정도로 적군의 생명 또한 아끼는 모습도 보여주었다. 한국전쟁에서는 김영옥의 불패 신화의 힘으로 말미암아 38선 이남에 형성돼 있던 중부전선을 60km나 북상시켰다. 또한 한국전쟁 이후 한국군 군사고문으로 활동하며, 제2의 한국전쟁에 대비해 한국방어계획을 대대적으로 현대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 많은 업적 중에서도 가장 나의 가슴을 뜨겁게 한 사건이 바로 이탈리아 안지오(Angio)에서의 포로 생포 일화이다.

1943년 9월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무렵, 이탈리아의 안지오에서 상륙작전을 감행한 후에 연합군과 독일군은 팽팽한 대치를 계속 하고 있었다. 양측은 ‘주인없는 땅(No-man's land)’이라 부르던 사이의 공간지를 두고 지루한 소모전을 이어갔다. 총탄이 빗발치는 이곳에서는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적으로 간주되고, 움직이는 어떤 물체도 예외 없이 양측에서 쏟아지는 총탄을 맞아야 했다. 당시 연합군에게는 독일군이 북이탈리아에 불러들인 탱크사단의 위치를 파악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과업이었다. 탱크사단에 위치에 따라서 연합군 주공의 공격방향과 작전의 성공이 달려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누구도 이 위험한 ‘주인없는 땅’을 가로질러 적진으로 들어갈 엄두도 못 내고 있었으며, 그로 인해 적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기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었다.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고 하였는가! 이토록 열악하고 혹독한 환경에서 김영옥은 기지를 발휘하여 전쟁영웅으로서의 업적을 남기게 된다. 누구도 들어가고 싶지도 들어갈 수도 없는 ‘주인없는 땅’으로 김영옥은 투입되기를 자원하였다. 자신의 뛰어난 지형분석 능력으로 적진으로의 침투로를 찾아내고, 적들의 행동을 며칠간 면밀히 관찰하여 침투시간을 판단하였다. 단 한명의 부하

만을 데리고 가장 취약한 시간에 침투하여, 지뢰지대를 헤치고 적진 한가운데서 2명의 독일군 포로를 잡아 기적적으로 복귀하였다. 김영옥이 잡아온 포로를 통해 얻은 정보로 연합군은 성공적인 작전을 완수할 수 있었으며, 김영옥은 이 공을 인정받아 미군에서 특별무공훈장, 이탈리아 정부에서는 동성무공훈장을 받게 된다.

나는 상상해 보았다. 이십대 후반의 김영옥은 미국에 남겨진 가족과 살고자 하는 열의를 뒤로하고, 어떻게 생사를 넘나드는 사지로 뛰어들 수 있었는지. 그는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지. 그리고 그 나이에 나였더라면 과연 김영옥처럼 행동할 수 있었을지. 이 책을 통해 나는 잠시나마 김영옥과 같은 상황에 처한 나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었다. 전쟁 경험이 없는 나에게 그 고민자체가 값진 경험이 되었다. 그리고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한 우리 세대의 모든 군인들이 이 책을 읽으며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할 질문이라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다.

3. 인종차별과 편견을 극복한 리더(Leader)

김영옥이 태어난 시대는 김영옥에게 참으로 가혹한 시기였다. 한국계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세 가지의 힘든 싸움을 해야 했다. 첫 번째는 양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일본군과 독일군이라는 적과의 싸움. 두 번째로는 미국이라는 국가가 한국계 미국인들에게 갖고 있는 의심과 편견에 대한 싸움. 세 번째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는 한국인에게 쏟아지는 편견과의 싸움이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이 셋 중 하나의 싸움에만 휘말리더

라도, 숨 막힐 듯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날 속에서 자신의 운명을 탓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김영옥은 그렇지 않았다. 미국 이민자의 아들이자, 나라를 잃은 한국인의 자손이자, 미군에 복무하며 전쟁에서 싸우는 자신의 운명을 누구보다도 당당하고 지혜롭게 헤쳐 나갔다.

독립운동가의 아들로 태어나 일본 아이들과는 놀지도 말고 일본 음식은 먹지도 말라고 교육을 받으며 자랐던 김영옥이 100대 대라는 일본계 미국인으로 이루어진 부대에 배치된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었다. 훗날 유색인종으로서서는 처음으로 이탈리아 전역에서 100대대 지휘관으로 참전하게 되었고, 김영옥 자신도 이 사실에 대해 상당한 자부심을 가졌다. 하지만 소위로 임관한 그가 처음으로 100대대에 갔을 때 주변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특히, 김영옥을 처음 본 상급자는 대뜸 그에게 “김 소위는 한국계가 아닌가. 뭔가 착오가 있는 듯하다. 한국계와 일본계는 양속 아닌가. 그러니 다른 부대로 가는 게 어떤가.”라고 말했다. 그 상급자는 일본과 한국의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김영옥이 100대대에서 지휘를 맡는 것인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김영옥은 그러한 상급자를 향해 담담하게 말했다. “저도 미국인이며, 그들도 미국인입니다. 우리 모두 미국 시민이며 같은 목적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그 상급자는 만약 일본계 미국인 부하들이 김영옥을 받아들인다면 임무를 계속 수행해도 좋다는 조건을 걸었다.

한국계인 김영옥이 일본계 부하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부하들과 자신은 동등하다는 겸손함과 부하들의 목숨을 자신의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는 전우애였다. 이러한 그의 마음가짐을 보여주는 일화가 독일 치우사노에서 일어난 명령불복종 사건이다. 길을 따라 소대를 전진시키라는 중대장, 대대장, 군의관

의 명령과 권유에도 불구하고 김영옥은 적의 명백한 위협에 자신의 소대원들을 사지로 내몰 수 없다고 말하며 상대적으로 위협이 적은 계곡 쪽으로 공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급자들은 명령불복종으로 군법회의에 회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김영옥은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생각을 주장했다. 하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상관의 의도대로 지시를 수명하였다. 이 일화는 관점에 따라서는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김영옥의 모습이 상명하복의 바람직한 군인의 모습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김영옥의 주장은 언제나 자신의 안위나 단편적인 지식에 의지한 아집이 아니었다. 부하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군사적 지식과 논리적인 상황판단에 입각한 합리적인 주장이었다. 그리고 결국에는 위협을 무릅쓰고 상급지휘관의 명령을 이행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부하들은 김영옥을 그냥 보통의 한국계 장교가 아닌 진정한 자신들의 리더로 깊이 신뢰하게 되었다.

나 역시 美 육군사관학교(웨스트포인트)에서 위탁교육 프로그램으로 4년을 보냈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반세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라는 나라에는 여전히 잘 보이지 않지만 인종간에 벽이 존재하였다. 특히 유학 1년차에 영어가 잘 들리지도 않고 유창하게 말할 수도 없을 때였다. 일부 미국 백인들은 차별을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차가운 그들의 시선에서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외국에 나가면 누구나 애국자가 된다고 말하였던가. 외롭고 힘든 시간이 찾아 올 때마다 대한민국 국가 대표라는 생각과 한국인이라는 민족을 대표한다는 생각이 더욱 강하게 나를 찾아왔다. 그리고 그 생각은 나에게 차가운 시선과 무관심을 이겨낼 용기를 샘솟게 했다. 이런 나의 과거에 대한 회상이 김영옥의 삶에 대한 생각으로 미치기 시작했다. 모든 부하가 자신의 모국을 알잡아 보는 일본계이고, 모든 상급자들은 자

신의 능력을 의심하는 백인으로 둘러싸여 있는 상황이라면. 김영옥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

한국군에 복무 중인 장병들에게는 누구나 과병이나 위탁교육을 갈 기회가 생길 수 있으며, 특히 용사들에게는 전역 후 유학이나 여행을 갈 기회가 생길 것이다. 누구나 타지 생활이 힘들 수 있지만, 김영옥은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힘든 상황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었다. 자신의 상황을 타하며 운명에 굴복하기 보다는, 겸손함과 전우애로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끊임없는 노력으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는 일은 누구나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다.



4. 끝없는 열정의 인도주의자(Humanitarian)

전쟁은 많은 영웅들을 낳는다. 하지만 김영옥은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많은 영웅 중의 한명으로 그치지 않는다. 오히려 전쟁이 끝난 이후부터 그의 업적이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전역 후 다양한 활동들을 활발히 이어나갔다. 그의 이러한 인도주의적 행보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전쟁이 한창인 시기에서도 김영옥은 주변에 보이는 전쟁고아들, 민간인 여성이나 포로로 잡힌 여군들을 보호하는데 남다른 애착을 보였다.

전쟁 중에 약자를 보호하는 일은 절대 쉽지 않았다. 하지만 김영옥은 이러한 일들이 군의 작전 성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창의력을 발휘하여, 민군(民軍)이 상생하며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정착시켰다. 그야말로 민군작전의 성공사례라 할 수 있겠다. 그 중 일례가 바로 한국전쟁 당시 대대장으로서 자신이 지휘하는 1대대가 경천애인사에 500여명의 전쟁고아를 돌보도록 한 것이다. 김영옥은 전투부대에 과도하게 보급되는 맥주를 적정량으로 줄이고 나머지는 지원금으로 전환시켰으며, 부대원들과 그들의 가족들로부터 지원물품을 받아 경천애인사에 기부하였다. 하지만 그의 창의적인 활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고아원에 지원금과 지원물품 전달에서 장교들을 제외시키고, 모범 용사들이 며칠씩 외박과 함께 경천애인사를 다녀오는 특전을 주었다. 이러한 활동은 전쟁고아들에게도 좋은 일이었지만 장병들의 정서순화에도 도움이 됐다. 한국이라는 들어본 적도 없는 나라에 와서 전쟁을 하고 있는 장병들에게 목적의식을 심어주고, 고아원을 돕는다는 사실에 대해 무한한 자부심을 느끼게 만들었다. 이는 딱딱한 정훈교육보다 훨씬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진 김영옥의 대대는 사기가 높을 수밖에 없었으며, 이로 인해 경천애인사와 1대대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상생관계로 발전하였다.

이탈리아 몬테카시노 전투에서 김영옥은 많은 전우들을 잃었다. 그리고 전우들이 떠난 자리에 쓸쓸히 남겨진 김영옥은 ‘만일 내가 이 전쟁에서 살아남는다면 내가 속한 사회를 보다 나은 곳으로 만드는 일에 평생을 바치겠다.’고 결심했다. 전역 후 캘리포니아로 돌아온 김영옥은 재미한인사회를 위해서 한인건강정보센터를 설립하고 육성하여 저소득층 이민 1세대와 노인들, 18세 이상 장애인이나 병약자들에게 건강정보와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재미일본인사회를 위해서는 일본계 미군 장병 제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회 회장을 맡아 그들의 권익을 옹호였다. 또한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아동을 위해 아시아·태평양계 가정폭력 피

해여성과 그 자녀들을 위해 가정폭력 피해여성보호소도 발전시켰다. 김영옥은 몬테카시노 전투에서 전사한 그의 전우들 앞에서 했던 그의 결심을 죽는 날까지 지켜나갔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영토는 과거의 수많은 선조들의 희생 위에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가 누리는 지금의 자유와 평화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선조들의 피와 땀으로 얻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태어났다면 우리가 누리는 그런 자유와 평화를 만들어 준 사회와 공동체를 위해 무엇인가 기여해야 한다는 생각을 항상 가져야 한다. 그리고 김영옥이 전장에서 했던 그 결심을 전역 후에도 실천하며 살았던 것처럼, 앞으로 전역을 하고 사회로 진출할 모든 장병들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나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모두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때 우리의 사회와 공동체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리라 확신한다.

5.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김영옥이 던지는 질문

『아름다운 영웅 김영옥』이라는 책을 읽으며, 나는 김영옥과 함께 독일 안지오의 ‘주인없는 땅’에서 숨죽이고 포복했으며, 프랑스 비퐁텐에서 상식에 벗어난 사단장의 명령에 분노도 하고, 오른손에 총상을 입은 채 탈출했으며, 한국에서는 부모 잃은 고아들을 보며 함께 가슴아파했다. 작가의 너무나도 생생한 묘사와 스토리텔링 기술은 읽는 이로 하여금 마치 그 자리에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만들었다. 전장을 누비며, 편견과 싸우고, 약자를 돌본 김영옥의 일대기를 통해 나는 그를 “위국헌신의 진정

한 전쟁영웅(War Hero), 김영옥! 인종차별과 편견을 극복한 리더(Leader), 김영옥! 끝없는 열정의 인도주의자(Humanitarian), 김영옥!”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김영옥은 안지오 전투에서 보았듯이, 임무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릴 줄 아는 용기를 갖추었다. 그러한 위국헌신의 용기는 군인이라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가장 고결한 가치라 할 수 있다. 또한 김영옥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굴하지 않고, 편견에 맞서 싸우며, 부하의 목숨을 자신의 목숨보다 우선하는 헌신과 존중의 가치를 통해 부하들의 마음을 얻어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사회의 약자들을 위해 자신의 최선을 다하는 정의와 봉사의 신념은 우리 모두에게 울림을 전해준다. 이러한 영웅 김영옥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국민들에게 던져주는 다음 세 가지 물음에 스스로 답해보라고 하고 싶다.

당신의 나라가 전쟁위기에 처했다면, 국가의 부름에 응하여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는가?

자신이 처한 현실과 운명에 굴하지 않고, 스스로의 노력과 능력으로 개척해 나갈 것인가?

이 땅에 태어난 국민으로서 사회와 공동체를 위해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연구소 동정

1. 제16대 연구소장 취임 : '18. 10. 1. 부

- 인적사항 : 조성훈 박사 (한국현대사)
- 주요경력
 - 단국대 / 한남대 외래교수
 - 미 메릴랜드 주립대 방문연구원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전쟁사부장
 - 한국정치외교사학회 부회장
 - 한국전쟁학회 회장
- 주요저서
 - 군사분계선과 남북한 갈등
 - 6·25전쟁과 국군포로
 - 한·미군사관계의 형성과 발전
 - 정전협정 등 다수



2. 2018년 등재 학술지 계속평가

- 주관 : 한국연구재단
- 기간 : 2018. 4. ~ 10.
- 결과 : 등재학술지 유지
- 세부내용

구 분	계	체계평가 (정량평가)	내용평가 (정성평가)	학문분야 특수평가
배 점	100점	30점	60점	10점
득 점	95.86점	30점	56.46점	9.4점

3. 제44회 국제 군사사학회 연례총회 및 세미나 참석

- 기간 및 장소 : '18. 9. 1~ 9 / 이스라엘(예루살렘)
- 참석인원 : 김승기 부장, 이종재 연구원.
- 주요내용 : 주제발표(3·1운동과 대한민국 수립) 및 회원국가 참석인사 상호교류 등

4. 연구소 자문회의 개최

구 분	역대소장 초청	자문위원 초청
일 자	11. 15.(목)	12. 13.(목)
주요내용	연구소 발전 및 주요 연구편찬 방향 등	



자료 기증은 군사사 연구의 생명입니다.

〈정보자료실 제공〉

군 관련 자료를 소장하고 계신 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연구소는 최적의 자료 보존 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여러분이 제공한 자료는 생생한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자료기증안내〉

◇ 수집대상자료

- 전사자료 : 한국전쟁, 월남전쟁에 관한 피아 작전관계 문서, 지도, 사진 등 전사자료와 참전증언 자료
- 군사사 자료 : 군사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군사문헌, 고증 사료

◇ 수집방법

- 소장자료를 아래 주소로 보내 주시거나, 전화 또는 서신으로 소장자료 제공 의사를 알려 주시면 출장 방문하여 수령하겠습니다.
(비제공 자료는 복제 후 반환)

※ 기증해 주신 자료는 영구 보존되며 장병 및 국민들에게 공개 활용됩니다.

◇ 연락처

- 주 소 : (☎140-021)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9(용산동 1가 8번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정보자료실
- 전 화 : (일반) 02)709-3188, 3199
(군) 900-1686, 1688

〈자료이용안내〉

◇ 공개자료 종류

- 장 서 : 역사, 군사도서 등
- 사 료 : 한국전쟁, 월남전쟁, 국방, 군사사, 수기 등
- 기 타 : 학술논문, 수기, 회고록, 간행물 등

◇ 장 소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정보자료실(전쟁기념관 4층)

◇ 이용시간

- 평 일 : 09:30~17:30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 휴무

◇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 주 소 : www.imhc.mil.kr
- 주요내용 : 소장도서목록, 연구소 역대발간서적 원문서비스,
거제도포로수용자 / 호국전몰용사공훈록 DB 검색 등

『軍史』誌 投稿案内

1. 원고 내용 및 범위

- 가. 국내외 군사정책/ 전략·군사제도·전쟁/ 전투에 관한 역사적 내용
- 나. 한국의 국방 및 안보와 관련한 정치사·외교사·軍事史 분야에 관한 내용
- 다. 가·나항과 관련된 연구논문, 자료소개, 서평(102호부터 신설, 별도 이메일 접수), 연구동향 등
- 라. 기타 군사편찬연구소 연구활동과 부합되는 글
 - ※ 투고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함.

2. 원고 작성 요령

- 가. 원고는 한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한문과 원어는 꼭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첫 번에 한하여 괄호 안에 표기함.
- 나. 원고 분량은 각주를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
- 다. ㄷ는 각주를 원칙으로 하고 각주 번호는 반괄호 안에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함. 각주의 표기는 저자, 「논문」, 『계재지 또는 저서』, 발행처, 발행연도, 페이지의 순서로 함.
 - 예 : 홍길동, 「00에 관한 연구」, 『군사』제80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1, 99~101쪽.
- 라. 외국어로 된 경우 각주의 표기는 저자, 서명, 발행지,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의 순서로 하고 서명은 이탤릭체, 쪽수는 'p', 'pp'로 표기한다.
 - 예 : Hong Gildong, "History of Republic of Korean Army", *Military History*, Vol. 82, (2012, 3), p.40.
Hong Gildong, *Korean Military History*(New York: Mcgrow-Hill, 2010), pp.100~110.

마. 참고문헌은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된 모든 문헌의 자세한 문헌정보를 논문 말미의 참고문헌에서 명시.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되지 않은 문헌은 포함시키지 않음.

바. 참고문헌은 인문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시카고 스타일을 적용

사. 참고문헌 중 전자출판된 학술지 논문은 저자명, 논문제목, 학술지명 및 발행호수(발행연도) : 페이지수, DOI 또는 UCI 표기

예1 : UCI 홍길동, “대한민국의 역사”, 『군사』103호(2017):330-359,
[http:// uci.or.kr /G704-001528.2017..103.010](http://uci.or.kr/G704-001528.2017..103.010)

예2 : DOI 홍길동, “대한민국의 역사”, 『군사』103호(2017):330-359,
<http:// doi.org/10.12345 / imhmnd.2017.105..103.010>

※ DOI 정보는 해당논문에서 식별할 수 있으나 UCI 정보는 한국연구재단의 한국연구자식별정보(KCI)에서 식별할 수 있음.

아.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존 『軍史』지 예규를 참고하기 바람.

3. 투고 요령

가. 원고는 그대로 게재할 수 있는 완성된 형태의 글 파일(000.hwp) 이어야 하며 원고 제출은 군사지투고시스템에 탑재하여야 함.

※ 최초 투고시 저자 이름 삭제(파일명 포함), 이후 수정논문 탑재시 저자이름을 포함

나. 군사지투고시스템은 인터넷에서 군사편찬연구소 홈페이지 우측상단에 바로가기로 접속할 수 있으며, 논문과 투고계획서(국문 및 영문초록), 저작물이용동의서, 논문유사도 검사결과서를 탑재하여야 함.

1) 투고계획서와 저작물이용동의서의 양식은 군사지투고시스템의 공지 사항에서 다운받아 사용

2) 논문유사도검사결과서는 한국연구재단의 KCI의 논문유사도 기능을 활용하여 결과서를 다운받아 제출

다. 공동집필의 경우, 대표집필자 명의로 ‘투고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집필자는 각주에 표기함.

- 라. 심사가 끝난 후 수정논문을 작성하여 논문유사도를 검사결과서, 수정문 요약본과 함께 군사지투고시스템에 탑재
- 마. 세부사항은 군사지투고시스템의 공지사항에서 확인

4. 원고 심사 및 고료

- 가. 원고의 게재 여부는 당 연구소에서 심의를 거친 후 결정함.
- 나. 접수된 원고는 게재 여부에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음.
- 다.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함.
 - ※ 국방부 본부 및 산하기관의 공무원, 군인, 군무원에게는 소정의 격려품 (기념품)을 지급함.
- 라.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당 연구소에 귀속됨.

5. 발간시기 및 원고 접수기간

연간 4회 발간(3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12월 15일)함. 따라서 1월 1일까지 접수된 원고는 3월에, 4월 1일까지 접수된 원고는 6월에, 7월 1일까지 접수된 원고는 9월에, 그리고 10월 1일까지 접수된 원고는 12월에 게재함.

6. 문의/연락처

- 가.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9(우편번호 : 0435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軍史』誌 편집위원회
 - 전화 : 02-748-1667(윤재두)
 - FAX : 02-709-3111
 - E-mail : imhc2@mnd.go.kr

나. 연구소 인터넷 홈페이지

www.imhc.mil.kr

내용 : 연구소 소개, 소식, 신간안내, 회원모집,
정보자료실(소장도서, 인명DB검색 등)

연구윤리예규

군연-예16

제정 2007. 7. 1

부분개정 2008. 12.1

부분개정 2009. 11.1

부분개정 2017. 8. 1

<목 차>



제1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418
제 2 조	적용대상	418
제 3 조	적용범위	418
제 4 조	용어의 정의	418
제 5 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419

제 2 장 연구자와 연구소의 역할과 책임

제 6 조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420
제 7 조	연구소의 역할과 책임	421

제 3 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 8 조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422
-------	--------------	-----

제 9 조 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422

제10조 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422

제11조 본 조사 착수 및 기간 423

제12조 조사위원회의 구성 423

제13조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424

제14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424

제15조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425

제16조 판 정 425

제17조 본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425

제 4 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18조 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 426

제19조 결과에 대한 조치 426

제20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427

부 칙 42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 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예규는 본 연구소 내 연구편찬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있는 모든 연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예규에 의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 
1. “연구 원자료”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자가 실험, 관찰, 조사 등을 거쳐 수집한 가공 이전의 자료와 문헌 등을 말한다.
 2. “연구자료”란 연구 원자료를 가공한 자료와 이를 활용한 2차 자료 및 문헌을 말한다.
 3. “연구결과”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얻은 연구자료를 활용하여 도출한 체계화된 결론을 말한다.
 4. “연구결과물”이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은 결과를 기술한 보고서·논문·간행물·단행본 등의 학술적 지식 재산을 말한다.

제 5 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① 연구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사료,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사료·사진·증언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기여를 한 연구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연구자와 동등하거나 유사한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6.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②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 연구소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③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본 연구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 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⑤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⑥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 2 장 연구자와 연구소의 역할과 책임

제 6 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연구대상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공정한 대우를 한다.
- ②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보호 되어야 한다.
- ③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를 진행한다.
- ④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을 견지한다.
- ⑤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한다.
- ⑥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을 인정하고 존중한다.
- ⑦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을 견지한다.
- ⑧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

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를 명시한다.

⑨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를 진행한다.

제 7 조(연구소의 역할과 책임)

① 연구소는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과 연구 문화를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연구소는 연구윤리 확립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연구윤리 예규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연구소는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부정행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연구수행 과정에서의 갈등이나 분쟁을 중재하거나 조정하는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연구소는 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해 검증·판단하는 기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⑤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연 1회 정기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한다.

⑥ 연구소는 교육부장관 또는 상급기관의 장이 연구윤리 실태 조사 등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때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⑦ 연구소는 인지하거나 제보 받은 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여야 하며, 교육부 장관, 전문기관 및 대학 등으로부터 소속 연구자의 연구부정 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 또는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3 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 8 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 ① 제보자는 기획운영실장에게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에 한하여 허용한다.
- ②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③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 9 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 ①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소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내용이 제5조 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 ③ 예비조사는 기획운영실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 10 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 ① 예비조사 결과는 소장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연구지원

기관과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본 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11조(본 조사 착수 및 기간)

① 본 조사는 소장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 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 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본 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③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소장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조사위원회는 소장이 임명(위촉)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사위원회 위원(위원장)은 연구편찬분야 연구원으로 구성하고,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반드시 군사사(軍事史) 분야 외부전문가 1인 이상 포함하여 위촉한다.

③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④ 본 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 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3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소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할 수 있다.

제14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소장은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③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기관장과 관계 직원은 조사 및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5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6조(판정)

- ①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 ②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본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 ① 조사위원회는 판정 후 10일 이내에 본 조사 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소장에게 보고한다.
- ② 최종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조사위원 명단

제 4 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18조(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

- ① 최종보고서는 소장 승인을 득한 후 10일 이내에 해당 연구과제를 지원한 기관에 제출하며, 상급기관 등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선 조사과정 중이라도 즉시 연구지원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 밖의 연구지원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19조(결과에 대한 조치)

- ①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조사위원회는 소장에게 징계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② 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른 관련 규정에 의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기획운영실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②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 · 조사위원 · 증인 · 참고인 ·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軍史』誌는 한국연구재단의 등재 학술지입니다.
(’08년 선정)

☎ 편집위원장

양영조(군사편찬연구소)

☎ 편집위원(가나다순)

강창부(공군사관학교)	기광서(조선대학교)
김강식(한국해양대학교)	김창석(강원대학교)
박걸순(충북대학교)	박태균(서울대학교)
손규석(군사편찬연구소)	신명호(부경대학교)
심승구(한국체육대학교)	오영섭(연세대학교)
윤경진(경상대학교)	이근옥(서강대학교)
이상호(군사편찬연구소)	이신재(군사편찬연구소)
이한우(서강대학교)	전호수(군사편찬연구소)
정용욱(서울대학교)	

☎ 편집간사

윤재두(군사편찬연구소)

軍 史 2018/12(第109號)

2018년 12월 7일 印刷

2018년 12월 15일 發行

發行處_ 國防部 軍史編纂研究所

(우편번호 : 04353)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TEL : 748-1667 FAX : 709-3111

印刷處_ 국군인쇄창 (M18111351)

本誌에 실린 論文內容은 當 研究所의 公式見解가 아님.

청결@세상

유능한안보
튼튼한국방

부정청탁의 손길 나라가 무너집니다.



대한민국 국방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